일반국민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KNDU Survey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s

결과보고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4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KNDU Survey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s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록함
2.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 의해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수행됨
3. 일반국민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는 국방·안보정책 수립 경험자 및 전문가, 영향력이 있는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4. 통계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답자 특성별 분석 시 표본 수 30이하의 계층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음
6. 추이분석은 2024년과 2015~2022년까지 문항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음
   단, 2023~2024년 신규문항 및 1+2순위 문항은 별도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7. 자세한 내용은 조사개요, 조사결과에 수록되어 있음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 1

Ⅰ. 조사목적 ····· 1

Ⅱ. 조사방법 ····· 1

Ⅲ.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

Ⅳ. 응답자 특성 ····· 2

제2장 주요결과 요약 ····· 5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5

Ⅱ.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 ····· 7

Ⅲ.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 ····· 12

Ⅳ. 북한 관련 사항 ····· 16

Ⅴ.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20

Ⅵ.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 22

제3장 조사결과 분석 ····· 27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27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 27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30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33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6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72

Ⅱ.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 ····· 108

1.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 108
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14
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28
4.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 142
5.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 145
6.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148
7.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154

Ⅲ.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 ····· 158

1. 한·미동맹 관계 ····· 158
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63
3.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 175
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 181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 184
6. 주한미군 주둔 시기 ····· 187
7.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90
8.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 202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 207

Ⅳ. 북한 관련 사항 ····· 210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210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213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216
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 219
5.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 222
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 225
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 228

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231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 234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237
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 240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 243
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 246
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 249
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 252
16. 한반도 통일 전망 ····· 255
17. 한반도 통일 방식 ····· 258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 261

Ⅴ.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264

1.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 264
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 267
3. 군복무 경험 ····· 273
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 278
5.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 ····· 281
6.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 ····· 283
7.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 285
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289
9.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 292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 294
11.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 297
12.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 300
13.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303
14.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306
15.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 309
16.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 312
17.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 314
18.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 316

19.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319
20.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 322
21.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 325
22.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328
2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 331
2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37
2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55

Ⅵ.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 370

1. 징병제에 대한 생각 ····· 370
2.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 372
3.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 375
4.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 377
5. 군대 내 인권 ····· 380
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 386
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 389

제4장 부록1. 설문지 ····· 395

〈표 차례〉

|표 1-1| 응답자 특성표 ····· 2

|표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8

|표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 29

|표 3-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

|표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32

|표 3-4|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

|표 3-5|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35

|표 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

|표 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 ····· 38

|표 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0

|표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 41

|표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3

|표 3-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 44

|표 3-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6

|표 3-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 ····· 47

|표 3-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9

|표 3-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 ····· 50

|표 3-1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2

|표 3-1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 53

|표 3-1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5

|표 3-1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 56

|표 3-2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8

|표 3-2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 ····· 59

|표 3-2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1

|표 3-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 62

|표 3-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4

|표 3-2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 65

|표 3-2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7
|표 3-2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 68
|표 3-2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0
|표 3-2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 ····· 71
|표 3-3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3
|표 3-3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 ····· 74
|표 3-3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6
|표 3-3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 ····· 77
|표 3-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9
|표 3-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 ····· 80
|표 3-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82
|표 3-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 ····· 83
|표 3-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85
|표 3-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 86
|표 3-4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88
|표 3-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 89
|표 3-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1
|표 3-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 92
|표 3-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4
|표 3-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 95
|표 3-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7
|표 3-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 ····· 98
|표 3-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0
|표 3-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 101
|표 3-5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3
|표 3-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 ····· 104
|표 3-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6
|표 3-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 ····· 107
|표 3-54|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109

|표 3-55|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110
|표 3-5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2
|표 3-57|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113
|표 3-5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5
|표 3-5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 ····· 116
|표 3-6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8
|표 3-6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 ····· 119
|표 3-6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1
|표 3-6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 ····· 122
|표 3-6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4
|표 3-6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 ····· 125
|표 3-6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 ····· 127
|표 3-6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9
|표 3-6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 ····· 130
|표 3-6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2
|표 3-7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 ····· 133
|표 3-7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5
|표 3-7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 ····· 136
|표 3-7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8
|표 3-7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 ····· 139
|표 3-75|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 ····· 141
|표 3-76|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3
|표 3-77|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 144
|표 3-78|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6
|표 3-79|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 147
|표 3-80|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9
|표 3-8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 150
|표 3-8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52
|표 3-8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 153

|표 3-84|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 155
|표 3-85|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 157
|표 3-86|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59
|표 3-87|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 160
|표 3-88|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 ····· 162
|표 3-89|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64
|표 3-90|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 ····· 165
|표 3-9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67
|표 3-9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168
|표 3-9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0
|표 3-9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 171
|표 3-9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3
|표 3-9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 174
|표 3-97|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6
|표 3-98|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 177
|표 3-99|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9
|표 3-100|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 ····· 180
|표 3-101|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2
|표 3-102|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 183
|표 3-103|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5
|표 3-104| 주한미군 주둔 이유 ····· 186
|표 3-105|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8
|표 3-106| 주한미군 주둔 시기 ····· 189
|표 3-107|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91
|표 3-108|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 192
|표 3-109|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194
|표 3-110|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 195
|표 3-11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197
|표 3-11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 198

|표 3-11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0
|표 3-11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 201
|표 3-115|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3
|표 3-116|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 204
|표 3-117|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없는 이유 ····· 206
|표 3-11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8
|표 3-1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 209
|표 3-120|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1
|표 3-12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212
|표 3-12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4
|표 3-123|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215
|표 3-124|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7
|표 3-125|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218
|표 3-126|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0
|표 3-127|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 221
|표 3-128|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3
|표 3-129|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 224
|표 3-13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6
|표 3-131|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 227
|표 3-132|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9
|표 3-133|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 230
|표 3-134|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2
|표 3-135|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233
|표 3-136|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5
|표 3-137|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 236
|표 3-138|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8
|표 3-139|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239
|표 3-140|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1
|표 3-14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 242

|표 3-14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4
|표 3-14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 245
|표 3-144|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7
|표 3-145|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 248
|표 3-146|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0
|표 3-147|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 251
|표 3-148|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3
|표 3-149|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 254
|표 3-150|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6
|표 3-151| 한반도 통일 전망 ····· 257
|표 3-152|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9
|표 3-153| 한반도 통일 방식 ····· 260
|표 3-154|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2
|표 3-155| 통일비용 지불 의지 ····· 263
|표 3-156|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5
|표 3-157|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 266
|표 3-158|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8
|표 3-159|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 269
|표 3-16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1
|표 3-16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 ····· 272
|표 3-162|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4
|표 3-163|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 275
|표 3-164|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 277
|표 3-165|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9
|표 3-166|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 280
|표 3-167|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 ····· 282
|표 3-168|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 ····· 284
|표 3-169|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2순위) ····· 286
|표 3-170|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순위) ····· 288

|표 3-171|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0
|표 3-172|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291
|표 3-173|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 293
|표 3-174|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5
|표 3-17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 296
|표 3-176|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8
|표 3-17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 299
|표 3-178|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1
|표 3-17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 302
|표 3-18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4
|표 3-181|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305
|표 3-182|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7
|표 3-183|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308
|표 3-184|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0
|표 3-185|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 311
|표 3-186|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 313
|표 3-187|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 315
|표 3-188|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7
|표 3-189|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 318
|표 3-190|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0
|표 3-191|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321
|표 3-192|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3
|표 3-193|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 324
|표 3-194|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6
|표 3-195|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 327
|표 3-196|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9
|표 3-197|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330
|표 3-198|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2
|표 3-19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 ····· 333

|표 3-20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5
|표 3-20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 336
|표 3-20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8
|표 3-20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 339
|표 3-20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1
|표 3-205|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 ····· 342
|표 3-20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4
|표 3-20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 ····· 345
|표 3-20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7
|표 3-20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 ····· 348
|표 3-21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0
|표 3-21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 ····· 351
|표 3-21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353
|표 3-21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 354
|표 3-21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6
|표 3-21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 ····· 357
|표 3-21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9
|표 3-21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 ····· 360
|표 3-21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2
|표 3-219|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 ····· 363
|표 3-220|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5
|표 3-22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 ····· 366
|표 3-22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8
|표 3-22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 ····· 369
|표 3-224| 징병제에 대한 생각 ····· 371
|표 3-225|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3
|표 3-226|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 374
|표 3-227|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 376
|표 3-228|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8

|표 3-229|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 379
|표 3-230|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1
|표 3-231|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 382
|표 3-232|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4
|표 3-233|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 385
|표 3-23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7
|표 3-235|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 388
|표 3-236|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 390
|표 3-23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 ····· 392
|표 3-238|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 394

〈그림 차례〉

|그림 2-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 5

|그림 2-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5

|그림 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그림 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6

|그림 2-5|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7

|그림 2-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7

|그림 2-7|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 8

|그림 2-8|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 ····· 8

|그림 2-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9

|그림 2-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9

|그림 2-11| 대북안보 협력 강화 ····· 10

|그림 2-12| 대북안보 협력 강화 ····· 10

|그림 2-1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11

|그림 2-14|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11

|그림 2-15| 한·미동맹 관계 굳건함 정도 ····· 12

|그림 2-1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2

|그림 2-17|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 13

|그림 2-18| 한·미동맹 관계 저해 요인(1+2순위) ····· 13

|그림 2-19|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 14

|그림 2-20| 주한미군 주둔 시기 ····· 14

|그림 2-21| 주한미군에 대한 의견 ····· 15

|그림 2-22|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 15

|그림 2-23|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16

|그림 2-2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16

|그림 2-25| 향후 2~3년 내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 17

|그림 2-2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17

|그림 2-27|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18

|그림 2-28| 한반도 통일 필요성 ····· 18

|그림 2-29|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 19
|그림 2-3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 20
|그림 2-3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 20
|그림 2-3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21
|그림 2-33|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21
|그림 2-34|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 22
|그림 2-35|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 23
|그림 2-3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적정성 ····· 23
|그림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 27
|그림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7
|그림 3-2|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8
|그림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30
|그림 3-4|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0
|그림 3-5|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
|그림 3-6|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33
|그림 3-7|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3
|그림 3-8|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
|그림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 ····· 36
|그림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6
|그림 3-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
|그림 3-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 39
|그림 3-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9
|그림 3-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0
|그림 3-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 42
|그림 3-1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42
|그림 3-1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43
|그림 3-1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 ····· 45
|그림 3-1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45
|그림 3-2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6

|그림 3-2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 ····· 48
|그림 3-2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48
|그림 3-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49
|그림 3-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 51
|그림 3-2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51
|그림 3-2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2
|그림 3-2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 54
|그림 3-2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54
|그림 3-2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5
|그림 3-3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 ····· 57
|그림 3-3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57
|그림 3-3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58
|그림 3-3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 60
|그림 3-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60
|그림 3-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1
|그림 3-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 63
|그림 3-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63
|그림 3-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4
|그림 3-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 66
|그림 3-4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66
|그림 3-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67
|그림 3-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 ····· 69
|그림 3-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69
|그림 3-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0
|그림 3-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 ····· 72
|그림 3-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72
|그림 3-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3
|그림 3-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 ····· 75
|그림 3-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75

|그림 3-5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6
|그림 3-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 ····· 78
|그림 3-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78
|그림 3-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79
|그림 3-5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 ····· 81
|그림 3-5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81
|그림 3-5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82
|그림 3-5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 84
|그림 3-5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84
|그림 3-5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85
|그림 3-6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 87
|그림 3-6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87
|그림 3-6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88
|그림 3-6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 90
|그림 3-6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90
|그림 3-6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1
|그림 3-6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 93
|그림 3-6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93
|그림 3-6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4
|그림 3-6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 ····· 96
|그림 3-7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96
|그림 3-7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97
|그림 3-7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 99
|그림 3-7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99
|그림 3-7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100
|그림 3-7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 ····· 102
|그림 3-7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02
|그림 3-7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3
|그림 3-7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 ····· 105

|그림 3-7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05
|그림 3-8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6
|그림 3-81|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108
|그림 3-82|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08
|그림 3-83|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09
|그림 3-84|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111
|그림 3-85|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11
|그림 3-8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2
|그림 3-8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 ····· 114
|그림 3-8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14
|그림 3-8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5
|그림 3-9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 ····· 117
|그림 3-9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17
|그림 3-9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18
|그림 3-9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 ····· 120
|그림 3-9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20
|그림 3-9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1
|그림 3-9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 ····· 123
|그림 3-9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23
|그림 3-9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4
|그림 3-9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 ····· 126
|그림 3-10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26
|그림 3-10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 ····· 128
|그림 3-10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28
|그림 3-10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29
|그림 3-10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 ····· 131
|그림 3-105|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31
|그림 3-106|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2
|그림 3-10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 ····· 134

|그림 3-10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34
|그림 3-10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5
|그림 3-1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 ····· 137
|그림 3-11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37
|그림 3-1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38
|그림 3-11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 ····· 140
|그림 3-11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40
|그림 3-115|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 142
|그림 3-116|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42
|그림 3-117|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3
|그림 3-118|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 145
|그림 3-119|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45
|그림 3-120|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6
|그림 3-12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 148
|그림 3-12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48
|그림 3-12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49
|그림 3-12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 151
|그림 3-125|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51
|그림 3-126|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52
|그림 3-127|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 154
|그림 3-128|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54
|그림 3-129|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 156
|그림 3-130|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56
|그림 3-131|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 158
|그림 3-132|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58
|그림 3-133|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59
|그림 3-134|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 ····· 161
|그림 3-135|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61
|그림 3-13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 ····· 163

|그림 3-137|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63
|그림 3-138|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64
|그림 3-139|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166
|그림 3-140|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66
|그림 3-14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67
|그림 3-14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 169
|그림 3-14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69
|그림 3-14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0
|그림 3-14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 172
|그림 3-14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72
|그림 3-147|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3
|그림 3-148|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 175
|그림 3-149|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75
|그림 3-150|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6
|그림 3-151|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 ····· 178
|그림 3-152|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78
|그림 3-153|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79
|그림 3-15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 181
|그림 3-155|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81
|그림 3-156|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2
|그림 3-157| 주한미군 주둔 이유 ····· 184
|그림 3-158|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84
|그림 3-159|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5
|그림 3-160| 주한미군 주둔 시기 ····· 187
|그림 3-161|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87
|그림 3-162|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88
|그림 3-16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 190
|그림 3-16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90
|그림 3-165|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91

|그림 3-166|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 193
|그림 3-167|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93
|그림 3-168|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94
|그림 3-169|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 196
|그림 3-170|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96
|그림 3-17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197
|그림 3-17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 199
|그림 3-17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199
|그림 3-17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0
|그림 3-175|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 202
|그림 3-176|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02
|그림 3-177|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3
|그림 3-178|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 ····· 205
|그림 3-179|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05
|그림 3-18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 207
|그림 3-18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07
|그림 3-18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08
|그림 3-183|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210
|그림 3-184|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10
|그림 3-185|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1
|그림 3-186|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213
|그림 3-187|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13
|그림 3-188|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4
|그림 3-189|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216
|그림 3-190|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16
|그림 3-191|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17
|그림 3-192|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 219
|그림 3-193|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19
|그림 3-19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0

|그림 3-195|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 222
|그림 3-196|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22
|그림 3-197|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3
|그림 3-198|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 225
|그림 3-19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25
|그림 3-20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6
|그림 3-201|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 228
|그림 3-202|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28
|그림 3-203|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29
|그림 3-204|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231
|그림 3-205|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31
|그림 3-20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2
|그림 3-207|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 234
|그림 3-20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34
|그림 3-20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5
|그림 3-2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237
|그림 3-2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37
|그림 3-212|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38
|그림 3-213|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 240
|그림 3-214|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40
|그림 3-215|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1
|그림 3-216|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 243
|그림 3-217|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43
|그림 3-218|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4
|그림 3-219|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 246
|그림 3-220|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46
|그림 3-221|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47
|그림 3-222|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 249
|그림 3-223|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49

|그림 3-22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0
|그림 3-22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 252
|그림 3-226|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52
|그림 3-227|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3
|그림 3-228| 한반도 통일 전망 ····· 255
|그림 3-229|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55
|그림 3-230|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6
|그림 3-231| 한반도 통일 방식 ····· 258
|그림 3-232|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58
|그림 3-233|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59
|그림 3-234| 통일비용 지불 의지 ····· 261
|그림 3-235|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61
|그림 3-236|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2
|그림 3-237|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 264
|그림 3-238|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64
|그림 3-239|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5
|그림 3-24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 267
|그림 3-24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67
|그림 3-24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68
|그림 3-243|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 ····· 270
|그림 3-244|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70
|그림 3-245|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1
|그림 3-246|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 273
|그림 3-247|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73
|그림 3-248|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4
|그림 3-249|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 276
|그림 3-250|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76
|그림 3-251|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 278
|그림 3-252|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78

|그림 3-253|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79
|그림 3-254|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 ····· 281
|그림 3-255|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 ····· 283
|그림 3-256|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2순위) ····· 285
|그림 3-257|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순위) ····· 287
|그림 3-25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289
|그림 3-2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89
|그림 3-260|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0
|그림 3-261|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 292
|그림 3-262|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92
|그림 3-263|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 294
|그림 3-264|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94
|그림 3-26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5
|그림 3-266|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 297
|그림 3-26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297
|그림 3-268|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298
|그림 3-26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 300
|그림 3-270|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00
|그림 3-271|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1
|그림 3-27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303
|그림 3-273|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03
|그림 3-274|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4
|그림 3-275|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306
|그림 3-276|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06
|그림 3-277|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07
|그림 3-278|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 309
|그림 3-279|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09
|그림 3-280|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0
|그림 3-281|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 312

|그림 3-282|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12
|그림 3-283|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 314
|그림 3-284|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14
|그림 3-285|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 316
|그림 3-286|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16
|그림 3-287|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17
|그림 3-288|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319
|그림 3-289|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19
|그림 3-290|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0
|그림 3-291|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 322
|그림 3-292|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22
|그림 3-293|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3
|그림 3-294|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 325
|그림 3-295|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25
|그림 3-296|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6
|그림 3-297|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328
|그림 3-298|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28
|그림 3-299|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29
|그림 3-30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 ····· 331
|그림 3-30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31
|그림 3-302|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2
|그림 3-30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 334
|그림 3-304|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34
|그림 3-305|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5
|그림 3-30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 337
|그림 3-30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37
|그림 3-30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38
|그림 3-30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 ····· 340
|그림 3-31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40

|그림 3-31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1
|그림 3-31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 ····· 343
|그림 3-31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43
|그림 3-31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4
|그림 3-315|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 ····· 346
|그림 3-31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46
|그림 3-31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47
|그림 3-31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 ····· 349
|그림 3-31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49
|그림 3-32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0
|그림 3-32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 352
|그림 3-32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52
|그림 3-32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3
|그림 3-32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 ····· 355
|그림 3-32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55
|그림 3-32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6
|그림 3-32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 ····· 358
|그림 3-32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58
|그림 3-329|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59
|그림 3-330|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 ····· 361
|그림 3-33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61
|그림 3-33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2
|그림 3-33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 ····· 364
|그림 3-33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64
|그림 3-33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5
|그림 3-33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 ····· 367
|그림 3-33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67
|그림 3-33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68
|그림 3-339| 징병제에 대한 생각 ····· 370

|그림 3-340| 징병제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70
|그림 3-341|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 372
|그림 3-342|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72
|그림 3-343|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3
|그림 3-344|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 375
|그림 3-345|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 377
|그림 3-346|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77
|그림 3-347|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78
|그림 3-348|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 380
|그림 3-349|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80
|그림 3-350|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1
|그림 3-351|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 383
|그림 3-352|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83
|그림 3-353|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4
|그림 3-35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 386
|그림 3-355|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86
|그림 3-35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387
|그림 3-35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 389
|그림 3-358|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89
|그림 3-359|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 ····· 391
|그림 3-360|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 391
|그림 3-361|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 393

제 1 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Ⅰ.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조사방법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수	1,200명	10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2.8%p(일반국민)	
조사기간	2024년 6월 20일 ~ 7월 19일	

Ⅲ.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1) 입력 구조 구성 ⇒ 2) 부호화 및 입력 ⇒ 3) 점검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SPSS 23)으로 전산 처리함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중 응답자 특성의 사례수가 30표본 미만인 경우, 모집단 정규 분포에 수렴하지 않아 이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별도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직업별 분석 중 '무직/휴직/은퇴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사례수가 30표본 이상이여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음
- 추이분석은 2024년과 2015~2023년까지 문항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 문항은 별도로 추이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2023년 신규 문항은 전년도 비교 분석 실시

Ⅳ. 응답자 특성

|표 1-1| 응답자 특성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300)**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3
	전문가	(100)	7.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2.4
	중	(580)	48.3
	하	(231)	19.3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1
	30대	(194)	16.2
	40대	(226)	18.8
	50대	(255)	21.3
	60대 이상	(308)	25.7
지역별	서울	(140)	11.7
	경기/인천	(245)	20.4
	부산/울산/경남	(208)	17.3
	대구/경북	(141)	11.8
	광주/전라	(170)	14.2
	대전/충청/세종	(205)	17.1
	강원/제주	(91)	7.6
지역크기	대도시	(524)	43.7
	중·소도시	(639)	53.3
	읍/면	(37)	3.1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50)	4.2
	자영업자	(185)	15.4
	판매/서비스직	(194)	16.2
	기능/숙련공	(127)	10.6
	일반 노무직	(41)	3.4
	사무/기술직	(283)	23.6
	경영/관리직	(19)	1.6
	전문/자유직	(7)	0.6
	군인/경찰/소방	(-)	-
	전업주부	(169)	14.1
	학생	(73)	6.1
	무직/휴직/은퇴	(52)	4.3
	기타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9
	고등학교	(440)	36.7
	전문대	(266)	22.2
	4년제 대학교	(427)	35.6
	대학원 이상	(8)	0.7
생활수준별	상	(73)	6.1
	중	(544)	45.3
	하	(583)	48.6

제2장

주요결과 요약

제2장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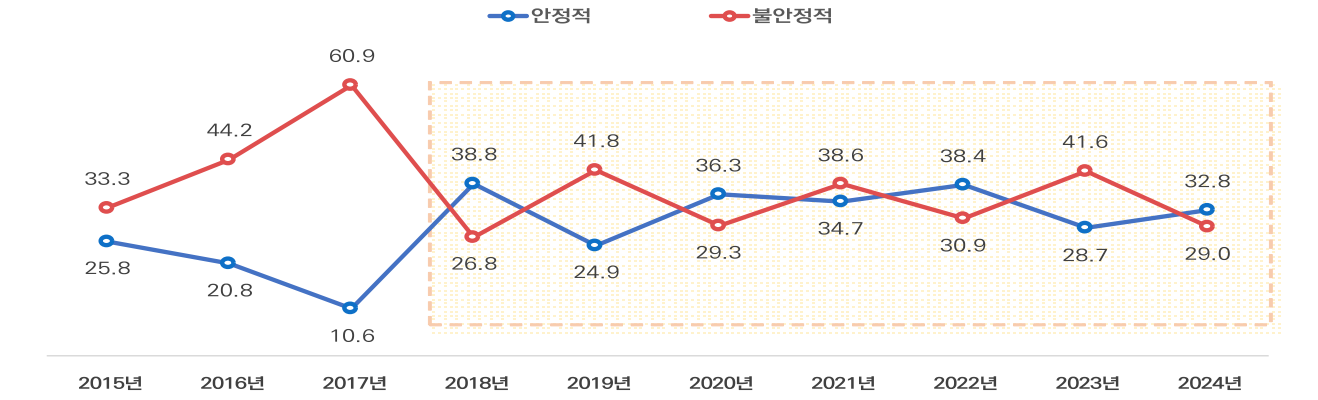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우리나라 전반적 안보상황

❖ '안정적' 비율이 32.8%로 '불안정적'(29.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 비율이 32.8%로 '불안정적'(29.0%)보다 3.8%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안정적' 비율이 4.1%p 증가했으나, '불안정적' 비율은 29.0%로 12.6%p 감소함
  - 2018년 이후로 '안정적' 비율과 '불안정적' 비율의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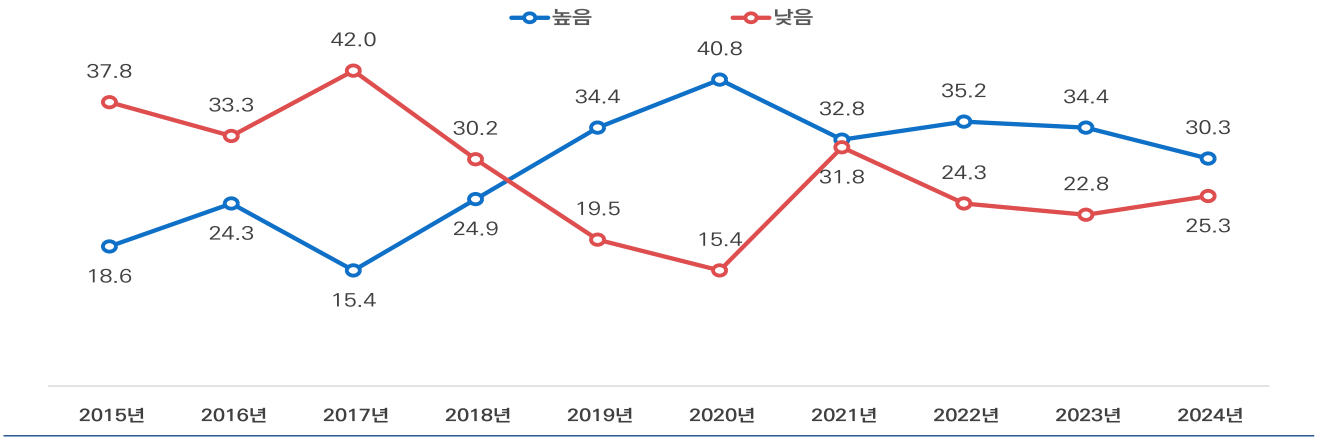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높음' 비율이 30.3%로 '낮음'(2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음' 비율이 30.3%로 '낮음'(25.3%) 비율보다 5.0%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높음' 비율은 4.1%p 감소했으나, '낮음' 비율은 2.5%p 증가함
  - 2015년 대비 '높음' 비율은 11.7%p 증가했으나, '낮음' 비율은 12.5%p 감소함

|그림 2-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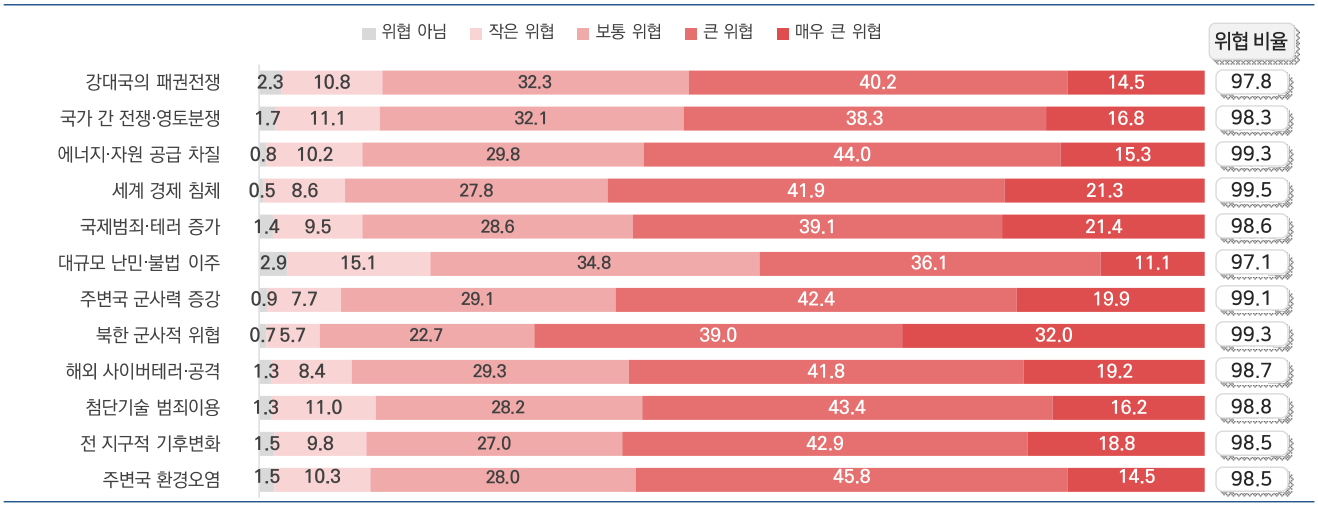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요인

❖ 대외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99.5%), 대내요인으로는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과 '한·미 군사동맹 약화'(각 99.4%)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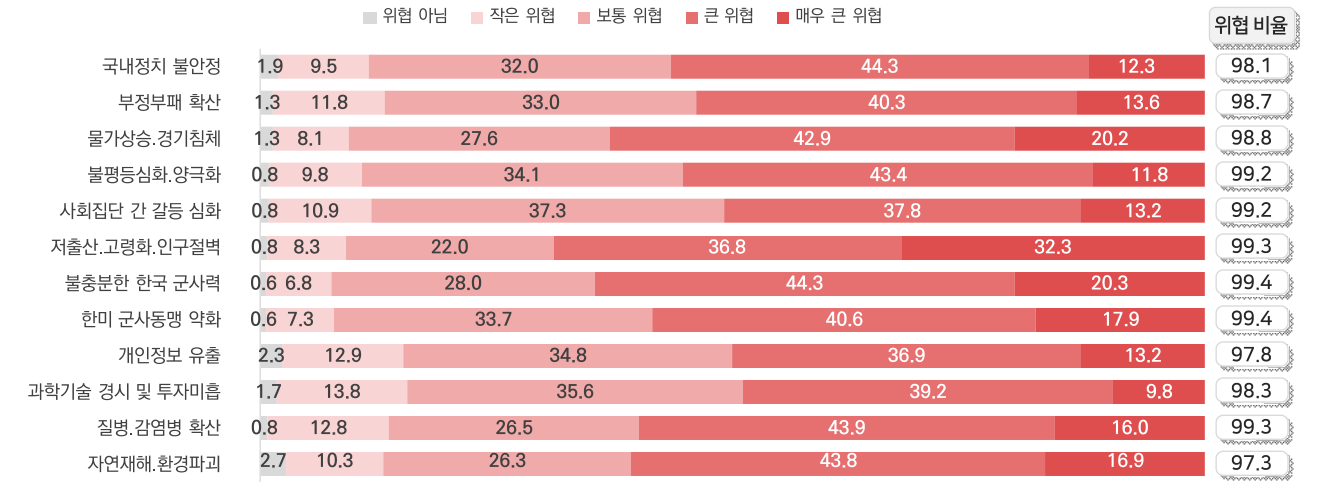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은 '세계 경제 침체'가 9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 군사적 위협'과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각 9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은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각 9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과 '질병·감염병 확산'(각 9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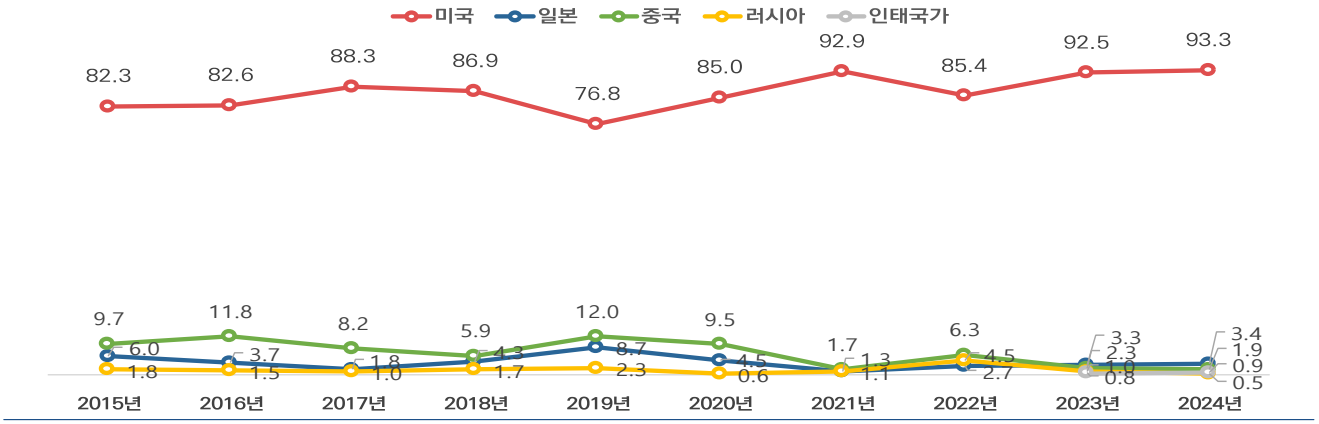
Ⅱ.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

●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 '미국'이 군사안보적 측면(99.3%)과 경제안보적 측면(59.7%)에서 모두 중요한 국가로 나타남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3.4%), 중국(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미국'의 군사안보적 중요도는 소폭 증가(0.8%p)함
  - 2015년 대비 '미국'의 군사안보적 중요도는 11.0%p 증가했으나, '중국'의 중요도는 7.8%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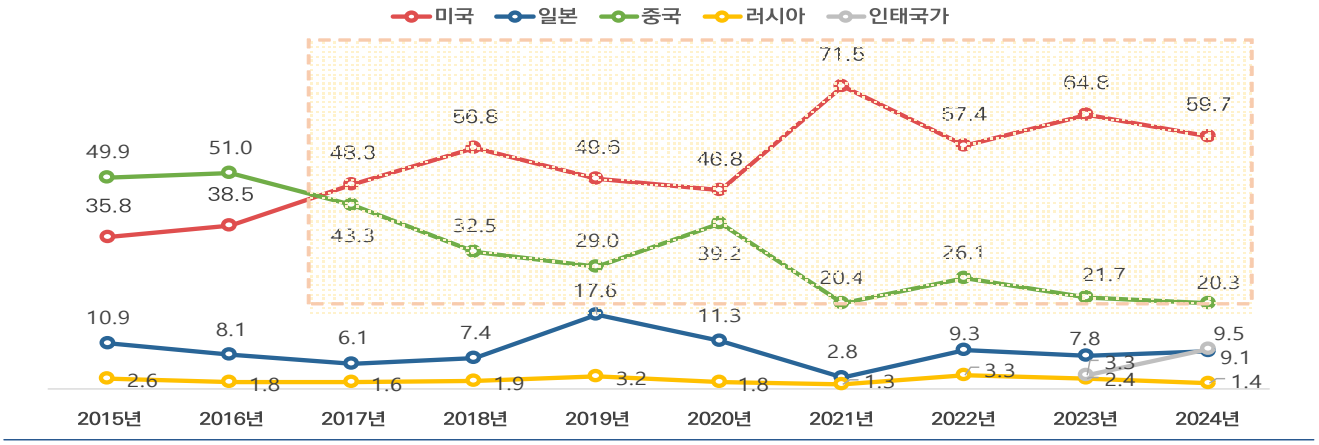
|그림 2-5|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2023년부터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20.3%), 일본(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의 경제안보적 중요도는 6.2%p 증가했으나, '미국'의 중요도는 5.1%p 감소함
  - 2015년 대비 '미국'의 경제안보적 중요도는 23.9%p 증가했으나, '중국'의 중요도는 29.6%p 감소함
  - 2017년 이후로 '미국'의 경제안보적 중요도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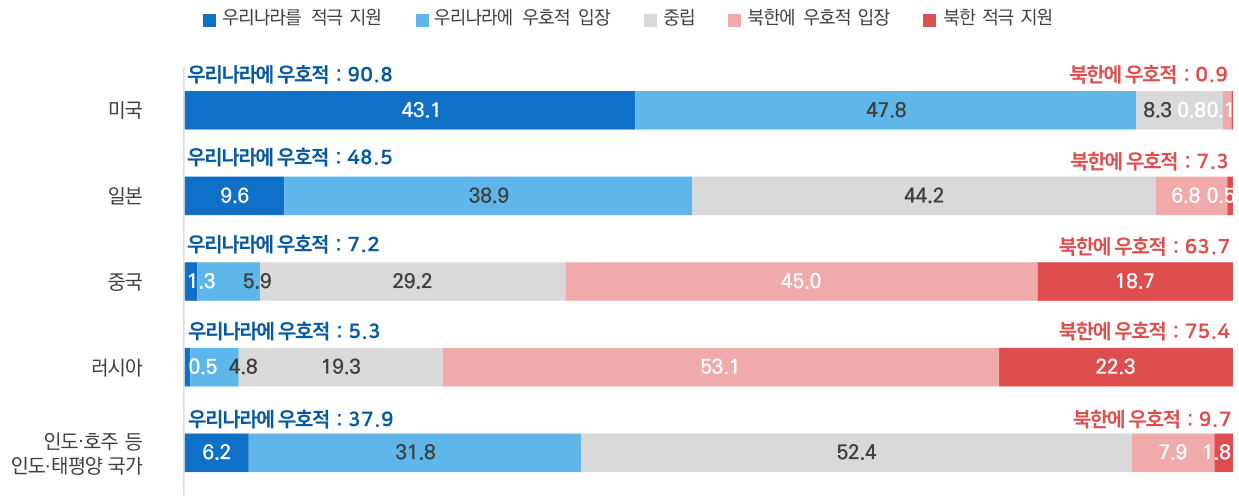
※ 2023년부터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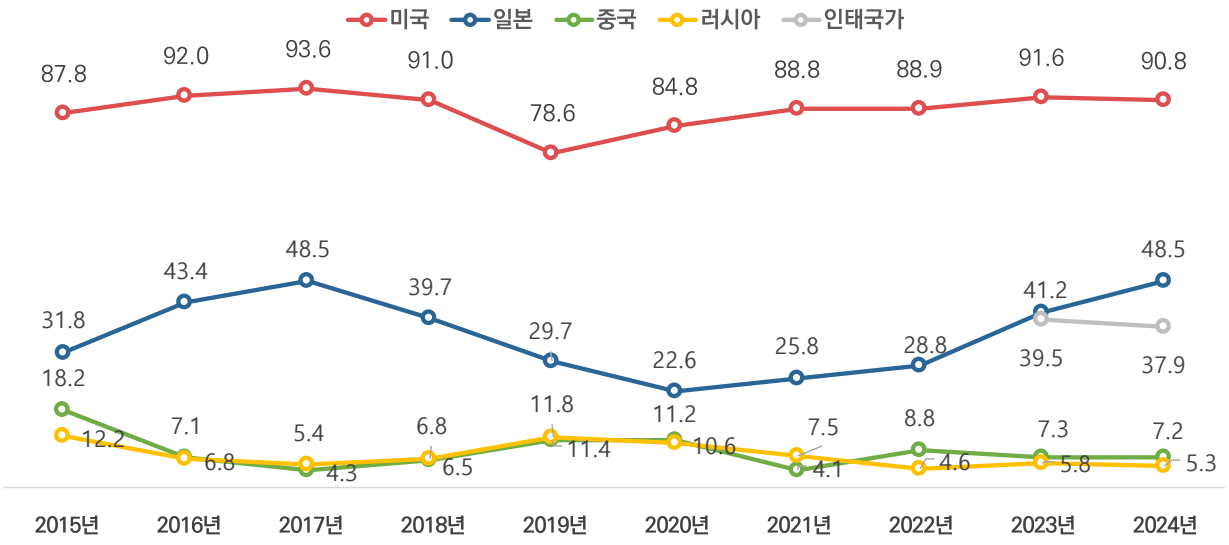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는 '미국'(90.8%), '일본'(48.5%), '인태국가'(37.9%)로 나타남

-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 '미국'이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본'(48.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3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 중 '일본'이 7.3%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2015년 대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16.7%p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1.0%p 감소함

|그림 2-7|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변국의 태도



|그림 2-8|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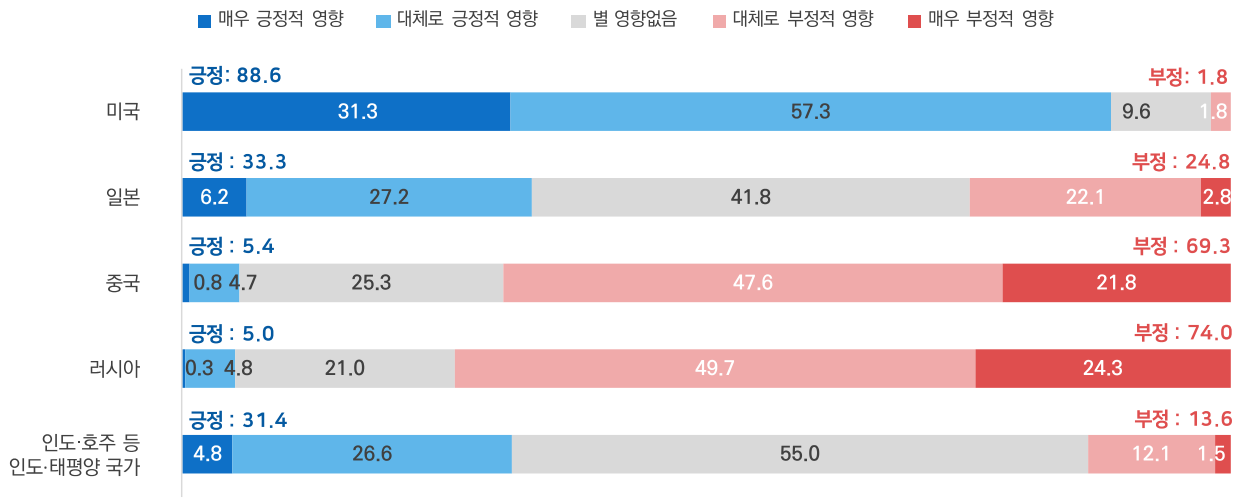
※ 2023년부터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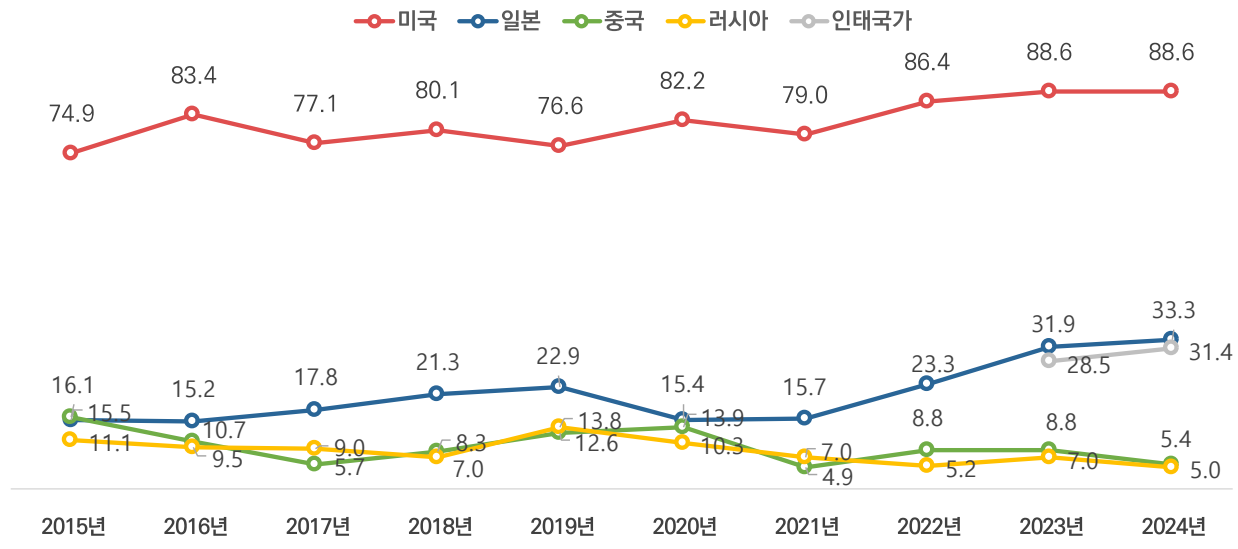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88.6%), '일본'(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이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본'(33.3%),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3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17.8%p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22.5%p 증가함

|그림 2-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림 2-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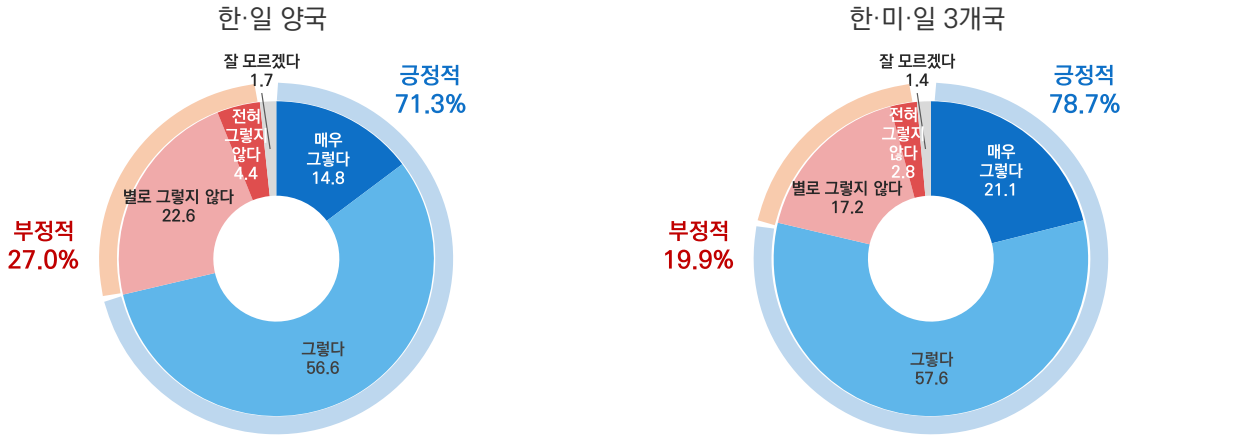
※ 2023년부터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 대북안보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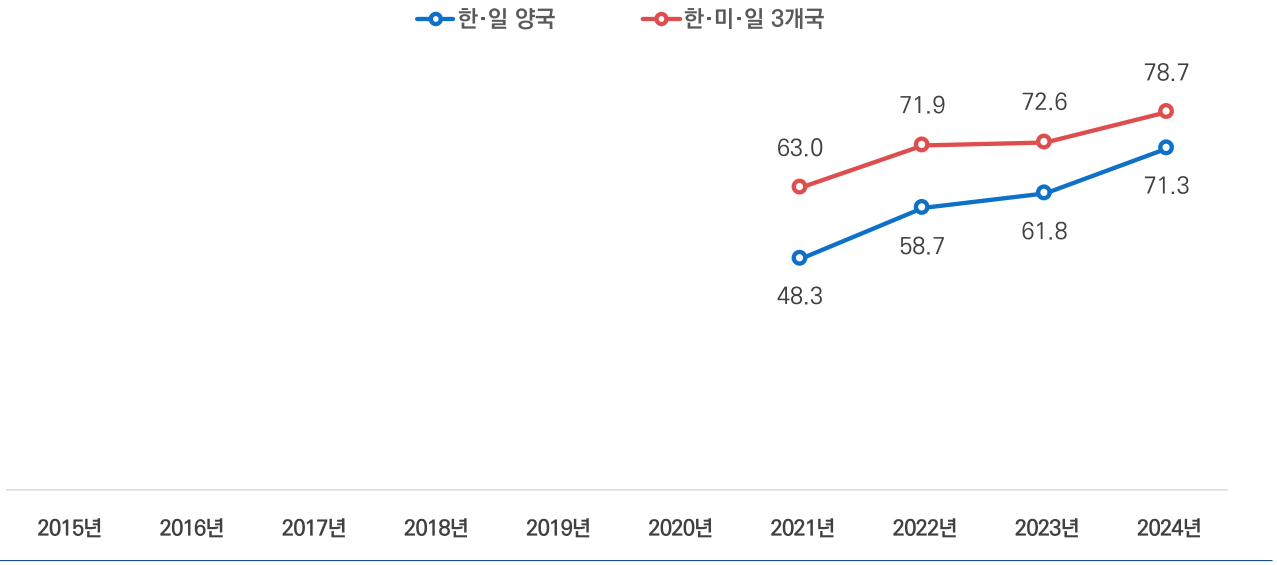
❖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 강화'는 71.3%, '한·미·일 3개국 간'에 대해서는 78.7%로 나타남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1]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 비율이 71.3%로 나타났으며, '한·미·일 3개국 간'에 대해 '긍정' 비율이 78.7%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 강화'는 9.5% 증가했으며, '한·미·일 3개국 간'에 대해서는 6.1%p 증가함

|그림 2-11| 대북안보 협력 강화



|그림 2-12| 대북안보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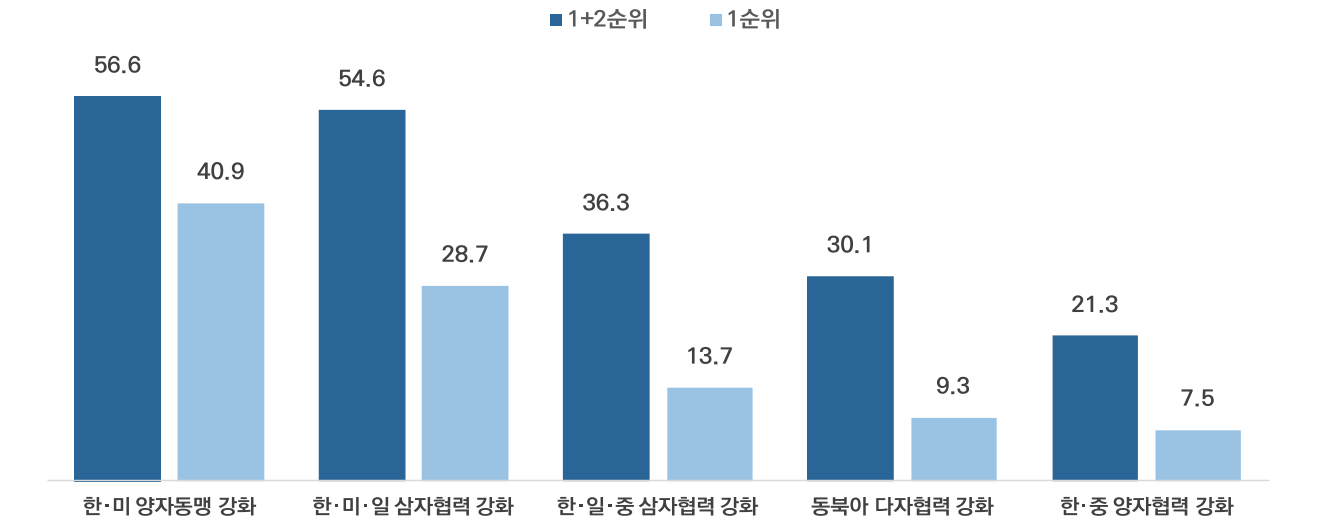
1) 군사안보→대북안보 명칭 변경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

❖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54.6%)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그림 2-1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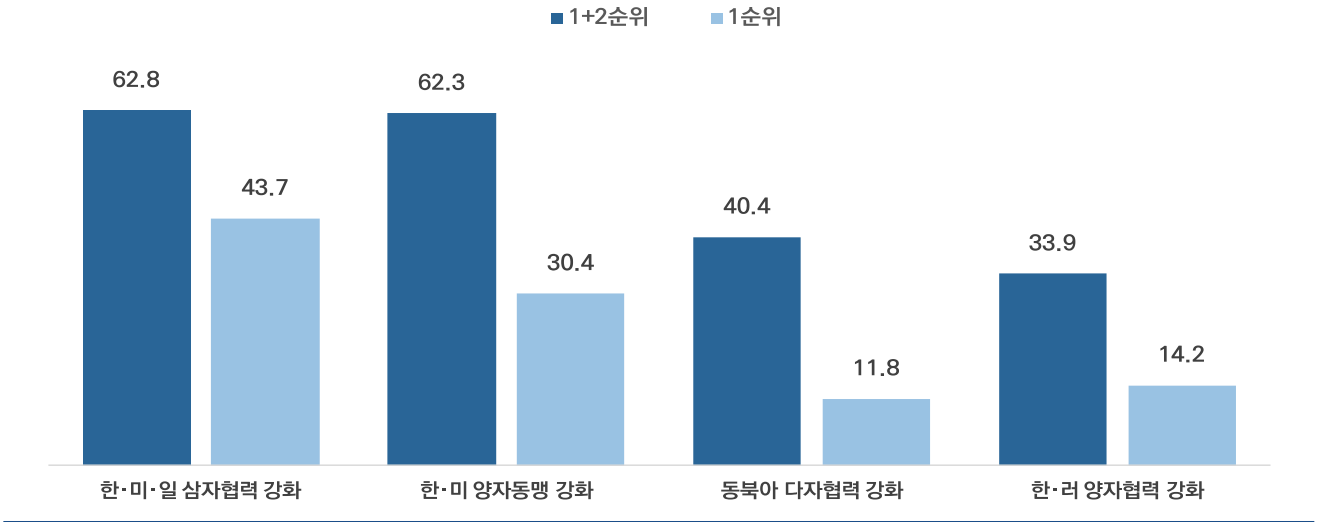


●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

❖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62.3%)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그림 2-14|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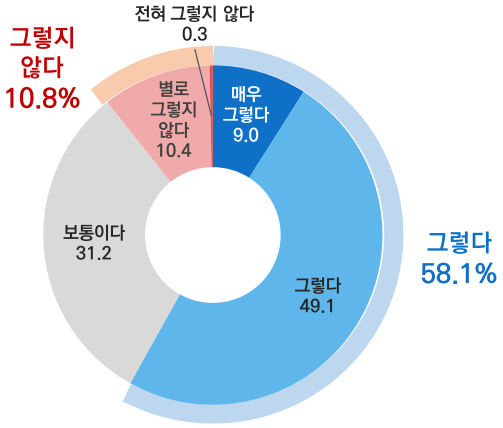
Ⅲ.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

● 한·미동맹 관계

❖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은 58.1%로 나타남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 비율이 58.1%로, '그렇지 않다'(10.8%)보다 47.3%p 높게 나타남

|그림 2-15| 한·미동맹 관계 굳건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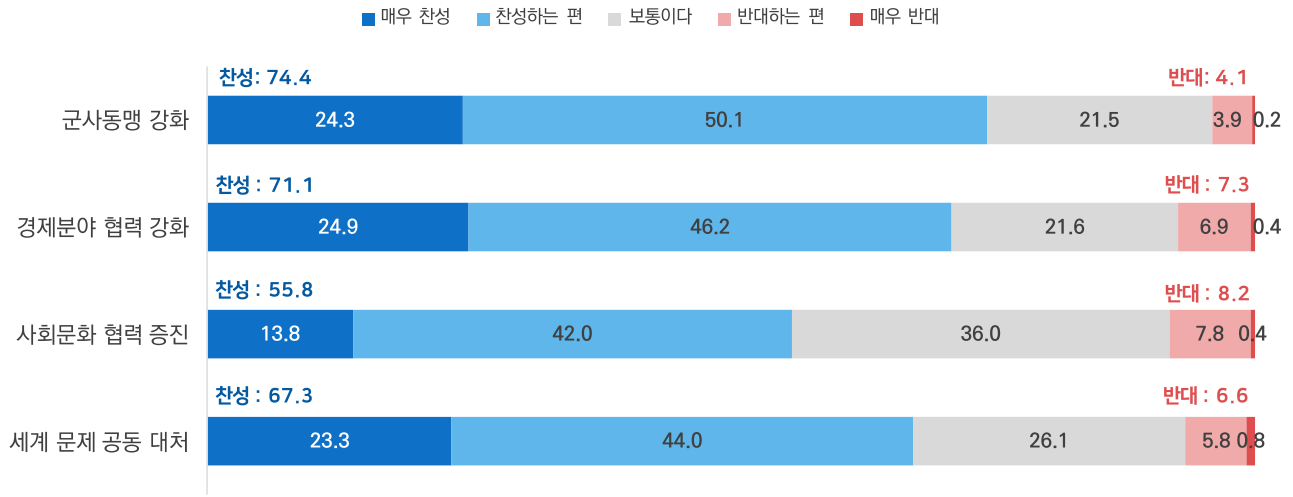


●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으로 '군사동맹 강화'(74.4%)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으로 '군사동맹 강화'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분야 협력 강화'(71.1%), '세계 문제 공동 대처'(6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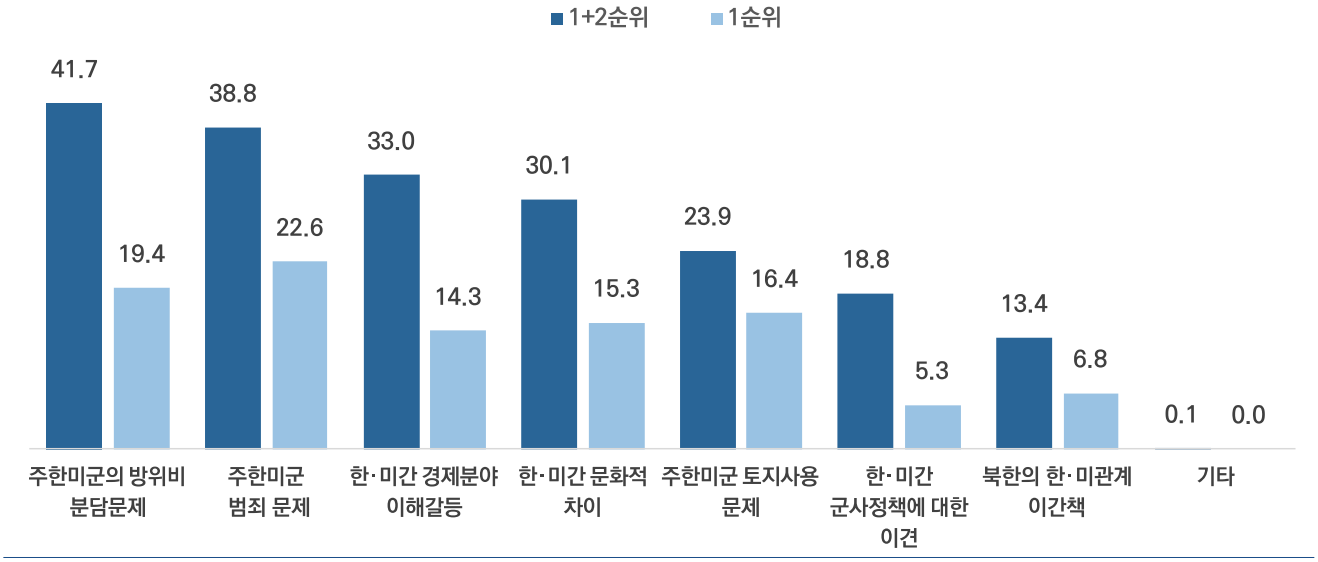


●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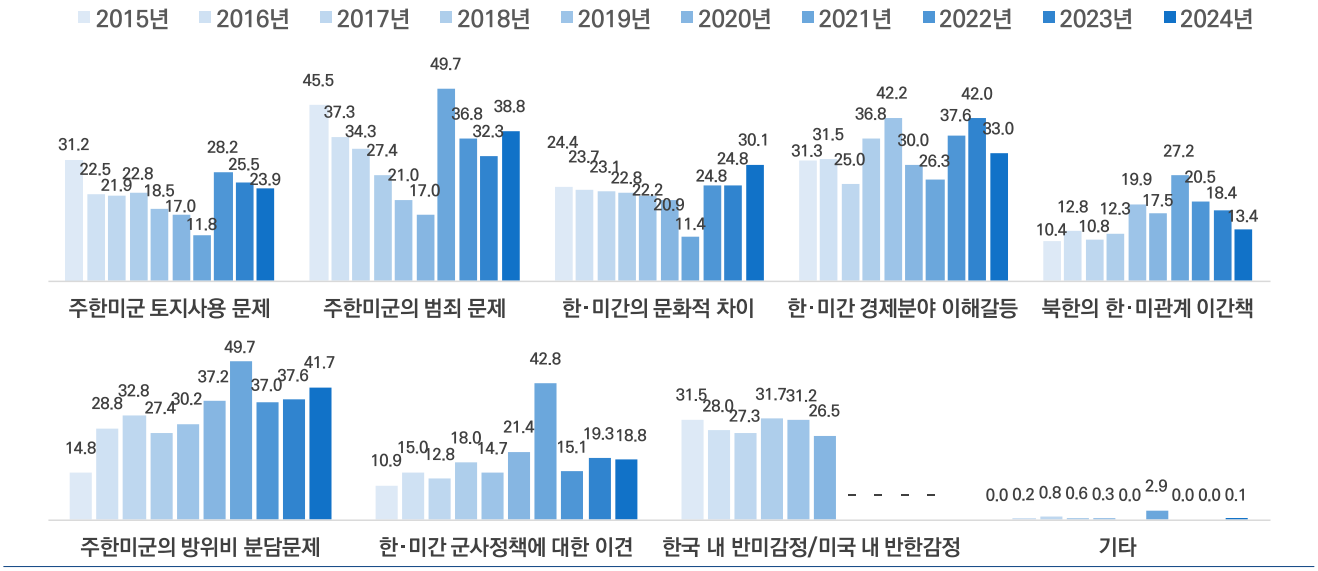
❖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41.7%), '주한미군 범죄 문제'(3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한미군 범죄 문제'(38.8%),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33.0%)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 2015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2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는 7.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그림 2-17|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그림 2-18| 한·미동맹 관계 저해 요인(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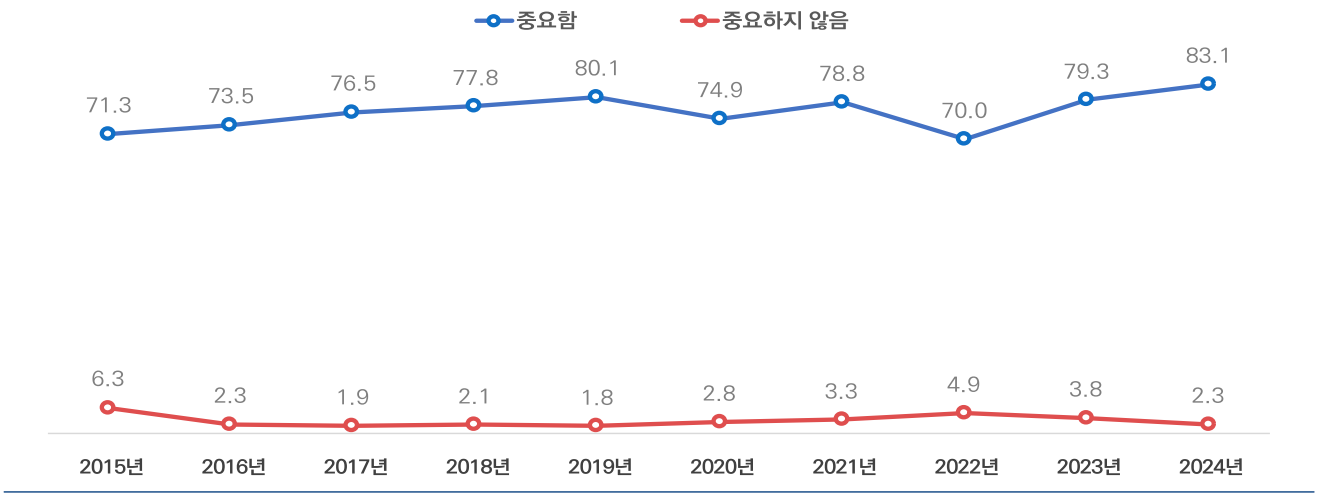


●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 '중요함'이 8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함'이 83.1%로 '중요하지 않음'(2.3%)'보다 80.8%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중요함'이 3.8%p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5%p 감소함
  - 2015년 대비 '중요함'이 11.8%p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4.0%p 감소함

|그림 2-19|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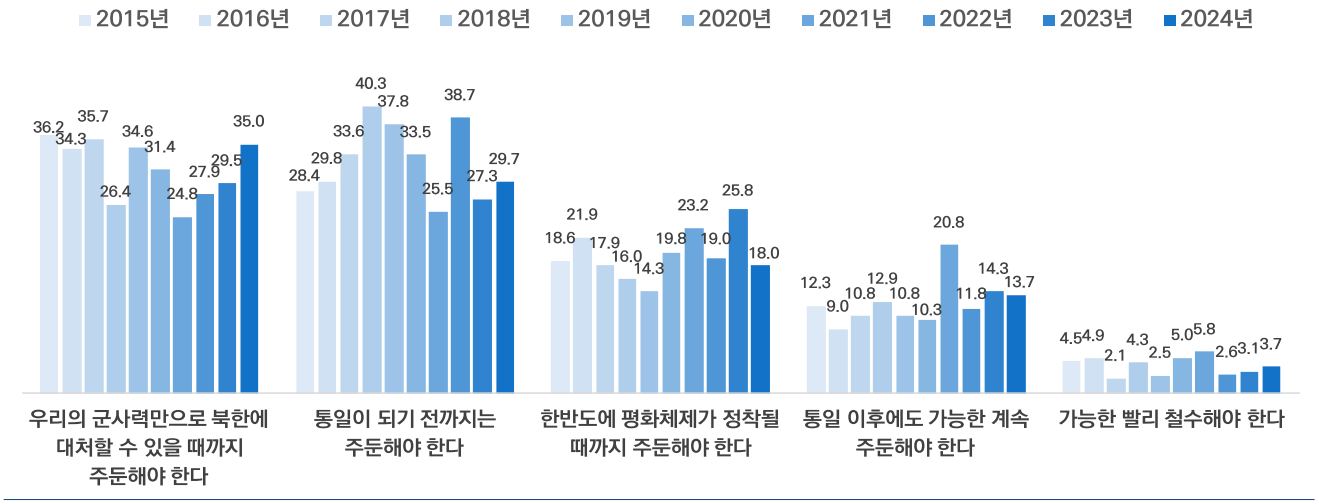


● 주한미군 주둔 시기

❖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5.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가 5.5%p 증가했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7.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0| 주한미군 주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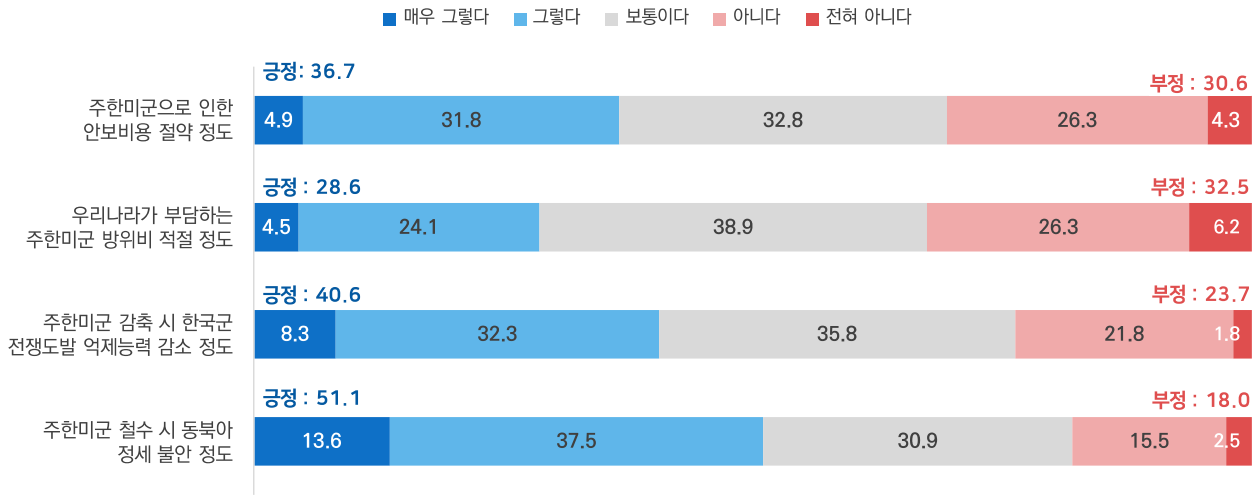


● 주한미군에 대한 의견

❖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에 대한 의견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비율은 51.1%,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비율은 40.6%로 나타남

|그림 2-21| 주한미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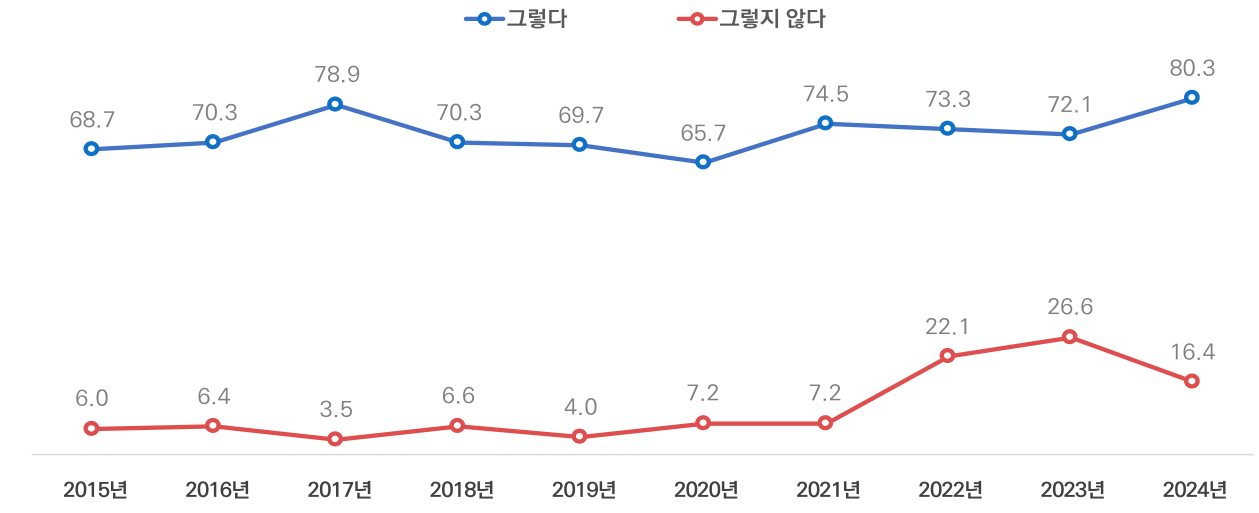


●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함'이 80.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0.3%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8.2%p, 2015년 대비 11.6%p 증가함

|그림 2-22|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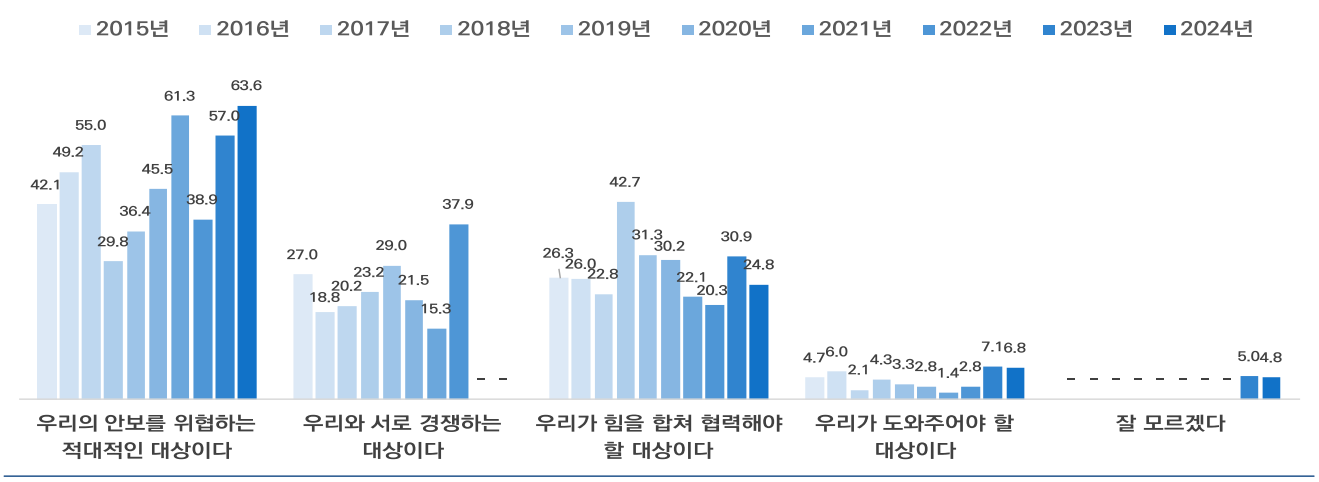
Ⅳ.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인식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북한 정권과 군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로 인식하는 비율이 63.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3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6.6%p 증가했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6.1%p 감소함
- 2015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21.5%p 증가함

|그림 2-23|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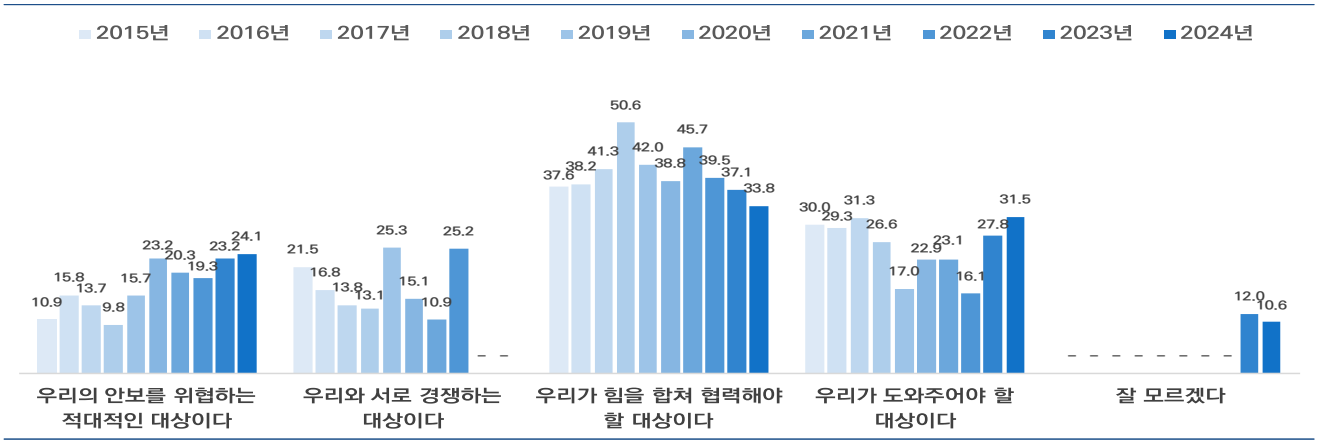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북한 주민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3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13.2%p 증가함

|그림 2-2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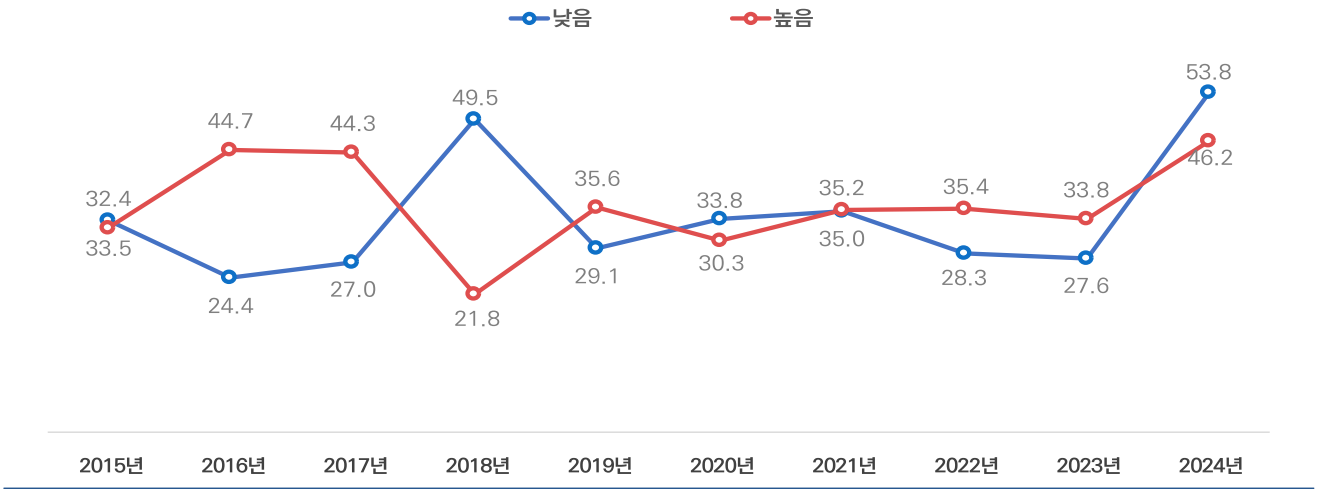


●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음'이 53.8%로 '높음'(46.2%)보다 높게 나타남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낮음'이 53.8%로 '높음'(46.2%)보다 7.6%p 높게 나타남
  - '높음'이 2023년 대비 12.4%p, 2015년 대비 12.7%p 증가함
  - '낮음'이 2023년 대비 26.2%p, 2015년 대비 20.3%p 증가함

|그림 2-25| 향후 2~3년 내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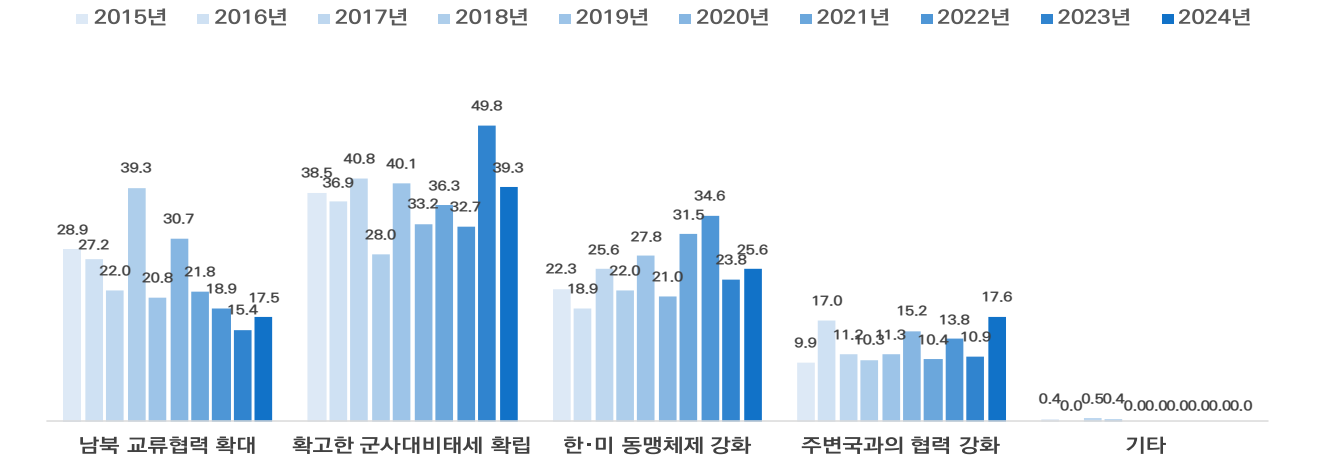
※ 2024년 '보통이다' 보기 항목 삭제로 2023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2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10.5%p 감소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6.7%p 감소함
  - 2015년 대비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11.4%p 감소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7.7%p 증가함

|그림 2-2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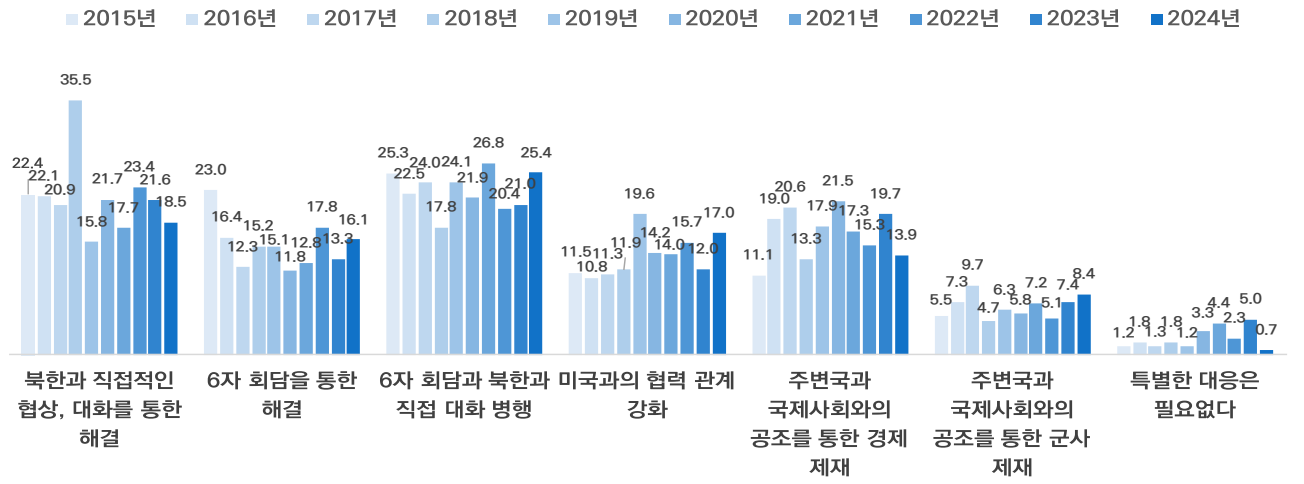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1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가 5.8%p 감소했으며, '6자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은 4.4%p 증가함
- 2015년 대비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는 5.5%p 증가했으며,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은 6.9%p 감소함

|그림 2-27|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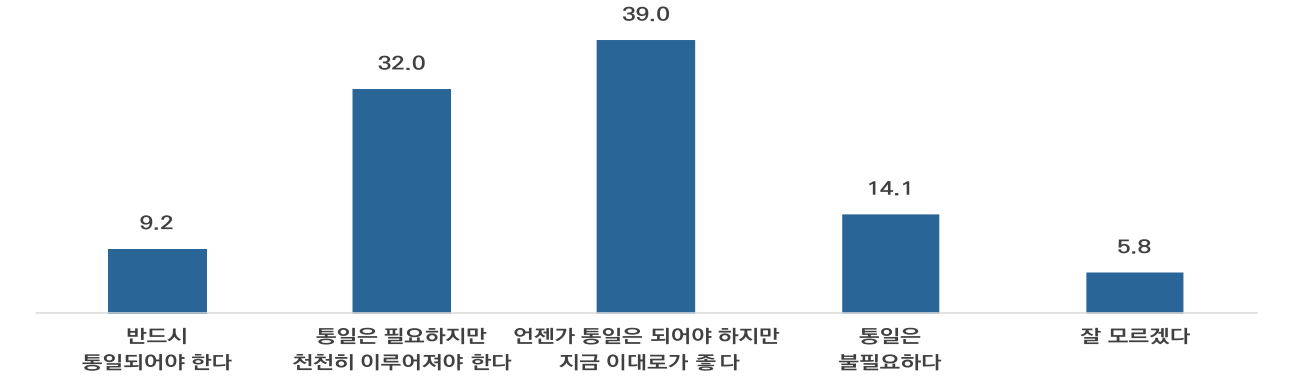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 필요성

❖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인식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반국민 응답 기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3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8| 한반도 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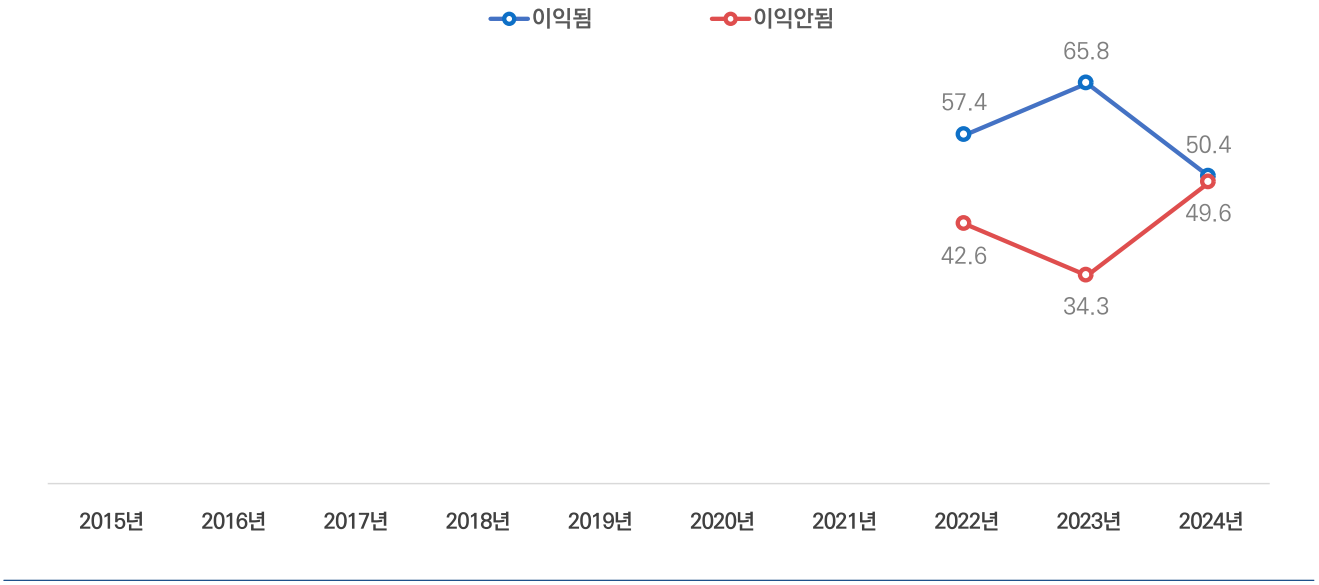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 한반도 통일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0.4%로 '이익이 되지 않음'(49.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반도 통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됨'이 50.4%로 '이익이 되지 않음'(49.6%)보다 0.8%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이익이 됨'이라는 응답이 15.4%p 감소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음'은 15.3%p 증가함

|그림 2-29|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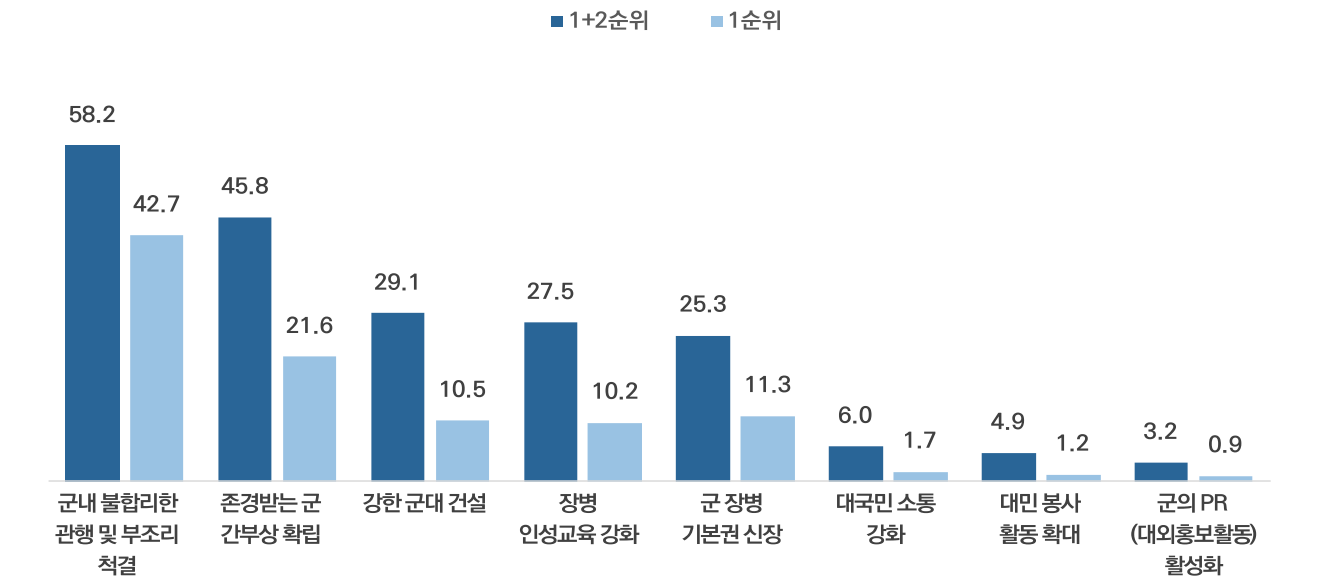
Ⅴ.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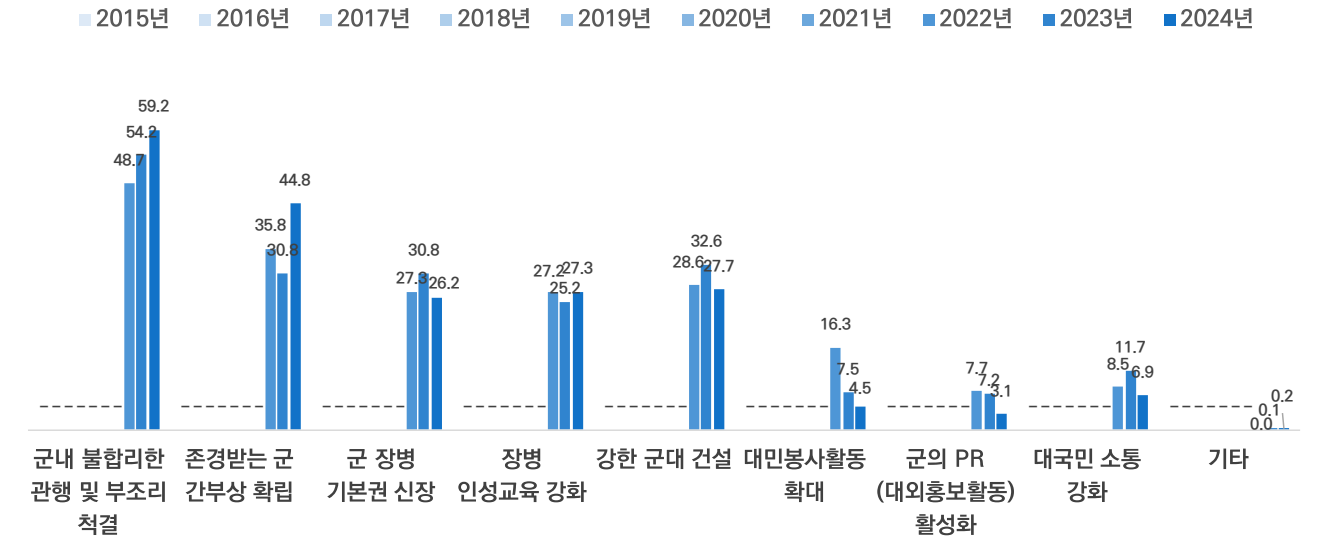
❖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남(1+2순위 기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5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4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1+2순위 기준)
- 2023년 대비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이 15.0%p 증가했으며, '강한 군대 건설'은 7.3%p 감소함
- 2022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10.5%p 증가했으며, '대민봉사활동 확대'는 11.8%p 감소함

|그림 2-3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그림 2-3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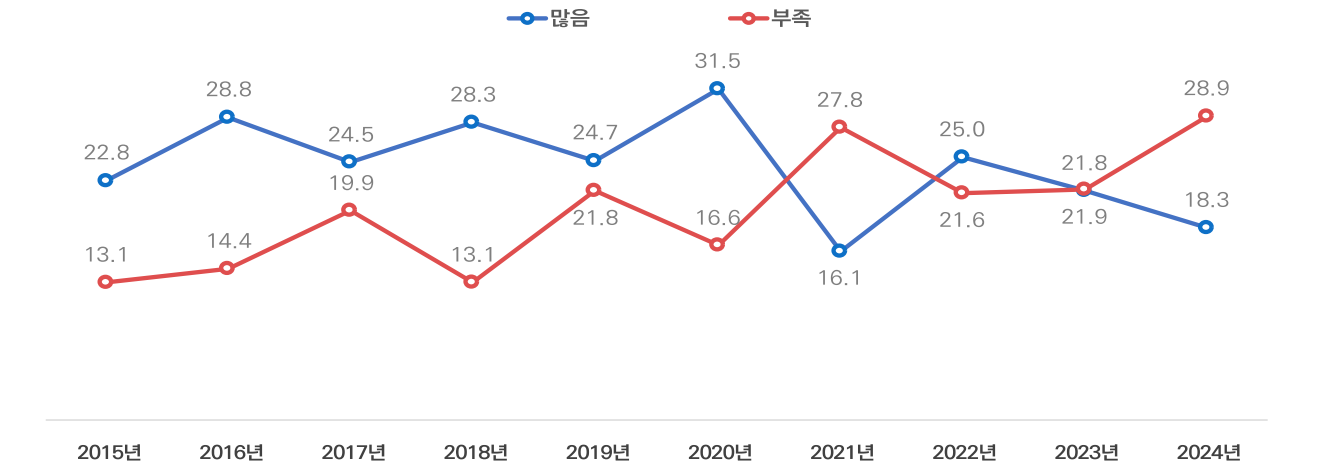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부족'하다는 인식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9%로 '많음'(18.3%)보다 10.6%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부족'하다는 응답이 7.0%p 증가했으며, '많다'는 3.5%p 감소함
- 2015년 대비 '부족'하다는 응답이 15.8%p 증가했으며, '많다'는 4.5%p 감소함

|그림 2-3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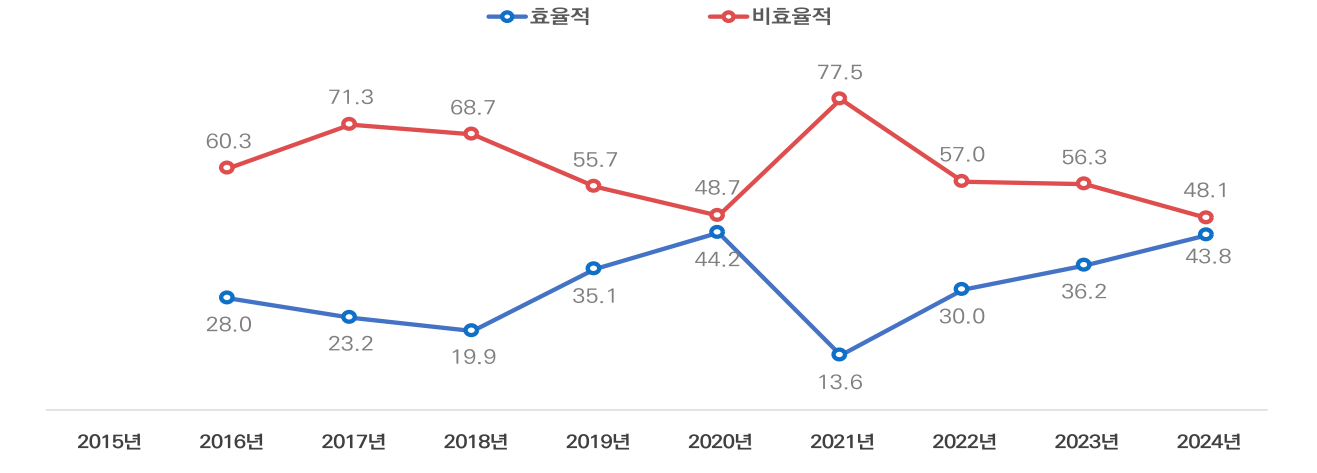


●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48.1%로 높게 나타남

국방예산 사용에 대해 '비효율적'이 48.1%로 '효율적'(43.8%)보다 4.3%p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비효율적'은 8.2%p 감소했으며, '효율적'은 7.6%p 증가함
- 2016년 대비 '효율적'이 15.8%p 증가했으며, '비효율적'은 12.2%p 감소함

|그림 2-33|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Ⅵ.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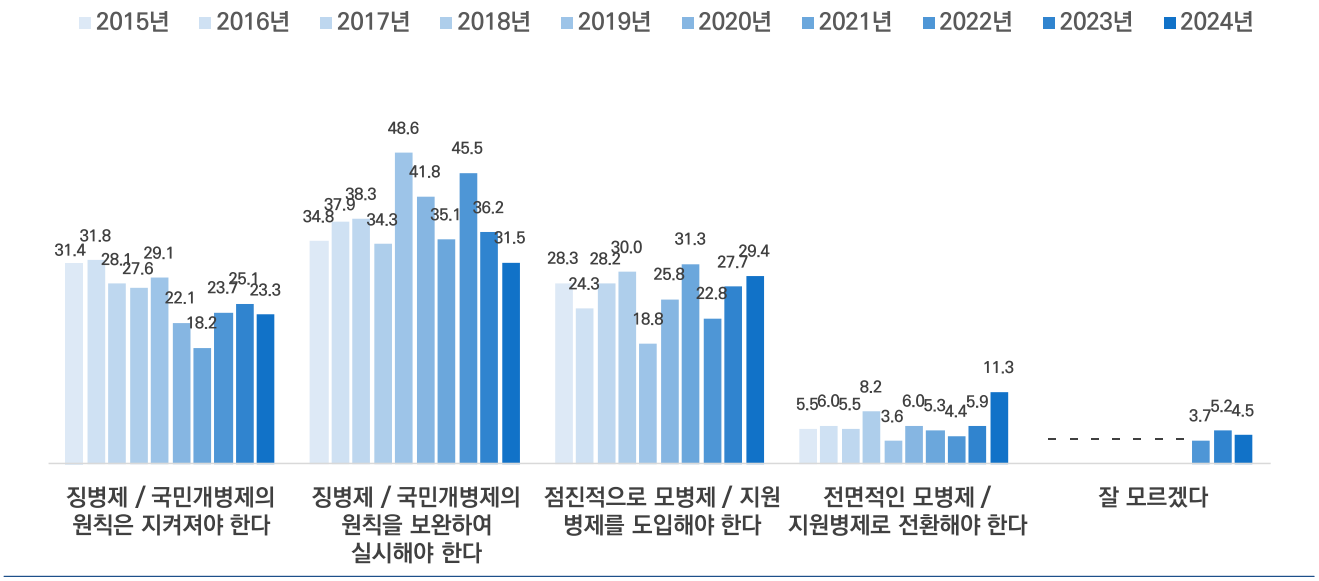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 '징병제/국민개병제[2]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2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5.4%p 증가하였으며,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4.7%p 감소함
- 2015년 대비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8.1%p 감소했으며,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5.8%p 증가함

|그림 2-34|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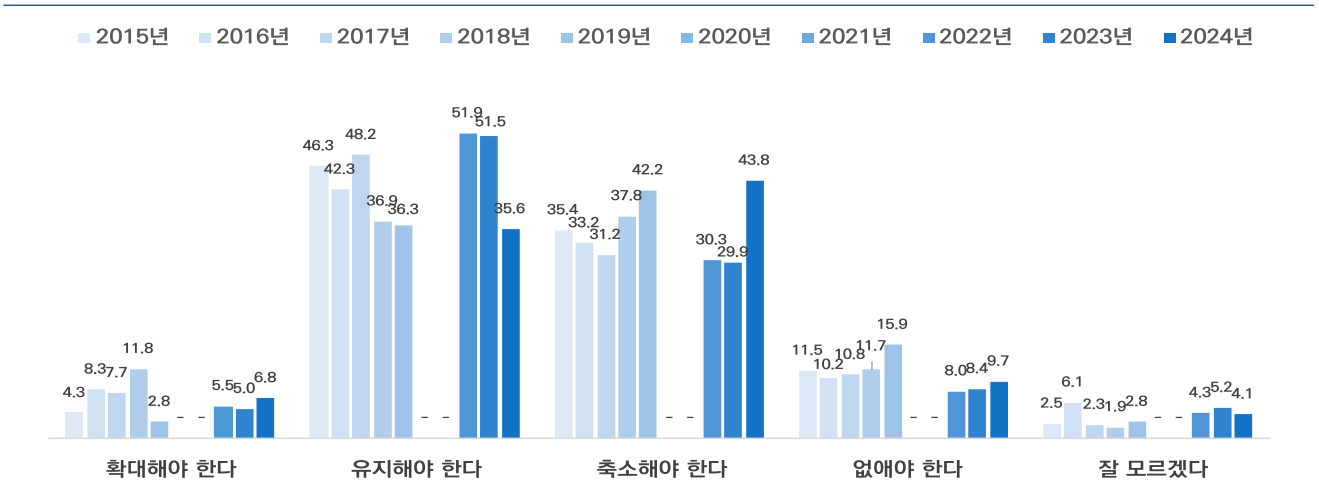
2) 국민개병제 :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 '축소해야 한다'이라는 인식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축소해야 한다'가 13.9%p 증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35.6%로 15.9%p 감소함
- 2015년 대비 '축소해야 한다'는 8.4%p 증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10.7%p 감소함

|그림 2-35|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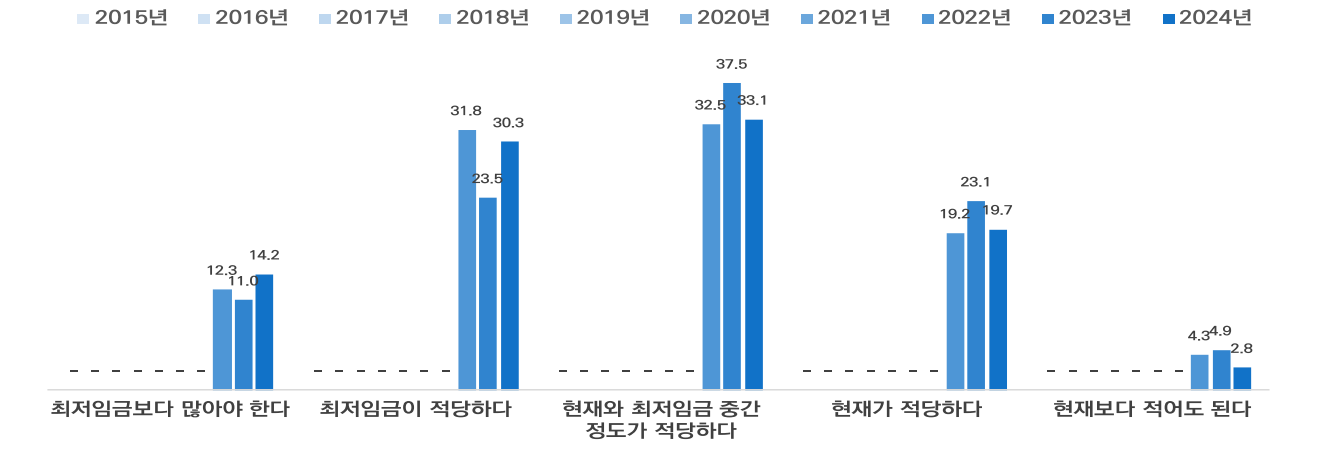


●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적정성

❖ 병사 사 봉급 수준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3]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적당하다'(30.3%), '현재가 적당하다'(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최저임금이 적당하다'는 6.8%p 증가하였으며, '현재가 적당하다'는 3.4%p 감소함

|그림 2-3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적정성



3) 2024년 최저임금 : 시간 당 9,860원, 월 206만원

제3장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조사결과 분석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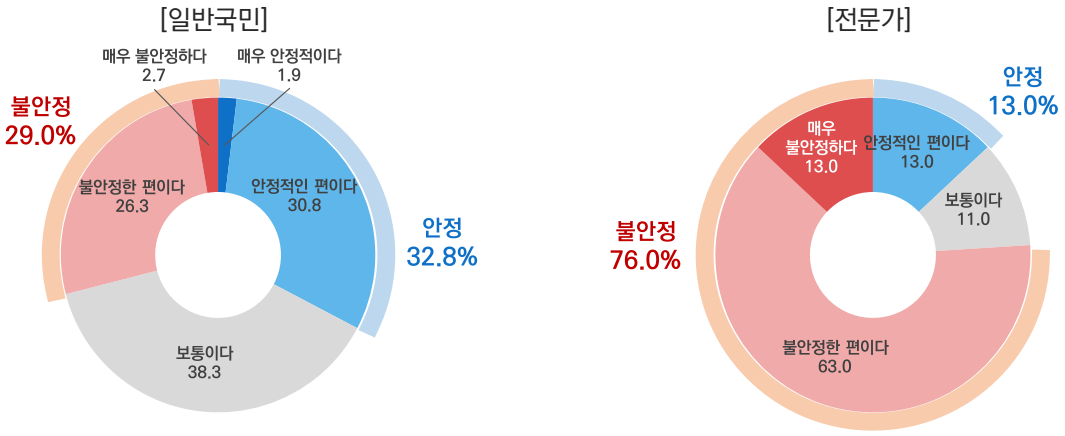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29.0%, 전문가 76.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안정적'(32.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3.8%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p(2023년 28.7%) 증가했으며,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6%p(2023년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0%로 '안정적'(13.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63.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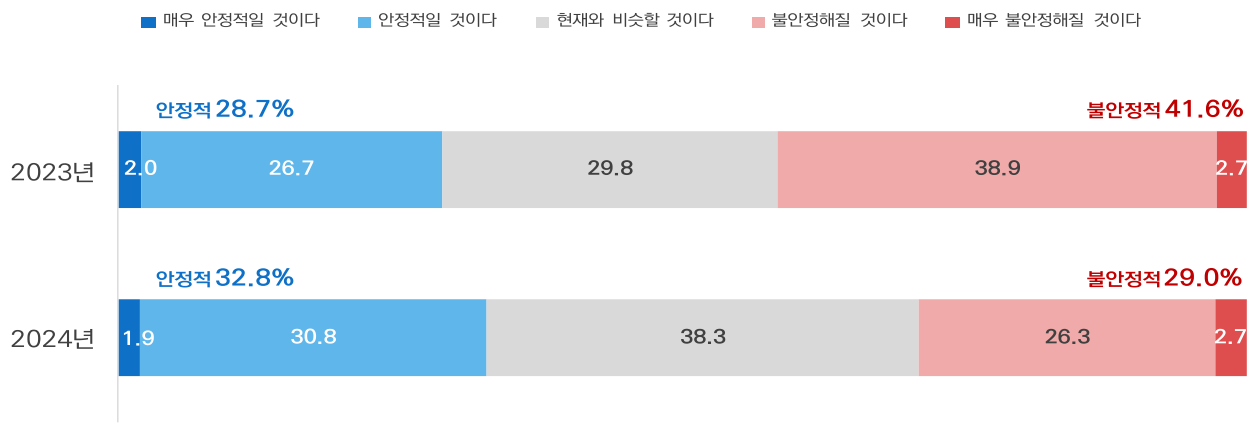
|그림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단위 : %)



|그림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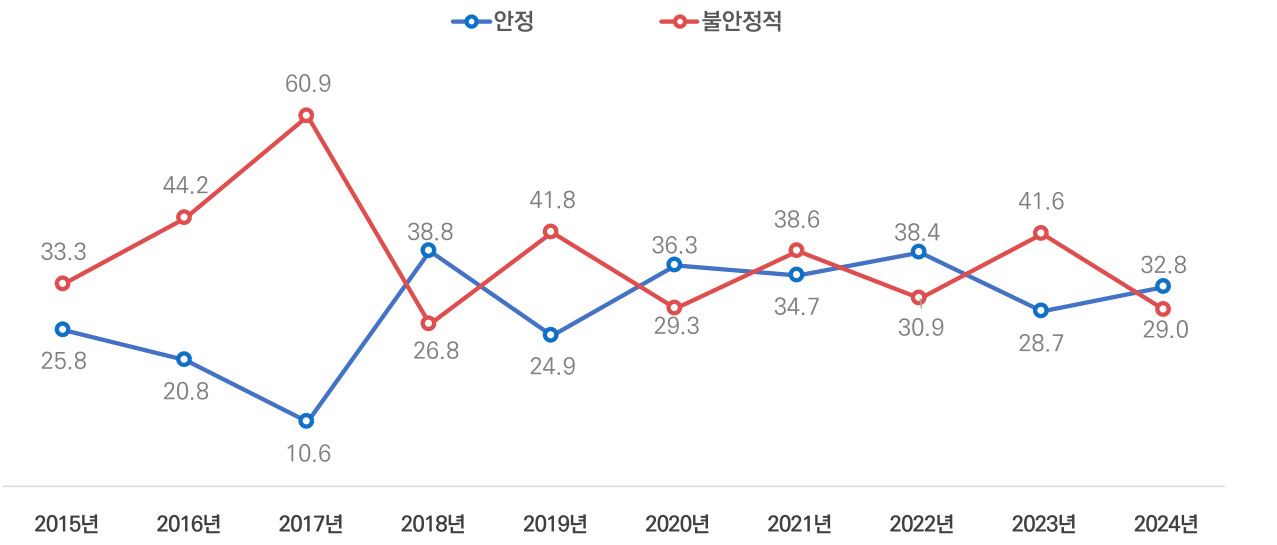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p 증가했으며,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안정적이다	0.9	1.8	1.2	3.1	1.0	1.4	5.8	1.5	2.0	1.9	-0.1	1.0
안정적인 편이다	24.9	19.1	9.4	35.8	23.9	34.8	28.8	36.9	26.7	30.8	4.1	5.9
보통이다	40.9	35.0	28.5	34.3	33.3	34.4	26.8	30.7	29.8	38.3	8.5	-2.6
불안정한 편이다	29.8	38.6	47.4	22.8	33.3	27.0	28.9	28.2	38.9	26.3	-12.6	-3.5
매우 불안정하다	3.5	5.6	13.5	4.1	8.5	2.3	9.7	2.8	2.7	2.7	0.0	-0.8
무응답	-	-	-	-	-	-	-	-	-	-	-	-
안정	25.8	20.8	10.6	38.8	24.9	36.3	34.7	38.4	28.7	32.8	4.1	7.0
불안정	33.3	44.2	60.9	26.8	41.8	29.3	38.6	30.9	41.6	29.0	-12.6	-4.3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300)	1.8	29.5	36.2	29.2	3.5	31.2	36.2	3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30.8	38.3	26.3	2.7	32.8	38.3	29.0
	전문가	(100)	-	13.0	11.0	63.0	13.0	13.0	11.0	7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1	42.2	32.4	18.5	2.8	46.3	32.4	21.3
	중	(580)	1.0	30.7	41.6	25.7	1.0	31.7	41.6	26.7
	하	(231)	0.4	12.1	39.8	41.1	6.5	12.6	39.8	47.6
성별	남성	(720)	1.5	32.1	36.3	27.6	2.5	33.6	36.3	30.1
	여성	(480)	2.5	29.0	41.3	24.4	2.9	31.5	41.3	27.3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30.0	40.1	27.2	0.9	31.8	40.1	28.1
	30대	(194)	2.6	28.9	40.2	26.8	1.5	31.4	40.2	28.4
	40대	(226)	0.9	33.2	38.9	25.2	1.8	34.1	38.9	27.0
	50대	(255)	2.0	33.7	34.5	28.6	1.2	35.7	34.5	29.8
	60대 이상	(308)	2.3	28.6	38.3	24.4	6.5	30.8	38.3	30.8
지역별	서울	(140)	-	22.1	37.1	37.9	2.9	22.1	37.1	40.7
	경기/인천	(245)	1.6	39.2	38.8	20.0	0.4	40.8	38.8	20.4
	부산/울산/경남	(208)	2.9	34.6	40.4	20.2	1.9	37.5	40.4	22.1
	대구/경북	(141)	5.0	20.6	39.7	30.5	4.3	25.5	39.7	34.8
	광주/전라	(170)	1.2	24.1	41.8	28.2	4.7	25.3	41.8	32.9
	대전/충청/세종	(205)	2.0	36.6	34.6	24.4	2.4	38.5	34.6	26.8
	강원/제주	(91)	-	28.6	33.0	34.1	4.4	28.6	33.0	38.5
지역크기	대도시	(524)	2.5	30.2	35.9	29.8	1.7	32.6	35.9	31.5
	중·소도시	(639)	1.6	30.0	40.1	24.7	3.6	31.6	40.1	28.3
	읍/면	(37)	-	54.1	40.5	5.4	-	54.1	40.5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	22.0	34.0	32.0	12.0	22.0	34.0	44.0
	자영업자	(185)	1.1	37.3	36.8	24.3	0.5	38.4	36.8	24.9
	판매/서비스직	(194)	1.5	32.0	40.7	23.7	2.1	33.5	40.7	25.8
	기능/숙련공	(127)	0.8	30.7	42.5	24.4	1.6	31.5	42.5	26.0
	일반 노무직	(41)	2.4	29.3	39.0	19.5	9.8	31.7	39.0	29.3
	사무/기술직	(283)	1.1	33.6	33.9	29.3	2.1	34.6	33.9	31.4
	경영/관리직	(19)	-	36.8	21.1	42.1	-	36.8	21.1	42.1
	전문/자유직	(7)	14.3	14.3	28.6	14.3	28.6	28.6	28.6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6	27.2	43.8	23.1	2.4	30.8	43.8	25.4
	학생	(73)	4.1	20.5	43.8	31.5	-	24.7	43.8	31.5
	무직/휴직/은퇴	(52)	5.8	25.0	32.7	30.8	5.8	30.8	32.7	36.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32.2	35.6	22.0	10.2	32.2	35.6	32.2
	고등학교	(440)	2.3	30.0	40.9	23.6	3.2	32.3	40.9	26.8
	전문대	(266)	1.1	30.8	42.5	23.7	1.9	32.0	42.5	25.6
	4년제 대학교	(427)	2.1	32.1	34.0	30.2	1.6	34.2	34.0	31.9
	대학원 이상	(8)	12.5	-	-	87.5	-	12.5	-	87.5
생활수준별	상	(73)	4.1	45.2	30.1	17.8	2.7	49.3	30.1	20.5
	중	(544)	1.7	34.2	39.3	24.1	0.7	35.8	39.3	24.8
	하	(583)	1.9	25.9	38.3	29.5	4.5	27.8	38.3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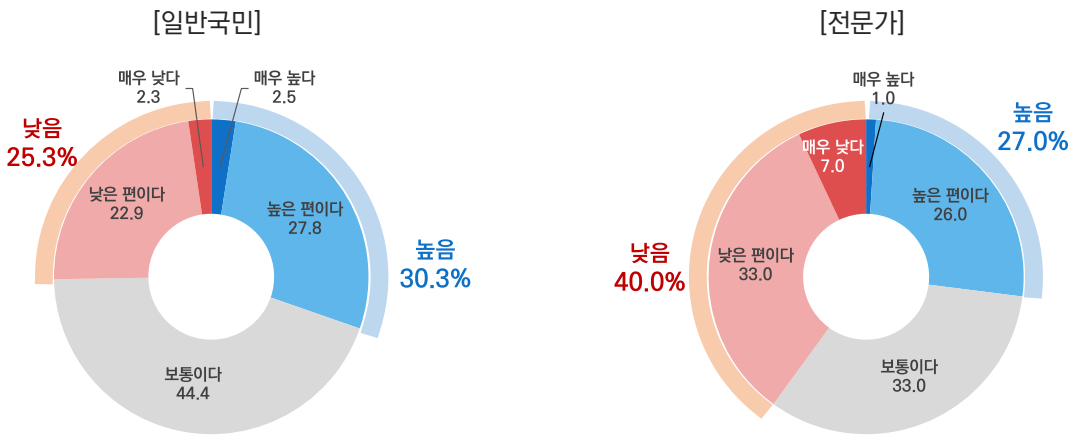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0.3%, 전문가 2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낮다'(25.3%)고 응답한 비율보다 5.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1%p(2023년 34.4%) 감소했으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5%p(2023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높음'이라는 응답이 27.0%로 '낮음'(40.0%)이라는 응답보다 13.0%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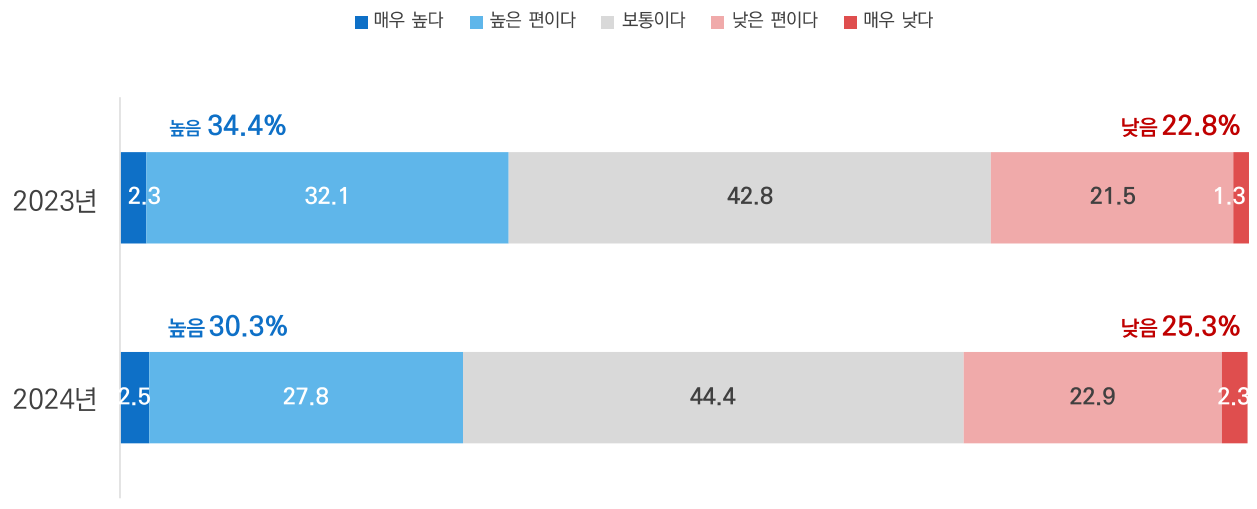
|그림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



|그림 3-4|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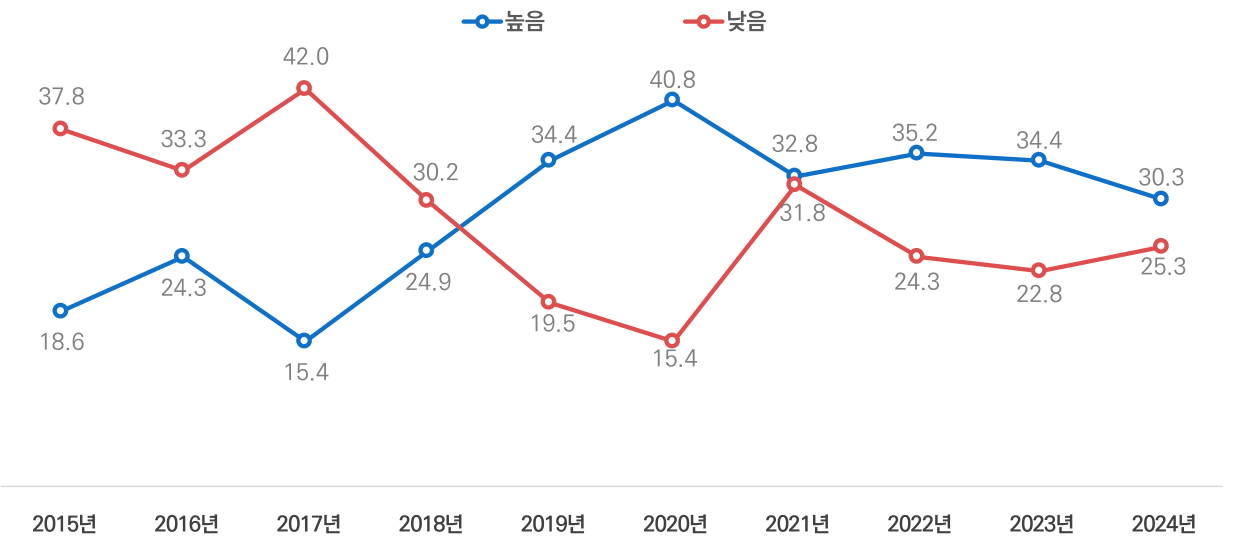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p 증가했으나,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높다	1.2	2.4	0.8	4.5	1.8	1.9	4.3	1.4	2.3	2.5	0.2	1.3
높은 편이다	17.4	21.9	14.6	20.4	32.7	38.9	28.6	33.8	32.1	27.8	-4.3	10.4
보통이다	43.6	42.3	42.6	44.9	46.1	43.8	35.3	40.6	42.8	44.4	1.6	0.8
낮은 편이다	34.1	29.8	36.9	26.8	17.1	14.8	26.5	22.8	21.5	22.9	1.4	-11.2
매우 낮다	3.7	3.6	5.1	3.4	2.4	0.6	5.3	1.4	1.3	2.3	1.0	-1.4
무응답	-	-	-	-	-	-	-	-	-	-	-	-
높음	18.6	24.3	15.4	24.9	34.4	40.8	32.8	35.2	34.4	30.3	-4.1	11.7
낮음	37.8	33.3	42.0	30.2	19.5	15.4	31.8	24.3	22.8	25.3	2.5	-12.5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300)	2.4	27.7	43.5	23.7	2.7	30.1	43.5	26.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	27.8	44.4	22.9	2.3	30.3	44.4	25.3
	전문가	(100)	1.0	26.0	33.0	33.0	7.0	27.0	33.0	4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6.2	47.8	36.5	8.7	0.8	54.0	36.5	9.5
	중	(580)	1.0	24.3	53.1	20.7	0.9	25.3	53.1	21.6
	하	(231)	-	3.0	35.9	52.4	8.7	3.0	35.9	61.0
성별	남성	(720)	2.4	26.5	46.0	22.9	2.2	28.9	46.0	25.1
	여성	(480)	2.7	29.8	42.1	22.9	2.5	32.5	42.1	25.4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22.1	51.2	24.4	0.9	23.5	51.2	25.3
	30대	(194)	2.6	30.4	45.9	19.6	1.5	33.0	45.9	21.1
	40대	(226)	1.3	30.5	38.9	26.5	2.7	31.9	38.9	29.2
	50대	(255)	2.7	26.3	45.1	23.9	2.0	29.0	45.1	25.9
	60대 이상	(308)	3.9	29.5	42.2	20.5	3.9	33.4	42.2	24.4
지역별	서울	(140)	-	20.0	47.9	31.4	0.7	20.0	47.9	32.1
	경기/인천	(245)	3.7	29.8	50.2	14.7	1.6	33.5	50.2	16.3
	부산/울산/경남	(208)	5.3	28.8	38.9	23.1	3.8	34.1	38.9	26.9
	대구/경북	(141)	4.3	27.7	37.6	28.4	2.1	31.9	37.6	30.5
	광주/전라	(170)	0.6	35.3	43.5	17.6	2.9	35.9	43.5	20.6
	대전/충청/세종	(205)	1.0	27.3	45.9	22.9	2.9	28.3	45.9	25.9
	강원/제주	(91)	1.1	19.8	45.1	33.0	1.1	20.9	45.1	34.1
지역크기	대도시	(524)	3.2	25.4	45.6	24.4	1.3	28.6	45.6	25.8
	중·소도시	(639)	2.0	29.1	42.9	22.7	3.3	31.1	42.9	26.0
	읍/면	(37)	-	40.5	54.1	5.4	-	40.5	54.1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	32.0	30.0	26.0	12.0	32.0	30.0	38.0
	자영업자	(185)	2.2	25.9	50.3	20.5	1.1	28.1	50.3	21.6
	판매/서비스직	(194)	1.5	27.3	47.4	22.7	1.0	28.9	47.4	23.7
	기능/숙련공	(127)	1.6	29.9	44.9	21.3	2.4	31.5	44.9	23.6
	일반 노무직	(41)	2.4	24.4	41.5	24.4	7.3	26.8	41.5	31.7
	사무/기술직	(283)	3.2	31.1	42.8	21.6	1.4	34.3	42.8	23.0
	경영/관리직	(19)	10.5	42.1	21.1	21.1	5.3	52.6	21.1	26.3
	전문/자유직	(7)	-	14.3	28.6	57.1	-	14.3	28.6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6	29.0	42.0	22.5	3.0	32.5	42.0	25.4
	학생	(73)	-	24.7	43.8	31.5	-	24.7	43.8	31.5
	무직/휴직/은퇴	(52)	5.8	9.6	55.8	25.0	3.8	15.4	55.8	28.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23.7	50.8	16.9	8.5	23.7	50.8	25.4
	고등학교	(440)	2.7	29.1	43.2	22.3	2.7	31.8	43.2	25.0
	전문대	(266)	0.8	26.3	47.7	23.7	1.5	27.1	47.7	25.2
	4년제 대학교	(427)	3.5	28.6	42.6	23.7	1.6	32.1	42.6	25.3
	대학원 이상	(8)	12.5	-	50.0	37.5	-	12.5	50.0	37.5
생활수준별	상	(73)	5.5	34.2	37.0	21.9	1.4	39.7	37.0	23.3
	중	(544)	1.3	29.2	47.4	20.8	1.3	30.5	47.4	22.1
	하	(583)	3.3	25.7	42.5	25.0	3.4	29.0	42.5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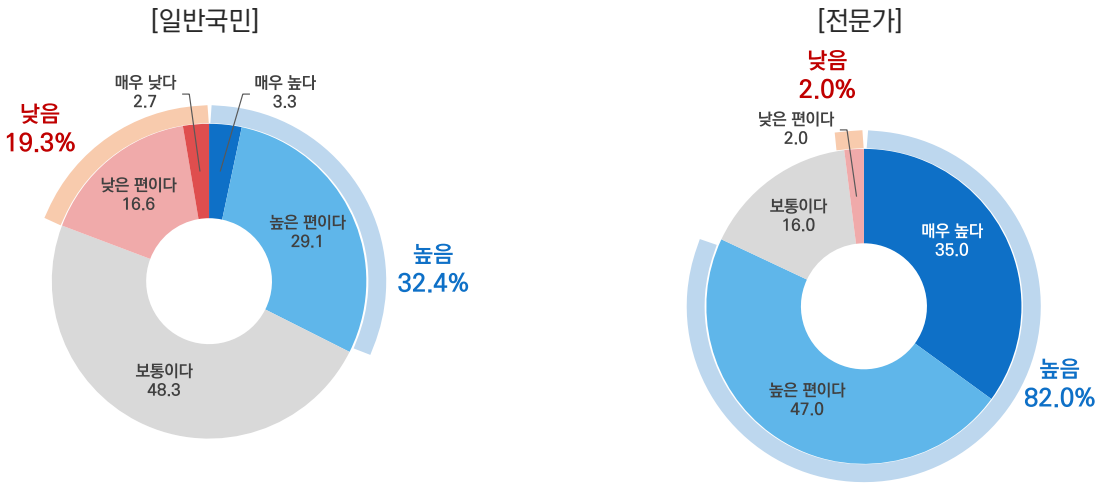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2.4%, 전문가 82.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로 '낮다'(19.3%)고 응답한 비율이 13.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로 2.2%p(2023년 34.6%) 감소했으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로 2.4%p(2023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82.0%로 '낮다'(2.0%)고 응답한 비율보다 8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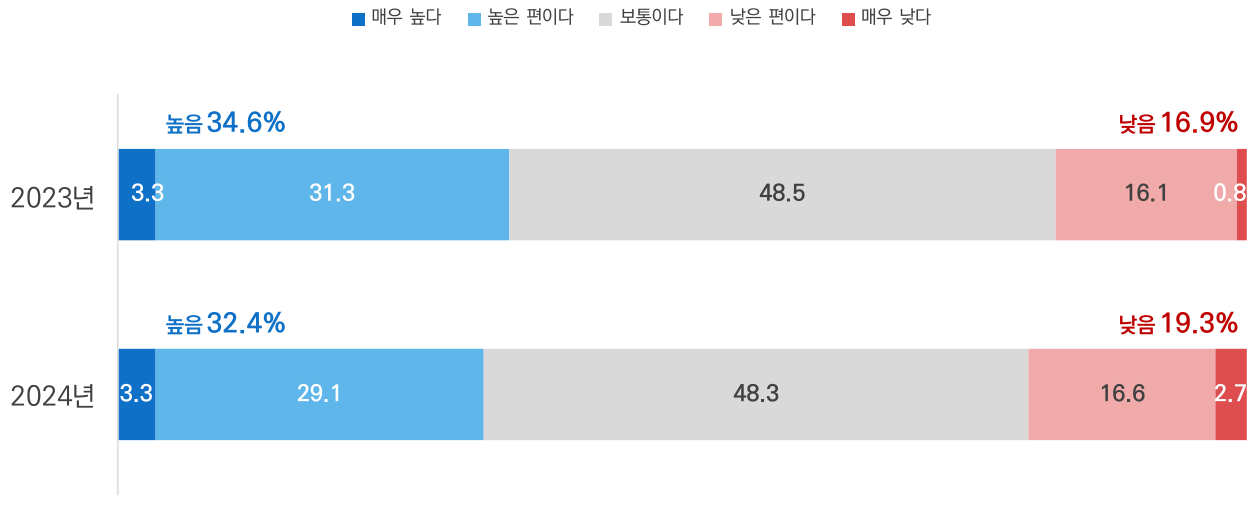
|그림 3-6|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



|그림 3-7|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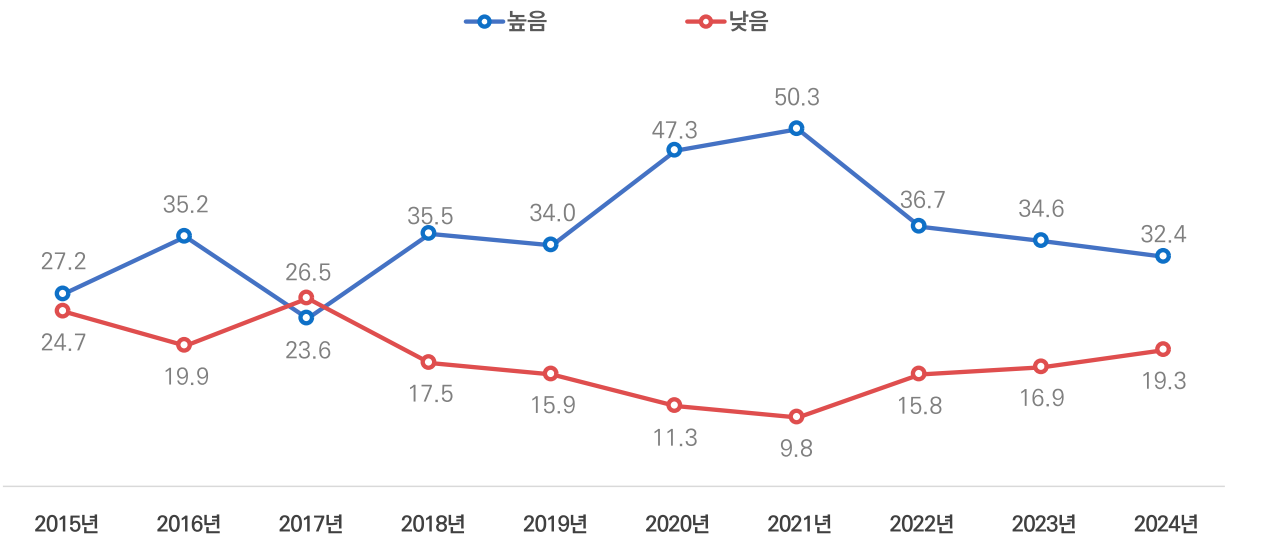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2%p 증가했으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4|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높다	3.2	4.3	2.8	6.4	2.2	3.5	11.3	1.4	3.3	3.3	0.0	0.1
높은 편이다	24.0	30.9	20.8	29.1	31.8	43.8	38.9	35.3	31.3	29.1	-2.2	5.1
보통이다	48.2	44.9	49.9	47.0	50.1	41.4	39.9	47.5	48.5	48.3	-0.2	0.1
낮은 편이다	22.7	18.6	23.8	15.4	14.7	10.8	8.8	15.2	16.1	16.6	0.5	-6.1
매우 낮다	2.0	1.3	2.8	2.1	1.3	0.5	1.0	0.7	0.8	2.7	1.9	0.7
무응답	-	-	-	-	-	-	-	-	-	-	-	-
높음	27.2	35.2	23.6	35.5	34.0	47.3	50.3	36.7	34.6	32.4	-2.2	5.2
낮음	24.7	19.9	26.5	17.5	15.9	11.3	9.8	15.8	16.9	19.3	2.4	-5.4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5|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300)	5.8	30.5	45.8	15.5	2.5	36.2	45.8	1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29.1	48.3	16.6	2.7	32.4	48.3	19.3
	전문가	(100)	35.0	47.0	16.0	2.0	-	82.0	16.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3	89.7	-	-	-	100.0	-	-
	중	(580)	-	-	100.0	-	-	-	100.0	-
	하	(231)	-	-	-	86.1	13.9	-	-	100.0
성별	남성	(720)	3.8	30.8	48.9	14.4	2.1	34.6	48.9	16.5
	여성	(480)	2.7	26.5	47.5	19.8	3.5	29.2	47.5	23.3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24.0	52.5	20.7	1.8	24.9	52.5	22.6
	30대	(194)	2.1	29.4	45.9	19.6	3.1	31.4	45.9	22.7
	40대	(226)	2.2	30.1	51.3	14.2	2.2	32.3	51.3	16.4
	50대	(255)	3.9	29.4	46.7	18.0	2.0	33.3	46.7	20.0
	60대 이상	(308)	6.2	31.5	46.1	12.3	3.9	37.7	46.1	16.2
지역별	서울	(140)	0.7	26.4	58.6	14.3	-	27.1	58.6	14.3
	경기/인천	(245)	5.7	27.8	51.8	13.5	1.2	33.5	51.8	14.7
	부산/울산/경남	(208)	5.8	25.5	49.0	15.9	3.8	31.3	49.0	19.7
	대구/경북	(141)	4.3	30.5	48.2	16.3	0.7	34.8	48.2	17.0
	광주/전라	(170)	0.6	45.9	41.2	12.4	-	46.5	41.2	12.4
	대전/충청/세종	(205)	1.0	27.3	47.3	22.9	1.5	28.3	47.3	24.4
	강원/제주	(91)	4.4	15.4	37.4	24.2	18.7	19.8	37.4	42.9
지역크기	대도시	(524)	3.2	27.9	52.7	15.5	0.8	31.1	52.7	16.2
	중·소도시	(639)	3.3	28.8	45.2	18.3	4.4	32.1	45.2	22.7
	읍/면	(37)	5.4	51.4	40.5	2.7	-	56.8	40.5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30.0	30.0	20.0	16.0	34.0	30.0	36.0
	자영업자	(185)	4.3	37.3	47.0	10.8	0.5	41.6	47.0	11.4
	판매/서비스직	(194)	1.5	30.4	44.3	21.6	2.1	32.0	44.3	23.7
	기능/숙련공	(127)	4.7	35.4	44.9	12.6	2.4	40.2	44.9	15.0
	일반 노무직	(41)	4.9	29.3	53.7	12.2	-	34.1	53.7	12.2
	사무/기술직	(283)	2.1	23.3	54.8	18.4	1.4	25.4	54.8	19.8
	경영/관리직	(19)	10.5	47.4	26.3	10.5	5.3	57.9	26.3	15.8
	전문/자유직	(7)	-	14.3	28.6	42.9	14.3	14.3	28.6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6	24.9	50.9	17.2	3.6	28.4	50.9	20.7
	학생	(73)	1.4	23.3	57.5	13.7	4.1	24.7	57.5	17.8
	무직/휴직/은퇴	(52)	7.7	26.9	44.2	19.2	1.9	34.6	44.2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39.0	40.7	13.6	3.4	42.4	40.7	16.9
	고등학교	(440)	5.2	29.3	46.1	16.6	2.7	34.5	46.1	19.3
	전문대	(266)	1.5	32.7	47.0	15.4	3.4	34.2	47.0	18.8
	4년제 대학교	(427)	2.3	25.1	52.7	18.0	1.9	27.4	52.7	19.9
	대학원 이상	(8)	12.5	37.5	37.5	-	12.5	50.0	37.5	12.5
생활수준별	상	(73)	8.2	28.8	56.2	6.8	-	37.0	56.2	6.8
	중	(544)	2.8	28.3	51.8	16.4	0.7	31.1	51.8	17.1
	하	(583)	3.3	29.8	44.1	18.0	4.8	33.1	44.1	22.8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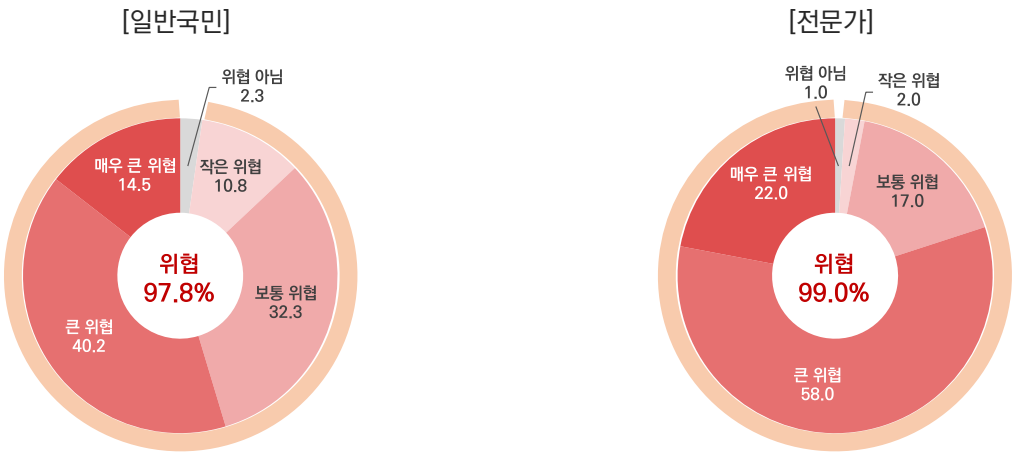
1) 강대국의 패권전쟁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7.8%,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8%로 '위협 아님'(2.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p(2023년 99.6%)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p(2023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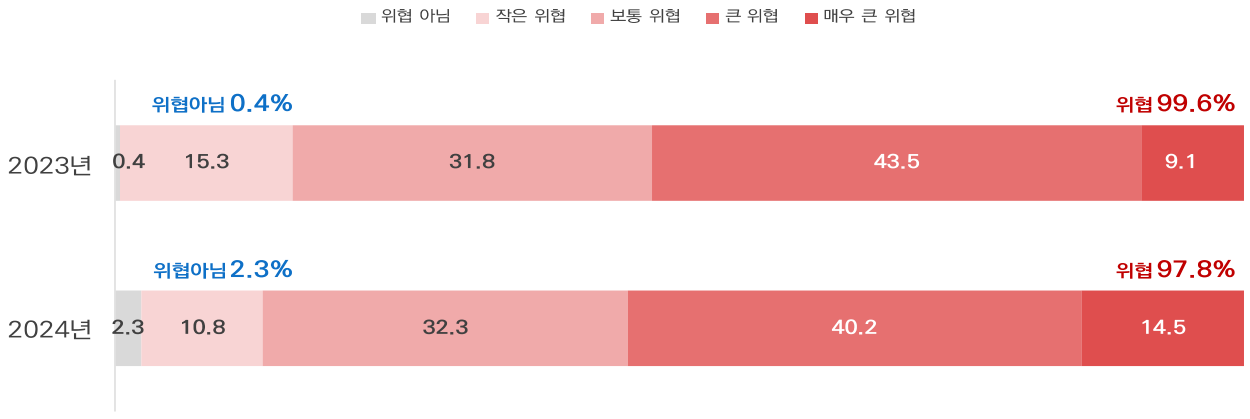
|그림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

(단위 : %)



|그림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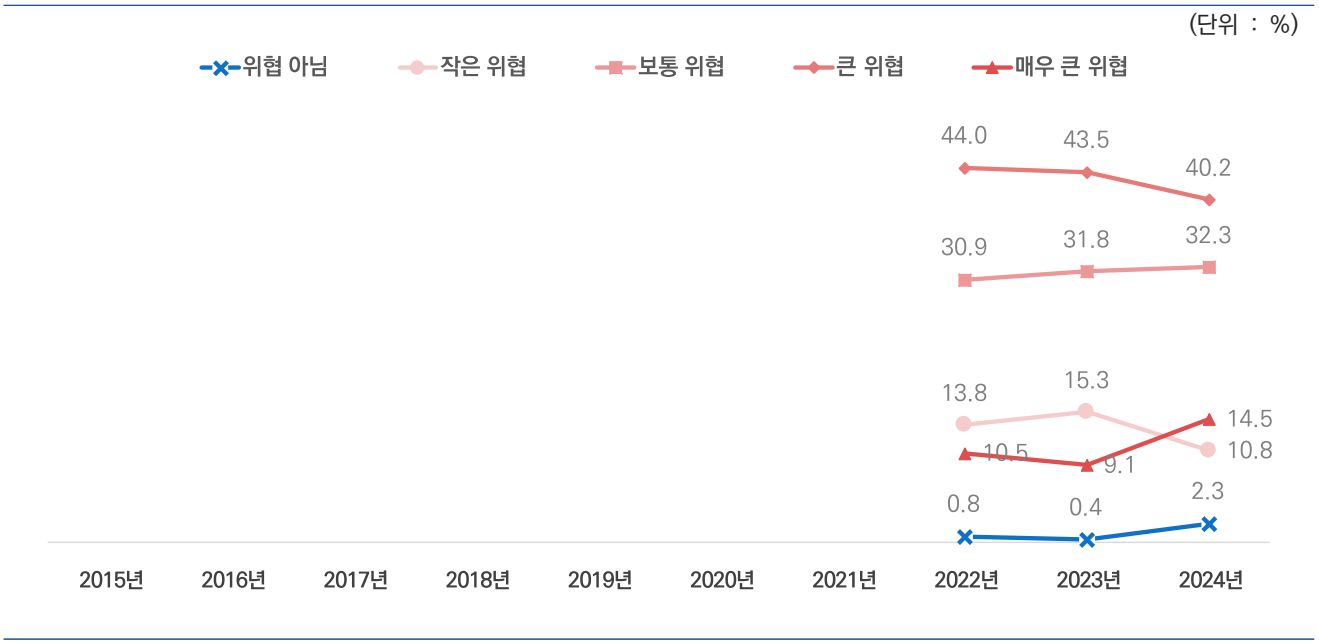
(단위 : %)



4) '매우 큰 위협+큰 위협+보통 위협+작은 위협'의 합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은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8	0.4	2.3	1.9	1.5
작은 위협	–	–	–	–	–	–	–	13.8	15.3	10.8	-4.5	-3.0
보통 위협	–	–	–	–	–	–	–	30.9	31.8	32.3	0.5	1.4
큰 위협	–	–	–	–	–	–	–	44.0	43.5	40.2	-3.3	-3.8
매우 큰 위협	–	–	–	–	–	–	–	10.5	9.1	14.5	5.4	4.0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8	0.4	2.3	1.9	1.5
위협	–	–	–	–	–	–	–	99.3	99.6	97.8	-1.8	-1.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강대국의 패권전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2.2	10.1	31.2	41.5	15.1	2.2	97.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0.8	32.3	40.2	14.5	2.3	97.8
	전문가	(100)	1.0	2.0	17.0	58.0	22.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1	13.1	30.8	33.9	18.0	4.1	95.9
	중	(580)	1.7	10.9	34.1	41.9	11.4	1.7	98.3
	하	(231)	0.4	6.5	30.3	46.3	16.5	0.4	99.6
성별	남성	(720)	2.9	9.7	31.5	42.1	13.8	2.9	97.1
	여성	(480)	1.3	12.3	33.5	37.3	15.6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14.7	32.7	37.8	13.8	0.9	99.1
	30대	(194)	3.1	11.3	32.5	41.2	11.9	3.1	96.9
	40대	(226)	2.2	6.6	36.7	39.8	14.6	2.2	97.8
	50대	(255)	2.4	10.2	31.8	39.2	16.5	2.4	97.6
	60대 이상	(308)	2.6	11.0	29.2	42.2	14.9	2.6	97.4
지역별	서울	(140)	0.7	4.3	25.0	59.3	10.7	0.7	99.3
	경기/인천	(245)	1.2	13.5	22.4	47.8	15.1	1.2	98.8
	부산/울산/경남	(208)	-	9.6	43.3	33.2	13.9	-	100.0
	대구/경북	(141)	0.7	12.8	33.3	37.6	15.6	0.7	99.3
	광주/전라	(170)	-	13.5	35.9	33.5	17.1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5.4	12.2	30.2	34.6	17.6	5.4	94.6
	강원/제주	(91)	12.1	4.4	41.8	35.2	6.6	12.1	87.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	10.7	31.9	41.8	14.1	1.5	98.5
	중·소도시	(639)	2.0	9.7	31.9	40.7	15.6	2.0	98.0
	읍/면	(37)	16.2	29.7	45.9	8.1	-	16.2	83.8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12.0	24.0	48.0	14.0	2.0	98.0
	자영업자	(185)	2.2	9.7	33.0	40.5	14.6	2.2	97.8
	판매/서비스직	(194)	2.1	7.7	33.0	39.7	17.5	2.1	97.9
	기능/숙련공	(127)	3.9	6.3	26.0	40.2	23.6	3.9	96.1
	일반 노무직	(41)	2.4	2.4	46.3	39.0	9.8	2.4	97.6
	사무/기술직	(283)	2.1	11.7	33.2	39.2	13.8	2.1	97.9
	경영/관리직	(19)	-	10.5	26.3	42.1	21.1	-	100.0
	전문/자유직	(7)	-	42.9	-	57.1	-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13.6	35.5	39.1	10.7	1.2	98.8
	학생	(73)	-	20.5	31.5	39.7	8.2	-	100.0
	무직/휴직/은퇴	(52)	7.7	9.6	32.7	40.4	9.6	7.7	92.3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6.8	35.6	47.5	8.5	1.7	98.3
	고등학교	(440)	1.6	10.0	28.0	43.2	17.3	1.6	98.4
	전문대	(266)	4.1	8.3	39.8	33.5	14.3	4.1	95.9
	4년제 대학교	(427)	1.9	13.8	31.9	39.8	12.6	1.9	98.1
	대학원 이상	(8)	-	-	25.0	62.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6.8	15.1	30.1	32.9	15.1	6.8	93.2
	중	(544)	2.4	11.8	34.2	41.5	10.1	2.4	97.6
	하	(583)	1.5	9.3	30.9	39.8	18.5	1.5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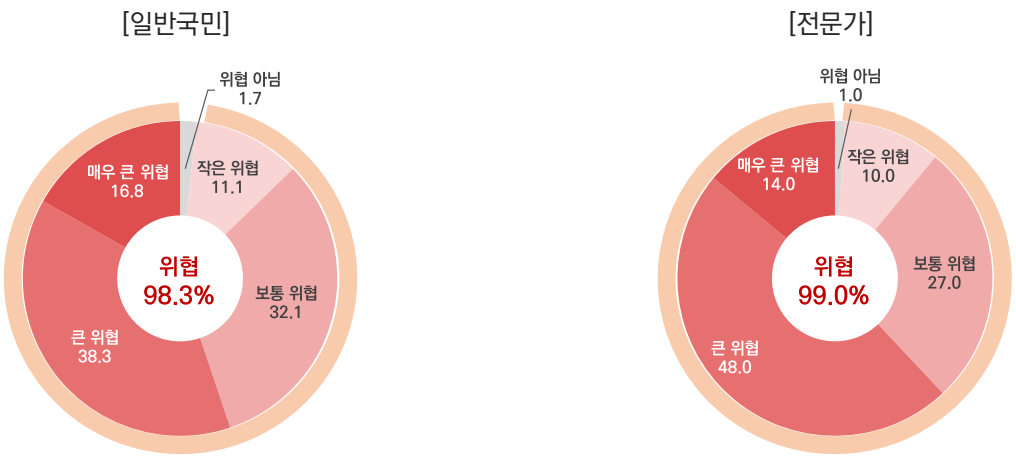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3%,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3%로 '위협 아님'(1.7%)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9%p(2023년 99.2%)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p(2023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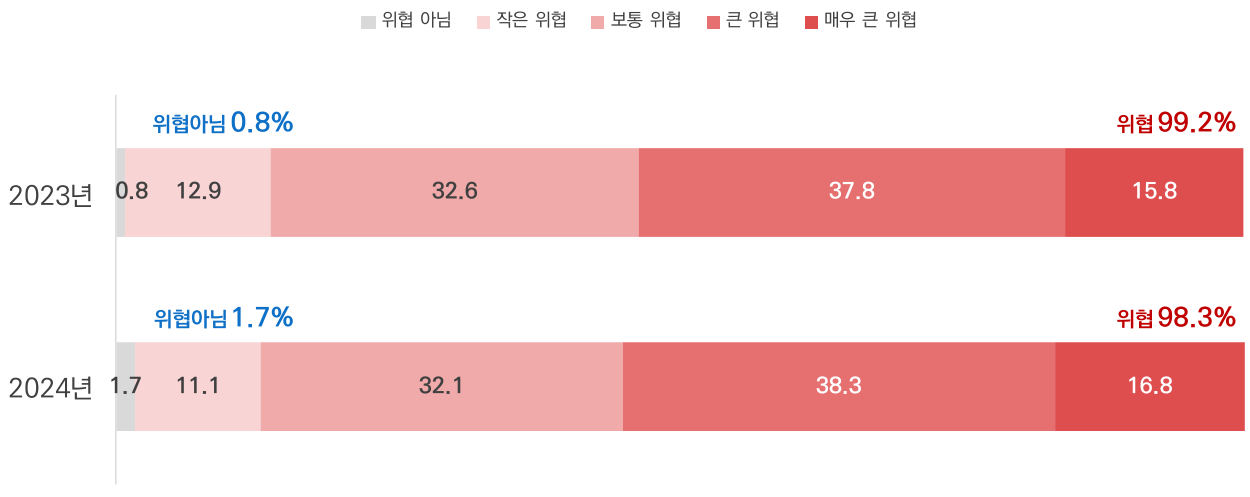
|그림 3-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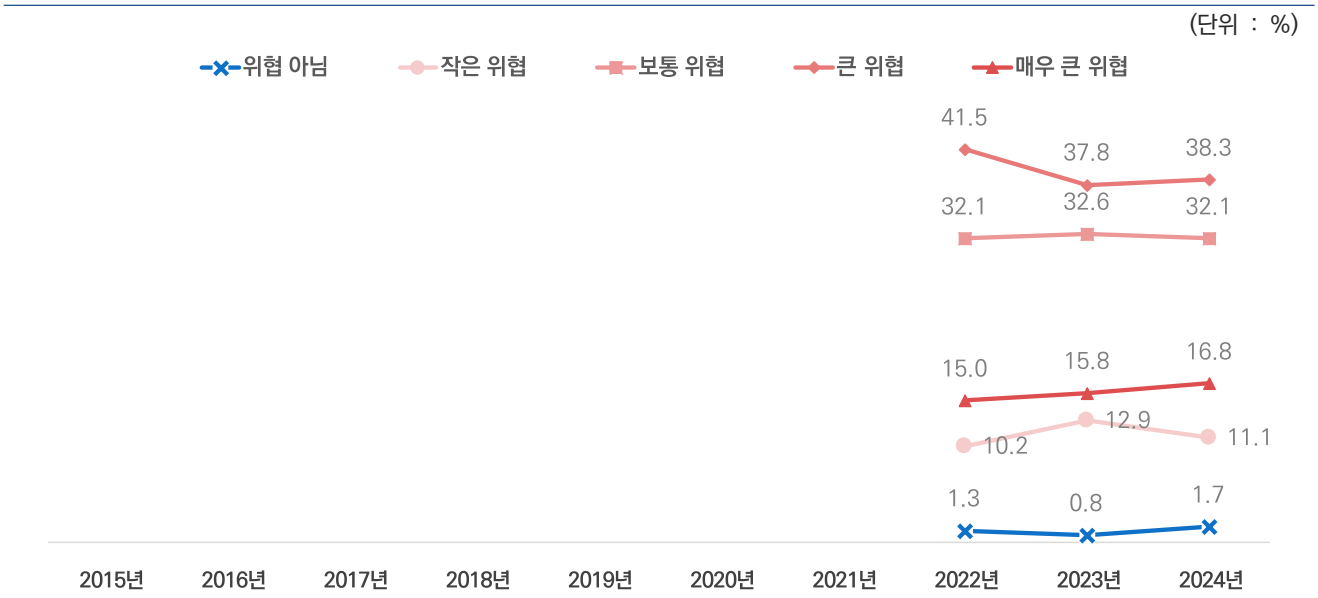
|그림 3-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1.3	0.8	1.7	0.9	0.4
작은 위협	–	–	–	–	–	–	–	10.2	12.9	11.1	-1.8	0.9
보통 위협	–	–	–	–	–	–	–	32.1	32.6	32.1	-0.5	0.0
큰 위협	–	–	–	–	–	–	–	41.5	37.8	38.3	0.5	-3.2
매우 큰 위협	–	–	–	–	–	–	–	15.0	15.8	16.8	1.0	1.8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1.3	0.8	1.7	0.9	0.4
위협	–	–	–	–	–	–	–	98.8	99.2	98.3	-0.9	-0.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6	11.0	31.7	39.1	16.6	1.6	9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11.1	32.1	38.3	16.8	1.7	98.3
	전문가	(100)	1.0	10.0	27.0	48.0	14.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1	13.1	26.7	36.0	21.1	3.1	96.9
	중	(580)	1.2	11.4	35.5	37.9	14.0	1.2	98.8
	하	(231)	0.4	6.9	32.5	43.3	16.9	0.4	99.6
성별	남성	(720)	1.9	9.0	31.5	41.0	16.5	1.9	98.1
	여성	(480)	1.3	14.2	32.9	34.4	17.3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2.3	11.1	36.4	35.5	14.7	2.3	97.7
	30대	(194)	0.5	12.4	27.3	44.3	15.5	0.5	99.5
	40대	(226)	1.8	10.6	34.1	35.4	18.1	1.8	98.2
	50대	(255)	2.7	11.8	30.6	36.5	18.4	2.7	97.3
	60대 이상	(308)	1.0	10.1	31.8	40.3	16.9	1.0	99.0
지역별	서울	(140)	–	7.9	23.6	44.3	24.3	–	100.0
	경기/인천	(245)	0.4	11.4	27.8	38.8	21.6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0.5	8.2	34.6	49.5	7.2	0.5	99.5
	대구/경북	(141)	1.4	14.2	26.2	44.0	14.2	1.4	98.6
	광주/전라	(170)	–	14.1	40.6	29.4	15.9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3.9	12.2	33.2	28.3	22.4	3.9	96.1
	강원/제주	(91)	8.8	8.8	41.8	33.0	7.7	8.8	91.2
지역크기	대도시	(524)	0.6	9.5	31.5	42.4	16.0	0.6	99.4
	중·소도시	(639)	2.2	11.7	32.4	35.2	18.5	2.2	97.8
	읍/면	(37)	8.1	21.6	35.1	35.1	–	8.1	91.9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4.0	22.0	54.0	18.0	2.0	98.0
	자영업자	(185)	1.1	11.4	34.6	36.8	16.2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1.0	7.2	33.0	41.8	17.0	1.0	99.0
	기능/숙련공	(127)	0.8	9.4	26.0	40.2	23.6	0.8	99.2
	일반 노무직	(41)	–	12.2	26.8	48.8	12.2	–	100.0
	사무/기술직	(283)	1.8	10.2	32.9	36.4	18.7	1.8	98.2
	경영/관리직	(19)	5.3	10.5	15.8	47.4	21.1	5.3	94.7
	전문/자유직	(7)	14.3	–	28.6	57.1	–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17.8	33.7	36.1	11.8	0.6	99.4
	학생	(73)	4.1	12.3	45.2	24.7	13.7	4.1	95.9
	무직/휴직/은퇴	(52)	5.8	17.3	26.9	34.6	15.4	5.8	94.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1.9	23.7	49.2	13.6	1.7	98.3
	고등학교	(440)	1.1	11.4	29.1	37.5	20.9	1.1	98.9
	전문대	(266)	1.5	11.3	35.0	39.8	12.4	1.5	98.5
	4년제 대학교	(427)	2.3	10.8	34.4	36.3	16.2	2.3	97.7
	대학원 이상	(8)	–	–	37.5	62.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8.2	17.8	30.1	31.5	12.3	8.2	91.8
	중	(544)	1.7	13.1	34.6	36.4	14.3	1.7	98.3
	하	(583)	0.9	8.4	30.0	41.0	19.7	0.9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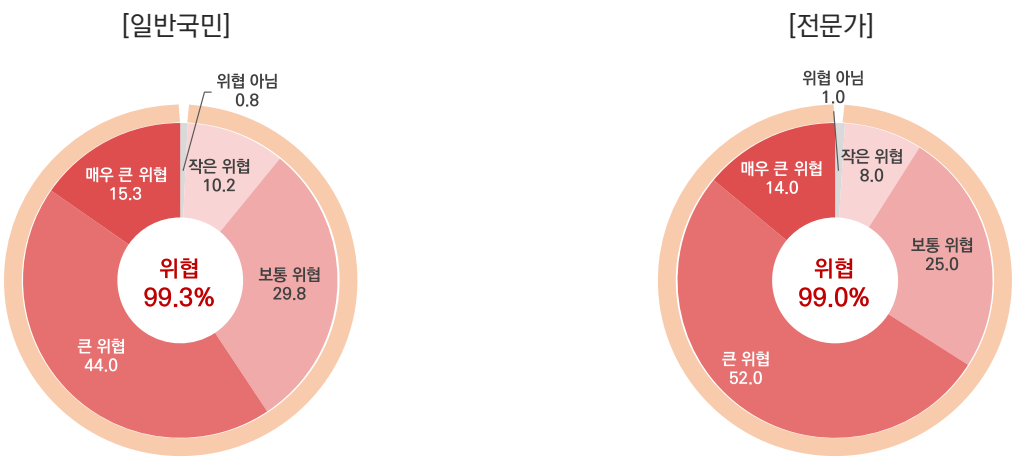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3%,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3%로 '위협 아님'(0.8%)이라는 응답보다 9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 99.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0.1%p(2023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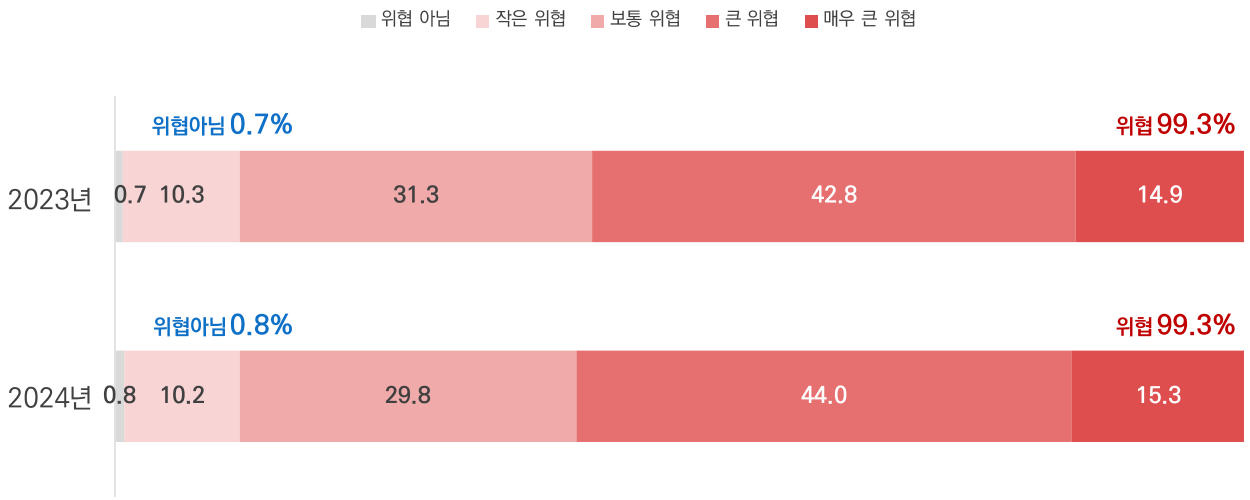
|그림 3-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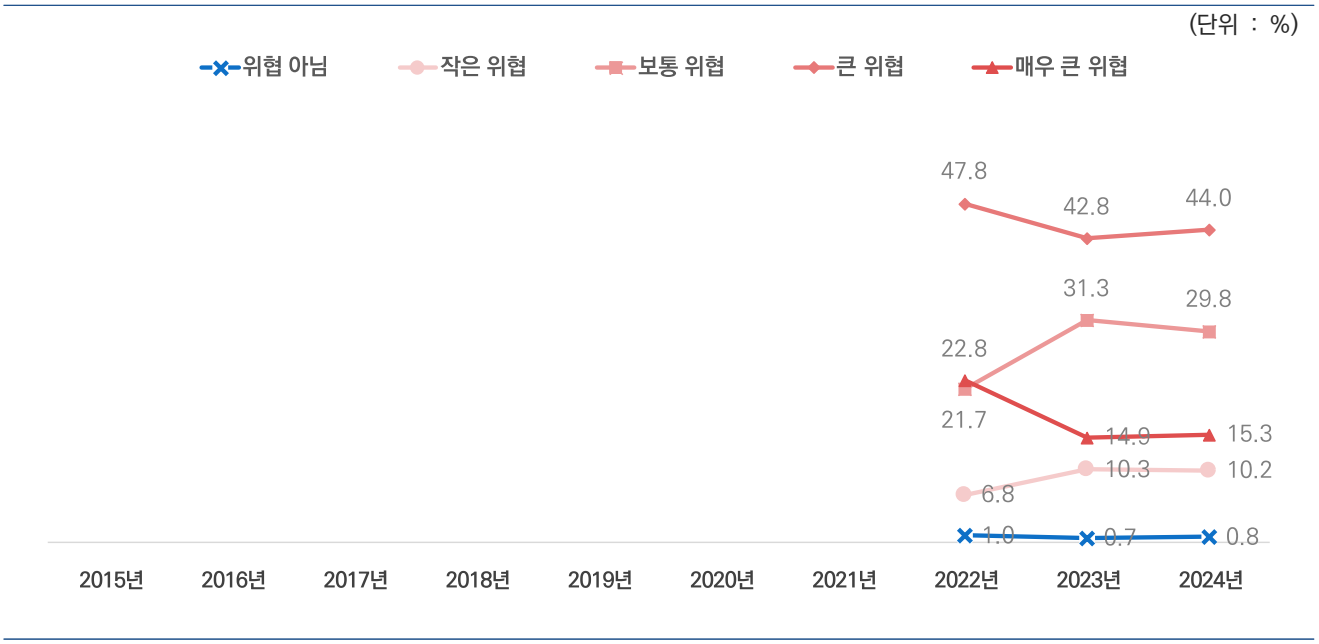
|그림 3-1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1.0	0.7	0.8	0.1	–0.2
작은 위협	–	–	–	–	–	–	–	6.8	10.3	10.2	–0.1	3.4
보통 위협	–	–	–	–	–	–	–	21.7	31.3	29.8	–1.5	8.1
큰 위협	–	–	–	–	–	–	–	47.8	42.8	44.0	1.2	–3.8
매우 큰 위협	–	–	–	–	–	–	–	22.8	14.9	15.3	0.4	–7.5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1.0	0.7	0.8	0.1	–0.2
위협	–	–	–	–	–	–	–	99.0	99.3	99.3	0.0	0.3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3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 '기능/숙련공',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8	10.0	29.4	44.6	15.2	0.8	9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0.2	29.8	44.0	15.3	0.8	99.3
	전문가	(100)	1.0	8.0	25.0	52.0	14.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	15.4	27.8	42.2	12.9	1.8	98.2
	중	(580)	0.3	8.6	29.7	47.6	13.8	0.3	99.7
	하	(231)	-	5.2	33.3	38.1	23.4	-	100.0
성별	남성	(720)	1.0	7.8	30.4	45.6	15.3	1.0	99.0
	여성	(480)	0.4	13.8	28.8	41.7	15.4	0.4	99.6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10.6	30.9	46.1	12.0	0.5	99.5
	30대	(194)	0.5	12.4	24.2	42.8	20.1	0.5	99.5
	40대	(226)	0.9	11.9	28.3	45.1	13.7	0.9	99.1
	50대	(255)	0.8	9.4	27.5	47.1	15.3	0.8	99.2
	60대 이상	(308)	1.0	7.8	35.4	39.9	15.9	1.0	99.0
지역별	서울	(140)	-	4.3	29.3	50.7	15.7	-	100.0
	경기/인천	(245)	0.4	8.6	23.7	46.1	21.2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	9.1	29.8	42.3	18.8	-	100.0
	대구/경북	(141)	0.7	10.6	29.8	44.7	14.2	0.7	99.3
	광주/전라	(170)	0.6	12.4	35.9	45.3	5.9	0.6	99.4
	대전/충청/세종	(205)	1.5	17.6	29.3	39.0	12.7	1.5	98.5
	강원/제주	(91)	3.3	4.4	36.3	39.6	16.5	3.3	96.7
지역크기	대도시	(524)	0.6	8.6	27.3	48.1	15.5	0.6	99.4
	중·소도시	(639)	0.8	10.3	30.5	42.3	16.1	0.8	99.2
	읍/면	(37)	2.7	29.7	51.4	16.2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8.0	30.0	16.0	46.0	-	100.0
	자영업자	(185)	1.1	9.2	32.4	43.8	13.5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0.5	10.8	29.4	45.4	13.9	0.5	99.5
	기능/숙련공	(127)	-	6.3	25.2	44.9	23.6	-	100.0
	일반 노무직	(41)	-	4.9	34.1	51.2	9.8	-	100.0
	사무/기술직	(283)	0.4	13.4	26.1	49.1	11.0	0.4	99.6
	경영/관리직	(19)	-	5.3	31.6	52.6	10.5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	57.1	28.6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10.7	30.8	45.0	12.4	1.2	98.8
	학생	(73)	1.4	11.0	38.4	34.2	15.1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3.8	7.7	36.5	36.5	15.4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0.2	37.3	40.7	11.9	-	100.0
	고등학교	(440)	1.1	9.3	30.2	40.7	18.6	1.1	98.9
	전문대	(266)	-	9.8	26.3	49.6	14.3	-	100.0
	4년제 대학교	(427)	0.9	11.5	29.7	45.0	12.9	0.9	99.1
	대학원 이상	(8)	-	-	62.5	12.5	25.0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2.7	11.0	30.1	43.8	12.3	2.7	97.3
	중	(544)	0.7	12.3	26.5	46.9	13.6	0.7	99.3
	하	(583)	0.5	8.1	32.8	41.3	17.3	0.5	99.5

4) 세계 경제 침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5%, 전문가 9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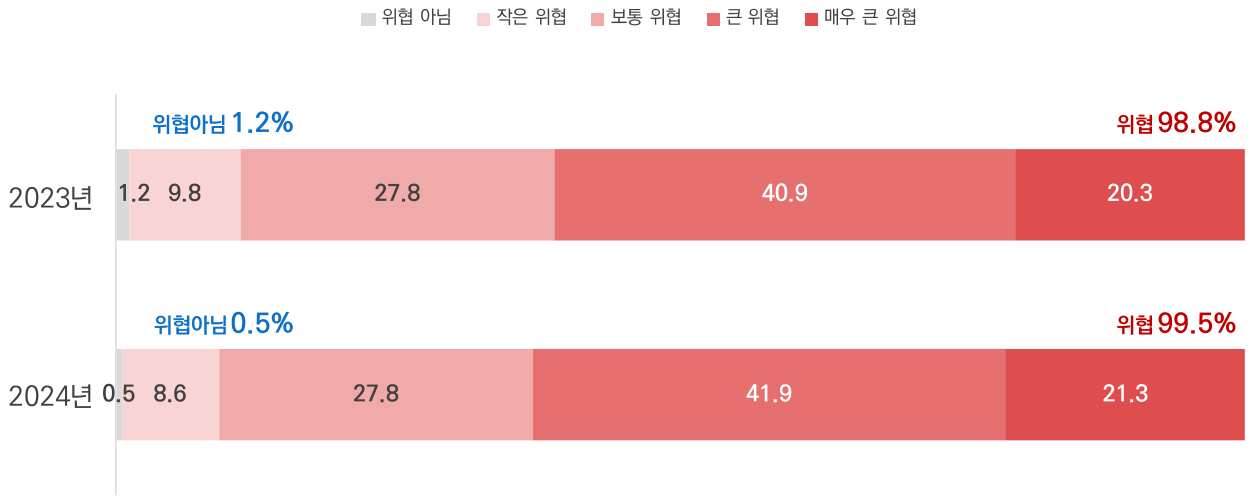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이라는 응답이 99.5%로 '위협 아님'(0.5%)이라는 응답보다 99.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7%p(2023년 98.8%)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7%p(2023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 아님'(2.0%)이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3-1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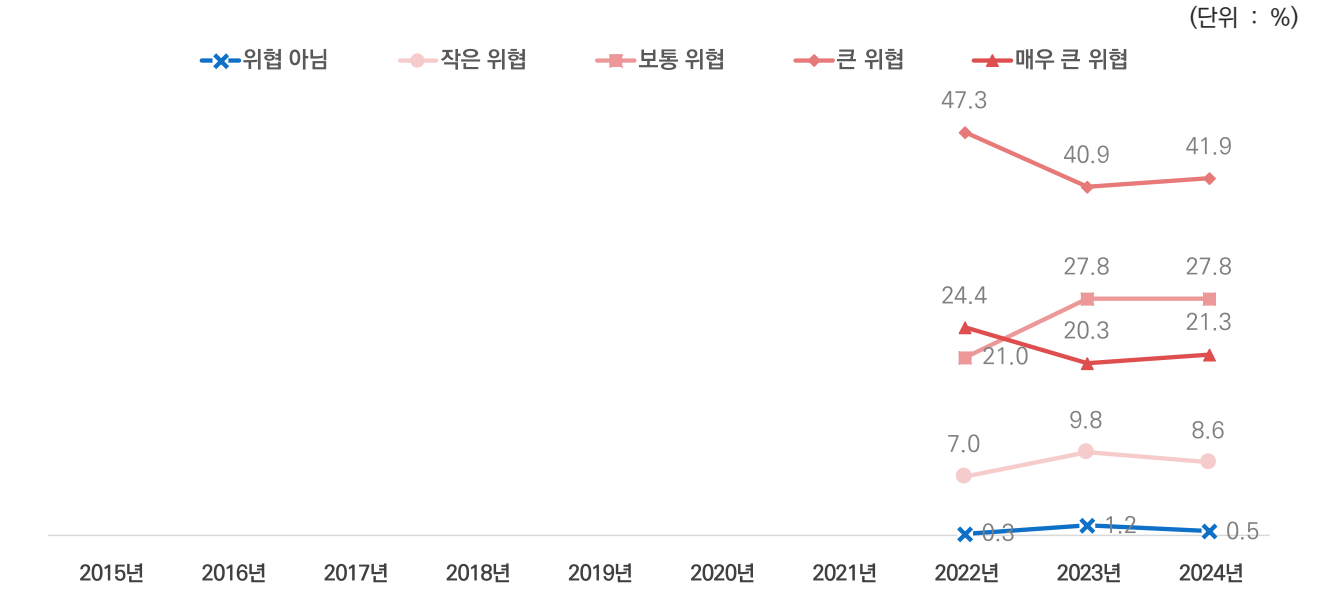
|그림 3-1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 감소하였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1.2	0.5	–0.7	0.2
작은 위협	–	–	–	–	–	–	–	7.0	9.8	8.6	–1.2	1.6
보통 위협	–	–	–	–	–	–	–	21.0	27.8	27.8	0.0	6.8
큰 위협	–	–	–	–	–	–	–	47.3	40.9	41.9	1.0	–5.4
매우 큰 위협	–	–	–	–	–	–	–	24.4	20.3	21.3	1.0	–3.1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1.2	0.5	–0.7	0.2
위협	–	–	–	–	–	–	–	99.8	98.8	99.5	0.7	–0.3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판매/서비스직', '일반 노무직' 등,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세계 경제 침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6	8.5	28.5	42.2	20.2	0.6	9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8.6	27.8	41.9	21.3	0.5	99.5
	전문가	(100)	2.0	8.0	37.0	45.0	8.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	12.3	29.6	39.8	16.7	1.5	98.5
	중	(580)	-	8.8	28.1	40.9	22.2	-	100.0
	하	(231)	-	1.7	23.8	48.1	26.4	-	100.0
성별	남성	(720)	0.8	8.1	26.3	43.5	21.4	0.8	99.2
	여성	(480)	-	9.4	30.0	39.6	21.0	-	100.0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6.0	30.0	46.5	17.1	0.5	99.5
	30대	(194)	1.5	8.2	23.7	43.8	22.7	1.5	98.5
	40대	(226)	-	9.7	29.2	37.2	23.9	-	100.0
	50대	(255)	0.8	9.4	28.2	38.8	22.7	0.8	99.2
	60대 이상	(308)	-	9.1	27.3	43.5	20.1	-	100.0
지역별	서울	(140)	-	5.0	26.4	52.1	16.4	-	100.0
	경기/인천	(245)	-	13.5	24.5	38.8	23.3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0.5	6.3	26.0	37.5	29.8	0.5	99.5
	대구/경북	(141)	1.4	6.4	33.3	39.0	19.9	1.4	98.6
	광주/전라	(170)	-	8.2	32.9	41.2	17.6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0.5	12.2	30.2	41.0	16.1	0.5	99.5
	강원/제주	(91)	2.2	2.2	18.7	52.7	24.2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0.2	8.6	29.4	42.2	19.7	0.2	99.8
	중·소도시	(639)	0.6	7.0	26.0	42.9	23.5	0.6	99.4
	읍/면	(37)	2.7	35.1	35.1	21.6	5.4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8.0	10.0	40.0	42.0	-	100.0
	자영업자	(185)	0.5	11.4	30.3	36.8	21.1	0.5	99.5
	판매/서비스직	(194)	-	5.7	29.9	45.9	18.6	-	100.0
	기능/숙련공	(127)	0.8	6.3	23.6	48.8	20.5	0.8	99.2
	일반 노무직	(41)	-	9.8	34.1	36.6	19.5	-	100.0
	사무/기술직	(283)	1.1	8.1	25.1	40.6	25.1	1.1	98.9
	경영/관리직	(19)	-	5.3	42.1	26.3	26.3	-	100.0
	전문/자유직	(7)	-	-	14.3	42.9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	11.8	32.5	40.2	15.4	-	100.0
	학생	(73)	1.4	8.2	26.0	47.9	16.4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	9.6	30.8	44.2	15.4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8.5	27.1	47.5	16.9	-	100.0
	고등학교	(440)	0.2	8.6	27.3	42.5	21.4	0.2	99.8
	전문대	(266)	0.8	6.0	36.8	34.6	21.8	0.8	99.2
	4년제 대학교	(427)	0.7	10.1	22.7	45.0	21.5	0.7	99.3
	대학원 이상	(8)	-	12.5	25.0	50.0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12.3	37.0	23.3	27.4	-	100.0
	중	(544)	0.9	9.4	26.1	45.0	18.6	0.9	99.1
	하	(583)	0.2	7.4	28.1	41.3	23.0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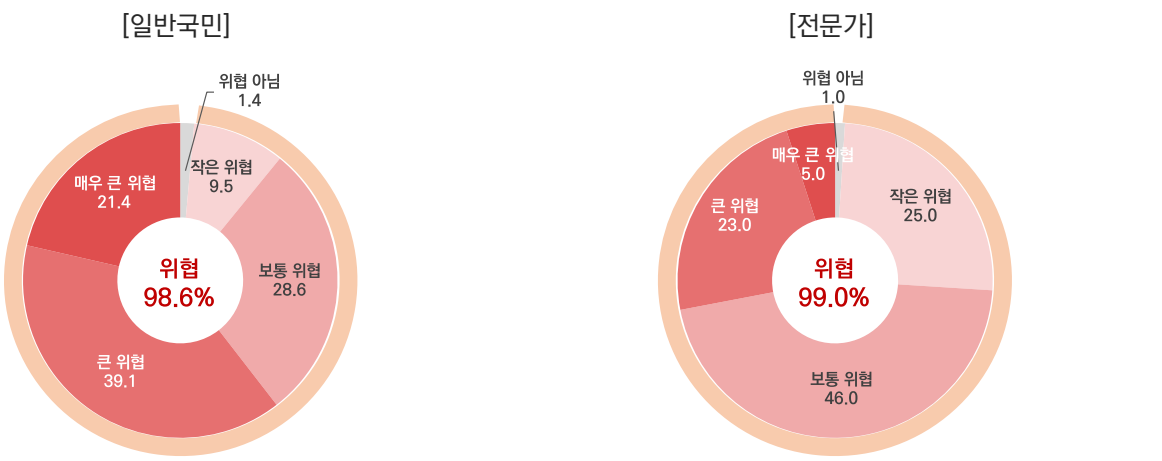
5) 국제범죄·테러 증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6%,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6%로 '위협 아님'(1.4%)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2%p(2023년 98.8%)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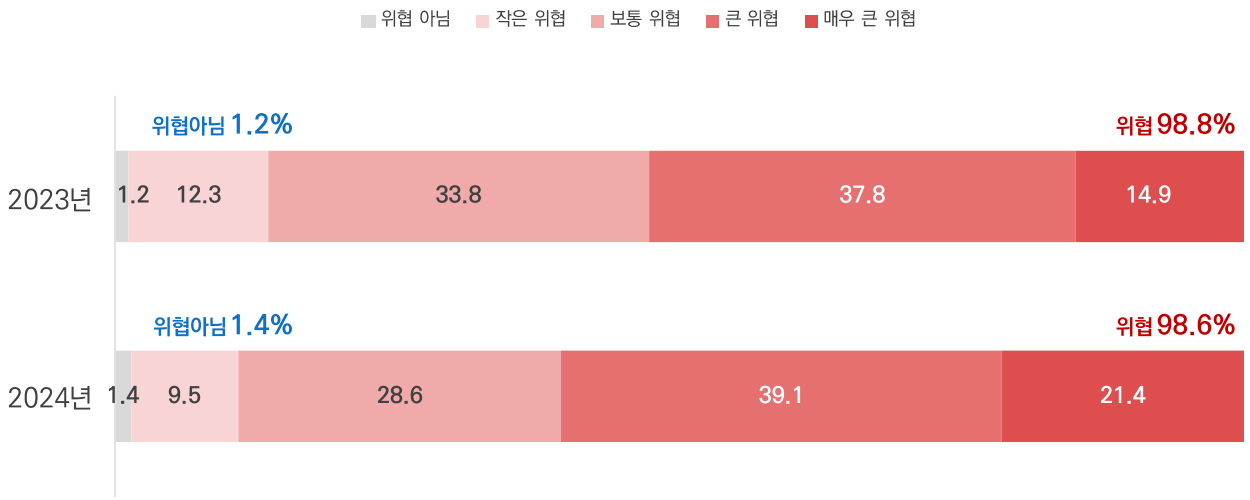
|그림 3-2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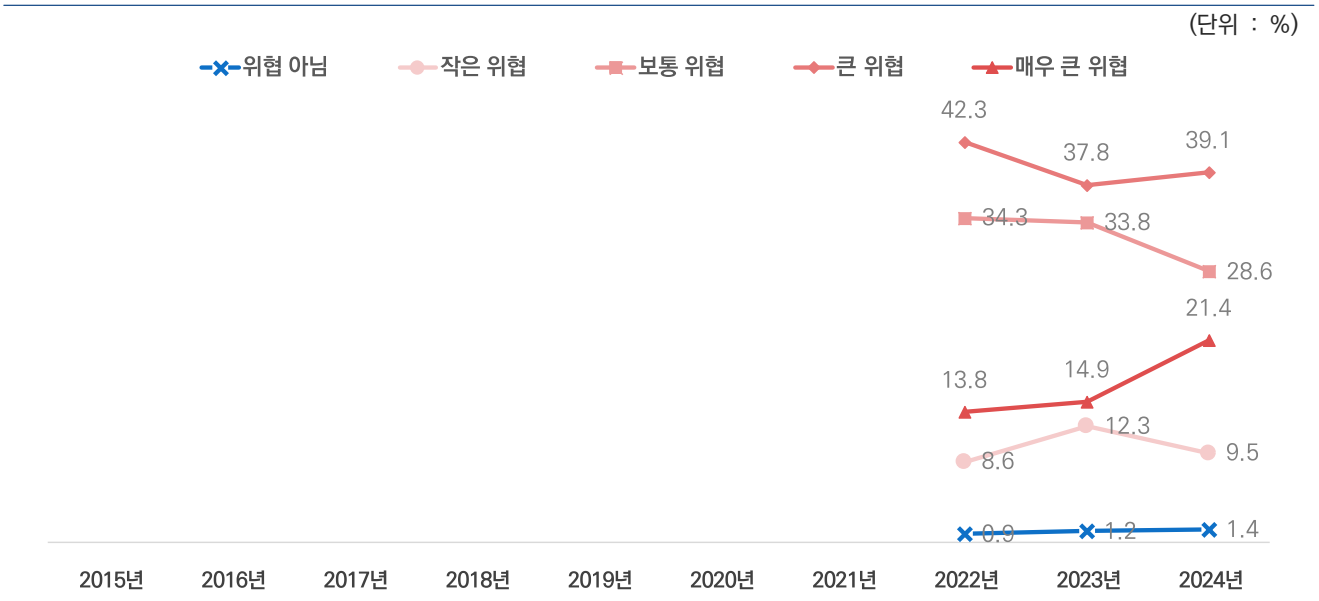
|그림 3-2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감소하였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9	1.2	1.4	0.2	0.5
작은 위협	–	–	–	–	–	–	–	8.6	12.3	9.5	-2.8	0.9
보통 위협	–	–	–	–	–	–	–	34.3	33.8	28.6	-5.2	-5.7
큰 위협	–	–	–	–	–	–	–	42.3	37.8	39.1	1.3	-3.2
매우 큰 위협	–	–	–	–	–	–	–	13.8	14.9	21.4	6.5	7.6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9	1.2	1.4	0.2	0.5
위협	–	–	–	–	–	–	–	99.1	98.8	98.6	-0.2	-0.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학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국제범죄·테러 증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4	10.7	29.9	37.8	20.2	1.4	98.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9.5	28.6	39.1	21.4	1.4	98.6
	전문가	(100)	1.0	25.0	46.0	23.0	5.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1	12.6	28.3	32.6	23.4	3.1	96.9
	중	(580)	0.5	9.3	31.0	40.2	19.0	0.5	99.5
	하	(231)	0.9	4.8	22.9	47.2	24.2	0.9	99.1
성별	남성	(720)	1.7	8.8	26.7	41.3	21.7	1.7	98.3
	여성	(480)	1.0	10.6	31.5	35.8	21.0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10.6	28.1	41.9	18.0	1.4	98.6
	30대	(194)	1.0	10.8	24.2	35.6	28.4	1.0	99.0
	40대	(226)	1.3	6.2	25.7	45.1	21.7	1.3	98.7
	50대	(255)	1.6	10.2	33.7	31.8	22.7	1.6	98.4
	60대 이상	(308)	1.6	9.7	29.5	40.9	18.2	1.6	98.4
지역별	서울	(140)	–	3.6	33.6	42.1	20.7	–	100.0
	경기/인천	(245)	2.9	10.2	24.9	36.3	25.7	2.9	97.1
	부산/울산/경남	(208)	0.5	7.7	19.2	42.8	29.8	0.5	99.5
	대구/경북	(141)	1.4	11.3	36.9	40.4	9.9	1.4	98.6
	광주/전라	(170)	–	12.4	35.9	34.1	17.6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2.4	11.7	31.7	34.1	20.0	2.4	97.6
	강원/제주	(91)	2.2	7.7	18.7	51.6	19.8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1.7	7.1	30.7	41.8	18.7	1.7	98.3
	중·소도시	(639)	1.3	10.0	26.6	37.6	24.6	1.3	98.7
	읍/면	(37)	–	35.1	32.4	27.0	5.4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16.0	14.0	46.0	20.0	4.0	96.0
	자영업자	(185)	1.6	8.6	36.8	35.1	17.8	1.6	98.4
	판매/서비스직	(194)	1.0	5.7	25.3	44.8	23.2	1.0	99.0
	기능/숙련공	(127)	0.8	4.7	23.6	34.6	36.2	0.8	99.2
	일반 노무직	(41)	–	4.9	24.4	51.2	19.5	–	100.0
	사무/기술직	(283)	1.8	10.2	24.0	39.2	24.7	1.8	98.2
	경영/관리직	(19)	–	26.3	26.3	36.8	10.5	–	100.0
	전문/자유직	(7)	14.3	–	14.3	28.6	42.9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11.8	37.9	37.3	12.4	0.6	99.4
	학생	(73)	–	16.4	31.5	34.2	17.8	–	100.0
	무직/휴직/은퇴	(52)	3.8	9.6	34.6	40.4	11.5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1.9	37.3	39.0	11.9	–	100.0
	고등학교	(440)	1.8	8.6	29.3	39.3	20.9	1.8	98.2
	전문대	(266)	0.8	7.9	26.3	38.7	26.3	0.8	99.2
	4년제 대학교	(427)	1.6	10.8	27.9	39.1	20.6	1.6	98.4
	대학원 이상	(8)	–	25.0	37.5	37.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2.7	20.5	28.8	37.0	11.0	2.7	97.3
	중	(544)	2.2	8.6	32.4	37.9	18.9	2.2	97.8
	하	(583)	0.5	8.9	25.0	40.5	25.0	0.5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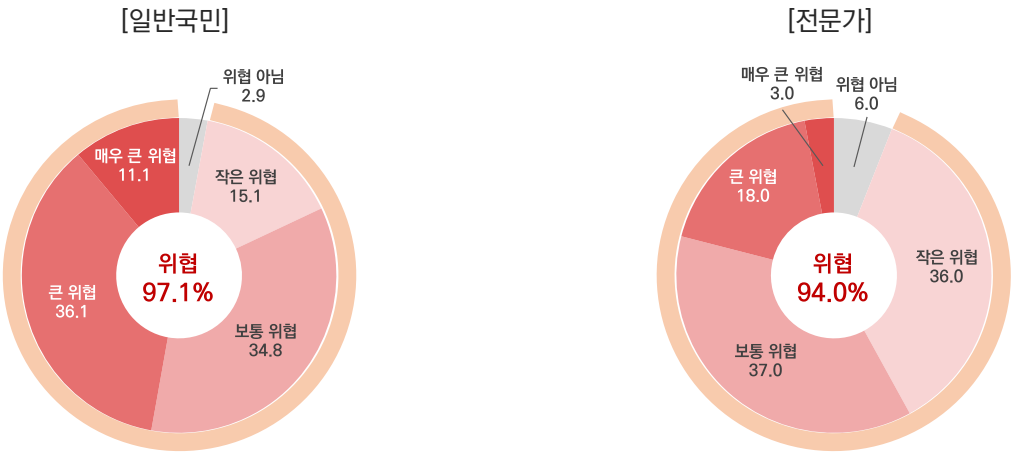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7.1%, 전문가 9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1%로 '위협 아님'(2.9%)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4.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96.8%)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2023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4.0%로 '위협 아님'(6.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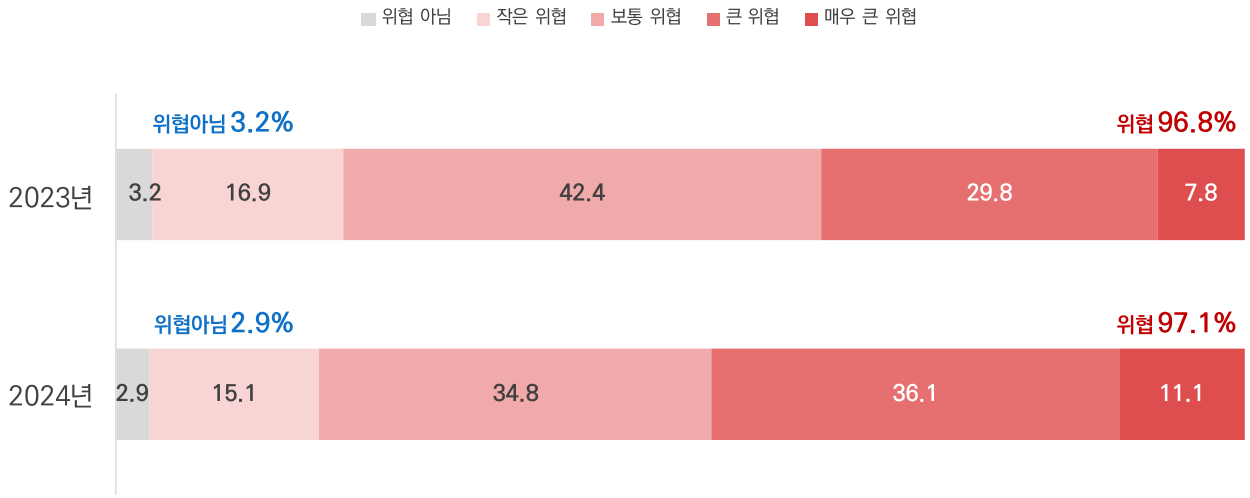
|그림 3-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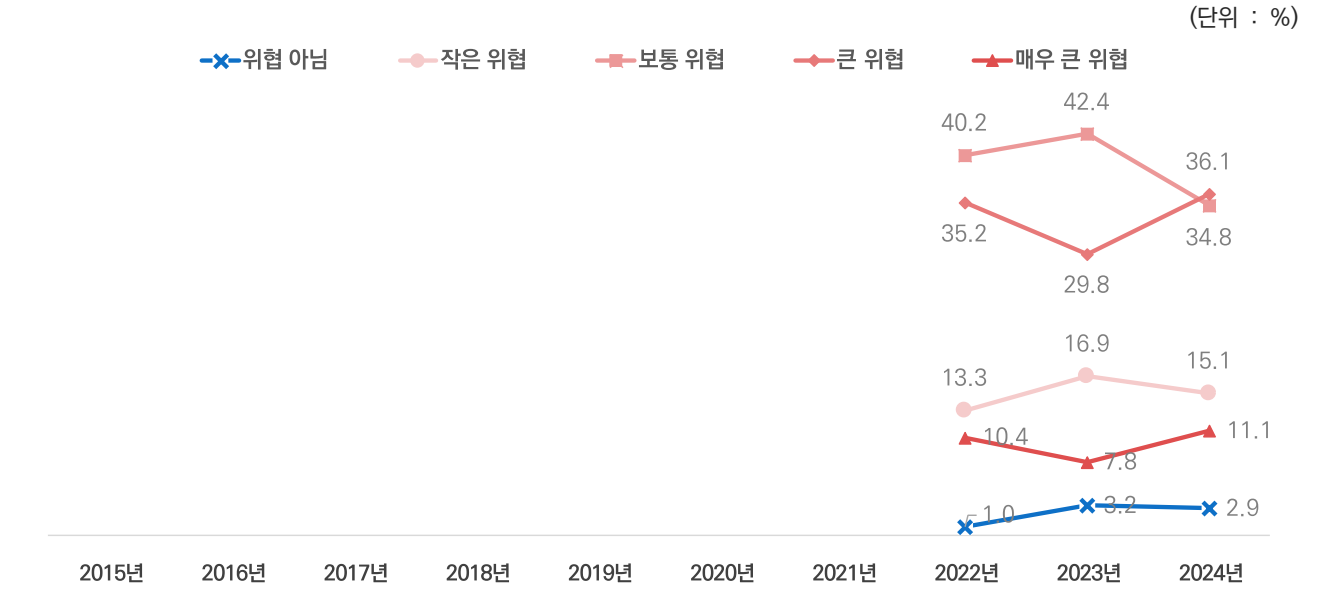
|그림 3-2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1.0	3.2	2.9	–0.3	1.9
작은 위협	–	–	–	–	–	–	–	13.3	16.9	15.1	–1.8	1.8
보통 위협	–	–	–	–	–	–	–	40.2	42.4	34.8	–7.6	–5.4
큰 위협	–	–	–	–	–	–	–	35.2	29.8	36.1	6.3	0.9
매우 큰 위협	–	–	–	–	–	–	–	10.4	7.8	11.1	3.3	0.7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1.0	3.2	2.9	–0.3	1.9
위협	–	–	–	–	–	–	–	99.0	96.8	97.1	0.3	–1.9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3.2	16.7	35.0	34.7	10.5	3.2	9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	15.1	34.8	36.1	11.1	2.9	97.1
	전문가	(100)	6.0	36.0	37.0	18.0	3.0	6.0	9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4	19.5	25.2	37.0	13.9	4.4	95.6
	중	(580)	2.1	14.8	39.0	35.0	9.1	2.1	97.9
	하	(231)	2.6	8.2	40.7	37.2	11.3	2.6	97.4
성별	남성	(720)	3.1	13.6	34.3	36.1	12.9	3.1	96.9
	여성	(480)	2.7	17.3	35.6	36.0	8.3	2.7	97.3
연령별	20대 이하	(217)	5.1	20.7	29.5	35.9	8.8	5.1	94.9
	30대	(194)	2.6	14.4	36.1	29.9	17.0	2.6	97.4
	40대	(226)	1.8	10.6	37.2	40.7	9.7	1.8	98.2
	50대	(255)	3.5	16.5	34.9	35.7	9.4	3.5	96.5
	60대 이상	(308)	1.9	13.6	36.0	37.0	11.4	1.9	98.1
지역별	서울	(140)	-	9.3	43.6	38.6	8.6	-	100.0
	경기/인천	(245)	1.6	20.0	27.8	27.8	22.9	1.6	98.4
	부산/울산/경남	(208)	3.8	7.7	39.9	41.8	6.7	3.8	96.2
	대구/경북	(141)	7.1	21.3	35.5	29.1	7.1	7.1	92.9
	광주/전라	(170)	-	14.1	35.9	48.2	1.8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4.4	20.5	34.1	33.2	7.8	4.4	95.6
	강원/제주	(91)	4.4	7.7	27.5	36.3	24.2	4.4	95.6
지역크기	대도시	(524)	1.9	14.5	39.5	36.6	7.4	1.9	98.1
	중·소도시	(639)	3.8	14.1	30.7	36.8	14.7	3.8	96.2
	읍/면	(37)	2.7	40.5	40.5	16.2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18.0	24.0	40.0	14.0	4.0	96.0
	자영업자	(185)	3.2	15.1	40.0	29.2	12.4	3.2	96.8
	판매/서비스직	(194)	1.0	12.9	36.1	41.2	8.8	1.0	99.0
	기능/숙련공	(127)	2.4	12.6	27.6	40.9	16.5	2.4	97.6
	일반 노무직	(41)	7.3	19.5	26.8	29.3	17.1	7.3	92.7
	사무/기술직	(283)	2.5	12.4	35.3	40.3	9.5	2.5	97.5
	경영/관리직	(19)	5.3	10.5	36.8	26.3	21.1	5.3	94.7
	전문/자유직	(7)	14.3	-	14.3	28.6	42.9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8.3	39.1	33.1	7.1	2.4	97.6
	학생	(73)	6.8	27.4	28.8	31.5	5.5	6.8	93.2
	무직/휴직/은퇴	(52)	1.9	13.5	40.4	28.8	15.4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8.6	44.1	28.8	8.5	-	100.0
	고등학교	(440)	3.0	14.1	33.0	36.8	13.2	3.0	97.0
	전문대	(266)	3.0	14.7	28.6	42.5	11.3	3.0	97.0
	4년제 대학교	(427)	3.3	15.9	39.3	32.3	9.1	3.3	96.7
	대학원 이상	(8)	-	12.5	37.5	37.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5.5	16.4	31.5	30.1	16.4	5.5	94.5
	중	(544)	3.7	16.5	37.5	33.5	8.8	3.7	96.3
	하	(583)	1.9	13.6	32.8	39.3	12.5	1.9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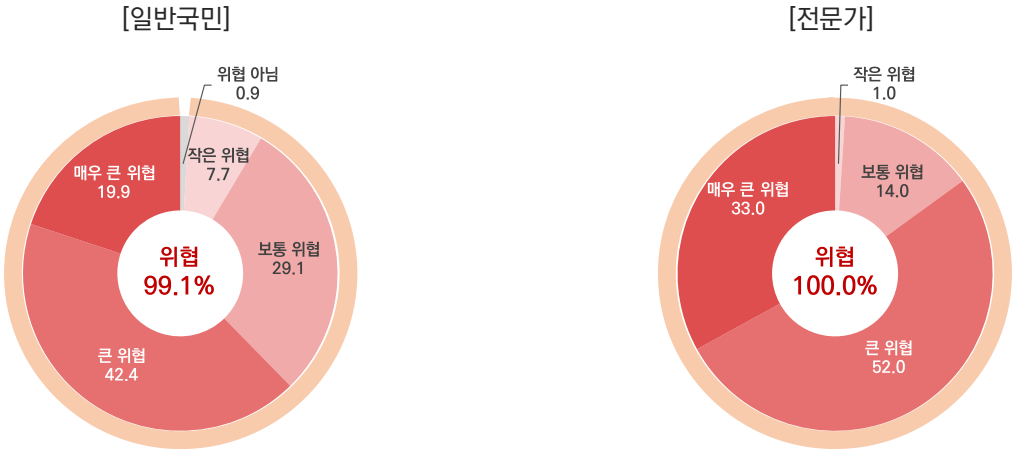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1%,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1%로 '위협 아님'(0.9%)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2%p(2023년 99.3%)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33.0%+큰 위협 52.0%+보통 위협 14.0%+작은 위협 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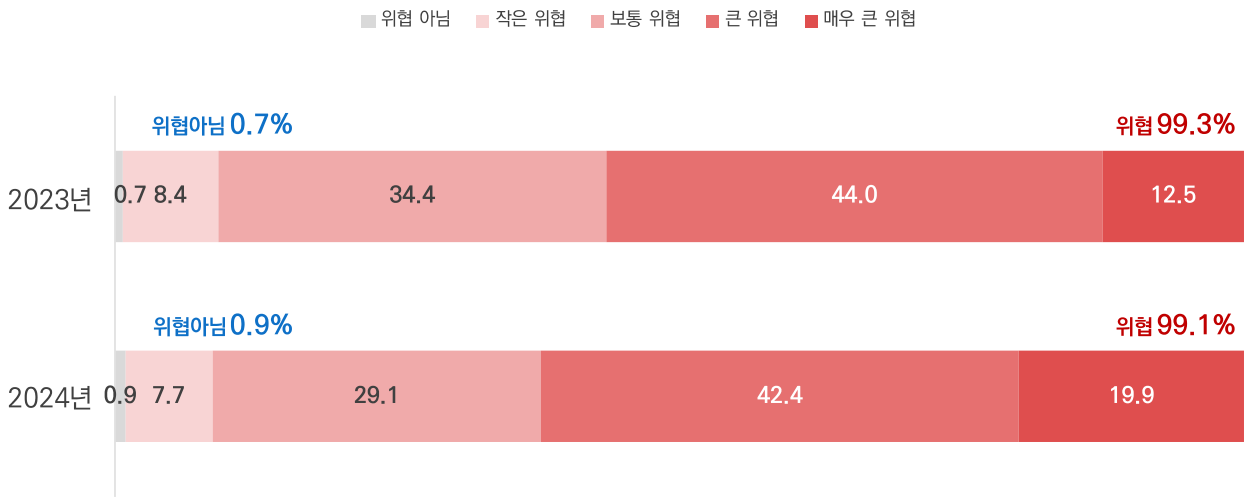
|그림 3-2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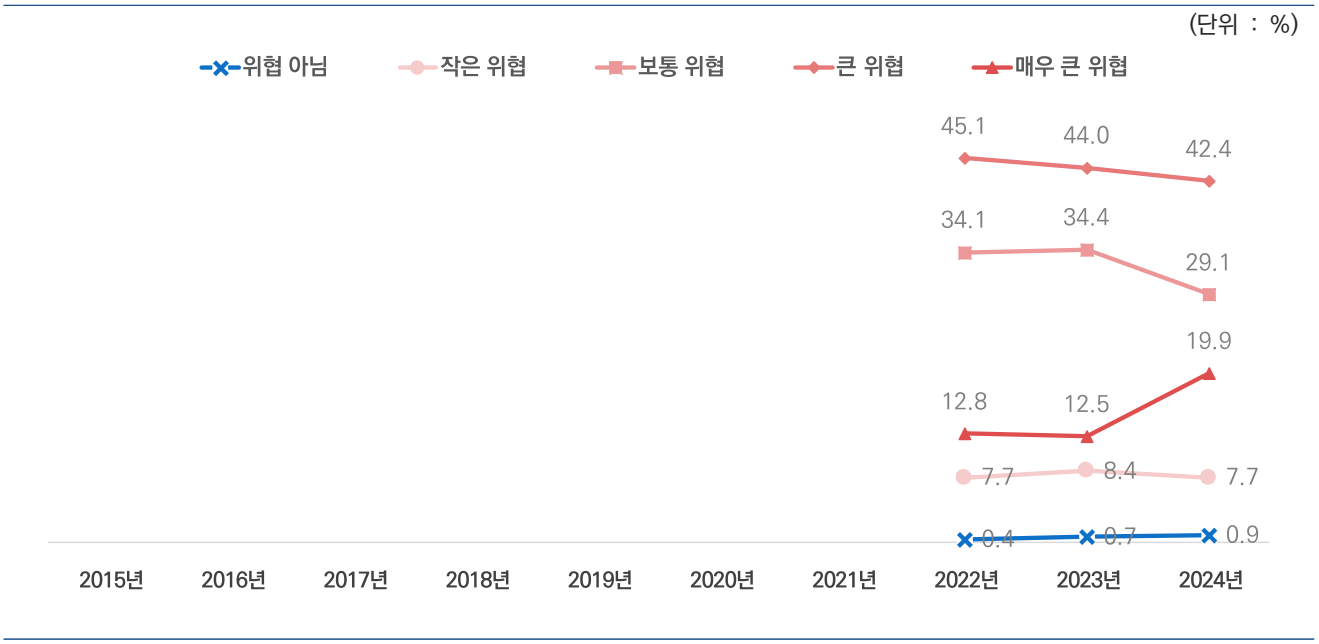
|그림 3-2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4	0.7	0.9	0.2	0.5
작은 위협	–	–	–	–	–	–	–	7.7	8.4	7.7	-0.7	0.0
보통 위협	–	–	–	–	–	–	–	34.1	34.4	29.1	-5.3	-5.0
큰 위협	–	–	–	–	–	–	–	45.1	44.0	42.4	-1.6	-2.7
매우 큰 위협	–	–	–	–	–	–	–	12.8	12.5	19.9	7.4	7.1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4	0.7	0.9	0.2	0.5
위협	–	–	–	–	–	–	–	99.6	99.3	99.1	-0.2	-0.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30대', 지역별로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학생'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8	7.2	27.9	43.2	20.9	0.8	9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7.7	29.1	42.4	19.9	0.9	99.1
	전문가	(100)	-	1.0	14.0	52.0	33.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	9.5	28.0	37.3	23.7	1.5	98.5
	중	(580)	0.7	8.6	31.6	42.8	16.4	0.7	99.3
	하	(231)	0.4	2.2	24.7	50.2	22.5	0.4	99.6
성별	남성	(720)	1.0	6.5	28.6	43.6	20.3	1.0	99.0
	여성	(480)	0.8	9.4	29.8	40.6	19.4	0.8	99.2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5.1	36.9	37.3	20.3	0.5	99.5
	30대	(194)	0.5	9.8	27.3	43.8	18.6	0.5	99.5
	40대	(226)	0.9	7.1	31.0	40.7	20.4	0.9	99.1
	50대	(255)	2.0	7.5	27.8	41.6	21.2	2.0	98.0
	60대 이상	(308)	0.6	8.8	24.4	47.1	19.2	0.6	99.4
지역별	서울	(140)	-	4.3	29.3	42.9	23.6	-	100.0
	경기/인천	(245)	0.8	10.2	24.1	40.4	24.5	0.8	99.2
	부산/울산/경남	(208)	-	2.4	40.9	47.6	9.1	-	100.0
	대구/경북	(141)	0.7	4.3	24.1	49.6	21.3	0.7	99.3
	광주/전라	(170)	-	8.8	36.5	36.5	18.2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1.5	14.1	24.4	34.6	25.4	1.5	98.5
	강원/제주	(91)	5.5	6.6	19.8	52.7	15.4	5.5	94.5
지역크기	대도시	(524)	0.6	8.8	31.1	43.3	16.2	0.6	99.4
	중·소도시	(639)	1.1	5.5	26.4	42.9	24.1	1.1	98.9
	읍/면	(37)	2.7	29.7	45.9	21.6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	10.0	66.0	22.0	2.0	98.0
	자영업자	(185)	1.1	9.2	26.5	44.9	18.4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	7.2	30.9	40.7	21.1	-	100.0
	기능/숙련공	(127)	0.8	3.9	26.8	38.6	29.9	0.8	99.2
	일반 노무직	(41)	2.4	7.3	24.4	43.9	22.0	2.4	97.6
	사무/기술직	(283)	1.1	7.4	30.7	42.0	18.7	1.1	98.9
	경영/관리직	(19)	-	-	42.1	31.6	26.3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	57.1	28.6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8	11.2	31.4	37.9	17.8	1.8	98.2
	학생	(73)	-	6.8	32.9	42.5	17.8	-	100.0
	무직/휴직/은퇴	(52)	-	13.5	36.5	44.2	5.8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3.6	22.0	49.2	15.3	-	100.0
	고등학교	(440)	1.1	7.0	28.2	41.6	22.0	1.1	98.9
	전문대	(266)	1.1	7.5	30.1	42.5	18.8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0.7	7.7	30.0	42.4	19.2	0.7	99.3
	대학원 이상	(8)	-	-	50.0	37.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2.7	11.0	27.4	41.1	17.8	2.7	97.3
	중	(544)	1.3	8.6	33.1	39.2	17.8	1.3	98.7
	하	(583)	0.3	6.3	25.6	45.6	22.1	0.3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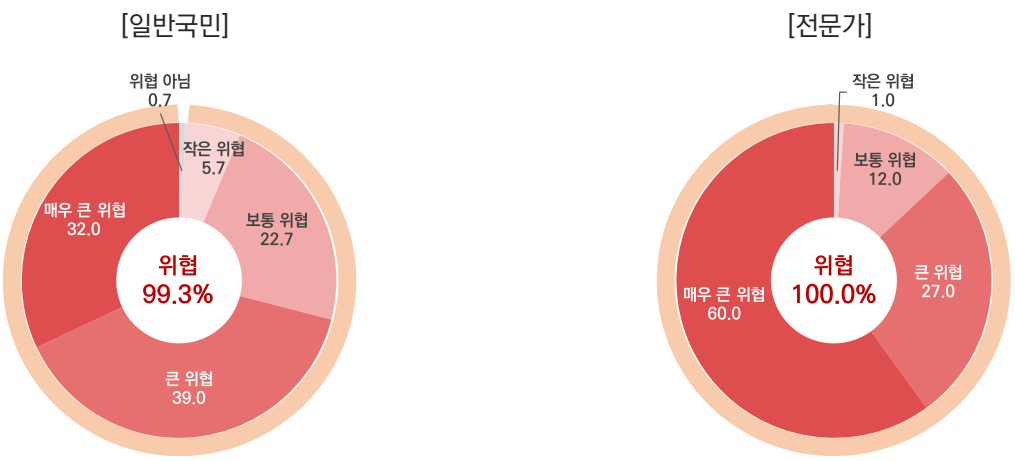
8) 북한 군사적 위협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3%,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3%로 '위협 아님'(0.7%)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2%p(2023년 99.5%)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60.0%+큰 위협 27.0%+보통 위협 12.0%+작은 위협 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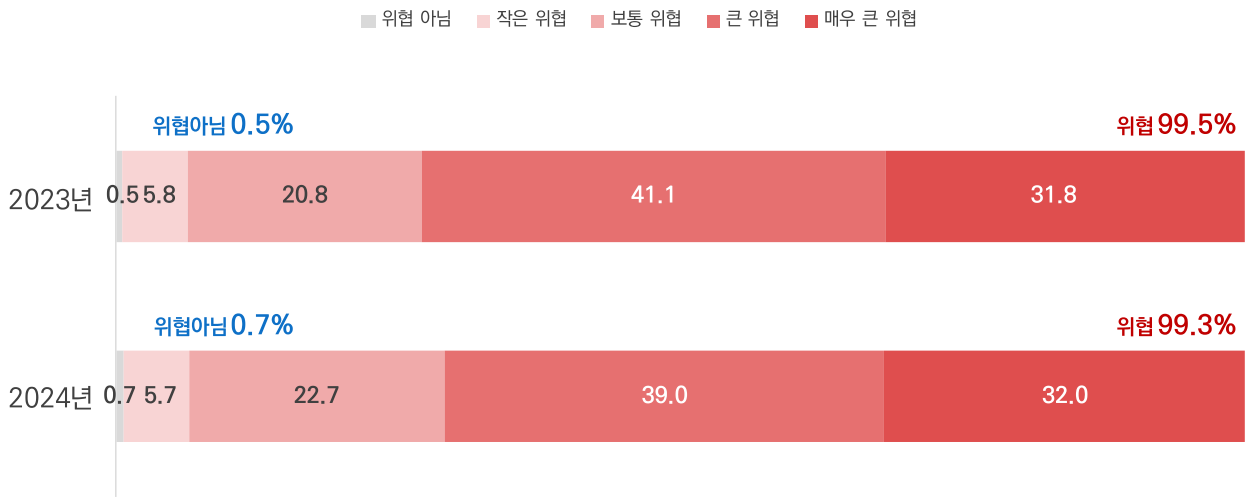
|그림 3-3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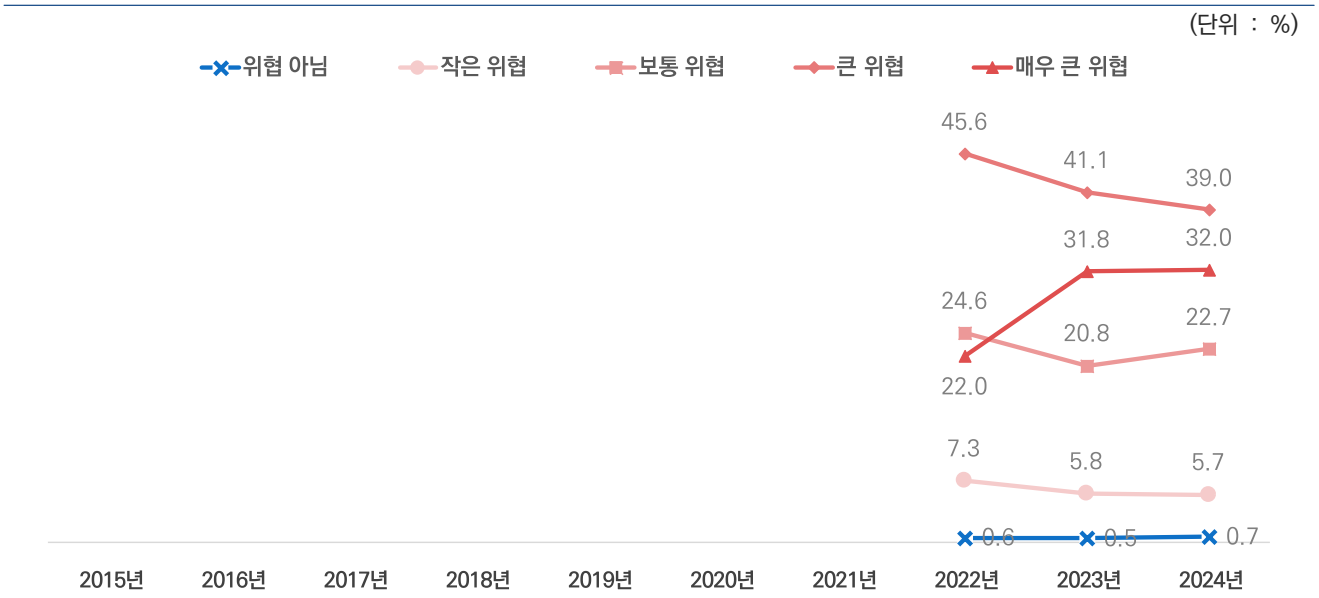
|그림 3-3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6	0.5	0.7	0.2	0.1
작은 위협	–	–	–	–	–	–	–	7.3	5.8	5.7	-0.1	-1.6
보통 위협	–	–	–	–	–	–	–	24.6	20.8	22.7	1.9	-1.9
큰 위협	–	–	–	–	–	–	–	45.6	41.1	39.0	-2.1	-6.6
매우 큰 위협	–	–	–	–	–	–	–	22.0	31.8	32.0	0.2	10.0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6	0.5	0.7	0.2	0.1
위협	–	–	–	–	–	–	–	99.4	99.5	99.3	-0.2	-0.1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자영업자' 등,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북한 군사적 위협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6	5.3	21.8	38.1	34.2	0.6	9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7	5.7	22.7	39.0	32.0	0.7	99.3
	전문가	(100)	-	1.0	12.0	27.0	60.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	7.7	22.6	38.3	29.6	1.8	98.2
	중	(580)	0.2	5.5	24.5	40.3	29.5	0.2	99.8
	하	(231)	-	2.6	18.2	36.8	42.4	-	100.0
성별	남성	(720)	0.8	5.8	20.7	40.1	32.5	0.8	99.2
	여성	(480)	0.4	5.4	25.6	37.3	31.3	0.4	99.6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5.1	23.0	41.0	30.4	0.5	99.5
	30대	(194)	1.0	5.2	22.2	41.2	30.4	1.0	99.0
	40대	(226)	0.4	9.3	24.3	36.3	29.6	0.4	99.6
	50대	(255)	0.8	5.1	20.0	40.8	33.3	0.8	99.2
	60대 이상	(308)	0.6	4.2	23.7	36.7	34.7	0.6	99.4
지역별	서울	(140)	-	2.9	17.9	38.6	40.7	-	100.0
	경기/인천	(245)	-	8.6	22.0	41.2	28.2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	0.5	20.2	52.9	26.4	-	100.0
	대구/경북	(141)	-	-	8.5	51.1	40.4	-	100.0
	광주/전라	(170)	-	10.0	40.0	32.4	17.6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3.4	8.8	26.8	20.5	40.5	3.4	96.6
	강원/제주	(91)	1.1	7.7	17.6	37.4	36.3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0.4	5.9	21.2	44.8	27.7	0.4	99.6
	중·소도시	(639)	0.3	5.0	22.8	34.6	37.2	0.3	99.7
	읍/면	(37)	10.8	13.5	40.5	32.4	2.7	10.8	89.2
직업별	농/어/임업	(50)	-	4.0	16.0	28.0	52.0	-	100.0
	자영업자	(185)	-	7.6	27.0	38.9	26.5	-	100.0
	판매/서비스직	(194)	1.5	3.6	25.8	35.6	33.5	1.5	98.5
	기능/숙련공	(127)	2.4	5.5	16.5	42.5	33.1	2.4	97.6
	일반 노무직	(41)	-	2.4	12.2	46.3	39.0	-	100.0
	사무/기술직	(283)	0.4	5.3	23.0	40.3	31.1	0.4	99.6
	경영/관리직	(19)	-	5.3	15.8	52.6	26.3	-	100.0
	전문/자유직	(7)	-	28.6	-	14.3	57.1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5.3	24.9	39.1	30.2	0.6	99.4
	학생	(73)	-	6.8	21.9	41.1	30.1	-	100.0
	무직/휴직/은퇴	(52)	-	9.6	23.1	36.5	30.8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5.1	25.4	32.2	37.3	-	100.0
	고등학교	(440)	0.2	5.2	23.0	38.0	33.6	0.2	99.8
	전문대	(266)	1.9	5.6	24.4	40.2	27.8	1.9	98.1
	4년제 대학교	(427)	0.5	6.3	21.1	39.6	32.6	0.5	99.5
	대학원 이상	(8)	-	-	12.5	75.0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9.6	30.1	31.5	28.8	-	100.0
	중	(544)	1.1	7.0	26.3	36.9	28.7	1.1	98.9
	하	(583)	0.3	3.9	18.4	41.9	35.5	0.3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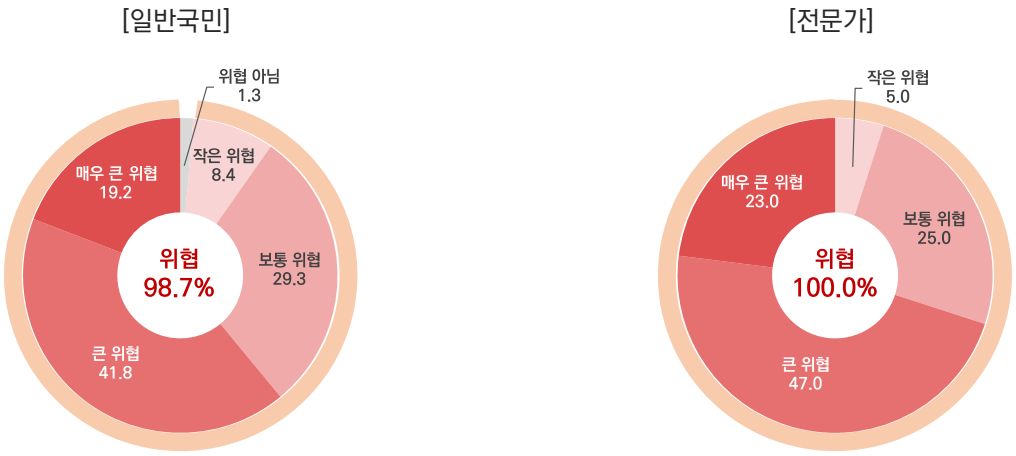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7%,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7%로 '위협 아님'(1.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99.0%)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2023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23.0%+큰 위협 47.0%+보통 위협 25.0%+작은 위협 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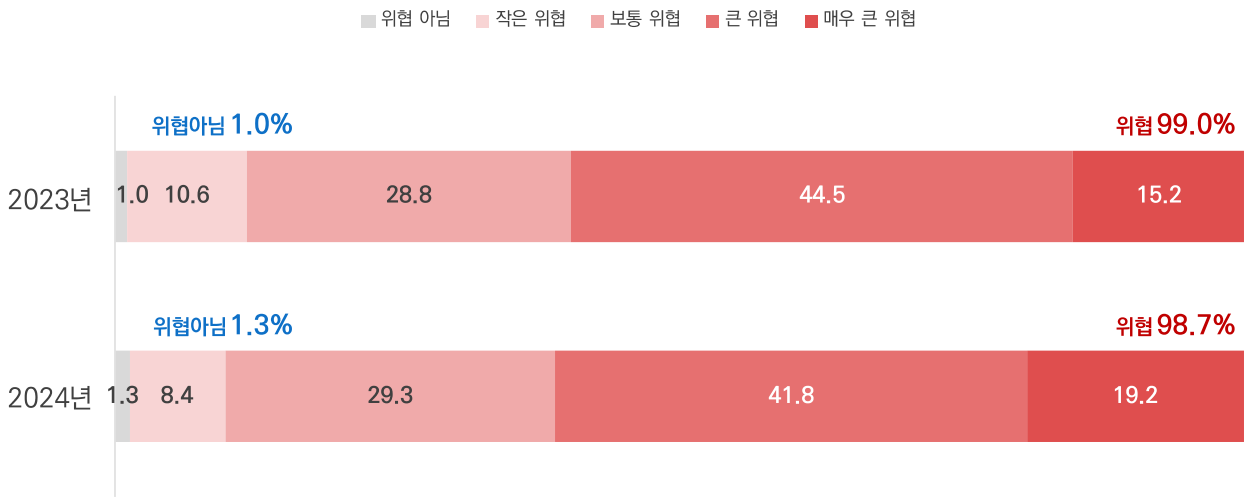
|그림 3-3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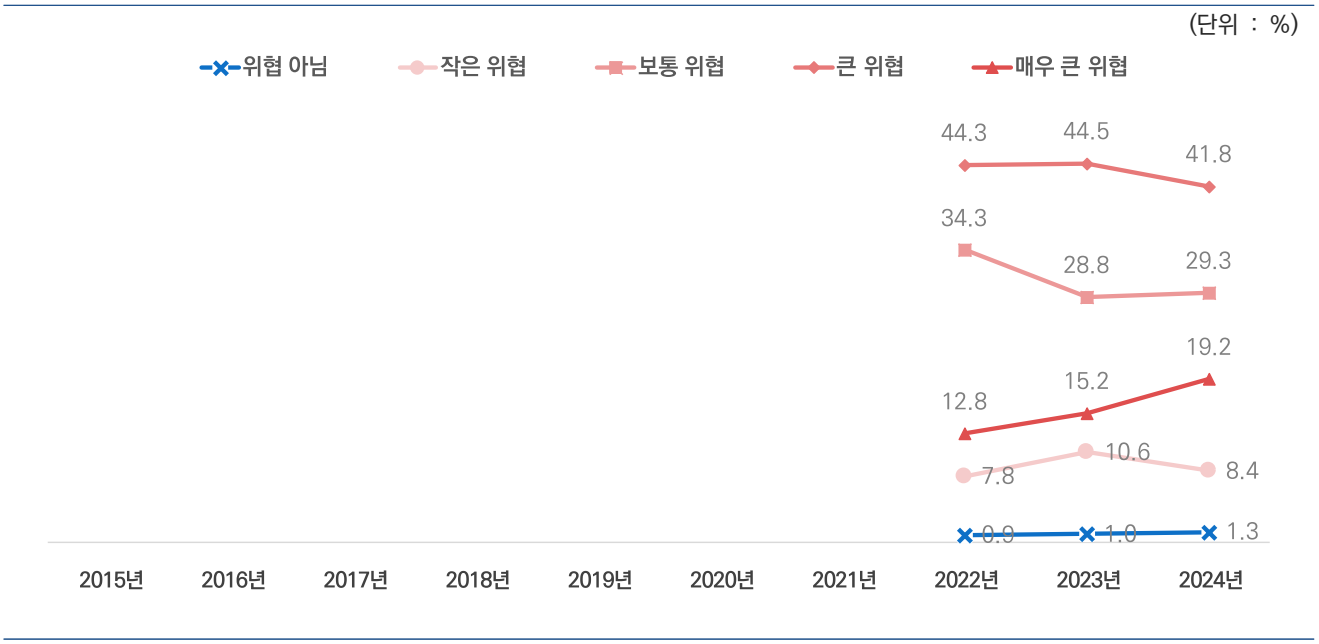
|그림 3-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9	1.0	1.3	0.3	0.4
작은 위협	–	–	–	–	–	–	–	7.8	10.6	8.4	-2.2	0.6
보통 위협	–	–	–	–	–	–	–	34.3	28.8	29.3	0.5	-5.0
큰 위협	–	–	–	–	–	–	–	44.3	44.5	41.8	-2.7	-2.5
매우 큰 위협	–	–	–	–	–	–	–	12.8	15.2	19.2	4.0	6.4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9	1.0	1.3	0.3	0.4
위협	–	–	–	–	–	–	–	99.1	99.0	98.7	-0.3	-0.4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일반 노무직'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2	8.2	28.9	42.2	19.5	1.2	9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8.4	29.3	41.8	19.2	1.3	98.7
	전문가	(100)	-	5.0	25.0	47.0	23.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3	11.6	30.1	38.3	16.7	3.3	96.7
	중	(580)	0.5	7.9	31.9	41.7	17.9	0.5	99.5
	하	(231)	-	4.3	21.2	48.1	26.4	-	100.0
성별	남성	(720)	1.4	9.7	27.5	42.5	18.9	1.4	98.6
	여성	(480)	1.3	6.5	31.9	40.8	19.6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9.2	27.2	44.2	18.9	0.5	99.5
	30대	(194)	2.1	5.2	32.5	40.2	20.1	2.1	97.9
	40대	(226)	1.3	7.5	29.6	45.6	15.9	1.3	98.7
	50대	(255)	2.0	10.2	29.0	37.3	21.6	2.0	98.0
	60대 이상	(308)	1.0	9.1	28.6	42.2	19.2	1.0	99.0
지역별	서울	(140)	-	8.6	31.4	45.0	15.0	-	100.0
	경기/인천	(245)	0.8	9.8	33.1	37.1	19.2	0.8	99.2
	부산/울산/경남	(208)	0.5	6.7	16.8	47.1	28.8	0.5	99.5
	대구/경북	(141)	0.7	4.3	33.3	44.7	17.0	0.7	99.3
	광주/전라	(170)	-	11.8	37.1	44.1	7.1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5.4	7.3	29.8	40.0	17.6	5.4	94.6
	강원/제주	(91)	1.1	11.0	22.0	33.0	33.0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	8.2	29.2	45.6	15.8	1.1	98.9
	중·소도시	(639)	0.8	7.5	29.4	39.6	22.7	0.8	99.2
	읍/면	(37)	13.5	27.0	27.0	27.0	5.4	13.5	86.5
직업별	농/어/임업	(50)	-	14.0	22.0	42.0	22.0	-	100.0
	자영업자	(185)	0.5	10.8	34.6	39.5	14.6	0.5	99.5
	판매/서비스직	(194)	1.5	8.8	30.4	39.2	20.1	1.5	98.5
	기능/숙련공	(127)	2.4	7.1	25.2	38.6	26.8	2.4	97.6
	일반 노무직	(41)	-	7.3	36.6	36.6	19.5	-	100.0
	사무/기술직	(283)	1.8	6.0	27.2	46.6	18.4	1.8	98.2
	경영/관리직	(19)	-	15.8	21.1	47.4	15.8	-	100.0
	전문/자유직	(7)	14.3	-	-	28.6	57.1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7.7	30.2	40.2	20.7	1.2	98.8
	학생	(73)	-	11.0	28.8	47.9	12.3	-	100.0
	무직/휴직/은퇴	(52)	1.9	7.7	32.7	42.3	15.4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3.6	22.0	47.5	15.3	1.7	98.3
	고등학교	(440)	0.7	9.1	30.9	37.5	21.8	0.7	99.3
	전문대	(266)	2.3	7.9	34.6	40.2	15.0	2.3	97.7
	4년제 대학교	(427)	1.4	7.5	25.1	46.4	19.7	1.4	98.6
	대학원 이상	(8)	-	-	37.5	50.0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2.7	16.4	30.1	37.0	13.7	2.7	97.3
	중	(544)	1.5	10.1	30.0	41.4	17.1	1.5	98.5
	하	(583)	1.0	5.8	28.5	42.9	21.8	1.0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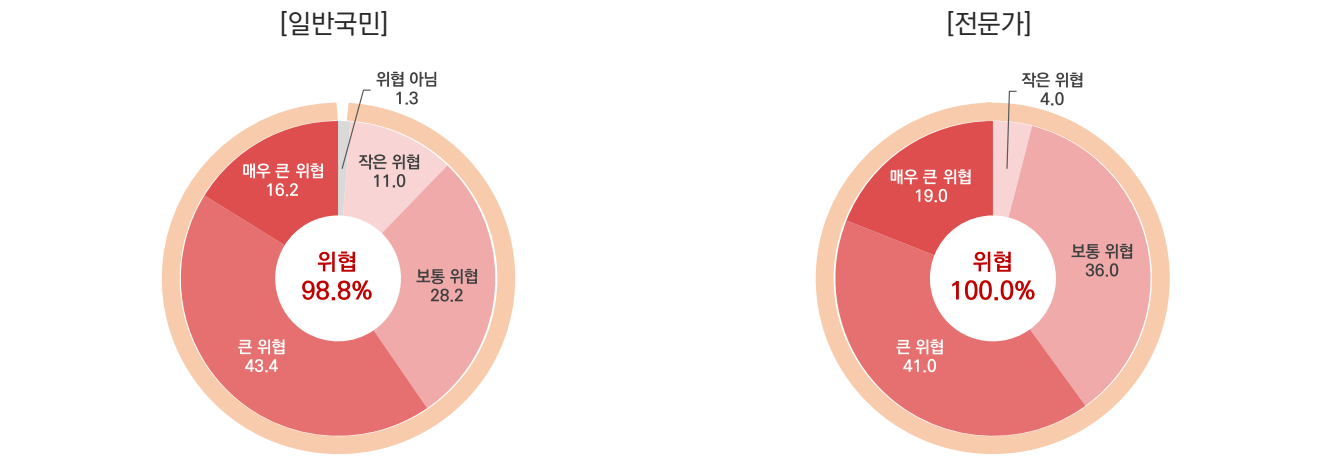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8%,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8%로 '위협 아님'(1.3%)이라는 응답보다 9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4%p(2023년 98.4%)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2023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19.0%+큰 위협 41.0%+보통 위협 36.0%+작은 위협 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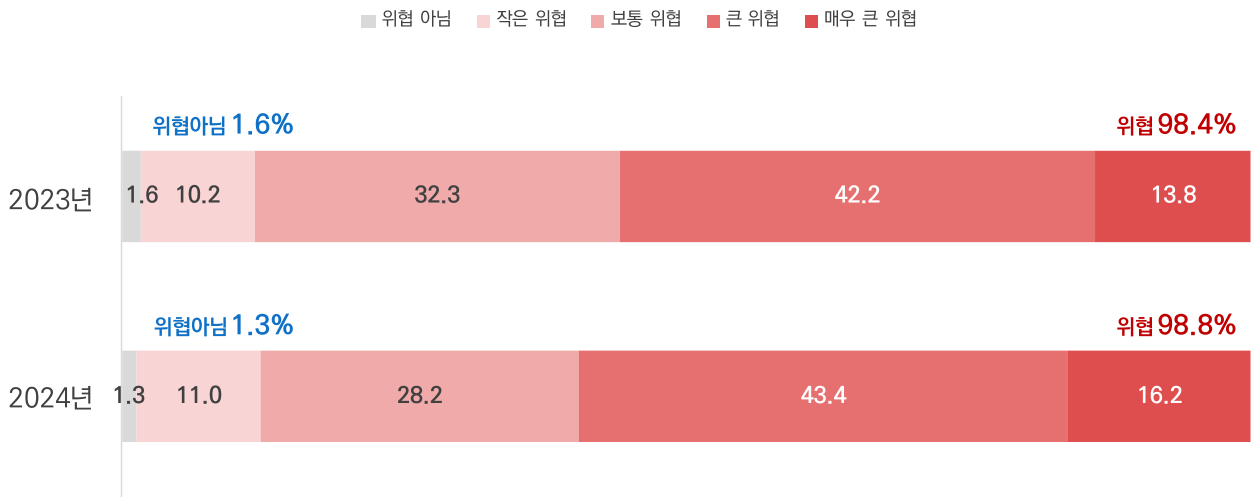
|그림 3-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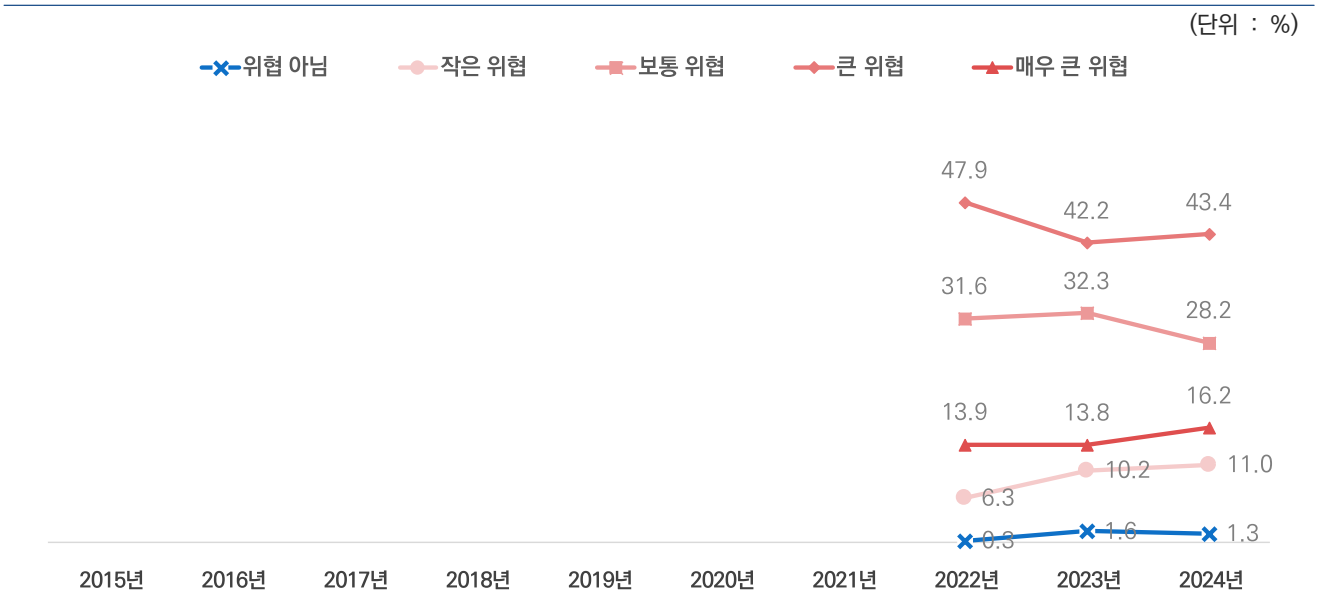
|그림 3-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p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1.6	1.3	–0.3	1.0
작은 위협	–	–	–	–	–	–	–	6.3	10.2	11.0	0.8	4.7
보통 위협	–	–	–	–	–	–	–	31.6	32.3	28.2	–4.1	–3.4
큰 위협	–	–	–	–	–	–	–	47.9	42.2	43.4	1.2	–4.5
매우 큰 위협	–	–	–	–	–	–	–	13.9	13.8	16.2	2.4	2.3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1.6	1.3	–0.3	1.0
위협	–	–	–	–	–	–	–	99.7	98.4	98.8	0.4	–0.9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기능/숙련공' 등,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2	10.5	28.8	43.2	16.4	1.2	9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11.0	28.2	43.4	16.2	1.3	98.8
	전문가	(100)	-	4.0	36.0	41.0	19.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15.7	27.2	42.7	11.6	2.8	97.2
	중	(580)	0.3	10.2	31.4	44.8	13.3	0.3	99.7
	하	(231)	0.9	5.2	21.6	41.1	31.2	0.9	99.1
성별	남성	(720)	0.8	11.8	28.8	42.2	16.4	0.8	99.2
	여성	(480)	1.9	9.8	27.3	45.2	15.8	1.9	98.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11.5	27.2	41.9	18.0	1.4	98.6
	30대	(194)	1.0	8.2	29.4	42.8	18.6	1.0	99.0
	40대	(226)	1.8	11.5	24.8	45.6	16.4	1.8	98.2
	50대	(255)	0.8	11.0	30.2	43.1	14.9	0.8	99.2
	60대 이상	(308)	1.3	12.0	28.9	43.5	14.3	1.3	98.7
지역별	서울	(140)	-	13.6	29.3	44.3	12.9	-	100.0
	경기/인천	(245)	1.2	13.5	27.8	43.3	14.3	1.2	98.8
	부산/울산/경남	(208)	-	4.8	25.0	44.7	25.5	-	100.0
	대구/경북	(141)	2.8	11.3	29.1	42.6	14.2	2.8	97.2
	광주/전라	(170)	-	11.2	32.4	46.5	10.0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3.4	14.6	30.2	41.0	10.7	3.4	96.6
	강원/제주	(91)	1.1	5.5	20.9	40.7	31.9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	11.8	30.7	42.9	13.0	1.5	98.5
	중·소도시	(639)	0.8	9.2	26.1	44.9	18.9	0.8	99.2
	읍/면	(37)	5.4	29.7	27.0	24.3	13.5	5.4	94.6
직업별	농/어/임업	(50)	-	10.0	26.0	36.0	28.0	-	100.0
	자영업자	(185)	1.6	14.6	27.6	45.4	10.8	1.6	98.4
	판매/서비스직	(194)	2.1	8.2	23.2	49.0	17.5	2.1	97.9
	기능/숙련공	(127)	-	9.4	18.1	49.6	22.8	-	100.0
	일반 노무직	(41)	-	7.3	51.2	34.1	7.3	-	100.0
	사무/기술직	(283)	0.7	11.7	26.9	45.2	15.5	0.7	99.3
	경영/관리직	(19)	-	10.5	26.3	47.4	15.8	-	100.0
	전문/자유직	(7)	-	28.6	28.6	-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0.7	34.3	38.5	14.2	2.4	97.6
	학생	(73)	-	8.2	39.7	37.0	15.1	-	100.0
	무직/휴직/은퇴	(52)	3.8	15.4	28.8	34.6	17.3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1.9	33.9	39.0	15.3	-	100.0
	고등학교	(440)	1.4	12.0	28.2	43.2	15.2	1.4	98.6
	전문대	(266)	1.5	9.0	29.7	42.5	17.3	1.5	98.5
	4년제 대학교	(427)	1.2	11.2	26.5	44.5	16.6	1.2	98.8
	대학원 이상	(8)	-	-	25.0	62.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19.2	37.0	39.7	2.7	1.4	98.6
	중	(544)	1.5	12.9	28.7	43.6	13.4	1.5	98.5
	하	(583)	1.0	8.2	26.6	43.7	20.4	1.0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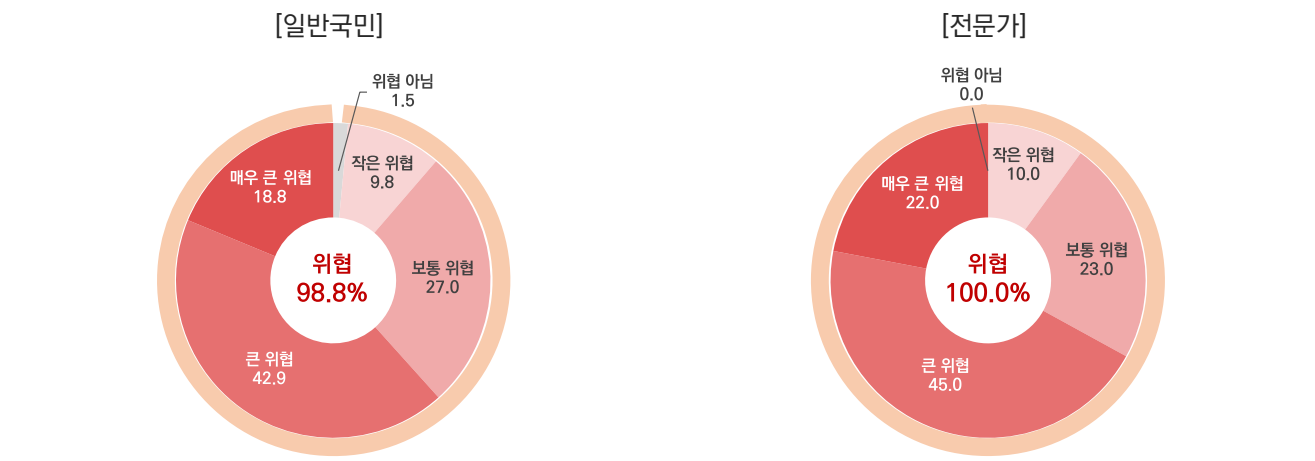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5%,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5%로 '위협 아님'(1.5%)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99.0%)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2023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22.0%+큰 위협 45.0%+보통 위협 23.0%+작은 위협 1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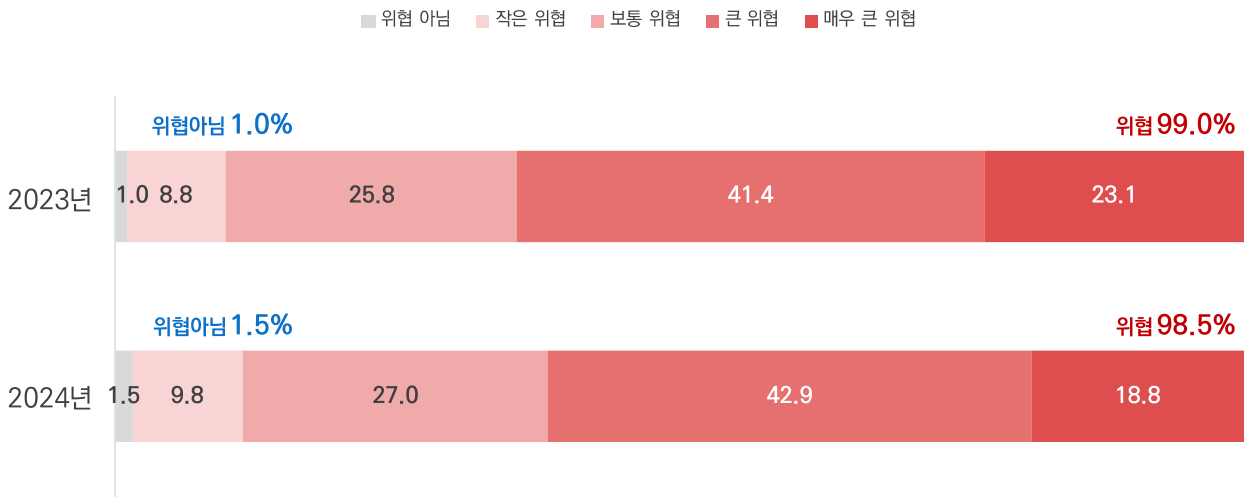
|그림 3-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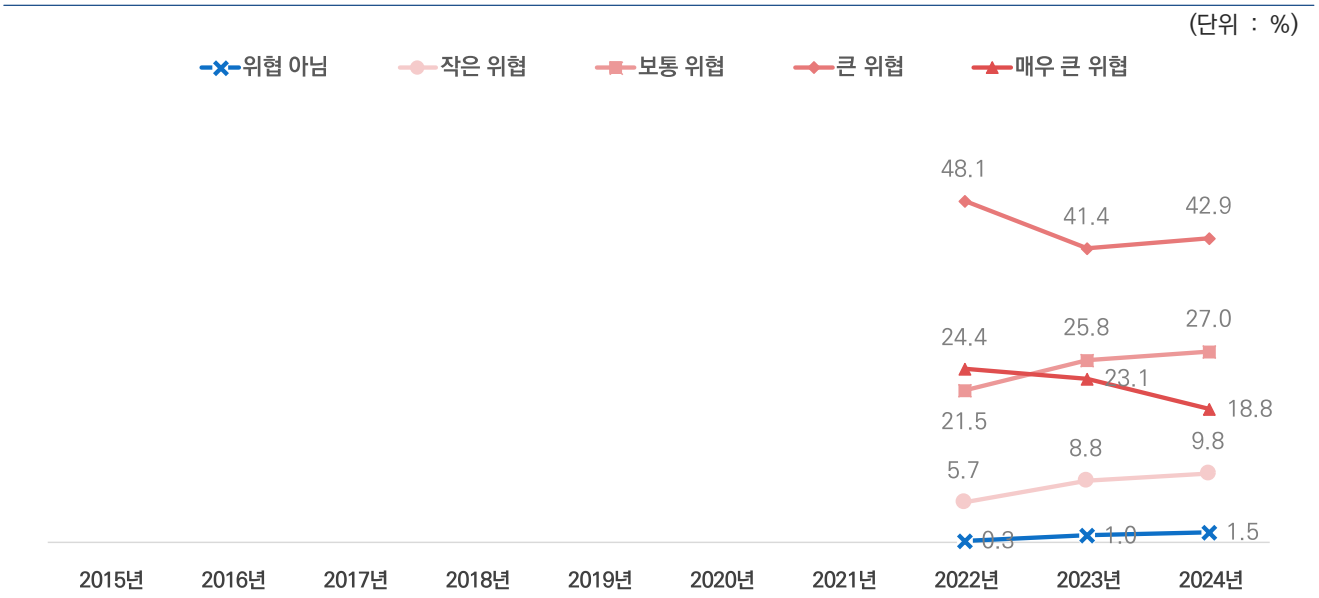
|그림 3-4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1.0	1.5	0.5	1.2
작은 위협	–	–	–	–	–	–	–	5.7	8.8	9.8	1.0	4.1
보통 위협	–	–	–	–	–	–	–	21.5	25.8	27.0	1.2	5.5
큰 위협	–	–	–	–	–	–	–	48.1	41.4	42.9	1.5	-5.2
매우 큰 위협	–	–	–	–	–	–	–	24.4	23.1	18.8	-4.3	-5.6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1.0	1.5	0.5	1.2
위협	–	–	–	–	–	–	–	99.7	99.0	98.5	-0.5	-1.2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4	9.8	26.7	43.1	19.0	1.4	98.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9.8	27.0	42.9	18.8	1.5	98.5
	전문가	(100)	-	10.0	23.0	45.0	22.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3	12.1	29.3	41.6	14.7	2.3	97.7
	중	(580)	1.2	9.7	27.8	42.1	19.3	1.2	98.8
	하	(231)	0.9	6.5	21.2	47.2	24.2	0.9	99.1
성별	남성	(720)	1.8	8.2	27.5	44.2	18.3	1.8	98.2
	여성	(480)	1.0	12.3	26.3	41.0	19.4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9.2	30.9	42.9	15.2	1.8	98.2
	30대	(194)	0.5	12.9	22.7	47.9	16.0	0.5	99.5
	40대	(226)	2.7	7.5	29.6	43.8	16.4	2.7	97.3
	50대	(255)	1.6	7.1	29.8	42.4	19.2	1.6	98.4
	60대 이상	(308)	1.0	12.3	22.7	39.6	24.4	1.0	99.0
지역별	서울	(140)	-	12.1	47.1	37.1	3.6	-	100.0
	경기/인천	(245)	1.2	8.2	29.0	38.8	22.9	1.2	98.8
	부산/울산/경남	(208)	-	1.0	19.2	44.2	35.6	-	100.0
	대구/경북	(141)	5.7	10.6	15.6	48.2	19.9	5.7	94.3
	광주/전라	(170)	0.6	11.8	22.4	54.1	11.2	0.6	99.4
	대전/충청/세종	(205)	2.4	20.0	36.6	36.1	4.9	2.4	97.6
	강원/제주	(91)	1.1	3.3	13.2	46.2	36.3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	10.5	28.8	42.9	16.4	1.3	98.7
	중·소도시	(639)	1.4	7.7	25.2	44.0	21.8	1.4	98.6
	읍/면	(37)	5.4	37.8	32.4	24.3	-	5.4	94.6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18.0	36.0	40.0	-	100.0
	자영업자	(185)	1.1	8.6	33.5	40.0	16.8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2.1	6.7	32.5	44.8	13.9	2.1	97.9
	기능/숙련공	(127)	0.8	6.3	22.0	47.2	23.6	0.8	99.2
	일반 노무직	(41)	2.4	12.2	22.0	48.8	14.6	2.4	97.6
	사무/기술직	(283)	2.1	9.9	21.9	48.1	18.0	2.1	97.9
	경영/관리직	(19)	-	5.3	36.8	42.1	15.8	-	100.0
	전문/자유직	(7)	-	-	-	57.1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18.9	24.3	37.3	18.9	0.6	99.4
	학생	(73)	1.4	12.3	35.6	35.6	15.1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3.8	5.8	32.7	36.5	21.2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8.6	20.3	44.1	16.9	-	100.0
	고등학교	(440)	1.6	8.9	25.9	43.6	20.0	1.6	98.4
	전문대	(266)	1.1	9.0	31.6	39.5	18.8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1.9	10.3	25.8	44.0	18.0	1.9	98.1
	대학원 이상	(8)	-	-	50.0	50.0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19.2	35.6	31.5	13.7	-	100.0
	중	(544)	1.3	12.7	27.6	42.6	15.8	1.3	98.7
	하	(583)	1.9	6.0	25.4	44.6	22.1	1.9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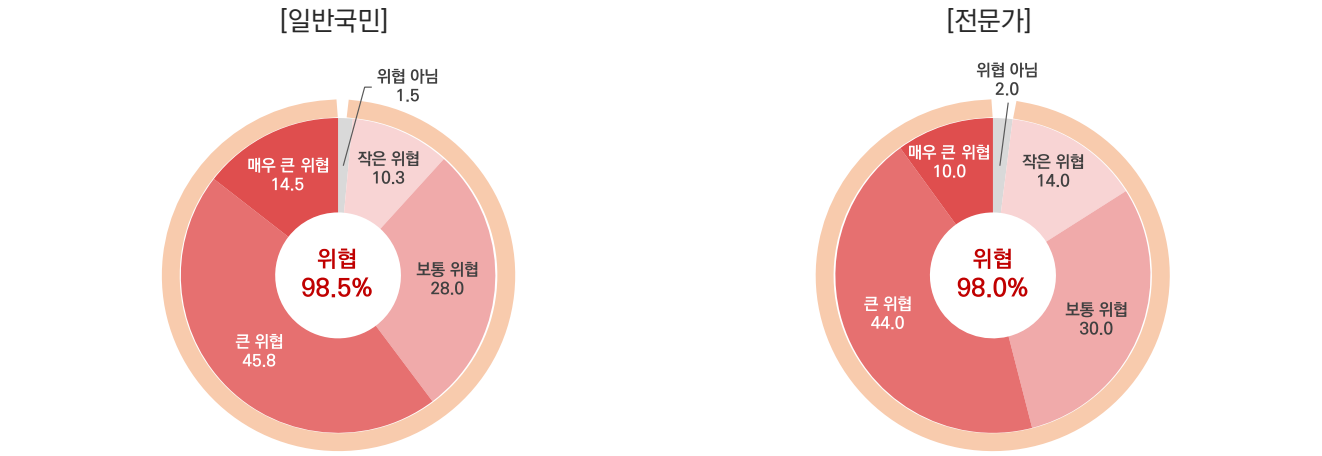
12) 주변국 환경오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5%,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5%로 '위협 아님'(1.5%)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9%p(2023년 99.4%)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p(2023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 아님'(2.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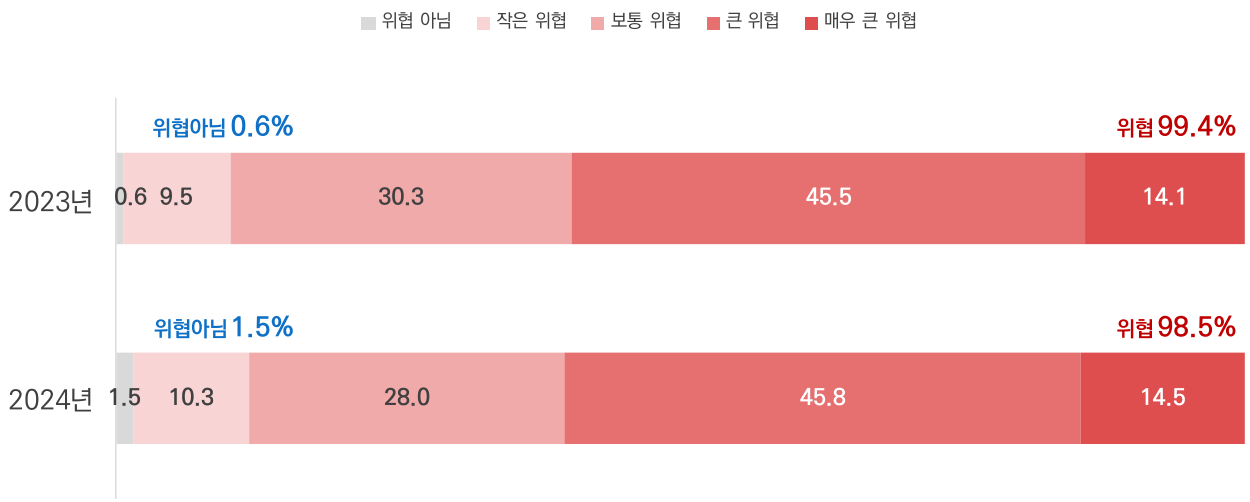
|그림 3-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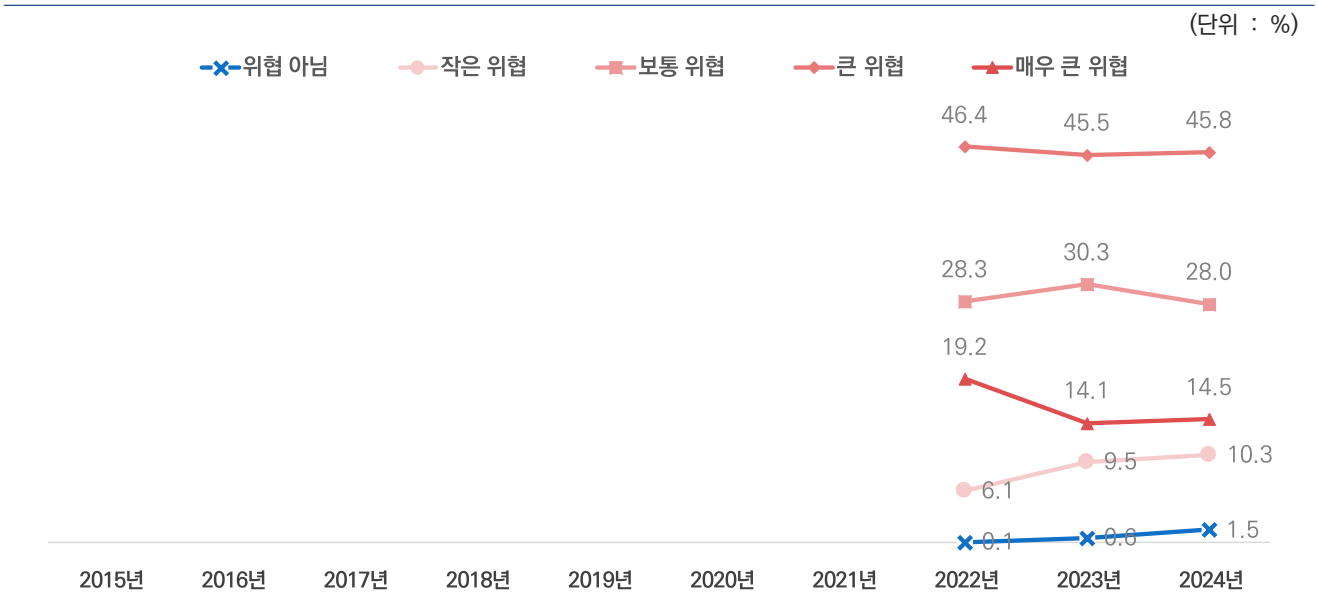
|그림 3-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1	0.6	1.5	0.9	1.4
작은 위협	–	–	–	–	–	–	–	6.1	9.5	10.3	0.8	4.2
보통 위협	–	–	–	–	–	–	–	28.3	30.3	28.0	-2.3	-0.3
큰 위협	–	–	–	–	–	–	–	46.4	45.5	45.8	0.3	-0.6
매우 큰 위협	–	–	–	–	–	–	–	19.2	14.1	14.5	0.4	-4.7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1	0.6	1.5	0.9	1.4
위협	–	–	–	–	–	–	–	99.9	99.4	98.5	-0.9	-1.4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주변국 환경오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5	10.5	28.2	45.6	14.2	1.5	9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10.3	28.0	45.8	14.5	1.5	98.5
	전문가	(100)	2.0	14.0	30.0	44.0	10.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15.2	25.7	43.4	12.9	2.8	97.2
	중	(580)	1.2	9.5	29.1	45.2	15.0	1.2	98.8
	하	(231)	-	3.9	29.0	51.1	16.0	-	100.0
성별	남성	(720)	1.3	9.3	26.5	47.6	15.3	1.3	98.8
	여성	(480)	1.9	11.7	30.2	42.9	13.3	1.9	98.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14.3	29.0	41.0	14.3	1.4	98.6
	30대	(194)	1.0	11.9	33.0	41.8	12.4	1.0	99.0
	40대	(226)	1.8	11.1	25.2	48.7	13.3	1.8	98.2
	50대	(255)	0.8	7.8	30.6	46.3	14.5	0.8	99.2
	60대 이상	(308)	2.3	7.8	24.0	49.0	16.9	2.3	97.7
지역별	서울	(140)	0.7	12.1	54.3	28.6	4.3	0.7	99.3
	경기/인천	(245)	1.2	9.8	23.3	51.4	14.3	1.2	98.8
	부산/울산/경남	(208)	-	1.0	21.2	59.6	18.3	-	100.0
	대구/경북	(141)	2.8	10.6	19.1	37.6	29.8	2.8	97.2
	광주/전라	(170)	-	9.4	30.0	44.7	15.9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4.4	22.9	29.8	40.5	2.4	4.4	95.6
	강원/제주	(91)	1.1	2.2	22.0	51.6	23.1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	11.6	30.0	42.9	14.1	1.3	98.7
	중·소도시	(639)	1.3	8.1	26.3	48.7	15.6	1.3	98.7
	읍/면	(37)	8.1	27.0	29.7	35.1	-	8.1	91.9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18.0	46.0	30.0	-	100.0
	자영업자	(185)	2.2	9.2	25.9	48.6	14.1	2.2	97.8
	판매/서비스직	(194)	0.5	10.8	32.5	42.3	13.9	0.5	99.5
	기능/숙련공	(127)	1.6	6.3	18.9	55.1	18.1	1.6	98.4
	일반 노무직	(41)	-	4.9	24.4	61.0	9.8	-	100.0
	사무/기술직	(283)	1.8	11.0	27.2	46.3	13.8	1.8	98.2
	경영/관리직	(19)	-	5.3	36.8	47.4	10.5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14.3	28.6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3.6	32.0	42.0	10.1	2.4	97.6
	학생	(73)	1.4	16.4	39.7	30.1	12.3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1.9	7.7	26.9	46.2	17.3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13.6	18.6	54.2	10.2	3.4	96.6
	고등학교	(440)	1.1	9.1	24.3	50.7	14.8	1.1	98.9
	전문대	(266)	1.1	9.0	35.0	38.3	16.5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1.6	11.9	28.1	44.5	13.8	1.6	98.4
	대학원 이상	(8)	12.5	-	62.5	25.0	-	12.5	87.5
생활수준별	상	(73)	4.1	17.8	37.0	26.0	15.1	4.1	95.9
	중	(544)	1.5	13.4	30.0	42.8	12.3	1.5	98.5
	하	(583)	1.2	6.3	25.0	50.9	16.5	1.2	98.8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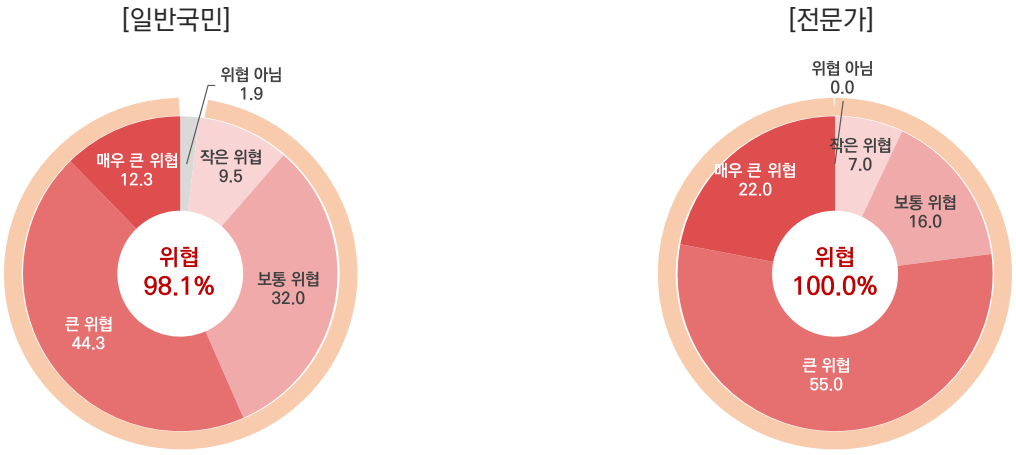
1) 국내정치 불안정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1%,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1%로 '위협 아님'(1.9%)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7%p(2023년 98.8%)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2023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100.0%(매우 큰 위협 22.0%+큰 위협 55.0%+보통 위협 16.0%+작은 위협 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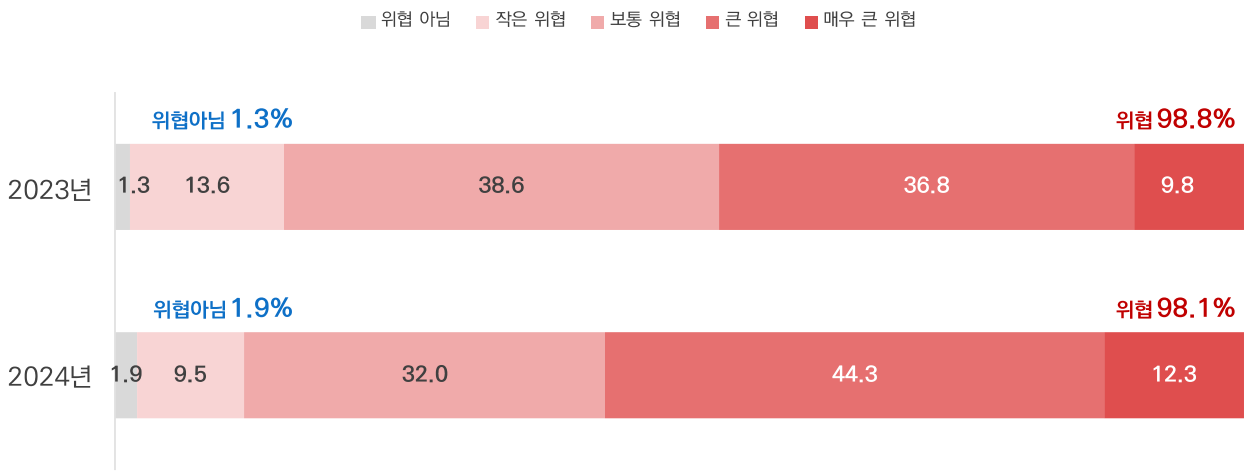
|그림 3-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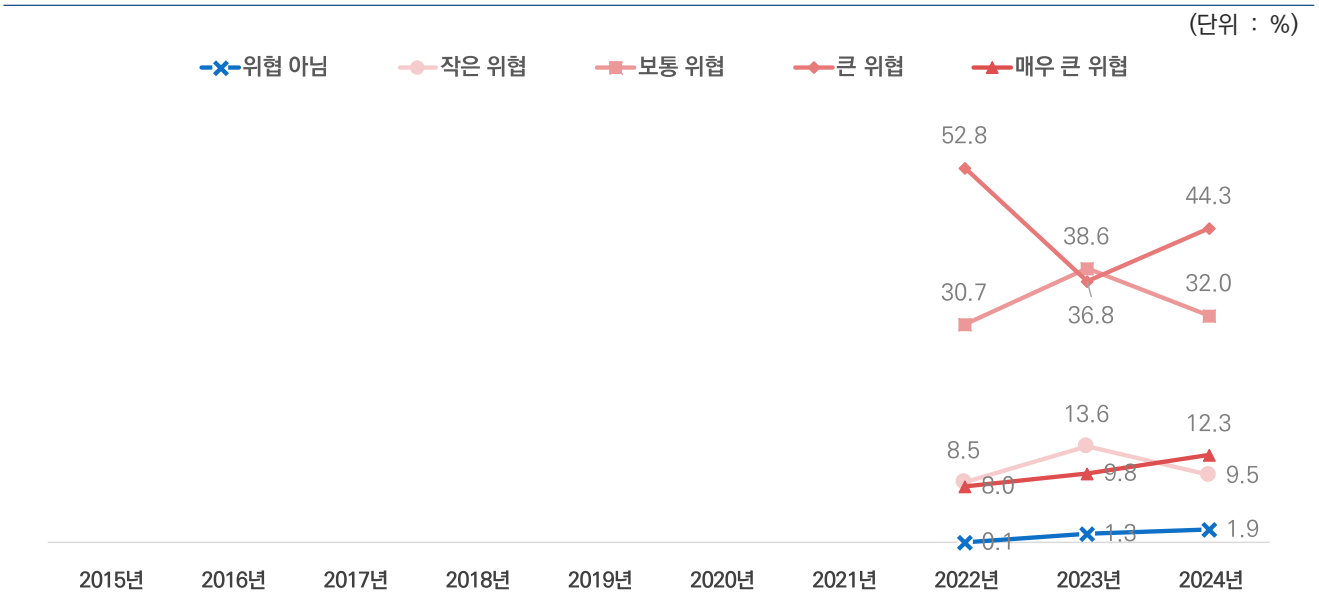
|그림 3-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p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3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1	1.3	1.9	0.6	1.8
작은 위협	–	–	–	–	–	–	–	8.5	13.6	9.5	-4.1	1.0
보통 위협	–	–	–	–	–	–	–	30.7	38.6	32.0	-6.6	1.3
큰 위협	–	–	–	–	–	–	–	52.8	36.8	44.3	7.5	-8.5
매우 큰 위협	–	–	–	–	–	–	–	8.0	9.8	12.3	2.5	4.3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1	1.3	1.9	0.6	1.8
위협	–	–	–	–	–	–	–	99.9	98.8	98.1	-0.7	-1.8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 국내정치 불안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8	9.3	30.8	45.1	13.1	1.8	9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9.5	32.0	44.3	12.3	1.9	98.1
	전문가	(100)	-	7.0	16.0	55.0	22.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6	9.8	32.6	39.3	13.6	4.6	95.4
	중	(580)	0.7	8.8	32.2	48.1	10.2	0.7	99.3
	하	(231)	0.4	10.8	30.3	42.9	15.6	0.4	99.6
성별	남성	(720)	2.1	8.9	32.4	44.6	12.1	2.1	97.9
	여성	(480)	1.7	10.4	31.5	43.8	12.7	1.7	98.3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10.6	34.6	41.5	12.4	0.9	99.1
	30대	(194)	2.6	12.9	29.9	44.8	9.8	2.6	97.4
	40대	(226)	2.2	8.0	37.2	40.3	12.4	2.2	97.8
	50대	(255)	2.7	7.5	29.8	47.1	12.9	2.7	97.3
	60대 이상	(308)	1.3	9.4	29.5	46.4	13.3	1.3	98.7
지역별	서울	(140)	-	13.6	30.0	52.9	3.6	-	100.0
	경기/인천	(245)	0.4	11.0	34.3	46.9	7.3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2.9	3.8	24.5	54.8	13.9	2.9	97.1
	대구/경북	(141)	0.7	6.4	37.6	42.6	12.8	0.7	99.3
	광주/전라	(170)	-	12.4	41.2	32.9	13.5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6.3	9.8	21.5	37.6	24.9	6.3	93.7
	강원/제주	(91)	2.2	11.0	44.0	38.5	4.4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	10.3	31.1	51.3	5.7	1.5	98.5
	중·소도시	(639)	1.3	8.3	31.9	40.1	18.5	1.3	98.7
	읍/면	(37)	18.9	18.9	45.9	16.2	-	18.9	81.1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28.0	46.0	20.0	-	100.0
	자영업자	(185)	2.2	8.1	40.0	41.6	8.1	2.2	97.8
	판매/서비스직	(194)	3.1	9.8	32.5	44.3	10.3	3.1	96.9
	기능/숙련공	(127)	3.9	6.3	26.0	40.9	22.8	3.9	96.1
	일반 노무직	(41)	2.4	4.9	24.4	51.2	17.1	2.4	97.6
	사무/기술직	(283)	1.1	9.2	33.6	46.3	9.9	1.1	98.9
	경영/관리직	(19)	5.3	5.3	47.4	36.8	5.3	5.3	94.7
	전문/자유직	(7)	-	28.6	28.6	42.9	-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14.2	24.9	47.3	13.0	0.6	99.4
	학생	(73)	1.4	13.7	34.2	35.6	15.1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1.9	7.7	32.7	48.1	9.6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5.1	27.1	54.2	11.9	1.7	98.3
	고등학교	(440)	0.9	9.5	32.3	42.7	14.5	0.9	99.1
	전문대	(266)	4.9	10.2	28.2	44.7	12.0	4.9	95.1
	4년제 대학교	(427)	1.2	9.8	34.0	44.5	10.5	1.2	98.8
	대학원 이상	(8)	-	-	75.0	25.0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11.0	39.7	42.5	6.8	-	100.0
	중	(544)	2.6	9.7	34.9	43.4	9.4	2.6	97.4
	하	(583)	1.5	9.1	28.3	45.3	15.8	1.5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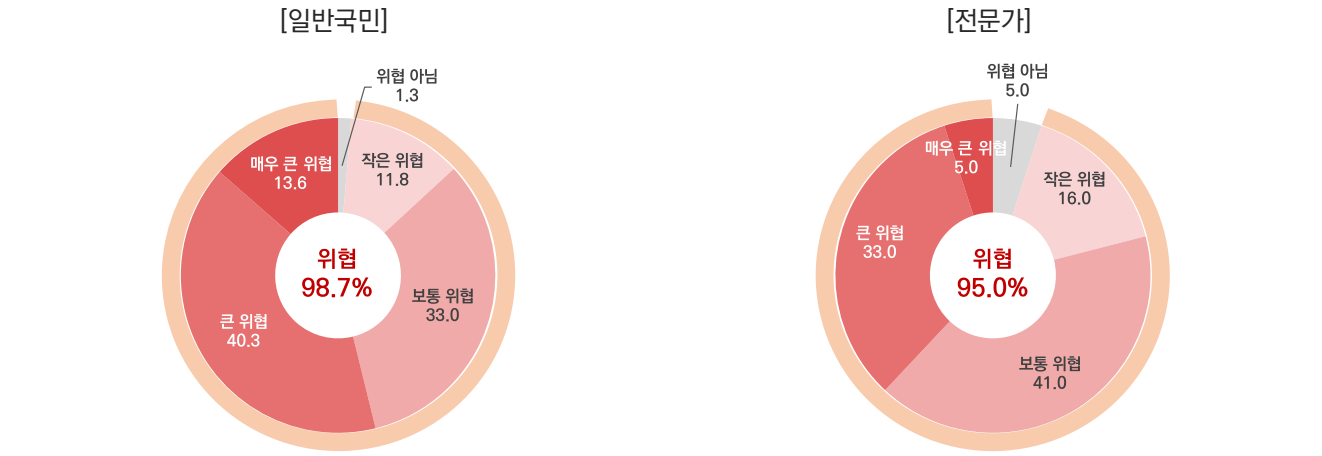
2) 부정부패 확산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7%,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7%로 '위협 아님'(1.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2%p(2023년 98.9%)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0%로 '위협 아님'(5.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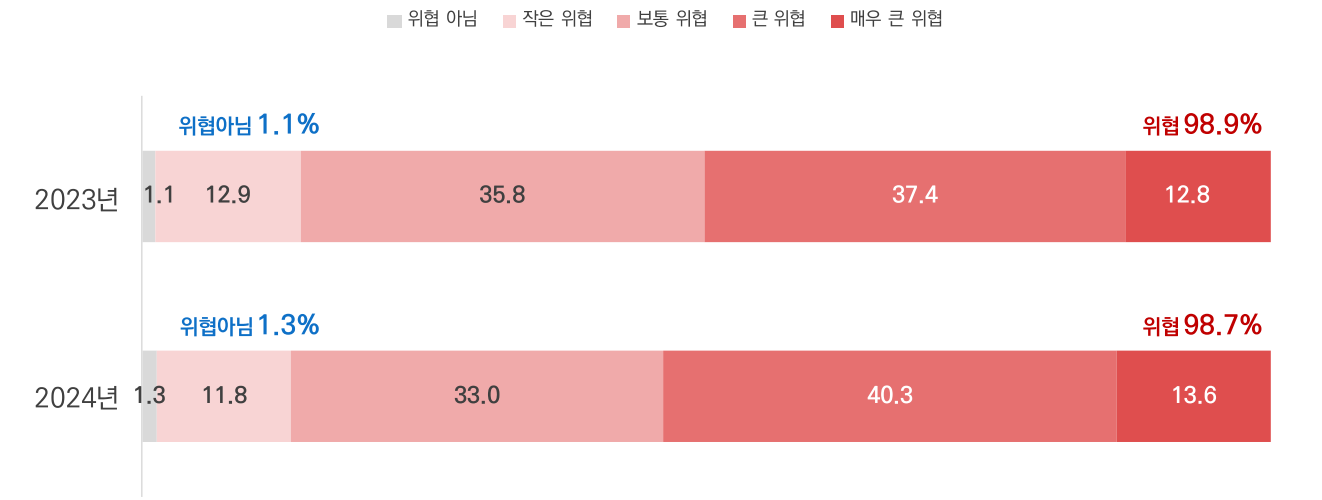
|그림 3-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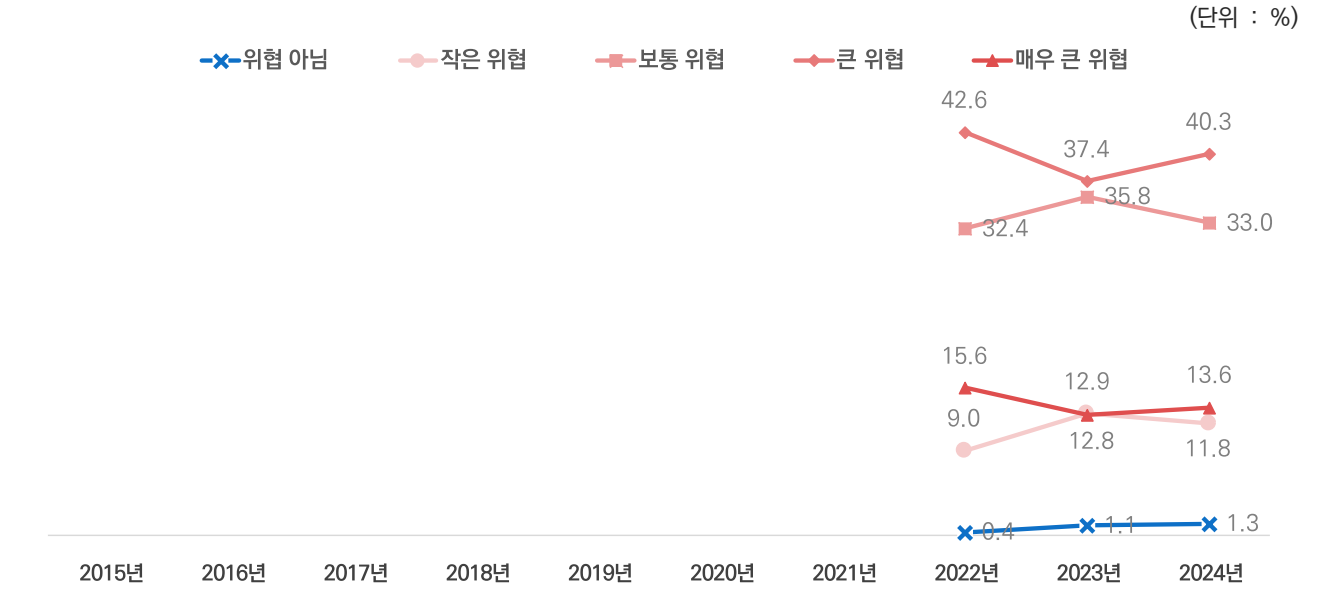
|그림 3-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3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4	1.1	1.3	0.2	0.9
작은 위협	–	–	–	–	–	–	–	9.0	12.9	11.8	-1.1	2.8
보통 위협	–	–	–	–	–	–	–	32.4	35.8	33.0	-2.8	0.6
큰 위협	–	–	–	–	–	–	–	42.6	37.4	40.3	2.9	-2.3
매우 큰 위협	–	–	–	–	–	–	–	15.6	12.8	13.6	0.8	-2.0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4	1.1	1.3	0.2	0.9
위협	–	–	–	–	–	–	–	99.6	98.9	98.7	-0.2	-0.9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3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 부정부패 확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6	12.2	33.6	39.7	12.9	1.6	9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11.8	33.0	40.3	13.6	1.3	98.7
	전문가	(100)	5.0	16.0	41.0	33.0	5.0	5.0	9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3	14.9	33.2	36.0	12.6	3.3	96.7
	중	(580)	0.5	10.7	33.4	40.5	14.8	0.5	99.5
	하	(231)	-	9.5	31.6	46.8	12.1	-	100.0
성별	남성	(720)	1.5	12.5	32.4	41.8	11.8	1.5	98.5
	여성	(480)	1.0	10.8	34.0	37.9	16.3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13.4	35.0	39.6	11.1	0.9	99.1
	30대	(194)	-	14.9	30.4	42.8	11.9	-	100.0
	40대	(226)	1.3	11.5	29.2	45.1	12.8	1.3	98.7
	50대	(255)	2.0	11.0	34.9	38.8	13.3	2.0	98.0
	60대 이상	(308)	1.9	9.7	34.4	36.7	17.2	1.9	98.1
지역별	서울	(140)	0.7	10.0	34.3	52.1	2.9	0.7	99.3
	경기/인천	(245)	0.4	15.9	35.1	36.7	11.8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5.3	2.9	32.7	38.9	20.2	5.3	94.7
	대구/경북	(141)	-	10.6	27.0	39.0	23.4	-	100.0
	광주/전라	(170)	-	14.7	41.8	37.6	5.9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1.0	16.6	24.9	37.6	20.0	1.0	99.0
	강원/제주	(91)	1.1	9.9	37.4	47.3	4.4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0.4	11.1	35.1	44.5	9.0	0.4	99.6
	중·소도시	(639)	2.0	11.0	31.3	37.7	18.0	2.0	98.0
	읍/면	(37)	2.7	37.8	32.4	24.3	2.7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2.0	22.0	52.0	22.0	2.0	98.0
	자영업자	(185)	1.6	13.0	34.1	41.1	10.3	1.6	98.4
	판매/서비스직	(194)	1.0	10.8	35.1	39.7	13.4	1.0	99.0
	기능/숙련공	(127)	0.8	10.2	25.2	42.5	21.3	0.8	99.2
	일반 노무직	(41)	-	12.2	31.7	31.7	24.4	-	100.0
	사무/기술직	(283)	1.1	10.6	32.2	46.3	9.9	1.1	98.9
	경영/관리직	(19)	5.3	15.8	52.6	21.1	5.3	5.3	94.7
	전문/자유직	(7)	-	14.3	28.6	28.6	28.6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8	12.4	34.9	35.5	15.4	1.8	98.2
	학생	(73)	1.4	17.8	39.7	30.1	11.0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1.9	19.2	34.6	34.6	9.6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8.5	40.7	33.9	16.9	-	100.0
	고등학교	(440)	1.6	10.2	34.3	38.2	15.7	1.6	98.4
	전문대	(266)	1.1	14.3	27.1	43.6	13.9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1.4	12.6	34.0	41.0	11.0	1.4	98.6
	대학원 이상	(8)	-	-	50.0	50.0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2.7	9.6	34.2	39.7	13.7	2.7	97.3
	중	(544)	1.7	14.2	34.0	38.2	11.9	1.7	98.3
	하	(583)	0.9	9.9	31.9	42.2	15.1	0.9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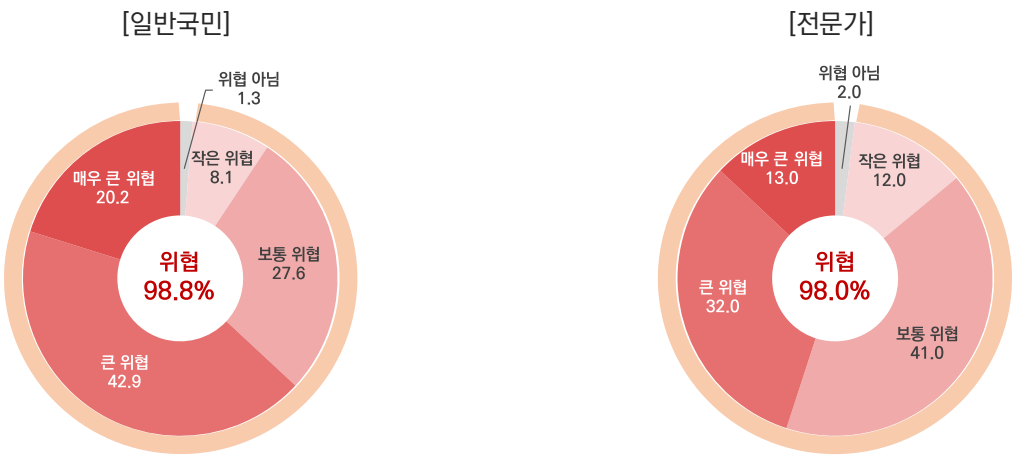
3) 물가상승·경기침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8.8%,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위협 아님'(1.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1%p(2023년 98.9%)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 아님'(2.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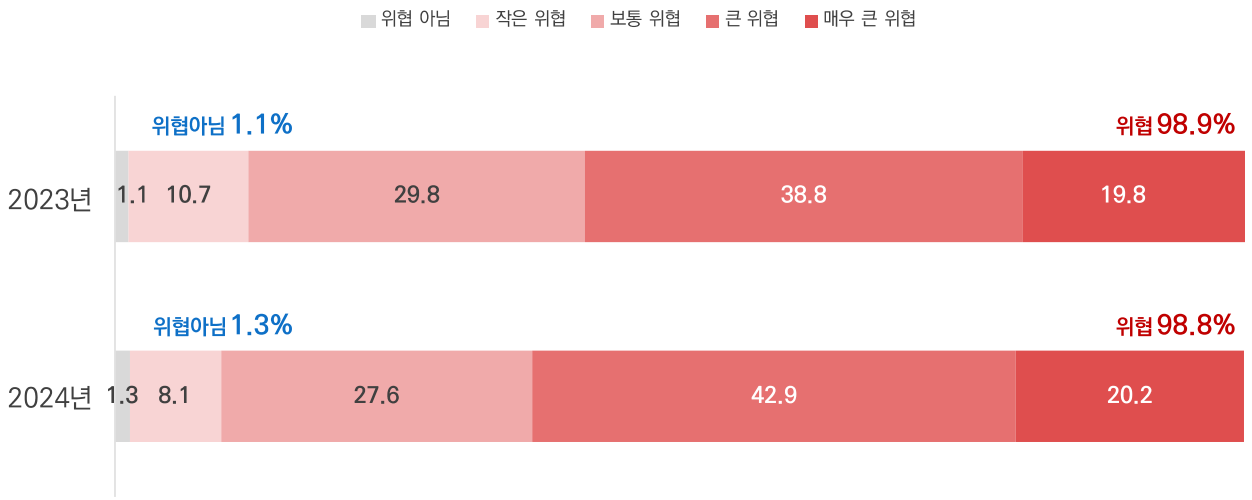
|그림 3-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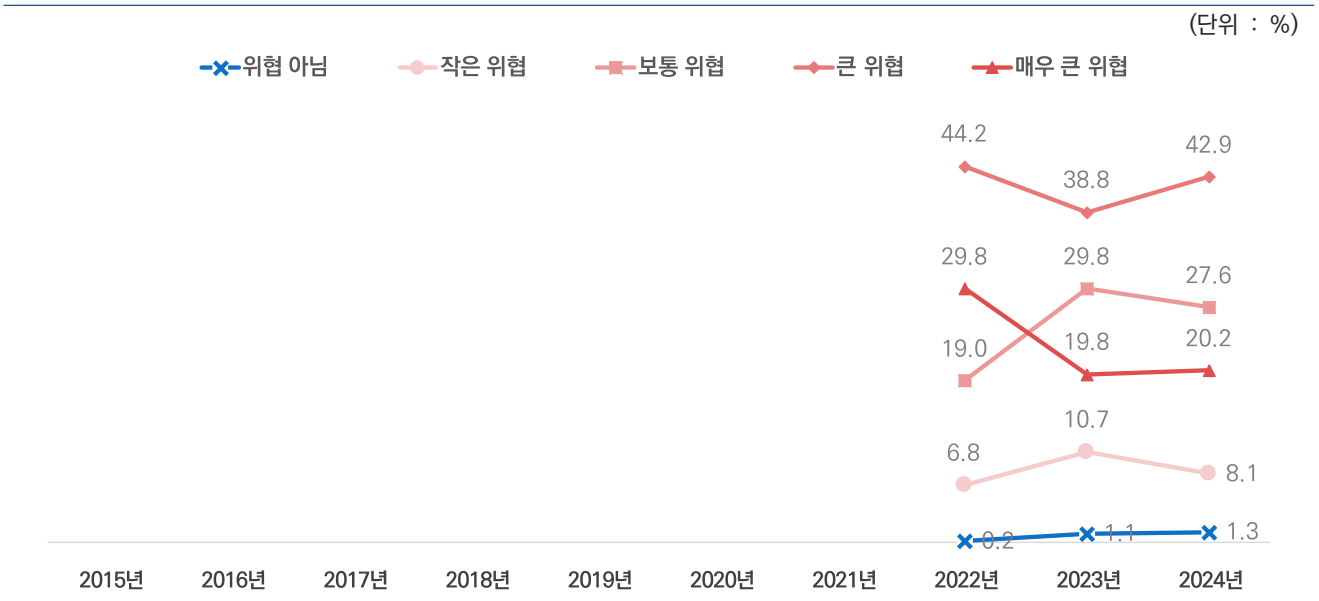
|그림 3-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2	1.1	1.3	0.2	1.1
작은 위협	–	–	–	–	–	–	–	6.8	10.7	8.1	-2.6	1.3
보통 위협	–	–	–	–	–	–	–	19.0	29.8	27.6	-2.2	8.6
큰 위협	–	–	–	–	–	–	–	44.2	38.8	42.9	4.1	-1.3
매우 큰 위협	–	–	–	–	–	–	–	29.8	19.8	20.2	0.4	-9.6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2	1.1	1.3	0.2	1.1
위협	–	–	–	–	–	–	–	99.8	98.9	98.8	-0.1	-1.0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농/어/임업', '학생',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3) 물가상승·경기침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3	8.4	28.6	42.1	19.6	1.3	98.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8.1	27.6	42.9	20.2	1.3	98.8
	전문가	(100)	2.0	12.0	41.0	32.0	13.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3	10.5	30.3	38.0	17.7	3.3	96.7
	중	(580)	0.3	7.2	24.3	48.6	19.5	0.3	99.7
	하	(231)	-	6.1	31.2	36.8	26.0	-	100.0
성별	남성	(720)	1.5	7.8	26.9	43.8	20.0	1.5	98.5
	여성	(480)	0.8	8.5	28.5	41.7	20.4	0.8	99.2
연령별	20대 이하	(217)	-	5.5	33.6	47.0	13.8	-	100.0
	30대	(194)	1.0	8.8	27.3	44.8	18.0	1.0	99.0
	40대	(226)	1.3	9.7	31.4	38.1	19.5	1.3	98.7
	50대	(255)	2.0	9.0	22.7	42.7	23.5	2.0	98.0
	60대 이상	(308)	1.6	7.5	24.7	42.5	23.7	1.6	98.4
지역별	서울	(140)	1.4	5.7	33.6	47.1	12.1	1.4	98.6
	경기/인천	(245)	-	5.7	26.9	52.2	15.1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1.4	5.3	16.8	28.4	48.1	1.4	98.6
	대구/경북	(141)	0.7	13.5	30.5	32.6	22.7	0.7	99.3
	광주/전라	(170)	0.6	10.0	24.7	53.5	11.2	0.6	99.4
	대전/충청/세종	(205)	3.4	11.7	35.6	35.6	13.7	3.4	96.6
	강원/제주	(91)	1.1	4.4	27.5	57.1	9.9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0	7.3	26.9	43.5	21.4	1.0	99.0
	중·소도시	(639)	0.8	7.7	27.7	43.7	20.2	0.8	99.2
	읍/면	(37)	13.5	27.0	35.1	21.6	2.7	13.5	86.5
직업별	농/어/임업	(50)	-	4.0	22.0	36.0	38.0	-	100.0
	자영업자	(185)	1.1	7.6	30.3	46.5	14.6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1.5	7.7	30.4	43.3	17.0	1.5	98.5
	기능/숙련공	(127)	3.1	6.3	18.1	42.5	29.9	3.1	96.9
	일반 노무직	(41)	2.4	2.4	31.7	29.3	34.1	2.4	97.6
	사무/기술직	(283)	0.4	11.3	25.4	46.6	16.3	0.4	99.6
	경영/관리직	(19)	-	5.3	26.3	52.6	15.8	-	100.0
	전문/자유직	(7)	-	-	28.6	28.6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8.3	28.4	39.6	22.5	1.2	98.8
	학생	(73)	-	4.1	41.1	42.5	12.3	-	100.0
	무직/휴직/은퇴	(52)	3.8	13.5	23.1	36.5	23.1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3.4	30.5	44.1	20.3	1.7	98.3
	고등학교	(440)	1.4	7.3	27.5	40.7	23.2	1.4	98.6
	전문대	(266)	2.3	8.3	25.9	43.6	19.9	2.3	97.7
	4년제 대학교	(427)	0.5	9.4	28.1	44.5	17.6	0.5	99.5
	대학원 이상	(8)	-	12.5	37.5	50.0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13.7	20.5	49.3	15.1	1.4	98.6
	중	(544)	1.7	9.7	25.6	43.8	19.3	1.7	98.3
	하	(583)	0.9	5.8	30.4	41.3	21.6	0.9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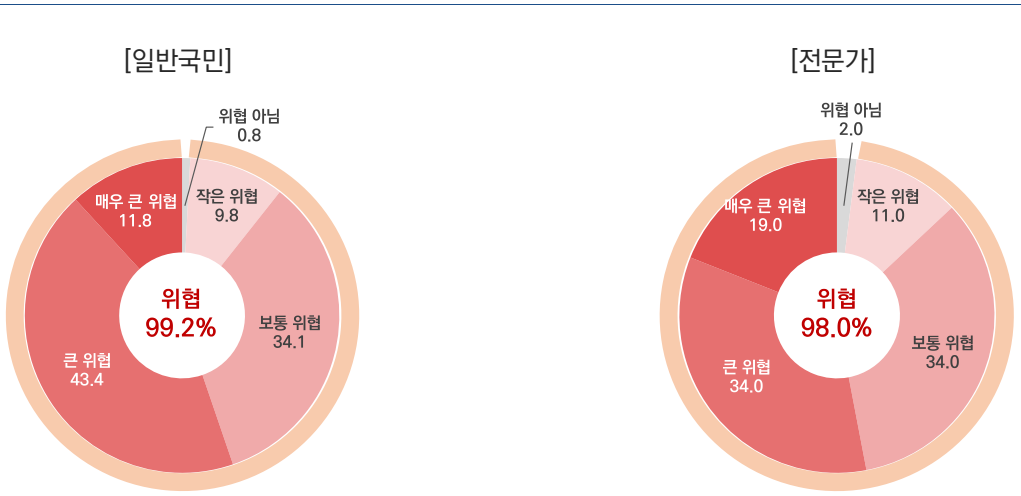
4) 불평등심화·양극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2%,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2%로 '위협 아님'(0.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98.9%)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2023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0%로 '위협 아님'(2.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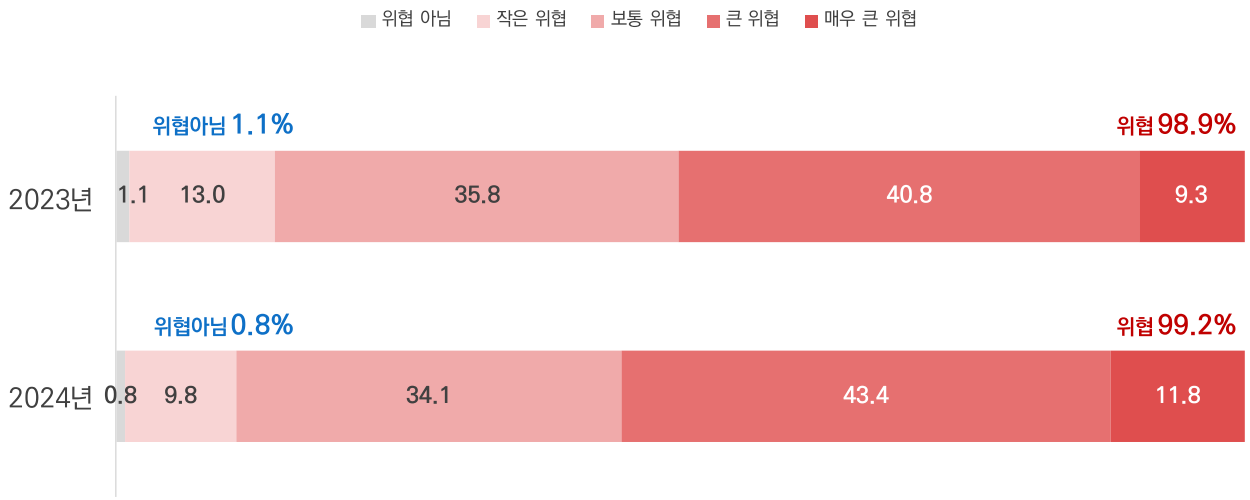
|그림 3-5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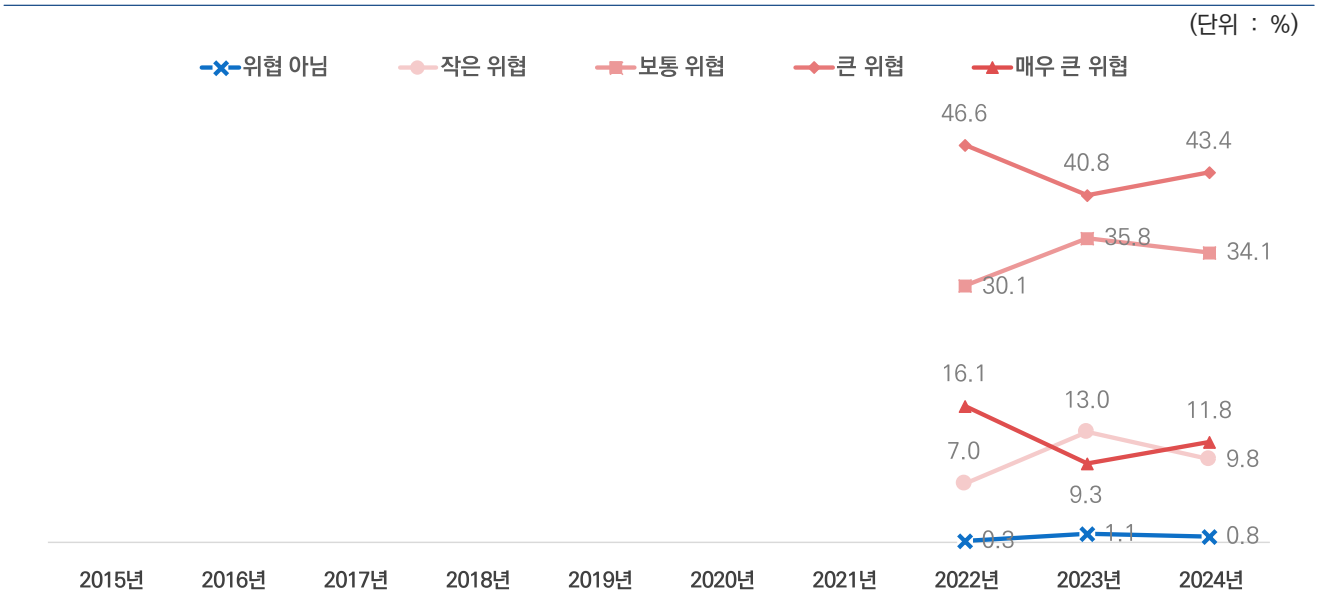
|그림 3-5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 감소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3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1.1	0.8	–0.3	0.5
작은 위협	–	–	–	–	–	–	–	7.0	13.0	9.8	–3.2	2.8
보통 위협	–	–	–	–	–	–	–	30.1	35.8	34.1	–1.7	4.0
큰 위협	–	–	–	–	–	–	–	46.6	40.8	43.4	2.6	–3.2
매우 큰 위협	–	–	–	–	–	–	–	16.1	9.3	11.8	2.5	–4.3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1.1	0.8	–0.3	0.5
위협	–	–	–	–	–	–	–	99.8	98.9	99.2	0.3	–0.6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판매/서비스직'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4) 불평등심화·양극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9	9.9	34.1	42.7	12.4	0.9	9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9.8	34.1	43.4	11.8	0.8	99.2
	전문가	(100)	2.0	11.0	34.0	34.0	19.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1	13.6	28.0	40.6	15.7	2.1	97.9
	중	(580)	0.3	8.1	37.9	44.7	9.0	0.3	99.7
	하	(231)	-	7.8	34.6	45.0	12.6	-	100.0
성별	남성	(720)	1.0	8.1	37.4	42.1	11.5	1.0	99.0
	여성	(480)	0.6	12.5	29.2	45.4	12.3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9.7	36.4	45.6	7.8	0.5	99.5
	30대	(194)	0.5	12.4	30.9	43.8	12.4	0.5	99.5
	40대	(226)	0.4	9.3	41.2	38.5	10.6	0.4	99.6
	50대	(255)	1.6	7.5	33.7	42.0	15.3	1.6	98.4
	60대 이상	(308)	1.0	10.7	29.5	46.4	12.3	1.0	99.0
지역별	서울	(140)	0.7	11.4	32.9	38.6	16.4	0.7	99.3
	경기/인천	(245)	-	8.6	31.0	46.9	13.5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1.0	2.4	36.5	53.8	6.3	1.0	99.0
	대구/경북	(141)	1.4	14.9	30.5	43.3	9.9	1.4	98.6
	광주/전라	(170)	-	9.4	38.2	36.5	15.9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2.0	15.1	29.3	40.0	13.7	2.0	98.0
	강원/제주	(91)	1.1	8.8	47.3	38.5	4.4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0.6	10.9	33.6	45.0	9.9	0.6	99.4
	중·소도시	(639)	0.9	7.8	34.1	43.5	13.6	0.9	99.1
	읍/면	(37)	2.7	29.7	40.5	18.9	8.1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2.0	50.0	34.0	14.0	-	100.0
	자영업자	(185)	0.5	9.2	30.3	48.1	11.9	0.5	99.5
	판매/서비스직	(194)	-	9.8	34.0	45.9	10.3	-	100.0
	기능/숙련공	(127)	0.8	8.7	32.3	39.4	18.9	0.8	99.2
	일반 노무직	(41)	2.4	2.4	29.3	53.7	12.2	2.4	97.6
	사무/기술직	(283)	1.1	8.5	37.5	40.6	12.4	1.1	98.9
	경영/관리직	(19)	-	-	52.6	36.8	10.5	-	100.0
	전문/자유직	(7)	-	28.6	14.3	42.9	14.3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14.8	27.2	45.6	11.2	1.2	98.8
	학생	(73)	-	11.0	34.2	47.9	6.8	-	100.0
	무직/휴직/은퇴	(52)	3.8	19.2	40.4	32.7	3.8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6.9	28.8	40.7	11.9	1.7	98.3
	고등학교	(440)	0.7	9.1	33.2	44.1	13.0	0.7	99.3
	전문대	(266)	1.1	11.7	33.5	41.7	12.0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0.7	8.7	35.6	44.3	10.8	0.7	99.3
	대학원 이상	(8)	-	-	62.5	37.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11.0	37.0	39.7	11.0	1.4	98.6
	중	(544)	1.3	11.0	35.5	42.8	9.4	1.3	98.7
	하	(583)	0.3	8.6	32.4	44.4	14.2	0.3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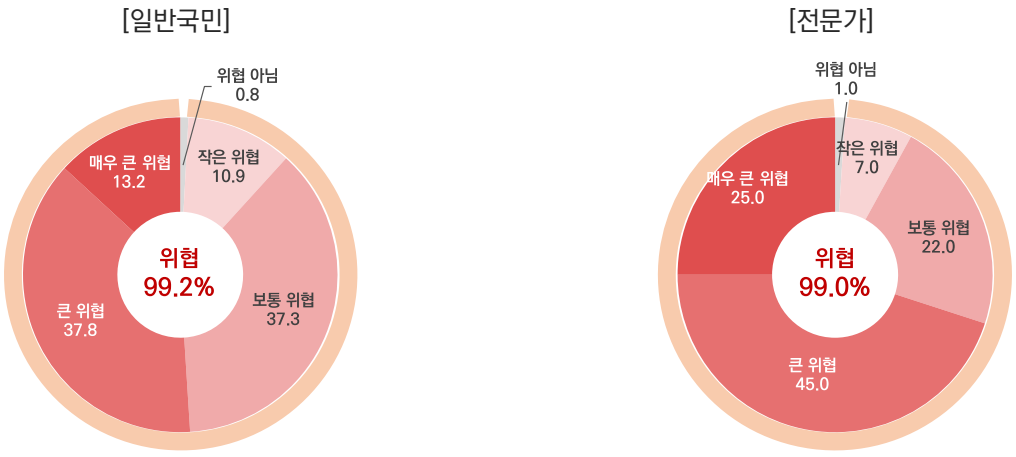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2%,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2%로 '위협 아님'(0.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98.9%)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2023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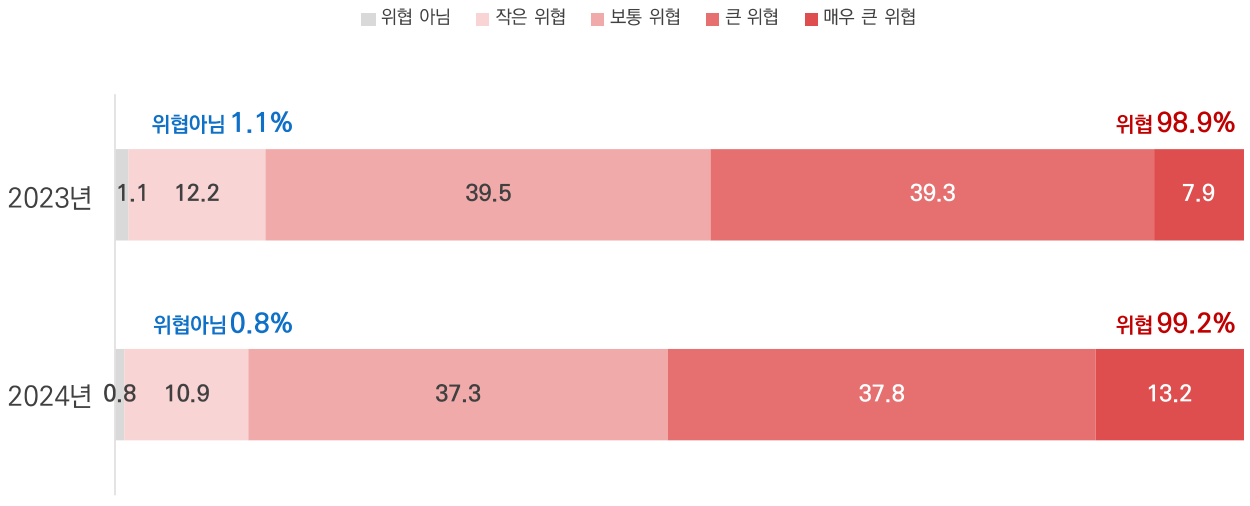
|그림 3-5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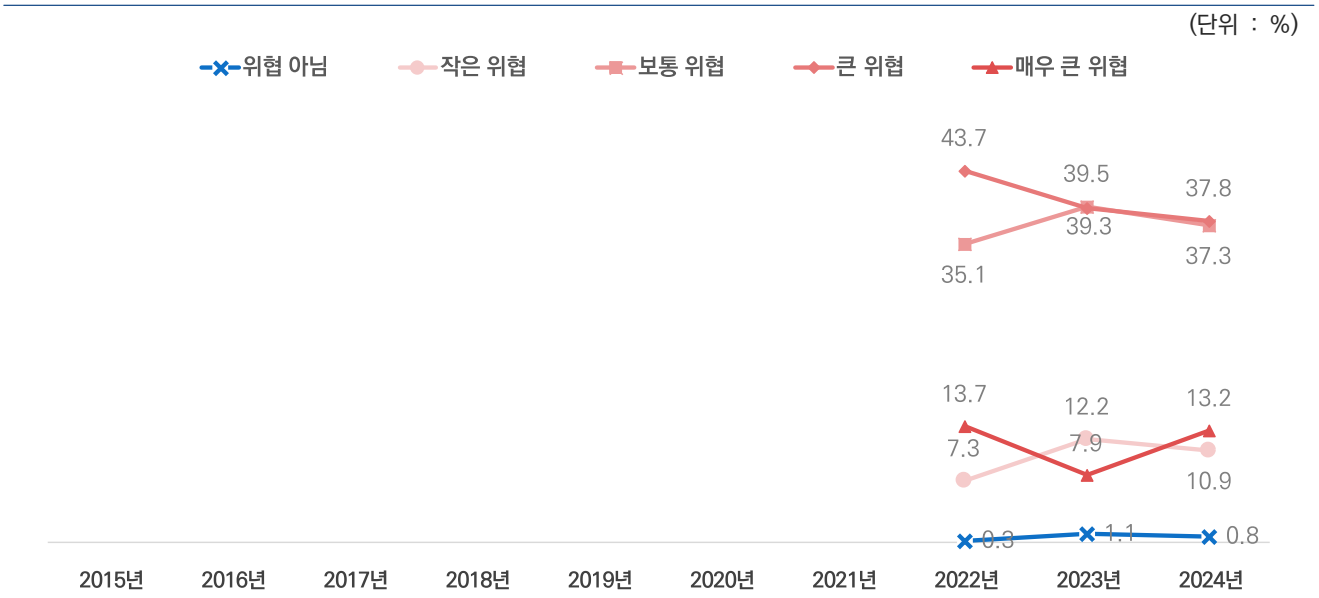
|그림 3-5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1.1	0.8	–0.3	0.5
작은 위협	–	–	–	–	–	–	–	7.3	12.2	10.9	–1.3	3.6
보통 위협	–	–	–	–	–	–	–	35.1	39.5	37.3	–2.2	2.2
큰 위협	–	–	–	–	–	–	–	43.7	39.3	37.8	–1.5	–5.9
매우 큰 위협	–	–	–	–	–	–	–	13.7	7.9	13.2	5.3	–0.5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1.1	0.8	–0.3	0.5
위협	–	–	–	–	–	–	–	99.8	98.9	99.2	0.3	–0.6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일반 노무직' 등,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8	10.6	36.1	38.4	14.1	0.8	9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0.9	37.3	37.8	13.2	0.8	99.2
	전문가	(100)	1.0	7.0	22.0	45.0	25.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	11.6	33.4	36.8	16.5	1.8	98.2
	중	(580)	0.5	11.0	37.4	38.8	12.2	0.5	99.5
	하	(231)	-	9.5	43.3	37.2	10.0	-	100.0
성별	남성	(720)	0.6	9.9	37.4	38.3	13.9	0.6	99.4
	여성	(480)	1.3	12.5	37.1	37.1	12.1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	12.0	39.6	37.3	11.1	-	100.0
	30대	(194)	1.5	11.3	36.6	37.1	13.4	1.5	98.5
	40대	(226)	1.8	9.3	39.4	38.5	11.1	1.8	98.2
	50대	(255)	0.8	11.8	36.1	37.6	13.7	0.8	99.2
	60대 이상	(308)	0.3	10.4	35.4	38.3	15.6	0.3	99.7
지역별	서울	(140)	-	10.0	35.7	35.7	18.6	-	100.0
	경기/인천	(245)	-	9.8	29.0	45.3	15.9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	2.9	46.6	45.2	5.3	-	100.0
	대구/경북	(141)	2.8	14.9	32.6	36.9	12.8	2.8	97.2
	광주/전라	(170)	-	12.4	44.1	26.5	17.1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2.0	18.5	30.2	33.2	16.1	2.0	98.0
	강원/제주	(91)	2.2	7.7	50.5	37.4	2.2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0.4	9.7	40.6	38.4	10.9	0.4	99.6
	중·소도시	(639)	1.1	10.6	34.3	38.2	15.8	1.1	98.9
	읍/면	(37)	2.7	32.4	40.5	24.3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4.0	52.0	30.0	14.0	-	100.0
	자영업자	(185)	1.6	5.4	42.2	38.4	12.4	1.6	98.4
	판매/서비스직	(194)	1.0	9.8	33.5	40.2	15.5	1.0	99.0
	기능/숙련공	(127)	0.8	9.4	30.7	37.0	22.0	0.8	99.2
	일반 노무직	(41)	-	9.8	31.7	41.5	17.1	-	100.0
	사무/기술직	(283)	0.7	11.0	39.2	37.8	11.3	0.7	99.3
	경영/관리직	(19)	-	10.5	36.8	36.8	15.8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28.6	42.9	14.3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2	16.6	34.9	37.9	9.5	1.2	98.8
	학생	(73)	-	17.8	37.0	34.2	11.0	-	100.0
	무직/휴직/은퇴	(52)	-	17.3	38.5	38.5	5.8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8.6	37.3	30.5	11.9	1.7	98.3
	고등학교	(440)	0.5	9.8	36.8	36.6	16.4	0.5	99.5
	전문대	(266)	1.1	10.9	36.8	39.8	11.3	1.1	98.9
	4년제 대학교	(427)	0.9	11.0	37.9	38.6	11.5	0.9	99.1
	대학원 이상	(8)	-	12.5	37.5	50.0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9.6	46.6	34.2	9.6	-	100.0
	중	(544)	1.1	13.1	37.3	38.1	10.5	1.1	98.9
	하	(583)	0.7	9.1	36.0	38.1	16.1	0.7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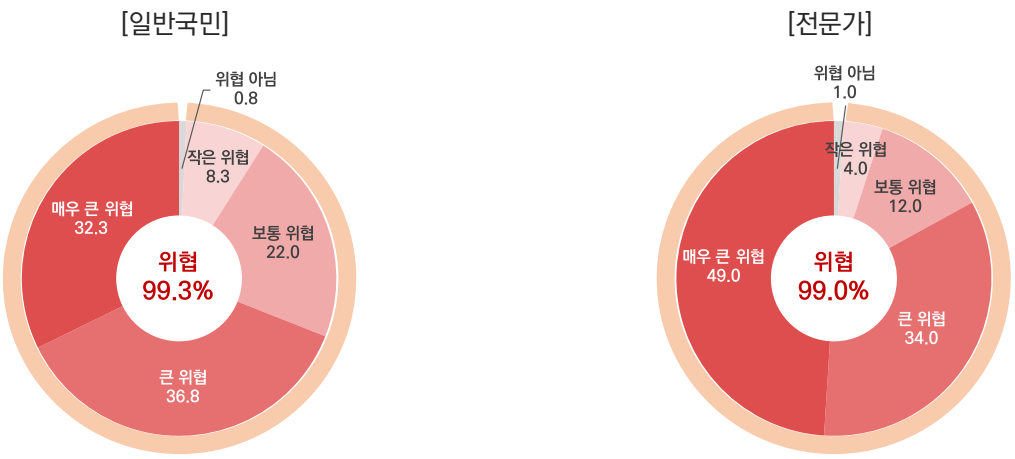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3%,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3%로 '위협 아님'(0.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1%p(2023년 99.2%)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9.0%로 '위협 아님'(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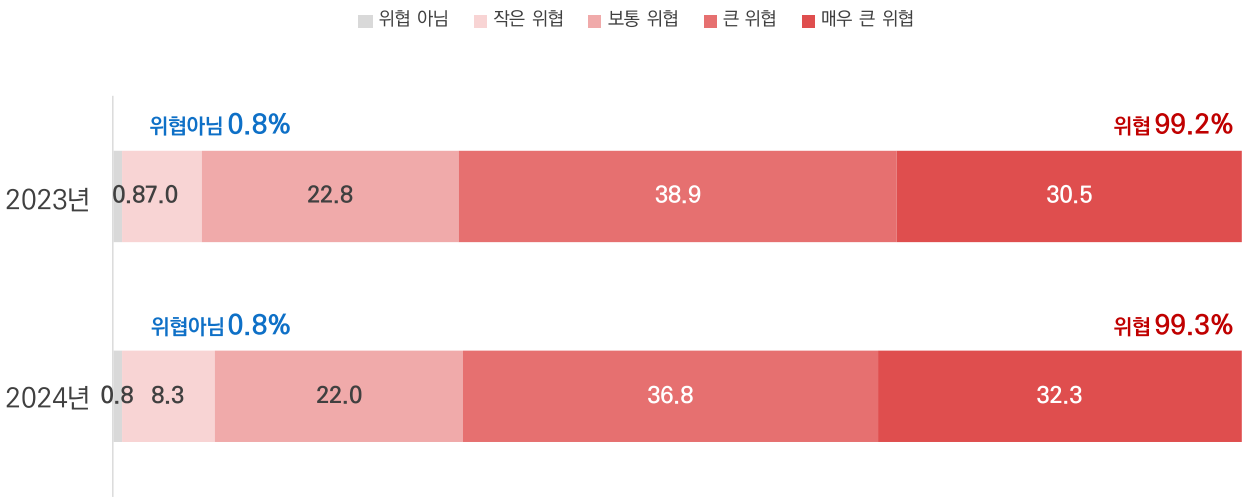
|그림 3-6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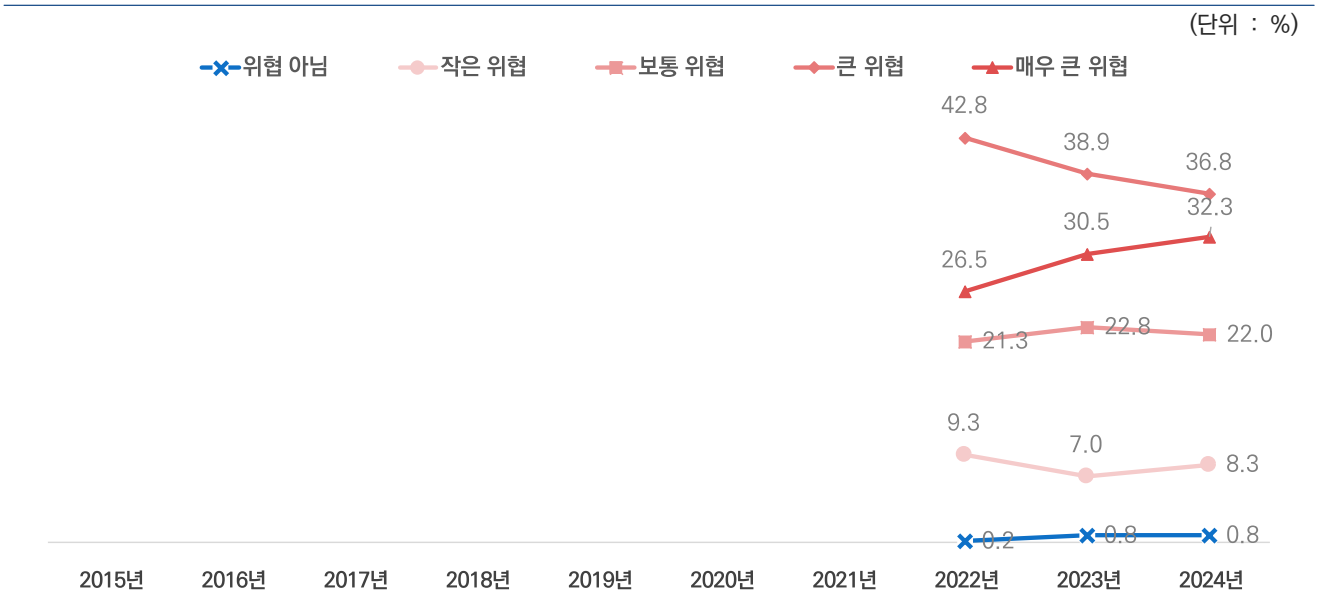
|그림 3-6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4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2	0.8	0.8	0.0	0.6
작은 위협	–	–	–	–	–	–	–	9.3	7.0	8.3	1.3	-1.0
보통 위협	–	–	–	–	–	–	–	21.3	22.8	22.0	-0.8	0.7
큰 위협	–	–	–	–	–	–	–	42.8	38.9	36.8	-2.1	-6.0
매우 큰 위협	–	–	–	–	–	–	–	26.5	30.5	32.3	1.8	5.8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2	0.8	0.8	0.0	0.6
위협	–	–	–	–	–	–	–	99.8	99.2	99.3	0.1	-0.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8	7.9	21.2	36.5	33.5	0.8	9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8.3	22.0	36.8	32.3	0.8	99.3
	전문가	(100)	1.0	4.0	12.0	34.0	49.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	9.0	24.9	35.7	29.0	1.3	98.7
	중	(580)	0.3	8.3	20.7	34.5	36.2	0.3	99.7
	하	(231)	0.9	6.9	20.3	44.2	27.7	0.9	99.1
성별	남성	(720)	0.6	7.5	19.3	41.0	31.7	0.6	99.4
	여성	(480)	1.0	9.4	26.0	30.4	33.1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11.5	23.0	36.4	28.6	0.5	99.5
	30대	(194)	1.5	8.8	22.7	37.1	29.9	1.5	98.5
	40대	(226)	0.4	9.3	24.8	35.0	30.5	0.4	99.6
	50대	(255)	0.8	3.9	24.3	34.9	36.1	0.8	99.2
	60대 이상	(308)	0.6	8.4	16.9	39.6	34.4	0.6	99.4
지역별	서울	(140)	-	6.4	40.0	40.7	12.9	-	100.0
	경기/인천	(245)	1.6	7.8	20.4	31.4	38.8	1.6	98.4
	부산/울산/경남	(208)	-	1.9	11.5	37.0	49.5	-	100.0
	대구/경북	(141)	-	6.4	7.8	36.9	48.9	-	100.0
	광주/전라	(170)	-	9.4	31.2	35.9	23.5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2.0	16.1	25.9	35.6	20.5	2.0	98.0
	강원/제주	(91)	1.1	9.9	18.7	48.4	22.0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	7.1	21.4	36.6	33.6	1.3	98.7
	중·소도시	(639)	0.3	8.0	21.6	37.4	32.7	0.3	99.7
	읍/면	(37)	-	29.7	37.8	27.0	5.4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50)	-	8.0	16.0	32.0	44.0	-	100.0
	자영업자	(185)	1.1	4.3	20.5	43.2	30.8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0.5	9.3	26.3	35.1	28.9	0.5	99.5
	기능/숙련공	(127)	0.8	5.5	15.7	37.0	40.9	0.8	99.2
	일반 노무직	(41)	-	12.2	14.6	43.9	29.3	-	100.0
	사무/기술직	(283)	1.1	7.8	21.9	38.9	30.4	1.1	98.9
	경영/관리직	(19)	-	5.3	10.5	47.4	36.8	-	100.0
	전문/자유직	(7)	-	-	14.3	42.9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8.9	29.0	28.4	33.1	0.6	99.4
	학생	(73)	1.4	17.8	23.3	30.1	27.4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	11.5	19.2	38.5	30.8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1.9	28.8	28.8	30.5	-	100.0
	고등학교	(440)	0.2	7.0	20.9	38.6	33.2	0.2	99.8
	전문대	(266)	1.5	8.3	22.9	34.6	32.7	1.5	98.5
	4년제 대학교	(427)	0.9	9.1	21.5	36.8	31.6	0.9	99.1
	대학원 이상	(8)	-	-	25.0	62.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	5.5	23.3	39.7	31.5	-	100.0
	중	(544)	0.9	9.2	22.1	37.1	30.7	0.9	99.1
	하	(583)	0.7	7.7	21.8	36.0	33.8	0.7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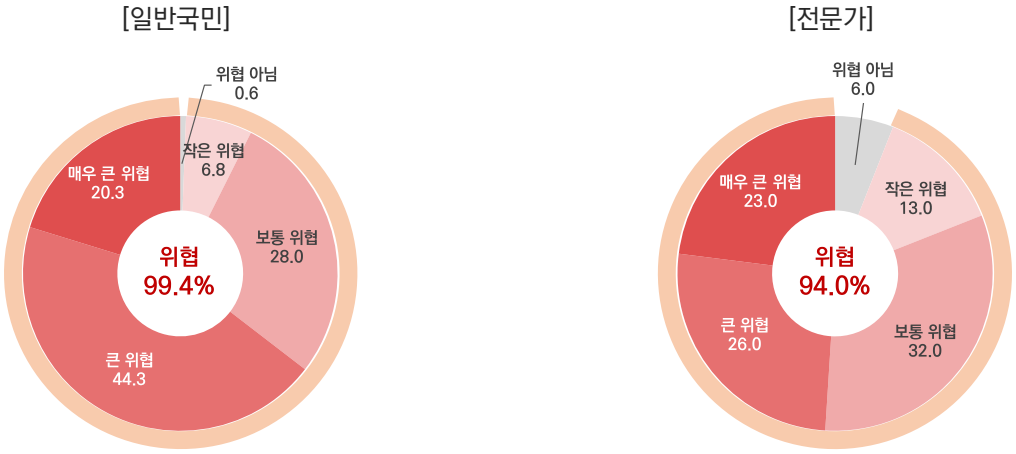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4%, 전문가 9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4%로 '위협 아님'(0.6%)이라는 응답보다 9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99.1%)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3%p(2023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4.0%로 '위협 아님'(6.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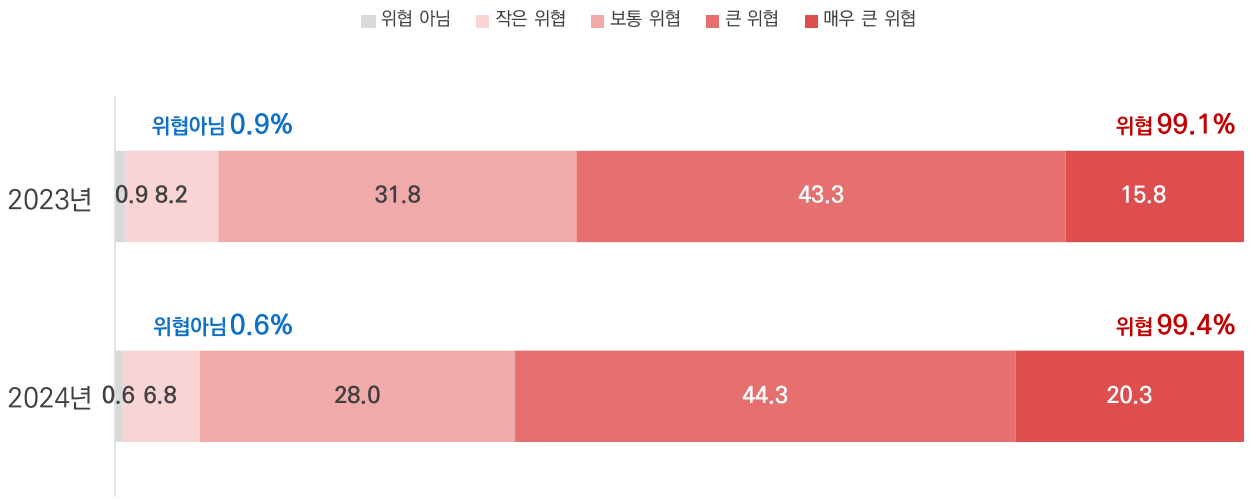
|그림 3-6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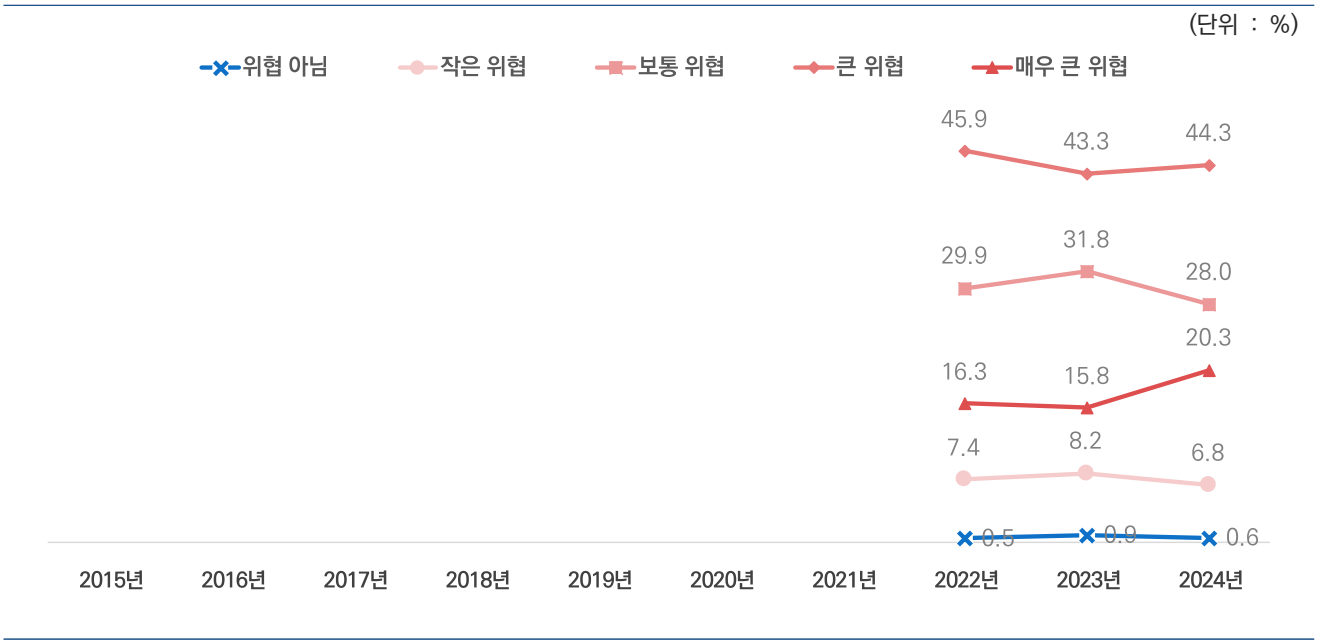
|그림 3-6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는 비율은 0.1%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5	0.9	0.6	–0.3	0.1
작은 위협	–	–	–	–	–	–	–	7.4	8.2	6.8	–1.4	–0.6
보통 위협	–	–	–	–	–	–	–	29.9	31.8	28.0	–3.8	–1.9
큰 위협	–	–	–	–	–	–	–	45.9	43.3	44.3	1.0	–1.6
매우 큰 위협	–	–	–	–	–	–	–	16.3	15.8	20.3	4.5	4.0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5	0.9	0.6	–0.3	0.1
위협	–	–	–	–	–	–	–	99.5	99.1	99.4	0.3	–0.1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기능/숙련공'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0	7.3	28.3	42.9	20.5	1.0	9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6.8	28.0	44.3	20.3	0.6	99.4
	전문가	(100)	6.0	13.0	32.0	26.0	23.0	6.0	9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	9.5	27.2	37.0	25.2	1.0	99.0
	중	(580)	0.3	6.6	29.3	45.3	18.4	0.3	99.7
	하	(231)	0.4	3.0	26.0	54.1	16.5	0.4	99.6
성별	남성	(720)	0.6	6.7	26.0	45.3	21.5	0.6	99.4
	여성	(480)	0.6	7.1	31.0	42.9	18.3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17)	-	10.1	26.7	41.9	21.2	-	100.0
	30대	(194)	0.5	8.2	30.9	42.8	17.5	0.5	99.5
	40대	(226)	0.9	7.5	28.3	45.1	18.1	0.9	99.1
	50대	(255)	1.6	5.1	25.5	44.7	23.1	1.6	98.4
	60대 이상	(308)	-	4.5	28.9	46.1	20.5	-	100.0
지역별	서울	(140)	-	7.1	27.1	52.1	13.6	-	100.0
	경기/인천	(245)	0.4	5.3	24.5	42.4	27.3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	1.0	29.8	52.4	16.8	-	100.0
	대구/경북	(141)	0.7	2.1	20.6	51.1	25.5	0.7	99.3
	광주/전라	(170)	-	12.4	35.9	38.2	13.5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1.5	13.7	22.9	35.6	26.3	1.5	98.5
	강원/제주	(91)	2.2	5.5	42.9	39.6	9.9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0.2	7.4	26.5	50.4	15.5	0.2	99.8
	중·소도시	(639)	0.8	5.3	28.0	40.5	25.4	0.8	99.2
	읍/면	(37)	2.7	24.3	48.6	24.3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18.0	54.0	22.0	-	100.0
	자영업자	(185)	1.1	5.9	25.9	47.6	19.5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1.0	5.7	24.2	45.9	23.2	1.0	99.0
	기능/숙련공	(127)	-	4.7	25.2	36.2	33.9	-	100.0
	일반 노무직	(41)	-	7.3	43.9	29.3	19.5	-	100.0
	사무/기술직	(283)	0.7	8.1	28.3	46.3	16.6	0.7	99.3
	경영/관리직	(19)	-	5.3	15.8	47.4	31.6	-	100.0
	전문/자유직	(7)	14.3	-	14.3	57.1	14.3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	7.7	34.9	42.0	15.4	-	100.0
	학생	(73)	-	8.2	35.6	38.4	17.8	-	100.0
	무직/휴직/은퇴	(52)	-	9.6	25.0	51.9	13.5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8.5	25.4	50.8	15.3	-	100.0
	고등학교	(440)	0.2	5.0	28.4	41.8	24.5	0.2	99.8
	전문대	(266)	0.8	7.1	32.0	44.0	16.2	0.8	99.2
	4년제 대학교	(427)	0.9	8.4	24.8	46.4	19.4	0.9	99.1
	대학원 이상	(8)	-	-	62.5	37.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17.8	24.7	38.4	17.8	1.4	98.6
	중	(544)	0.6	8.3	29.0	43.8	18.4	0.6	99.4
	하	(583)	0.5	4.1	27.4	45.6	22.3	0.5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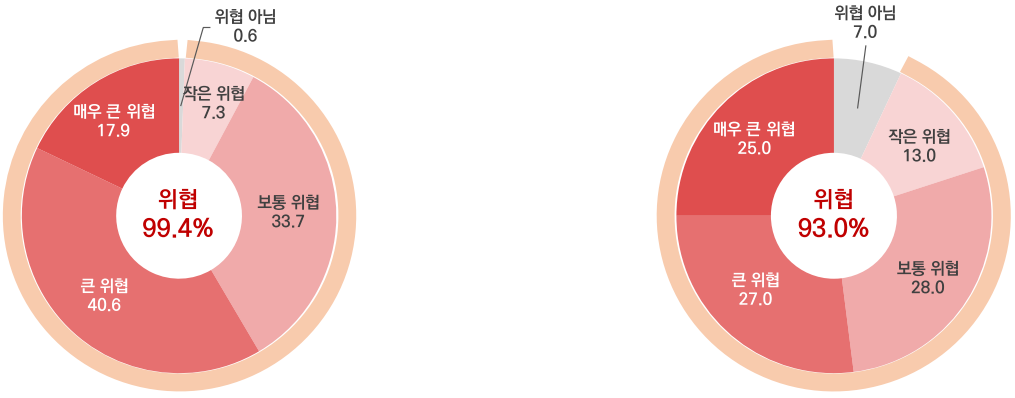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9.4%, 전문가 9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4%로 '위협 아님'(0.6%)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1%p(2023년 99.3%)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2023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는 응답이 93.0%로 '위협 아님'(7.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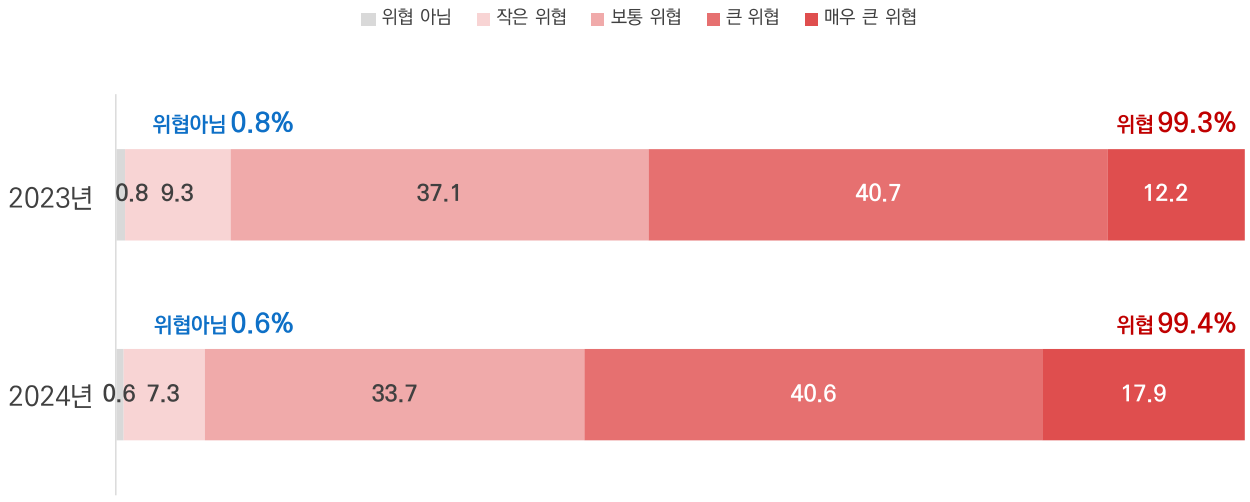
|그림 3-6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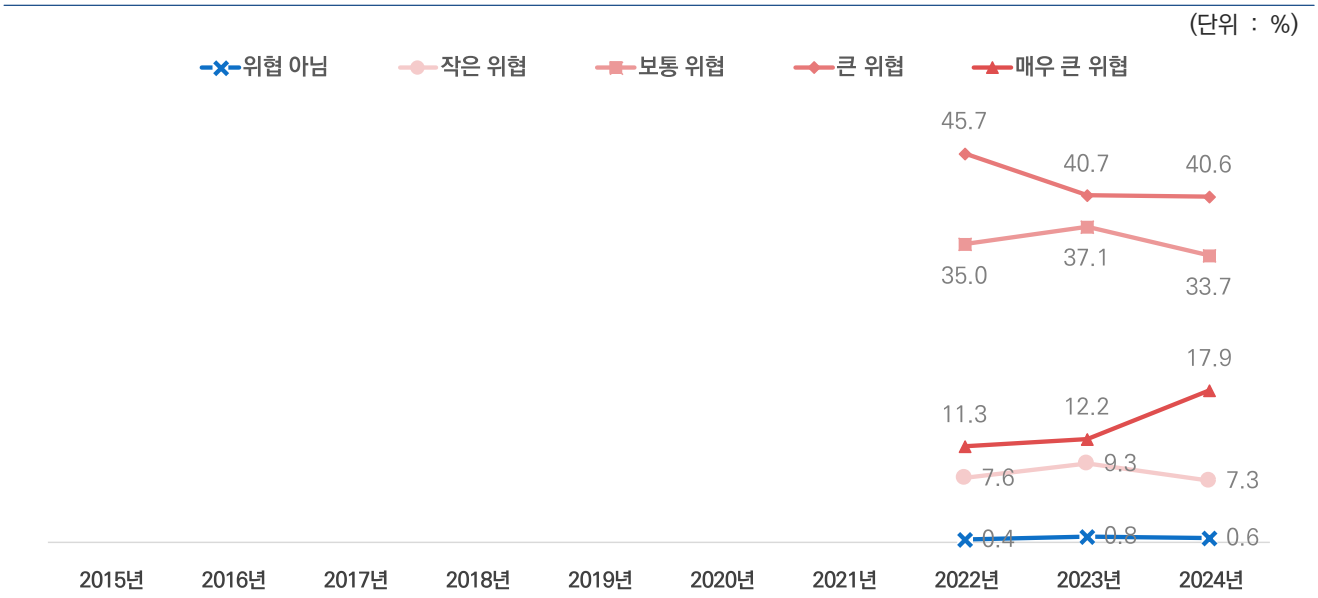
|그림 3-6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2%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4	0.8	0.6	–0.2	0.2
작은 위협	–	–	–	–	–	–	–	7.6	9.3	7.3	–2.0	–0.3
보통 위협	–	–	–	–	–	–	–	35.0	37.1	33.7	–3.4	–1.3
큰 위협	–	–	–	–	–	–	–	45.7	40.7	40.6	–0.1	–5.1
매우 큰 위협	–	–	–	–	–	–	–	11.3	12.2	17.9	5.7	6.6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4	0.8	0.6	–0.2	0.2
위협	–	–	–	–	–	–	–	99.6	99.3	99.4	0.1	–0.2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판매/서비스직'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1	7.7	33.2	39.5	18.5	1.1	98.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7.3	33.7	40.6	17.9	0.6	99.4
	전문가	(100)	7.0	13.0	28.0	27.0	25.0	7.0	9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	10.3	26.7	40.6	21.3	1.0	99.0
	중	(580)	0.5	6.7	36.9	39.5	16.4	0.5	99.5
	하	(231)	-	3.5	37.2	43.3	16.0	-	100.0
성별	남성	(720)	0.7	6.8	34.3	40.1	18.1	0.7	99.3
	여성	(480)	0.4	7.9	32.7	41.3	17.7	0.4	99.6
연령별	20대 이하	(217)	-	7.8	38.2	38.7	15.2	-	100.0
	30대	(194)	0.5	10.8	35.1	37.1	16.5	0.5	99.5
	40대	(226)	0.9	5.8	27.9	47.3	18.1	0.9	99.1
	50대	(255)	1.2	6.3	33.3	39.6	19.6	1.2	98.8
	60대 이상	(308)	0.3	6.5	34.1	39.9	19.2	0.3	99.7
지역별	서울	(140)	0.7	4.3	32.1	44.3	18.6	0.7	99.3
	경기/인천	(245)	0.8	6.1	29.8	38.4	24.9	0.8	99.2
	부산/울산/경남	(208)	-	2.9	29.3	52.9	14.9	-	100.0
	대구/경북	(141)	-	8.5	23.4	39.7	28.4	-	100.0
	광주/전라	(170)	-	10.0	45.3	40.6	4.1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1.0	10.7	32.7	33.2	22.4	1.0	99.0
	강원/제주	(91)	2.2	9.9	52.7	30.8	4.4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0.4	6.1	31.1	45.4	17.0	0.4	99.6
	중·소도시	(639)	0.6	6.9	35.2	37.7	19.6	0.6	99.4
	읍/면	(37)	2.7	29.7	43.2	21.6	2.7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32.0	34.0	28.0	-	100.0
	자영업자	(185)	1.1	4.9	37.3	37.8	18.9	1.1	98.9
	판매/서비스직	(194)	-	7.2	32.0	44.8	16.0	-	100.0
	기능/숙련공	(127)	0.8	3.1	30.7	40.2	25.2	0.8	99.2
	일반 노무직	(41)	-	9.8	41.5	24.4	24.4	-	100.0
	사무/기술직	(283)	0.7	8.5	30.7	44.5	15.5	0.7	99.3
	경영/관리직	(19)	-	5.3	36.8	42.1	15.8	-	100.0
	전문/자유직	(7)	14.3	-	14.3	57.1	14.3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8.9	32.5	39.1	18.9	0.6	99.4
	학생	(73)	-	11.0	39.7	41.1	8.2	-	100.0
	무직/휴직/은퇴	(52)	-	9.6	42.3	34.6	13.5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5.1	37.3	39.0	18.6	-	100.0
	고등학교	(440)	0.5	7.3	30.5	40.2	21.6	0.5	99.5
	전문대	(266)	0.8	4.5	41.0	38.7	15.0	0.8	99.2
	4년제 대학교	(427)	0.7	8.9	32.1	42.6	15.7	0.7	99.3
	대학원 이상	(8)	-	25.0	25.0	25.0	25.0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16.4	35.6	26.0	20.5	1.4	98.6
	중	(544)	0.6	9.6	33.8	38.1	18.0	0.6	99.4
	하	(583)	0.5	3.9	33.3	44.8	17.5	0.5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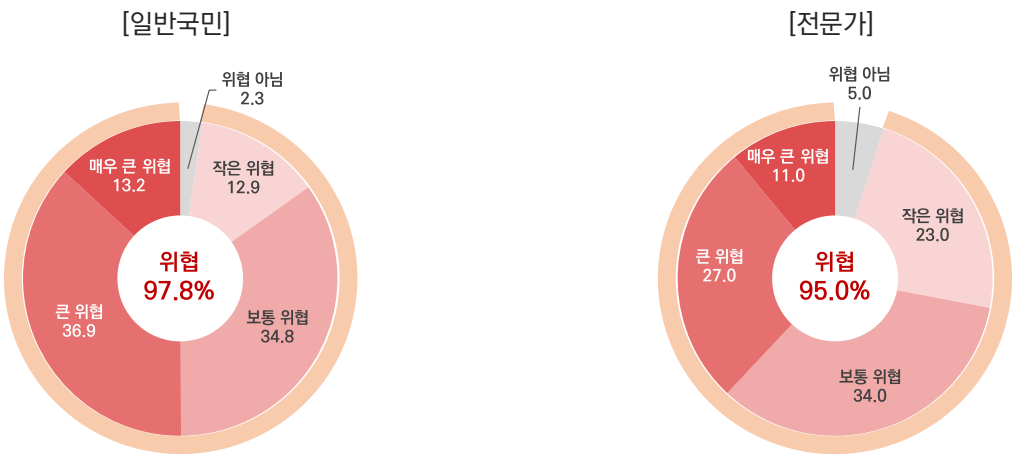
9) 개인정보 유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97.8%,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8%로 '위협 아님'(2.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97.3%)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p(2023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0%로 '위협 아님'(5.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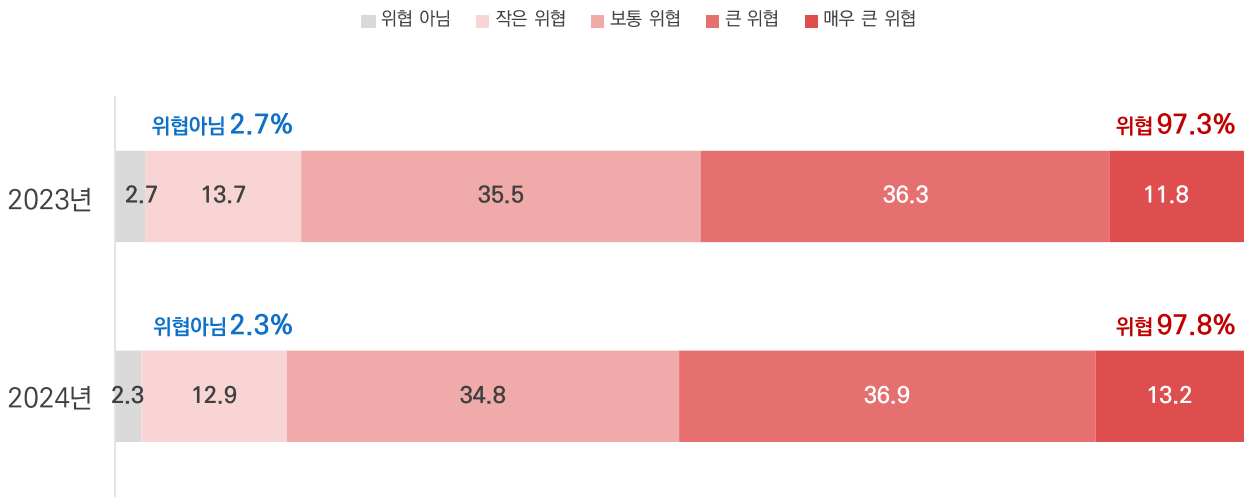
|그림 3-6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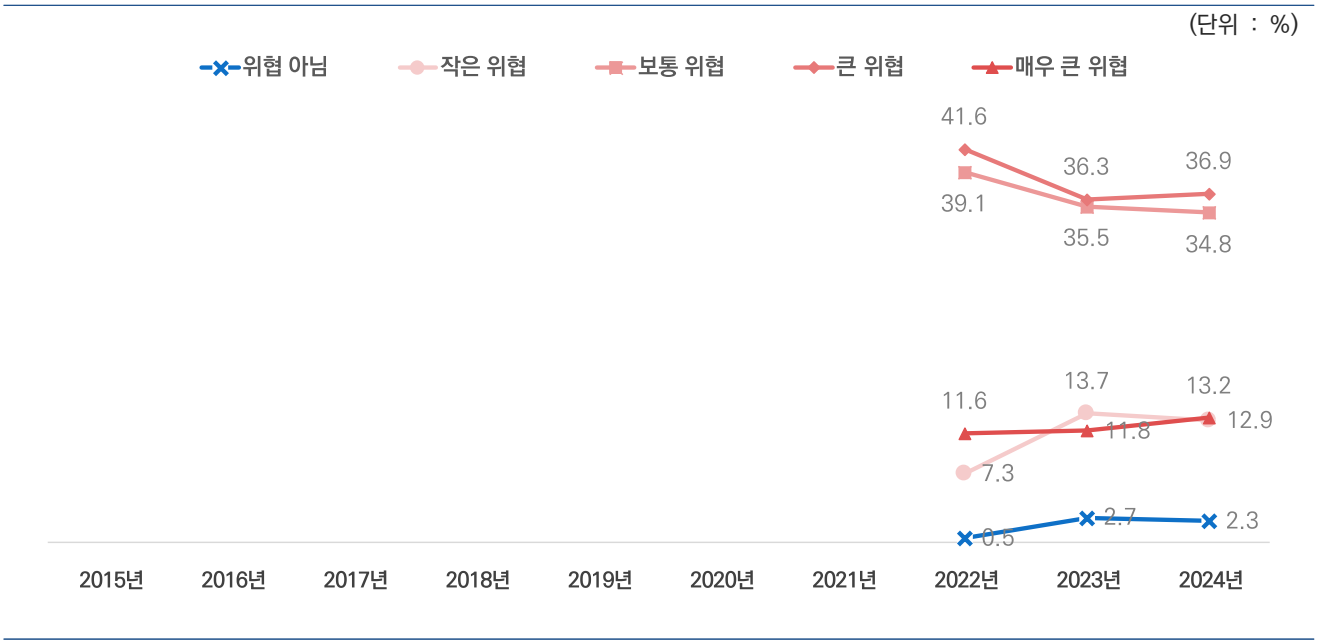
|그림 3-7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5	2.7	2.3	–0.4	1.8
작은 위협	–	–	–	–	–	–	–	7.3	13.7	12.9	–0.8	5.6
보통 위협	–	–	–	–	–	–	–	39.1	35.5	34.8	–0.7	–4.3
큰 위협	–	–	–	–	–	–	–	41.6	36.3	36.9	0.6	–4.7
매우 큰 위협	–	–	–	–	–	–	–	11.6	11.8	13.2	1.4	1.6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5	2.7	2.3	–0.4	1.8
위협	–	–	–	–	–	–	–	99.5	97.3	97.8	0.5	–1.7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학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9) 개인정보 유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2.5	13.7	34.7	36.2	13.0	2.5	97.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2.9	34.8	36.9	13.2	2.3	97.8
	전문가	(100)	5.0	23.0	34.0	27.0	11.0	5.0	9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9	16.2	38.0	32.1	8.7	4.9	95.1
	중	(580)	0.7	12.4	34.0	39.3	13.6	0.7	99.3
	하	(231)	1.7	8.7	31.2	39.0	19.5	1.7	98.3
성별	남성	(720)	2.2	13.1	32.6	38.8	13.3	2.2	97.8
	여성	(480)	2.3	12.7	37.9	34.2	12.9	2.3	97.7
연령별	20대 이하	(217)	2.3	14.7	35.5	35.9	11.5	2.3	97.7
	30대	(194)	1.5	13.9	40.7	35.6	8.2	1.5	98.5
	40대	(226)	3.1	11.5	28.8	39.8	16.8	3.1	96.9
	50대	(255)	3.1	11.0	34.5	37.6	13.7	3.1	96.9
	60대 이상	(308)	1.3	13.6	35.1	35.7	14.3	1.3	98.7
지역별	서울	(140)	-	14.3	46.4	32.9	6.4	-	100.0
	경기/인천	(245)	2.4	11.0	32.2	41.2	13.1	2.4	97.6
	부산/울산/경남	(208)	1.0	8.2	21.6	36.5	32.7	1.0	99.0
	대구/경북	(141)	5.0	12.1	25.5	44.0	13.5	5.0	95.0
	광주/전라	(170)	1.8	17.6	43.5	32.9	4.1	1.8	98.2
	대전/충청/세종	(205)	3.9	16.1	41.0	32.2	6.8	3.9	96.1
	강원/제주	(91)	1.1	12.1	37.4	39.6	9.9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9	11.6	34.0	38.7	13.7	1.9	98.1
	중·소도시	(639)	2.2	13.1	34.9	36.8	13.0	2.2	97.8
	읍/면	(37)	8.1	27.0	43.2	13.5	8.1	8.1	91.9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10.0	28.0	34.0	22.0	6.0	94.0
	자영업자	(185)	2.2	13.5	28.6	43.8	11.9	2.2	97.8
	판매/서비스직	(194)	3.1	11.9	34.5	40.7	9.8	3.1	96.9
	기능/숙련공	(127)	1.6	11.8	27.6	39.4	19.7	1.6	98.4
	일반 노무직	(41)	2.4	9.8	34.1	48.8	4.9	2.4	97.6
	사무/기술직	(283)	1.4	12.7	36.4	34.3	15.2	1.4	98.6
	경영/관리직	(19)	-	15.8	42.1	26.3	15.8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42.9	14.3	28.6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1.8	40.2	33.1	12.4	2.4	97.6
	학생	(73)	1.4	16.4	46.6	27.4	8.2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3.8	21.2	34.6	32.7	7.7	3.8	96.2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5.3	35.6	40.7	6.8	1.7	98.3
	고등학교	(440)	2.5	12.5	33.6	36.8	14.5	2.5	97.5
	전문대	(266)	2.3	12.4	32.3	39.5	13.5	2.3	97.7
	4년제 대학교	(427)	2.1	13.6	36.8	34.9	12.6	2.1	97.9
	대학원 이상	(8)	-	-	62.5	37.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23.3	31.5	35.6	8.2	1.4	98.6
	중	(544)	2.2	13.8	33.6	37.5	12.9	2.2	97.8
	하	(583)	2.4	10.8	36.2	36.5	14.1	2.4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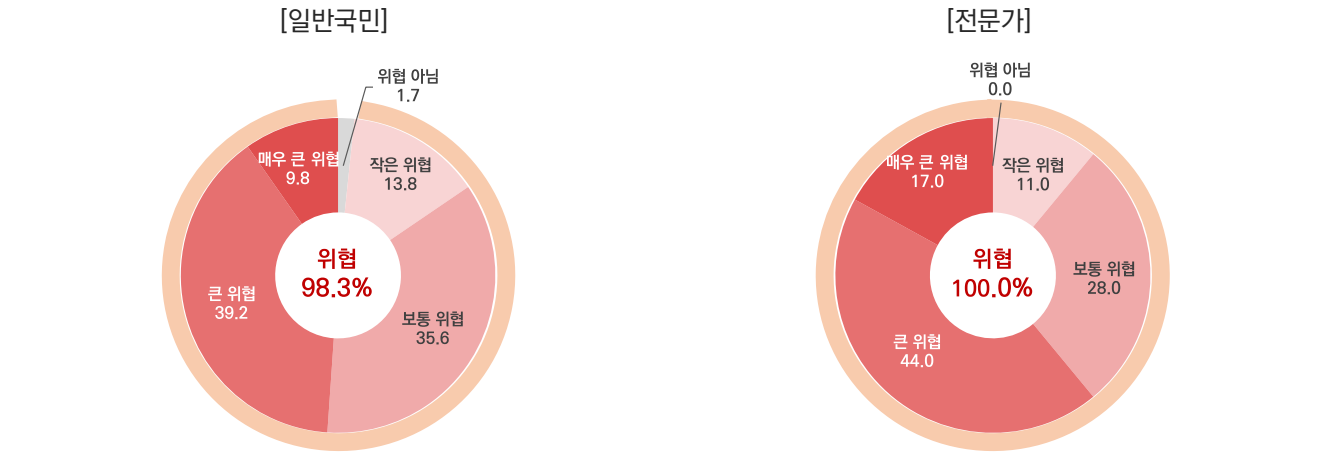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98.3%,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3%로 '위협 아님'(1/7%)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97.8%)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2023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매우 큰 위협 17.0%+큰 위협 44.0%+보통 위협 28.0%+작은 위협 1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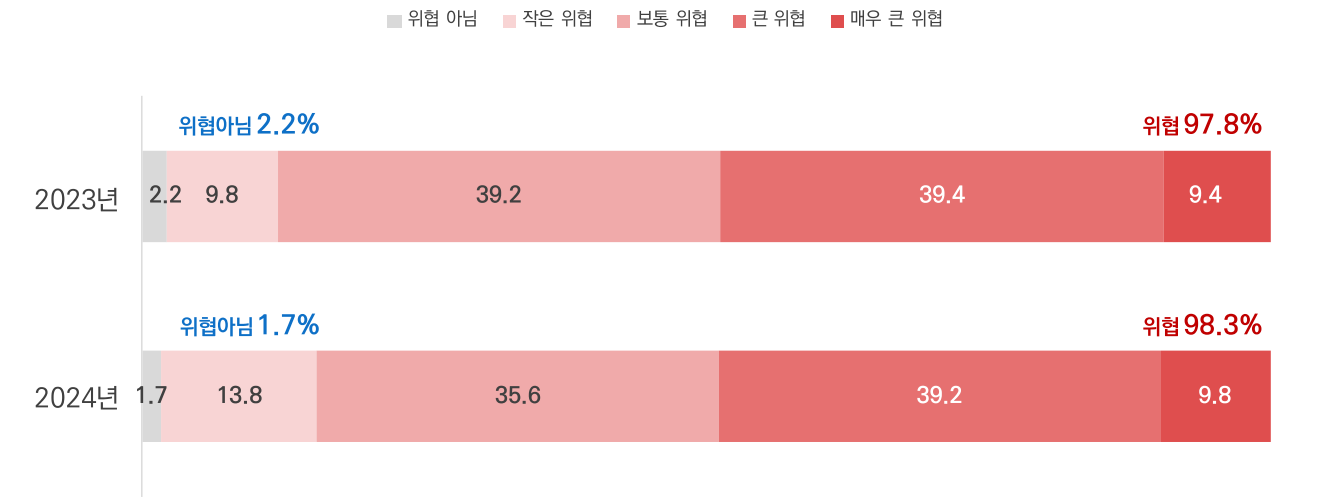
|그림 3-7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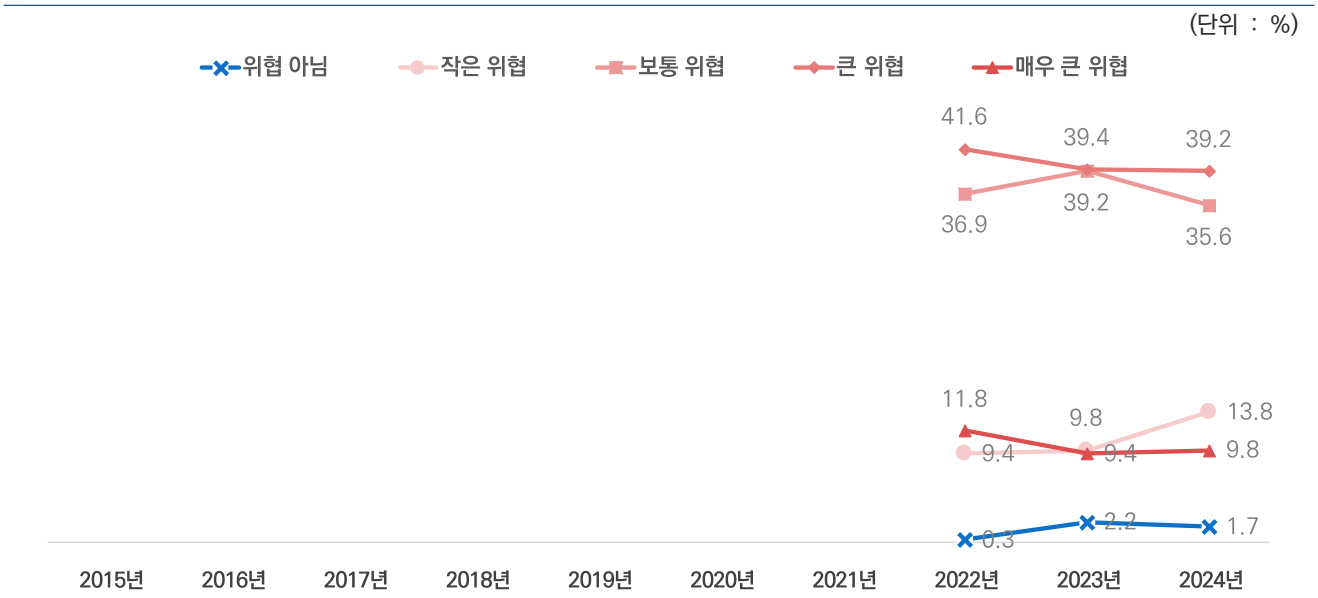
|그림 3-7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3	2.2	1.7	–0.5	1.4
작은 위협	–	–	–	–	–	–	–	9.4	9.8	13.8	4.0	4.4
보통 위협	–	–	–	–	–	–	–	36.9	39.2	35.6	–3.6	–1.3
큰 위협	–	–	–	–	–	–	–	41.6	39.4	39.2	–0.2	–2.4
매우 큰 위협	–	–	–	–	–	–	–	11.8	9.4	9.8	0.4	–2.0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3	2.2	1.7	–0.5	1.4
위협	–	–	–	–	–	–	–	99.7	97.8	98.3	0.5	–1.4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5	13.6	35.0	39.5	10.3	1.5	9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13.8	35.6	39.2	9.8	1.7	98.3
	전문가	(100)	-	11.0	28.0	44.0	17.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	16.2	33.7	39.1	9.3	1.8	98.2
	중	(580)	1.7	13.8	39.1	38.4	6.9	1.7	98.3
	하	(231)	1.3	10.0	29.9	41.1	17.7	1.3	98.7
성별	남성	(720)	1.9	12.8	34.3	41.0	10.0	1.9	98.1
	여성	(480)	1.3	15.4	37.5	36.5	9.4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15.7	37.8	36.4	8.3	1.8	98.2
	30대	(194)	1.5	14.4	31.4	43.8	8.8	1.5	98.5
	40대	(226)	1.8	11.9	38.1	36.3	11.9	1.8	98.2
	50대	(255)	1.6	15.3	31.8	41.6	9.8	1.6	98.4
	60대 이상	(308)	1.6	12.3	38.0	38.3	9.7	1.6	98.4
지역별	서울	(140)	1.4	22.1	38.6	30.7	7.1	1.4	98.6
	경기/인천	(245)	3.7	16.7	32.7	38.0	9.0	3.7	96.3
	부산/울산/경남	(208)	-	3.8	38.0	47.6	10.6	-	100.0
	대구/경북	(141)	2.1	11.3	29.1	39.0	18.4	2.1	97.9
	광주/전라	(170)	-	12.9	37.6	41.8	7.6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2.4	21.5	41.5	29.8	4.9	2.4	97.6
	강원/제주	(91)	1.1	4.4	26.4	52.7	15.4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2.3	16.2	33.4	40.3	7.8	2.3	97.7
	중·소도시	(639)	0.6	10.8	37.9	39.0	11.7	0.6	99.4
	읍/면	(37)	10.8	32.4	27.0	27.0	2.7	10.8	89.2
직업별	농/어/임업	(50)	-	14.0	20.0	46.0	20.0	-	100.0
	자영업자	(185)	-	13.5	38.9	38.4	9.2	-	100.0
	판매/서비스직	(194)	2.1	9.3	39.7	41.2	7.7	2.1	97.9
	기능/숙련공	(127)	1.6	8.7	31.5	48.0	10.2	1.6	98.4
	일반 노무직	(41)	4.9	12.2	36.6	39.0	7.3	4.9	95.1
	사무/기술직	(283)	1.8	12.7	36.7	39.9	8.8	1.8	98.2
	경영/관리직	(19)	5.3	15.8	15.8	47.4	15.8	5.3	94.7
	전문/자유직	(7)	-	-	42.9	28.6	28.6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3.0	20.1	35.5	32.0	9.5	3.0	97.0
	학생	(73)	1.4	19.2	39.7	34.2	5.5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	25.0	26.9	30.8	17.3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11.9	33.9	39.0	13.6	1.7	98.3
	고등학교	(440)	1.6	14.1	37.0	38.0	9.3	1.6	98.4
	전문대	(266)	1.9	15.4	31.6	40.2	10.9	1.9	98.1
	4년제 대학교	(427)	1.6	12.9	36.5	39.8	9.1	1.6	98.4
	대학원 이상	(8)	-	12.5	50.0	37.5	-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26.0	28.8	37.0	6.8	1.4	98.6
	중	(544)	2.2	16.9	34.9	35.8	10.1	2.2	97.8
	하	(583)	1.2	9.4	37.0	42.5	9.8	1.2	98.8

11) 질병·감염병 확산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99.3%, 전문가 10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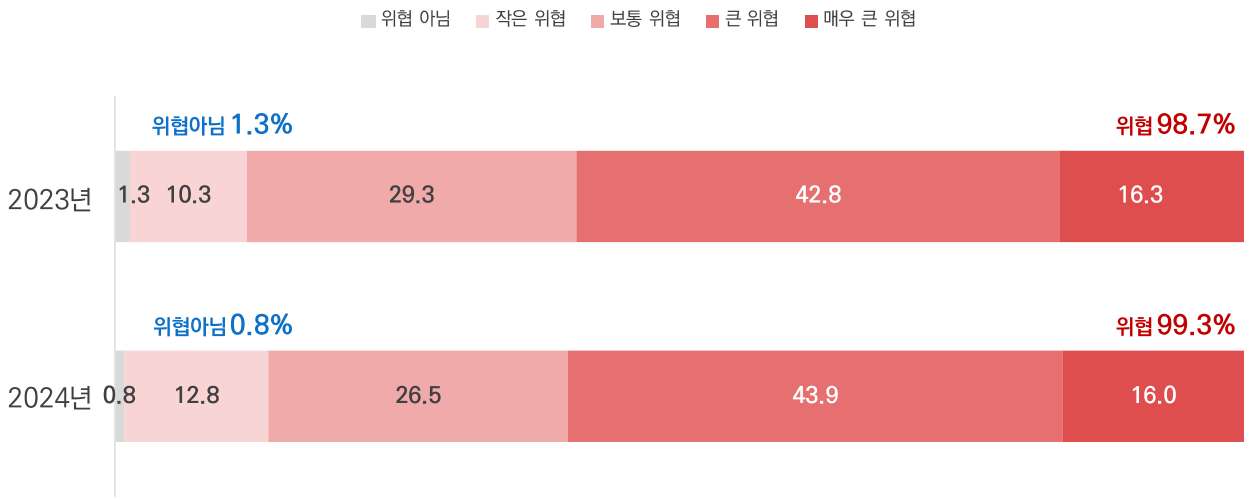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3%로 '위협 아님'(0.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p(2023년 98.7%)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2023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매우 큰 위협 13.0%+큰 위협 33.0%+보통 위협 39.0%+작은 위협 15.0%)로 나타남

|그림 3-7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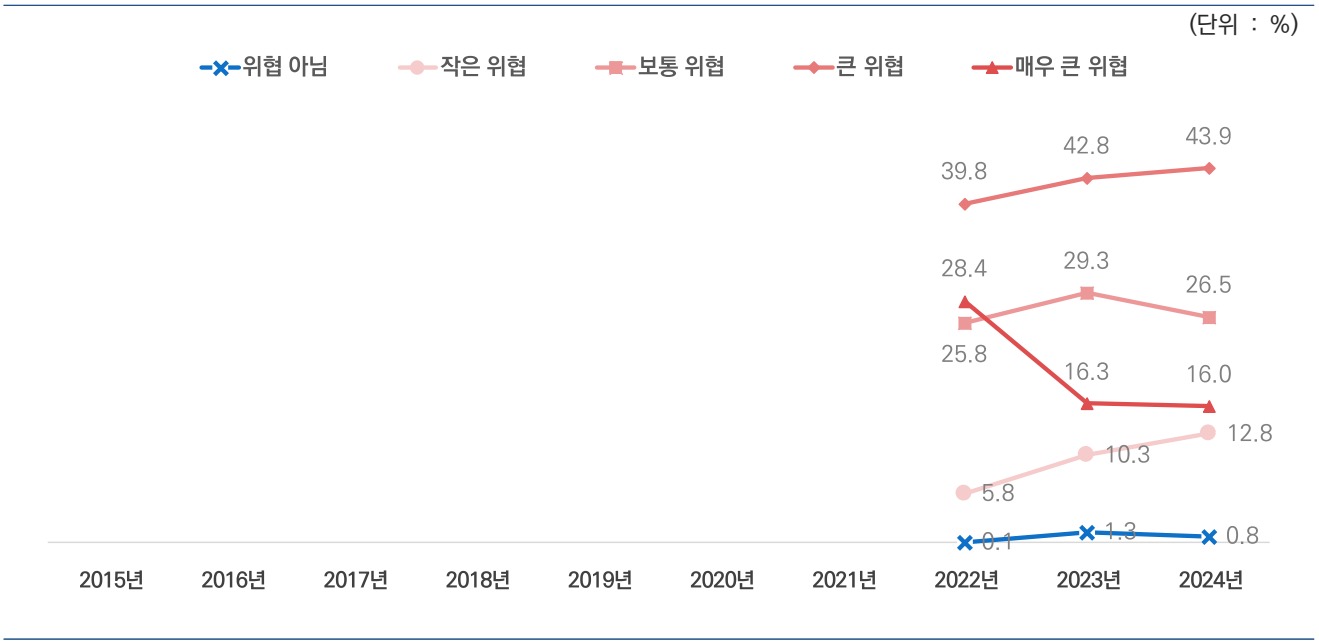
|그림 3-7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6%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5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1	1.3	0.8	–0.5	0.7
작은 위협	–	–	–	–	–	–	–	5.8	10.3	12.8	2.5	7.0
보통 위협	–	–	–	–	–	–	–	25.8	29.3	26.5	–2.8	0.7
큰 위협	–	–	–	–	–	–	–	39.8	42.8	43.9	1.1	4.1
매우 큰 위협	–	–	–	–	–	–	–	28.4	16.3	16.0	–0.3	–12.4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1	1.3	0.8	–0.5	0.7
위협	–	–	–	–	–	–	–	99.9	98.7	99.3	0.6	–0.6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일반 노무직' 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1) 질병·감염병 확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7	13.0	27.5	43.1	15.8	0.7	9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2.8	26.5	43.9	16.0	0.8	99.3
	전문가	(100)	-	15.0	39.0	33.0	13.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	15.9	24.9	42.4	15.7	1.0	99.0
	중	(580)	0.9	13.4	25.5	43.6	16.6	0.9	99.1
	하	(231)	-	6.1	31.6	47.2	15.2	-	100.0
성별	남성	(720)	1.1	11.9	26.9	45.3	14.7	1.1	98.9
	여성	(480)	0.2	14.2	25.8	41.9	17.9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16.1	28.6	37.8	16.1	1.4	98.6
	30대	(194)	1.0	11.3	29.4	44.3	13.9	1.0	99.0
	40대	(226)	0.9	10.6	27.9	49.1	11.5	0.9	99.1
	50대	(255)	0.4	12.5	25.5	43.1	18.4	0.4	99.6
	60대 이상	(308)	0.3	13.3	23.1	44.8	18.5	0.3	99.7
지역별	서울	(140)	2.1	22.9	34.3	35.0	5.7	2.1	97.9
	경기/인천	(245)	-	7.3	32.7	46.5	13.5	-	100.0
	부산/울산/경남	(208)	-	1.0	11.5	53.8	33.7	-	100.0
	대구/경북	(141)	0.7	19.9	21.3	35.5	22.7	0.7	99.3
	광주/전라	(170)	-	12.4	25.3	49.4	12.9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1.5	23.9	35.6	35.1	3.9	1.5	98.5
	강원/제주	(91)	2.2	4.4	22.0	50.5	20.9	2.2	97.8
지역크기	대도시	(524)	0.8	13.0	26.5	40.3	19.5	0.8	99.2
	중·소도시	(639)	0.8	11.9	26.0	47.6	13.8	0.8	99.2
	읍/면	(37)	-	27.0	35.1	32.4	5.4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50)	-	12.0	14.0	56.0	18.0	-	100.0
	자영업자	(185)	0.5	10.8	31.4	43.2	14.1	0.5	99.5
	판매/서비스직	(194)	0.5	12.4	28.4	40.7	18.0	0.5	99.5
	기능/숙련공	(127)	0.8	7.9	19.7	45.7	26.0	0.8	99.2
	일반 노무직	(41)	-	17.1	29.3	43.9	9.8	-	100.0
	사무/기술직	(283)	1.1	13.1	25.4	48.1	12.4	1.1	98.9
	경영/관리직	(19)	-	-	26.3	57.9	15.8	-	100.0
	전문/자유직	(7)	14.3	-	-	57.1	28.6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0.6	13.6	29.0	39.6	17.2	0.6	99.4
	학생	(73)	1.4	19.2	34.2	34.2	11.0	1.4	98.6
	무직/휴직/은퇴	(52)	-	25.0	19.2	40.4	15.4	-	100.0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6.9	27.1	39.0	16.9	-	100.0
	고등학교	(440)	0.5	13.4	26.4	43.4	16.4	0.5	99.5
	전문대	(266)	-	13.5	23.3	44.0	19.2	-	100.0
	4년제 대학교	(427)	1.6	11.5	28.1	45.2	13.6	1.6	98.4
	대학원 이상	(8)	-	-	50.0	37.5	12.5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4	20.5	37.0	31.5	9.6	1.4	98.6
	중	(544)	0.9	16.0	26.8	42.6	13.6	0.9	99.1
	하	(583)	0.5	8.9	24.9	46.7	19.0	0.5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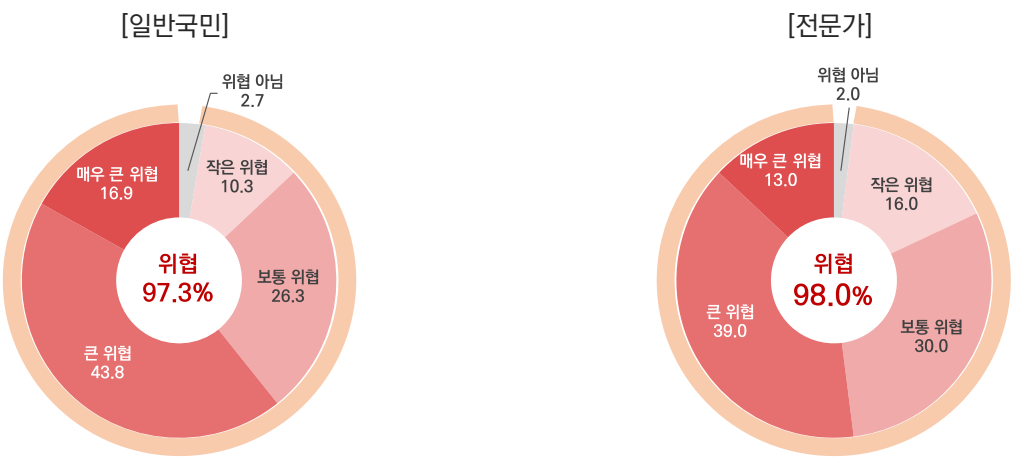
12) 자연재해·환경파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라는 비율은 일반국민 97.3%,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3%로 '위협 아님'(2.7%)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4.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p(2023년 99.2%) 증가했으며,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p(2023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0%로 '위협 아님'(2.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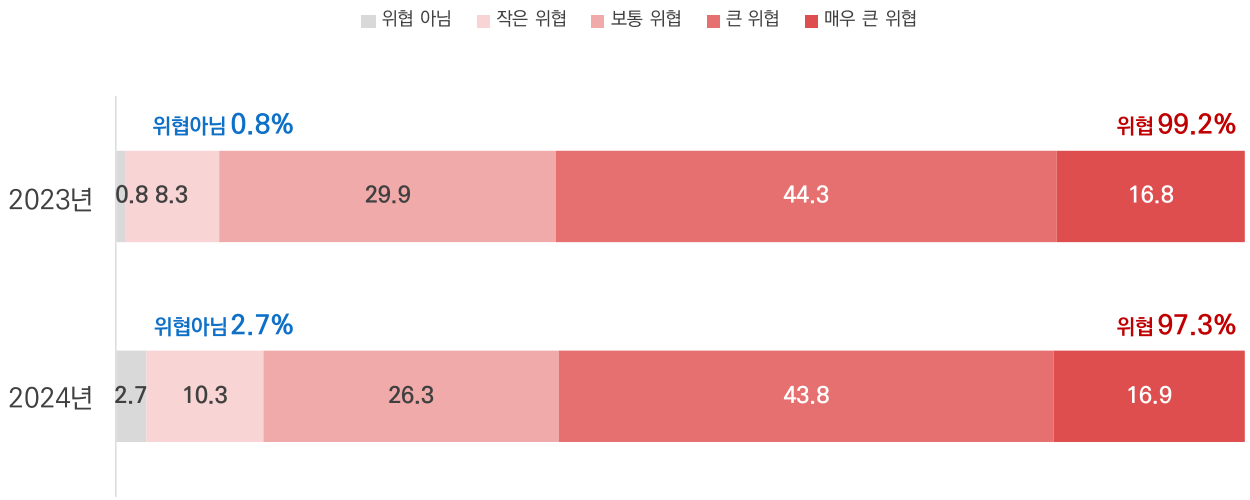
|그림 3-7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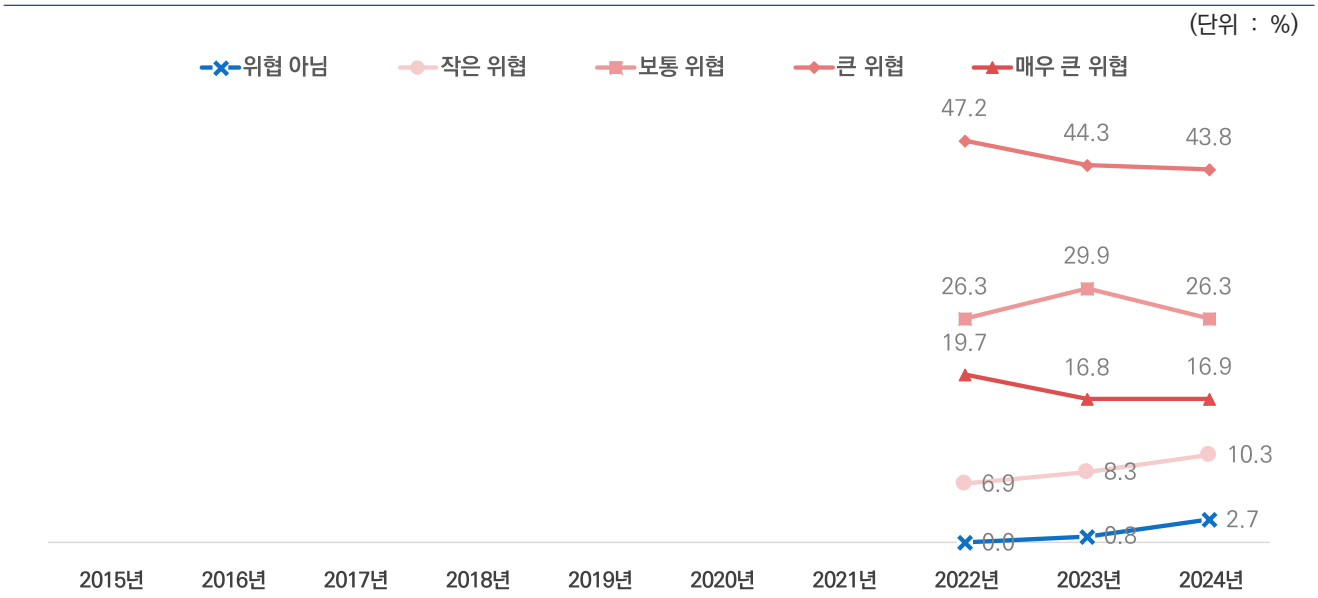
|그림 3-7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p 감소했으나, '위협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위협 아님	–	–	–	–	–	–	–	0.0	0.8	2.7	1.9	2.7
작은 위협	–	–	–	–	–	–	–	6.9	8.3	10.3	2.0	3.4
보통 위협	–	–	–	–	–	–	–	26.3	29.9	26.3	-3.6	0.0
큰 위협	–	–	–	–	–	–	–	47.2	44.3	43.8	-0.5	-3.4
매우 큰 위협	–	–	–	–	–	–	–	19.7	16.8	16.9	0.1	-2.8
무응답	–	–	–	–	–	–	–	–	–	–	–	–
위협 아님	–	–	–	–	–	–	–	0.0	0.8	2.7	1.9	2.7
위협	–	–	–	–	–	–	–	100.0	99.2	97.3	-1.9	-2.7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12) 자연재해·환경파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2.6	10.8	26.5	43.5	16.6	2.6	97.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7	10.3	26.3	43.8	16.9	2.7	97.3
	전문가	(100)	2.0	16.0	30.0	39.0	13.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14.1	26.2	41.4	15.4	2.8	97.2
	중	(580)	3.3	10.5	26.9	42.8	16.6	3.3	96.7
	하	(231)	0.9	3.5	24.7	50.6	20.3	0.9	99.1
성별	남성	(720)	2.6	9.7	25.4	44.9	17.4	2.6	97.4
	여성	(480)	2.7	11.3	27.5	42.3	16.3	2.7	97.3
연령별	20대 이하	(217)	3.7	12.9	25.8	40.1	17.5	3.7	96.3
	30대	(194)	3.1	11.3	25.3	43.3	17.0	3.1	96.9
	40대	(226)	2.2	11.1	28.3	45.6	12.8	2.2	97.8
	50대	(255)	2.7	5.9	26.3	48.6	16.5	2.7	97.3
	60대 이상	(308)	1.9	11.0	25.6	41.6	19.8	1.9	98.1
지역별	서울	(140)	5.7	20.0	31.4	40.0	2.9	5.7	94.3
	경기/인천	(245)	0.4	10.6	31.4	46.1	11.4	0.4	99.6
	부산/울산/경남	(208)	-	-	12.0	51.9	36.1	-	100.0
	대구/경북	(141)	3.5	11.3	19.9	41.1	24.1	3.5	96.5
	광주/전라	(170)	-	7.6	31.8	45.3	15.3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8.8	17.1	35.6	35.6	2.9	8.8	91.2
	강원/제주	(91)	-	6.6	15.4	45.1	33.0	-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4)	2.7	13.4	21.9	44.8	17.2	2.7	97.3
	중·소도시	(639)	2.7	7.2	28.2	44.3	17.7	2.7	97.3
	읍/면	(37)	2.7	21.6	54.1	21.6	-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4.0	12.0	62.0	22.0	-	100.0
	자영업자	(185)	0.5	11.9	29.2	43.8	14.6	0.5	99.5
	판매/서비스직	(194)	3.1	10.3	29.9	45.4	11.3	3.1	96.9
	기능/숙련공	(127)	0.8	5.5	22.0	48.0	23.6	0.8	99.2
	일반 노무직	(41)	4.9	7.3	29.3	36.6	22.0	4.9	95.1
	사무/기술직	(283)	3.9	9.5	24.7	45.2	16.6	3.9	96.1
	경영/관리직	(19)	-	-	31.6	57.9	10.5	-	100.0
	전문/자유직	(7)	-	14.3	14.3	28.6	42.9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3.0	14.2	27.8	39.6	15.4	3.0	97.0
	학생	(73)	6.8	15.1	28.8	34.2	15.1	6.8	93.2
	무직/휴직/은퇴	(52)	1.9	13.5	23.1	32.7	28.8	1.9	98.1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10.2	28.8	42.4	13.6	5.1	94.9
	고등학교	(440)	2.3	9.1	28.2	41.4	19.1	2.3	97.7
	전문대	(266)	2.6	11.3	24.1	44.0	18.0	2.6	97.4
	4년제 대학교	(427)	2.6	11.2	25.1	46.4	14.8	2.6	97.4
	대학원 이상	(8)	12.5	-	37.5	50.0	-	12.5	87.5
생활수준별	상	(73)	4.1	20.5	28.8	32.9	13.7	4.1	95.9
	중	(544)	2.8	12.1	29.2	41.0	14.9	2.8	97.2
	하	(583)	2.4	7.4	23.2	47.9	19.2	2.4	97.6

II.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

1.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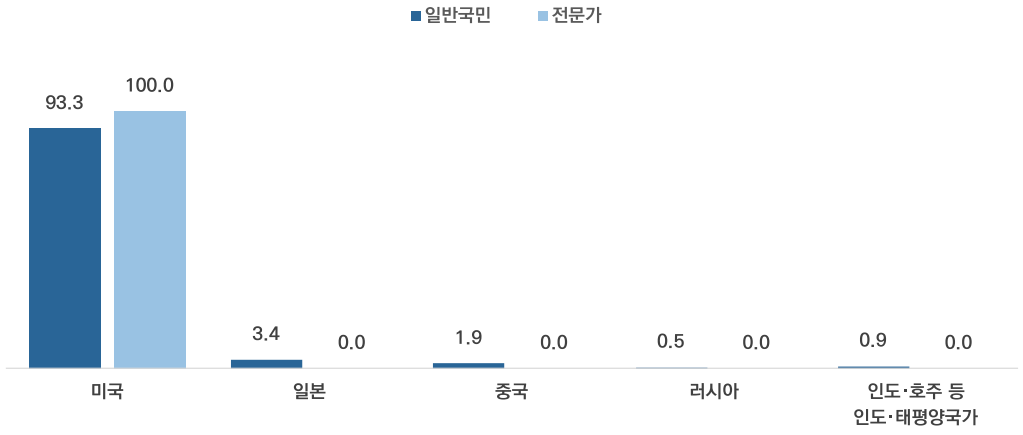
1) 군사안보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일반국민 93.3%, 전문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3.4%), 중국(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미국'의 군사안보적 중요도는 0.8%p(2023년 92.5%) 증가했으며, '러시아'의 중요도는 0.1%p(2023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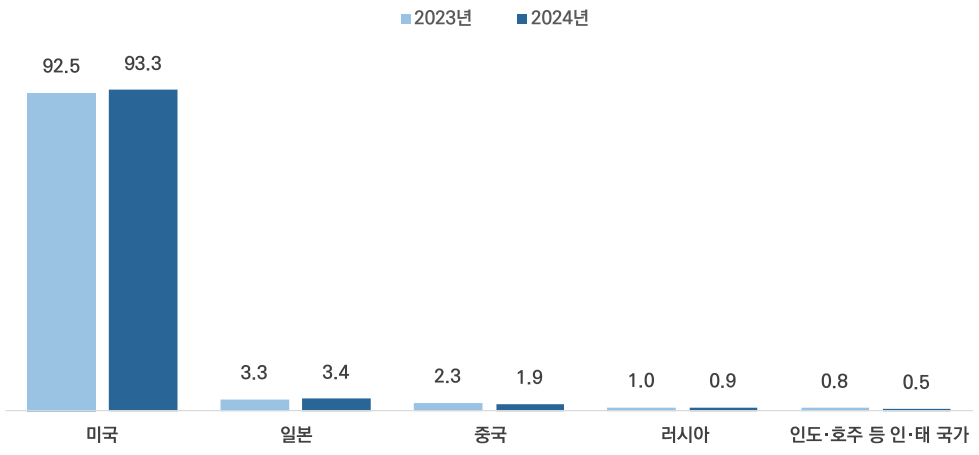
|그림 3-81|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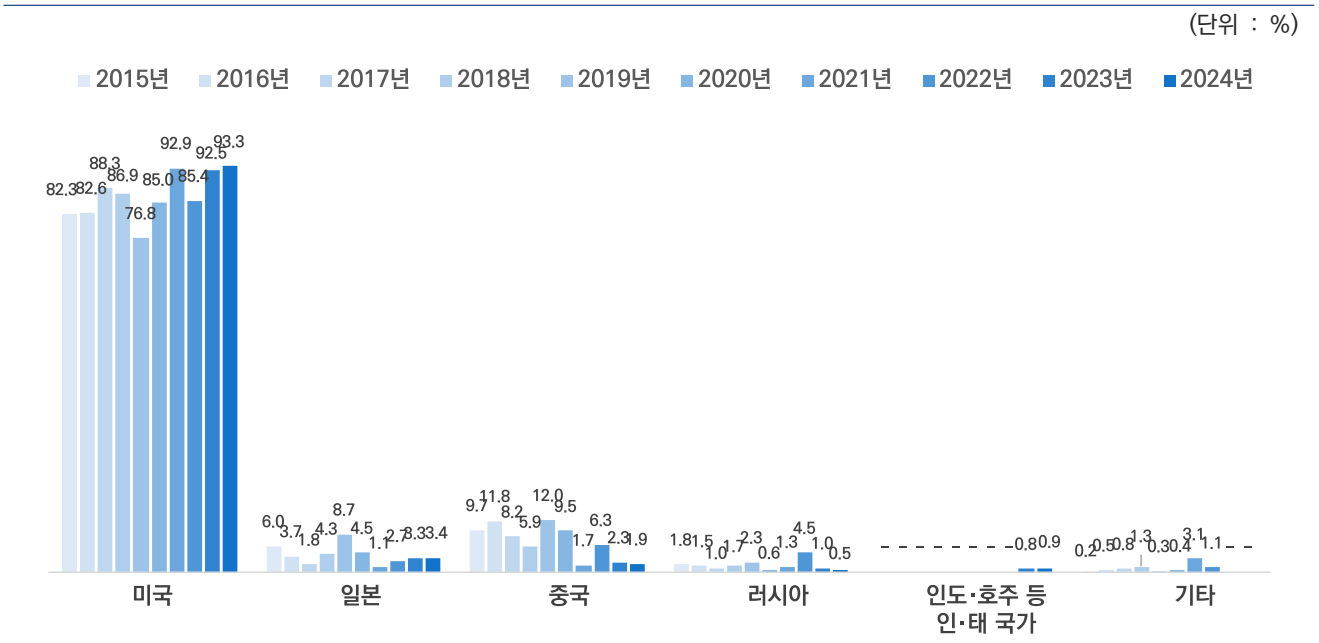
|그림 3-82|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미국'의 군사안보적 중요도는 11.0%p 증가했으며, '중국'의 중요도는 7.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3|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54|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82.3	82.6	88.3	86.9	76.8	85.0	92.9	85.4	92.5	93.3	0.8	11.0
일본	6.0	3.7	1.8	4.3	8.7	4.5	1.1	2.7	3.3	3.4	0.1	-2.6
중국	9.7	11.8	8.2	5.9	12.0	9.5	1.7	6.3	2.3	1.9	-0.4	-7.8
러시아	1.8	1.5	1.0	1.7	2.3	0.6	1.3	4.5	1.0	0.5	-0.5	-1.3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	–	–	–	–	–	–	–	–	0.8	0.9	0.1	–
기타	0.2	0.5	0.8	1.3	0.3	0.4	3.1	1.1	–	–	–	–

※ 2023년부터 "기타"가 삭제되고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5|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
전체		(1,300)	93.8	3.2	1.8	0.5	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3.3	3.4	1.9	0.5	0.9
	전문가	(100)	100.0	-	-	-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90.7	5.4	2.6	-	1.3
	중	(580)	93.4	3.3	1.7	0.7	0.9
	하	(231)	97.0	0.4	1.3	0.9	0.4
성별	남성	(720)	91.9	4.0	2.2	0.6	1.3
	여성	(480)	95.2	2.5	1.5	0.4	0.4
연령별	20대 이하	(217)	92.2	4.1	1.4	0.9	1.4
	30대	(194)	93.3	2.6	2.6	-	1.5
	40대	(226)	92.0	5.3	0.9	0.9	0.9
	50대	(255)	94.5	2.0	3.1	0.4	-
	60대 이상	(308)	93.8	3.2	1.6	0.3	1.0
지역별	서울	(140)	90.0	5.7	2.9	0.7	0.7
	경기/인천	(245)	90.6	4.5	4.1	0.4	0.4
	부산/울산/경남	(208)	99.5	0.5	-	-	-
	대구/경북	(141)	98.6	0.7	0.7	-	-
	광주/전라	(170)	89.4	5.9	-	-	4.7
	대전/충청/세종	(205)	88.8	4.9	3.9	2.0	0.5
	강원/제주	(91)	100.0	-	-	-	-
지역크기	대도시	(524)	92.7	3.8	2.1	0.2	1.1
	중·소도시	(639)	94.4	2.5	1.7	0.6	0.8
	읍/면	(37)	81.1	13.5	2.7	2.7	-
직업별	농/어/임업	(50)	94.0	2.0	4.0	-	-
	자영업자	(185)	90.8	3.8	3.8	0.5	1.1
	판매/서비스직	(194)	90.7	6.7	1.5	1.0	-
	기능/숙련공	(127)	97.6	0.8	-	0.8	0.8
	일반 노무직	(41)	90.2	4.9	4.9	-	-
	사무/기술직	(283)	92.9	3.2	1.4	-	2.5
	경영/관리직	(19)	100.0	-	-	-	-
	전문/자유직	(7)	100.0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95.9	1.8	1.8	0.6	-
	학생	(73)	91.8	2.7	2.7	1.4	1.4
	무직/휴직/은퇴	(52)	94.2	5.8	-	-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9.8	3.4	5.1	1.7	-
	고등학교	(440)	95.7	2.5	0.5	0.9	0.5
	전문대	(266)	92.5	3.4	2.6	-	1.5
	4년제 대학교	(427)	91.6	4.4	2.6	0.2	1.2
	대학원 이상	(8)	100.0	-	-	-	-
생활수준별	상	(73)	82.2	8.2	8.2	-	1.4
	중	(544)	93.0	3.5	2.0	0.9	0.6
	하	(583)	94.9	2.7	1.0	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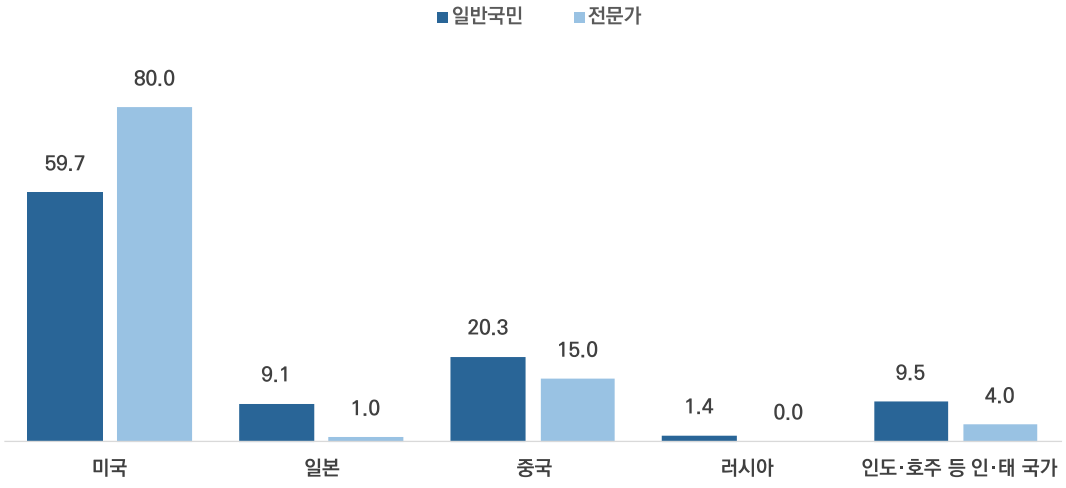
2) 경제안보적 측면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일반국민 59.7%, 전문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20.3%), 일본(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의 경제안보적 중요도는 6.2%p(2023년 3.3%) 증가했으며, '미국'의 중요도는 5.1%p(2023년 6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15.0%),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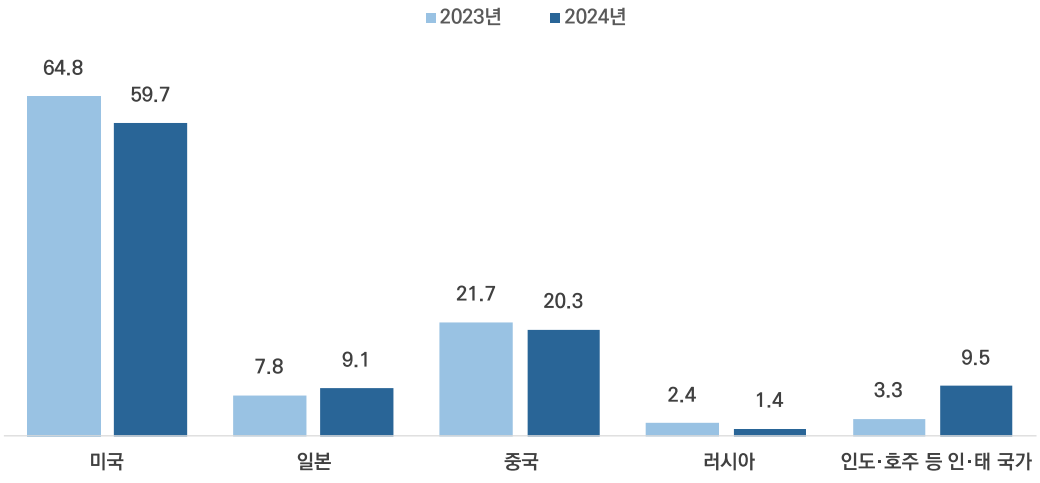
|그림 3-84|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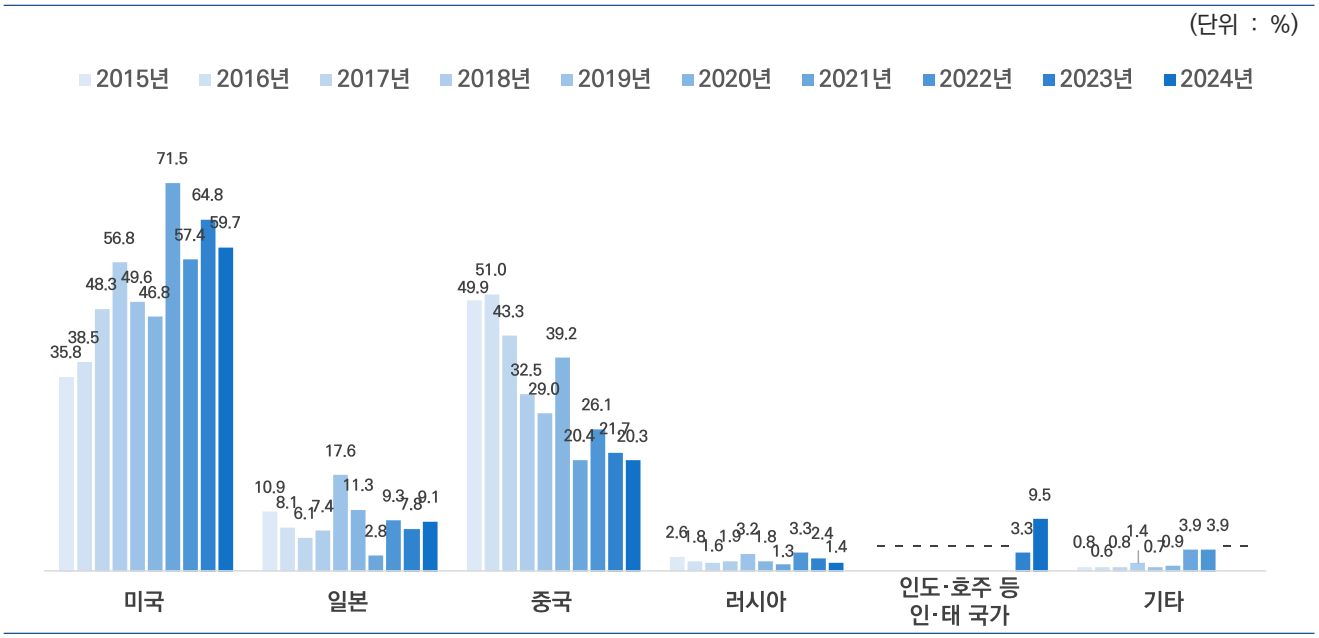
|그림 3-85|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미국'의 경제안보적 중요도는 23.9%p 증가했으나, '중국'의 중요도는 29.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56|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35.8	38.5	48.3	56.8	49.6	46.8	71.5	57.4	64.8	59.7	-5.1	23.9
일본	10.9	8.1	6.1	7.4	17.6	11.3	2.8	9.3	7.8	9.1	1.3	-1.8
중국	49.9	51.0	43.3	32.5	29.0	39.2	20.4	26.1	21.7	20.3	-1.4	-29.6
러시아	2.6	1.8	1.6	1.9	3.2	1.8	1.3	3.3	2.4	1.4	-1.0	-1.2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	-	-	-	-	-	-	-	-	3.3	9.5	6.2	-
기타	0.8	0.6	0.8	1.4	0.7	0.9	3.9	3.9	-	-	-	-

※ 2023년부터 "기타"가 삭제되고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가 추가되었음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종사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편임

|표 3-57|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호주 등 인태국가
전체		(1,300)	61.2	8.5	19.9	1.3	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9.7	9.1	20.3	1.4	9.5
	전문가	(100)	80.0	1.0	15.0	-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5.5	9.5	21.1	2.1	11.8
	중	(580)	59.8	9.7	20.7	0.9	9.0
	하	(231)	66.2	6.9	18.2	1.7	6.9
성별	남성	(720)	58.1	9.0	21.0	1.1	10.8
	여성	(480)	62.1	9.2	19.4	1.9	7.5
연령별	20대 이하	(217)	56.2	8.3	22.1	2.3	11.1
	30대	(194)	56.7	12.4	21.1	0.5	9.3
	40대	(226)	59.7	9.7	19.5	2.7	8.4
	50대	(255)	60.4	5.9	22.0	1.6	10.2
	60대 이상	(308)	63.3	9.7	17.9	0.3	8.8
지역별	서울	(140)	59.3	11.4	15.7	1.4	12.1
	경기/인천	(245)	57.1	5.7	24.9	2.0	10.2
	부산/울산/경남	(208)	64.4	10.6	22.6	-	2.4
	대구/경북	(141)	64.5	7.8	19.1	2.1	6.4
	광주/전라	(170)	50.6	12.9	7.1	1.2	28.2
	대전/충청/세종	(205)	53.7	11.2	28.3	2.4	4.4
	강원/제주	(91)	79.1	1.1	18.7	-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55.5	9.0	22.5	1.9	11.1
	중·소도시	(639)	64.0	8.6	17.5	1.1	8.8
	읍/면	(37)	43.2	18.9	37.8	-	-
직업별	농/어/임업	(50)	72.0	6.0	16.0	2.0	4.0
	자영업자	(185)	56.8	8.6	23.2	2.2	9.2
	판매/서비스직	(194)	58.2	8.2	19.1	2.6	11.9
	기능/숙련공	(127)	59.8	10.2	18.1	-	11.8
	일반 노무직	(41)	58.5	9.8	22.0	-	9.8
	사무/기술직	(283)	53.4	12.0	22.6	1.1	11.0
	경영/관리직	(19)	73.7	5.3	21.1	-	-
	전문/자유직	(7)	71.4	14.3	-	-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68.6	7.1	19.5	0.6	4.1
	학생	(73)	57.5	8.2	16.4	2.7	15.1
	무직/휴직/은퇴	(52)	65.4	5.8	21.2	1.9	5.8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6.1	5.1	20.3	-	8.5
	고등학교	(440)	65.2	8.2	18.4	1.1	7.0
	전문대	(266)	56.8	10.9	21.1	1.5	9.8
	4년제 대학교	(427)	55.0	9.6	22.0	1.9	11.5
	대학원 이상	(8)	50.0	-	12.5	-	37.5
생활수준별	상	(73)	53.4	6.8	34.2	-	5.5
	중	(544)	59.4	9.2	20.6	1.5	9.4
	하	(583)	60.7	9.3	18.4	1.5	10.1

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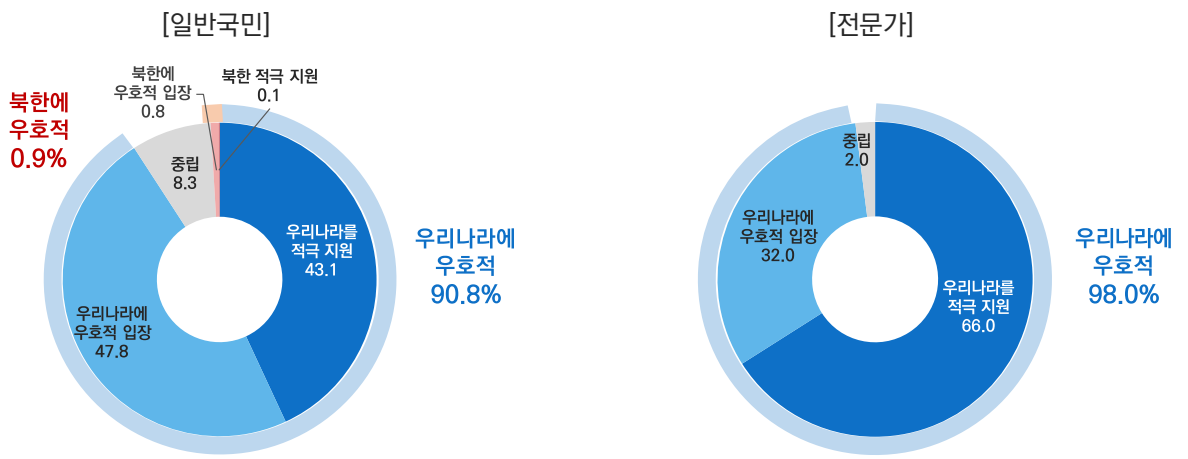
1) 미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90.8%,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8%로 '북한에 우호적'(0.9%)이라는 응답보다 89.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8%p(2023년 91.6%) 감소했으며,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2023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98.0%로 '북한에 우호적'(0.0%)이라는 응답보다 9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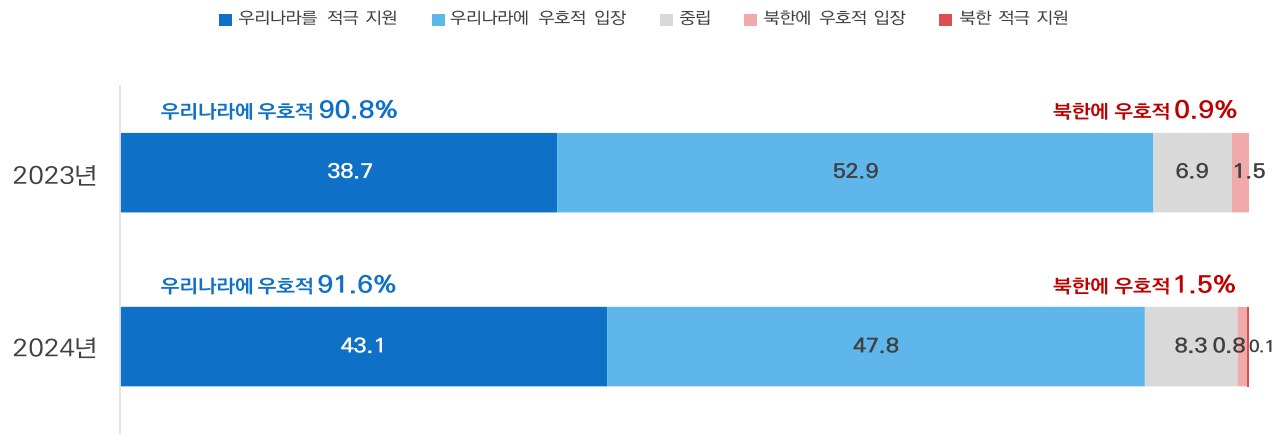
|그림 3-8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

(단위 : %)



|그림 3-8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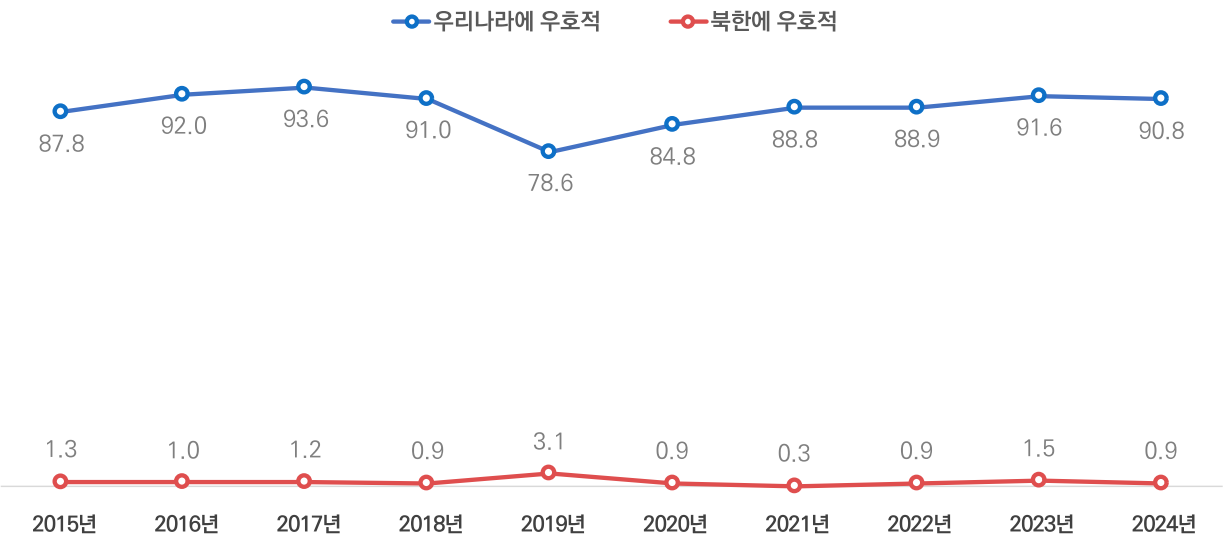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p 증가하였고,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5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38.1	48.7	49.7	42.0	28.5	24.3	41.6	32.0	38.7	43.1	4.4	5.0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49.7	43.3	43.9	49.0	50.1	60.4	47.3	56.9	52.9	47.8	-5.1	-1.9
중립	11.0	7.0	5.3	8.1	18.3	14.3	10.8	10.2	6.9	8.3	1.4	-2.7
북한에 우호적 입장	1.1	1.0	1.1	0.7	2.9	0.8	0.3	0.9	1.5	0.8	-0.7	-0.3
북한 적극 지원	0.2	0.0	0.1	0.3	0.2	0.1	0.0	0.0	0.0	0.1	0.1	-0.1
무응답	–	–	–	–	–	–	–	–	–	–	–	–
우리나라에 우호적	87.8	92.0	93.6	91.0	78.6	84.8	88.8	88.9	91.6	90.8	-0.8	3.0
북한에 우호적	1.3	1.0	1.2	0.9	3.1	0.9	0.3	0.9	1.5	0.9	-0.6	-0.4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1) 미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44.8	46.5	7.8	0.8	0.1	91.4	7.8	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1	47.8	8.3	0.8	0.1	90.8	8.3	0.9
	전문가	(100)	66.0	32.0	2.0	-	-	98.0	2.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4.7	47.6	6.4	1.3	-	92.3	6.4	1.3
	중	(580)	39.7	50.2	9.3	0.7	0.2	89.8	9.3	0.9
	하	(231)	48.9	42.0	8.7	0.4	-	90.9	8.7	0.4
성별	남성	(720)	43.9	45.7	9.6	0.8	-	89.6	9.6	0.8
	여성	(480)	41.9	50.8	6.3	0.8	0.2	92.7	6.3	1.0
연령별	20대 이하	(217)	39.6	49.8	8.8	1.8	-	89.4	8.8	1.8
	30대	(194)	43.3	47.4	6.7	2.1	0.5	90.7	6.7	2.6
	40대	(226)	39.4	51.8	8.4	0.4	-	91.2	8.4	0.4
	50대	(255)	43.9	47.5	8.2	0.4	-	91.4	8.2	0.4
	60대 이상	(308)	47.4	43.8	8.8	-	-	91.2	8.8	-
지역별	서울	(140)	35.0	49.3	14.3	0.7	0.7	84.3	14.3	1.4
	경기/인천	(245)	32.7	49.8	15.1	2.4	-	82.4	15.1	2.4
	부산/울산/경남	(208)	70.7	29.3	-	-	-	100.0	-	-
	대구/경북	(141)	48.9	46.8	4.3	-	-	95.7	4.3	-
	광주/전라	(170)	14.7	75.3	10.0	-	-	90.0	10.0	-
	대전/충청/세종	(205)	43.4	47.3	7.8	1.5	-	90.7	7.8	1.5
	강원/제주	(91)	63.7	33.0	3.3	-	-	96.7	3.3	-
지역크기	대도시	(524)	41.2	50.2	7.3	1.1	0.2	91.4	7.3	1.3
	중·소도시	(639)	45.7	45.2	8.6	0.5	-	90.9	8.6	0.5
	읍/면	(37)	24.3	56.8	16.2	2.7	-	81.1	16.2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48.0	40.0	12.0	-	-	88.0	12.0	-
	자영업자	(185)	37.3	49.2	11.9	1.6	-	86.5	11.9	1.6
	판매/서비스직	(194)	35.6	54.1	8.2	2.1	-	89.7	8.2	2.1
	기능/숙련공	(127)	47.2	45.7	7.1	-	-	92.9	7.1	-
	일반 노무직	(41)	58.5	31.7	9.8	-	-	90.2	9.8	-
	사무/기술직	(283)	41.3	49.8	7.8	1.1	-	91.2	7.8	1.1
	경영/관리직	(19)	63.2	31.6	5.3	-	-	94.7	5.3	-
	전문/자유직	(7)	57.1	42.9	-	-	-	100.0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48.5	45.6	5.3	-	0.6	94.1	5.3	0.6
	학생	(73)	38.4	53.4	8.2	-	-	91.8	8.2	-
	무직/휴직/은퇴	(52)	53.8	38.5	7.7	-	-	92.3	7.7	-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5.9	32.2	11.9	-	-	88.1	11.9	-
	고등학교	(440)	45.7	45.2	8.2	0.9	-	90.9	8.2	0.9
	전문대	(266)	39.8	50.8	8.6	0.4	0.4	90.6	8.6	0.8
	4년제 대학교	(427)	40.7	50.8	7.3	1.2	-	91.6	7.3	1.2
	대학원 이상	(8)	37.5	37.5	25.0	-	-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39.7	46.6	13.7	-	-	86.3	13.7	-
	중	(544)	41.0	49.1	8.6	1.3	-	90.1	8.6	1.3
	하	(583)	45.5	46.7	7.2	0.5	0.2	92.1	7.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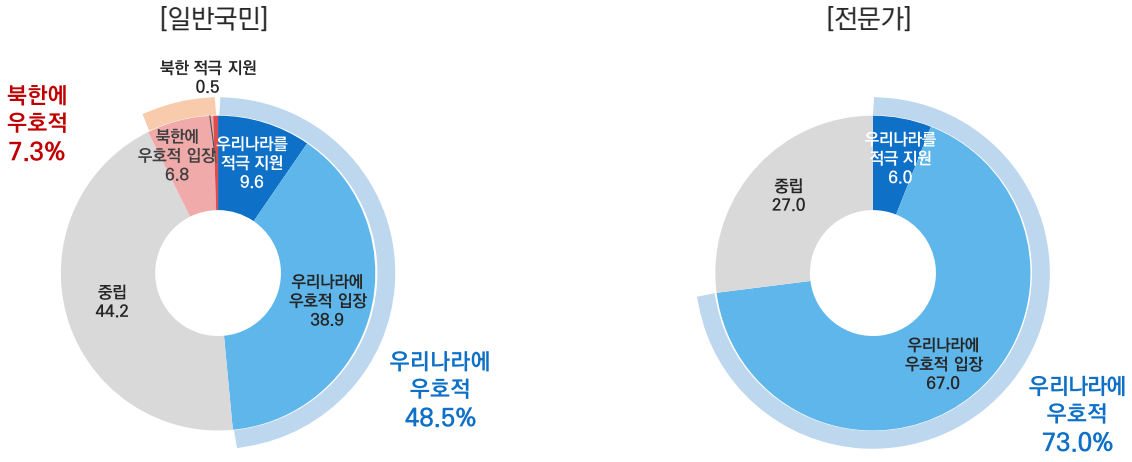
2) 일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48.5%, 전문가 7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5%로 '북한에 우호적'(7.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41.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p(2023년 41.2%) 증가하였으며,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2023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0%로 '북한에 우호적'(0.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73.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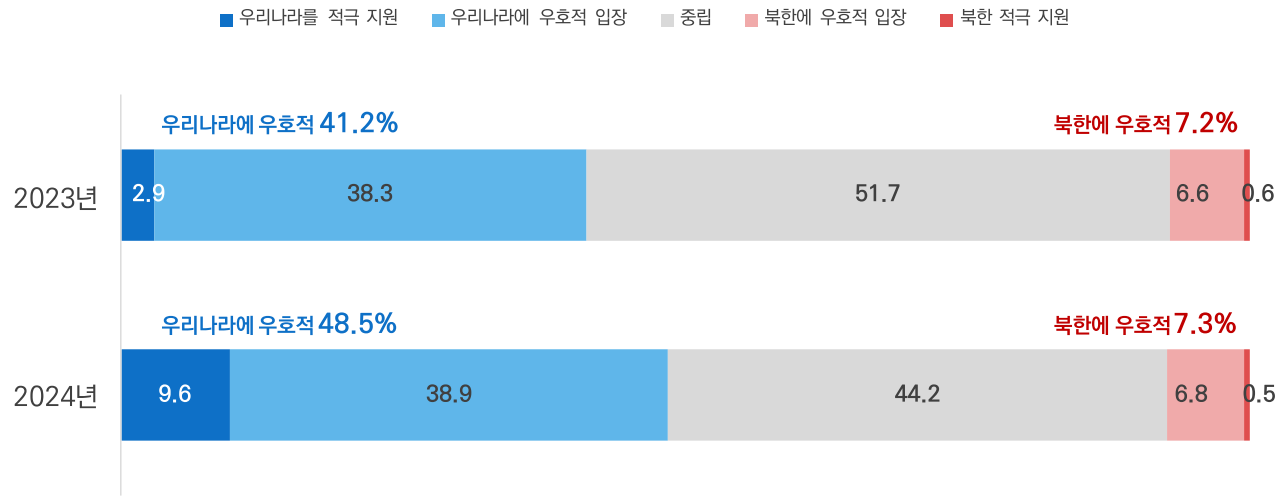
|그림 3-9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

(단위 : %)



|그림 3-9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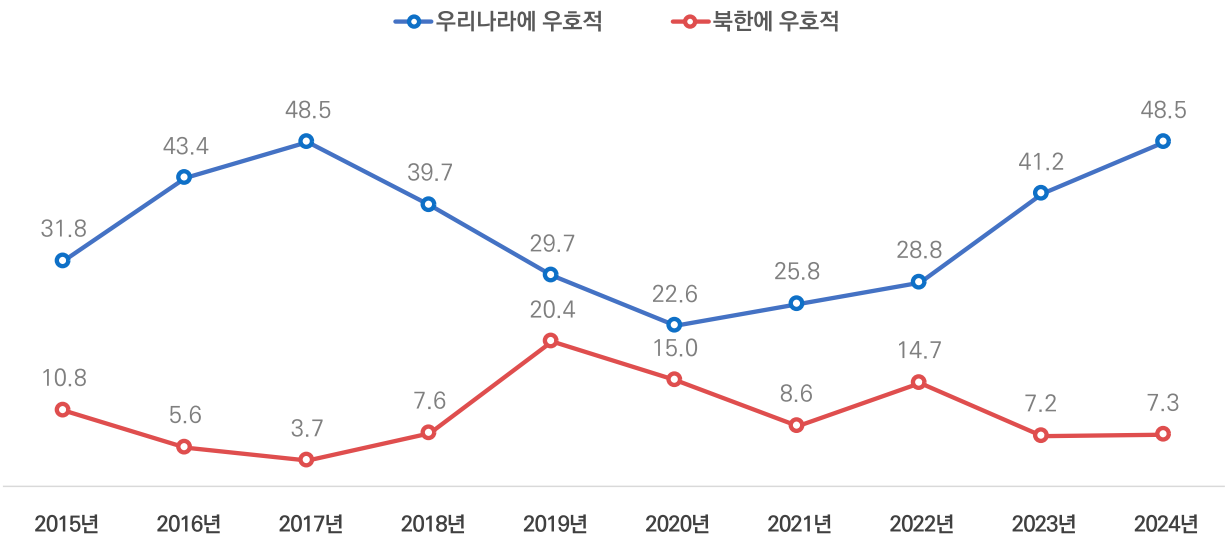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7%p 증가하였고,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6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2.8	5.9	5.3	6.1	4.6	1.6	2.4	3.2	2.9	9.6	6.7	6.8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29.0	37.5	43.3	33.6	25.1	21.0	23.4	25.6	38.3	38.9	0.6	9.9
중립	57.4	51.0	47.8	52.8	49.9	62.4	65.6	56.6	51.7	44.2	-7.5	-13.2
북한에 우호적 입장	10.3	5.3	3.3	6.7	15.9	14.3	6.8	13.8	6.6	6.8	0.2	-3.5
북한 적극 지원	0.5	0.3	0.4	0.9	4.5	0.7	1.8	0.9	0.6	0.5	-0.1	0.0
무응답	–	–	–	–	–	–	–	–	–	–	–	–
우리나라에 우호적	31.8	43.4	48.5	39.7	29.7	22.6	25.8	28.8	41.2	48.5	7.3	16.7
북한에 우호적	10.8	5.6	3.7	7.6	20.4	15.0	8.6	14.7	7.2	7.3	0.1	-3.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6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2) 일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9.3	41.1	42.8	6.3	0.5	50.4	42.8	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6	38.9	44.2	6.8	0.5	48.5	44.2	7.3
	전문가	(100)	6.0	67.0	27.0	-	-	73.0	27.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9.8	41.9	42.4	5.4	0.5	51.7	42.4	5.9
	중	(580)	8.4	39.3	45.5	6.2	0.5	47.8	45.5	6.7
	하	(231)	12.1	32.9	43.7	10.8	0.4	45.0	43.7	11.3
성별	남성	(720)	8.9	37.4	46.3	6.9	0.6	46.3	46.3	7.5
	여성	(480)	10.6	41.3	41.0	6.7	0.4	51.9	41.0	7.1
연령별	20대 이하	(217)	7.4	41.5	43.8	6.0	1.4	48.8	43.8	7.4
	30대	(194)	11.3	40.2	40.7	6.2	1.5	51.5	40.7	7.7
	40대	(226)	9.7	38.1	45.1	7.1	-	47.8	45.1	7.1
	50대	(255)	9.8	38.0	44.3	7.8	-	47.8	44.3	7.8
	60대 이상	(308)	9.7	37.7	45.8	6.8	-	47.4	45.8	6.8
지역별	서울	(140)	5.0	45.7	37.1	11.4	0.7	50.7	37.1	12.1
	경기/인천	(245)	2.4	35.5	53.5	8.6	-	38.0	53.5	8.6
	부산/울산/경남	(208)	15.9	48.1	32.2	2.9	1.0	63.9	32.2	3.8
	대구/경북	(141)	8.5	44.0	45.4	2.1	-	52.5	45.4	2.1
	광주/전라	(170)	1.2	33.5	60.6	4.7	-	34.7	60.6	4.7
	대전/충청/세종	(205)	21.0	33.2	34.6	10.2	1.0	54.1	34.6	11.2
	강원/제주	(91)	13.2	31.9	46.2	7.7	1.1	45.1	46.2	8.8
지역크기	대도시	(524)	6.3	38.7	47.7	6.7	0.6	45.0	47.7	7.3
	중·소도시	(639)	12.5	38.5	41.6	6.9	0.5	51.0	41.6	7.4
	읍/면	(37)	5.4	48.6	37.8	8.1	-	54.1	37.8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28.0	54.0	14.0	-	32.0	54.0	14.0
	자영업자	(185)	8.1	38.4	44.9	8.6	-	46.5	44.9	8.6
	판매/서비스직	(194)	10.3	37.1	44.3	8.2	-	47.4	44.3	8.2
	기능/숙련공	(127)	15.0	32.3	44.9	7.9	-	47.2	44.9	7.9
	일반 노무직	(41)	17.1	29.3	41.5	12.2	-	46.3	41.5	12.2
	사무/기술직	(283)	7.4	42.0	44.9	5.3	0.4	49.5	44.9	5.7
	경영/관리직	(19)	15.8	52.6	31.6	-	-	68.4	31.6	-
	전문/자유직	(7)	-	57.1	42.9	-	-	57.1	42.9	-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3.0	44.4	37.3	4.1	1.2	57.4	37.3	5.3
	학생	(73)	5.5	41.1	46.6	2.7	4.1	46.6	46.6	6.8
	무직/휴직/은퇴	(52)	3.8	36.5	51.9	7.7	-	40.4	51.9	7.7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37.3	37.3	11.9	-	50.8	37.3	11.9
	고등학교	(440)	10.5	40.5	43.0	5.9	0.2	50.9	43.0	6.1
	전문대	(266)	9.4	34.2	49.2	6.4	0.8	43.6	49.2	7.1
	4년제 대학교	(427)	8.4	40.3	43.1	7.5	0.7	48.7	43.1	8.2
	대학원 이상	(8)	-	50.0	50.0	-	-	50.0	50.0	-
생활수준별	상	(73)	8.2	37.0	42.5	12.3	-	45.2	42.5	12.3
	중	(544)	8.6	40.4	44.9	5.9	0.2	49.1	44.9	6.1
	하	(583)	10.6	37.7	43.7	7.0	0.9	48.4	43.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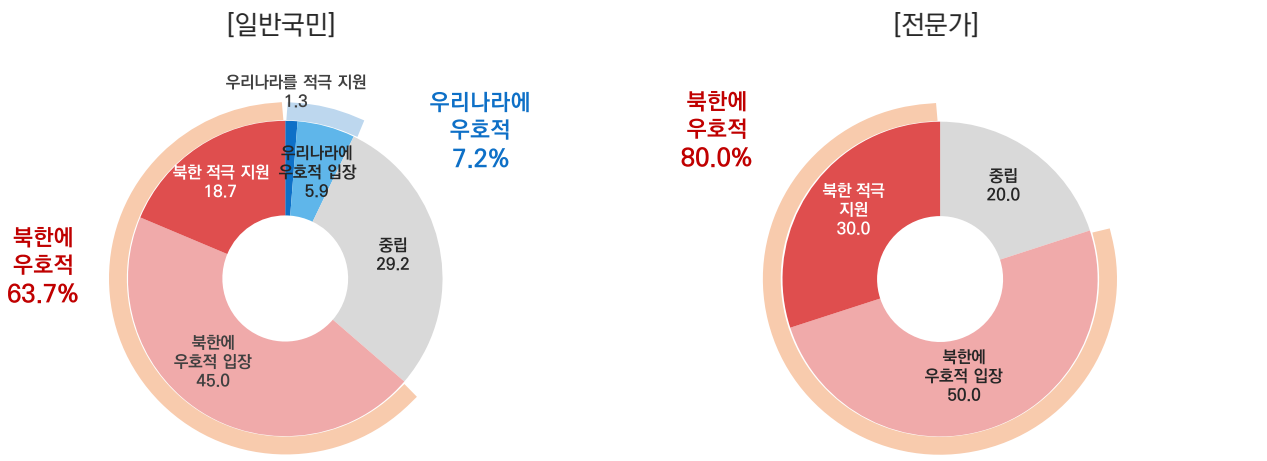
3) 중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 63.7%, 전문가 8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우리나라에 우호적'(7.2%)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56.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p(2023년 70.3%)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2023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80.0%로 '우리나라에 우호적'(0.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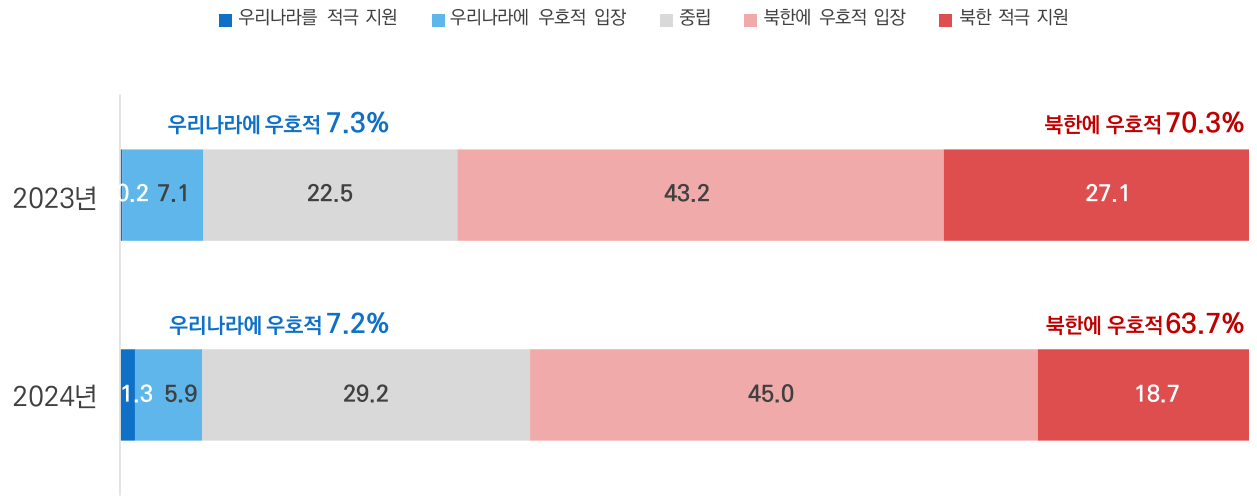
|그림 3-9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

(단위 : %)



|그림 3-9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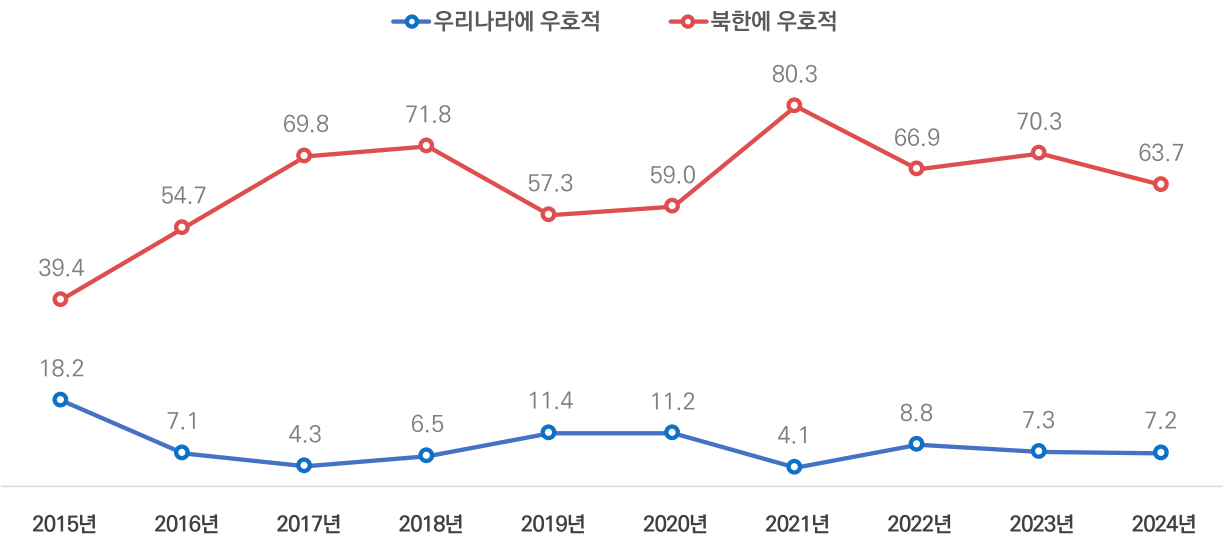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3%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6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0.6	1.1	0.9	1.4	0.8	1.4	1.1	0.6	0.2	1.3	1.1	0.7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17.6	6.0	3.3	5.1	10.6	9.8	3.0	8.2	7.1	5.9	-1.2	-11.7
중립	42.4	38.3	25.9	21.7	31.3	29.8	15.7	24.3	22.5	29.2	6.7	-13.2
북한에 우호적 입장	32.9	43.0	58.3	52.7	43.3	43.2	45.7	46.5	43.2	45.0	1.8	12.1
북한 적극 지원	6.5	11.7	11.5	19.2	14.0	15.8	34.6	20.4	27.1	18.7	-8.4	12.2
무응답	–	–	–	–	–	–	–	–	–	–	–	–
우리나라에 우호적	18.2	7.1	4.3	6.5	11.4	11.2	4.1	8.8	7.3	7.2	-0.1	-11.0
북한에 우호적	39.4	54.7	69.8	71.8	57.3	59.0	80.3	66.9	70.3	63.7	-6.6	24.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3) 중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1.2	5.5	28.5	45.4	19.5	6.6	28.5	6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5.9	29.2	45.0	18.7	7.2	29.2	63.7
	전문가	(100)	-	-	20.0	50.0	30.0	-	20.0	8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	8.0	30.1	39.3	21.3	9.3	30.1	60.7
	중	(580)	0.9	5.3	30.9	45.9	17.1	6.2	30.9	62.9
	하	(231)	2.2	3.9	23.4	52.4	18.2	6.1	23.4	70.6
성별	남성	(720)	1.4	5.8	27.9	46.3	18.6	7.2	27.9	64.9
	여성	(480)	1.0	6.0	31.0	43.1	18.8	7.1	31.0	61.9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4.6	27.6	52.1	14.7	5.5	27.6	66.8
	30대	(194)	1.5	8.8	27.3	43.3	19.1	10.3	27.3	62.4
	40대	(226)	0.9	7.1	29.6	43.4	19.0	8.0	29.6	62.4
	50대	(255)	0.8	5.9	27.8	45.5	20.0	6.7	27.8	65.5
	60대 이상	(308)	1.9	4.2	32.1	41.9	19.8	6.2	32.1	61.7
지역별	서울	(140)	5.0	1.4	29.3	32.9	31.4	6.4	29.3	64.3
	경기/인천	(245)	0.4	8.2	27.3	45.7	18.4	8.6	27.3	64.1
	부산/울산/경남	(208)	0.5	6.3	38.5	46.2	8.7	6.7	38.5	54.8
	대구/경북	(141)	-	5.7	24.1	48.2	22.0	5.7	24.1	70.2
	광주/전라	(170)	-	0.6	33.5	56.5	9.4	0.6	33.5	65.9
	대전/충청/세종	(205)	2.0	11.2	25.4	37.6	23.9	13.2	25.4	61.5
	강원/제주	(91)	2.2	4.4	20.9	49.5	23.1	6.6	20.9	72.5
지역크기	대도시	(524)	1.9	7.6	32.4	41.8	16.2	9.5	32.4	58.0
	중·소도시	(639)	0.3	3.8	26.8	47.9	21.3	4.1	26.8	69.2
	읍/면	(37)	8.1	18.9	24.3	40.5	8.1	27.0	24.3	48.6
직업별	농/어/임업	(50)	-	4.0	16.0	48.0	32.0	4.0	16.0	80.0
	자영업자	(185)	-	7.6	29.2	41.6	21.6	7.6	29.2	63.2
	판매/서비스직	(194)	1.0	4.6	33.5	46.9	13.9	5.7	33.5	60.8
	기능/숙련공	(127)	2.4	7.1	24.4	51.2	15.0	9.4	24.4	66.1
	일반 노무직	(41)	2.4	4.9	22.0	56.1	14.6	7.3	22.0	70.7
	사무/기술직	(283)	1.1	7.4	31.4	42.4	17.7	8.5	31.4	60.1
	경영/관리직	(19)	-	-	31.6	42.1	26.3	-	31.6	68.4
	전문/자유직	(7)	-	-	14.3	57.1	28.6	-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8	4.1	32.5	39.1	22.5	5.9	32.5	61.5
	학생	(73)	2.7	5.5	23.3	52.1	16.4	8.2	23.3	68.5
	무직/휴직/은퇴	(52)	1.9	5.8	28.8	46.2	17.3	7.7	28.8	63.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6.8	28.8	47.5	15.3	8.5	28.8	62.7
	고등학교	(440)	1.1	4.5	25.2	46.6	22.5	5.7	25.2	69.1
	전문대	(266)	1.9	7.5	35.3	42.1	13.2	9.4	35.3	55.3
	4년제 대학교	(427)	0.9	6.3	29.7	44.7	18.3	7.3	29.7	63.0
	대학원 이상	(8)	-	-	12.5	50.0	37.5	-	12.5	87.5
생활수준별	상	(73)	-	17.8	26.0	43.8	12.3	17.8	26.0	56.2
	중	(544)	1.7	7.4	31.4	42.8	16.7	9.0	31.4	59.6
	하	(583)	1.0	3.1	27.4	47.2	21.3	4.1	27.4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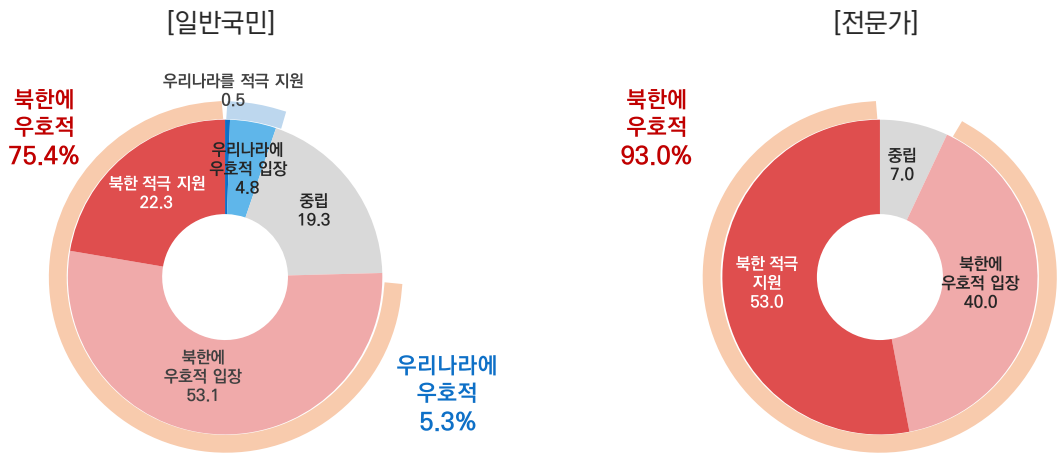
4) 러시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75.4%, 전문가 9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우리나라에 우호적'(5.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7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p(2023년 73.3%)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p(2023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0%로 '우리나라에 우호적'(0.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3.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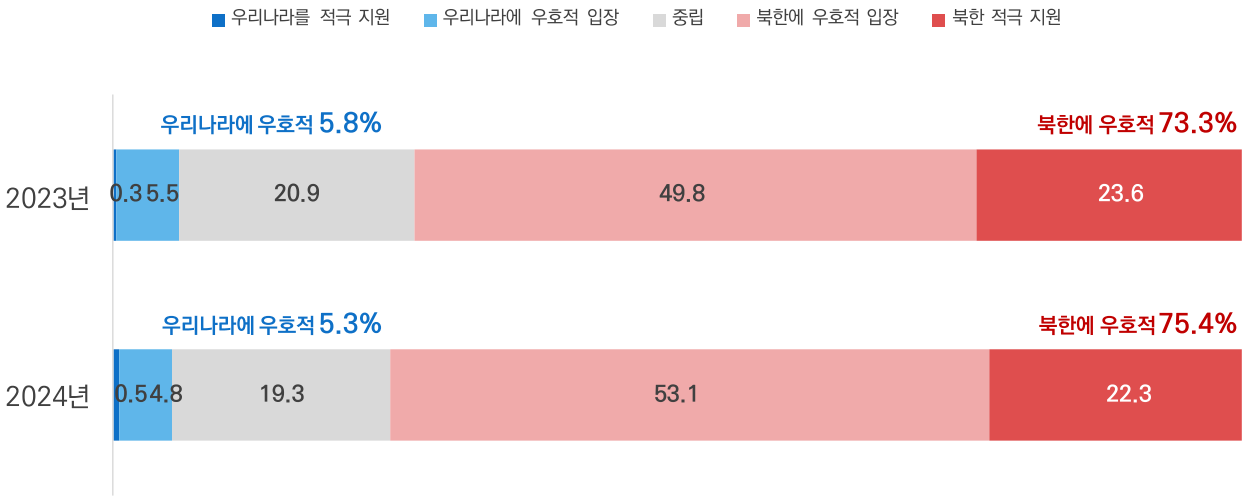
|그림 3-9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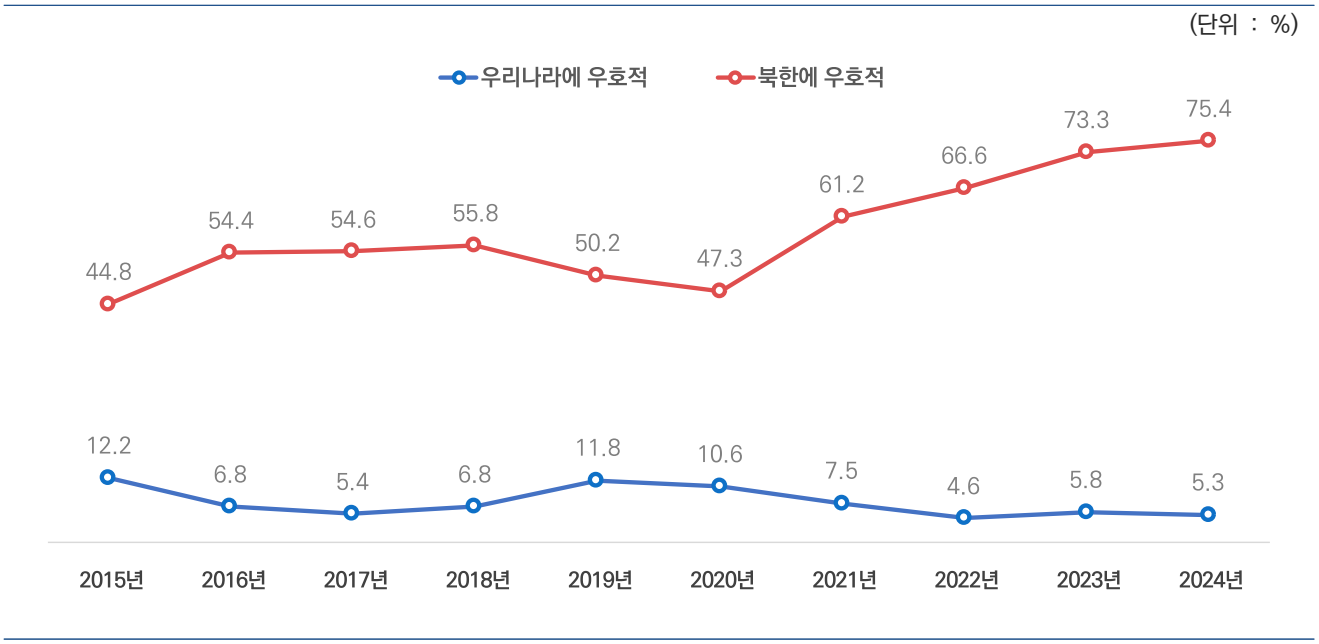
|그림 3-9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6%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6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0.7	1.5	0.8	1.5	1.0	1.3	1.1	0.1	0.3	0.5	0.2	-0.2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11.5	5.3	4.6	5.3	10.8	9.3	6.4	4.5	5.5	4.8	-0.7	-6.7
중립	43.0	38.8	40.0	37.3	38.1	42.1	31.3	28.8	20.9	19.3	-1.6	-23.7
북한에 우호적 입장	37.6	49.2	47.5	45.8	41.4	38.9	47.0	47.8	49.8	53.1	3.3	15.5
북한 적극 지원	7.3	5.3	7.1	10.1	8.8	8.4	14.2	18.8	23.6	22.3	-1.3	15.0
무응답	–	–	–	–	–	–	–	–	–	–	–	–
우리나라에 우호적	12.2	6.8	5.4	6.8	11.8	10.6	7.5	4.6	5.8	5.3	-0.5	-6.9
북한에 우호적	44.8	54.4	54.6	55.8	50.2	47.3	61.2	66.6	73.3	75.4	2.1	30.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 러시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0.5	4.4	18.4	52.1	24.7	4.8	18.4	7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4.8	19.3	53.1	22.3	5.3	19.3	75.4
	전문가	(100)	-	-	7.0	40.0	53.0	-	7.0	9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	7.7	21.6	49.1	20.3	9.0	21.6	69.4
	중	(580)	0.2	3.6	18.8	56.4	21.0	3.8	18.8	77.4
	하	(231)	-	2.6	16.9	51.5	29.0	2.6	16.9	80.5
성별	남성	(720)	0.4	5.3	18.5	54.0	21.8	5.7	18.5	75.8
	여성	(480)	0.6	4.0	20.6	51.7	23.1	4.6	20.6	74.8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4.1	18.9	53.0	23.0	5.1	18.9	76.0
	30대	(194)	0.5	3.6	19.6	52.1	24.2	4.1	19.6	76.3
	40대	(226)	0.4	6.2	20.8	51.3	21.2	6.6	20.8	72.6
	50대	(255)	-	4.7	15.3	54.9	25.1	4.7	15.3	80.0
	60대 이상	(308)	0.6	4.9	21.8	53.6	19.2	5.5	21.8	72.7
지역별	서울	(140)	0.7	5.0	25.0	57.9	11.4	5.7	25.0	69.3
	경기/인천	(245)	-	3.7	15.5	64.1	16.7	3.7	15.5	80.8
	부산/울산/경남	(208)	-	1.4	18.8	51.4	28.4	1.4	18.8	79.8
	대구/경북	(141)	0.7	2.8	14.9	49.6	31.9	3.5	14.9	81.6
	광주/전라	(170)	-	5.3	19.4	50.6	24.7	5.3	19.4	75.3
	대전/충청/세종	(205)	0.5	11.2	19.5	46.3	22.4	11.7	19.5	68.8
	강원/제주	(91)	3.3	2.2	28.6	45.1	20.9	5.5	28.6	65.9
지역크기	대도시	(524)	0.6	5.0	17.0	54.8	22.7	5.5	17.0	77.5
	중·소도시	(639)	0.5	3.3	20.7	52.3	23.3	3.8	20.7	75.6
	읍/면	(37)	-	27.0	29.7	43.2	-	27.0	29.7	43.2
직업별	농/어/임업	(50)	-	2.0	20.0	44.0	34.0	2.0	20.0	78.0
	자영업자	(185)	-	7.6	19.5	53.0	20.0	7.6	19.5	73.0
	판매/서비스직	(194)	-	7.2	17.5	54.1	21.1	7.2	17.5	75.3
	기능/숙련공	(127)	-	4.7	20.5	54.3	20.5	4.7	20.5	74.8
	일반 노무직	(41)	-	7.3	9.8	51.2	31.7	7.3	9.8	82.9
	사무/기술직	(283)	0.7	3.5	20.1	55.1	20.5	4.2	20.1	75.6
	경영/관리직	(19)	-	-	10.5	73.7	15.8	-	10.5	89.5
	전문/자유직	(7)	-	-	-	57.1	42.9	-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1.8	3.0	18.9	53.8	22.5	4.7	18.9	76.3
	학생	(73)	1.4	1.4	23.3	47.9	26.0	2.7	23.3	74.0
	무직/휴직/은퇴	(52)	-	5.8	26.9	42.3	25.0	5.8	26.9	67.3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5.1	25.4	45.8	22.0	6.8	25.4	67.8
	고등학교	(440)	0.5	4.3	16.8	55.7	22.7	4.8	16.8	78.4
	전문대	(266)	-	5.6	21.8	49.6	22.9	5.6	21.8	72.6
	4년제 대학교	(427)	0.7	4.4	19.9	53.2	21.8	5.2	19.9	74.9
	대학원 이상	(8)	-	12.5	-	75.0	12.5	12.5	-	87.5
생활수준별	상	(73)	-	8.2	23.3	61.6	6.8	8.2	23.3	68.5
	중	(544)	0.7	6.4	21.1	51.1	20.6	7.2	21.1	71.7
	하	(583)	0.3	2.7	17.2	53.9	25.9	3.1	17.2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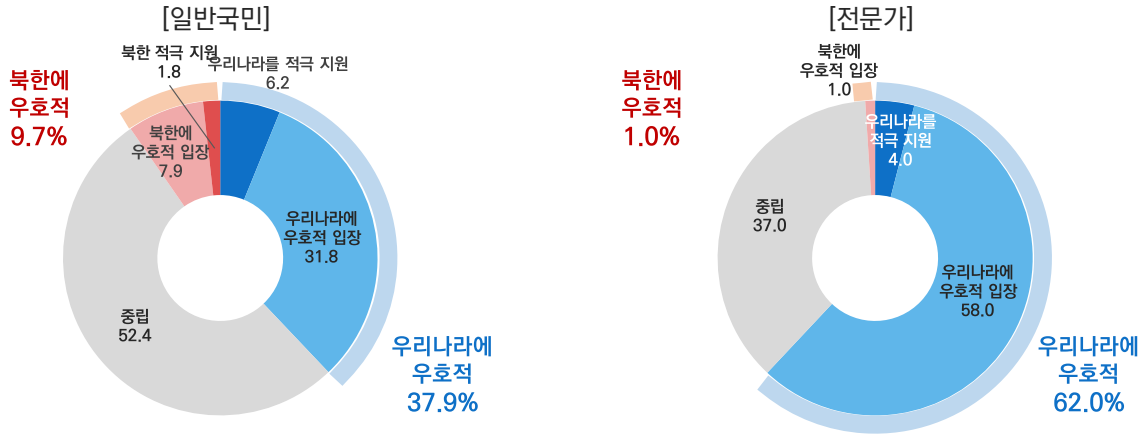
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국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국가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7.9%, 전문가 62.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국가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북한에 우호적'(9.7%)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28.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국가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37.4%) 증가하였으며,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p(2023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태국가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북한에 우호적'(1.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61.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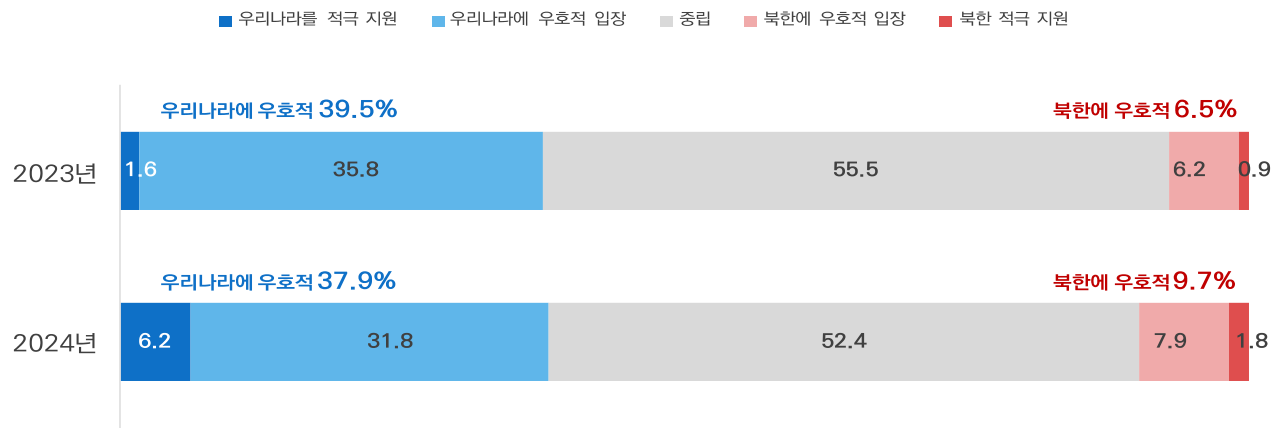
|그림 3-9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

(단위 : %)



|그림 3-100|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2023년 신규 보기 항목으로 전년도 비교분석만 실시(연도별 비교분석 제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국가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6|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5) 인도·태평양국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6.0	33.8	51.2	7.4	1.6	39.8	51.2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2	31.8	52.4	7.9	1.8	37.9	52.4	9.7
	전문가	(100)	4.0	58.0	37.0	1.0	-	62.0	37.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8.0	36.0	45.8	8.7	1.5	44.0	45.8	10.3
	중	(580)	6.4	30.7	54.5	6.9	1.6	37.1	54.5	8.4
	하	(231)	2.6	27.3	58.4	9.1	2.6	29.9	58.4	11.7
성별	남성	(720)	6.5	31.4	52.4	7.9	1.8	37.9	52.4	9.7
	여성	(480)	5.6	32.3	52.5	7.9	1.7	37.9	52.5	9.6
연령별	20대 이하	(217)	7.4	29.5	54.4	6.5	2.3	36.9	54.4	8.8
	30대	(194)	5.7	32.0	53.6	5.7	3.1	37.6	53.6	8.8
	40대	(226)	5.8	35.8	47.8	8.8	1.8	41.6	47.8	10.6
	50대	(255)	3.9	31.0	56.1	7.8	1.2	34.9	56.1	9.0
	60대 이상	(308)	7.8	30.8	50.6	9.7	1.0	38.6	50.6	10.7
지역별	서울	(140)	5.7	26.4	64.3	3.6	-	32.1	64.3	3.6
	경기/인천	(245)	0.8	30.2	55.1	10.6	3.3	31.0	55.1	13.9
	부산/울산/경남	(208)	6.7	31.3	54.3	4.8	2.9	38.0	54.3	7.7
	대구/경북	(141)	10.6	17.0	61.0	8.5	2.8	27.7	61.0	11.3
	광주/전라	(170)	1.8	45.9	37.1	15.3	-	47.6	37.1	15.3
	대전/충청/세종	(205)	8.8	38.0	47.8	4.4	1.0	46.8	47.8	5.4
	강원/제주	(91)	15.4	27.5	48.4	7.7	1.1	42.9	48.4	8.8
지역크기	대도시	(524)	5.2	24.0	59.0	9.4	2.5	29.2	59.0	11.8
	중·소도시	(639)	7.2	37.9	46.9	6.7	1.3	45.1	46.9	8.0
	읍/면	(37)	2.7	35.1	54.1	8.1	-	37.8	54.1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38.0	48.0	6.0	4.0	42.0	48.0	10.0
	자영업자	(185)	8.6	28.6	51.4	10.3	1.1	37.3	51.4	11.4
	판매/서비스직	(194)	4.6	37.1	49.5	6.7	2.1	41.8	49.5	8.8
	기능/숙련공	(127)	3.1	33.1	49.6	11.8	2.4	36.2	49.6	14.2
	일반 노무직	(41)	4.9	31.7	56.1	4.9	2.4	36.6	56.1	7.3
	사무/기술직	(283)	5.7	30.4	56.2	6.7	1.1	36.0	56.2	7.8
	경영/관리직	(19)	10.5	52.6	36.8	-	-	63.2	36.8	-
	전문/자유직	(7)	14.3	14.3	42.9	14.3	14.3	28.6	42.9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7.1	29.0	53.3	9.5	1.2	36.1	53.3	10.7
	학생	(73)	6.8	27.4	56.2	6.8	2.7	34.2	56.2	9.6
	무직/휴직/은퇴	(52)	9.6	30.8	53.8	3.8	1.9	40.4	53.8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20.3	59.3	6.8	-	33.9	59.3	6.8
	고등학교	(440)	5.0	32.7	50.7	9.5	2.0	37.7	50.7	11.6
	전문대	(266)	3.8	36.1	51.5	6.4	2.3	39.8	51.5	8.6
	4년제 대학교	(427)	8.0	30.2	52.9	7.5	1.4	38.2	52.9	8.9
	대학원 이상	(8)	-	-	100.0	-	-	-	100.0	-
생활수준별	상	(73)	12.3	32.9	43.8	11.0	-	45.2	43.8	11.0
	중	(544)	6.4	30.7	54.0	7.2	1.7	37.1	54.0	8.8
	하	(583)	5.1	32.6	52.0	8.2	2.1	37.7	52.0	10.3

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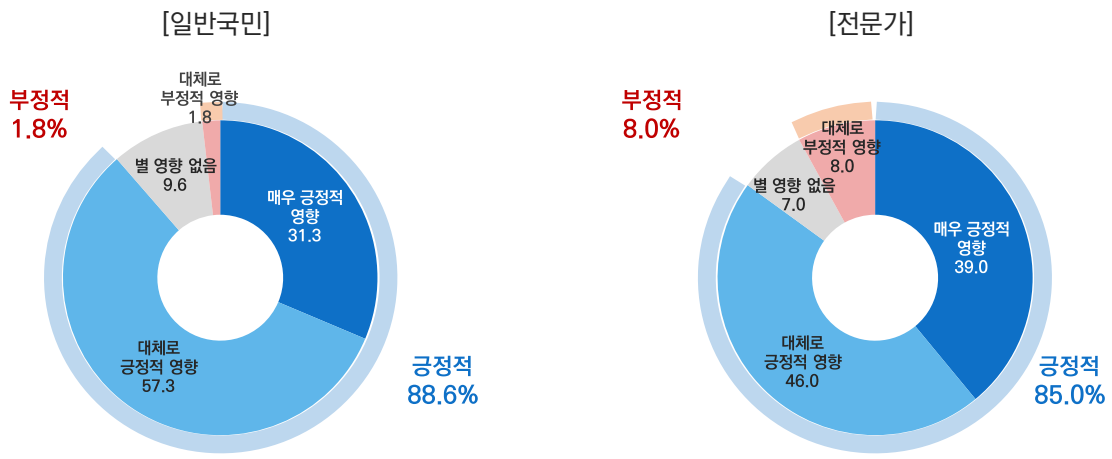
1) 미국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88.6%,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6%로 '부정적'(1.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86.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은 1.2%p(2023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0%로 '부정적'(8.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7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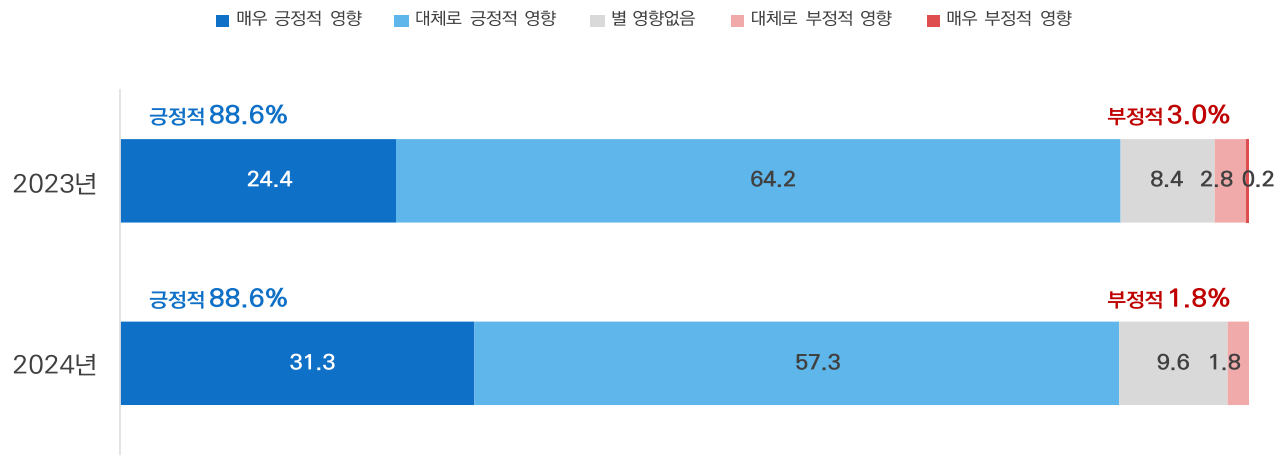
|그림 3-10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

(단위 : %)



|그림 3-10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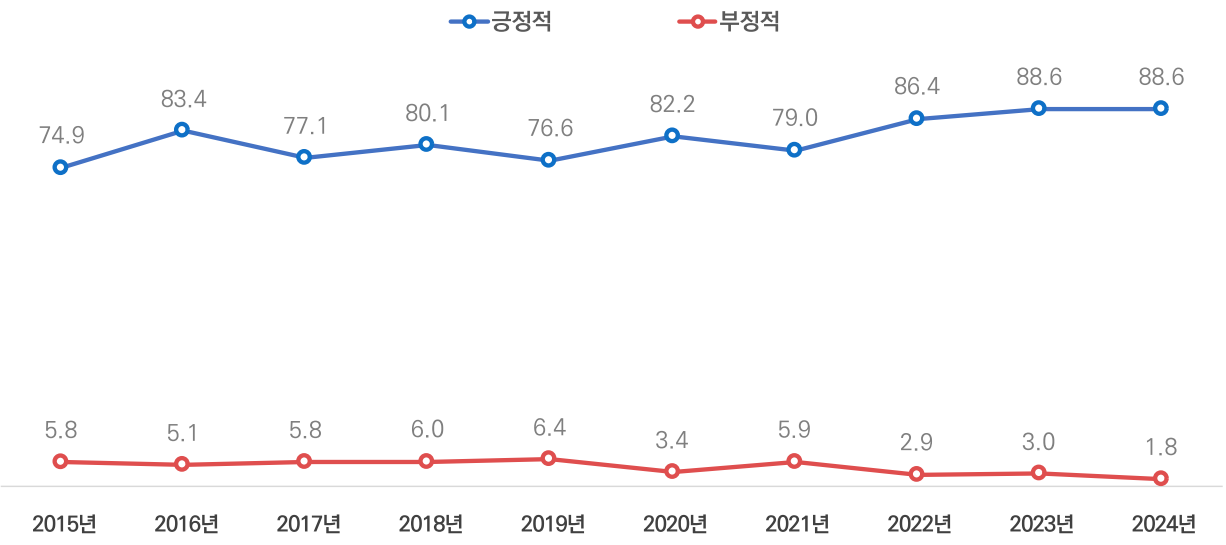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p 증가하였고, '부정적' 응답 비율은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6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긍정적 영향	21.3	23.3	28.0	26.6	16.2	15.1	28.0	20.3	24.4	31.3	6.9	10.0
대체로 긍정적 영향	53.6	60.2	49.1	53.5	60.4	67.1	51.0	66.2	64.2	57.3	-6.9	3.7
별 영향 없음	19.3	11.5	17.2	13.9	17.0	14.4	15.1	10.7	8.4	9.6	1.2	-9.7
대체로 부정적 영향	5.4	4.5	5.3	5.0	6.3	3.4	5.2	2.8	2.8	1.8	-1.0	-3.6
매우 부정적 영향	0.3	0.6	0.4	1.0	0.1	0.0	0.8	0.1	0.2	0.0	-0.2	-0.3
무응답	–	–	–	–	–	–	–	–	–	–	–	–
긍정적	74.9	83.4	77.1	80.1	76.6	82.2	79.0	86.4	88.6	88.6	0.0	13.7
부정적	5.8	5.1	5.8	6.0	6.4	3.4	5.9	2.9	3.0	1.8	-1.2	-4.0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6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31.9	56.4	9.4	2.3	-	88.3	9.4	2.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1.3	57.3	9.6	1.8	-	88.6	9.6	1.8
	전문가	(100)	39.0	46.0	7.0	8.0	-	85.0	7.0	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7.8	53.2	6.7	2.3	-	91.0	6.7	2.3
	중	(580)	27.6	58.1	12.8	1.6	-	85.7	12.8	1.6
	하	(231)	29.9	61.9	6.5	1.7	-	91.8	6.5	1.7
성별	남성	(720)	31.5	54.4	11.8	2.2	-	86.0	11.8	2.2
	여성	(480)	31.0	61.5	6.3	1.3	-	92.5	6.3	1.3
연령별	20대 이하	(217)	27.6	57.6	12.4	2.3	-	85.3	12.4	2.3
	30대	(194)	23.7	61.9	13.4	1.0	-	85.6	13.4	1.0
	40대	(226)	32.3	57.5	7.5	2.7	-	89.8	7.5	2.7
	50대	(255)	34.1	56.1	7.8	2.0	-	90.2	7.8	2.0
	60대 이상	(308)	35.7	54.9	8.1	1.3	-	90.6	8.1	1.3
지역별	서울	(140)	31.4	43.6	22.9	2.1	-	75.0	22.9	2.1
	경기/인천	(245)	27.3	57.6	11.4	3.7	-	84.9	11.4	3.7
	부산/울산/경남	(208)	31.3	63.0	3.8	1.9	-	94.2	3.8	1.9
	대구/경북	(141)	33.3	61.0	5.0	0.7	-	94.3	5.0	0.7
	광주/전라	(170)	29.4	60.6	10.0	-	-	90.0	10.0	-
	대전/충청/세종	(205)	31.7	56.1	9.8	2.4	-	87.8	9.8	2.4
	강원/제주	(91)	41.8	54.9	3.3	-	-	96.7	3.3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0.0	56.1	11.3	2.7	-	86.1	11.3	2.7
	중·소도시	(639)	32.9	58.2	7.8	1.1	-	91.1	7.8	1.1
	읍/면	(37)	24.3	56.8	16.2	2.7	-	81.1	16.2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40.0	54.0	4.0	2.0	-	94.0	4.0	2.0
	자영업자	(185)	33.5	51.4	12.4	2.7	-	84.9	12.4	2.7
	판매/서비스직	(194)	26.3	59.3	10.8	3.6	-	85.6	10.8	3.6
	기능/숙련공	(127)	35.4	58.3	5.5	0.8	-	93.7	5.5	0.8
	일반 노무직	(41)	34.1	63.4	2.4	-	-	97.6	2.4	-
	사무/기술직	(283)	24.7	60.4	13.4	1.4	-	85.2	13.4	1.4
	경영/관리직	(19)	47.4	42.1	10.5	-	-	89.5	10.5	-
	전문/자유직	(7)	42.9	42.9	14.3	-	-	85.7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8.5	55.0	5.3	1.2	-	93.5	5.3	1.2
	학생	(73)	24.7	61.6	13.7	-	-	86.3	13.7	-
	무직/휴직/은퇴	(52)	36.5	57.7	1.9	3.8	-	94.2	1.9	3.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7.3	50.8	8.5	3.4	-	88.1	8.5	3.4
	고등학교	(440)	36.6	52.0	10.0	1.4	-	88.6	10.0	1.4
	전문대	(266)	29.3	66.2	3.8	0.8	-	95.5	3.8	0.8
	4년제 대학교	(427)	26.0	58.5	12.6	2.8	-	84.5	12.6	2.8
	대학원 이상	(8)	50.0	25.0	25.0	-	-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32.9	45.2	16.4	5.5	-	78.1	16.4	5.5
	중	(544)	33.6	56.3	8.8	1.3	-	89.9	8.8	1.3
	하	(583)	29.0	59.7	9.4	1.9	-	88.7	9.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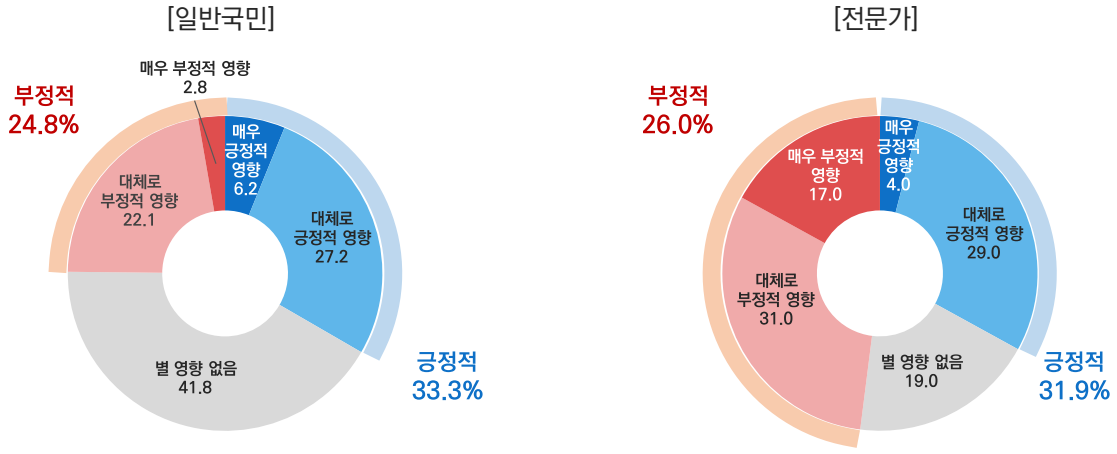
2) 일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3.3%, 전문가 3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부정적'(24.8%) 응답 비율보다 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p(2023년 31.9%) 증가했으나, '부정적' 응답 비율은 1.2%p(2023년 2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부정적' 응답 비율(48.0%)보다 15.0%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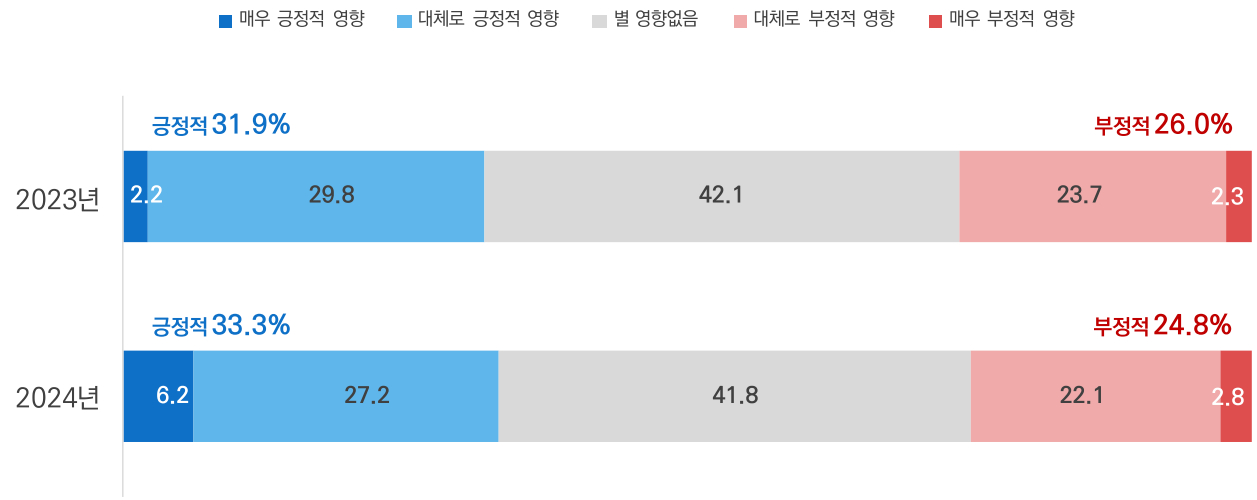
|그림 3-10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

(단위 : %)



|그림 3-105|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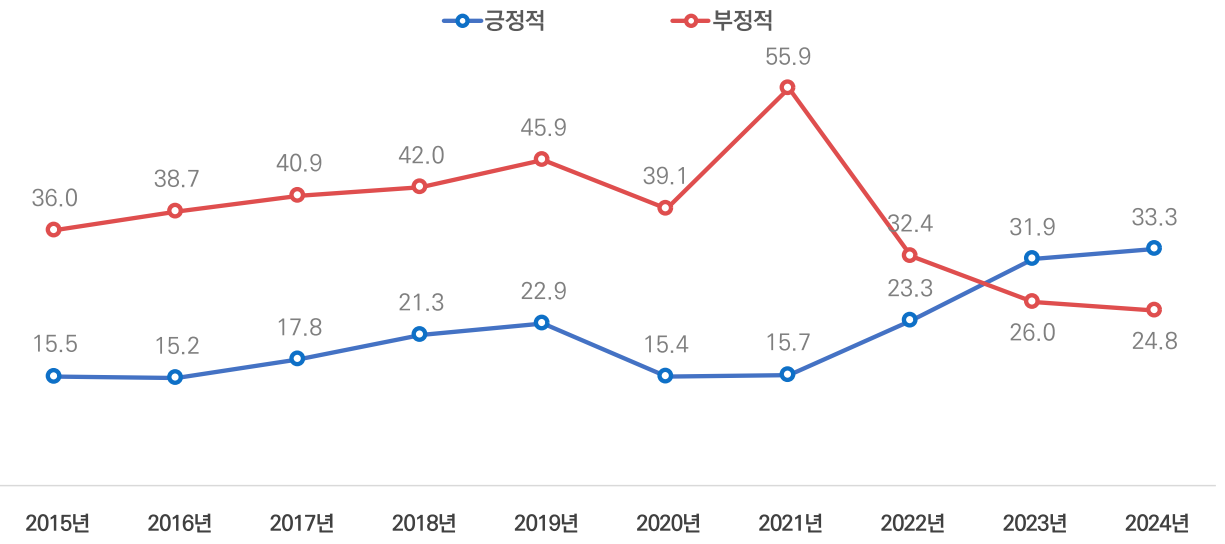
(단위 :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8%p 증가했으나, '부정적' 응답 비율은 1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이후 '긍정'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부정' 비율은 감소 추세임

|그림 3-106|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6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긍정적 영향	1.4	2.1	1.3	2.8	3.9	0.8	2.3	1.8	2.2	6.2	4.0	4.8
대체로 긍정적 영향	14.1	13.1	16.5	18.5	19.0	14.7	13.3	21.5	29.8	27.2	-2.6	13.1
별 영향 없음	48.5	46.2	41.3	36.7	31.2	45.5	28.4	44.3	42.1	41.8	-0.3	-6.7
대체로 부정적 영향	30.0	32.6	32.9	30.3	35.6	32.0	34.4	27.7	23.7	22.1	-1.6	-7.9
매우 부정적 영향	6.0	6.1	8.0	11.8	10.3	7.1	21.5	4.8	2.3	2.8	0.5	-3.2
무응답	–	–	–	–	–	–	–	–	–	–	–	–
긍정적	15.5	15.2	17.8	21.3	22.9	15.4	15.7	23.3	31.9	33.3	1.4	17.8
부정적	36.0	38.7	40.9	42.0	45.9	39.1	55.9	32.4	26.0	24.8	-1.2	-11.2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7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일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6.0	27.3	40.1	22.8	3.8	33.3	40.1	26.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2	27.2	41.8	22.1	2.8	33.3	41.8	24.8
	전문가	(100)	4.0	29.0	19.0	31.0	17.0	33.0	19.0	4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9.5	30.3	37.3	19.8	3.1	39.8	37.3	22.9
	중	(580)	5.5	25.2	44.5	21.9	2.9	30.7	44.5	24.8
	하	(231)	2.2	26.8	42.9	26.4	1.7	29.0	42.9	28.1
성별	남성	(720)	6.7	26.0	41.7	23.1	2.6	32.6	41.7	25.7
	여성	(480)	5.4	29.0	42.1	20.6	2.9	34.4	42.1	23.5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	28.1	41.9	21.2	2.8	34.1	41.9	24.0
	30대	(194)	7.7	23.2	44.3	23.2	1.5	30.9	44.3	24.7
	40대	(226)	8.0	29.6	42.5	17.7	2.2	37.6	42.5	19.9
	50대	(255)	5.1	22.7	44.7	23.9	3.5	27.8	44.7	27.5
	60대 이상	(308)	4.9	30.8	37.3	23.7	3.2	35.7	37.3	26.9
지역별	서울	(140)	6.4	29.3	38.6	25.7	-	35.7	38.6	25.7
	경기/인천	(245)	0.8	19.6	50.6	25.7	3.3	20.4	50.6	29.0
	부산/울산/경남	(208)	3.4	36.5	48.1	12.0	-	39.9	48.1	12.0
	대구/경북	(141)	5.0	41.1	29.1	21.3	3.5	46.1	29.1	24.8
	광주/전라	(170)	-	27.1	52.4	19.4	1.2	27.1	52.4	20.6
	대전/충청/세종	(205)	22.4	16.6	27.3	28.3	5.4	39.0	27.3	33.7
	강원/제주	(91)	3.3	25.3	41.8	22.0	7.7	28.6	41.8	29.7
지역크기	대도시	(524)	4.2	27.9	43.5	22.3	2.1	32.1	43.5	24.4
	중·소도시	(639)	6.7	26.4	40.8	22.5	3.4	33.2	40.8	26.0
	읍/면	(37)	24.3	29.7	35.1	10.8	-	54.1	35.1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18.0	42.0	36.0	-	22.0	42.0	36.0
	자영업자	(185)	7.0	24.3	38.9	25.9	3.8	31.4	38.9	29.7
	판매/서비스직	(194)	5.2	26.3	45.4	20.6	2.6	31.4	45.4	23.2
	기능/숙련공	(127)	9.4	30.7	38.6	18.9	2.4	40.2	38.6	21.3
	일반 노무직	(41)	7.3	36.6	39.0	17.1	-	43.9	39.0	17.1
	사무/기술직	(283)	5.3	21.6	48.8	23.0	1.4	26.9	48.8	24.4
	경영/관리직	(19)	5.3	26.3	31.6	36.8	-	31.6	31.6	36.8
	전문/자유직	(7)	-	28.6	57.1	14.3	-	28.6	57.1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7.1	33.7	36.7	18.3	4.1	40.8	36.7	22.5
	학생	(73)	5.5	31.5	39.7	17.8	5.5	37.0	39.7	23.3
	무직/휴직/은퇴	(52)	3.8	36.5	32.7	21.2	5.8	40.4	32.7	26.9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39.0	25.4	28.8	1.7	44.1	25.4	30.5
	고등학교	(440)	4.3	27.0	44.1	21.6	3.0	31.4	44.1	24.5
	전문대	(266)	7.5	33.1	40.2	17.7	1.5	40.6	40.2	19.2
	4년제 대학교	(427)	7.3	21.5	42.9	24.8	3.5	28.8	42.9	28.3
	대학원 이상	(8)	12.5	50.0	37.5	-	-	62.5	37.5	-
생활수준별	상	(73)	5.5	21.9	43.8	24.7	4.1	27.4	43.8	28.8
	중	(544)	8.6	28.1	44.1	17.6	1.5	36.8	44.1	19.1
	하	(583)	3.9	26.9	39.5	25.9	3.8	30.9	39.5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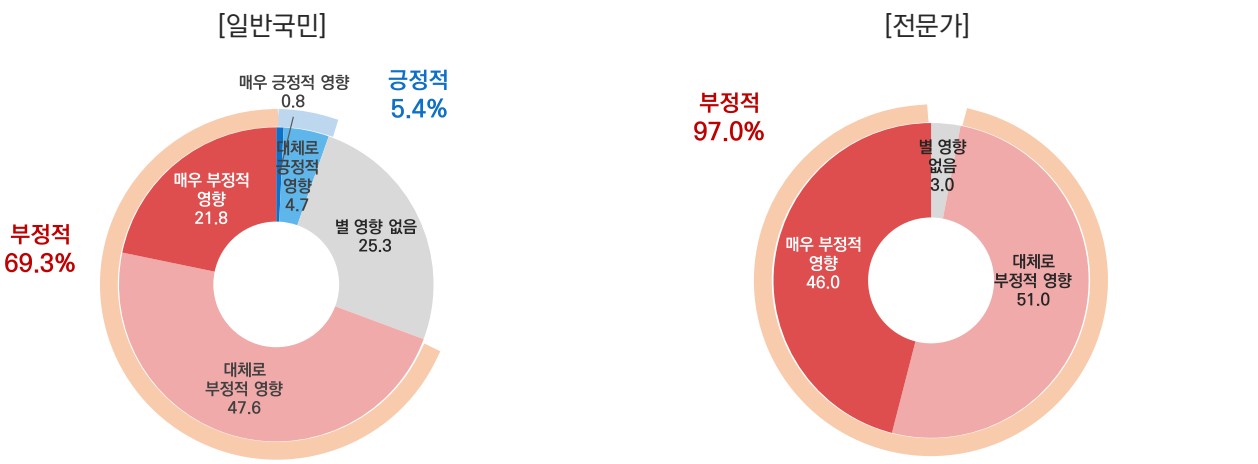
3) 중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69.3%, 전문가 9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3%로 '긍정적'(5.4%)이라는 응답보다 63.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8%p(2023년 70.1%) 감소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p(2023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0%로 '긍정적'(0.0%)이라는 응답보다 97.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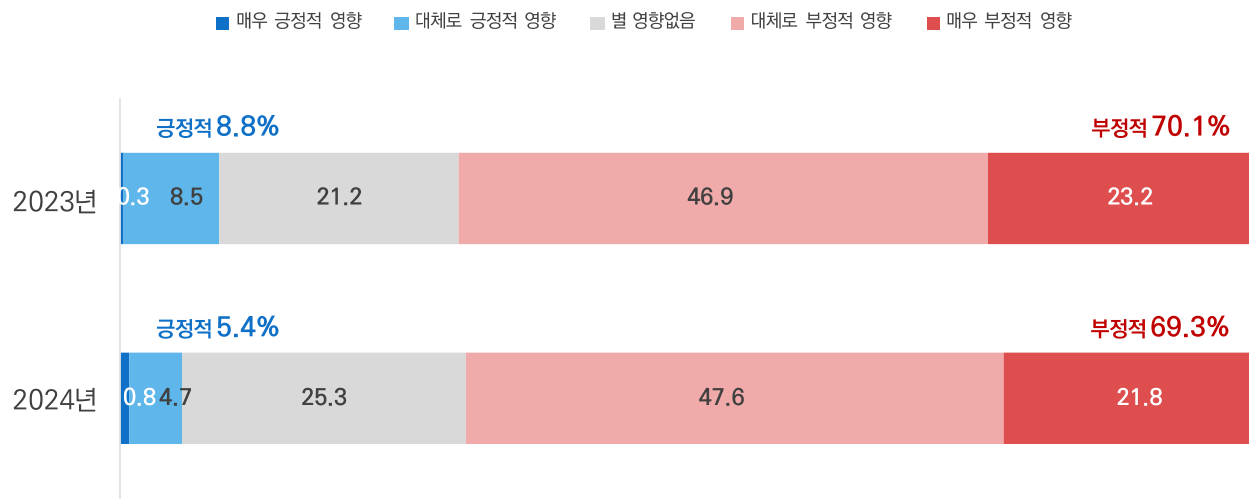
|그림 3-10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

(단위 : %)



|그림 3-10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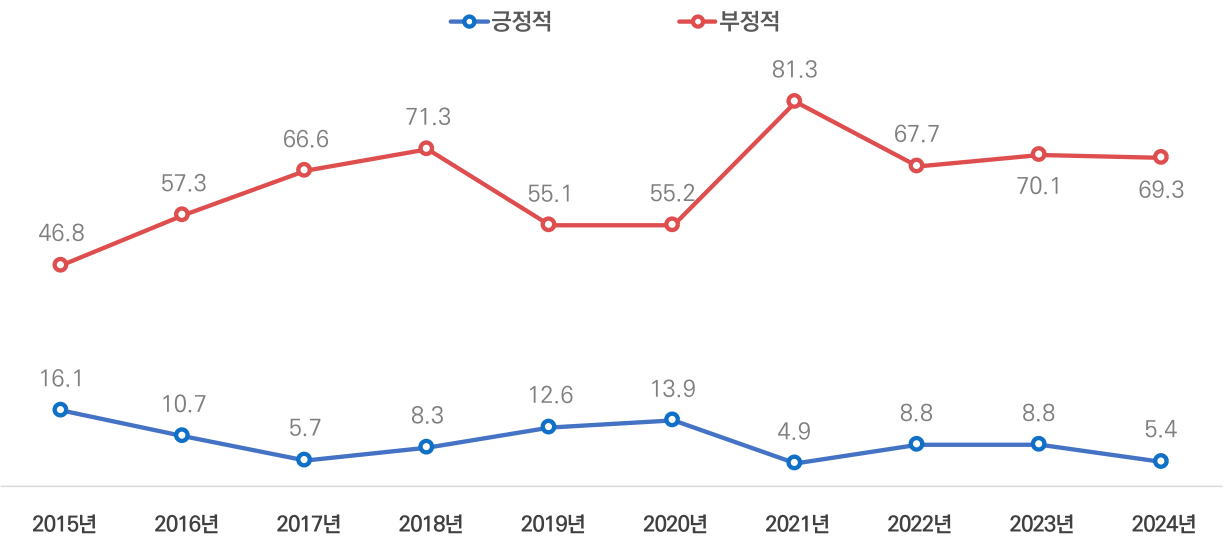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5%p 증가하였으나,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7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긍정적 영향	1.3	1.6	1.3	1.7	0.9	0.8	0.8	0.5	0.3	0.8	0.5	-0.5
대체로 긍정적 영향	14.8	9.1	4.3	6.6	11.7	13.1	4.2	8.3	8.5	4.7	-3.8	-10.1
별 영향 없음	37.2	32.1	27.8	20.5	32.3	30.9	13.8	23.5	21.2	25.3	4.1	-11.9
대체로 부정적 영향	38.7	45.2	51.8	51.2	41.5	41.1	42.1	48.8	46.9	47.6	0.7	8.9
매우 부정적 영향	8.1	12.1	14.8	20.1	13.6	14.1	39.2	18.8	23.2	21.8	-1.4	13.7
무응답	–	–	–	–	–	–	–	–	–	–	–	–
긍정적	16.1	10.7	5.7	8.3	12.6	13.9	4.9	8.8	8.8	5.4	-3.4	-10.7
부정적	46.8	57.3	66.6	71.3	55.1	55.2	81.3	67.7	70.1	69.3	-0.8	22.5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 중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0.7	4.3	23.5	47.8	23.6	5.0	23.5	71.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4.7	25.3	47.6	21.8	5.4	25.3	69.3
	전문가	(100)	-	-	3.0	51.0	46.0	-	3.0	9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	7.2	24.9	41.4	24.9	8.7	24.9	66.3
	중	(580)	0.3	3.6	27.4	48.1	20.5	4.0	27.4	68.6
	하	(231)	0.4	3.0	20.3	56.7	19.5	3.5	20.3	76.2
성별	남성	(720)	0.6	4.3	23.9	50.6	20.7	4.9	23.9	71.3
	여성	(480)	1.0	5.2	27.3	43.1	23.3	6.3	27.3	66.5
연령별	20대 이하	(217)	0.9	4.6	24.0	49.3	21.2	5.5	24.0	70.5
	30대	(194)	0.5	4.6	21.6	54.6	18.6	5.2	21.6	73.2
	40대	(226)	1.3	6.6	27.9	43.4	20.8	8.0	27.9	64.2
	50대	(255)	0.4	3.9	25.9	43.1	26.7	4.3	25.9	69.8
	60대 이상	(308)	0.6	3.9	26.0	48.7	20.8	4.5	26.0	69.5
지역별	서울	(140)	-	5.7	15.0	47.1	32.1	5.7	15.0	79.3
	경기/인천	(245)	0.8	7.3	15.1	47.3	29.4	8.2	15.1	76.7
	부산/울산/경남	(208)	-	1.4	38.9	47.6	12.0	1.4	38.9	59.6
	대구/경북	(141)	0.7	2.8	24.8	52.5	19.1	3.5	24.8	71.6
	광주/전라	(170)	-	0.6	34.7	59.4	5.3	0.6	34.7	64.7
	대전/충청/세종	(205)	2.0	7.8	26.8	36.1	27.3	9.8	26.8	63.4
	강원/제주	(91)	2.2	6.6	16.5	45.1	29.7	8.8	16.5	74.7
지역크기	대도시	(524)	1.0	6.5	27.5	46.6	18.5	7.4	27.5	65.1
	중·소도시	(639)	0.5	3.0	22.7	49.3	24.6	3.4	22.7	73.9
	읍/면	(37)	2.7	8.1	37.8	32.4	18.9	10.8	37.8	51.4
직업별	농/어/임업	(50)	-	-	10.0	62.0	28.0	-	10.0	90.0
	자영업자	(185)	-	8.6	24.3	44.3	22.7	8.6	24.3	67.0
	판매/서비스직	(194)	0.5	4.6	29.4	45.9	19.6	5.2	29.4	65.5
	기능/숙련공	(127)	-	2.4	31.5	46.5	19.7	2.4	31.5	66.1
	일반 노무직	(41)	-	2.4	29.3	53.7	14.6	2.4	29.3	68.3
	사무/기술직	(283)	1.1	3.2	24.4	51.2	20.1	4.2	24.4	71.4
	경영/관리직	(19)	-	-	10.5	42.1	47.4	-	10.5	89.5
	전문/자유직	(7)	-	-	-	42.9	57.1	-	-	10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8	3.6	28.4	40.8	25.4	5.3	28.4	66.3
	학생	(73)	-	9.6	16.4	53.4	20.5	9.6	16.4	74.0
	무직/휴직/은퇴	(52)	3.8	9.6	25.0	46.2	15.4	13.5	25.0	61.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3.4	20.3	55.9	18.6	5.1	20.3	74.6
	고등학교	(440)	0.9	3.4	23.2	46.1	26.4	4.3	23.2	72.5
	전문대	(266)	0.4	4.9	35.0	45.5	14.3	5.3	35.0	59.8
	4년제 대학교	(427)	0.7	6.1	22.2	49.2	21.8	6.8	22.2	71.0
	대학원 이상	(8)	-	-	12.5	50.0	37.5	-	12.5	87.5
생활수준별	상	(73)	1.4	11.0	28.8	34.2	24.7	12.3	28.8	58.9
	중	(544)	0.6	6.4	30.1	42.5	20.4	7.0	30.1	62.9
	하	(583)	0.9	2.2	20.2	54.0	22.6	3.1	20.2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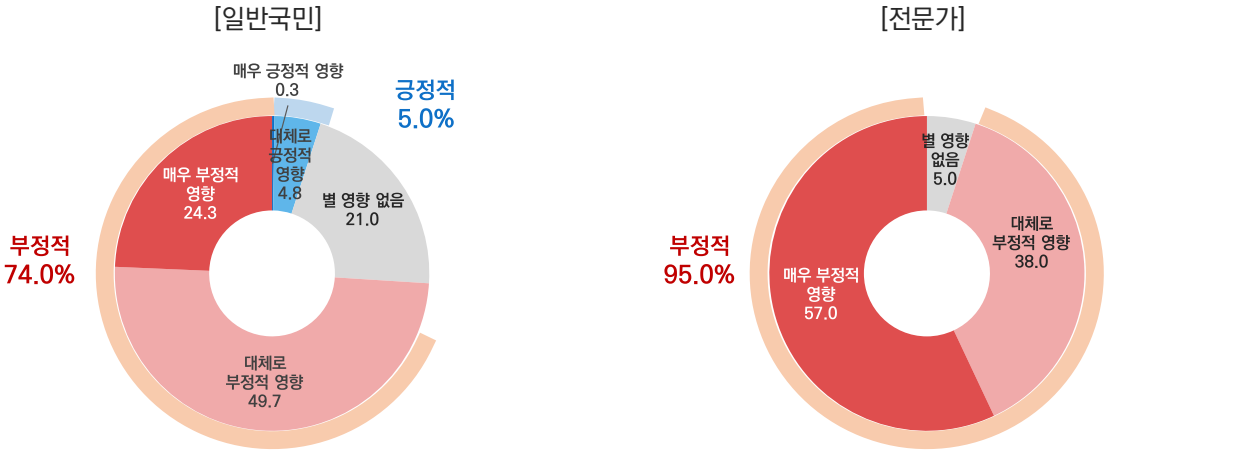
4) 러시아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74.0%,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0%로 '긍정적'(5.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69.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p(2023년 70.3%) 증가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p(2023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5.0%로 '부정적'(0.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95.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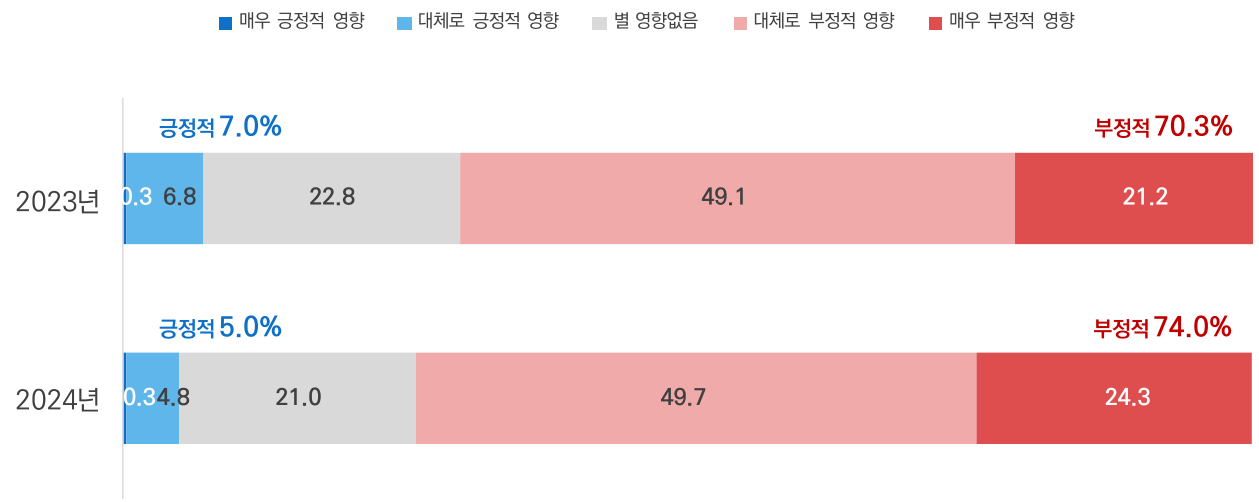
|그림 3-1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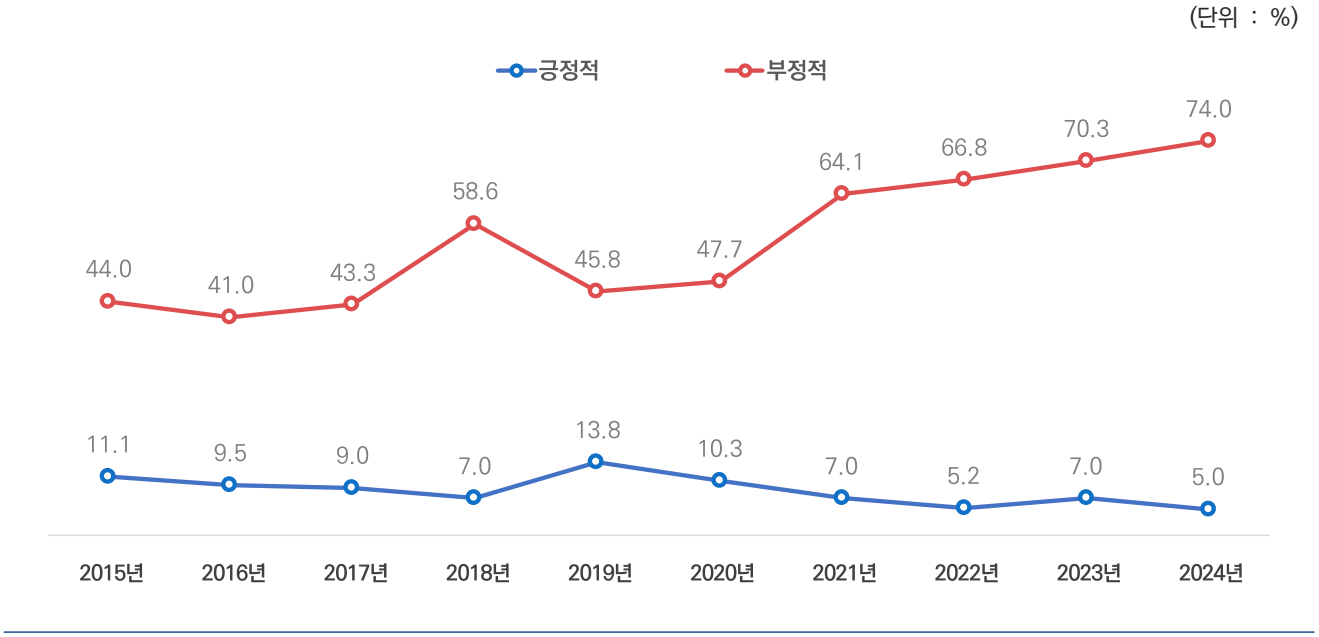
|그림 3-11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0%p 증가하였으나,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7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긍정적 영향	0.8	1.3	1.9	1.7	1.2	1.5	0.8	0.3	0.3	0.3	0.0	-0.5
대체로 긍정적 영향	10.3	8.3	7.1	5.3	12.6	8.8	6.2	4.9	6.8	4.8	-2.0	-5.5
별 영향 없음	44.9	49.5	47.7	34.4	40.4	42.0	28.9	28.1	22.8	21.0	-1.8	-23.9
대체로 부정적 영향	37.3	38.0	37.4	43.8	36.6	40.0	45.8	49.1	49.1	49.7	0.6	12.4
매우 부정적 영향	6.8	3.0	5.9	14.8	9.3	7.7	18.3	17.7	21.2	24.3	3.1	17.5
무응답	–	–	–	–	–	–	–	–	–	–	–	–
긍정적	11.1	9.5	9.0	7.0	13.8	10.3	7.0	5.2	7.0	5.0	-2.0	-6.1
부정적	44.0	41.0	43.3	58.6	45.8	47.7	64.1	66.8	70.3	74.0	3.7	30.0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 러시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0.2	4.4	19.8	48.8	26.8	4.6	19.8	75.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4.8	21.0	49.7	24.3	5.0	21.0	74.0
	전문가	(100)	-	-	5.0	38.0	57.0	-	5.0	9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0.5	5.9	23.4	46.0	24.2	6.4	23.4	70.2
	중	(580)	0.2	4.1	20.2	53.3	22.2	4.3	20.2	75.5
	하	(231)	-	4.3	19.0	46.8	29.9	4.3	19.0	76.6
성별	남성	(720)	0.3	5.0	20.4	49.9	24.4	5.3	20.4	74.3
	여성	(480)	0.2	4.4	21.9	49.4	24.2	4.6	21.9	73.5
연령별	20대 이하	(217)	0.5	5.1	19.4	52.5	22.6	5.5	19.4	75.1
	30대	(194)	0.5	5.2	19.6	51.5	23.2	5.7	19.6	74.7
	40대	(226)	0.4	5.3	19.9	49.1	25.2	5.8	19.9	74.3
	50대	(255)	-	3.5	25.1	46.7	24.7	3.5	25.1	71.4
	60대 이상	(308)	-	4.9	20.5	49.4	25.3	4.9	20.5	74.7
지역별	서울	(140)	-	7.1	30.7	47.9	14.3	7.1	30.7	62.1
	경기/인천	(245)	-	3.3	14.7	60.4	21.6	3.3	14.7	82.0
	부산/울산/경남	(208)	-	0.5	18.3	55.8	25.5	0.5	18.3	81.3
	대구/경북	(141)	-	3.5	17.0	46.1	33.3	3.5	17.0	79.4
	광주/전라	(170)	-	7.1	24.7	45.3	22.9	7.1	24.7	68.2
	대전/충청/세종	(205)	-	8.3	23.4	40.5	27.8	8.3	23.4	68.3
	강원/제주	(91)	3.3	4.4	23.1	44.0	25.3	7.7	23.1	69.2
지역크기	대도시	(524)	-	4.4	19.8	55.2	20.6	4.4	19.8	75.8
	중·소도시	(639)	0.5	4.2	20.8	46.6	27.9	4.7	20.8	74.5
	읍/면	(37)	-	18.9	40.5	24.3	16.2	18.9	40.5	40.5
직업별	농/어/임업	(50)	-	2.0	18.0	48.0	32.0	2.0	18.0	80.0
	자영업자	(185)	-	5.9	26.5	46.5	21.1	5.9	26.5	67.6
	판매/서비스직	(194)	-	5.7	20.6	50.5	23.2	5.7	20.6	73.7
	기능/숙련공	(127)	-	3.1	17.3	55.1	24.4	3.1	17.3	79.5
	일반 노무직	(41)	-	2.4	31.7	43.9	22.0	2.4	31.7	65.9
	사무/기술직	(283)	0.4	4.9	19.8	51.6	23.3	5.3	19.8	74.9
	경영/관리직	(19)	-	-	10.5	52.6	36.8	-	10.5	89.5
	전문/자유직	(7)	-	-	14.3	14.3	71.4	-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0.6	5.3	16.0	52.7	25.4	5.9	16.0	78.1
	학생	(73)	1.4	2.7	24.7	43.8	27.4	4.1	24.7	71.2
	무직/휴직/은퇴	(52)	-	7.7	28.8	42.3	21.2	7.7	28.8	63.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6.8	16.9	50.8	25.4	6.8	16.9	76.3
	고등학교	(440)	0.5	3.9	20.7	48.9	26.1	4.3	20.7	75.0
	전문대	(266)	-	5.6	24.8	48.1	21.4	5.6	24.8	69.5
	4년제 대학교	(427)	0.2	4.9	19.2	51.3	24.4	5.2	19.2	75.6
	대학원 이상	(8)	-	-	37.5	50.0	12.5	-	37.5	62.5
생활수준별	상	(73)	1.4	4.1	26.0	45.2	23.3	5.5	26.0	68.5
	중	(544)	0.2	7.4	23.3	46.3	22.8	7.5	23.3	69.1
	하	(583)	0.2	2.4	18.2	53.3	25.9	2.6	18.2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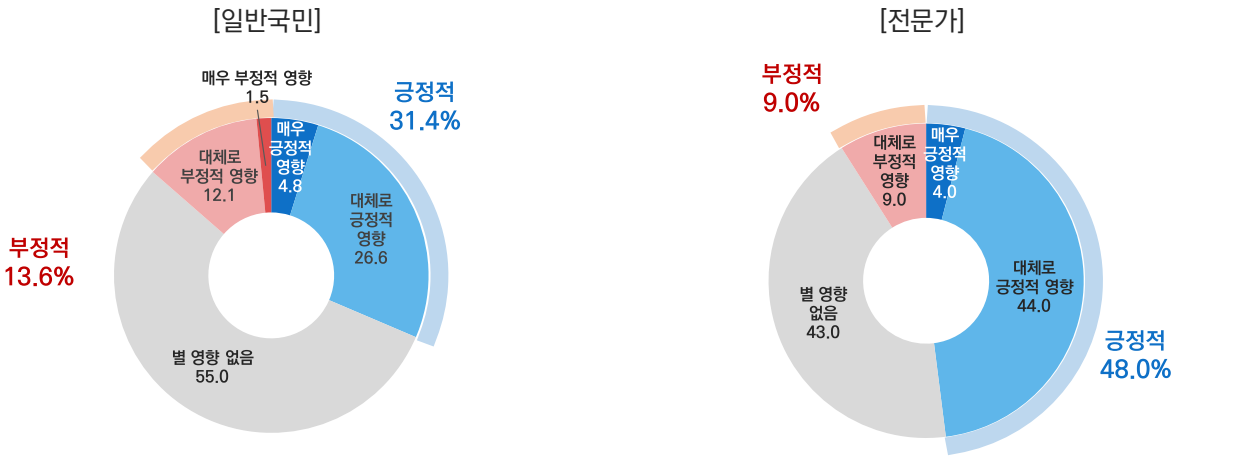
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국가

인태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1.4%, 전문가 4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인태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부정적'(13.6%)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17.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p(2023년 28.5%) 증가했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9%p(2023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태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부정적'(9.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3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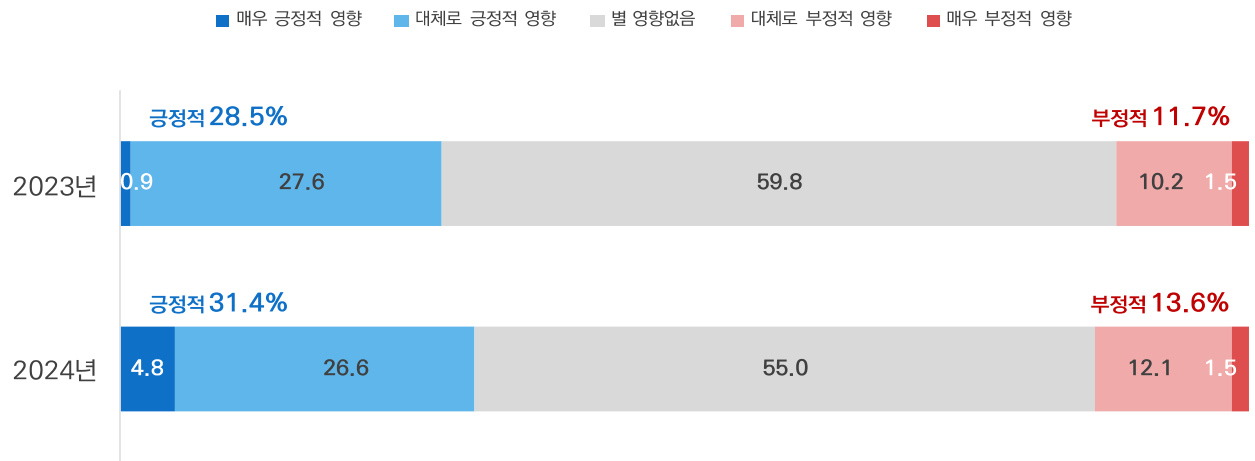
|그림 3-11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

(단위 : %)



|그림 3-11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2023년 신규 보기 항목으로 전년도 비교분석만 실시(연도별 비교분석 제외)

인태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5|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5) 인태국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4.8	27.9	54.1	11.8	1.4	32.7	54.1	13.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	26.6	55.0	12.1	1.5	31.4	55.0	13.6
	전문가	(100)	4.0	44.0	43.0	9.0	-	48.0	43.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6	31.9	49.6	12.1	1.8	36.5	49.6	13.9
	중	(580)	5.9	24.8	57.4	10.7	1.2	30.7	57.4	11.9
	하	(231)	2.6	22.1	58.0	15.6	1.7	24.7	58.0	17.3
성별	남성	(720)	4.4	28.3	53.9	11.9	1.4	32.8	53.9	13.3
	여성	(480)	5.4	24.0	56.7	12.3	1.7	29.4	56.7	14.0
연령별	20대 이하	(217)	4.6	28.6	51.2	14.3	1.4	33.2	51.2	15.7
	30대	(194)	3.1	29.4	55.2	10.8	1.5	32.5	55.2	12.4
	40대	(226)	4.9	25.2	55.8	13.3	0.9	30.1	55.8	14.2
	50대	(255)	5.5	26.3	56.1	9.8	2.4	31.8	56.1	12.2
	60대 이상	(308)	5.5	24.7	56.2	12.3	1.3	30.2	56.2	13.6
지역별	서울	(140)	-	18.6	73.6	7.9	-	18.6	73.6	7.9
	경기/인천	(245)	1.2	19.2	62.9	14.3	2.4	20.4	62.9	16.7
	부산/울산/경남	(208)	1.4	32.7	55.8	8.7	1.4	34.1	55.8	10.1
	대구/경북	(141)	11.3	14.9	58.2	10.6	5.0	26.2	58.2	15.6
	광주/전라	(170)	0.6	40.6	38.2	20.6	-	41.2	38.2	20.6
	대전/충청/세종	(205)	8.3	33.2	51.7	6.8	-	41.5	51.7	6.8
	강원/제주	(91)	19.8	22.0	37.4	18.7	2.2	41.8	37.4	20.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	22.3	61.3	13.2	1.7	23.9	61.3	14.9
	중·소도시	(639)	7.8	29.7	50.5	10.5	1.4	37.6	50.5	11.9
	읍/면	(37)	-	32.4	43.2	24.3	-	32.4	43.2	24.3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32.0	54.0	10.0	-	36.0	54.0	10.0
	자영업자	(185)	5.4	23.2	58.9	11.4	1.1	28.6	58.9	12.4
	판매/서비스직	(194)	2.6	28.4	56.7	11.3	1.0	30.9	56.7	12.4
	기능/숙련공	(127)	4.7	29.1	51.2	14.2	0.8	33.9	51.2	15.0
	일반 노무직	(41)	4.9	39.0	51.2	4.9	-	43.9	51.2	4.9
	사무/기술직	(283)	3.9	27.9	53.4	13.1	1.8	31.8	53.4	14.8
	경영/관리직	(19)	5.3	31.6	63.2	-	-	36.8	63.2	-
	전문/자유직	(7)	14.3	14.3	28.6	28.6	14.3	28.6	28.6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7.1	18.9	56.8	14.8	2.4	26.0	56.8	17.2
	학생	(73)	5.5	27.4	52.1	12.3	2.7	32.9	52.1	15.1
	무직/휴직/은퇴	(52)	7.7	26.9	55.8	7.7	1.9	34.6	55.8	9.6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8	20.3	64.4	6.8	1.7	27.1	64.4	8.5
	고등학교	(440)	5.0	23.4	56.8	13.4	1.4	28.4	56.8	14.8
	전문대	(266)	3.4	33.5	50.8	11.3	1.1	36.8	50.8	12.4
	4년제 대학교	(427)	5.4	26.5	54.1	12.2	1.9	31.9	54.1	14.1
	대학원 이상	(8)	-	25.0	75.0	-	-	25.0	75.0	-
생활수준별	상	(73)	8.2	26.0	42.5	23.3	-	34.2	42.5	23.3
	중	(544)	4.6	28.9	53.7	11.2	1.7	33.5	53.7	12.9
	하	(583)	4.6	24.5	57.8	11.5	1.5	29.2	57.8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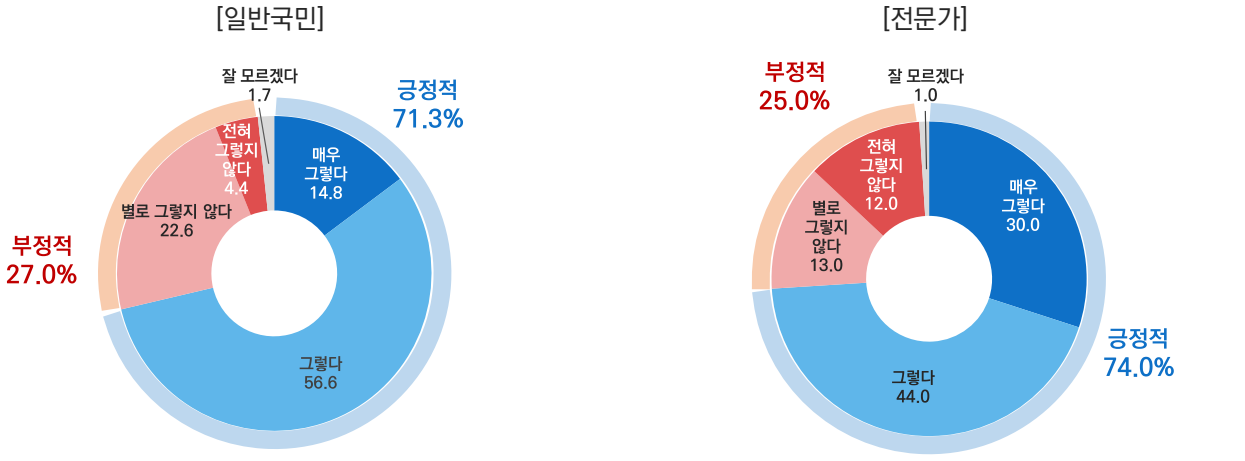
4.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5] 협력에 대한 의견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71.3%, 전문가 7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그렇지 않다'(27.0%)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44.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5%p(2023년 61.8%)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9.0%p(2023년 3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0%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25.0%)보다 4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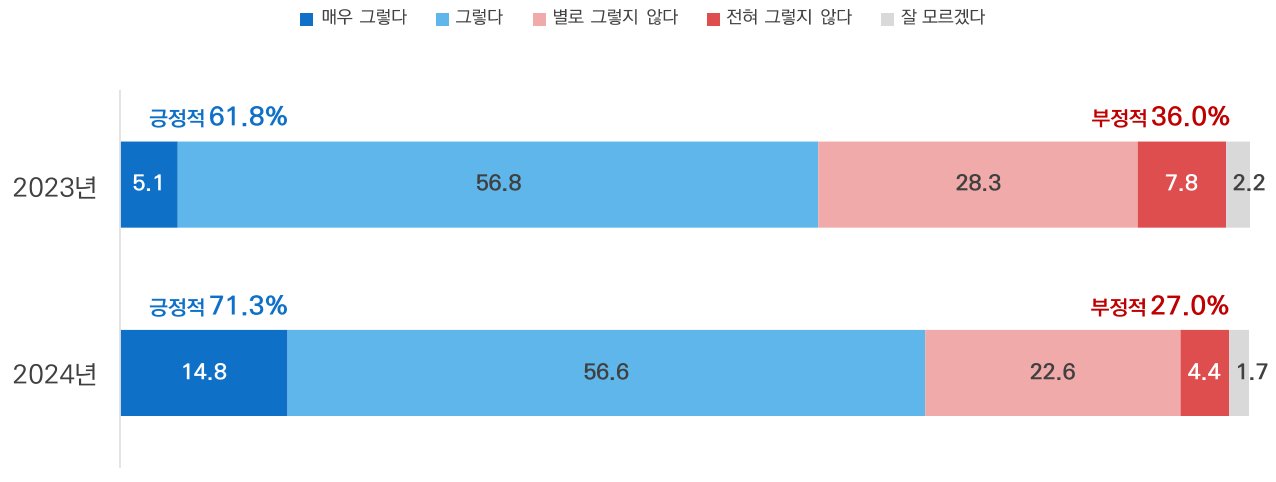
|그림 3-115|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 3-116|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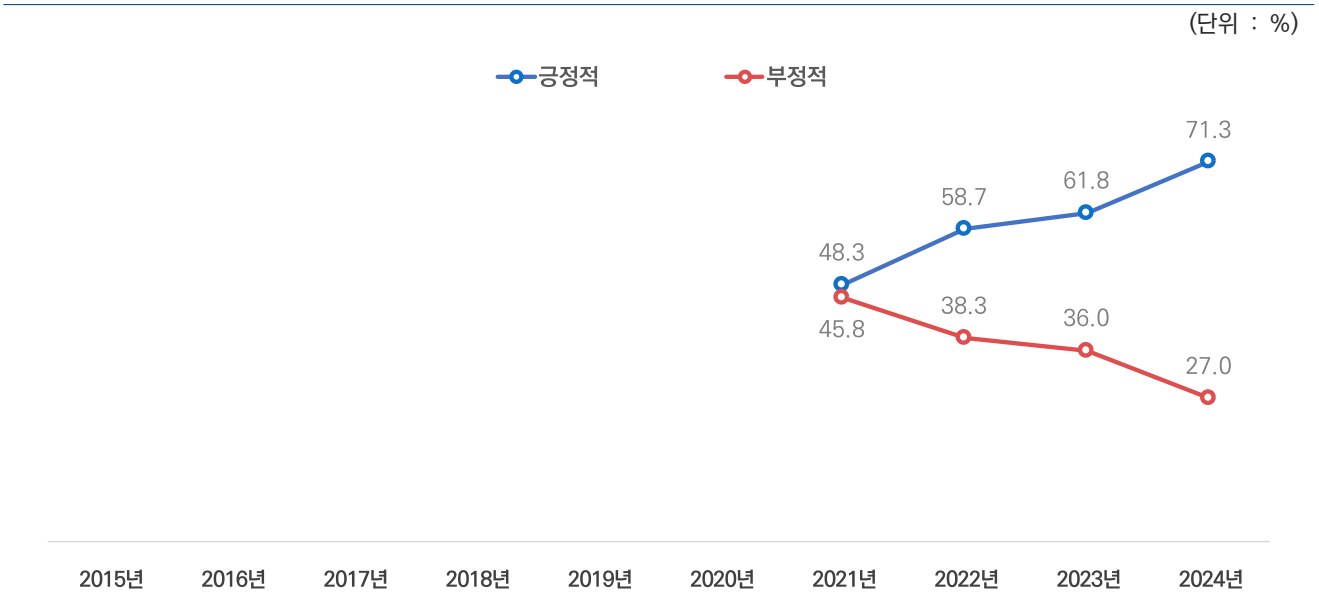
(단위 : %)



5) 군사안보→대북안보 명칭 변경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적' 비율은 23.0%p 증가하였고, '부정적' 비율은 18.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이후로 '긍정적' 비율은 증가한 추세인 반면, 부정적 비율은 감소한 추세임

|그림 3-117|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76|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8.8	5.9	5.1	14.8	9.7	6.0
그렇다	-	-	-	-	-	-	39.5	52.8	56.8	56.6	-0.2	17.1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32.0	33.3	28.3	22.6	-5.7	-9.4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13.8	4.9	7.8	4.4	-3.4	-9.4
잘 모르겠다	-	-	-	-	-	-	5.8	3.1	2.2	1.7	-0.5	-4.1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48.3	58.7	61.8	71.3	9.5	23.0
그렇지 않다	-	-	-	-	-	-	45.8	38.3	36.0	27.0	-9.0	-18.8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7| 한·일 양국 간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15.9	55.6	21.8	5.0	1.6	71.5	26.8	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8	56.6	22.6	4.4	1.7	71.3	27.0	1.7
	전문가	(100)	30.0	44.0	13.0	12.0	1.0	74.0	25.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9.0	54.0	21.6	4.6	0.8	73.0	26.2	0.8
	중	(580)	12.8	56.7	25.0	4.3	1.2	69.5	29.3	1.2
	하	(231)	12.6	60.6	18.2	4.3	4.3	73.2	22.5	4.3
성별	남성	(720)	16.1	56.3	21.7	4.7	1.3	72.4	26.4	1.3
	여성	(480)	12.7	57.1	24.0	4.0	2.3	69.8	27.9	2.3
연령별	20대 이하	(217)	13.4	59.4	20.7	3.7	2.8	72.8	24.4	2.8
	30대	(194)	11.3	55.2	29.4	3.6	0.5	66.5	33.0	0.5
	40대	(226)	12.8	54.9	23.0	6.6	2.7	67.7	29.6	2.7
	50대	(255)	17.3	54.5	23.1	4.3	0.8	71.8	27.5	0.8
	60대 이상	(308)	17.2	58.4	18.8	3.9	1.6	75.6	22.7	1.6
지역별	서울	(140)	3.6	59.3	32.9	4.3	-	62.9	37.1	-
	경기/인천	(245)	13.9	64.5	16.3	4.5	0.8	78.4	20.8	0.8
	부산/울산/경남	(208)	21.6	52.9	21.2	2.4	1.9	74.5	23.6	1.9
	대구/경북	(141)	13.5	56.0	23.4	5.7	1.4	69.5	29.1	1.4
	광주/전라	(170)	11.8	52.9	26.5	6.5	2.4	64.7	32.9	2.4
	대전/충청/세종	(205)	20.5	52.7	21.5	4.4	1.0	73.2	25.9	1.0
	강원/제주	(91)	13.2	56.0	20.9	3.3	6.6	69.2	24.2	6.6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1	57.3	25.2	5.3	1.1	68.3	30.5	1.1
	중·소도시	(639)	17.1	57.6	19.6	3.6	2.2	74.6	23.2	2.2
	읍/면	(37)	27.0	29.7	37.8	5.4	-	56.8	43.2	-
직업별	농/어/임업	(50)	12.0	48.0	32.0	6.0	2.0	60.0	38.0	2.0
	자영업자	(185)	14.6	58.4	21.6	4.9	0.5	73.0	26.5	0.5
	판매/서비스직	(194)	14.4	57.7	22.2	4.1	1.5	72.2	26.3	1.5
	기능/숙련공	(127)	26.8	54.3	13.4	4.7	0.8	81.1	18.1	0.8
	일반 노무직	(41)	24.4	61.0	14.6	-	-	85.4	14.6	-
	사무/기술직	(283)	10.2	57.6	26.1	3.5	2.5	67.8	29.7	2.5
	경영/관리직	(19)	21.1	57.9	15.8	5.3	-	78.9	21.1	-
	전문/자유직	(7)	14.3	57.1	14.3	14.3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2.4	58.6	23.1	4.7	1.2	71.0	27.8	1.2
	학생	(73)	13.7	49.3	27.4	5.5	4.1	63.0	32.9	4.1
	무직/휴직/은퇴	(52)	13.5	53.8	23.1	5.8	3.8	67.3	28.8	3.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8.6	54.2	20.3	3.4	3.4	72.9	23.7	3.4
	고등학교	(440)	15.5	58.4	20.5	4.5	1.1	73.9	25.0	1.1
	전문대	(266)	18.0	56.0	21.8	3.0	1.1	74.1	24.8	1.1
	4년제 대학교	(427)	11.5	55.3	25.5	5.4	2.3	66.7	30.9	2.3
	대학원 이상	(8)	12.5	62.5	25.0	-	-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11.0	49.3	26.0	12.3	1.4	60.3	38.4	1.4
	중	(544)	12.5	56.1	25.6	4.6	1.3	68.6	30.1	1.3
	하	(583)	17.3	58.0	19.4	3.3	2.1	75.3	22.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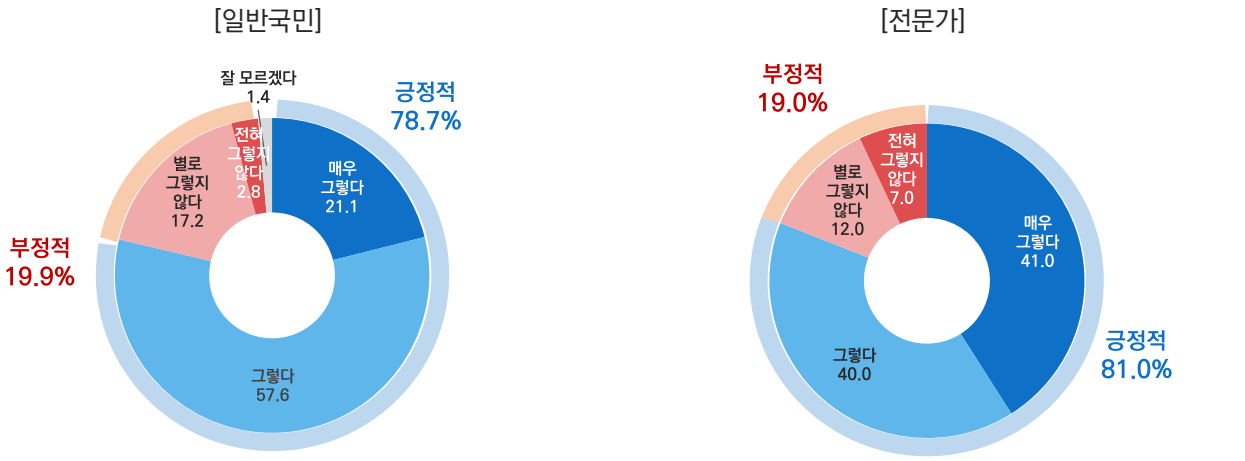
5.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78.7%, 전문가 8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그렇지 않다'(19.9%)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5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p(2023년 72.6%)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6.1%p(2023년 2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로 '그렇지 않다'(19.0%)보다 62.0%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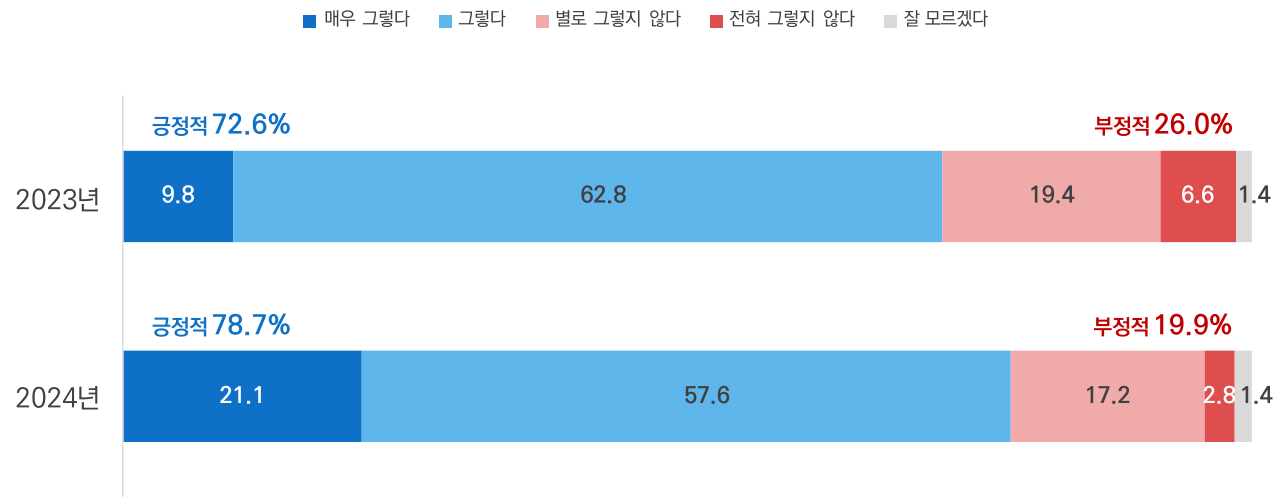
|그림 3-118|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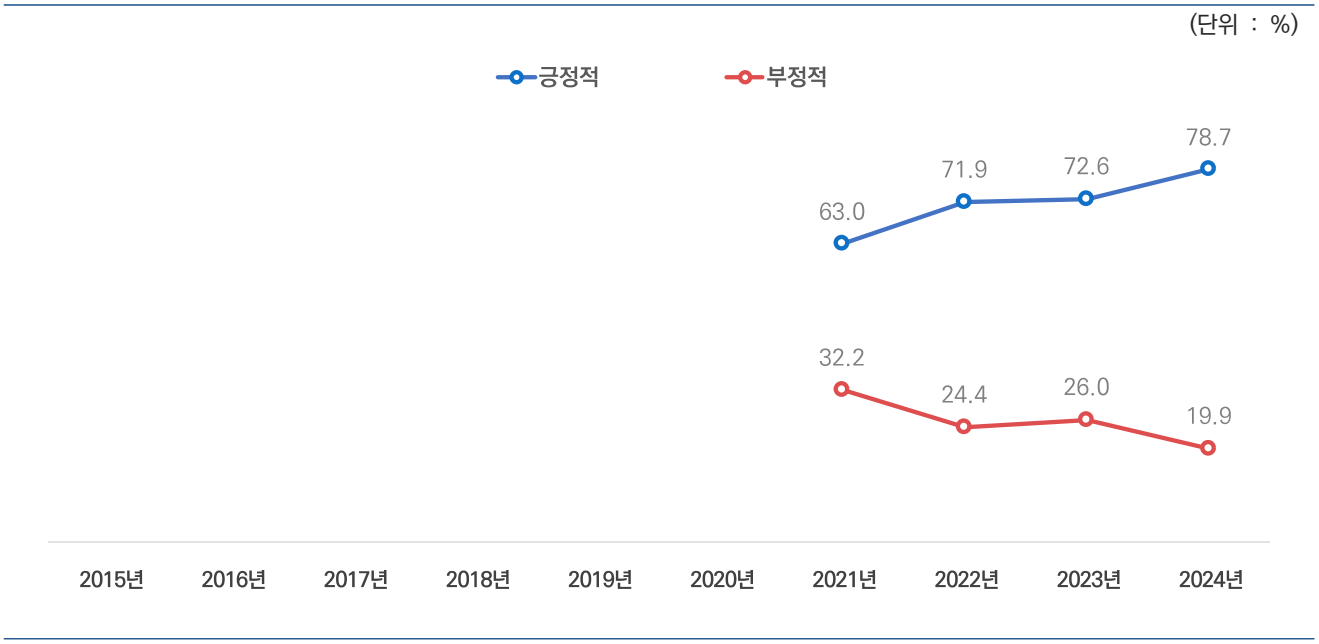
|그림 3-119|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7%p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0| 한·미·일 3개국의 대북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78|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17.3	9.4	9.8	21.1	11.3	3.8
그렇다	-	-	-	-	-	-	45.7	62.5	62.8	57.6	-5.2	11.9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25.4	20.3	19.4	17.2	-2.2	-8.2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6.8	4.2	6.6	2.8	-3.8	-4.0
잘 모르겠다	-	-	-	-	-	-	4.8	3.7	1.4	1.4	0.0	-3.4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63.0	71.9	72.6	78.7	6.1	15.7
그렇지 않다	-	-	-	-	-	-	32.2	24.4	26.0	19.9	-6.1	-12.3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9|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22.6	56.2	16.8	3.1	1.3	78.8	19.8	1.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1	57.6	17.2	2.8	1.4	78.7	19.9	1.4
	전문가	(100)	41.0	40.0	12.0	7.0	-	81.0	19.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1.3	58.1	17.5	2.3	0.8	79.4	19.8	0.8
	중	(580)	19.1	58.3	17.8	3.1	1.7	77.4	20.9	1.7
	하	(231)	25.5	55.0	15.2	2.6	1.7	80.5	17.7	1.7
성별	남성	(720)	23.2	57.4	15.0	3.1	1.4	80.6	18.1	1.4
	여성	(480)	17.9	57.9	20.4	2.3	1.5	75.8	22.7	1.5
연령별	20대 이하	(217)	24.0	53.0	17.5	2.8	2.8	77.0	20.3	2.8
	30대	(194)	17.5	64.9	14.4	3.1	-	82.5	17.5	-
	40대	(226)	20.4	52.7	23.0	1.3	2.7	73.0	24.3	2.7
	50대	(255)	21.6	55.7	17.6	4.3	0.8	77.3	22.0	0.8
	60대 이상	(308)	21.4	61.4	14.0	2.3	1.0	82.8	16.2	1.0
지역별	서울	(140)	9.3	67.9	18.6	3.6	0.7	77.1	22.1	0.7
	경기/인천	(245)	24.1	64.1	10.2	1.2	0.4	88.2	11.4	0.4
	부산/울산/경남	(208)	27.9	53.4	14.4	2.4	1.9	81.3	16.8	1.9
	대구/경북	(141)	22.7	61.0	9.2	5.7	1.4	83.7	14.9	1.4
	광주/전라	(170)	1.8	51.8	39.4	4.1	2.9	53.5	43.5	2.9
	대전/충청/세종	(205)	28.3	53.7	14.6	2.0	1.5	82.0	16.6	1.5
	강원/제주	(91)	33.0	48.4	16.5	1.1	1.1	81.3	17.6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16.0	60.9	17.9	3.8	1.3	76.9	21.8	1.3
	중·소도시	(639)	26.3	54.5	15.8	1.9	1.6	80.8	17.7	1.6
	읍/면	(37)	2.7	64.9	29.7	2.7	-	67.6	32.4	-
직업별	농/어/임업	(50)	24.0	54.0	14.0	4.0	4.0	78.0	18.0	4.0
	자영업자	(185)	21.1	63.2	11.4	3.8	0.5	84.3	15.1	0.5
	판매/서비스직	(194)	18.0	56.7	21.6	2.6	1.0	74.7	24.2	1.0
	기능/숙련공	(127)	22.0	58.3	17.3	2.4	-	80.3	19.7	-
	일반 노무직	(41)	31.7	51.2	14.6	2.4	-	82.9	17.1	-
	사무/기술직	(283)	21.2	55.8	18.0	2.8	2.1	77.0	20.8	2.1
	경영/관리직	(19)	15.8	73.7	10.5	-	-	89.5	10.5	-
	전문/자유직	(7)	28.6	42.9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9.5	60.9	17.8	1.2	0.6	80.5	18.9	0.6
	학생	(73)	24.7	46.6	17.8	5.5	5.5	71.2	23.3	5.5
	무직/휴직/은퇴	(52)	19.2	57.7	19.2	1.9	1.9	76.9	21.2	1.9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0.3	64.4	11.9	1.7	1.7	84.7	13.6	1.7
	고등학교	(440)	22.0	55.2	19.5	2.5	0.7	77.3	22.0	0.7
	전문대	(266)	16.2	63.5	16.2	2.3	1.9	79.7	18.4	1.9
	4년제 대학교	(427)	23.2	55.0	16.4	3.5	1.9	78.2	19.9	1.9
	대학원 이상	(8)	25.0	75.0	-	-	-	100.0	-	-
생활수준별	상	(73)	23.3	50.7	20.5	4.1	1.4	74.0	24.7	1.4
	중	(544)	18.4	59.4	17.8	2.9	1.5	77.8	20.8	1.5
	하	(583)	23.3	56.8	16.1	2.4	1.4	80.1	18.5	1.4

6.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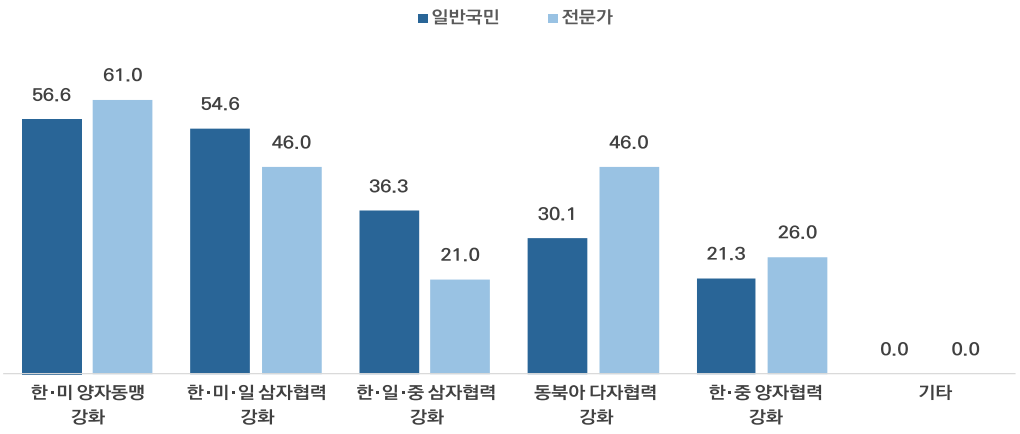
1) 1+2순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은 56.6%, 전문가는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5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5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가 4.5%p(2023년 31.8%) 증가했으며, '동북아 다자 협력 강화'는 6.5%p(2023년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6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 협력 강화'(각 4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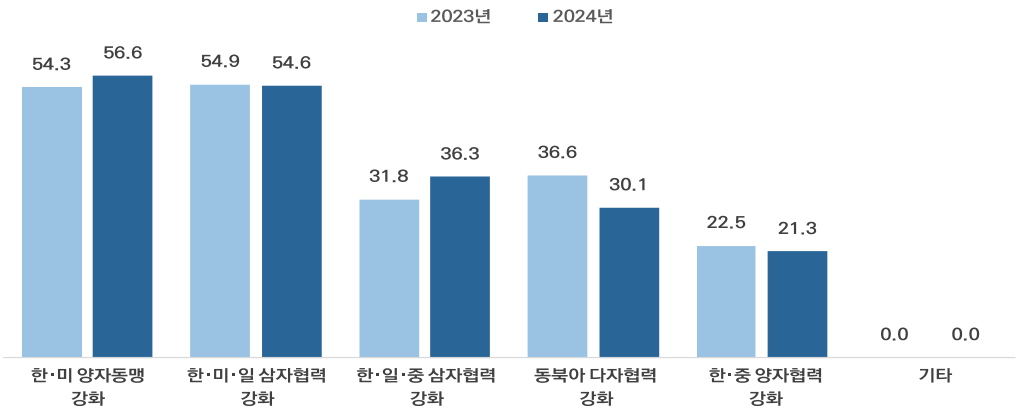
|그림 3-12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단위 : %)



|그림 3-12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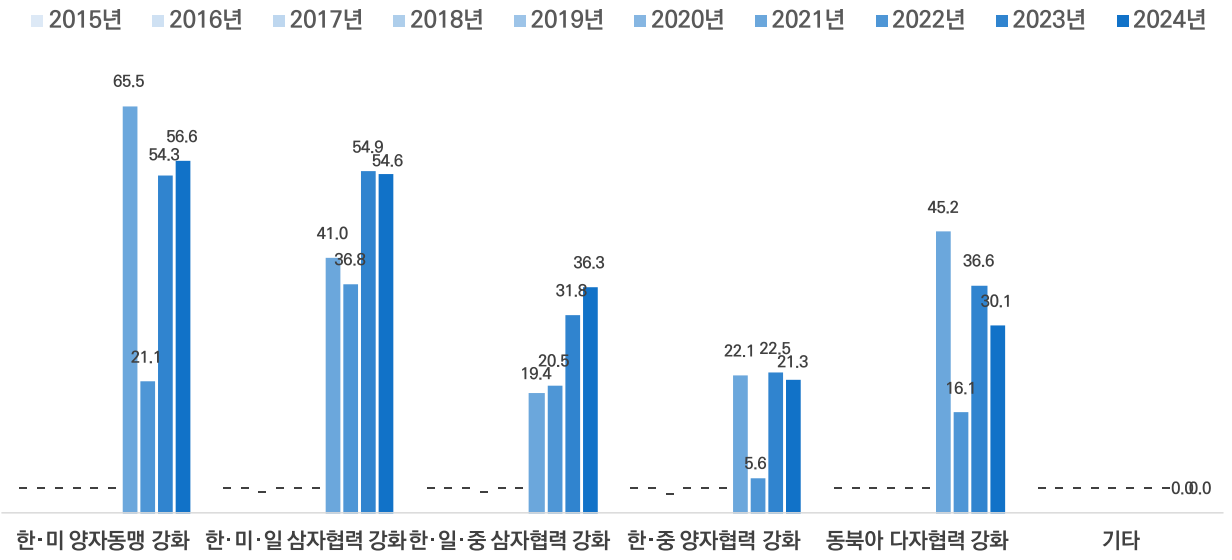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16.9%p 증가하였고,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는 1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80|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한·미 양자동맹 강화	–	–	–	–	–	–	65.5	21.1	54.3	56.6	2.3	-8.9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	–	–	–	–	–	41.0	36.8	54.9	54.6	-0.3	13.6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	–	–	–	–	–	–	19.4	20.5	31.8	36.3	4.5	16.9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	–	–	–	–	–	45.2	16.1	36.6	30.1	-6.5	-15.1
한·중 양자협력 강화	–	–	–	–	–	–	22.1	5.6	22.5	21.3	-1.2	-0.8
기타	–	–	–	–	–	–	0.0	0.0	0.0	0.0	0.0	0.0

※ 2015, 2017~2020년은 1순위만 분석하여 비교할 수 없음
※ 2016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56.9	53.9	35.1	31.3	21.6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6.6	54.6	36.3	30.1	21.3	-
	전문가	(100)	61.0	46.0	21.0	46.0	26.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4.8	58.1	36.0	28.5	21.3	-
	중	(580)	53.1	54.3	39.0	32.2	19.8	-
	하	(231)	68.4	49.4	29.9	27.3	24.7	-
성별	남성	(720)	55.6	53.8	34.2	34.6	20.6	-
	여성	(480)	58.1	55.8	39.4	23.3	22.3	-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4	55.8	34.1	24.9	23.5	-
	30대	(194)	52.6	52.1	37.1	36.6	20.1	-
	40대	(226)	56.2	56.6	36.3	30.5	19.5	-
	50대	(255)	56.9	50.2	39.6	29.8	22.4	-
	60대 이상	(308)	56.5	57.5	34.4	29.5	20.8	-
지역별	서울	(140)	65.7	46.4	32.9	39.3	13.6	-
	경기/인천	(245)	51.8	58.4	41.6	31.8	15.1	-
	부산/울산/경남	(208)	51.9	50.0	38.9	23.1	36.1	-
	대구/경북	(141)	44.0	71.6	34.8	31.9	12.8	-
	광주/전라	(170)	52.9	46.5	41.2	25.3	33.5	-
	대전/충청/세종	(205)	66.3	61.5	28.3	30.7	12.7	-
	강원/제주	(91)	70.3	40.7	31.9	31.9	25.3	-
지역크기	대도시	(524)	57.3	52.1	39.9	32.4	17.0	-
	중·소도시	(639)	55.6	55.6	33.6	28.6	25.4	-
	읍/면	(37)	64.9	73.0	29.7	21.6	10.8	-
직업별	농/어/임업	(50)	66.0	46.0	26.0	24.0	38.0	-
	자영업자	(185)	54.1	50.3	42.2	37.3	15.7	-
	판매/서비스직	(194)	54.6	58.8	39.2	24.2	21.1	-
	기능/숙련공	(127)	55.1	54.3	33.1	36.2	19.7	-
	일반 노무직	(41)	48.8	58.5	24.4	41.5	26.8	-
	사무/기술직	(283)	56.9	51.6	35.7	32.2	22.6	-
	경영/관리직	(19)	52.6	73.7	15.8	21.1	36.8	-
	전문/자유직	(7)	57.1	57.1	42.9	14.3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55.0	62.1	37.3	23.7	19.5	-
	학생	(73)	63.0	47.9	39.7	20.5	27.4	-
	무직/휴직/은퇴	(52)	69.2	53.8	32.7	36.5	7.7	-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9.3	69.5	28.8	25.4	15.3	-
	고등학교	(440)	57.5	53.0	36.4	30.7	21.6	-
	전문대	(266)	54.1	57.1	37.6	30.8	19.2	-
	4년제 대학교	(427)	56.2	52.7	36.8	29.5	23.2	-
	대학원 이상	(8)	87.5	50.0	12.5	3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56.2	54.8	39.7	26.0	23.3	-
	중	(544)	52.9	55.3	39.7	31.1	19.3	-
	하	(583)	60.0	53.9	32.6	29.7	2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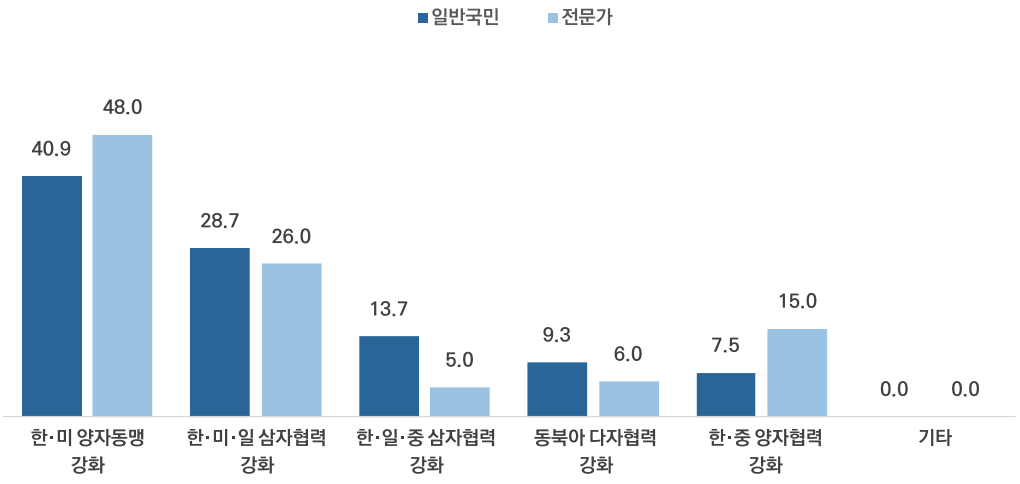
2) 1순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일반국민 40.9%, 전문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2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4.1%p(2023년 24.6%) 증가했으며, '동북아 다자 협력 강화'는 5.2%p(2023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4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2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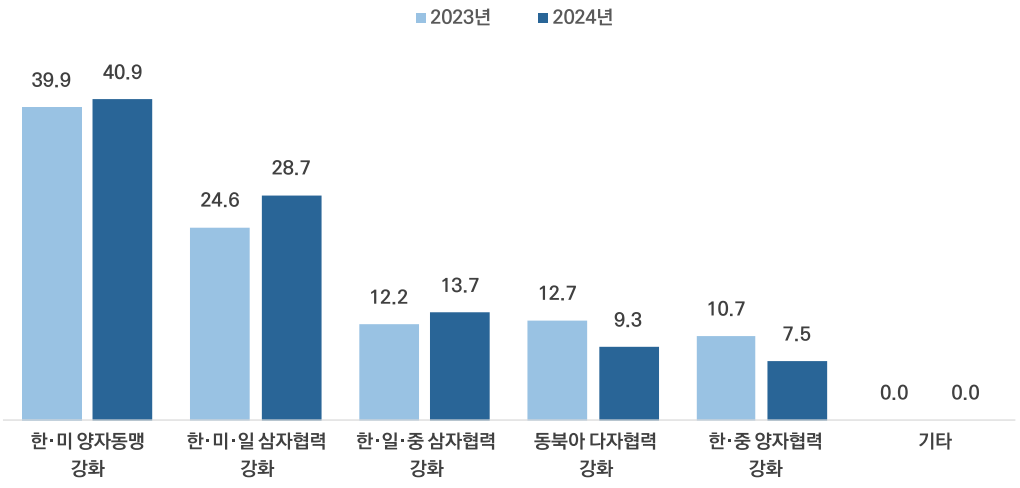
|그림 3-12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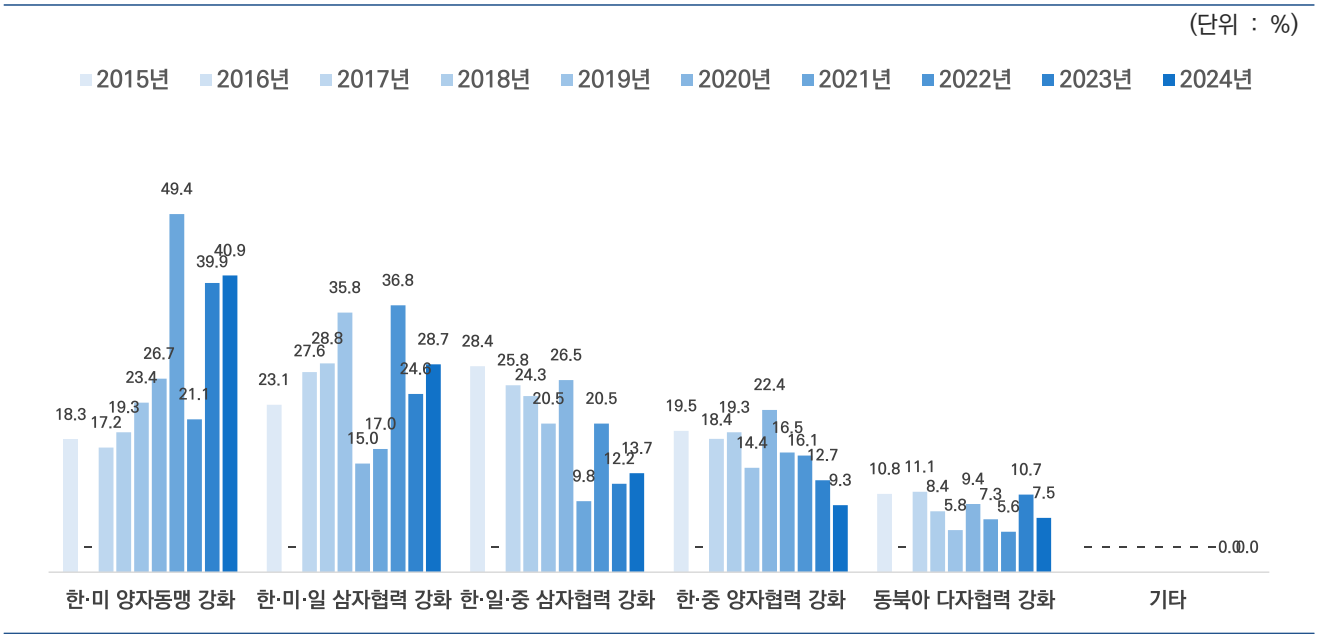
|그림 3-125|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22.6%p 증가하였고,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는 1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6|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8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한·미 양자동맹 강화	18.3	–	17.2	19.3	23.4	26.7	49.4	21.1	39.9	40.9	1.0	22.6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23.1	–	27.6	28.8	35.8	15.0	17.0	36.8	24.6	28.7	4.1	5.6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	28.4	–	25.8	24.3	20.5	26.5	9.8	20.5	12.2	13.7	1.5	-14.7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19.5	–	18.4	19.3	14.4	22.4	16.5	16.1	12.7	7.5	-5.2	-12.0
한·중 양자협력 강화	10.8	–	11.1	8.4	5.8	9.4	7.3	5.6	10.7	9.3	-1.4	-1.5
기타	–	–	–	–	–	–	–	–	0.0	0.0	0.0	–

※ 2016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83|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일·중 삼자협력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41.5	28.5	13.0	9.0	8.1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0.9	28.7	13.7	9.3	7.5	-
	전문가	(100)	48.0	26.0	5.0	6.0	15.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9.3	29.3	15.7	9.3	6.4	-
	중	(580)	38.3	31.7	14.0	8.4	7.6	-
	하	(231)	50.2	19.9	9.5	11.3	9.1	-
성별	남성	(720)	41.1	28.6	13.8	7.6	8.9	-
	여성	(480)	40.6	28.8	13.5	11.7	5.4	-
연령별	20대 이하	(217)	42.9	26.3	12.9	11.5	6.5	-
	30대	(194)	37.1	28.9	14.4	8.2	11.3	-
	40대	(226)	41.6	31.0	11.9	8.4	7.1	-
	50대	(255)	39.6	27.8	17.3	9.8	5.5	-
	60대 이상	(308)	42.5	29.2	12.0	8.4	7.8	-
지역별	서울	(140)	45.7	22.1	15.0	5.0	12.1	-
	경기/인천	(245)	31.8	38.8	16.7	4.1	8.6	-
	부산/울산/경남	(208)	39.9	20.7	13.0	21.6	4.8	-
	대구/경북	(141)	31.2	39.0	16.3	7.8	5.7	-
	광주/전라	(170)	35.3	28.8	14.1	12.9	8.8	-
	대전/충청/세종	(205)	50.7	28.8	8.3	4.9	7.3	-
	강원/제주	(91)	63.7	13.2	12.1	6.6	4.4	-
지역크기	대도시	(524)	41.8	27.1	14.1	8.6	8.4	-
	중·소도시	(639)	39.9	29.4	13.6	10.3	6.7	-
	읍/면	(37)	45.9	37.8	8.1	-	8.1	-
직업별	농/어/임업	(50)	50.0	22.0	4.0	14.0	10.0	-
	자영업자	(185)	38.9	29.7	16.8	5.9	8.6	-
	판매/서비스직	(194)	36.1	32.5	13.4	10.8	7.2	-
	기능/숙련공	(127)	41.7	28.3	13.4	6.3	10.2	-
	일반 노무직	(41)	36.6	36.6	7.3	9.8	9.8	-
	사무/기술직	(283)	41.0	28.3	14.1	9.5	7.1	-
	경영/관리직	(19)	31.6	26.3	10.5	26.3	5.3	-
	전문/자유직	(7)	57.1	-	28.6	-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40.8	32.5	10.7	10.1	5.9	-
	학생	(73)	46.6	17.8	17.8	12.3	5.5	-
	무직/휴직/은퇴	(52)	51.9	21.2	19.2	3.8	3.8	-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2.4	40.7	6.8	3.4	6.8	-
	고등학교	(440)	42.5	28.9	11.1	9.8	7.7	-
	전문대	(266)	37.6	31.2	15.8	9.0	6.4	-
	4년제 대학교	(427)	40.7	25.3	15.9	9.8	8.2	-
	대학원 이상	(8)	62.5	25.0	12.5	-	-	-
생활수준별	상	(73)	31.5	23.3	27.4	6.8	11.0	-
	중	(544)	38.8	30.3	14.3	9.2	7.4	-
	하	(583)	44.1	27.8	11.3	9.6	7.2	-

7.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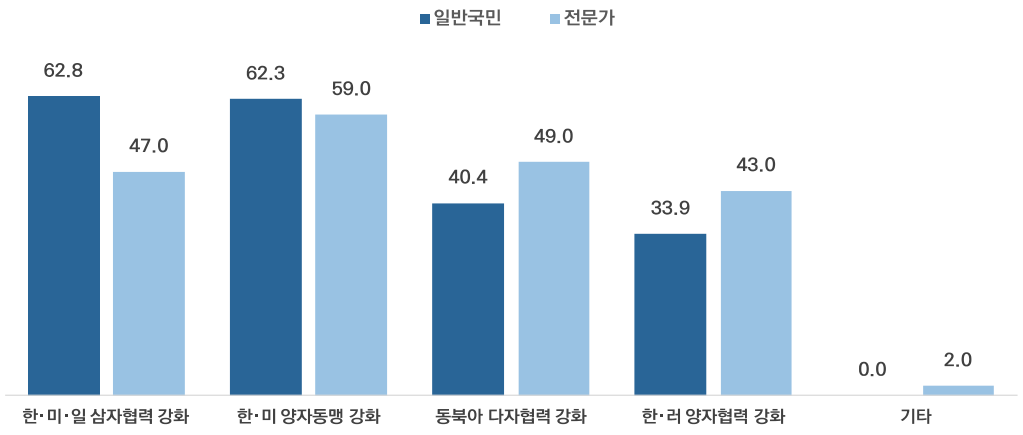
1) 1+2순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일반국민은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62.8%, 전문가는 '한·미 양자동맹 강화'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6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6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러 양자협력 강화'가 6.6%p(2023년 27.3%) 증가했으며,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라는 비율은 9.4%p(2023년 4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5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4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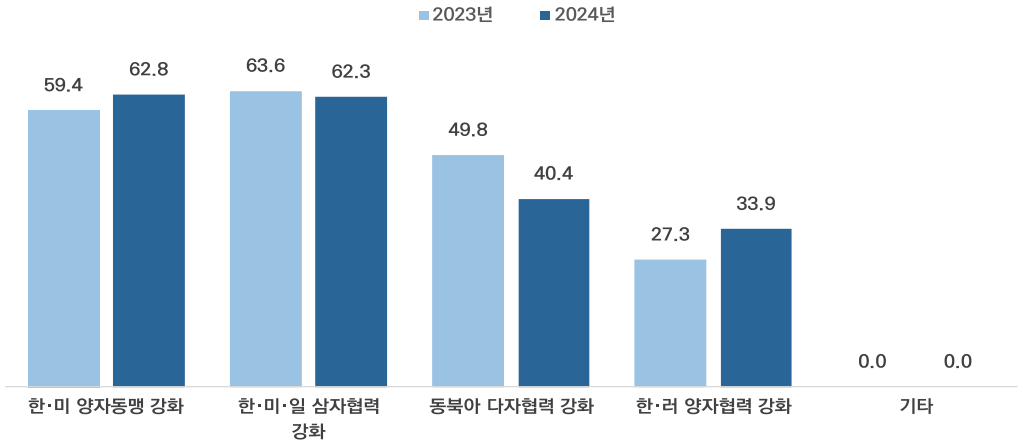
|그림 3-127|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단위 : %)



|그림 3-128|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2023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비교분석만 실시(연도별 비교분석 제외)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4|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러 양자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62.0	61.6	41.1	34.6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2.3	62.8	40.4	33.9	-
	전문가	(100)	59.0	47.0	49.0	43.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8.1	64.5	40.4	36.0	-
	중	(580)	61.9	64.3	41.0	32.2	-
	하	(231)	70.1	56.3	39.0	34.6	-
성별	남성	(720)	62.9	63.8	39.0	33.6	-
	여성	(480)	61.3	61.5	42.5	34.4	-
연령별	20대 이하	(217)	62.7	62.7	40.6	33.6	-
	30대	(194)	63.4	59.8	43.8	33.0	-
	40대	(226)	57.5	65.5	38.9	37.2	-
	50대	(255)	65.9	62.7	39.2	32.2	-
	60대 이상	(308)	61.7	63.0	40.3	33.8	-
지역별	서울	(140)	68.6	66.4	37.9	25.7	-
	경기/인천	(245)	59.2	67.8	46.1	26.9	-
	부산/울산/경남	(208)	50.0	62.0	41.3	45.7	-
	대구/경북	(141)	61.7	76.6	41.8	19.1	-
	광주/전라	(170)	60.6	47.1	41.8	50.6	-
	대전/충청/세종	(205)	68.3	69.3	31.2	30.7	-
	강원/제주	(91)	79.1	39.6	42.9	37.4	-
지역크기	대도시	(524)	62.8	65.3	41.0	30.3	-
	중·소도시	(639)	61.5	60.4	40.1	37.6	-
	읍/면	(37)	67.6	70.3	37.8	21.6	-
직업별	농/어/임업	(50)	74.0	52.0	36.0	36.0	-
	자영업자	(185)	60.5	65.4	43.2	30.8	-
	판매/서비스직	(194)	61.3	65.5	38.1	34.5	-
	기능/숙련공	(127)	52.8	61.4	47.2	38.6	-
	일반 노무직	(41)	70.7	56.1	29.3	41.5	-
	사무/기술직	(283)	64.7	62.5	38.9	33.2	-
	경영/관리직	(19)	57.9	57.9	31.6	52.6	-
	전문/자유직	(7)	71.4	28.6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61.5	62.1	42.6	32.5	-
	학생	(73)	63.0	63.0	39.7	34.2	-
	무직/휴직/은퇴	(52)	65.4	73.1	36.5	25.0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6.1	71.2	32.2	25.4	-
	고등학교	(440)	61.8	60.0	43.9	33.9	-
	전문대	(266)	58.3	68.0	40.2	33.1	-
	4년제 대학교	(427)	65.1	61.4	37.2	36.1	-
	대학원 이상	(8)	37.5	62.5	8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61.6	57.5	43.8	35.6	-
	중	(544)	60.8	66.4	40.8	32.0	-
	하	(583)	63.6	60.2	39.6	3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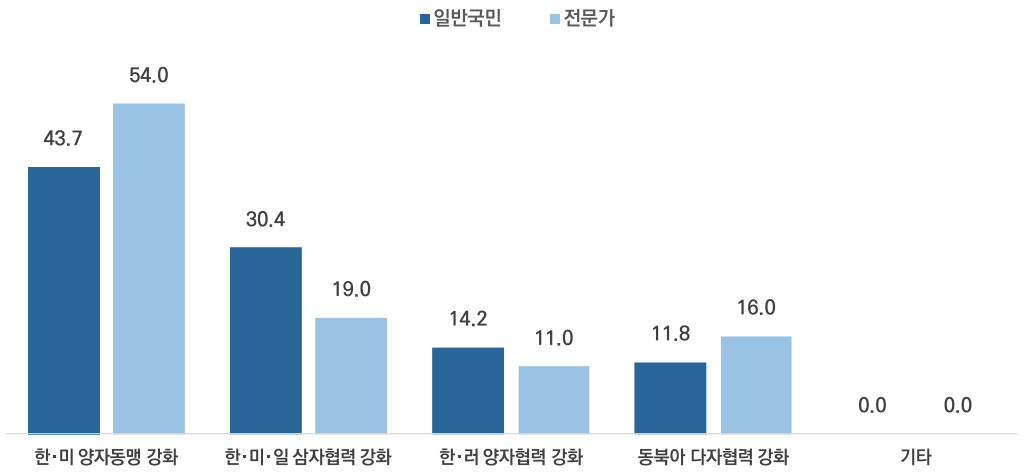
2) 1순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일반국민은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일반국민 43.7%, 전문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4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3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3.2%p(2023년 27.2%) 증가했으며, '한·러 양자협력 강화'라는 비율은 3.6%p(2023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1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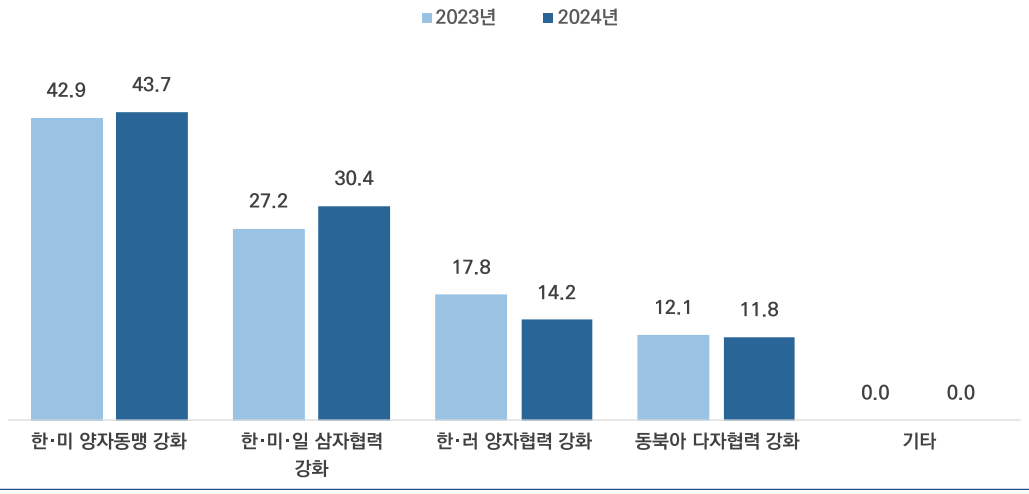
|그림 3-129|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단위 : %)



|그림 3-130|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2023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비교분석만 실시(연도별 비교분석 제외)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85|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러 양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44.5	29.5	13.9	12.1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7	30.4	14.2	11.8	-
	전문가	(100)	54.0	19.0	11.0	16.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9.6	35.0	12.9	12.6	-
	중	(580)	43.3	31.2	14.0	11.6	-
	하	(231)	51.5	20.8	16.9	10.8	-
성별	남성	(720)	43.8	31.3	13.2	11.8	-
	여성	(480)	43.5	29.2	15.6	11.7	-
연령별	20대 이하	(217)	45.2	24.9	17.1	12.9	-
	30대	(194)	45.4	26.8	14.9	12.9	-
	40대	(226)	42.0	34.5	14.6	8.8	-
	50대	(255)	43.1	32.9	11.8	12.2	-
	60대 이상	(308)	43.2	31.5	13.3	12.0	-
지역별	서울	(140)	53.6	27.1	8.6	10.7	-
	경기/인천	(245)	35.5	42.9	9.4	12.2	-
	부산/울산/경남	(208)	35.1	30.3	21.6	13.0	-
	대구/경북	(141)	43.3	33.3	12.8	10.6	-
	광주/전라	(170)	37.6	22.9	19.4	20.0	-
	대전/충청/세종	(205)	46.8	31.2	13.7	8.3	-
	강원/제주	(91)	74.7	9.9	12.1	3.3	-
지역크기	대도시	(524)	45.0	28.6	12.2	14.1	-
	중·소도시	(639)	42.6	31.6	16.4	9.4	-
	읍/면	(37)	43.2	35.1	2.7	18.9	-
직업별	농/어/임업	(50)	48.0	26.0	18.0	8.0	-
	자영업자	(185)	40.0	36.2	11.9	11.9	-
	판매/서비스직	(194)	42.8	29.4	17.0	10.8	-
	기능/숙련공	(127)	38.6	32.3	11.8	17.3	-
	일반 노무직	(41)	51.2	22.0	14.6	12.2	-
	사무/기술직	(283)	45.6	32.2	14.1	8.1	-
	경영/관리직	(19)	52.6	26.3	21.1	-	-
	전문/자유직	(7)	57.1	-	14.3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44.4	29.0	13.0	13.6	-
	학생	(73)	39.7	20.5	19.2	20.5	-
	무직/휴직/은퇴	(52)	50.0	34.6	7.7	7.7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7.5	35.6	6.8	10.2	-
	고등학교	(440)	43.2	28.6	15.0	13.2	-
	전문대	(266)	39.8	34.2	12.0	13.9	-
	4년제 대학교	(427)	46.1	29.0	15.9	8.9	-
	대학원 이상	(8)	37.5	37.5	-	25.0	-
생활수준별	상	(73)	39.7	35.6	16.4	8.2	-
	중	(544)	43.6	31.4	13.1	11.9	-
	하	(583)	44.3	28.8	14.9	12.0	-

Ⅲ.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

1. 한·미동맹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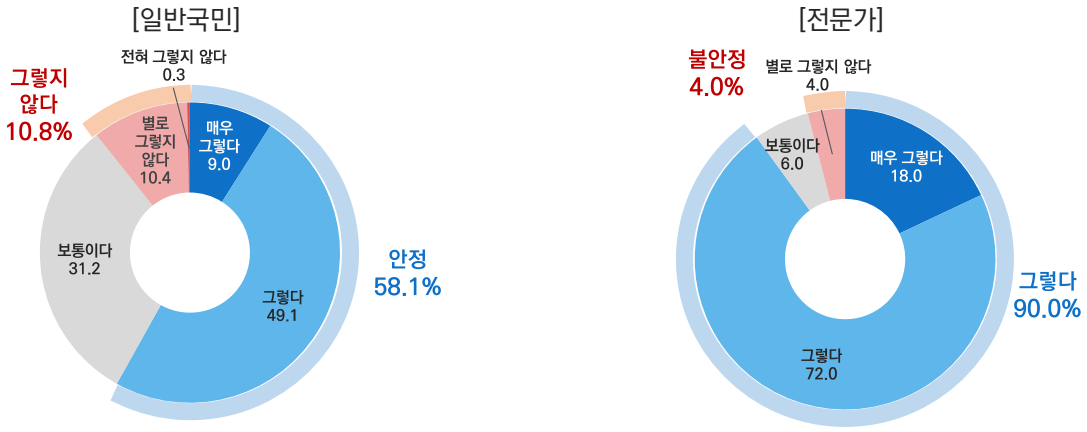
1)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현재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58.1%, 전문가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그렇지 않다'(10.8%)보다 4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미동맹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응답 비율이 4.5%p(2023년 62.6%)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4.4%p(2023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90.0%로 '그렇지 않다'(4.0%)보다 86.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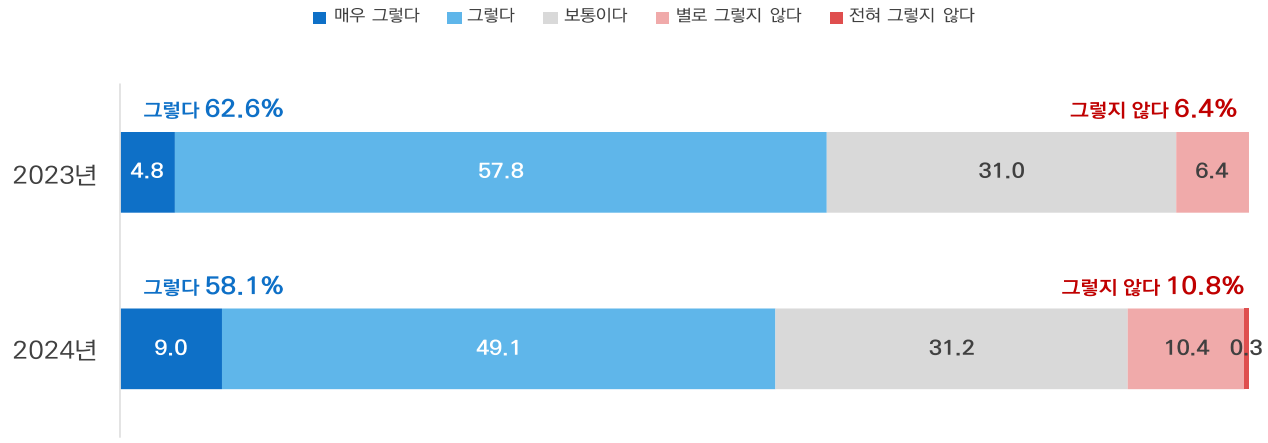
|그림 3-131|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단위 : %)



|그림 3-132|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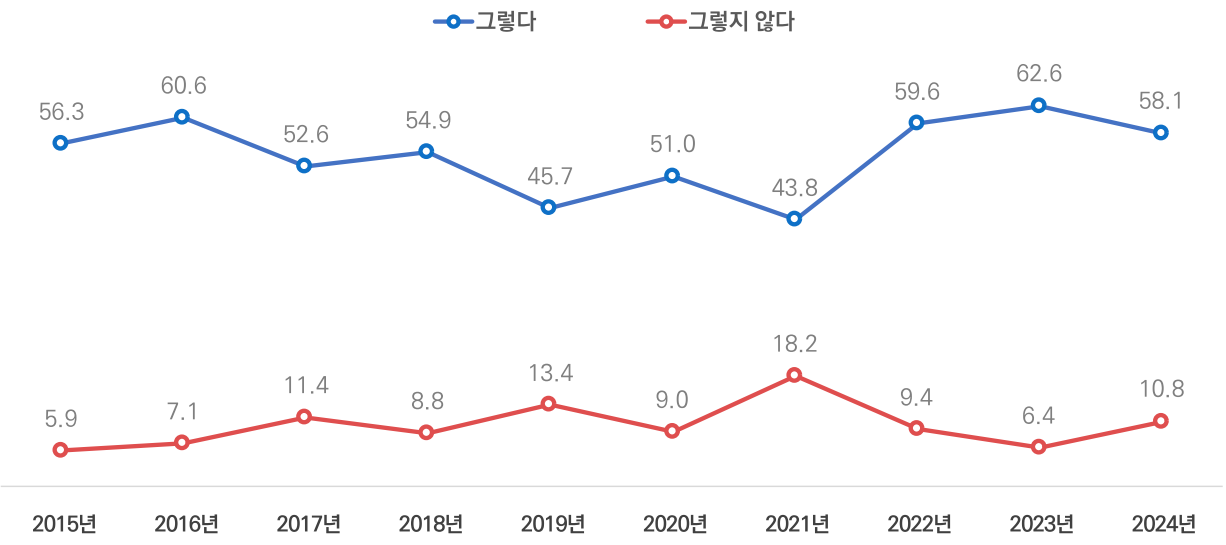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한·미동맹의 관계가 '굳건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3|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86|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4.2	7.1	4.3	6.1	2.3	3.2	8.1	5.3	4.8	9.0	4.2	4.8
그렇다	52.1	53.5	48.3	48.8	43.4	47.8	35.7	54.3	57.8	49.1	-8.7	-3.0
보통이다	37.9	32.3	36.0	36.3	40.9	40.0	38.1	31.0	31.0	31.2	0.2	-6.7
별로 그렇지 않다	5.6	6.7	11.1	8.5	11.8	8.7	16.1	9.3	6.4	10.4	4.0	4.8
전혀 그렇지 않다	0.3	0.4	0.3	0.3	1.6	0.3	2.1	0.1	0.0	0.3	0.3	0.0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56.3	60.6	52.6	54.9	45.7	51.0	43.8	59.6	62.6	58.1	-4.5	1.8
그렇지 않다	5.9	7.1	11.4	8.8	13.4	9.0	18.2	9.4	6.4	10.8	4.4	4.9

한·미 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일반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7|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9.7	50.8	29.2	9.9	0.3	60.5	29.2	1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0	49.1	31.2	10.4	0.3	58.1	31.2	10.8
	전문가	(100)	18.0	72.0	6.0	4.0	-	90.0	6.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1.8	48.1	30.6	9.3	0.3	59.9	30.6	9.5
	중	(580)	7.2	49.1	33.3	10.2	0.2	56.4	33.3	10.3
	하	(231)	8.7	50.6	26.8	13.0	0.9	59.3	26.8	13.9
성별	남성	(720)	8.6	48.9	31.7	10.6	0.3	57.5	31.7	10.8
	여성	(480)	9.6	49.4	30.4	10.2	0.4	59.0	30.4	10.6
연령별	20대 이하	(217)	5.1	48.8	34.6	10.6	0.9	53.9	34.6	11.5
	30대	(194)	6.2	47.4	30.9	14.9	0.5	53.6	30.9	15.5
	40대	(226)	11.1	42.9	33.6	12.4	-	54.0	33.6	12.4
	50대	(255)	9.4	48.6	32.9	9.0	-	58.0	32.9	9.0
	60대 이상	(308)	11.7	55.2	25.6	7.1	0.3	66.9	25.6	7.5
지역별	서울	(140)	2.1	47.1	35.7	15.0	-	49.3	35.7	15.0
	경기/인천	(245)	5.7	52.7	29.0	12.7	-	58.4	29.0	12.7
	부산/울산/경남	(208)	10.6	65.9	18.8	4.8	-	76.4	18.8	4.8
	대구/경북	(141)	15.6	46.1	30.5	6.4	1.4	61.7	30.5	7.8
	광주/전라	(170)	1.8	30.6	54.1	13.5	-	32.4	54.1	13.5
	대전/충청/세종	(205)	16.6	46.8	23.9	12.2	0.5	63.4	23.9	12.7
	강원/제주	(91)	11.0	48.4	33.0	6.6	1.1	59.3	33.0	7.7
지역크기	대도시	(524)	7.6	50.0	30.2	11.8	0.4	57.6	30.2	12.2
	중·소도시	(639)	10.3	48.8	31.6	8.9	0.3	59.2	31.6	9.2
	읍/면	(37)	5.4	40.5	37.8	16.2	-	45.9	37.8	16.2
직업별	농/어/임업	(50)	10.0	54.0	30.0	4.0	2.0	64.0	30.0	6.0
	자영업자	(185)	7.6	45.9	33.5	13.0	-	53.5	33.5	13.0
	판매/서비스직	(194)	7.2	50.5	32.0	9.8	0.5	57.7	32.0	10.3
	기능/숙련공	(127)	9.4	48.8	34.6	7.1	-	58.3	34.6	7.1
	일반 노무직	(41)	24.4	51.2	17.1	7.3	-	75.6	17.1	7.3
	사무/기술직	(283)	8.1	50.5	28.6	12.4	0.4	58.7	28.6	12.7
	경영/관리직	(19)	5.3	68.4	21.1	5.3	-	73.7	21.1	5.3
	전문/자유직	(7)	-	71.4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1.2	49.7	29.0	10.1	-	60.9	29.0	10.1
	학생	(73)	4.1	41.1	38.4	15.1	1.4	45.2	38.4	16.4
	무직/휴직/은퇴	(52)	13.5	40.4	38.5	7.7	-	53.8	38.5	7.7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57.6	23.7	8.5	-	67.8	23.7	8.5
	고등학교	(440)	12.3	48.2	31.4	8.2	-	60.5	31.4	8.2
	전문대	(266)	4.9	52.6	33.1	9.0	0.4	57.5	33.1	9.4
	4년제 대학교	(427)	8.2	46.6	30.7	14.1	0.5	54.8	30.7	14.5
	대학원 이상	(8)	-	50.0	37.5	-	12.5	50.0	37.5	12.5
생활수준별	상	(73)	8.2	37.0	41.1	12.3	1.4	45.2	41.1	13.7
	중	(544)	8.5	51.8	30.1	9.6	-	60.3	30.1	9.6
	하	(583)	9.6	48.0	30.9	11.0	0.5	57.6	30.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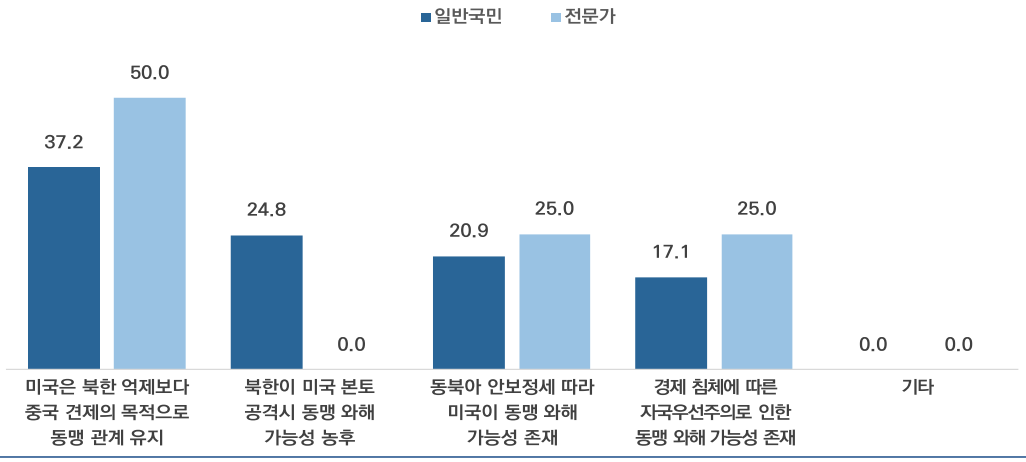
2)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7.2%, 전문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 관계 유지'가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시 동맹 와해 가능성 농후'(24.8%), '동북아 안보정세 따라 미국이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시 동맹 와해 가능성 농후' 응답 비율이 11.8%p(2023년 13.0%) 감소했으며, '경제 침체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는 12.8%p(2023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 관계 유지'가 50.0%로 가장 높고, '동북아 안보정세 따라 미국이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 '경제 침체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라는 응답(각 25.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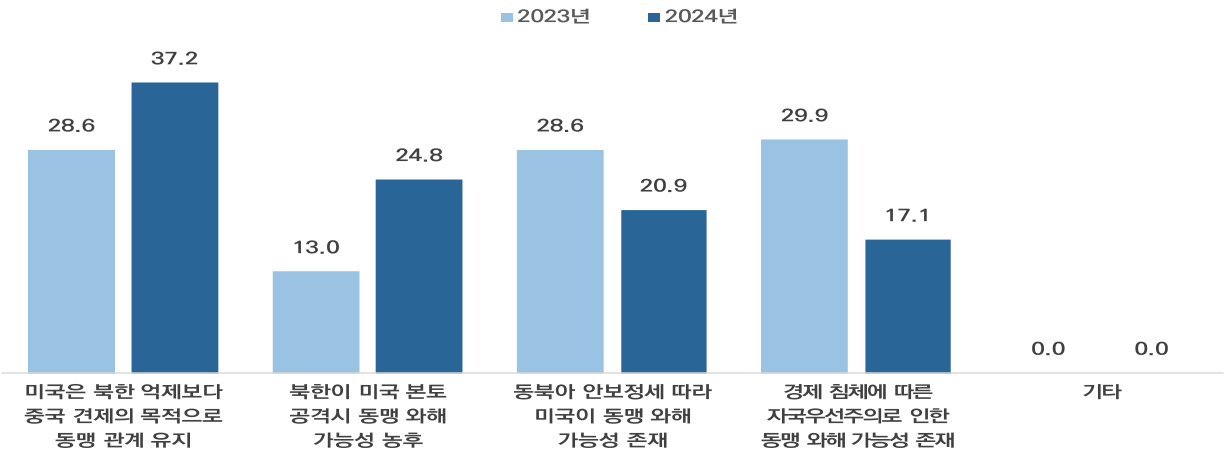
|그림 3-134|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그림 3-135|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관계 유지'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8|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 관계 유지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시 동맹 와해 가능성 농후	동북아 안보정세 따라 미국이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	경제 블록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	기타
전체		(133)	37.6	24.1	21.1	17.3	-
대상별	일반국민	(129)	37.2	24.8	20.9	17.1	-
	전문가	(4)	50.0	-	25.0	25.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7)	40.5	40.5	8.1	10.8	-
	중	(60)	36.7	16.7	31.7	15.0	-
	하	(32)	34.4	21.9	15.6	28.1	-
성별	남성	(78)	37.2	24.4	21.8	16.7	-
	여성	(51)	37.3	25.5	19.6	17.6	-
연령별	20대 이하	(25)	36.0	36.0	12.0	16.0	-
	30대	(30)	36.7	23.3	30.0	10.0	-
	40대	(28)	39.3	10.7	25.0	25.0	-
	50대	(23)	34.8	26.1	21.7	17.4	-
	60대 이상	(23)	39.1	30.4	13.0	17.4	-
지역별	서울	(21)	4.8	28.6	57.1	9.5	-
	경기/인천	(31)	67.7	29.0	-	3.2	-
	부산/울산/경남	(10)	40.0	30.0	20.0	10.0	-
	대구/경북	(11)	36.4	27.3	18.2	18.2	-
	광주/전라	(23)	34.8	34.8	4.3	26.1	-
	대전/충청/세종	(26)	30.8	7.7	38.5	23.1	-
	강원/제주	(7)	28.6	14.3	-	57.1	-
지역크기	대도시	(64)	32.8	29.7	25.0	12.5	-
	중·소도시	(59)	40.7	20.3	15.3	23.7	-
	읍/면	(6)	50.0	16.7	33.3	-	-
직업별	농/어/임업	(3)	-	33.3	-	66.7	-
	자영업자	(24)	33.3	29.2	12.5	25.0	-
	판매/서비스직	(20)	35.0	20.0	35.0	10.0	-
	기능/숙련공	(9)	44.4	22.2	22.2	11.1	-
	일반 노무직	(3)	-	33.3	33.3	33.3	-
	사무/기술직	(36)	47.2	16.7	19.4	16.7	-
	경영/관리직	(1)	100.0	-	-	-	-
	전문/자유직	(-)	-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7)	29.4	29.4	29.4	11.8	-
	학생	(12)	33.3	41.7	8.3	16.7	-
	무직/휴직/은퇴	(4)	50.0	25.0	25.0	-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	40.0	40.0	-	20.0	-
	고등학교	(36)	36.1	27.8	19.4	16.7	-
	전문대	(25)	28.0	16.0	32.0	24.0	-
	4년제 대학교	(62)	40.3	25.8	19.4	14.5	-
	대학원 이상	(1)	100.0	-	-	-	-
생활수준별	상	(10)	30.0	40.0	30.0	-	-
	중	(52)	25.0	26.9	23.1	25.0	-
	하	(67)	47.8	20.9	17.9	13.4	-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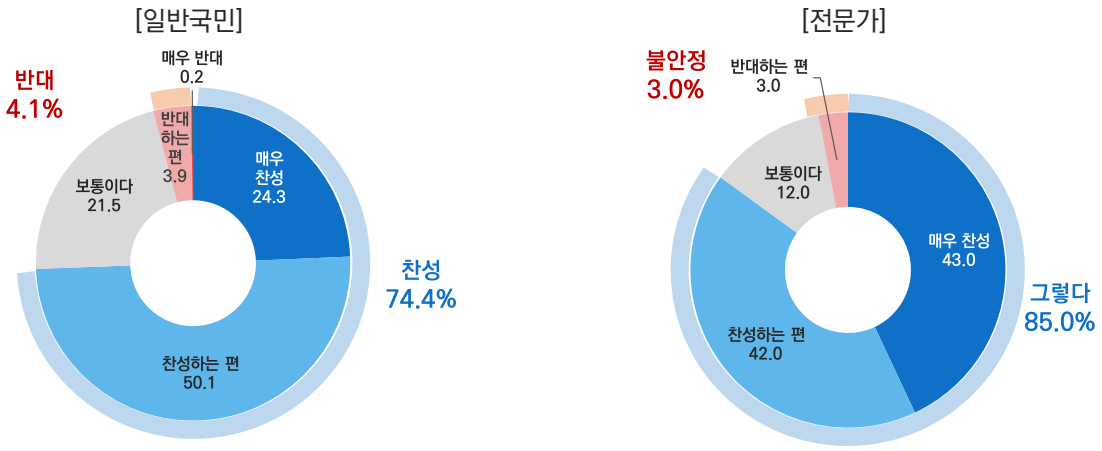
1)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74.4%,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74.4%로 '반대'(4.1%)보다 70.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한다는 비율은 0.3%p(2023년 74.1%) 증가했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1.1%p(2023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85.0%로 '반대'(3.0%)보다 82.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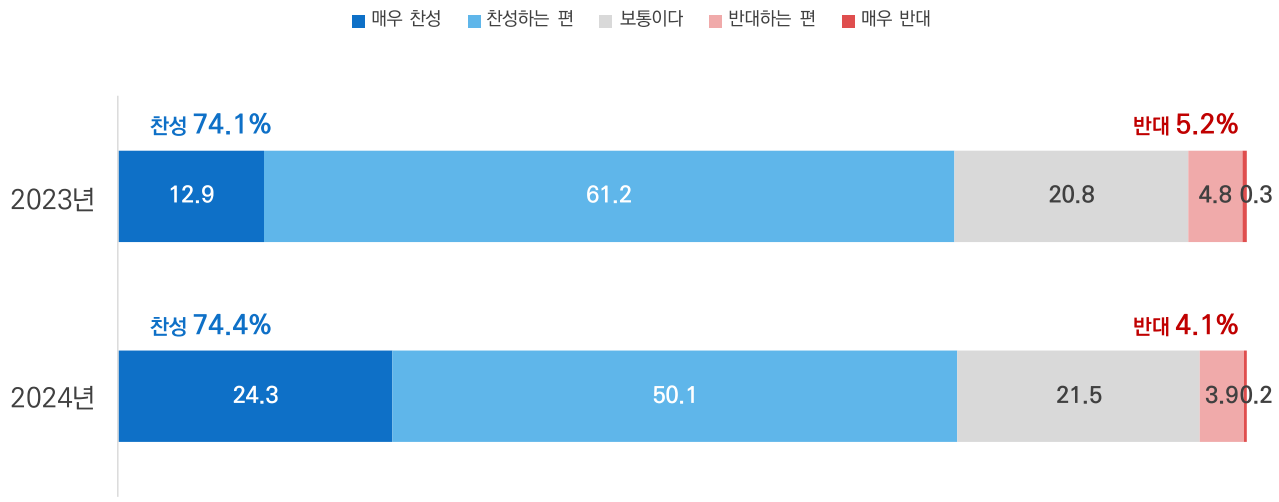
|그림 3-13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

(단위 : %)



|그림 3-137|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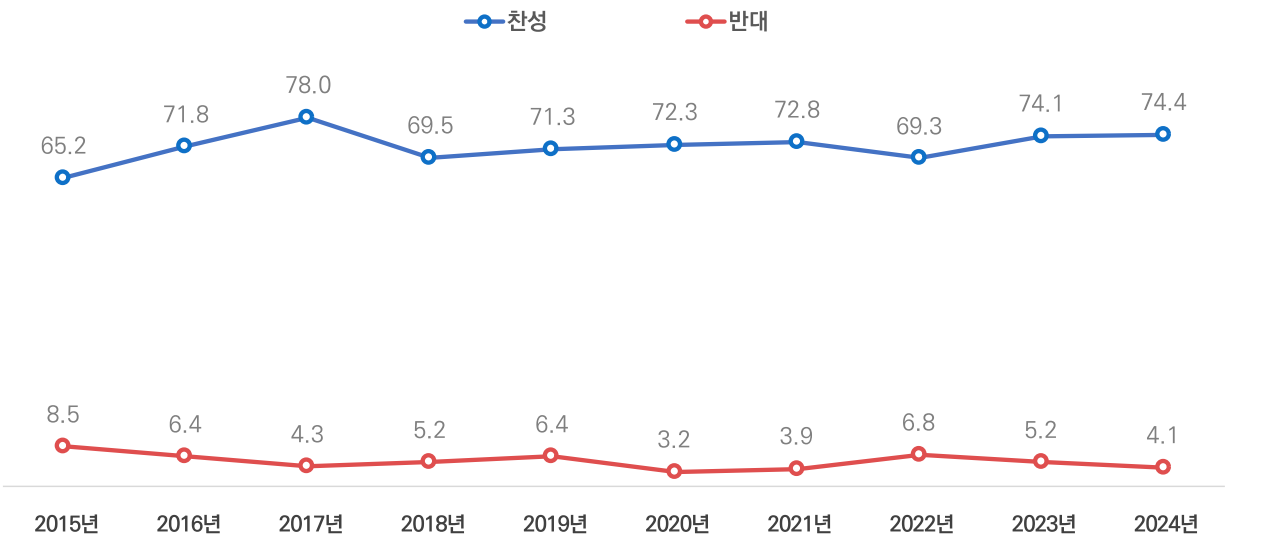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9.2%p 증가했으며, '반대'는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8|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89|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	15.8	18.3	24.3	17.3	14.3	11.1	25.6	10.3	12.9	24.3	11.4	8.5
찬성하는 편	49.3	53.6	53.7	52.3	56.9	61.2	47.3	58.9	61.2	50.1	-11.1	0.8
보통이다	26.3	21.8	17.8	25.3	22.3	24.6	23.3	24.0	20.8	21.5	0.7	-4.8
반대하는 편	7.3	6.1	4.1	4.6	6.2	3.2	3.3	6.7	4.8	3.9	-0.9	-3.4
매우 반대	1.3	0.3	0.2	0.6	0.3	0.0	0.6	0.1	0.3	0.2	-0.1	-1.1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65.2	71.8	78.0	69.5	71.3	72.3	72.8	69.3	74.1	74.4	0.3	9.2
반대	8.5	6.4	4.3	5.2	6.4	3.2	3.9	6.8	5.2	4.1	-1.1	-4.4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0|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1) 군사 동맹 강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25.8	49.5	20.8	3.8	0.2	75.2	20.8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3	50.1	21.5	3.9	0.2	74.4	21.5	4.1
	전문가	(100)	43.0	42.0	12.0	3.0	-	85.0	12.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2.1	46.0	18.8	2.8	0.3	78.1	18.8	3.1
	중	(580)	20.9	51.9	23.6	3.4	0.2	72.8	23.6	3.6
	하	(231)	19.9	52.4	20.8	6.9	-	72.3	20.8	6.9
성별	남성	(720)	25.6	47.1	22.5	4.6	0.3	72.6	22.5	4.9
	여성	(480)	22.5	54.6	20.0	2.9	-	77.1	20.0	2.9
연령별	20대 이하	(217)	19.4	51.6	23.5	5.1	0.5	71.0	23.5	5.5
	30대	(194)	24.2	46.9	25.3	3.6	-	71.1	25.3	3.6
	40대	(226)	23.0	52.2	20.4	4.4	-	75.2	20.4	4.4
	50대	(255)	26.3	49.8	19.2	4.3	0.4	76.1	19.2	4.7
	60대 이상	(308)	27.3	49.7	20.5	2.6	-	76.9	20.5	2.6
지역별	서울	(140)	27.1	52.1	17.1	3.6	-	79.3	17.1	3.6
	경기/인천	(245)	15.1	51.4	32.2	0.8	0.4	66.5	32.2	1.2
	부산/울산/경남	(208)	24.5	54.3	19.7	1.4	-	78.8	19.7	1.4
	대구/경북	(141)	24.1	53.2	14.9	7.8	-	77.3	14.9	7.8
	광주/전라	(170)	21.2	53.5	20.6	4.7	-	74.7	20.6	4.7
	대전/충청/세종	(205)	33.2	37.1	21.0	8.3	0.5	70.2	21.0	8.8
	강원/제주	(91)	30.8	51.6	16.5	1.1	-	82.4	16.5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22.9	52.5	21.0	3.6	-	75.4	21.0	3.6
	중·소도시	(639)	24.4	49.1	22.2	3.9	0.3	73.6	22.2	4.2
	읍/면	(37)	43.2	32.4	16.2	8.1	-	75.7	16.2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24.0	52.0	14.0	10.0	-	76.0	14.0	10.0
	자영업자	(185)	24.3	53.0	20.0	2.2	0.5	77.3	20.0	2.7
	판매/서비스직	(194)	20.6	55.2	19.1	5.2	-	75.8	19.1	5.2
	기능/숙련공	(127)	29.9	37.0	26.8	6.3	-	66.9	26.8	6.3
	일반 노무직	(41)	34.1	34.1	24.4	7.3	-	68.3	24.4	7.3
	사무/기술직	(283)	20.1	51.2	25.4	3.2	-	71.4	25.4	3.2
	경영/관리직	(19)	31.6	52.6	10.5	5.3	-	84.2	10.5	5.3
	전문/자유직	(7)	14.3	42.9	28.6	14.3	-	57.1	28.6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9.6	52.1	16.6	1.8	-	81.7	16.6	1.8
	학생	(73)	21.9	50.7	23.3	2.7	1.4	72.6	23.3	4.1
	무직/휴직/은퇴	(52)	25.0	50.0	23.1	1.9	-	75.0	23.1	1.9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0.5	50.8	11.9	6.8	-	81.4	11.9	6.8
	고등학교	(440)	25.0	48.4	23.4	3.2	-	73.4	23.4	3.2
	전문대	(266)	24.1	51.5	19.9	4.5	-	75.6	19.9	4.5
	4년제 대학교	(427)	23.2	51.3	21.1	4.0	0.5	74.5	21.1	4.4
	대학원 이상	(8)	12.5	25.0	62.5	-	-	37.5	62.5	-
생활수준별	상	(73)	23.3	45.2	23.3	8.2	-	68.5	23.3	8.2
	중	(544)	23.9	50.0	22.2	3.5	0.4	73.9	22.2	3.9
	하	(583)	24.9	50.8	20.6	3.8	-	75.6	20.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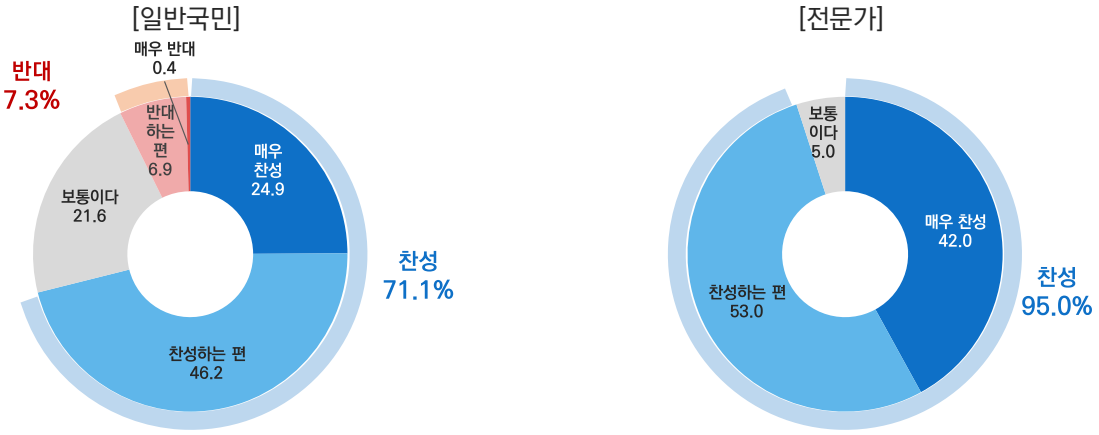
2)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71.1%,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71.1%로 '반대'(7.3%)보다 56.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한다는 비율은 6.0%p(2023년 65.1%) 증가했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1.5%p(2023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이 95.0%(매우 찬성 42.0% + 찬성하는 편 53.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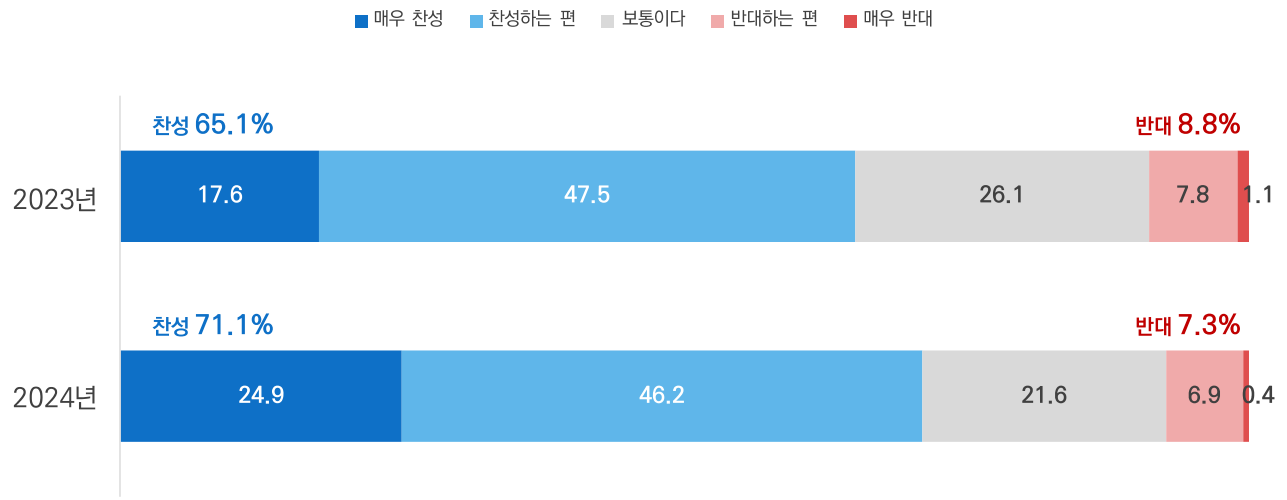
|그림 3-139|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단위 : %)



|그림 3-140|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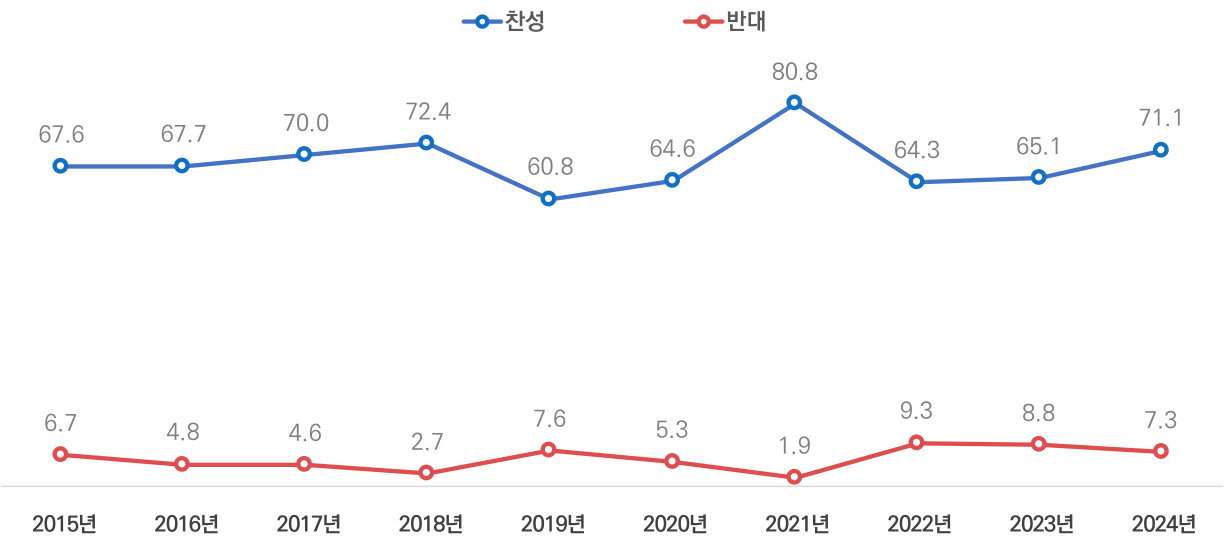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3.5%p 증가했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9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	16.4	19.3	24.8	20.0	17.9	17.4	28.1	16.8	17.6	24.9	7.3	8.5
찬성하는 편	51.2	48.4	45.3	52.4	42.8	47.2	52.7	47.4	47.5	46.2	-1.3	-5.0
보통이다	25.8	27.6	25.4	24.9	31.7	30.1	17.3	26.5	26.1	21.6	-4.5	-4.2
반대하는 편	5.1	4.1	4.5	2.3	6.9	5.3	1.9	7.9	7.8	6.9	-0.9	1.8
매우 반대	1.6	0.7	0.1	0.3	0.7	0.1	0.0	1.3	1.1	0.4	-0.7	-1.2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67.6	67.7	70.0	72.4	60.8	64.6	80.8	64.3	65.1	71.1	6.0	3.5
반대	6.7	4.8	4.6	2.7	7.6	5.3	1.9	9.3	8.8	7.3	-1.5	0.6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편임

|표 3-9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26.2	46.7	20.3	6.4	0.4	72.9	20.3	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9	46.2	21.6	6.9	0.4	71.1	21.6	7.3
	전문가	(100)	42.0	53.0	5.0	–	–	95.0	5.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9.0	46.0	17.2	7.2	0.5	75.1	17.2	7.7
	중	(580)	22.6	45.5	25.5	6.2	0.2	68.1	25.5	6.4
	하	(231)	23.8	48.1	19.0	8.2	0.9	71.9	19.0	9.1
성별	남성	(720)	26.1	44.7	21.5	7.2	0.4	70.8	21.5	7.6
	여성	(480)	23.1	48.3	21.7	6.5	0.4	71.5	21.7	6.9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9	49.3	23.5	7.8	0.5	68.2	23.5	8.3
	30대	(194)	22.7	44.3	25.3	6.7	1.0	67.0	25.3	7.7
	40대	(226)	27.0	44.7	22.6	5.8	–	71.7	22.6	5.8
	50대	(255)	29.0	43.5	18.0	9.4	–	72.5	18.0	9.4
	60대 이상	(308)	25.6	48.4	20.1	5.2	0.6	74.0	20.1	5.8
지역별	서울	(140)	13.6	42.1	40.0	4.3	–	55.7	40.0	4.3
	경기/인천	(245)	16.7	55.1	22.9	5.3	–	71.8	22.9	5.3
	부산/울산/경남	(208)	28.4	48.1	17.8	5.8	–	76.4	17.8	5.8
	대구/경북	(141)	31.2	42.6	15.6	9.2	1.4	73.8	15.6	10.6
	광주/전라	(170)	24.7	46.5	19.4	9.4	–	71.2	19.4	9.4
	대전/충청/세종	(205)	28.8	38.5	20.0	11.2	1.5	67.3	20.0	12.7
	강원/제주	(91)	38.5	46.2	15.4	–	–	84.6	15.4	–
지역크기	대도시	(524)	22.3	44.7	25.6	7.1	0.4	67.0	25.6	7.4
	중·소도시	(639)	27.4	47.3	18.0	7.0	0.3	74.6	18.0	7.4
	읍/면	(37)	18.9	48.6	27.0	2.7	2.7	67.6	27.0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32.0	44.0	18.0	4.0	2.0	76.0	18.0	6.0
	자영업자	(185)	26.5	43.2	24.3	5.4	0.5	69.7	24.3	5.9
	판매/서비스직	(194)	17.5	52.6	21.1	7.7	1.0	70.1	21.1	8.8
	기능/숙련공	(127)	27.6	48.0	13.4	11.0	–	75.6	13.4	11.0
	일반 노무직	(41)	19.5	53.7	22.0	4.9	–	73.2	22.0	4.9
	사무/기술직	(283)	23.3	45.6	25.8	4.9	0.4	68.9	25.8	5.3
	경영/관리직	(19)	26.3	57.9	10.5	5.3	–	84.2	10.5	5.3
	전문/자유직	(7)	42.9	28.6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3.7	41.4	18.9	5.9	–	75.1	18.9	5.9
	학생	(73)	23.3	39.7	23.3	13.7	–	63.0	23.3	13.7
	무직/휴직/은퇴	(52)	17.3	50.0	23.1	9.6	–	67.3	23.1	9.6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8.6	61.0	13.6	6.8	–	79.7	13.6	6.8
	고등학교	(440)	27.7	43.9	21.1	7.0	0.2	71.6	21.1	7.3
	전문대	(266)	17.7	51.1	23.7	6.8	0.8	68.8	23.7	7.5
	4년제 대학교	(427)	27.6	43.8	21.1	7.0	0.5	71.4	21.1	7.5
	대학원 이상	(8)	12.5	25.0	62.5	–	–	37.5	62.5	–
생활수준별	상	(73)	23.3	31.5	38.4	5.5	1.4	54.8	38.4	6.8
	중	(544)	24.3	45.8	22.2	7.4	0.4	70.0	22.2	7.7
	하	(583)	25.7	48.4	18.9	6.7	0.3	74.1	18.9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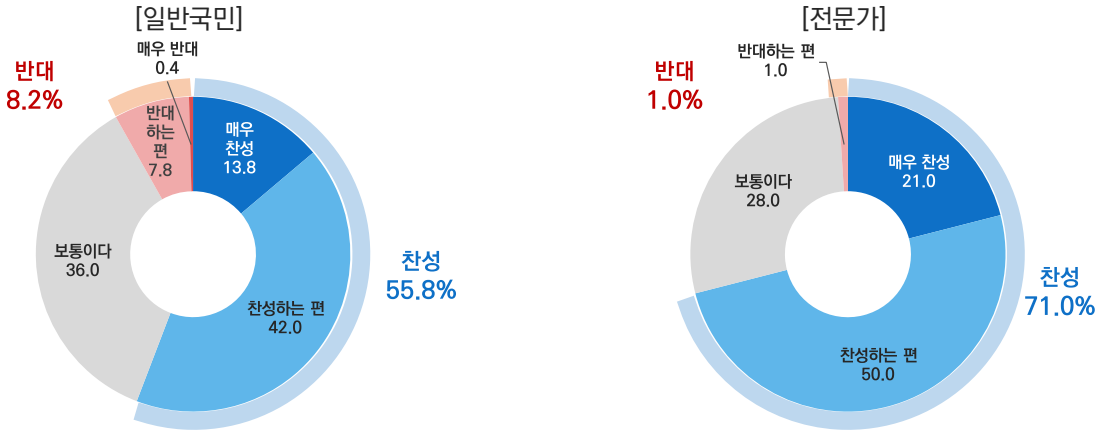
3)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5.8%, 전문가 7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5.8%로 '반대'(8.2%)보다 47.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한다는 비율은 4.4%p(2023년 60.2%) 증가했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1.2%p(2023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이 71.0%로 '반대'(1.0%)하는 비율보다 7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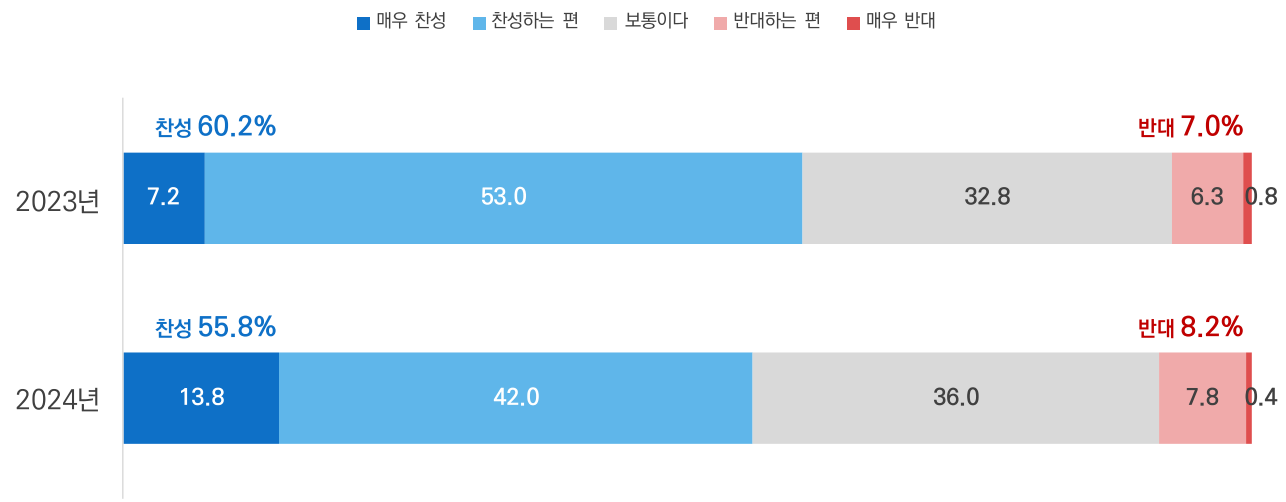
|그림 3-14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 %)



|그림 3-14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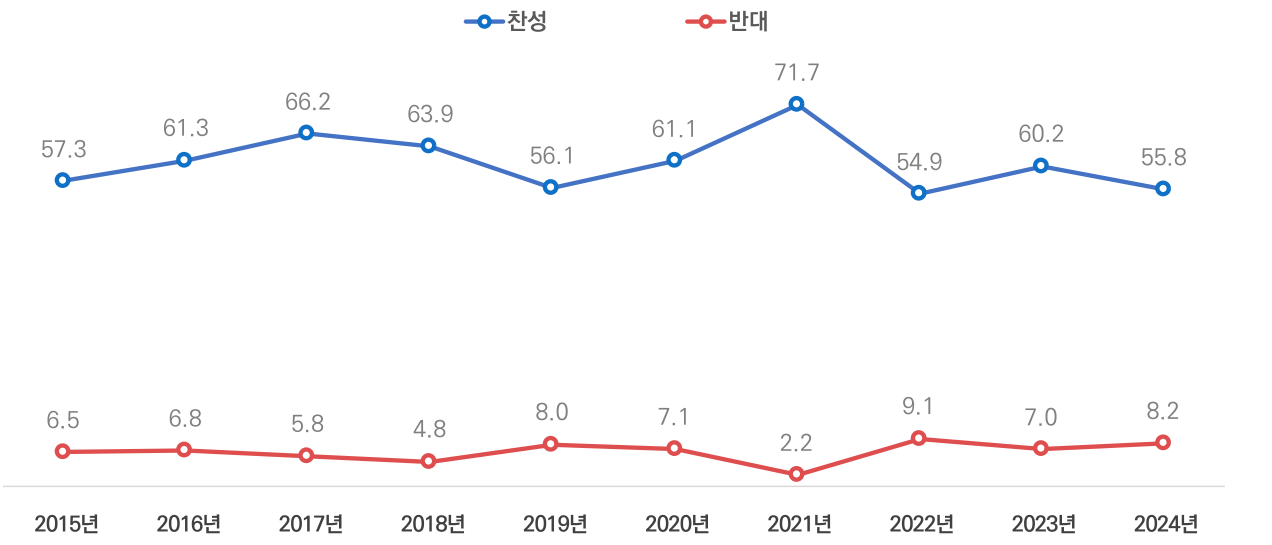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사회 및 문화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1.5%p 감소했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9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	10.2	18.1	20.8	14.7	13.0	11.6	19.0	9.7	7.2	13.8	6.6	3.6
찬성하는 편	47.1	43.3	45.3	49.3	43.1	49.5	52.7	45.3	53.0	42.0	-11	-5.1
보통이다	36.3	31.9	28.1	31.3	35.9	31.8	26.2	36.0	32.8	36.0	3.2	-0.3
반대하는 편	5.2	6.3	5.4	3.8	7.6	7.1	1.9	8.4	6.3	7.8	1.5	2.6
매우 반대	1.3	0.5	0.3	1.0	0.4	0.0	0.3	0.7	0.8	0.4	-0.4	-0.9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57.3	61.3	66.2	63.9	56.1	61.1	71.7	54.9	60.2	55.8	-4.4	-1.5
반대	6.5	6.8	5.8	4.8	8.0	7.1	2.2	9.1	7.0	8.2	1.2	1.7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9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4.4	42.6	35.4	7.2	0.4	57.0	35.4	7.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8	42.0	36.0	7.8	0.4	55.8	36.0	8.2
	전문가	(100)	21.0	50.0	28.0	1.0	-	71.0	28.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4.7	44.0	34.7	6.4	0.3	58.6	34.7	6.7
	중	(580)	11.4	41.2	38.4	8.3	0.7	52.6	38.4	9.0
	하	(231)	18.6	40.7	32.0	8.7	-	59.3	32.0	8.7
성별	남성	(720)	13.2	43.5	35.4	7.4	0.6	56.7	35.4	7.9
	여성	(480)	14.8	39.8	36.9	8.3	0.2	54.6	36.9	8.5
연령별	20대 이하	(217)	12.9	42.9	34.6	9.7	-	55.8	34.6	9.7
	30대	(194)	12.9	39.7	40.7	6.2	0.5	52.6	40.7	6.7
	40대	(226)	14.6	46.0	31.4	7.1	0.9	60.6	31.4	8.0
	50대	(255)	13.3	38.4	36.9	10.6	0.8	51.8	36.9	11.4
	60대 이상	(308)	14.9	42.9	36.7	5.5	-	57.8	36.7	5.5
지역별	서울	(140)	15.0	27.1	46.4	10.7	0.7	42.1	46.4	11.4
	경기/인천	(245)	11.0	42.4	41.6	4.5	0.4	53.5	41.6	4.9
	부산/울산/경남	(208)	13.5	45.7	35.6	5.3	-	59.1	35.6	5.3
	대구/경북	(141)	11.3	48.2	29.8	9.9	0.7	59.6	29.8	10.6
	광주/전라	(170)	6.5	40.0	38.2	14.7	0.6	46.5	38.2	15.3
	대전/충청/세종	(205)	16.6	42.9	32.2	7.8	0.5	59.5	32.2	8.3
	강원/제주	(91)	31.9	47.3	19.8	1.1	-	79.1	19.8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10.9	41.8	37.6	9.4	0.4	52.7	37.6	9.7
	중·소도시	(639)	16.9	41.6	34.4	6.6	0.5	58.5	34.4	7.0
	읍/면	(37)	2.7	51.4	40.5	5.4	-	54.1	40.5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14.0	56.0	28.0	2.0	-	70.0	28.0	2.0
	자영업자	(185)	12.4	41.1	35.7	9.7	1.1	53.5	35.7	10.8
	판매/서비스직	(194)	10.3	39.2	37.6	11.9	1.0	49.5	37.6	12.9
	기능/숙련공	(127)	12.6	46.5	34.6	5.5	0.8	59.1	34.6	6.3
	일반 노무직	(41)	12.2	48.8	39.0	-	-	61.0	39.0	-
	사무/기술직	(283)	13.1	44.5	36.0	6.4	-	57.6	36.0	6.4
	경영/관리직	(19)	31.6	36.8	31.6	-	-	68.4	31.6	-
	전문/자유직	(7)	28.6	14.3	42.9	14.3	-	42.9	42.9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8.3	33.1	42.6	5.9	-	51.5	42.6	5.9
	학생	(73)	13.7	39.7	31.5	15.1	-	53.4	31.5	15.1
	무직/휴직/은퇴	(52)	17.3	50.0	25.0	7.7	-	67.3	25.0	7.7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35.6	47.5	3.4	-	49.2	47.5	3.4
	고등학교	(440)	15.9	43.4	33.2	7.0	0.5	59.3	33.2	7.5
	전문대	(266)	7.1	45.1	39.8	7.5	0.4	52.3	39.8	7.9
	4년제 대학교	(427)	15.9	40.0	34.4	9.1	0.5	56.0	34.4	9.6
	대학원 이상	(8)	12.5	12.5	62.5	12.5	-	25.0	62.5	12.5
생활수준별	상	(73)	17.8	45.2	26.0	11.0	-	63.0	26.0	11.0
	중	(544)	11.8	41.7	39.7	6.6	0.2	53.5	39.7	6.8
	하	(583)	15.3	41.9	33.8	8.4	0.7	57.1	33.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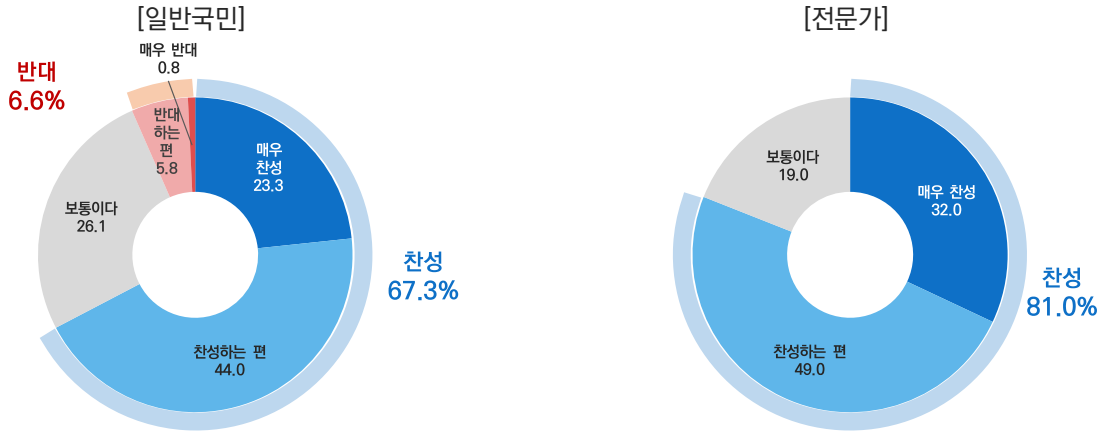
4) 국제테러, 기후 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67.3%, 전문가 8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7.3%로 '반대'(6.6%)보다 60.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한다는 비율은 7.0%p(2023년 66.6%) 증가했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0.7%p(2023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이 81.0%(매우 찬성 32.0% + 찬성하는 편 49.0%)로 '반대'하는 비율(0.0%)보다 81.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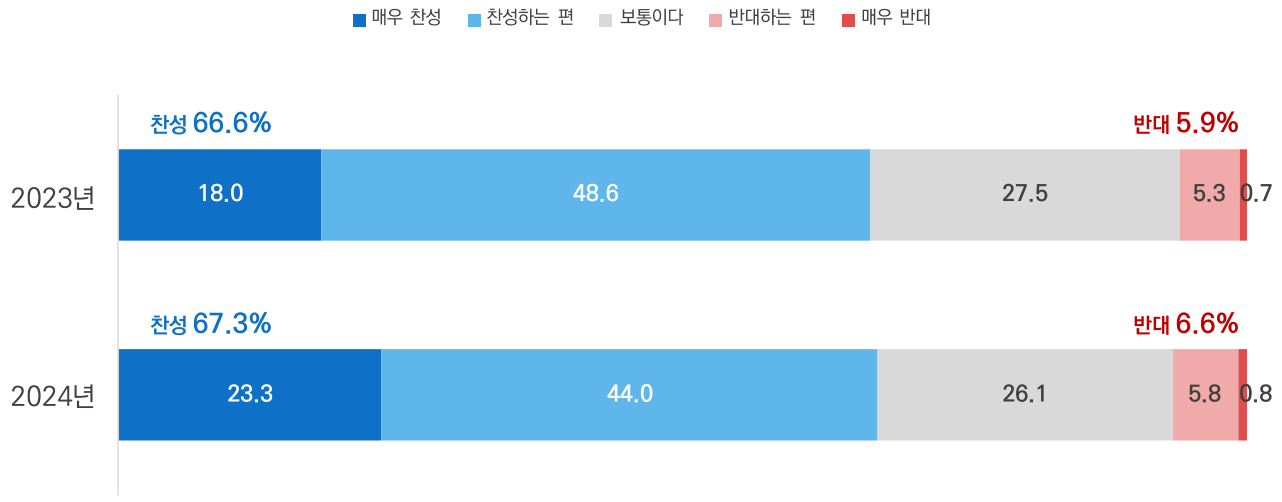
|그림 3-14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단위 : %)



|그림 3-14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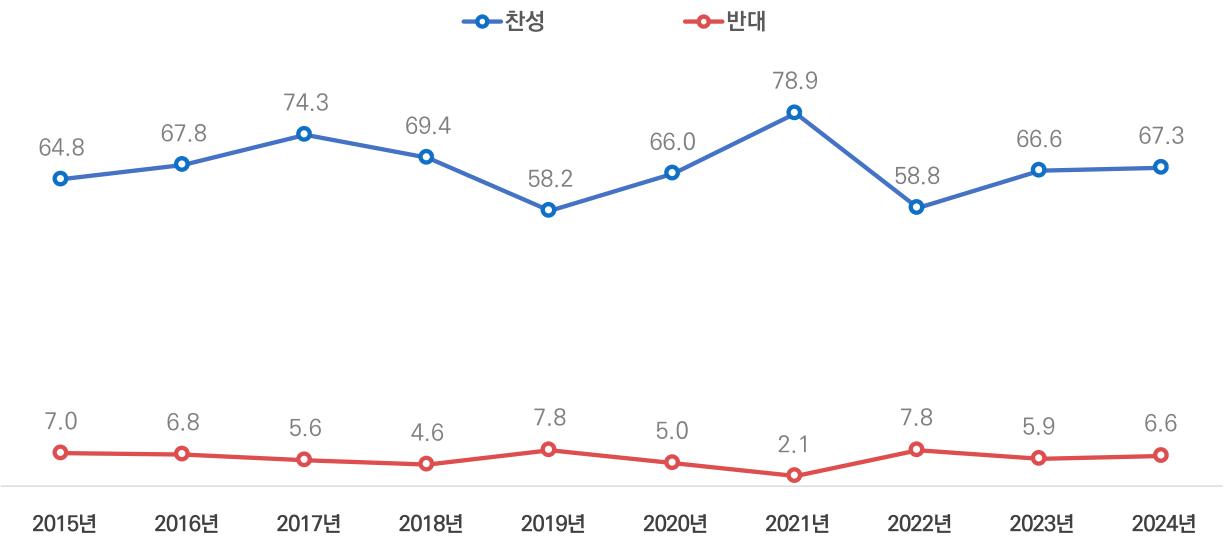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2.5%p 증가했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7|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95|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	18.3	21.4	24.7	18.5	12.4	15.4	28.4	15.8	18.0	23.3	5.3	5.0
찬성하는 편	46.5	46.3	49.6	50.9	45.8	50.6	50.5	43.0	48.6	44.0	-4.6	-2.5
보통이다	28.2	25.5	20.2	26.0	34.1	29.0	19.0	33.4	27.5	26.1	-1.4	-2.1
반대하는 편	6.0	6.3	5.2	4.2	7.5	5.0	1.6	7.5	5.3	5.8	0.5	-0.2
매우 반대	1.0	0.4	0.4	0.4	0.3	0.0	0.5	0.3	0.7	0.8	0.1	-0.2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64.8	67.8	74.3	69.4	58.2	66.0	78.9	58.8	66.6	67.3	0.7	2.5
반대	7.0	6.8	5.6	4.6	7.8	5.0	2.1	7.8	5.9	6.6	0.7	-0.4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96|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24.0	44.4	25.5	5.4	0.7	68.4	25.5	6.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3	44.0	26.1	5.8	0.8	67.3	26.1	6.6
	전문가	(100)	32.0	49.0	19.0	-	-	81.0	19.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0	41.9	24.2	4.9	1.0	69.9	24.2	5.9
	중	(580)	20.2	44.5	28.8	6.0	0.5	64.7	28.8	6.6
	하	(231)	23.4	46.3	22.5	6.9	0.9	69.7	22.5	7.8
성별	남성	(720)	22.5	46.3	25.0	5.6	0.7	68.8	25.0	6.3
	여성	(480)	24.6	40.6	27.7	6.3	0.8	65.2	27.7	7.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9.4	47.9	26.3	6.0	0.5	67.3	26.3	6.5
	30대	(194)	20.6	44.8	27.3	5.2	2.1	65.5	27.3	7.2
	40대	(226)	26.5	42.0	25.7	5.3	0.4	68.6	25.7	5.8
	50대	(255)	21.6	43.5	27.8	7.1	-	65.1	27.8	7.1
	60대 이상	(308)	26.9	42.5	24.0	5.5	1.0	69.5	24.0	6.5
지역별	서울	(140)	20.0	37.1	34.3	8.6	-	57.1	34.3	8.6
	경기/인천	(245)	22.9	47.3	24.9	4.1	0.8	70.2	24.9	4.9
	부산/울산/경남	(208)	26.0	42.8	29.3	1.9	-	68.8	29.3	1.9
	대구/경북	(141)	16.3	46.8	24.8	8.5	3.5	63.1	24.8	12.1
	광주/전라	(170)	16.5	48.2	25.9	9.4	-	64.7	25.9	9.4
	대전/충청/세종	(205)	23.9	43.4	24.9	6.8	1.0	67.3	24.9	7.8
	강원/제주	(91)	46.2	37.4	14.3	2.2	-	83.5	14.3	2.2
지역크기	대도시	(524)	18.9	46.0	27.7	6.7	0.8	64.9	27.7	7.4
	중·소도시	(639)	27.1	41.9	25.0	5.2	0.8	69.0	25.0	5.9
	읍/면	(37)	21.6	51.4	21.6	5.4	-	73.0	21.6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36.0	46.0	8.0	8.0	2.0	82.0	8.0	10.0
	자영업자	(185)	18.9	44.3	29.7	5.9	1.1	63.2	29.7	7.0
	판매/서비스직	(194)	18.6	47.4	27.8	5.7	0.5	66.0	27.8	6.2
	기능/숙련공	(127)	22.8	44.9	26.0	5.5	0.8	67.7	26.0	6.3
	일반 노무직	(41)	26.8	43.9	22.0	7.3	-	70.7	22.0	7.3
	사무/기술직	(283)	21.9	47.7	25.1	4.6	0.7	69.6	25.1	5.3
	경영/관리직	(19)	36.8	47.4	10.5	5.3	-	84.2	10.5	5.3
	전문/자유직	(7)	28.6	14.3	42.9	14.3	-	42.9	42.9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9.6	32.0	31.4	6.5	0.6	61.5	31.4	7.1
	학생	(73)	20.5	45.2	26.0	6.8	1.4	65.8	26.0	8.2
	무직/휴직/은퇴	(52)	28.8	46.2	19.2	5.8	-	75.0	19.2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3.9	33.9	25.4	5.1	1.7	67.8	25.4	6.8
	고등학교	(440)	26.8	41.1	25.5	5.9	0.7	68.0	25.5	6.6
	전문대	(266)	18.8	43.2	33.5	4.5	-	62.0	33.5	4.5
	4년제 대학교	(427)	21.3	48.7	22.2	6.8	0.9	70.0	22.2	7.7
	대학원 이상	(8)	12.5	50.0	25.0	-	12.5	62.5	25.0	12.5
생활수준별	상	(73)	21.9	46.6	19.2	11.0	1.4	68.5	19.2	12.3
	중	(544)	22.1	43.2	28.3	5.7	0.7	65.3	28.3	6.4
	하	(583)	24.7	44.4	24.9	5.3	0.7	69.1	24.9	6.0

3.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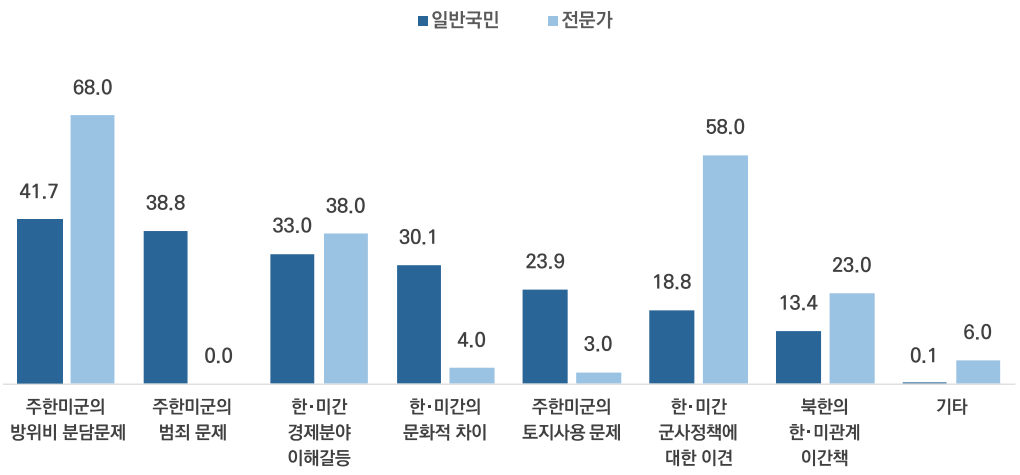
1) 1+2순위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1.7%, 전문가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3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라는 비율은 6.5%p(2023년 32.3%) 증가했으며,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라는 비율은 9.0%p(2023년 4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5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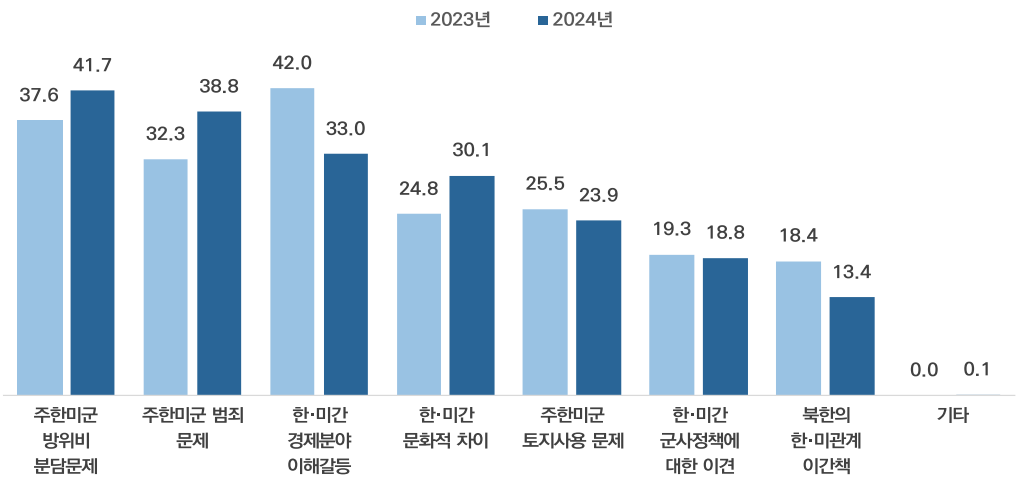
|그림 3-148|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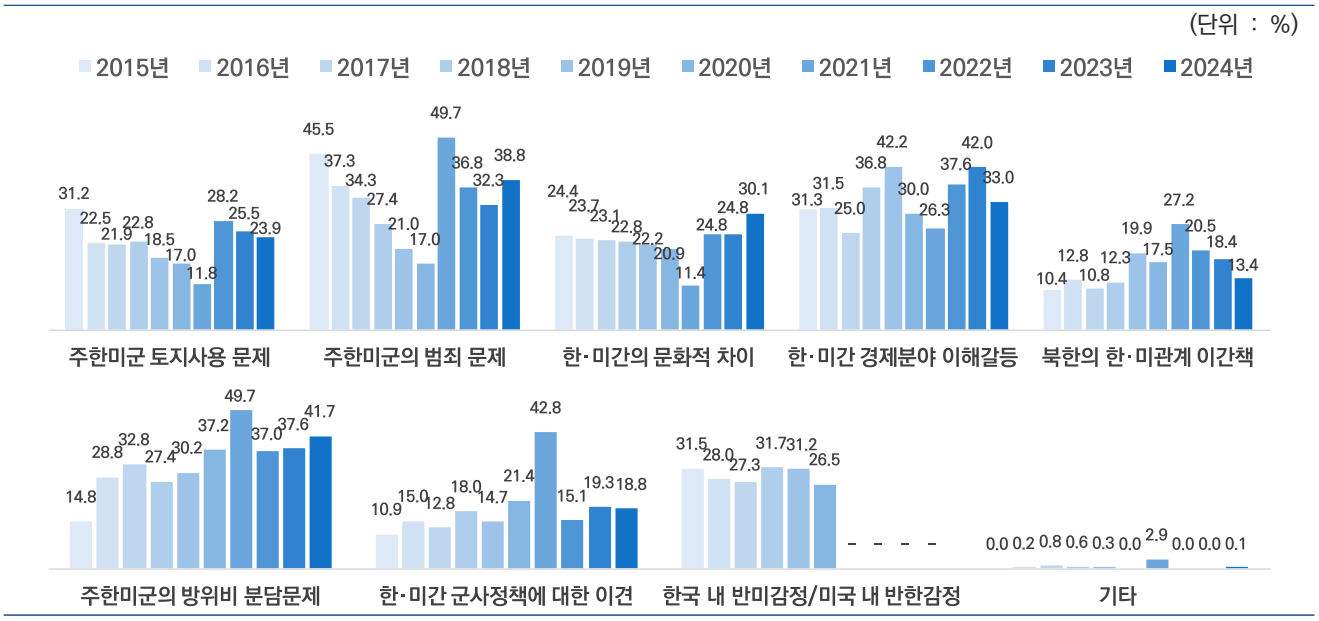
|그림 3-149|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2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는 7.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0|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97|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	31.2	22.5	21.9	22.8	18.5	17.0	11.8	28.2	25.5	23.9	-1.6	-7.3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45.5	37.3	34.3	27.4	21.0	17.0	49.7	36.8	32.3	38.8	6.5	-6.7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24.4	23.7	23.1	22.8	22.2	20.9	11.4	24.8	24.8	30.1	5.3	5.7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31.3	31.5	25.0	36.8	42.2	30.0	26.3	37.6	42.0	33.0	-9.0	1.7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10.4	12.8	10.8	12.3	19.9	17.5	27.2	20.5	18.4	13.4	-5.0	3.0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14.8	28.8	32.8	27.4	30.2	37.2	49.7	37.0	37.6	41.7	4.1	26.9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10.9	15.0	12.8	18.0	14.7	21.4	42.8	15.1	19.3	18.8	-0.5	7.9
한국 내 반미감정/ 미국 내 반한감정	31.5	28.0	27.3	31.7	31.2	26.5	-	-	-	-	-	-
기타	0.0	0.2	0.8	0.6	0.3	0.0	2.9	0.0	0.0	0.1	0.1	0.1

※ '한국 내 반미감정, 미국 내 반한감정'은 2021년 이후 문항에서 제외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8|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미군 범죄 문제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한·미간 문화적 차이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기타
전체		(1,300)	43.7	35.8	33.4	28.1	22.3	21.8	14.2	0.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1.7	38.8	33.0	30.1	23.9	18.8	13.4	0.1
	전문가	(100)	68.0	-	38.0	4.0	3.0	58.0	23.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1.6	34.7	30.8	29.3	26.0	21.3	15.4	-
	중	(580)	41.9	40.7	36.2	28.8	21.6	18.4	12.1	0.2
	하	(231)	41.1	40.7	28.6	34.6	26.4	15.2	13.4	-
성별	남성	(720)	42.4	36.0	33.9	31.3	22.8	19.9	13.6	-
	여성	(480)	40.6	42.9	31.7	28.3	25.6	17.1	13.1	0.2
연령별	20대 이하	(217)	44.2	37.8	32.3	28.6	20.3	23.5	12.9	-
	30대	(194)	45.4	36.1	32.0	30.9	22.7	20.1	12.4	-
	40대	(226)	39.4	41.6	36.7	29.2	24.3	14.2	13.7	-
	50대	(255)	38.0	39.6	31.4	30.6	29.0	18.0	12.9	0.4
	60대 이상	(308)	42.2	38.3	32.8	30.8	22.7	18.5	14.6	-
지역별	서울	(140)	45.7	37.1	29.3	30.0	18.6	6.4	30.7	-
	경기/인천	(245)	37.6	39.2	33.9	25.7	26.5	22.4	14.7	-
	부산/울산/경남	(208)	37.0	46.2	38.5	38.5	15.9	9.6	13.9	-
	대구/경북	(141)	42.6	46.1	32.6	19.9	25.5	24.8	8.5	-
	광주/전라	(170)	31.2	42.9	32.9	43.5	27.1	16.5	5.9	-
	대전/충청/세종	(205)	55.6	30.2	33.7	19.0	25.4	26.3	9.8	-
	강원/제주	(91)	44.0	23.1	23.1	38.5	31.9	26.4	12.1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42.0	38.2	35.3	30.5	17.4	16.8	19.1	-
	중·소도시	(639)	42.3	38.8	31.1	29.3	29.1	20.7	8.6	0.2
	읍/면	(37)	27.0	45.9	32.4	37.8	27.0	13.5	16.2	-
직업별	농/어/임업	(50)	44.0	50.0	22.0	28.0	24.0	16.0	16.0	-
	자영업자	(185)	37.3	30.3	41.1	31.4	25.9	20.0	13.5	-
	판매/서비스직	(194)	32.0	44.3	34.0	38.1	24.7	14.4	11.9	-
	기능/숙련공	(127)	44.1	37.0	31.5	28.3	29.1	18.1	11.8	-
	일반 노무직	(41)	43.9	43.9	43.9	17.1	17.1	24.4	9.8	-
	사무/기술직	(283)	45.2	39.9	29.0	29.0	18.4	24.0	13.8	0.4
	경영/관리직	(19)	68.4	47.4	21.1	10.5	26.3	21.1	5.3	-
	전문/자유직	(7)	28.6	28.6	42.9	42.9	42.9	-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42.6	40.2	27.8	31.4	30.8	10.7	16.0	-
	학생	(73)	41.1	37.0	34.2	27.4	23.3	24.7	12.3	-
	무직/휴직/은퇴	(52)	53.8	26.9	46.2	23.1	11.5	21.2	17.3	-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7.5	39.0	22.0	30.5	27.1	20.3	13.6	-
	고등학교	(440)	41.6	39.5	31.8	31.8	26.1	17.3	11.8	-
	전문대	(266)	41.4	39.8	34.2	27.8	25.2	15.0	15.8	-
	4년제 대학교	(427)	41.5	36.5	35.4	29.5	20.8	22.5	13.1	0.2
	대학원 이상	(8)	25.0	75.0	12.5	37.5	-	12.5	37.5	-
생활수준별	상	(73)	38.4	39.7	43.8	16.4	26.0	16.4	16.4	1.4
	중	(544)	40.1	38.1	33.5	32.5	23.7	17.6	14.2	-
	하	(583)	43.6	39.3	31.2	29.5	23.8	20.1	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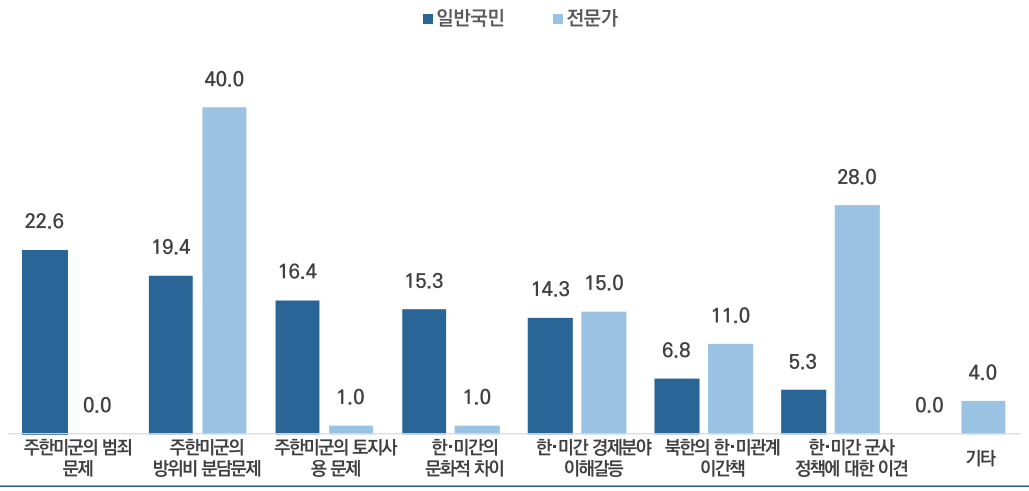
2) 1순위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일반국민은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라는 응답이 22.6%, 전문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가 2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라는 비율은 6.2%p(2023년 16.4%) 증가했으며,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라는 비율은 9.6%p(2023년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한·미간 경제 분야 이해갈등'이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2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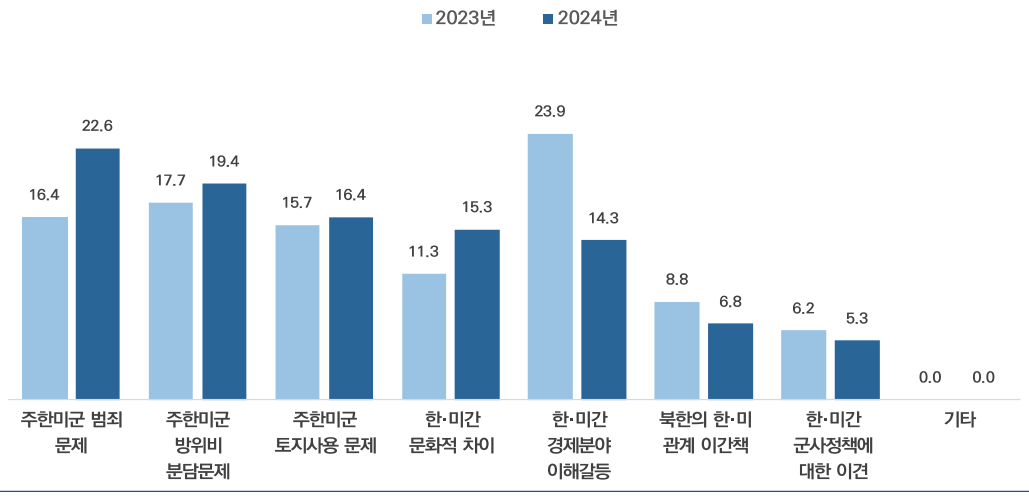
|그림 3-151|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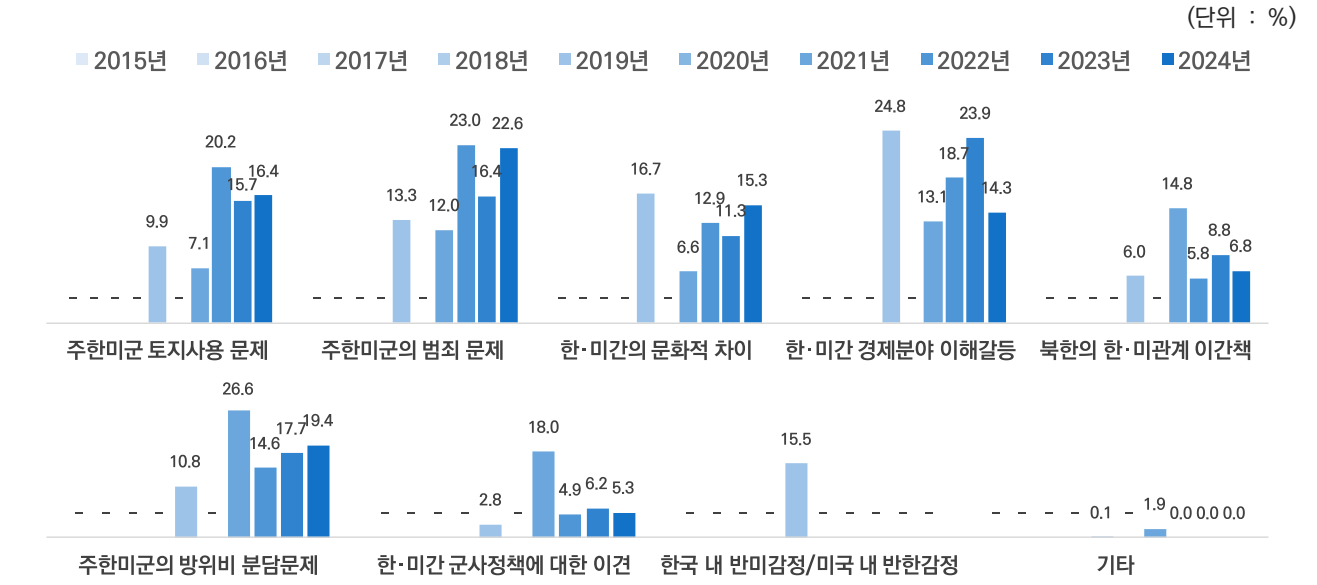
|그림 3-152|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9년 대비 '주한미군의 범죄문제'가 9.3%p 증가했으며,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 1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3|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99|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	–	–	–	–	9.9	–	7.1	20.2	15.7	16.4	0.7	6.5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	–	–	–	13.3	–	12.0	23.0	16.4	22.6	6.2	9.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	–	–	–	16.7	–	6.6	12.9	11.3	15.3	4.0	-1.4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	–	–	–	24.8	–	13.1	18.7	23.9	14.3	-9.6	-10.5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	–	–	–	6.0	–	14.8	5.8	8.8	6.8	-2.0	0.8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	–	–	–	10.8	–	26.6	14.6	17.7	19.4	1.7	8.6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	–	–	–	2.8	–	18.0	4.9	6.2	5.3	-0.9	2.5
한국 내 반미감정/ 미국 내 반한감정	–	–	–	–	15.5	–	–	–	–	–	–	–
기타	–	–	–	–	0.1	–	1.9	0.0	0.0	0.0	0.0	-0.1

※ 2015~2018, 2020년은 1+2순위만 분석하여 비교할 수 없음
※ '한국 내 반미감정, 미국 내 반한감정'은 2021년 이후 문항에서 제외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주한미군의 범죄문제'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0|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한미군 범죄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미군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 문화적 차이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북한의 한미 관계 이간책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기타
전체		(1,300)	20.8	21.0	15.2	14.2	14.3	7.1	7.1	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6	19.4	16.4	15.3	14.3	6.8	5.3	-
	전문가	(100)	-	40.0	1.0	1.0	15.0	11.0	28.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5	19.8	18.3	13.4	15.4	9.8	4.9	-
	중	(580)	23.8	20.0	14.7	15.9	14.1	6.0	5.5	-
	하	(231)	26.4	17.3	17.7	16.9	12.6	3.5	5.6	-
성별	남성	(720)	21.7	20.1	15.4	16.3	14.0	7.4	5.1	-
	여성	(480)	24.0	18.3	17.9	13.8	14.6	5.8	5.6	-
연령별	20대 이하	(217)	21.2	22.6	13.4	16.6	12.4	6.5	7.4	-
	30대	(194)	18.6	21.1	16.5	14.9	14.9	7.2	6.7	-
	40대	(226)	26.5	15.5	19.9	14.6	13.7	6.6	3.1	-
	50대	(255)	21.6	21.2	18.8	13.7	13.3	5.5	5.9	-
	60대 이상	(308)	24.0	17.5	14.0	16.2	16.2	7.8	4.2	-
지역별	서울	(140)	20.0	19.3	11.4	13.6	11.4	21.4	2.9	-
	경기/인천	(245)	21.2	20.4	19.2	14.3	15.1	3.7	6.1	-
	부산/울산/경남	(208)	29.8	14.9	8.2	20.7	14.9	8.2	3.4	-
	대구/경북	(141)	22.7	20.6	17.0	9.9	17.7	3.5	8.5	-
	광주/전라	(170)	24.1	20.0	15.9	21.8	13.5	2.9	1.8	-
	대전/충청/세종	(205)	22.4	18.5	18.0	10.7	15.6	5.9	8.8	-
	강원/제주	(91)	11.0	26.4	31.9	14.3	7.7	3.3	5.5	-
지역크기	대도시	(524)	24.2	17.7	10.1	16.4	15.3	11.6	4.6	-
	중·소도시	(639)	21.1	21.4	21.3	14.4	13.3	2.5	5.9	-
	읍/면	(37)	24.3	8.1	21.6	13.5	16.2	10.8	5.4	-
직업별	농/어/임업	(50)	26.0	18.0	18.0	16.0	16.0	2.0	4.0	-
	자영업자	(185)	18.4	17.8	21.1	12.4	17.3	8.1	4.9	-
	판매/서비스직	(194)	27.8	12.4	18.0	17.0	13.9	7.2	3.6	-
	기능/숙련공	(127)	20.5	22.8	18.1	14.2	11.0	7.9	5.5	-
	일반 노무직	(41)	34.1	14.6	9.8	17.1	14.6	4.9	4.9	-
	사무/기술직	(283)	21.6	25.8	11.0	16.6	13.1	5.7	6.4	-
	경영/관리직	(19)	26.3	42.1	15.8	-	10.5	5.3	-	-
	전문/자유직	(7)	-	-	42.9	14.3	42.9	-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3.1	16.0	20.7	16.0	12.4	7.7	4.1	-
	학생	(73)	19.2	17.8	17.8	12.3	16.4	5.5	11.0	-
	무직/휴직/은퇴	(52)	21.2	21.2	3.8	19.2	17.3	9.6	7.7	-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6.9	16.9	13.6	18.6	18.6	11.9	3.4	-
	고등학교	(440)	23.9	18.9	18.6	16.6	12.3	4.1	5.7	-
	전문대	(266)	23.7	19.5	18.4	11.7	13.5	11.3	1.9	-
	4년제 대학교	(427)	21.1	20.4	13.6	15.7	16.2	5.9	7.3	-
	대학원 이상	(8)	37.5	12.5	-	12.5	12.5	12.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20.5	13.7	19.2	6.8	24.7	9.6	5.5	-
	중	(544)	20.6	19.3	16.5	17.6	13.1	7.2	5.7	-
	하	(583)	24.7	20.2	16.0	14.1	14.1	6.0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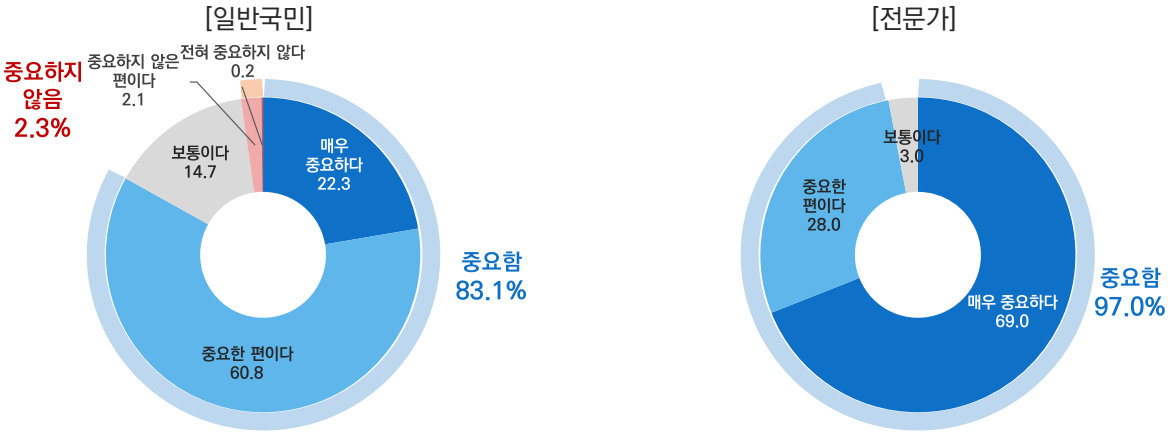
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83.1%, 전문가 9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1%로 '중요하지 않음'(2.3%)보다 7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중요함'의 비율은 3.8%p(2023년 79.3%)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음'의 비율은 1.5%p(2023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요함'이라는 응답이 97.0%(매우 중요하다 69.0% + 중요한 편이다 28.0%)로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응답(0.0%)보다 97.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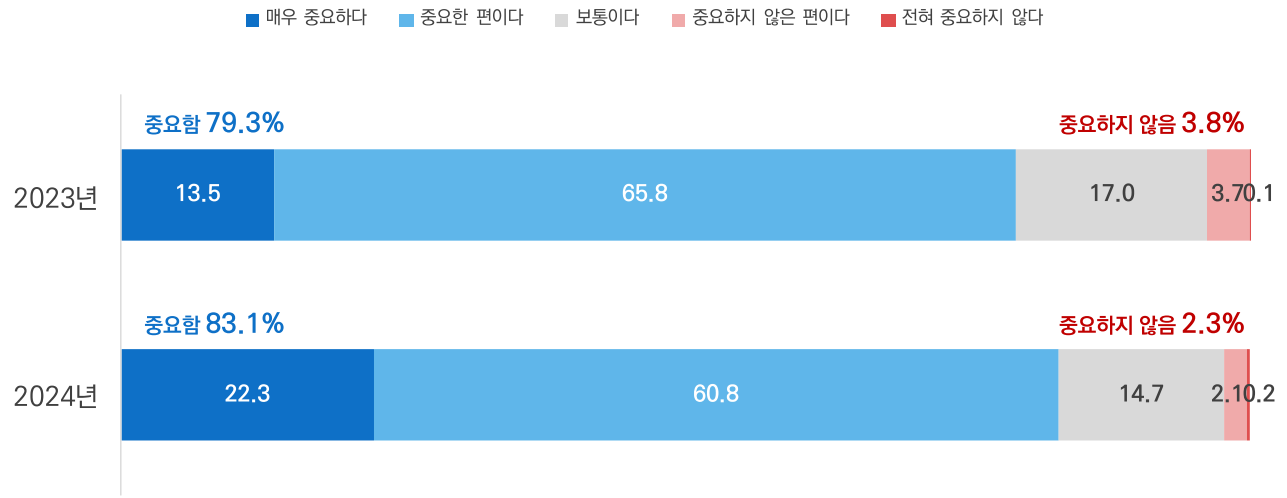
|그림 3-15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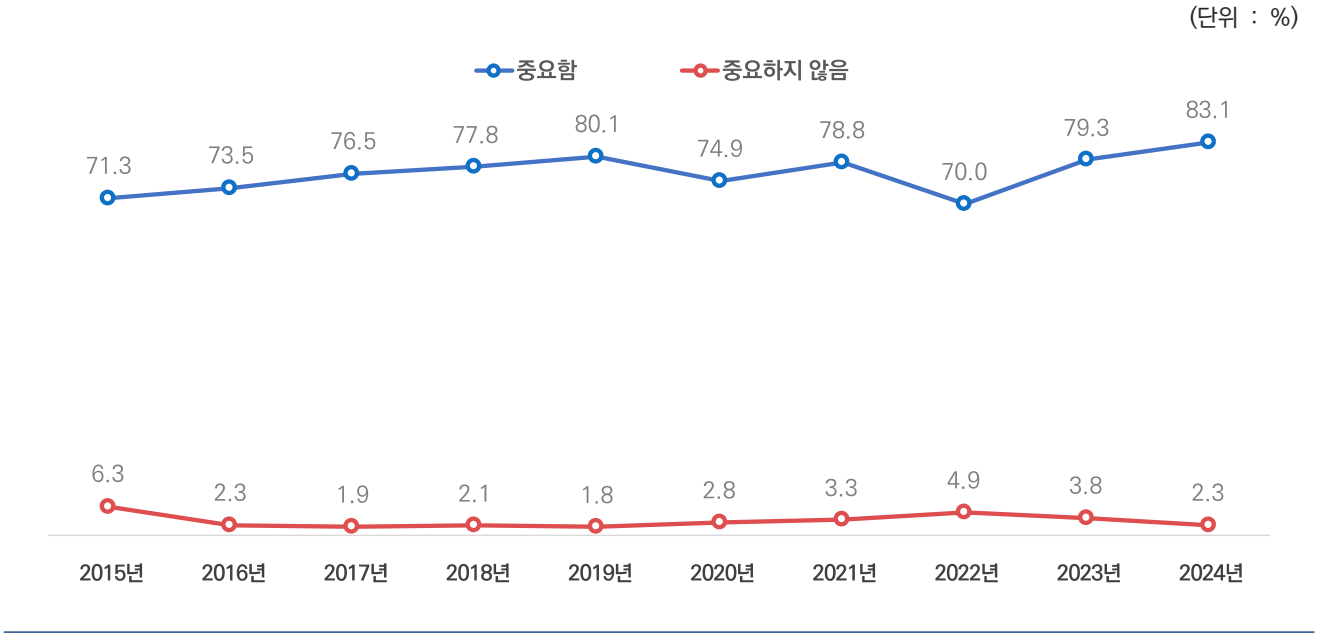
|그림 3-155|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함'은 11.8%p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6|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01|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중요하다	14.6	16.5	20.2	25.5	17.0	12.8	31.2	12.2	13.5	22.3	8.8	7.7
중요한 편이다	56.7	57.0	56.3	52.3	63.1	62.1	47.6	57.8	65.8	60.8	-5.0	4.1
보통이다	22.4	24.3	21.7	20.1	18.1	22.4	17.9	25.1	17.0	14.7	-2.3	-7.7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6.0	2.1	1.8	1.8	1.8	2.8	2.8	4.4	3.7	2.1	-1.6	-3.9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0.2	0.1	0.3	0.0	0.0	0.5	0.5	0.1	0.2	0.1	-0.1
무응답	-	-	-	-	-	-	-	-	-	-	-	-
중요함	71.3	73.5	76.5	77.8	80.1	74.9	78.8	70.0	79.3	83.1	3.8	11.8
중요하지 않음	6.3	2.3	1.9	2.1	1.8	2.8	3.3	4.9	3.8	2.3	-1.5	-4.0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02|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300)	25.9	58.2	13.8	1.9	0.2	84.2	13.8	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3	60.8	14.7	2.1	0.2	83.1	14.7	2.3
	전문가	(100)	69.0	28.0	3.0	-	-	97.0	3.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2.4	66.8	8.7	2.1	-	89.2	8.7	2.1
	중	(580)	20.7	58.6	18.1	2.2	0.3	79.3	18.1	2.6
	하	(231)	26.4	55.8	16.0	1.7	-	82.3	16.0	1.7
성별	남성	(720)	22.6	60.4	14.9	1.8	0.3	83.1	14.9	2.1
	여성	(480)	21.9	61.3	14.4	2.5	-	83.1	14.4	2.5
연령별	20대 이하	(217)	21.2	62.2	14.3	2.3	-	83.4	14.3	2.3
	30대	(194)	21.6	60.3	15.5	2.6	-	82.0	15.5	2.6
	40대	(226)	18.6	61.5	16.8	2.7	0.4	80.1	16.8	3.1
	50대	(255)	25.1	58.0	14.9	2.0	-	83.1	14.9	2.0
	60대 이상	(308)	24.0	61.7	12.7	1.3	0.3	85.7	12.7	1.6
지역별	서울	(140)	28.6	55.0	15.0	0.7	0.7	83.6	15.0	1.4
	경기/인천	(245)	21.6	56.3	15.9	5.7	0.4	78.0	15.9	6.1
	부산/울산/경남	(208)	19.2	69.7	11.1	-	-	88.9	11.1	-
	대구/경북	(141)	31.9	58.2	8.5	1.4	-	90.1	8.5	1.4
	광주/전라	(170)	1.8	80.0	17.1	1.2	-	81.8	17.1	1.2
	대전/충청/세종	(205)	32.2	47.8	17.6	2.4	-	80.0	17.6	2.4
	강원/제주	(91)	23.1	58.2	17.6	1.1	-	81.3	17.6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22.1	63.0	12.4	2.3	0.2	85.1	12.4	2.5
	중·소도시	(639)	23.0	58.7	16.3	1.9	0.2	81.7	16.3	2.0
	읍/면	(37)	13.5	64.9	18.9	2.7	-	78.4	18.9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20.0	64.0	14.0	2.0	-	84.0	14.0	2.0
	자영업자	(185)	20.0	58.9	18.4	2.7	-	78.9	18.4	2.7
	판매/서비스직	(194)	18.0	70.1	9.8	2.1	-	88.1	9.8	2.1
	기능/숙련공	(127)	25.2	63.8	9.4	0.8	0.8	89.0	9.4	1.6
	일반 노무직	(41)	22.0	63.4	12.2	2.4	-	85.4	12.2	2.4
	사무/기술직	(283)	23.0	56.2	17.3	3.2	0.4	79.2	17.3	3.5
	경영/관리직	(19)	26.3	52.6	21.1	-	-	78.9	21.1	-
	전문/자유직	(7)	28.6	42.9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6.6	58.6	12.4	2.4	-	85.2	12.4	2.4
	학생	(73)	16.4	63.0	20.5	-	-	79.5	20.5	-
	무직/휴직/은퇴	(52)	30.8	53.8	15.4	-	-	84.6	15.4	-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3.7	55.9	18.6	1.7	-	79.7	18.6	1.7
	고등학교	(440)	23.2	62.0	13.2	1.4	0.2	85.2	13.2	1.6
	전문대	(266)	21.1	63.5	13.2	1.9	0.4	84.6	13.2	2.3
	4년제 대학교	(427)	21.5	59.3	16.2	3.0	-	80.8	16.2	3.0
	대학원 이상	(8)	50.0	12.5	37.5	-	-	62.5	37.5	-
생활수준별	상	(73)	24.7	49.3	19.2	6.8	-	74.0	19.2	6.8
	중	(544)	22.6	61.4	13.8	2.0	0.2	84.0	13.8	2.2
	하	(583)	21.8	61.6	14.9	1.5	0.2	83.4	14.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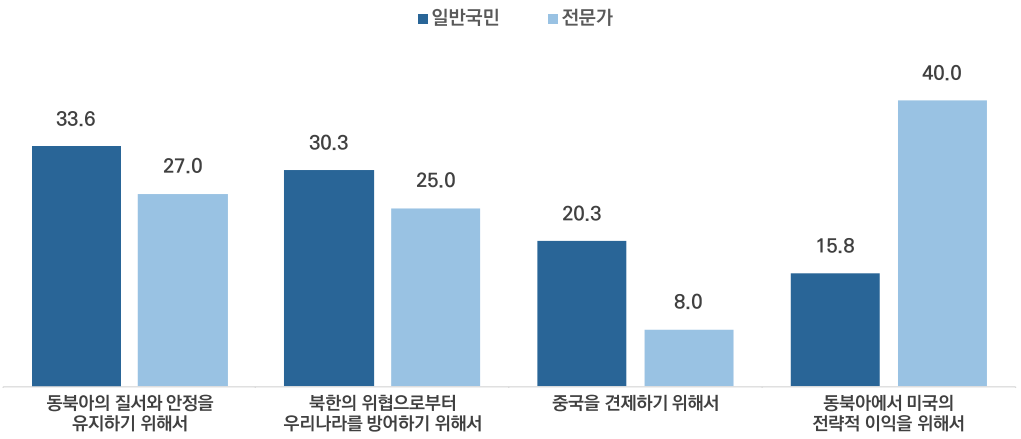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33.6%, 전문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3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2.0%p(2023년 28.3%) 증가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의 비율은 2.2%p(2023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가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2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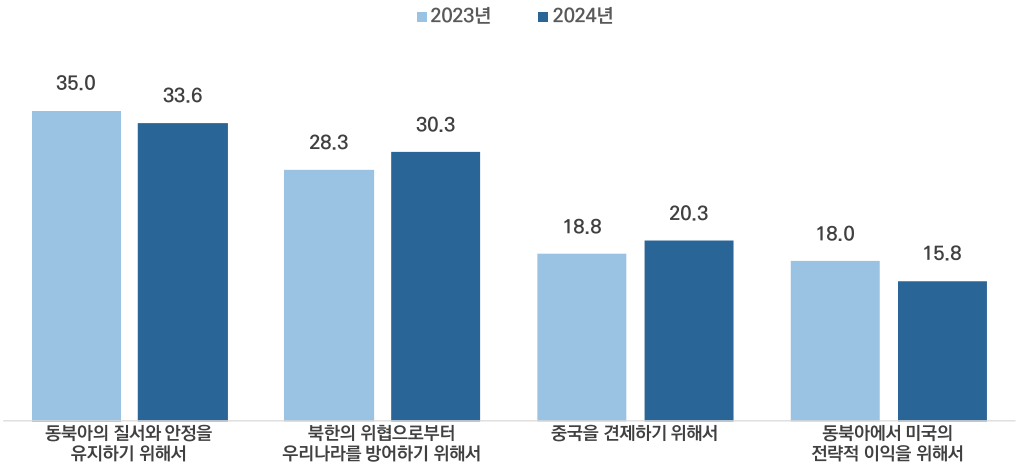
|그림 3-157| 주한미군 주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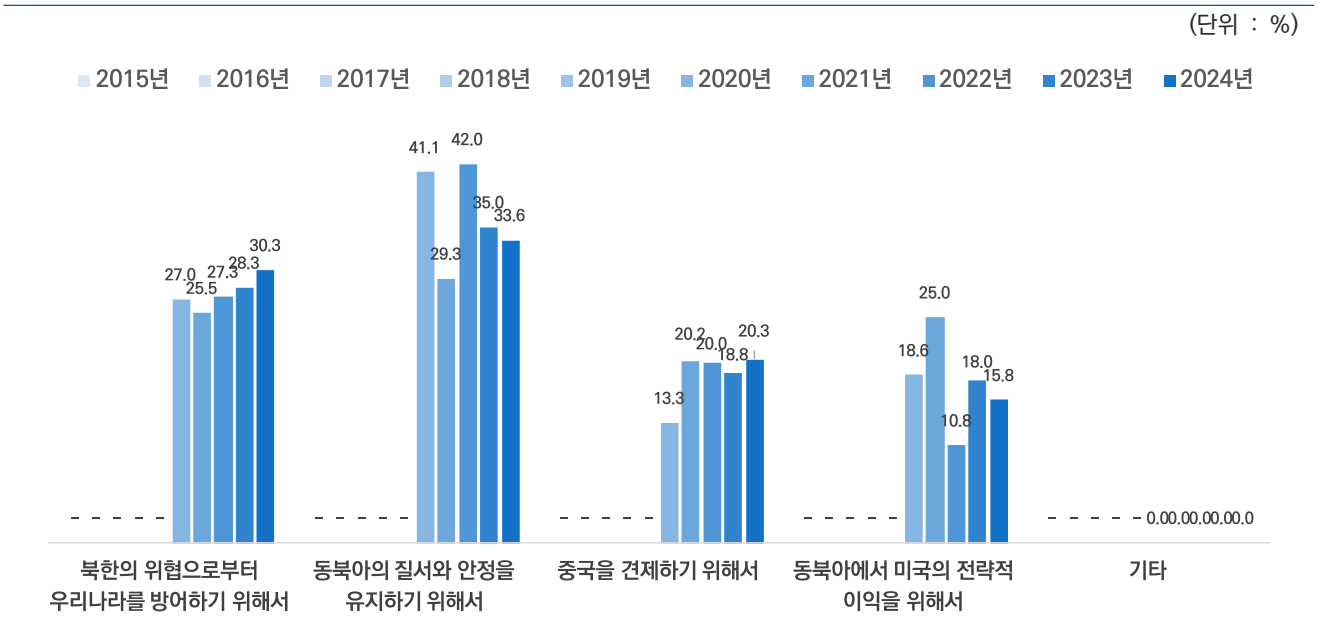
|그림 3-158|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0년 대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0%p 증가했으며,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9|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03| 주한미군 주둔 이유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	–	–	–	–	27.0	25.5	27.3	28.3	30.3	2.0	3.3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	–	–	–	–	41.1	29.3	42.0	35.0	33.6	-1.4	-7.5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	–	–	–	–	13.3	20.2	20.0	18.8	20.3	1.5	7.0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	–	–	–	–	18.6	25.0	10.8	18.0	15.8	-2.2	-2.8
기타	–	–	–	–	–	0.0	0.0	0.0	0.0	0.0	0.0	0.0

※ 2015~2019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4| 주한미군 주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기타
전체		(1,300)	33.1	29.8	19.4	17.7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6	30.3	20.3	15.8	-
	전문가	(100)	27.0	25.0	8.0	40.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3.7	29.0	21.1	16.2	-
	중	(580)	32.6	30.3	21.7	15.3	-
	하	(231)	35.9	32.0	15.6	16.5	-
성별	남성	(720)	36.0	29.3	18.9	15.8	-
	여성	(480)	30.0	31.7	22.5	15.8	-
연령별	20대 이하	(217)	35.5	28.6	20.3	15.7	-
	30대	(194)	35.1	26.3	20.1	18.6	-
	40대	(226)	34.1	25.7	24.3	15.9	-
	50대	(255)	30.6	31.0	20.0	18.4	-
	60대 이상	(308)	33.4	36.7	17.9	12.0	-
지역별	서울	(140)	39.3	35.0	18.6	7.1	-
	경기/인천	(245)	33.5	21.2	28.6	16.7	-
	부산/울산/경남	(208)	35.1	38.9	12.5	13.5	-
	대구/경북	(141)	38.3	46.8	8.5	6.4	-
	광주/전라	(170)	26.5	11.2	34.1	28.2	-
	대전/충청/세종	(205)	30.7	31.2	22.9	15.1	-
	강원/제주	(91)	34.1	35.2	5.5	25.3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5.3	34.9	14.9	14.9	-
	중·소도시	(639)	32.4	26.6	24.1	16.9	-
	읍/면	(37)	29.7	27.0	32.4	10.8	-
직업별	농/어/임업	(50)	48.0	32.0	10.0	10.0	-
	자영업자	(185)	38.4	23.8	20.5	17.3	-
	판매/서비스직	(194)	36.6	21.1	24.7	17.5	-
	기능/숙련공	(127)	32.3	29.9	15.7	22.0	-
	일반 노무직	(41)	48.8	24.4	17.1	9.8	-
	사무/기술직	(283)	32.2	32.2	20.8	14.8	-
	경영/관리직	(19)	10.5	36.8	26.3	26.3	-
	전문/자유직	(7)	14.3	42.9	14.3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27.2	39.6	21.3	11.8	-
	학생	(73)	34.2	34.2	17.8	13.7	-
	무직/휴직/은퇴	(52)	21.2	40.4	23.1	15.4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9.0	32.2	18.6	10.2	-
	고등학교	(440)	33.9	31.4	20.5	14.3	-
	전문대	(266)	36.1	25.9	20.7	17.3	-
	4년제 대학교	(427)	30.4	32.1	20.1	17.3	-
	대학원 이상	(8)	62.5	-	25.0	12.5	-
생활수준별	상	(73)	31.5	30.1	26.0	12.3	-
	중	(544)	33.3	31.8	22.1	12.9	-
	하	(583)	34.1	28.8	18.0	1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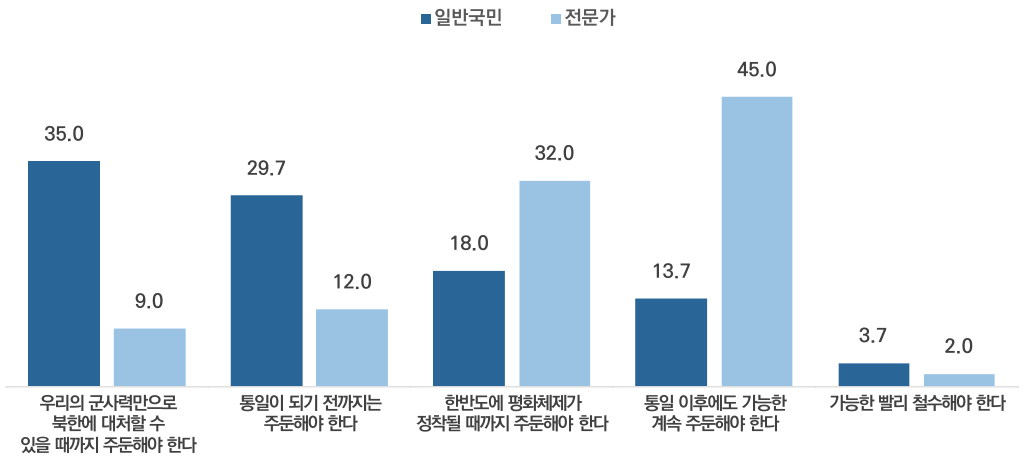
6. 주한미군 주둔 시기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일반국민은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29.5%, 전문가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2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의 비율은 5.5%p(2023년 29.5%) 증가했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의 비율은 7.8%p(2023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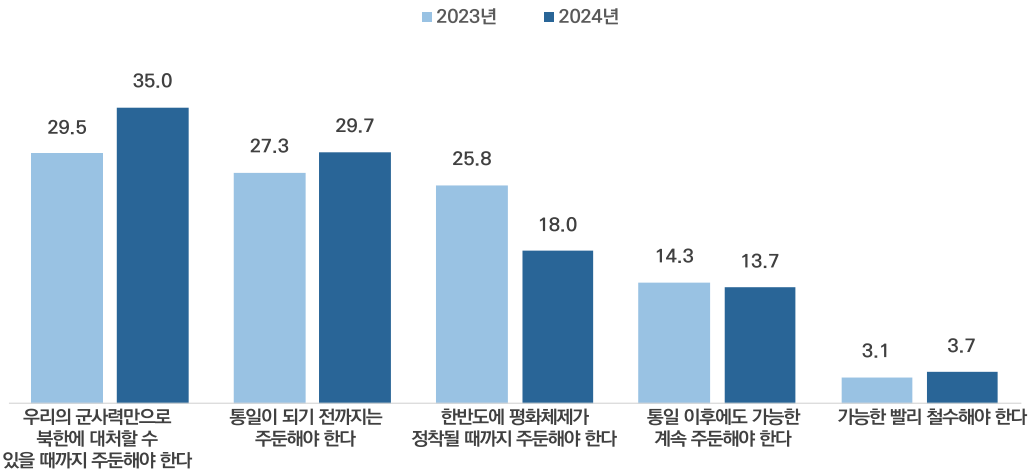
|그림 3-160| 주한미군 주둔 시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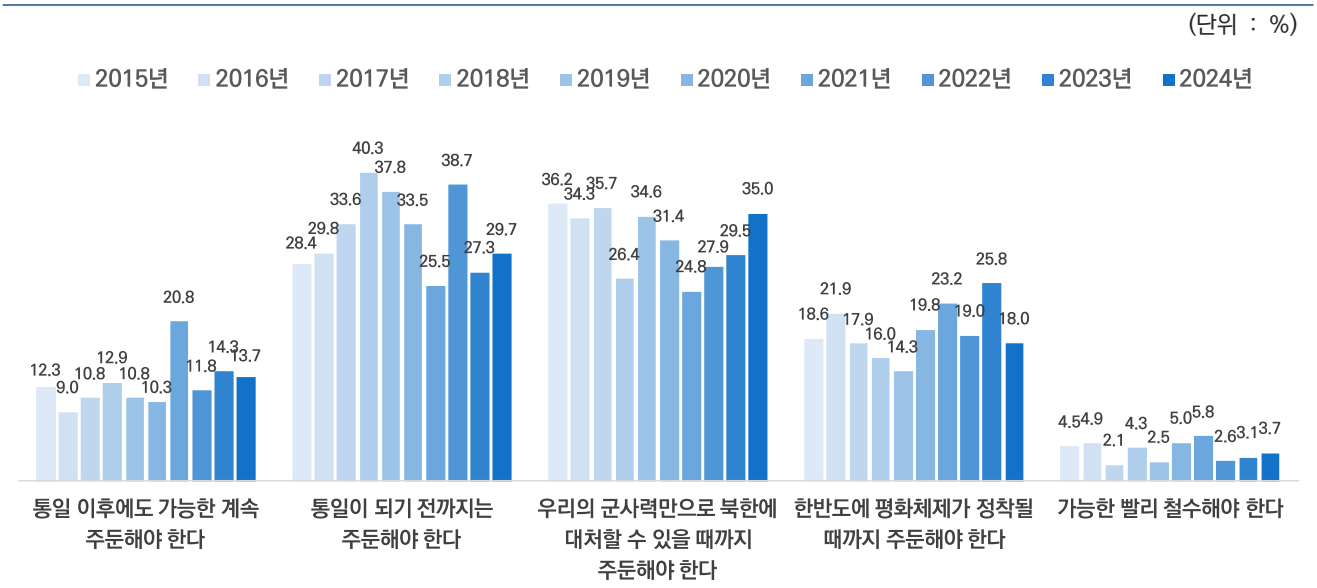
|그림 3-161|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p 증가했으며,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2|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05| 주한미군 주둔 시기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12.3	9.0	10.8	12.9	10.8	10.3	20.8	11.8	14.3	13.7	-0.6	1.4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28.4	29.8	33.6	40.3	37.8	33.5	25.5	38.7	27.3	29.7	2.4	1.3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36.2	34.3	35.7	26.4	34.6	31.4	24.8	27.9	29.5	35.0	5.5	-1.2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18.6	21.9	17.9	16.0	14.3	19.8	23.2	19.0	25.8	18.0	-7.8	-0.6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4.5	4.9	2.1	4.3	2.5	5.0	5.8	2.6	3.1	3.7	0.6	-0.8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6| 주한미군 주둔 시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전체		(1,300)	33.0	28.3	19.1	16.1	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0	29.7	18.0	13.7	3.7
	전문가	(100)	9.0	12.0	32.0	45.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1.9	33.9	21.1	10.3	2.8
	중	(580)	36.0	29.7	17.2	13.3	3.8
	하	(231)	37.7	22.5	14.7	20.3	4.8
성별	남성	(720)	34.9	29.6	18.2	13.5	3.9
	여성	(480)	35.2	29.8	17.7	14.0	3.3
연령별	20대 이하	(217)	38.2	25.3	20.7	11.1	4.6
	30대	(194)	40.7	27.8	17.0	11.3	3.1
	40대	(226)	38.1	27.0	11.9	17.3	5.8
	50대	(255)	32.2	35.7	17.6	11.0	3.5
	60대 이상	(308)	29.2	30.8	21.4	16.6	1.9
지역별	서울	(140)	30.0	52.9	9.3	3.6	4.3
	경기/인천	(245)	42.4	27.3	16.7	10.6	2.9
	부산/울산/경남	(208)	33.7	18.8	18.3	26.9	2.4
	대구/경북	(141)	27.0	28.4	23.4	21.3	-
	광주/전라	(170)	40.0	29.4	21.8	1.2	7.6
	대전/충청/세종	(205)	42.0	34.1	16.1	4.9	2.9
	강원/제주	(91)	13.2	17.6	23.1	38.5	7.7
지역크기	대도시	(524)	34.0	31.7	18.1	13.5	2.7
	중·소도시	(639)	35.4	27.1	18.3	14.6	4.7
	읍/면	(37)	43.2	45.9	10.8	-	-
직업별	농/어/임업	(50)	38.0	18.0	32.0	10.0	2.0
	자영업자	(185)	34.6	32.4	21.1	7.6	4.3
	판매/서비스직	(194)	40.2	27.8	13.4	12.9	5.7
	기능/숙련공	(127)	31.5	33.1	16.5	15.7	3.1
	일반 노무직	(41)	43.9	26.8	17.1	9.8	2.4
	사무/기술직	(283)	32.2	30.7	20.1	13.8	3.2
	경영/관리직	(19)	31.6	36.8	15.8	5.3	10.5
	전문/자유직	(7)	42.9	14.3	-	42.9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34.9	31.4	13.6	18.9	1.2
	학생	(73)	45.2	23.3	17.8	9.6	4.1
	무직/휴직/은퇴	(52)	17.3	28.8	21.2	26.9	5.8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2.2	32.2	18.6	13.6	3.4
	고등학교	(440)	35.7	28.0	18.6	14.3	3.4
	전문대	(266)	35.0	32.3	15.4	13.5	3.8
	4년제 대학교	(427)	34.9	28.8	19.0	13.3	4.0
	대학원 이상	(8)	25.0	62.5	12.5	-	-
생활수준별	상	(73)	41.1	30.1	12.3	12.3	4.1
	중	(544)	37.3	35.3	14.3	10.7	2.4
	하	(583)	32.1	24.4	22.1	16.6	4.8

7. 주한미군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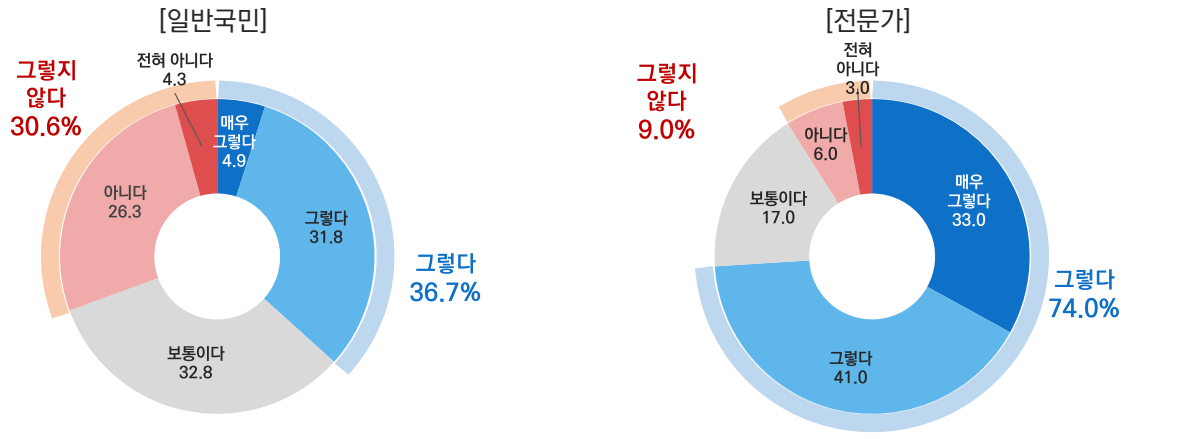
1)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36.7%, 전문가 7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36.7%로 '그렇지 않다'(30.6%)보다 6.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8%p(2023년 44.5%)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2.7%p(2023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는 74.0%로 '그렇지 않다'(9.0%)보다 65.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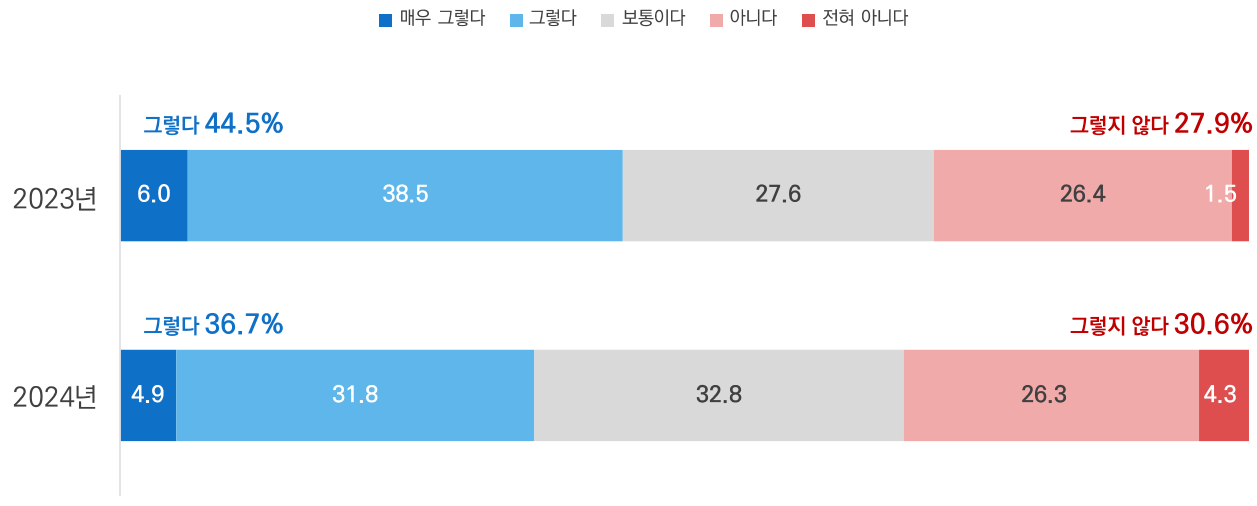
|그림 3-16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단위 : %)



|그림 3-16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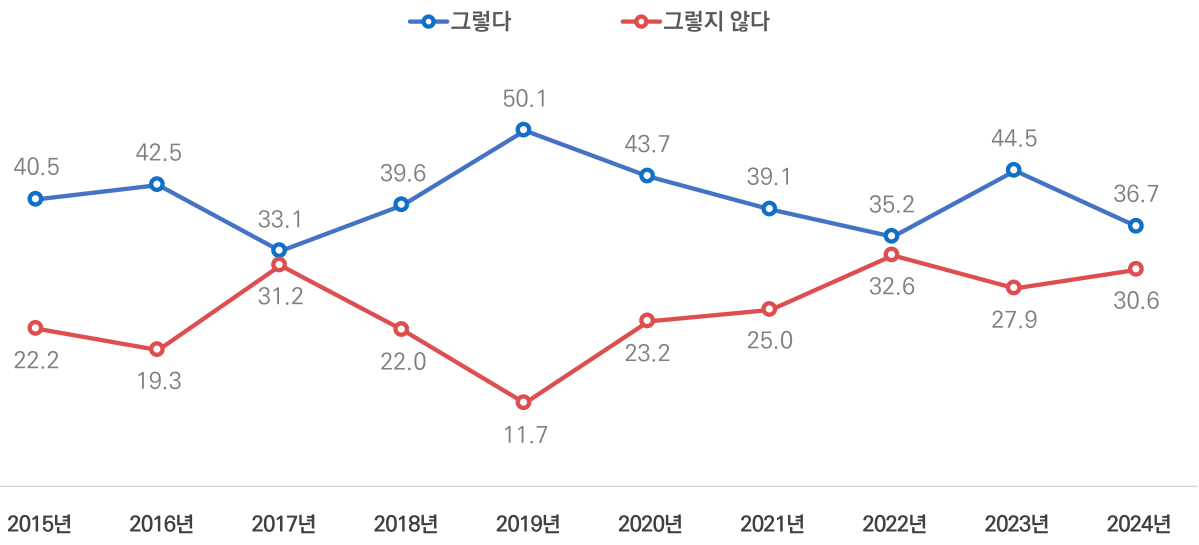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p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8.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5|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07|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4.8	4.1	4.3	8.3	4.0	3.3	11.9	4.8	6.0	4.9	-1.1	0.1
그렇다	35.7	38.4	28.8	31.3	46.1	40.4	27.2	30.3	38.5	31.8	-6.7	-3.9
보통이다	37.3	38.2	35.7	38.5	38.3	33.1	35.9	32.3	27.6	32.8	5.2	-4.5
아니다	19.3	16.0	26.3	19.2	10.2	20.1	16.5	30.4	26.4	26.3	-0.1	7.0
전혀 아니다	2.9	3.3	4.9	2.8	1.5	3.1	8.5	2.2	1.5	4.3	2.8	1.4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40.5	42.5	33.1	39.6	50.1	43.7	39.1	35.2	44.5	36.7	-7.8	-3.8
그렇지 않다	22.2	19.3	31.2	22.0	11.7	23.2	25.0	32.6	27.9	30.6	2.7	8.4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8| 주한미군 관련 의견 -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7.1	32.5	31.5	24.7	4.2	39.5	31.5	28.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	31.8	32.8	26.3	4.3	36.7	32.8	30.6
	전문가	(100)	33.0	41.0	17.0	6.0	3.0	74.0	17.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9	37.5	29.3	23.4	3.9	43.4	29.3	27.2
	중	(580)	5.5	32.6	34.8	23.6	3.4	38.1	34.8	27.1
	하	(231)	1.7	19.9	33.3	37.7	7.4	21.6	33.3	45.0
성별	남성	(720)	5.7	29.3	33.5	27.1	4.4	35.0	33.5	31.5
	여성	(480)	3.8	35.4	31.7	25.0	4.2	39.2	31.7	29.2
연령별	20대 이하	(217)	4.6	30.0	32.7	27.6	5.1	34.6	32.7	32.7
	30대	(194)	4.6	28.9	32.5	28.9	5.2	33.5	32.5	34.0
	40대	(226)	8.0	27.9	34.5	24.3	5.3	35.8	34.5	29.6
	50대	(255)	3.1	31.8	31.0	30.2	3.9	34.9	31.0	34.1
	60대 이상	(308)	4.5	37.7	33.1	21.8	2.9	42.2	33.1	24.7
지역별	서울	(140)	5.0	54.3	27.1	13.6	-	59.3	27.1	13.6
	경기/인천	(245)	2.0	26.9	39.2	29.4	2.4	29.0	39.2	31.8
	부산/울산/경남	(208)	3.4	30.3	34.6	24.0	7.7	33.7	34.6	31.7
	대구/경북	(141)	2.8	34.0	36.9	20.6	5.7	36.9	36.9	26.2
	광주/전라	(170)	0.6	26.5	35.3	34.1	3.5	27.1	35.3	37.6
	대전/충청/세종	(205)	14.1	33.7	21.0	27.8	3.4	47.8	21.0	31.2
	강원/제주	(91)	6.6	15.4	35.2	33.0	9.9	22.0	35.2	42.9
지역크기	대도시	(524)	3.4	38.7	32.6	23.3	1.9	42.2	32.6	25.2
	중·소도시	(639)	6.4	25.0	32.7	29.6	6.3	31.5	32.7	35.8
	읍/면	(37)	-	48.6	35.1	10.8	5.4	48.6	35.1	16.2
직업별	농/어/임업	(50)	-	34.0	24.0	34.0	8.0	34.0	24.0	42.0
	자영업자	(185)	5.4	40.0	30.8	19.5	4.3	45.4	30.8	23.8
	판매/서비스직	(194)	4.1	33.5	35.6	24.7	2.1	37.6	35.6	26.8
	기능/숙련공	(127)	7.1	25.2	37.0	26.8	3.9	32.3	37.0	30.7
	일반 노무직	(41)	14.6	19.5	39.0	19.5	7.3	34.1	39.0	26.8
	사무/기술직	(283)	3.9	23.7	34.3	32.9	5.3	27.6	34.3	38.2
	경영/관리직	(19)	5.3	31.6	26.3	31.6	5.3	36.8	26.3	36.8
	전문/자유직	(7)	-	28.6	57.1	14.3	-	28.6	57.1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5.3	37.9	30.8	23.1	3.0	43.2	30.8	26.0
	학생	(73)	2.7	34.2	24.7	30.1	8.2	37.0	24.7	38.4
	무직/휴직/은퇴	(52)	5.8	40.4	30.8	21.2	1.9	46.2	30.8	23.1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37.3	33.9	16.9	1.7	47.5	33.9	18.6
	고등학교	(440)	4.5	32.7	31.6	27.5	3.6	37.3	31.6	31.1
	전문대	(266)	4.1	35.0	36.1	19.9	4.9	39.1	36.1	24.8
	4년제 대학교	(427)	4.9	27.4	32.1	30.4	5.2	32.3	32.1	35.6
	대학원 이상	(8)	12.5	62.5	12.5	12.5	-	75.0	12.5	12.5
생활수준별	상	(73)	9.6	37.0	24.7	26.0	2.7	46.6	24.7	28.8
	중	(544)	5.1	35.1	34.2	22.6	2.9	40.3	34.2	25.6
	하	(583)	4.1	28.0	32.4	29.7	5.8	32.1	32.4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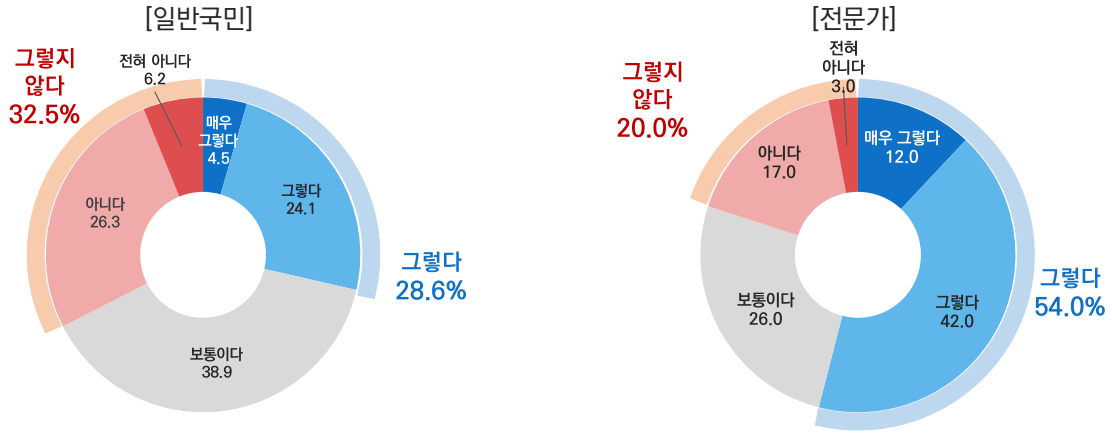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한 수준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그렇지 않다' 32.5%, 전문가는 '그렇다' 5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그렇다'(28.6%)보다 3.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2%p(2023년 31.3%) 증가했으며, '그렇다'는 1.3%p(2023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라는 응답이 54.0%로 '그렇지 않다'(20.0%)라는 응답보다 3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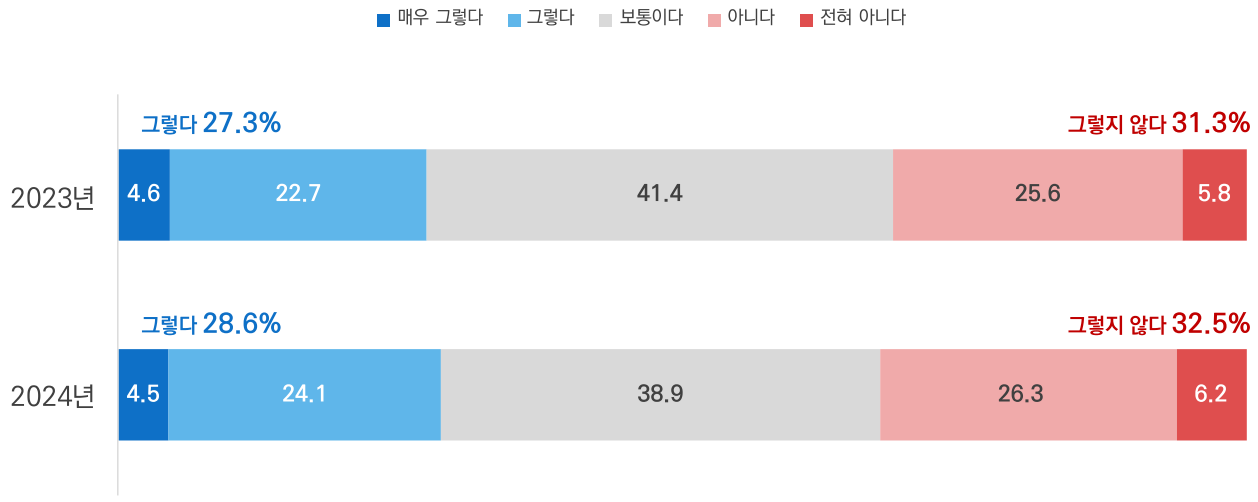
|그림 3-166|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단위 : %)



|그림 3-167|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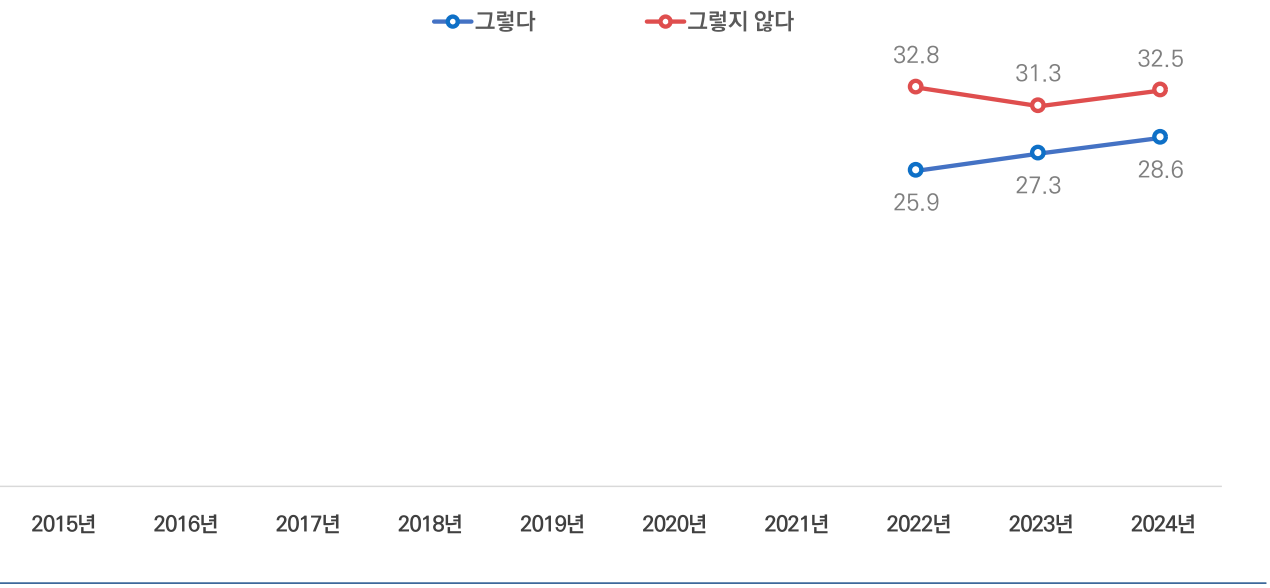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비율은 2.7%p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은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8|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09|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5.0	4.6	4.5	-0.1	-0.5
그렇다	–	–	–	–	–	–	–	20.9	22.7	24.1	1.4	3.2
보통이다	–	–	–	–	–	–	–	41.3	41.4	38.9	-2.5	-2.4
아니다	–	–	–	–	–	–	–	29.9	25.6	26.3	0.7	-3.6
전혀 아니다	–	–	–	–	–	–	–	2.9	5.8	6.2	0.4	3.3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25.9	27.3	28.6	1.3	2.7
그렇지 않다	–	–	–	–	–	–	–	32.8	31.3	32.5	1.2	-0.3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0| 주한미군 관련 의견 -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5.1	25.5	37.9	25.6	5.9	30.5	37.9	31.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	24.1	38.9	26.3	6.2	28.6	38.9	32.5
	전문가	(100)	12.0	42.0	26.0	17.0	3.0	54.0	26.0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6.4	27.0	39.1	21.6	5.9	33.4	39.1	27.5
	중	(580)	4.7	24.0	41.7	25.3	4.3	28.6	41.7	29.7
	하	(231)	0.9	19.5	31.6	36.8	11.3	20.3	31.6	48.1
성별	남성	(720)	4.6	24.2	38.6	26.4	6.3	28.8	38.6	32.6
	여성	(480)	4.4	24.0	39.4	26.3	6.0	28.3	39.4	32.3
연령별	20대 이하	(217)	4.6	23.5	35.9	27.2	8.8	28.1	35.9	35.9
	30대	(194)	4.6	21.6	40.2	27.3	6.2	26.3	40.2	33.5
	40대	(226)	6.2	27.0	36.3	25.2	5.3	33.2	36.3	30.5
	50대	(255)	3.1	19.6	40.8	31.0	5.5	22.7	40.8	36.5
	60대 이상	(308)	4.2	27.6	40.6	22.1	5.5	31.8	40.6	27.6
지역별	서울	(140)	1.4	35.7	29.3	32.1	1.4	37.1	29.3	33.6
	경기/인천	(245)	0.8	22.4	44.1	29.8	2.9	23.3	44.1	32.7
	부산/울산/경남	(208)	3.8	19.7	38.9	23.6	13.9	23.6	38.9	37.5
	대구/경북	(141)	2.1	30.5	37.6	22.7	7.1	32.6	37.6	29.8
	광주/전라	(170)	1.8	21.8	49.4	21.2	5.9	23.5	49.4	27.1
	대전/충청/세종	(205)	14.6	23.9	30.7	24.9	5.9	38.5	30.7	30.7
	강원/제주	(91)	6.6	15.4	40.7	33.0	4.4	22.0	40.7	37.4
지역크기	대도시	(524)	2.7	26.1	41.2	25.6	4.4	28.8	41.2	30.0
	중·소도시	(639)	5.8	21.0	37.2	28.2	7.8	26.8	37.2	36.0
	읍/면	(37)	8.1	48.6	35.1	5.4	2.7	56.8	35.1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36.0	34.0	12.0	14.0	40.0	34.0	26.0
	자영업자	(185)	3.2	24.3	42.7	26.5	3.2	27.6	42.7	29.7
	판매/서비스직	(194)	4.6	25.3	39.7	26.8	3.6	29.9	39.7	30.4
	기능/숙련공	(127)	5.5	26.0	30.7	31.5	6.3	31.5	30.7	37.8
	일반 노무직	(41)	12.2	17.1	41.5	24.4	4.9	29.3	41.5	29.3
	사무/기술직	(283)	2.5	20.8	40.6	27.9	8.1	23.3	40.6	36.0
	경영/관리직	(19)	5.3	15.8	42.1	15.8	21.1	21.1	42.1	36.8
	전문/자유직	(7)	-	-	57.1	42.9	-	-	57.1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6.5	25.4	39.6	25.4	3.0	32.0	39.6	28.4
	학생	(73)	4.1	19.2	37.0	27.4	12.3	23.3	37.0	39.7
	무직/휴직/은퇴	(52)	5.8	34.6	32.7	21.2	5.8	40.4	32.7	26.9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5	28.8	42.4	16.9	3.4	37.3	42.4	20.3
	고등학교	(440)	4.5	25.2	36.4	28.0	5.9	29.8	36.4	33.9
	전문대	(266)	4.1	27.1	36.1	28.9	3.8	31.2	36.1	32.7
	4년제 대학교	(427)	4.2	19.9	43.3	24.1	8.4	24.1	43.3	32.6
	대학원 이상	(8)	-	50.0	12.5	37.5	-	50.0	1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4.1	23.3	39.7	26.0	6.8	27.4	39.7	32.9
	중	(544)	5.5	26.1	39.3	25.6	3.5	31.6	39.3	29.0
	하	(583)	3.6	22.3	38.4	27.1	8.6	25.9	38.4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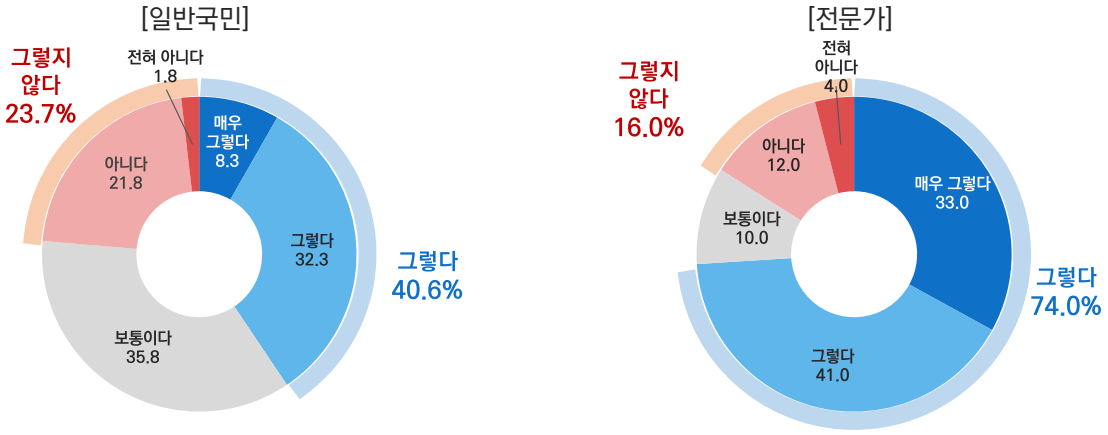
3)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국군이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0.6%, 전문가 7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0.6%로 '그렇지 않다'(23.7%)라는 응답보다 16.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p(2023년 42.8%)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5.7%p(2023년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라는 응답이 74.0%로 '그렇지 않다'(16.0%)라는 응답보다 58.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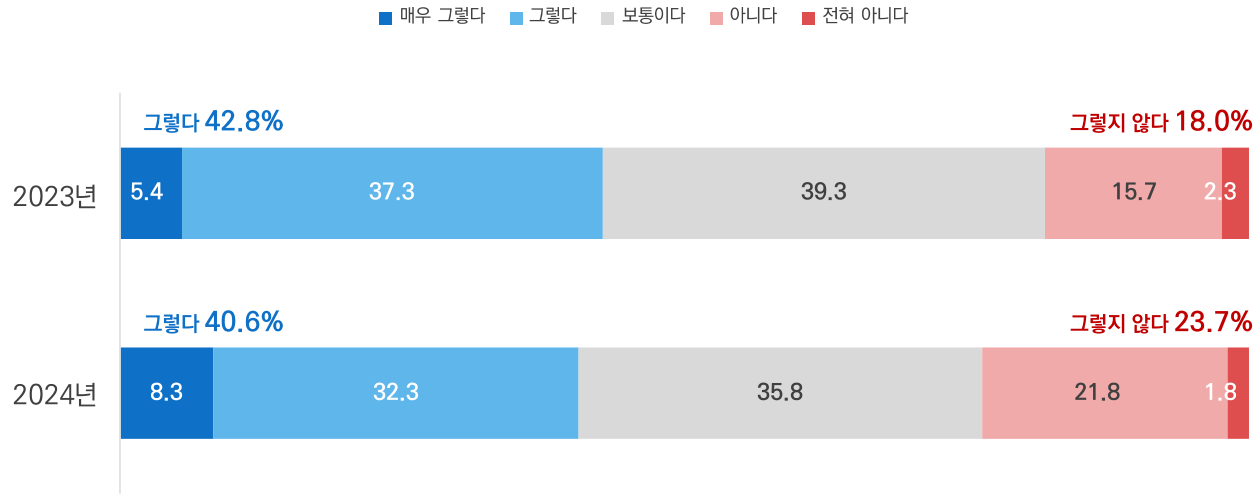
|그림 3-169|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단위 : %)



|그림 3-170|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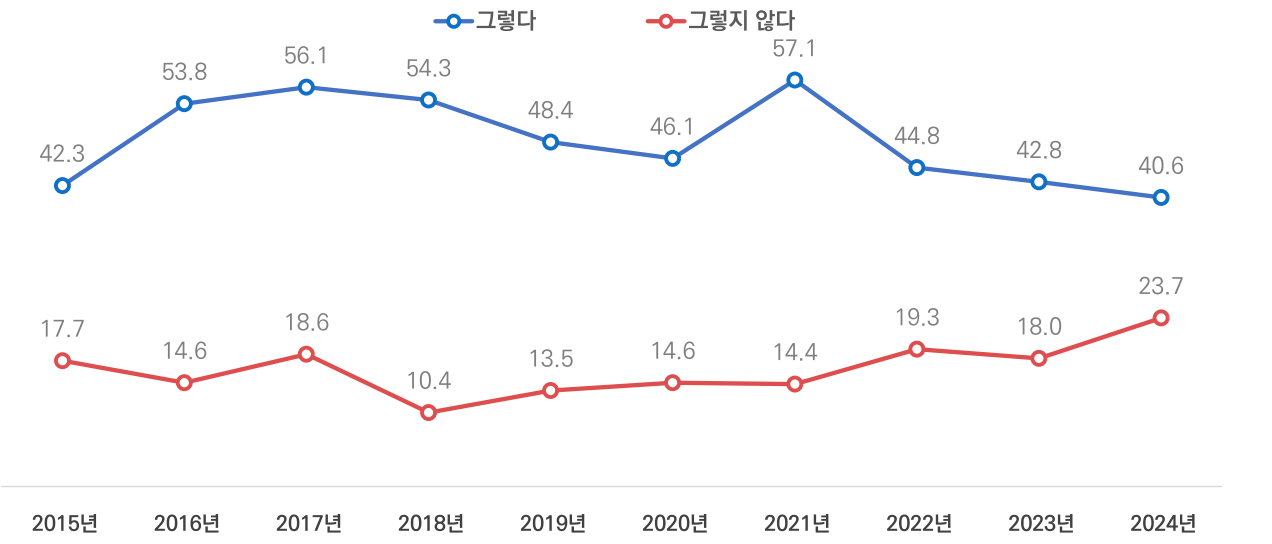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비율은 1.7%p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은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1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9.5	11.8	15.3	13.8	7.7	7.1	20.8	8.3	5.4	8.3	2.9	-1.2
그렇다	32.8	41.9	40.8	40.5	40.8	39.0	36.3	36.5	37.3	32.3	-5.0	-0.5
보통이다	40.0	31.7	25.4	35.3	38.1	39.3	28.5	36.0	39.3	35.8	-3.5	-4.2
아니다	16.0	13.2	15.8	9.3	11.3	13.8	10.5	16.8	15.7	21.8	6.1	5.8
전혀 아니다	1.7	1.4	2.8	1.1	2.3	0.8	3.9	2.5	2.3	1.8	-0.5	0.1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42.3	53.8	56.1	54.3	48.4	46.1	57.1	44.8	42.8	40.6	-2.2	-1.7
그렇지 않다	17.7	14.6	18.6	10.4	13.5	14.6	14.4	19.3	18.0	23.7	5.7	6.0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10.2	33.0	33.8	21.1	2.0	43.2	33.8	23.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3	32.3	35.8	21.8	1.8	40.6	35.8	23.7
	전문가	(100)	33.0	41.0	10.0	12.0	4.0	74.0	10.0	1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9.3	35.2	34.2	18.8	2.6	44.5	34.2	21.3
	중	(580)	8.8	31.9	35.7	22.2	1.4	40.7	35.7	23.6
	하	(231)	5.2	28.6	38.5	26.0	1.7	33.8	38.5	27.7
성별	남성	(720)	8.9	30.0	36.0	23.3	1.8	38.9	36.0	25.1
	여성	(480)	7.3	35.8	35.4	19.6	1.9	43.1	35.4	21.5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	30.4	40.1	22.6	0.9	36.4	40.1	23.5
	30대	(194)	11.3	25.8	36.1	24.2	2.6	37.1	36.1	26.8
	40대	(226)	7.1	33.6	36.3	20.8	2.2	40.7	36.3	23.0
	50대	(255)	9.0	31.8	38.0	19.2	2.0	40.8	38.0	21.2
	60대 이상	(308)	8.1	37.3	30.2	22.7	1.6	45.5	30.2	24.4
지역별	서울	(140)	13.6	26.4	45.7	13.6	0.7	40.0	45.7	14.3
	경기/인천	(245)	3.7	37.1	35.5	22.0	1.6	40.8	35.5	23.7
	부산/울산/경남	(208)	3.4	33.2	36.5	24.0	2.9	36.5	36.5	26.9
	대구/경북	(141)	10.6	29.8	31.9	27.0	0.7	40.4	31.9	27.7
	광주/전라	(170)	1.2	39.4	41.8	16.5	1.2	40.6	41.8	17.6
	대전/충청/세종	(205)	20.0	28.3	25.4	24.4	2.0	48.3	25.4	26.3
	강원/제주	(91)	6.6	26.4	37.4	25.3	4.4	33.0	37.4	29.7
지역크기	대도시	(524)	9.5	28.6	36.6	23.9	1.3	38.2	36.6	25.2
	중·소도시	(639)	6.4	35.5	34.7	21.1	2.2	41.9	34.7	23.3
	읍/면	(37)	21.6	29.7	40.5	5.4	2.7	51.4	40.5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48.0	26.0	20.0	4.0	50.0	26.0	24.0
	자영업자	(185)	5.4	30.3	41.1	21.1	2.2	35.7	41.1	23.2
	판매/서비스직	(194)	5.2	36.1	36.6	21.1	1.0	41.2	36.6	22.2
	기능/숙련공	(127)	11.8	28.3	33.9	25.2	0.8	40.2	33.9	26.0
	일반 노무직	(41)	9.8	39.0	24.4	26.8	-	48.8	24.4	26.8
	사무/기술직	(283)	9.5	27.9	37.8	23.0	1.8	37.5	37.8	24.7
	경영/관리직	(19)	5.3	36.8	31.6	21.1	5.3	42.1	31.6	26.3
	전문/자유직	(7)	-	28.6	14.3	57.1	-	28.6	14.3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9.5	35.5	37.3	16.0	1.8	45.0	37.3	17.8
	학생	(73)	6.8	32.9	37.0	21.9	1.4	39.7	37.0	23.3
	무직/휴직/은퇴	(52)	19.2	26.9	23.1	25.0	5.8	46.2	23.1	30.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30.5	33.9	23.7	1.7	40.7	33.9	25.4
	고등학교	(440)	8.6	37.7	30.5	21.6	1.6	46.4	30.5	23.2
	전문대	(266)	6.4	32.7	35.0	22.9	3.0	39.1	35.0	25.9
	4년제 대학교	(427)	8.7	27.2	42.2	20.6	1.4	35.8	42.2	22.0
	대학원 이상	(8)	12.5	12.5	25.0	50.0	-	25.0	25.0	50.0
생활수준별	상	(73)	6.8	32.9	31.5	23.3	5.5	39.7	31.5	28.8
	중	(544)	9.4	35.8	37.3	16.5	0.9	45.2	37.3	17.5
	하	(583)	7.4	29.0	34.8	26.6	2.2	36.4	34.8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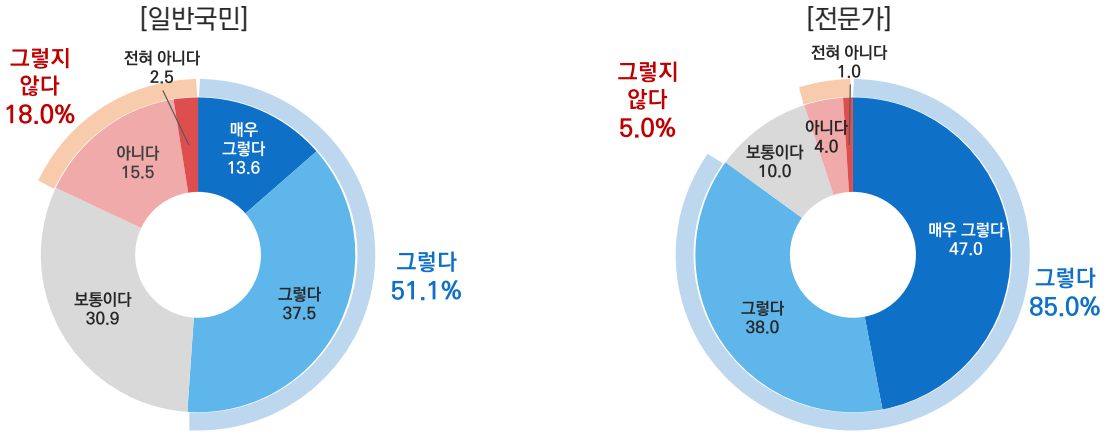
4)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51.1%,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그렇지 않다'(18.0%)보다 33.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p(2023년 53.4%)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4.1%p(2023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는 85.0%로 '그렇지 않다'(5.0%)보다 8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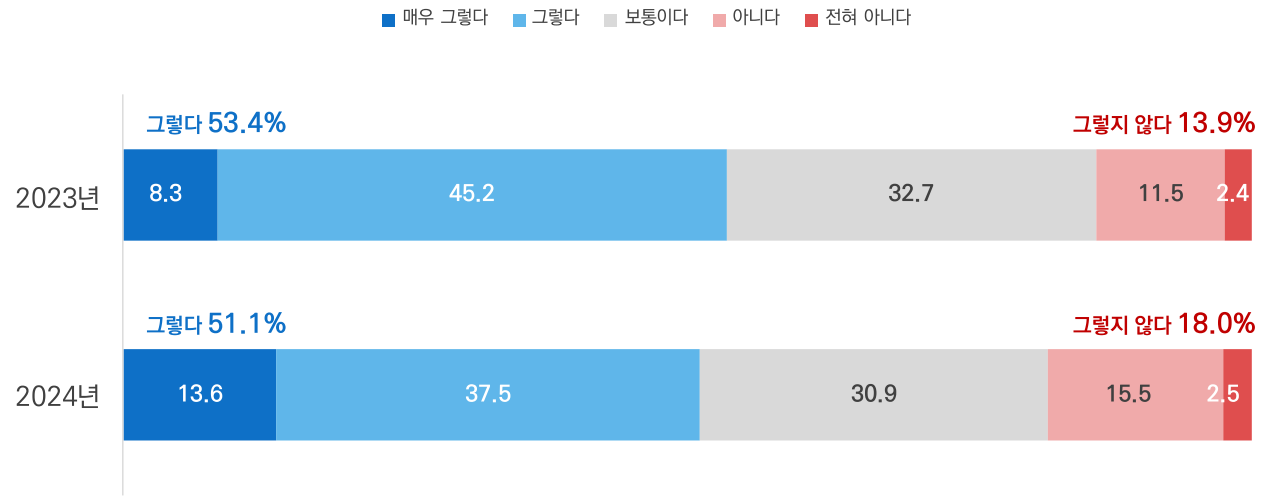
|그림 3-17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단위 : %)



|그림 3-17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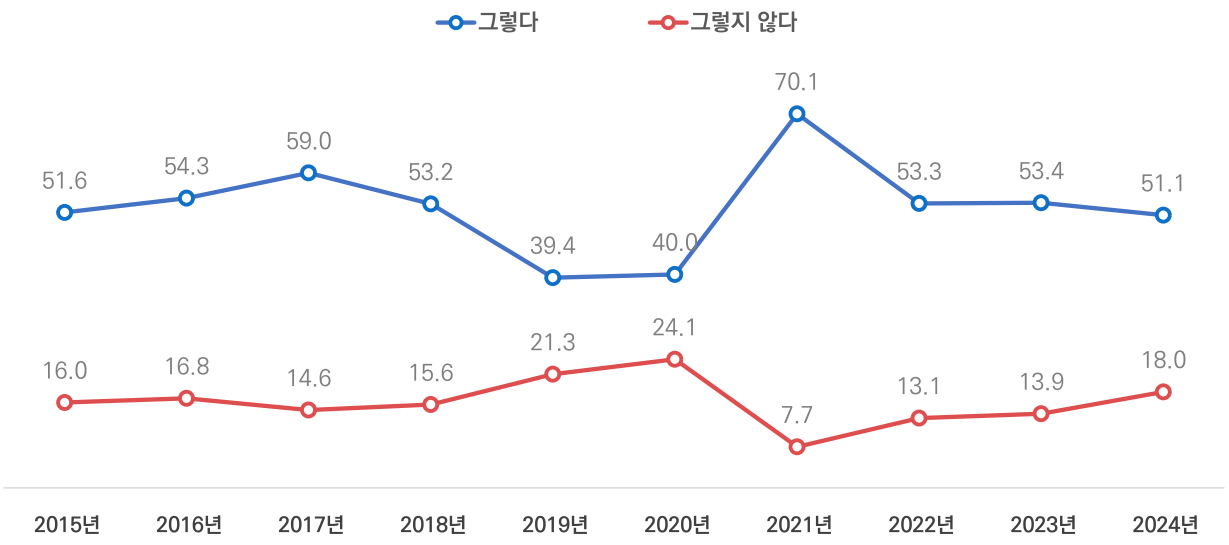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1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6.8	7.3	10.3	7.2	6.6	6.5	22.3	10.3	8.3	13.6	5.3	6.8
그렇다	44.8	47.0	48.7	46.0	32.8	33.5	47.8	43.0	45.2	37.5	-7.7	-7.3
보통이다	32.4	28.8	26.4	31.3	39.3	35.8	22.3	33.6	32.7	30.9	-1.8	-1.5
아니다	14.3	14.9	13.8	12.3	20.9	23.8	6.3	12.3	11.5	15.5	4.0	1.2
전혀 아니다	1.7	1.9	0.8	3.3	0.4	0.3	1.3	0.8	2.4	2.5	0.1	0.8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51.6	54.3	59.0	53.2	39.4	40.0	70.1	53.3	53.4	51.1	-2.3	-0.5
그렇지 않다	16.0	16.8	14.6	15.6	21.3	24.1	7.7	13.1	13.9	18.0	4.1	2.0

※ 2015~2021년 문항 보기가 '안정될 것-불안정해질 것'으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1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16.2	37.5	29.3	14.6	2.4	53.7	29.3	17.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6	37.5	30.9	15.5	2.5	51.1	30.9	18.0
	전문가	(100)	47.0	38.0	10.0	4.0	1.0	85.0	10.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2	41.1	25.2	15.4	3.1	56.3	25.2	18.5
	중	(580)	14.1	37.4	31.6	14.8	2.1	51.6	31.6	16.9
	하	(231)	9.5	31.6	39.0	17.3	2.6	41.1	39.0	19.9
성별	남성	(720)	13.8	38.2	29.4	15.8	2.8	51.9	29.4	18.6
	여성	(480)	13.3	36.5	33.1	15.0	2.1	49.8	33.1	17.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3.8	33.2	34.6	16.6	1.8	47.0	34.6	18.4
	30대	(194)	11.9	33.0	37.1	14.9	3.1	44.8	37.1	18.0
	40대	(226)	15.9	35.4	30.1	14.6	4.0	51.3	30.1	18.6
	50대	(255)	13.7	40.0	26.7	17.3	2.4	53.7	26.7	19.6
	60대 이상	(308)	12.7	42.9	28.6	14.3	1.6	55.5	28.6	15.9
지역별	서울	(140)	14.3	40.7	34.3	8.6	2.1	55.0	34.3	10.7
	경기/인천	(245)	11.4	41.6	32.2	11.8	2.9	53.1	32.2	14.7
	부산/울산/경남	(208)	10.1	44.7	31.7	11.5	1.9	54.8	31.7	13.5
	대구/경북	(141)	15.6	31.9	29.8	20.6	2.1	47.5	29.8	22.7
	광주/전라	(170)	12.9	34.7	30.0	20.0	2.4	47.6	30.0	22.4
	대전/충청/세종	(205)	17.6	35.6	25.9	19.0	2.0	53.2	25.9	21.0
	강원/제주	(91)	15.4	23.1	35.2	20.9	5.5	38.5	35.2	26.4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1	38.4	30.3	13.9	2.3	53.4	30.3	16.2
	중·소도시	(639)	13.0	36.2	31.0	17.2	2.7	49.1	31.0	19.9
	읍/면	(37)	2.7	48.6	37.8	8.1	2.7	51.4	37.8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44.0	22.0	14.0	2.0	62.0	22.0	16.0
	자영업자	(185)	10.3	44.9	28.1	13.0	3.8	55.1	28.1	16.8
	판매/서비스직	(194)	11.3	35.6	33.0	18.6	1.5	46.9	33.0	20.1
	기능/숙련공	(127)	15.0	33.9	32.3	17.3	1.6	48.8	32.3	18.9
	일반 노무직	(41)	14.6	39.0	24.4	19.5	2.4	53.7	24.4	22.0
	사무/기술직	(283)	12.4	36.4	33.2	15.2	2.8	48.8	33.2	18.0
	경영/관리직	(19)	21.1	36.8	10.5	31.6	-	57.9	10.5	31.6
	전문/자유직	(7)	-	14.3	57.1	14.3	14.3	14.3	57.1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7.8	39.1	29.0	12.4	1.8	56.8	29.0	14.2
	학생	(73)	13.7	31.5	39.7	11.0	4.1	45.2	39.7	15.1
	무직/휴직/은퇴	(52)	17.3	32.7	28.8	19.2	1.9	50.0	28.8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40.7	33.9	11.9	-	54.2	33.9	11.9
	고등학교	(440)	13.9	39.8	29.3	15.2	1.8	53.6	29.3	17.0
	전문대	(266)	13.2	37.6	30.1	15.4	3.8	50.8	30.1	19.2
	4년제 대학교	(427)	13.3	34.9	33.0	16.2	2.6	48.2	33.0	18.7
	대학원 이상	(8)	25.0	25.0	12.5	25.0	12.5	50.0	1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15.1	41.1	20.5	15.1	8.2	56.2	20.5	23.3
	중	(544)	15.6	40.1	31.6	11.4	1.3	55.7	31.6	12.7
	하	(583)	11.5	34.6	31.6	19.4	2.9	46.1	31.6	22.3

8.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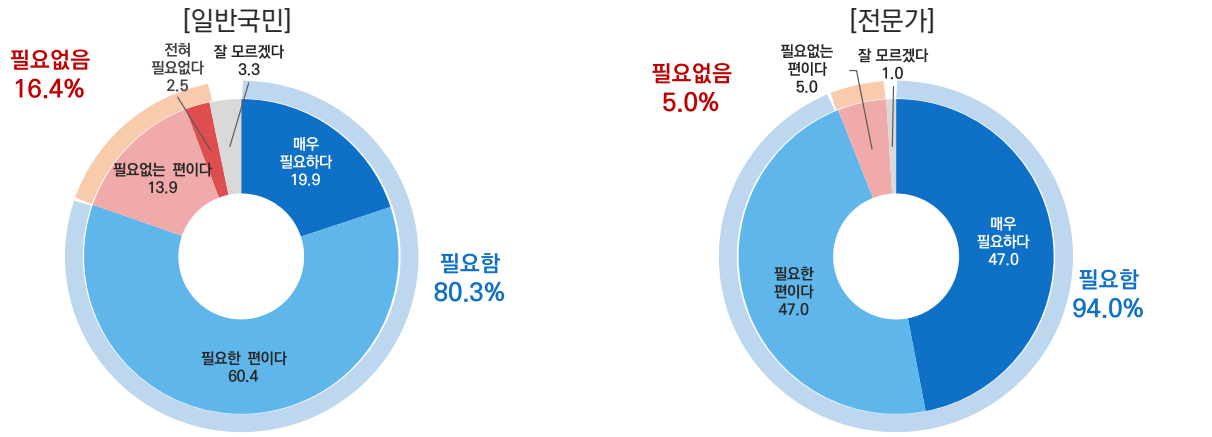
1)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0.3%, 전문가 9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80.3%로 '필요없음'(16.4%)이라는 응답보다 63.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p(2023년 72.1%) 증가했으며, '필요없음'은 10.2%p(2023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94.0%로 '필요없음'(5.0%)이라는 응답보다 8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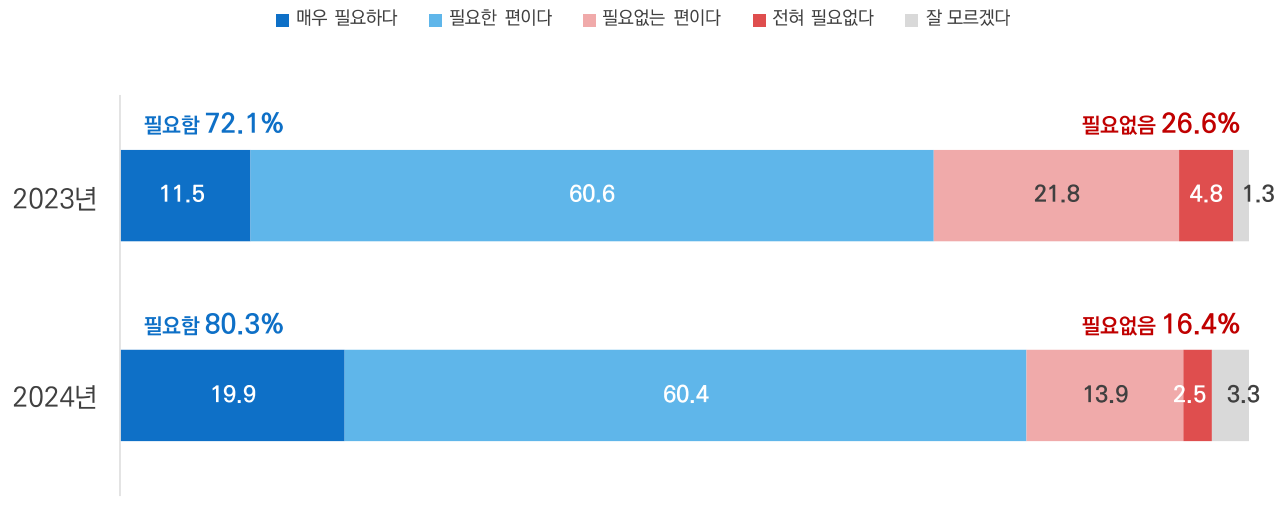
|그림 3-175|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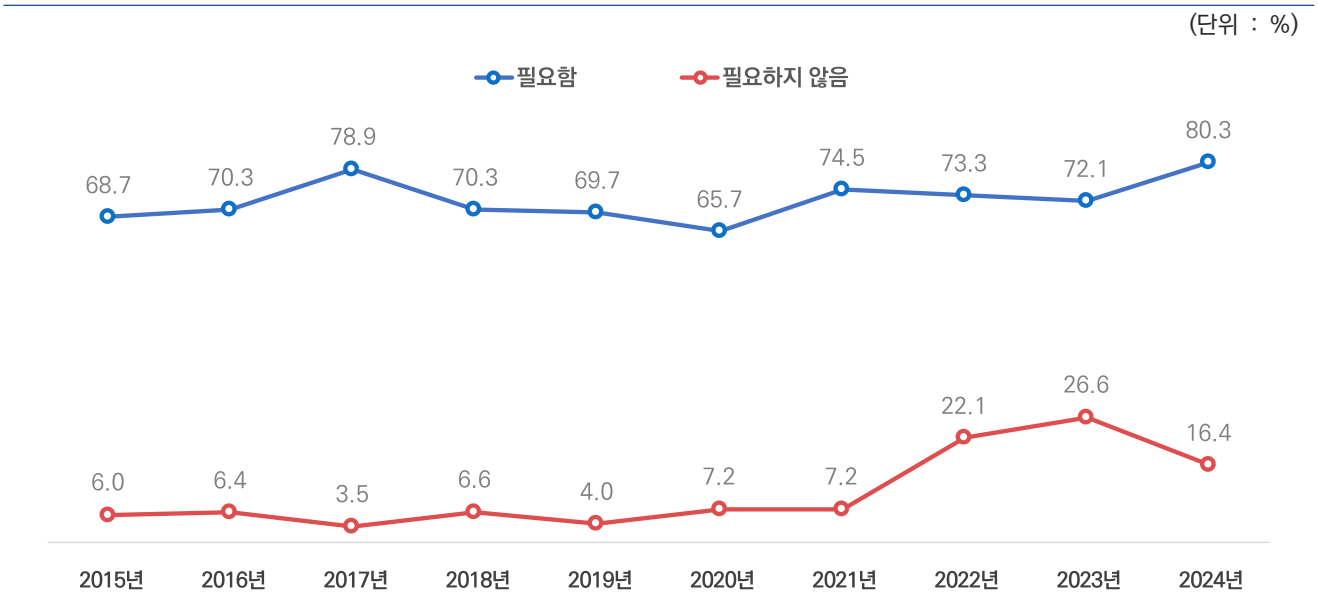
|그림 3-176|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율은 11.6%p 증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1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7|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15|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필요하다	14.1	15.0	20.4	16.3	10.8	8.2	34.0	9.6	11.5	19.9	8.4	5.8
필요한 편이다	54.6	55.3	58.5	54.0	58.9	57.5	40.5	63.8	60.6	60.4	-0.2	5.8
그저 그렇다	25.3	23.3	17.6	23.2	26.3	27.2	18.3	-	-	-	-	-
필요없는 편이다	5.5	5.9	3.2	5.8	3.4	7.0	5.9	19.7	21.8	13.9	-7.9	8.4
전혀 필요없다	0.5	0.5	0.3	0.8	0.6	0.2	1.3	2.4	4.8	2.5	-2.3	2.0
잘 모르겠다	-	-	-	-	-	-	-	4.6	1.3	3.3	2.0	-
무응답	-	-	-	-	-	-	-	-	-	-	-	-
필요함	68.7	70.3	78.9	70.3	69.7	65.7	74.5	73.3	72.1	80.3	8.2	11.6
필요하지 않음	6.0	6.4	3.5	6.6	4.0	7.2	7.2	22.1	26.6	16.4	-10.2	10.4

※ 2021년 이전까지 보기 항목 '그저 그렇다'가 있었으나 삭제하였으며, 2022년 보기 항목 '잘 모르겠다'라는 보기 항목이 추가되었음

✔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함'이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6|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종합		
								필요함	필요 없음	잘 모름
전체		(1,300)	22.0	59.4	13.2	2.3	3.1	81.4	15.5	3.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9	60.4	13.9	2.5	3.3	80.3	16.4	3.3
	전문가	(100)	47.0	47.0	5.0	-	1.0	94.0	5.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0.6	59.9	14.7	2.3	2.6	80.5	17.0	2.6
	중	(580)	19.3	60.5	14.3	2.8	3.1	79.8	17.1	3.1
	하	(231)	20.3	61.0	11.7	2.2	4.8	81.4	13.9	4.8
성별	남성	(720)	20.6	60.0	13.6	2.9	2.9	80.6	16.5	2.9
	여성	(480)	19.0	61.0	14.4	1.9	3.8	80.0	16.3	3.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7.1	60.4	16.1	1.4	5.1	77.4	17.5	5.1
	30대	(194)	16.0	61.9	14.4	4.1	3.6	77.8	18.6	3.6
	40대	(226)	17.3	60.2	18.1	3.1	1.3	77.4	21.2	1.3
	50대	(255)	22.0	57.6	15.3	2.0	3.1	79.6	17.3	3.1
	60대 이상	(308)	24.7	62.0	7.8	2.3	3.2	86.7	10.1	3.2
지역별	서울	(140)	20.7	63.6	12.1	-	3.6	84.3	12.1	3.6
	경기/인천	(245)	18.4	58.8	15.9	6.9	-	77.1	22.9	-
	부산/울산/경남	(208)	21.6	59.1	13.9	2.4	2.9	80.8	16.3	2.9
	대구/경북	(141)	25.5	56.0	14.9	1.4	2.1	81.6	16.3	2.1
	광주/전라	(170)	1.2	79.4	10.0	0.6	8.8	80.6	10.6	8.8
	대전/충청/세종	(205)	27.8	50.2	18.5	1.5	2.0	78.0	20.0	2.0
	강원/제주	(91)	27.5	57.1	6.6	2.2	6.6	84.6	8.8	6.6
지역크기	대도시	(524)	17.0	63.7	13.2	3.4	2.7	80.7	16.6	2.7
	중·소도시	(639)	22.8	57.6	14.2	1.6	3.8	80.4	15.8	3.8
	읍/면	(37)	10.8	62.2	18.9	5.4	2.7	73.0	24.3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30.0	54.0	12.0	2.0	2.0	84.0	14.0	2.0
	자영업자	(185)	15.7	61.6	16.8	3.8	2.2	77.3	20.5	2.2
	판매/서비스직	(194)	13.4	68.0	15.5	1.0	2.1	81.4	16.5	2.1
	기능/숙련공	(127)	24.4	52.0	15.7	4.7	3.1	76.4	20.5	3.1
	일반 노무직	(41)	29.3	58.5	7.3	2.4	2.4	87.8	9.8	2.4
	사무/기술직	(283)	16.6	61.5	15.5	2.8	3.5	78.1	18.4	3.5
	경영/관리직	(19)	31.6	47.4	15.8	5.3	-	78.9	21.1	-
	전문/자유직	(7)	14.3	71.4	14.3	-	-	85.7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3.1	63.3	7.1	1.8	4.7	86.4	8.9	4.7
	학생	(73)	20.5	54.8	17.8	-	6.8	75.3	17.8	6.8
	무직/휴직/은퇴	(52)	34.6	51.9	7.7	1.9	3.8	86.5	9.6	3.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3.7	62.7	8.5	1.7	3.4	86.4	10.2	3.4
	고등학교	(440)	23.0	59.5	12.5	2.0	3.0	82.5	14.5	3.0
	전문대	(266)	15.8	62.0	15.8	3.0	3.4	77.8	18.8	3.4
	4년제 대학교	(427)	18.3	60.9	14.8	2.6	3.5	79.2	17.3	3.5
	대학원 이상	(8)	50.0	12.5	25.0	12.5	-	62.5	37.5	-
생활수준별	상	(73)	26.0	42.5	20.5	8.2	2.7	68.5	28.8	2.7
	중	(544)	20.6	61.2	13.4	2.0	2.8	81.8	15.4	2.8
	하	(583)	18.5	61.9	13.6	2.2	3.8	80.4	15.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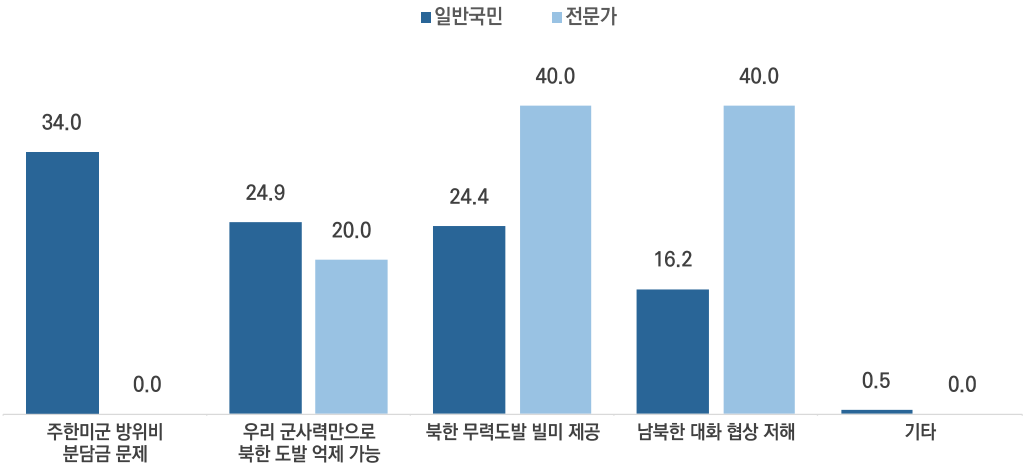
2)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34.0%, 전문가는 '북한 무력도발 빌미 제공'과 '남북한 대화 협상 저해' 각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도발 억제 가능'(2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도발 억제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5%p(2023년 46.4%) 감소했으며, '북한 무력도발 빌미 제공'은 4.7%p(2023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무력도발 빌미 제공'이라는 응답과 '남북한 대화 협상 저해' 라는 응답(각 40.0%) 모두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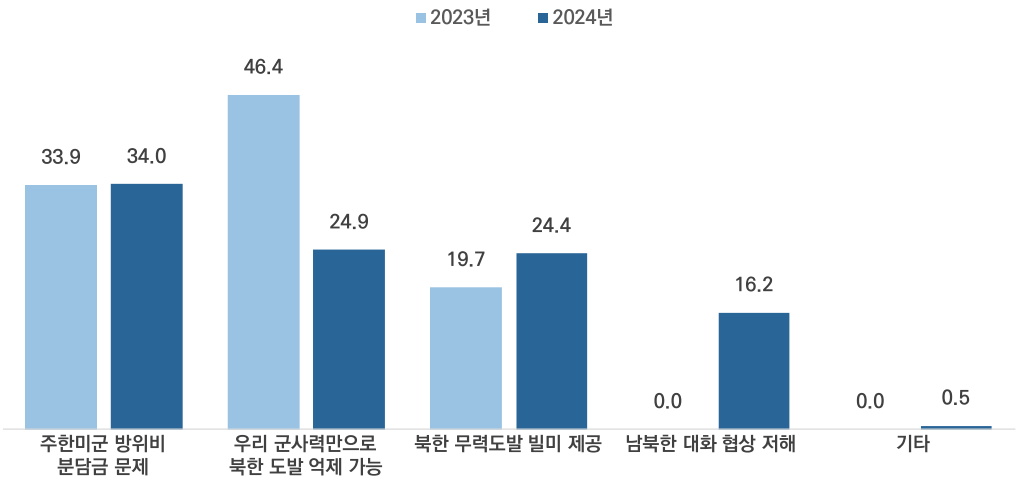
|그림 3-178|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

(단위 : %)



|그림 3-179|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2024년 '남북한 대화 협상 저해' 보기 항목 추가로 2023년과 비교 어려움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도발 억제 가능'이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7|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도발 억제 가능	북한 무력도발 빌미 제공	남북한 대화 협상 저해	기타
전체		(202)	33.2	24.8	24.8	16.8	0.5
대상별	일반국민	(197)	34.0	24.9	24.4	16.2	0.5
	전문가	(5)	-	20.0	40.0	40.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6)	25.8	31.8	25.8	16.7	-
	중	(99)	32.3	26.3	25.3	15.2	1.0
	하	(32)	56.3	6.3	18.8	18.8	-
성별	남성	(119)	35.3	25.2	23.5	15.1	0.8
	여성	(78)	32.1	24.4	25.6	17.9	-
연령별	20대 이하	(38)	44.7	10.5	26.3	15.8	2.6
	30대	(36)	47.2	13.9	19.4	19.4	-
	40대	(48)	29.2	41.7	18.8	10.4	-
	50대	(44)	25.0	29.5	27.3	18.2	-
	60대 이상	(31)	25.8	22.6	32.3	19.4	-
지역별	서울	(17)	11.8	35.3	29.4	23.5	-
	경기/인천	(56)	33.9	28.6	25.0	12.5	-
	부산/울산/경남	(34)	55.9	23.5	14.7	5.9	-
	대구/경북	(23)	39.1	30.4	21.7	8.7	-
	광주/전라	(18)	16.7	27.8	38.9	16.7	-
	대전/충청/세종	(41)	34.1	17.1	26.8	22.0	-
	강원/제주	(8)	12.5	-	12.5	62.5	12.5
지역크기	대도시	(87)	31.0	27.6	25.3	16.1	-
	중·소도시	(101)	37.6	20.8	24.8	15.8	1.0
	읍/면	(9)	22.2	44.4	11.1	22.2	-
직업별	농/어/임업	(7)	42.9	14.3	28.6	14.3	-
	자영업자	(38)	26.3	31.6	18.4	23.7	-
	판매/서비스직	(32)	25.0	28.1	37.5	9.4	-
	기능/숙련공	(26)	38.5	23.1	15.4	23.1	-
	일반 노무직	(4)	25.0	50.0	25.0	-	-
	사무/기술직	(52)	36.5	19.2	30.8	13.5	-
	경영/관리직	(4)	75.0	25.0	-	-	-
	전문/자유직	(1)	-	-	100.0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5)	13.3	40.0	13.3	33.3	-
	학생	(13)	61.5	7.7	15.4	7.7	7.7
	무직/휴직/은퇴	(5)	60.0	20.0	20.0	-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6)	50.0	16.7	-	33.3	-
	고등학교	(64)	28.1	28.1	28.1	15.6	-
	전문대	(50)	32.0	28.0	20.0	20.0	-
	4년제 대학교	(74)	39.2	21.6	24.3	13.5	1.4
	대학원 이상	(3)	33.3	-	66.7	-	-
생활수준별	상	(21)	38.1	19.0	14.3	28.6	-
	중	(84)	32.1	29.8	17.9	20.2	-
	하	(92)	34.8	21.7	32.6	9.8	1.1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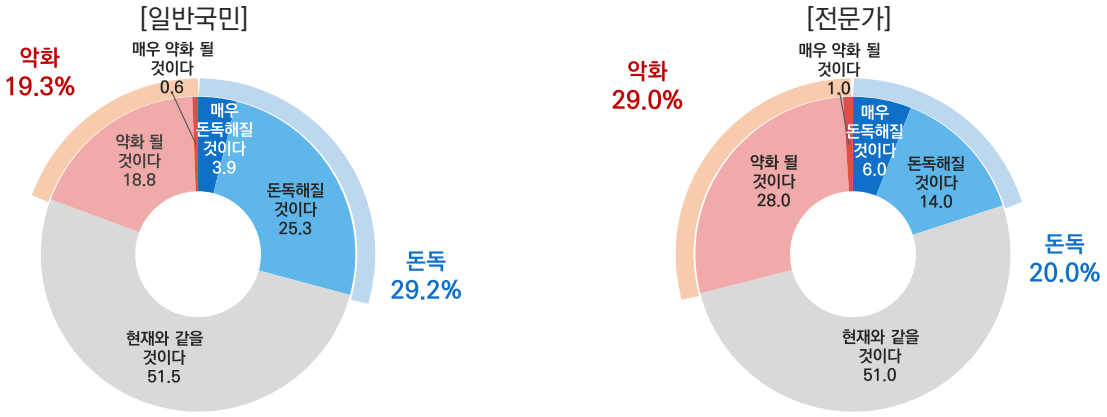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에 대해 일반국민은 '돈독'하다는 응답 29.2%, 전문가는 '약화'라는 응답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변화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이 29.2%로 '약화'(19.3%)라는 응답보다 9.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돈독'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p (2023년 35.3%) 감소했으며, '약화'는 8.7%p (2023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약화'라는 응답이 29.0%로 '돈독'(20.0%)라는 응답보다 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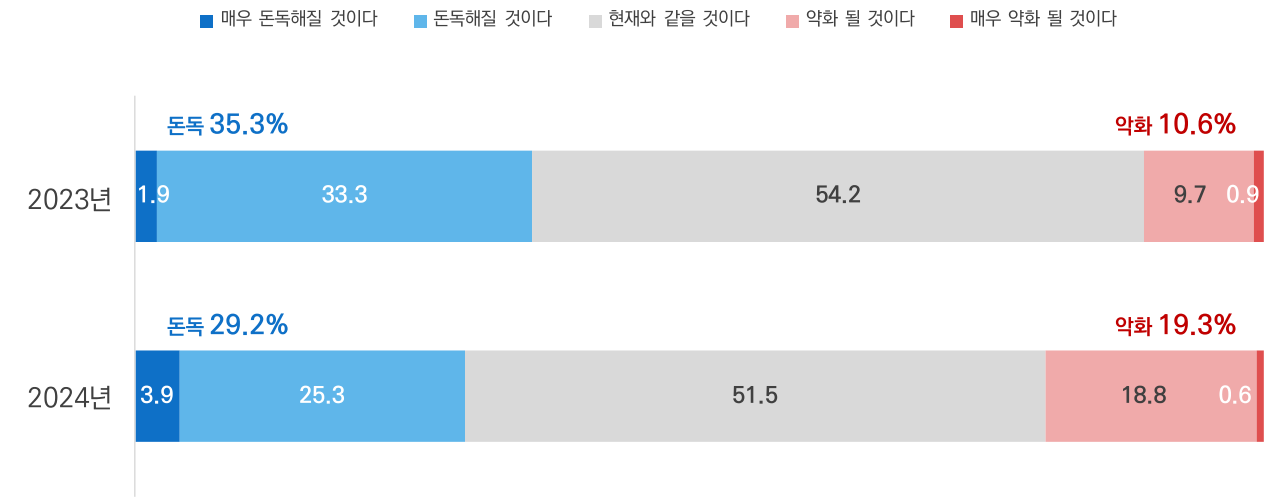
|그림 3-18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단위 : %)



|그림 3-18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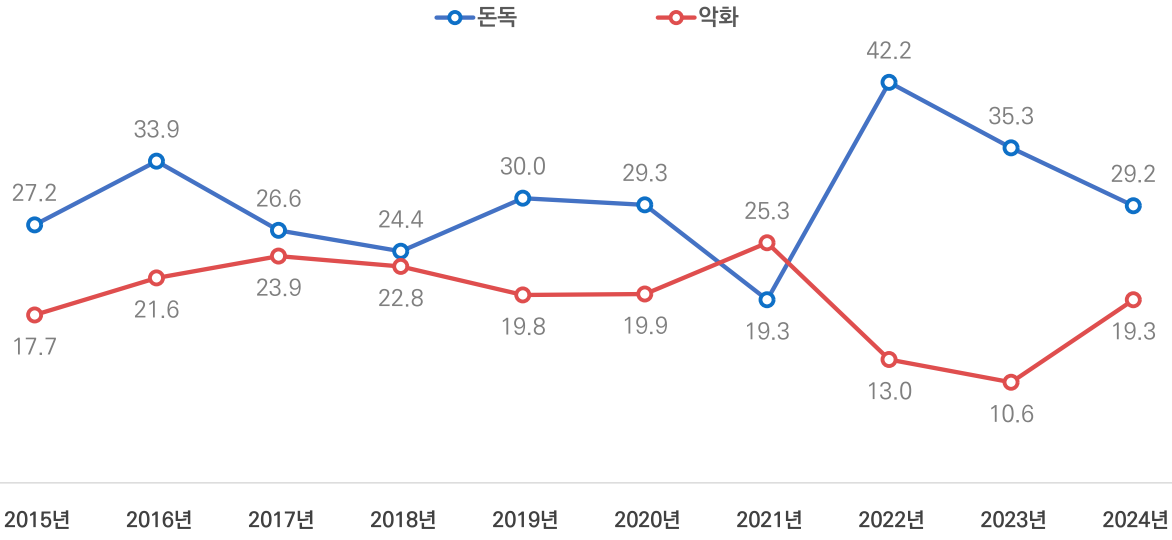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에 대해 '돈독'하다는 비율은 2.0%p 증가했으며, '약화'라는 비율은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1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돈독해질 것이다	3.1	5.2	2.6	4.0	2.3	0.8	3.5	4.6	1.9	3.9	2.0	0.8
돈독해질 것이다	24.1	28.7	24.0	20.4	27.8	28.5	15.8	37.6	33.3	25.3	-8.0	1.2
현재와 같을 것이다	55.1	44.6	49.6	52.8	50.3	50.8	55.4	44.8	54.2	51.5	-2.7	-3.6
약화될 것이다	16.1	20.3	22.8	20.3	17.7	19.7	21.7	12.6	9.7	18.8	9.1	2.7
매우 약화될 것이다	1.6	1.3	1.1	2.5	2.1	0.3	3.6	0.4	0.9	0.6	-0.3	-1.0
무응답	-	-	-	-	-	-	-	-	-	-	-	-
돈독	27.2	33.9	26.6	24.4	30.0	29.3	19.3	42.2	35.3	29.2	-6.1	2.0
약화	17.7	21.6	23.9	22.8	19.8	19.9	25.3	13.0	10.6	19.3	8.7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에 대해 '돈독'하다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돈독해질 것이다	돈독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매우 약화될 것이다	종합		
								돈독	현재와 같음	약화
전체		(1,300)	4.1	24.4	51.5	19.5	0.6	28.5	51.5	2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	25.3	51.5	18.8	0.6	29.2	51.5	19.3
	전문가	(100)	6.0	14.0	51.0	28.0	1.0	20.0	51.0	2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1	30.8	39.8	23.1	1.0	36.0	39.8	24.2
	중	(580)	3.3	21.7	57.4	17.4	0.2	25.0	57.4	17.6
	하	(231)	3.5	24.7	56.3	14.7	0.9	28.1	56.3	15.6
성별	남성	(720)	3.8	26.0	50.4	19.3	0.6	29.7	50.4	19.9
	여성	(480)	4.2	24.2	53.1	17.9	0.6	28.3	53.1	18.5
연령별	20대 이하	(217)	3.2	21.7	56.2	18.4	0.5	24.9	56.2	18.9
	30대	(194)	2.6	23.7	55.2	18.0	0.5	26.3	55.2	18.6
	40대	(226)	2.7	23.5	48.7	25.2	-	26.1	48.7	25.2
	50대	(255)	6.7	24.7	48.6	19.2	0.8	31.4	48.6	20.0
	60대 이상	(308)	3.9	30.5	50.3	14.3	1.0	34.4	50.3	15.3
지역별	서울	(140)	0.7	20.0	63.6	15.7	-	20.7	63.6	15.7
	경기/인천	(245)	4.1	22.9	56.3	16.3	0.4	26.9	56.3	16.7
	부산/울산/경남	(208)	6.7	25.0	55.3	12.5	0.5	31.7	55.3	13.0
	대구/경북	(141)	8.5	26.2	42.6	21.3	1.4	34.8	42.6	22.7
	광주/전라	(170)	1.2	24.1	42.9	31.2	0.6	25.3	42.9	31.8
	대전/충청/세종	(205)	-	28.8	45.9	24.9	0.5	28.8	45.9	25.4
	강원/제주	(91)	8.8	33.0	53.8	3.3	1.1	41.8	53.8	4.4
지역크기	대도시	(524)	3.8	22.9	51.7	21.0	0.6	26.7	51.7	21.6
	중·소도시	(639)	4.1	26.1	52.0	17.2	0.6	30.2	52.0	17.8
	읍/면	(37)	2.7	43.2	40.5	13.5	-	45.9	40.5	13.5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34.0	56.0	6.0	2.0	36.0	56.0	8.0
	자영업자	(185)	3.8	25.9	50.8	17.8	1.6	29.7	50.8	19.5
	판매/서비스직	(194)	3.1	32.0	51.5	13.4	-	35.1	51.5	13.4
	기능/숙련공	(127)	5.5	26.8	44.9	22.0	0.8	32.3	44.9	22.8
	일반 노무직	(41)	2.4	31.7	39.0	24.4	2.4	34.1	39.0	26.8
	사무/기술직	(283)	3.9	19.4	52.7	23.7	0.4	23.3	52.7	24.0
	경영/관리직	(19)	5.3	36.8	36.8	21.1	-	42.1	36.8	21.1
	전문/자유직	(7)	14.3	14.3	71.4	-	-	28.6	71.4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0	23.7	56.2	17.2	-	26.6	56.2	17.2
	학생	(73)	5.5	16.4	56.2	21.9	-	21.9	56.2	21.9
	무직/휴직/은퇴	(52)	5.8	26.9	50.0	17.3	-	32.7	50.0	17.3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18.6	61.0	15.3	1.7	22.0	61.0	16.9
	고등학교	(440)	4.1	28.9	48.9	17.3	0.9	33.0	48.9	18.2
	전문대	(266)	3.4	25.2	51.1	19.9	0.4	28.6	51.1	20.3
	4년제 대학교	(427)	4.2	23.0	52.2	20.4	0.2	27.2	52.2	20.6
	대학원 이상	(8)	-	-	100.0	-	-	-	100.0	-
생활수준별	상	(73)	6.8	20.5	58.9	11.0	2.7	27.4	58.9	13.7
	중	(544)	3.7	26.5	52.4	16.9	0.6	30.1	52.4	17.5
	하	(583)	3.8	24.7	49.7	21.4	0.3	28.5	49.7	21.8

Ⅳ. 북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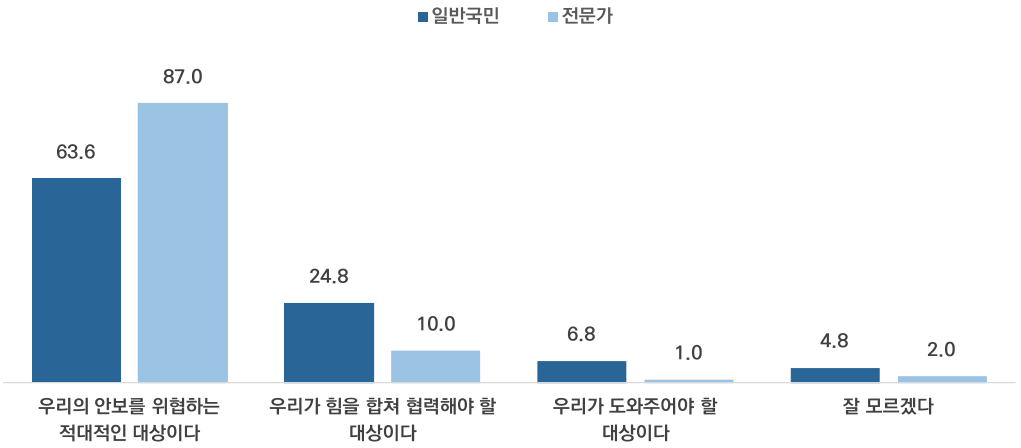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3.6%, 전문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가 6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가 6.6%p(2023년 57.0%) 증가했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6.1%p(2023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가 8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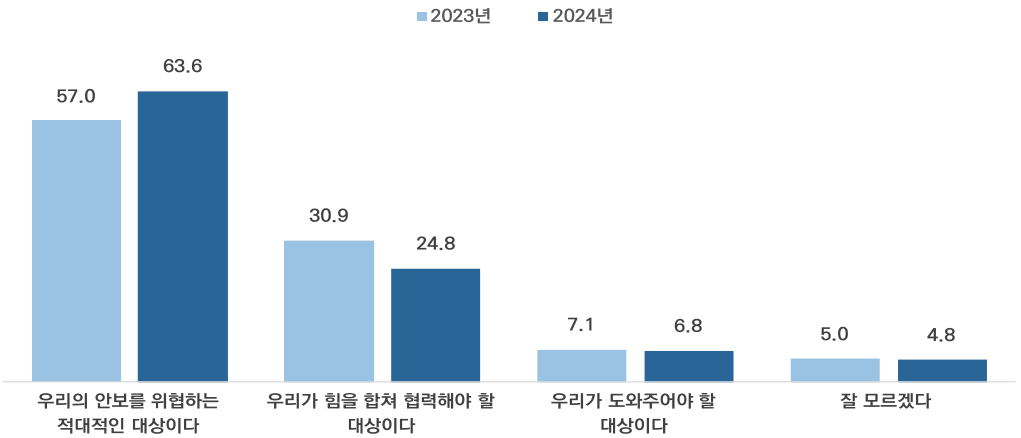
|그림 3-183|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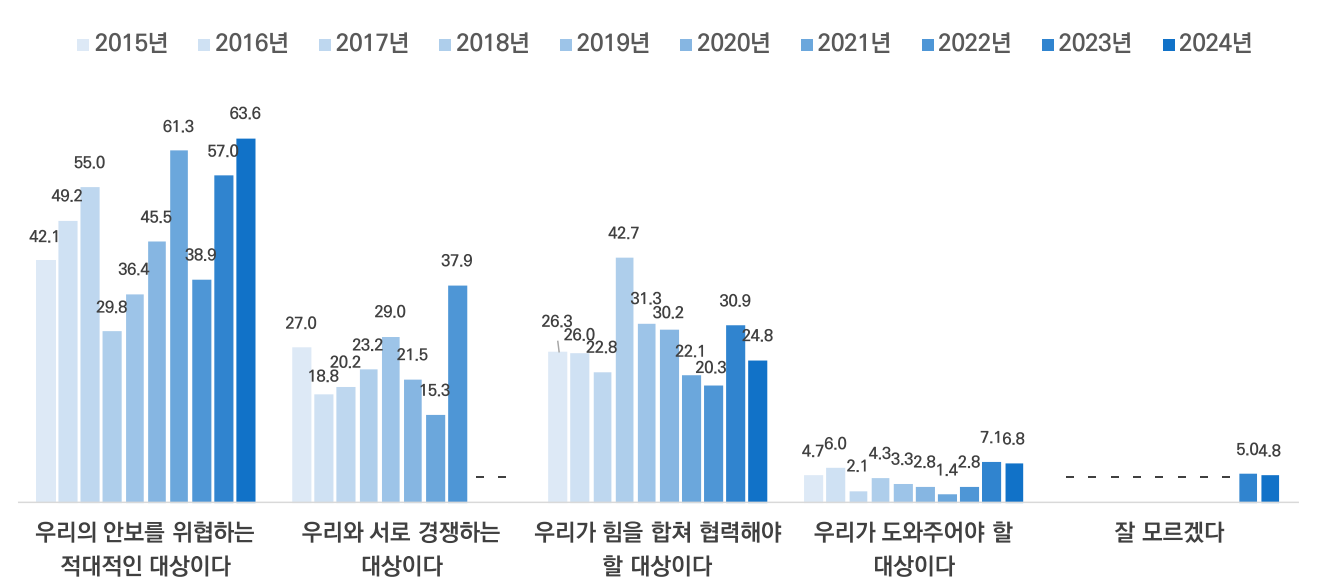
|그림 3-184|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가 21.5%p 증가했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5|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20|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42.1	49.2	55.0	29.8	36.4	45.5	61.3	38.9	57.0	63.6	6.6	21.5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27.0	18.8	20.2	23.2	29.0	21.5	15.3	37.9	–	–	–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26.3	26.0	22.8	42.7	31.3	30.2	22.1	20.3	30.9	24.8	-6.1	-1.5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4.7	6.0	2.1	4.3	3.3	2.8	1.4	2.8	7.1	6.8	-0.3	2.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0.9	1.2	1.3	3.1	2.2	1.9	0.9	0.6	3.0	–	–	–
잘 모르겠다	–	–	–	–	–	–	–	–	5.0	4.8	-0.2	–

※ 2015~2020년까지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2021년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변경되었음
※ 2023년부터 설문답변에서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가 삭제되고 "잘 모르겠다"가 추가되었음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일반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편임

|표 3-12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65.4	23.7	6.4	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3.6	24.8	6.8	4.8
	전문가	(100)	87.0	10.0	1.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9.9	29.6	7.5	3.1
	중	(580)	61.4	25.2	7.6	5.9
	하	(231)	75.3	16.0	3.9	4.8
성별	남성	(720)	64.2	26.0	6.0	3.9
	여성	(480)	62.7	23.1	8.1	6.0
연령별	20대 이하	(217)	63.6	25.8	5.1	5.5
	30대	(194)	59.8	27.3	7.7	5.2
	40대	(226)	59.3	26.5	9.3	4.9
	50대	(255)	65.5	25.1	5.1	4.3
	60대 이상	(308)	67.5	21.1	7.1	4.2
지역별	서울	(140)	60.7	30.0	5.7	3.6
	경기/인천	(245)	49.0	39.6	6.1	5.3
	부산/울산/경남	(208)	78.4	15.9	5.3	0.5
	대구/경북	(141)	77.3	7.8	8.5	6.4
	광주/전라	(170)	56.5	32.4	4.7	6.5
	대전/충청/세종	(205)	61.5	24.4	8.3	5.9
	강원/제주	(91)	70.3	11.0	12.1	6.6
지역크기	대도시	(524)	67.2	25.2	3.6	4.0
	중·소도시	(639)	62.1	23.9	8.3	5.6
	읍/면	(37)	37.8	35.1	27.0	-
직업별	농/어/임업	(50)	68.0	14.0	12.0	6.0
	자영업자	(185)	54.6	30.8	10.8	3.8
	판매/서비스직	(194)	58.2	32.0	5.2	4.6
	기능/숙련공	(127)	65.4	21.3	8.7	4.7
	일반 노무직	(41)	80.5	17.1	2.4	-
	사무/기술직	(283)	64.3	25.1	4.9	5.7
	경영/관리직	(19)	57.9	42.1	-	-
	전문/자유직	(7)	85.7	14.3	-	-
	군인/경찰/소방	(-)	-	-	-	-
	전업주부	(169)	69.8	18.9	5.9	5.3
	학생	(73)	60.3	27.4	6.8	5.5
	무직/휴직/은퇴	(52)	73.1	11.5	9.6	5.8
	기타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2.7	16.9	6.8	13.6
	고등학교	(440)	64.8	23.9	8.0	3.4
	전문대	(266)	61.7	24.8	7.9	5.6
	4년제 대학교	(427)	63.7	26.9	4.9	4.4
	대학원 이상	(8)	62.5	25.0	12.5	-
생활수준별	상	(73)	50.7	32.9	9.6	6.8
	중	(544)	61.0	25.0	8.1	5.9
	하	(583)	67.6	23.7	5.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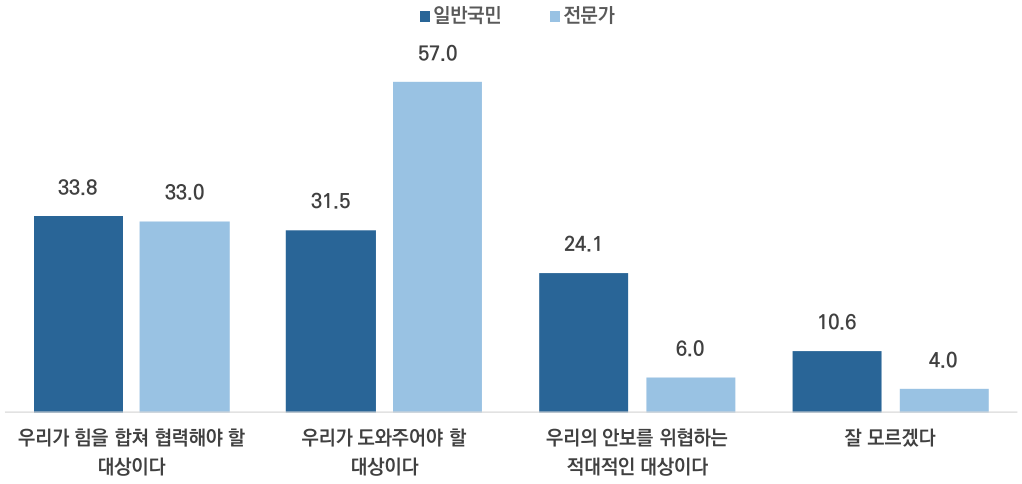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반국민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가 33.8%, 전문가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가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3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가 3.7%p(2023년 27.8%) 증가했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3.3%p(2023년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가 5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3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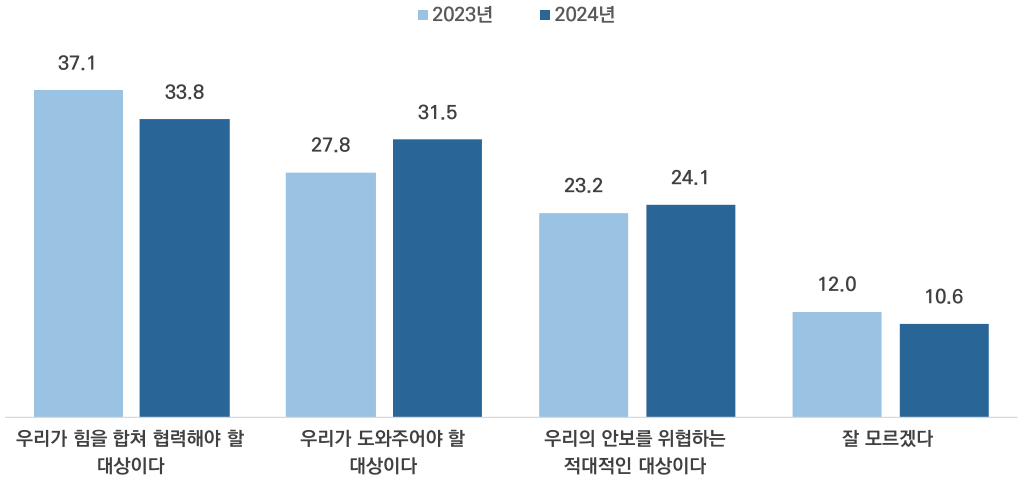
|그림 3-186|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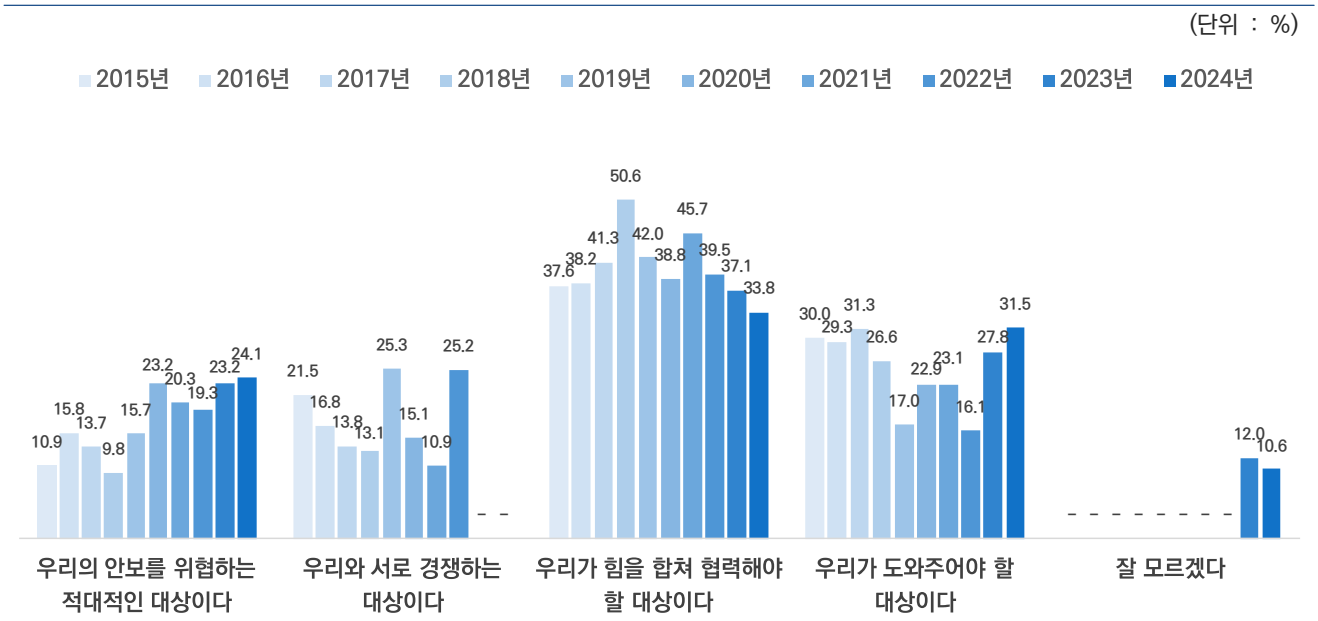
|그림 3-187|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가 13.2%p 증가했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8|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2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10.9	15.8	13.7	9.8	15.7	23.2	20.3	19.3	23.2	24.1	0.9	13.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21.5	16.8	13.8	13.1	25.3	15.1	10.9	25.2	-	-	-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7.6	38.2	41.3	50.6	42.0	38.8	45.7	39.5	37.1	33.8	-3.3	-3.8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30.0	29.3	31.3	26.6	17.0	22.9	23.1	16.1	27.8	31.5	3.7	1.5
잘 모르겠다	-	-	-	-	-	-	-	-	12.0	10.6	-1.4	-

※ 2022년 이전까지 보기 항목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가 있었으나 삭제하였고 2023년부터 '잘 모르겠다' 보기 항목이 추가되었음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23|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33.8	33.5	22.7	1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8	31.5	24.1	10.6
	전문가	(100)	33.0	57.0	6.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0.4	31.6	18.8	9.3
	중	(580)	33.3	34.5	20.2	12.1
	하	(231)	24.2	23.8	42.9	9.1
성별	남성	(720)	34.9	29.9	25.1	10.1
	여성	(480)	32.3	34.0	22.5	11.3
연령별	20대 이하	(217)	37.3	30.4	19.4	12.9
	30대	(194)	30.9	38.7	21.6	8.8
	40대	(226)	36.3	27.4	24.3	11.9
	50대	(255)	36.1	30.6	24.7	8.6
	60대 이상	(308)	29.5	31.5	28.2	10.7
지역별	서울	(140)	27.1	32.9	30.7	9.3
	경기/인천	(245)	40.4	33.5	14.3	11.8
	부산/울산/경남	(208)	46.6	28.4	21.2	3.8
	대구/경북	(141)	22.0	21.3	43.3	13.5
	광주/전라	(170)	37.1	40.0	8.8	14.1
	대전/충청/세종	(205)	29.8	30.2	28.8	11.2
	강원/제주	(91)	18.7	34.1	35.2	12.1
지역크기	대도시	(524)	35.3	32.4	23.5	8.8
	중·소도시	(639)	31.9	30.5	25.2	12.4
	읍/면	(37)	45.9	35.1	13.5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28.0	38.0	16.0
	자영업자	(185)	34.1	34.6	22.7	8.6
	판매/서비스직	(194)	40.2	27.8	25.8	6.2
	기능/숙련공	(127)	37.0	31.5	22.8	8.7
	일반 노무직	(41)	29.3	29.3	26.8	14.6
	사무/기술직	(283)	33.6	34.6	20.1	11.7
	경영/관리직	(19)	42.1	42.1	5.3	10.5
	전문/자유직	(7)	-	42.9	57.1	-
	군인/경찰/소방	(-)	-	-	-	-
	전업주부	(169)	29.0	29.0	28.4	13.6
	학생	(73)	35.6	30.1	16.4	17.8
	무직/휴직/은퇴	(52)	36.5	26.9	30.8	5.8
	기타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5.3	45.8	25.4	13.6
	고등학교	(440)	35.0	29.5	26.1	9.3
	전문대	(266)	34.6	33.8	22.6	9.0
	4년제 대학교	(427)	34.9	30.0	23.0	12.2
	대학원 이상	(8)	25.0	37.5	12.5	25.0
생활수준별	상	(73)	30.1	37.0	21.9	11.0
	중	(544)	36.6	29.8	21.5	12.1
	하	(583)	31.7	32.4	26.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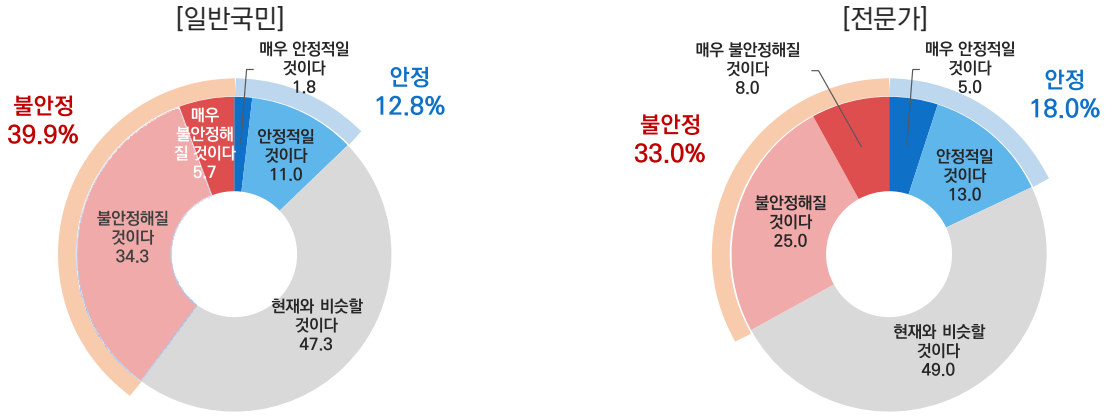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9.9%, 전문가 3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 전망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안정'(12.8%)하다는 응답보다 27.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p(2023년 18.7%) 감소했으며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p(2023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안정적'(18.0%)보다 15.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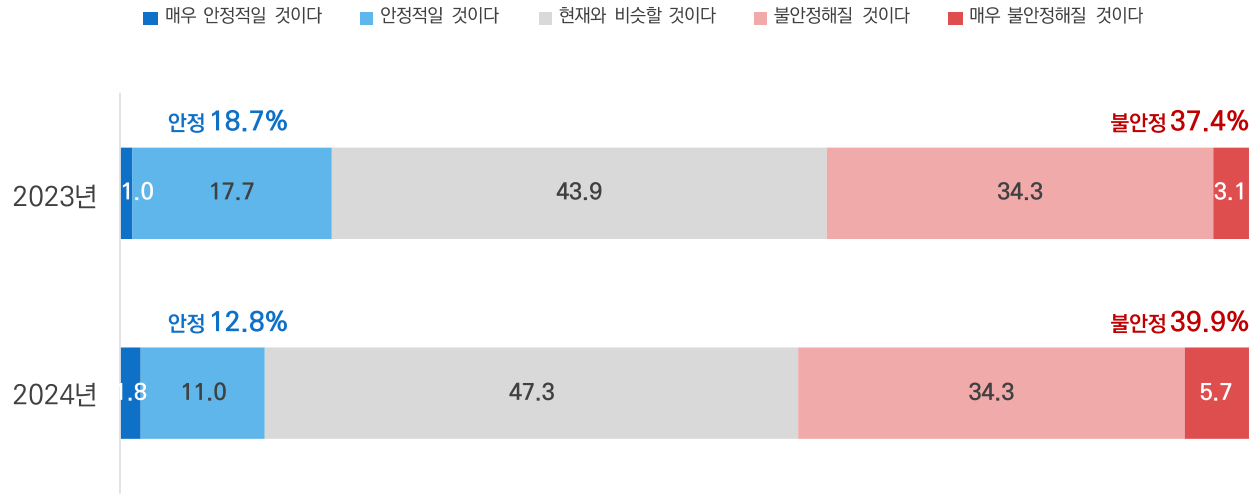
|그림 3-189|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 %)



|그림 3-190|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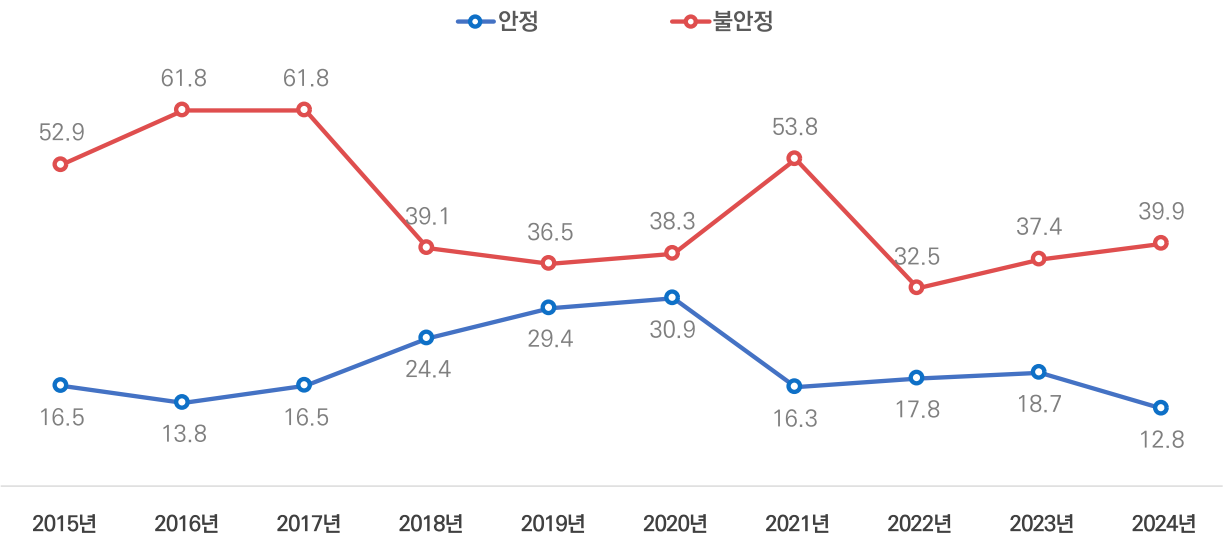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김정은 체제 전망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13.0%p 감소했으며,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1|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24|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1.3	1.8	2.2	2.3	1.9	1.1	2.3	1.6	1.0	1.8	0.8	0.5
안정적일 것이다	15.2	12.1	14.3	22.1	27.5	29.8	14.0	16.3	17.7	11.0	-6.7	-4.2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30.6	24.3	21.8	36.5	34.1	30.8	30.0	49.7	43.9	47.3	3.4	16.7
불안정해질 것이다	42.4	46.3	46.3	33.8	30.0	33.4	40.5	26.6	34.3	34.3	0.0	-8.1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10.5	15.5	15.4	5.3	6.5	4.8	13.3	5.9	3.1	5.7	2.6	-4.8
무응답	-	-	-	-	-	-	-	-	-	-	-	-
안정	16.5	13.8	16.5	24.4	29.4	30.9	16.3	17.8	18.7	12.8	-5.9	-3.7
불안정	52.9	61.8	61.8	39.1	36.5	38.3	53.8	32.5	37.4	39.9	2.5	-13.0

김정은 체제 전망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25|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불안정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	비슷	불안정
전체		(1,300)	2.1	11.2	47.4	33.5	5.8	13.2	47.4	3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	11.0	47.3	34.3	5.7	12.8	47.3	39.9
	전문가	(100)	5.0	13.0	49.0	25.0	8.0	18.0	49.0	3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3	13.9	44.5	33.9	5.4	16.2	44.5	39.3
	중	(580)	2.1	10.5	52.6	31.4	3.4	12.6	52.6	34.8
	하	(231)	0.4	7.4	38.5	42.0	11.7	7.8	38.5	53.7
성별	남성	(720)	2.2	11.5	45.6	34.3	6.4	13.8	45.6	40.7
	여성	(480)	1.3	10.2	49.8	34.2	4.6	11.5	49.8	3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9.7	48.4	33.2	6.9	11.5	48.4	40.1
	30대	(194)	2.6	9.8	50.0	33.5	4.1	12.4	50.0	37.6
	40대	(226)	2.7	9.7	50.9	33.6	3.1	12.4	50.9	36.7
	50대	(255)	0.4	12.9	47.1	32.9	6.7	13.3	47.1	39.6
	60대 이상	(308)	1.9	12.0	42.2	37.0	6.8	14.0	42.2	43.8
지역별	서울	(140)	3.6	11.4	51.4	27.9	5.7	15.0	51.4	33.6
	경기/인천	(245)	2.9	11.0	49.0	33.5	3.7	13.9	49.0	37.1
	부산/울산/경남	(208)	0.5	12.5	62.0	24.0	1.0	13.0	62.0	25.0
	대구/경북	(141)	0.7	3.5	61.7	30.5	3.5	4.3	61.7	34.0
	광주/전라	(170)	1.2	18.2	32.9	38.8	8.8	19.4	32.9	47.6
	대전/충청/세종	(205)	1.5	11.7	41.5	38.0	7.3	13.2	41.5	45.4
	강원/제주	(91)	3.3	3.3	19.8	58.2	15.4	6.6	19.8	73.6
지역크기	대도시	(524)	2.1	10.9	54.8	28.6	3.6	13.0	54.8	32.3
	중·소도시	(639)	1.7	9.7	41.2	39.7	7.7	11.4	41.2	47.4
	읍/면	(37)	-	35.1	45.9	18.9	-	35.1	45.9	18.9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6.0	38.0	42.0	12.0	8.0	38.0	54.0
	자영업자	(185)	1.6	16.8	45.9	31.9	3.8	18.4	45.9	35.7
	판매/서비스직	(194)	1.0	16.5	42.3	33.0	7.2	17.5	42.3	40.2
	기능/숙련공	(127)	3.1	11.8	43.3	37.0	4.7	15.0	43.3	41.7
	일반 노무직	(41)	-	9.8	58.5	26.8	4.9	9.8	58.5	31.7
	사무/기술직	(283)	3.2	6.7	48.8	36.4	4.9	9.9	48.8	41.3
	경영/관리직	(19)	-	-	52.6	31.6	15.8	-	52.6	47.4
	전문/자유직	(7)	-	-	42.9	42.9	14.3	-	42.9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0.6	8.9	56.8	29.6	4.1	9.5	56.8	33.7
	학생	(73)	2.7	11.0	46.6	34.2	5.5	13.7	46.6	39.7
	무직/휴직/은퇴	(52)	-	9.6	40.4	42.3	7.7	9.6	40.4	50.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1.9	39.0	44.1	5.1	11.9	39.0	49.2
	고등학교	(440)	1.6	10.2	45.0	38.2	5.0	11.8	45.0	43.2
	전문대	(266)	1.9	16.5	52.3	24.4	4.9	18.4	52.3	29.3
	4년제 대학교	(427)	2.3	8.4	47.3	35.1	6.8	10.8	47.3	41.9
	대학원 이상	(8)	-	-	62.5	25.0	12.5	-	6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6.8	12.3	32.9	45.2	2.7	19.2	32.9	47.9
	중	(544)	0.9	13.1	52.2	30.0	3.9	14.0	52.2	33.8
	하	(583)	2.1	8.9	44.4	36.9	7.7	11.0	44.4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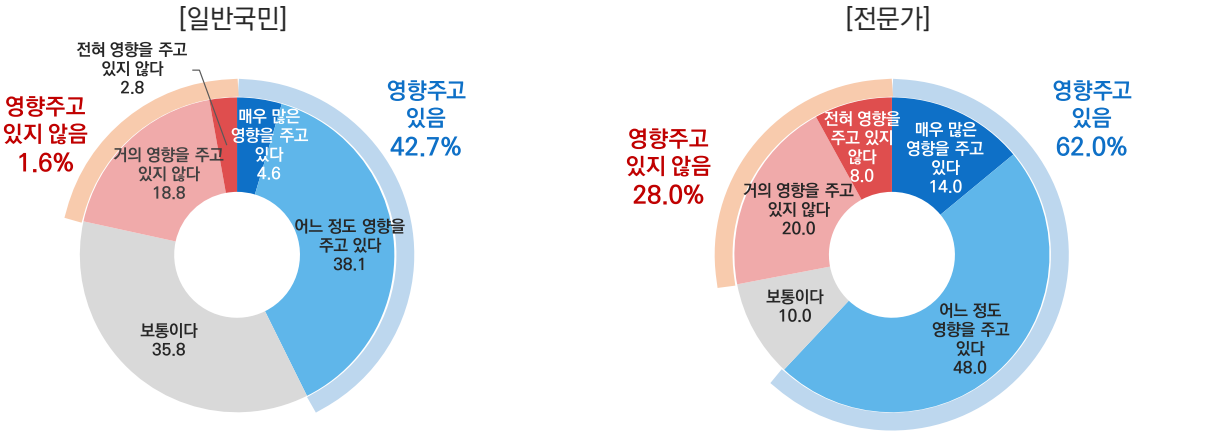
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42.7%, 전문가 62.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로 '영향주고 있지 않음'(21.6%)보다 21.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p(2023년 34.1%) 증가했으며, '영향주고 있지 않음'보다 3.7%p(2023년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영향주고 있지 않음'(28.0%)보다 3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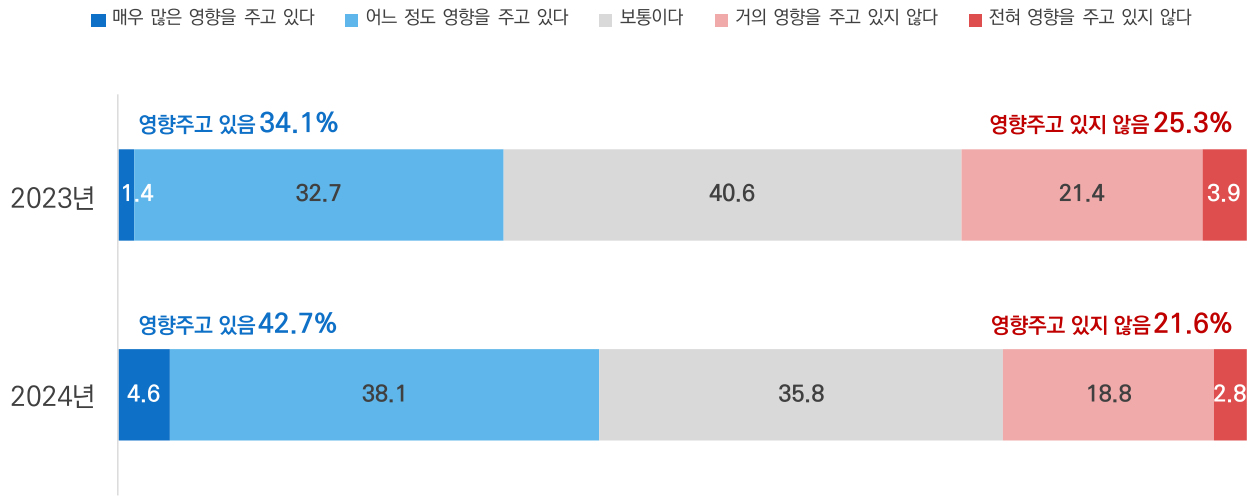
|그림 3-192|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단위 : %)



|그림 3-193|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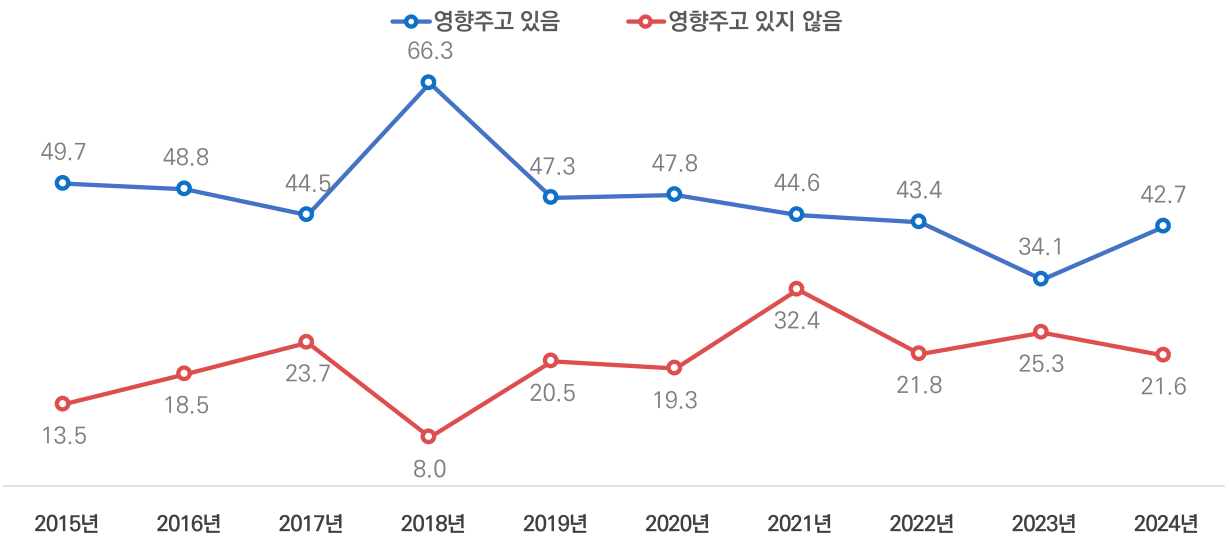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p 감소했으며, '영향주고 있지 않음'은 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26|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5.3	8.2	5.3	14.1	3.8	2.8	5.7	2.4	1.4	4.6	3.2	-0.7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44.4	40.6	39.2	52.2	43.6	44.9	38.9	41.0	32.7	38.1	5.4	-6.3
보통이다	36.8	32.8	31.8	25.8	32.2	33.0	23.0	34.8	40.6	35.8	-4.8	-1.0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12.1	16.3	20.5	6.7	17.9	16.3	20.6	18.8	21.4	18.8	-2.6	6.7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1.4	2.2	3.2	1.3	2.6	2.9	11.8	3.0	3.9	2.8	-1.1	1.4
무응답	-	-	-	-	-	-	-	-	-	-	-	-
영향주고 있음	49.7	48.8	44.5	66.3	47.3	47.8	44.6	43.4	34.1	42.7	8.6	-7.0
영향주고 있지 않음	13.5	18.5	23.7	8.0	20.5	19.3	32.4	21.8	25.3	21.6	-3.7	8.1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 '영향주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27|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종합		
								영향 주고 있음	보통	영향 주고 있지 않음
전체		(1,300)	5.3	38.8	33.8	18.8	3.2	44.2	33.8	2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	38.1	35.8	18.8	2.8	42.7	35.8	21.6
	전문가	(100)	14.0	48.0	10.0	20.0	8.0	62.0	10.0	2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6.7	39.8	33.4	16.7	3.3	46.5	33.4	20.1
	중	(580)	3.4	37.9	37.4	18.1	3.1	41.4	37.4	21.2
	하	(231)	3.9	35.5	35.5	23.8	1.3	39.4	35.5	25.1
성별	남성	(720)	6.1	38.8	33.6	18.9	2.6	44.9	33.6	21.5
	여성	(480)	2.3	37.1	39.0	18.5	3.1	39.4	39.0	21.7
연령별	20대 이하	(217)	5.5	36.9	34.1	20.3	3.2	42.4	34.1	23.5
	30대	(194)	4.1	37.6	37.1	18.0	3.1	41.8	37.1	21.1
	40대	(226)	4.0	35.4	39.8	19.0	1.8	39.4	39.8	20.8
	50대	(255)	4.3	40.4	32.9	19.2	3.1	44.7	32.9	22.4
	60대 이상	(308)	4.9	39.3	35.4	17.5	2.9	44.2	35.4	20.5
지역별	서울	(140)	2.1	22.1	45.0	22.9	7.9	24.3	45.0	30.7
	경기/인천	(245)	7.3	47.8	29.0	14.7	1.2	55.1	29.0	15.9
	부산/울산/경남	(208)	1.4	47.1	37.5	11.5	2.4	48.6	37.5	13.9
	대구/경북	(141)	3.5	40.4	24.1	27.7	4.3	44.0	24.1	31.9
	광주/전라	(170)	5.9	30.6	45.3	17.6	0.6	36.5	45.3	18.2
	대전/충청/세종	(205)	3.9	34.1	37.1	22.0	2.9	38.0	37.1	24.9
	강원/제주	(91)	8.8	35.2	33.0	20.9	2.2	44.0	33.0	23.1
지역크기	대도시	(524)	3.4	34.4	35.9	21.9	4.4	37.8	35.9	26.3
	중·소도시	(639)	5.6	42.1	34.7	16.1	1.4	47.7	34.7	17.5
	읍/면	(37)	2.7	21.6	51.4	18.9	5.4	24.3	51.4	24.3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40.0	34.0	22.0	2.0	42.0	34.0	24.0
	자영업자	(185)	4.9	37.8	37.3	18.4	1.6	42.7	37.3	20.0
	판매/서비스직	(194)	4.1	33.5	43.8	16.5	2.1	37.6	43.8	18.6
	기능/숙련공	(127)	3.9	51.2	32.3	11.0	1.6	55.1	32.3	12.6
	일반 노무직	(41)	4.9	31.7	31.7	29.3	2.4	36.6	31.7	31.7
	사무/기술직	(283)	6.4	39.6	29.0	21.9	3.2	45.9	29.0	25.1
	경영/관리직	(19)	15.8	47.4	21.1	10.5	5.3	63.2	21.1	15.8
	전문/자유직	(7)	-	57.1	28.6	-	14.3	57.1	28.6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4	35.5	39.6	17.2	5.3	37.9	39.6	22.5
	학생	(73)	4.1	23.3	46.6	23.3	2.7	27.4	46.6	26.0
	무직/휴직/은퇴	(52)	3.8	42.3	28.8	23.1	1.9	46.2	28.8	25.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32.2	40.7	20.3	1.7	37.3	40.7	22.0
	고등학교	(440)	4.1	40.2	35.2	17.3	3.2	44.3	35.2	20.5
	전문대	(266)	3.8	41.0	41.0	12.8	1.5	44.7	41.0	14.3
	4년제 대학교	(427)	5.6	35.4	31.6	23.9	3.5	41.0	31.6	27.4
	대학원 이상	(8)	-	12.5	75.0	12.5	-	12.5	75.0	12.5
생활수준별	상	(73)	2.7	43.8	32.9	19.2	1.4	46.6	32.9	20.5
	중	(544)	3.9	35.3	38.6	18.9	3.3	39.2	38.6	22.2
	하	(583)	5.5	40.0	33.4	18.5	2.6	45.5	33.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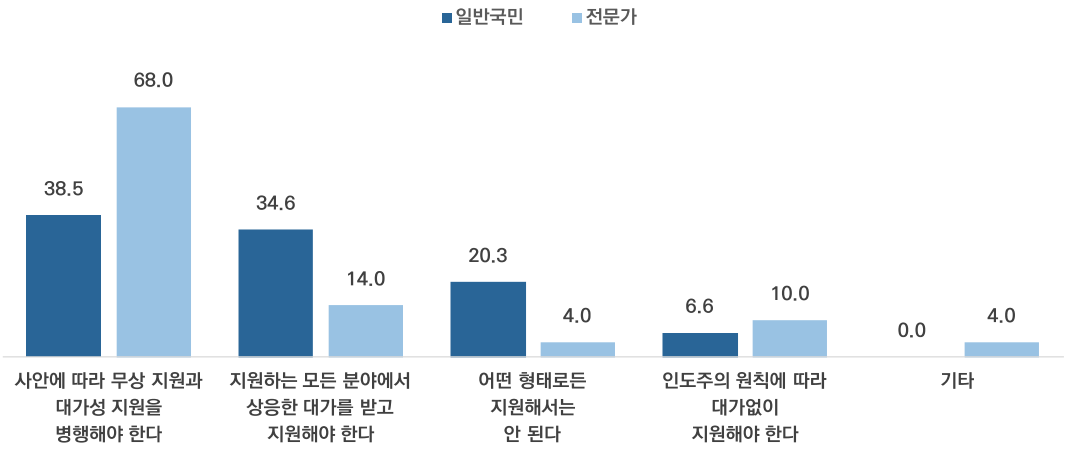
5.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일반국민 38.5%, 전문가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3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3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1.6%p(2023년 40.1%) 감소했으며,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1.1%p(2023년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6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1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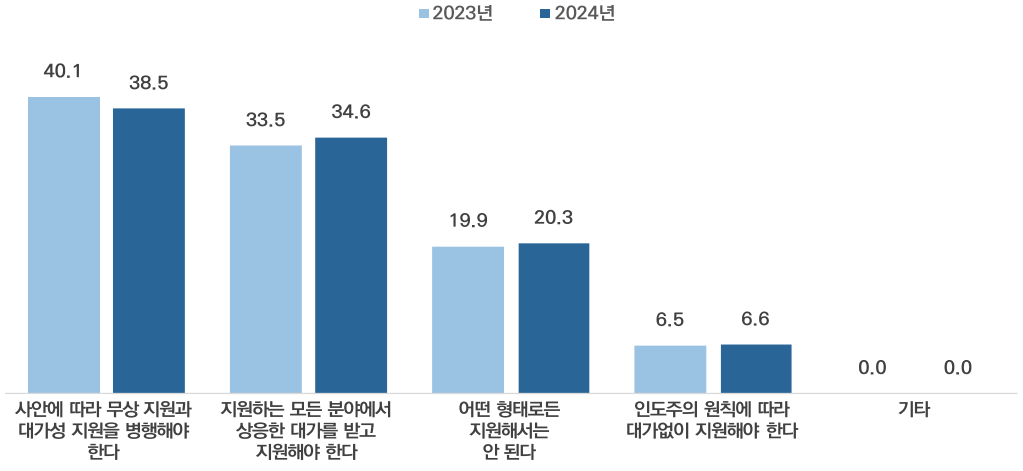
|그림 3-195|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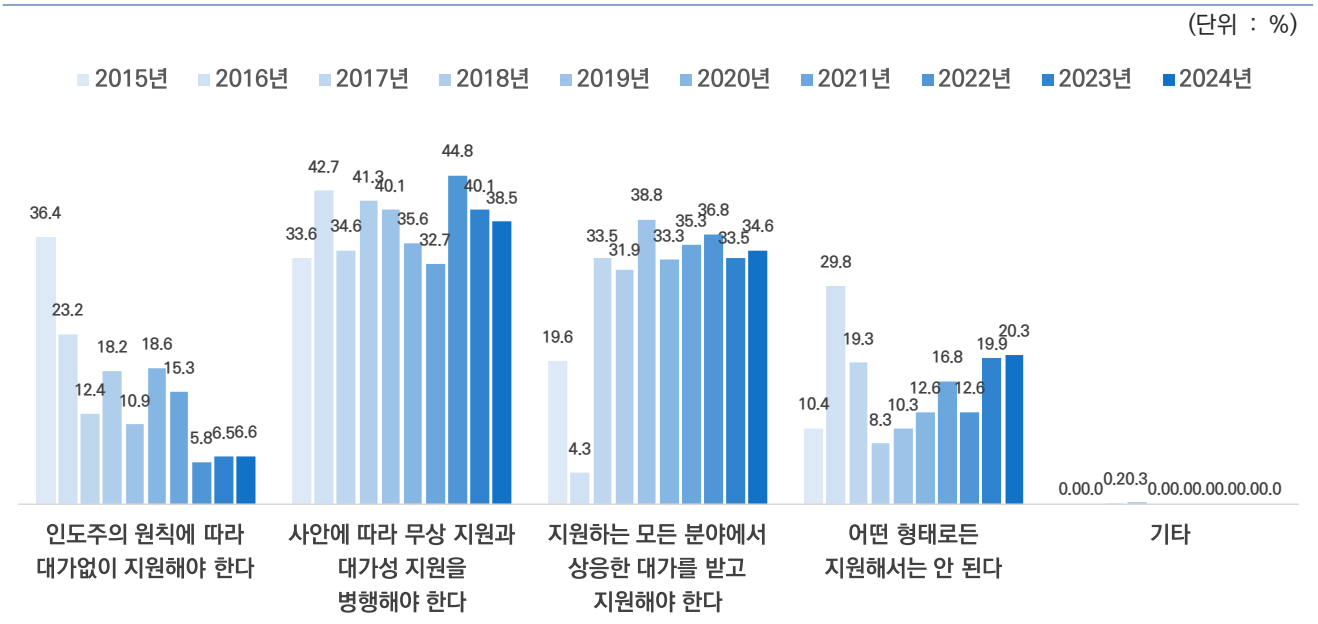
|그림 3-196|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가 15.0%p 증가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2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7|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28|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	36.4	23.2	12.4	18.2	10.9	18.6	15.3	5.8	6.5	6.6	0.1	-29.8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33.6	42.7	34.6	41.3	40.1	35.6	32.7	44.8	40.1	38.5	-1.6	4.9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19.6	4.3	33.5	31.9	38.8	33.3	35.3	36.8	33.5	34.6	1.1	15.0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10.4	29.8	19.3	8.3	10.3	12.6	16.8	12.6	19.9	20.3	0.4	9.9
기타	0.0	0.0	0.2	0.3	0.0	0.0	0.0	0.0	0.0	0.0	0.0	0.0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29| 바람직한 대북 지원 정책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전체		(1,300)	6.8	40.8	33.0	19.1	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6	38.5	34.6	20.3	-
	전문가	(100)	10.0	68.0	14.0	4.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8.7	37.5	31.9	21.9	-
	중	(580)	5.9	43.1	32.9	18.1	-
	하	(231)	4.8	28.6	43.3	23.4	-
성별	남성	(720)	6.0	37.6	34.0	22.4	-
	여성	(480)	7.5	39.8	35.4	17.3	-
연령별	20대 이하	(217)	4.1	41.5	32.7	21.7	-
	30대	(194)	7.2	37.1	34.5	21.1	-
	40대	(226)	9.3	39.4	35.8	15.5	-
	50대	(255)	5.5	36.9	34.1	23.5	-
	60대 이상	(308)	6.8	38.0	35.4	19.8	-
지역별	서울	(140)	1.4	20.7	42.9	35.0	-
	경기/인천	(245)	3.7	37.6	38.0	20.8	-
	부산/울산/경남	(208)	8.2	52.9	31.3	7.7	-
	대구/경북	(141)	17.0	27.7	24.1	31.2	-
	광주/전라	(170)	5.3	43.5	35.9	15.3	-
	대전/충청/세종	(205)	3.9	45.4	39.0	11.7	-
	강원/제주	(91)	11.0	27.5	24.2	37.4	-
지역크기	대도시	(524)	5.7	40.1	34.2	20.0	-
	중·소도시	(639)	7.5	37.9	33.6	21.0	-
	읍/면	(37)	2.7	27.0	56.8	13.5	-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26.0	34.0	36.0	-
	자영업자	(185)	9.7	40.0	36.2	14.1	-
	판매/서비스직	(194)	5.2	43.8	32.5	18.6	-
	기능/숙련공	(127)	2.4	40.2	36.2	21.3	-
	일반 노무직	(41)	4.9	53.7	26.8	14.6	-
	사무/기술직	(283)	6.0	36.4	34.3	23.3	-
	경영/관리직	(19)	10.5	21.1	42.1	26.3	-
	전문/자유직	(7)	-	42.9	28.6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6.5	36.1	37.3	20.1	-
	학생	(73)	6.8	41.1	32.9	19.2	-
	무직/휴직/은퇴	(52)	17.3	30.8	32.7	19.2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8	37.3	40.7	15.3	-
	고등학교	(440)	7.3	37.5	34.8	20.5	-
	전문대	(266)	4.5	43.2	36.1	16.2	-
	4년제 대학교	(427)	7.3	36.5	33.3	23.0	-
	대학원 이상	(8)	-	50.0	-	50.0	-
생활수준별	상	(73)	9.6	35.6	30.1	24.7	-
	중	(544)	5.3	37.3	36.6	20.8	-
	하	(583)	7.4	40.0	33.3	1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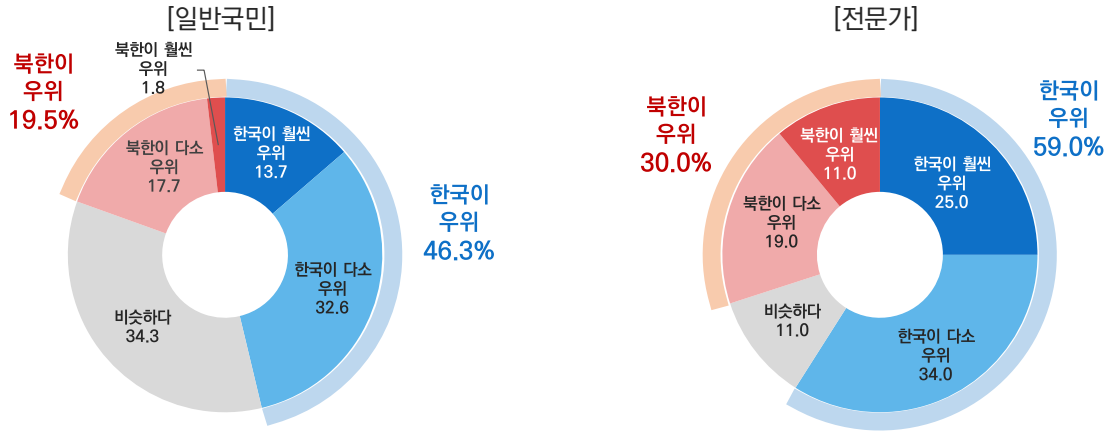
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46.3%, 전문가 5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북한이 우위'(19.5%)보다 26.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p(2023년 44.3%) 증가했으며, '북한이 우위'는 1.8%p(2023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0%로 '북한이 우위'(30.0%)보다 2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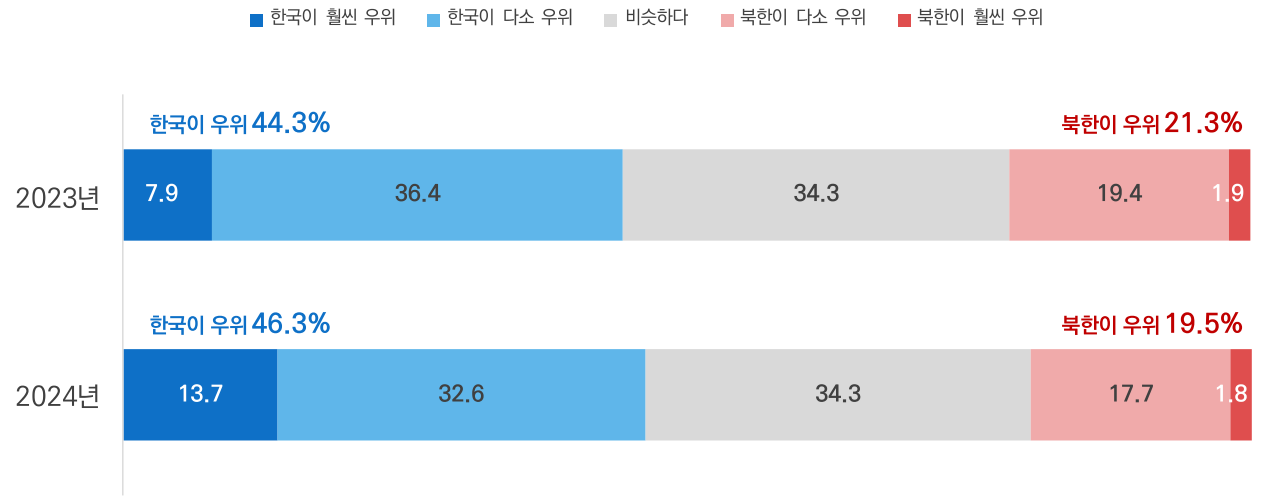
|그림 3-198|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단위 : %)



|그림 3-19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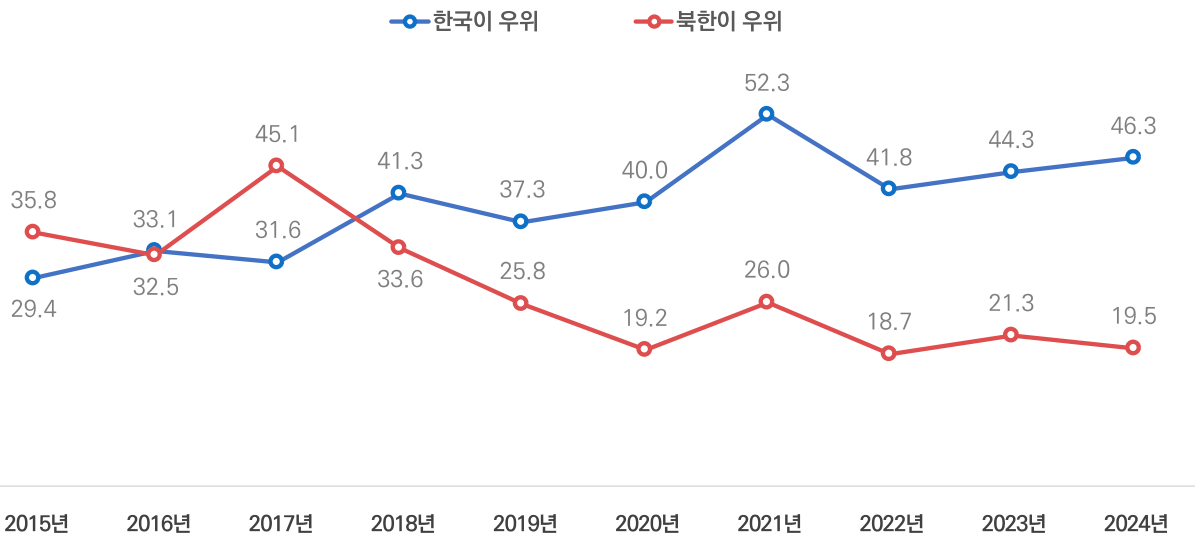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한국이 우위'라는 비율은 16.9%p 증가했으며, '북한이 우위'는 16.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3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한국이 훨씬 우위	4.2	7.8	7.3	14.7	3.8	4.7	18.1	7.3	7.9	13.7	5.8	9.5
한국이 다소 우위	25.2	25.3	24.3	26.7	33.5	35.3	34.3	34.5	36.4	32.6	-3.8	7.4
비슷하다	34.8	34.4	23.3	25.1	37.0	40.8	21.7	39.5	34.3	34.3	0.0	-0.5
북한이 다소 우위	29.1	26.0	34.7	27.1	20.3	17.2	19.8	15.8	19.4	17.7	-1.7	-11.4
북한이 훨씬 우위	6.7	6.5	10.4	6.5	5.4	2.0	6.3	2.8	1.9	1.8	-0.1	-4.9
무응답	-	-	-	-	-	-	-	-	-	-	-	-
한국이 우위	29.4	33.1	31.6	41.3	37.3	40.0	52.3	41.8	44.3	46.3	2.0	16.9
북한이 우위	35.8	32.5	45.1	33.6	25.8	19.2	26.0	18.7	21.3	19.5	-1.8	-16.3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한국이 우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1|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종합		
								한국이 우위	비슷	북한이 우위
전체		(1,300)	14.5	32.7	32.5	17.8	2.5	47.2	32.5	2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7	32.6	34.3	17.7	1.8	46.3	34.3	19.5
	전문가	(100)	25.0	34.0	11.0	19.0	11.0	59.0	11.0	3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8.8	32.4	32.9	14.9	1.0	51.2	32.9	15.9
	중	(580)	12.8	34.1	36.2	15.7	1.2	46.9	36.2	16.9
	하	(231)	7.4	29.0	31.6	27.3	4.8	36.4	31.6	32.0
성별	남성	(720)	15.6	30.7	32.4	19.6	1.8	46.3	32.4	21.4
	여성	(480)	10.8	35.4	37.1	14.8	1.9	46.3	37.1	16.7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3	30.0	35.5	18.9	1.4	44.2	35.5	20.3
	30대	(194)	16.0	35.6	30.9	14.9	2.6	51.5	30.9	17.5
	40대	(226)	11.9	29.2	39.8	17.7	1.3	41.2	39.8	19.0
	50대	(255)	13.7	32.9	32.9	18.0	2.4	46.7	32.9	20.4
	60대 이상	(308)	13.0	34.7	32.5	18.2	1.6	47.7	32.5	19.8
지역별	서울	(140)	10.0	26.4	40.7	21.4	1.4	36.4	40.7	22.9
	경기/인천	(245)	14.7	44.1	29.4	10.6	1.2	58.8	29.4	11.8
	부산/울산/경남	(208)	22.1	31.7	31.3	14.9	-	53.8	31.3	14.9
	대구/경북	(141)	9.2	25.5	33.3	31.2	0.7	34.8	33.3	31.9
	광주/전라	(170)	1.8	22.4	46.5	25.9	3.5	24.1	46.5	29.4
	대전/충청/세종	(205)	14.6	42.0	39.5	2.9	1.0	56.6	39.5	3.9
	강원/제주	(91)	24.2	22.0	11.0	34.1	8.8	46.2	11.0	42.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0	32.3	37.8	16.6	0.4	45.2	37.8	17.0
	중·소도시	(639)	14.6	33.6	30.7	18.0	3.1	48.2	30.7	21.1
	읍/면	(37)	8.1	18.9	45.9	27.0	-	27.0	45.9	27.0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26.0	36.0	28.0	4.0	32.0	36.0	32.0
	자영업자	(185)	16.2	29.2	37.3	15.7	1.6	45.4	37.3	17.3
	판매/서비스직	(194)	9.3	28.9	41.2	19.6	1.0	38.1	41.2	20.6
	기능/숙련공	(127)	16.5	34.6	33.9	15.0	-	51.2	33.9	15.0
	일반 노무직	(41)	29.3	31.7	22.0	17.1	-	61.0	22.0	17.1
	사무/기술직	(283)	13.8	38.9	28.6	16.6	2.1	52.7	28.6	18.7
	경영/관리직	(19)	26.3	47.4	15.8	10.5	-	73.7	15.8	10.5
	전문/자유직	(7)	-	14.3	14.3	57.1	14.3	14.3	14.3	71.4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2.4	31.4	38.5	14.8	3.0	43.8	38.5	17.8
	학생	(73)	15.1	30.1	31.5	20.5	2.7	45.2	31.5	23.3
	무직/휴직/은퇴	(52)	7.7	30.8	36.5	23.1	1.9	38.5	36.5	25.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39.0	23.7	23.7	3.4	49.2	23.7	27.1
	고등학교	(440)	14.3	33.6	34.8	16.1	1.1	48.0	34.8	17.3
	전문대	(266)	10.9	26.7	43.2	18.0	1.1	37.6	43.2	19.2
	4년제 대학교	(427)	15.2	34.2	30.0	17.8	2.8	49.4	30.0	20.6
	대학원 이상	(8)	12.5	37.5	12.5	37.5	-	50.0	1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23.3	43.8	17.8	13.7	1.4	67.1	17.8	15.1
	중	(544)	13.6	31.1	35.8	17.8	1.7	44.7	35.8	19.5
	하	(583)	12.5	32.6	34.8	18.0	2.1	45.1	34.8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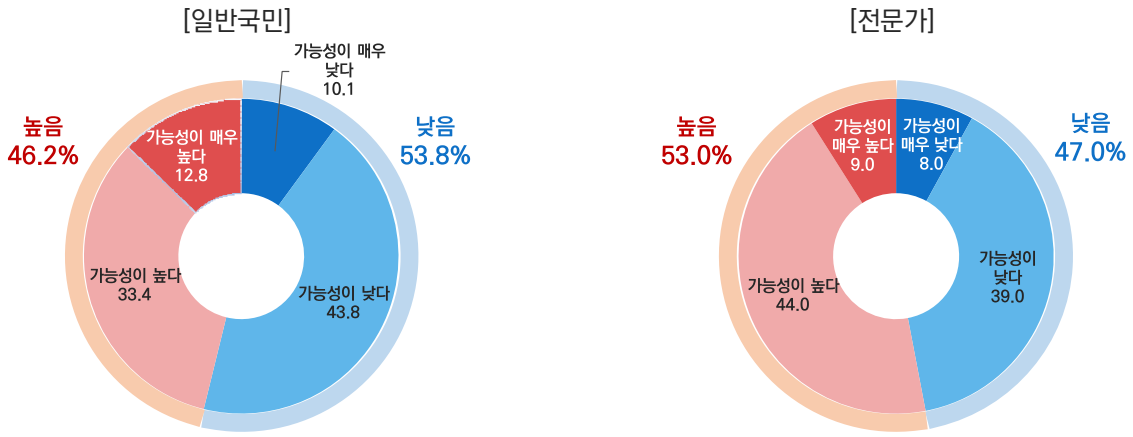
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높음' 46.2%, 전문가는 '낮음' 4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높음'이 46.2%로 '낮음'(53.8%)보다 7.6%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높음'이 12.4%p(2023년 33.8%) 증가했으며, '낮음'은 26.2%p(2023년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낮음'이 47.0%로 '높음'(53.8%)보다 6.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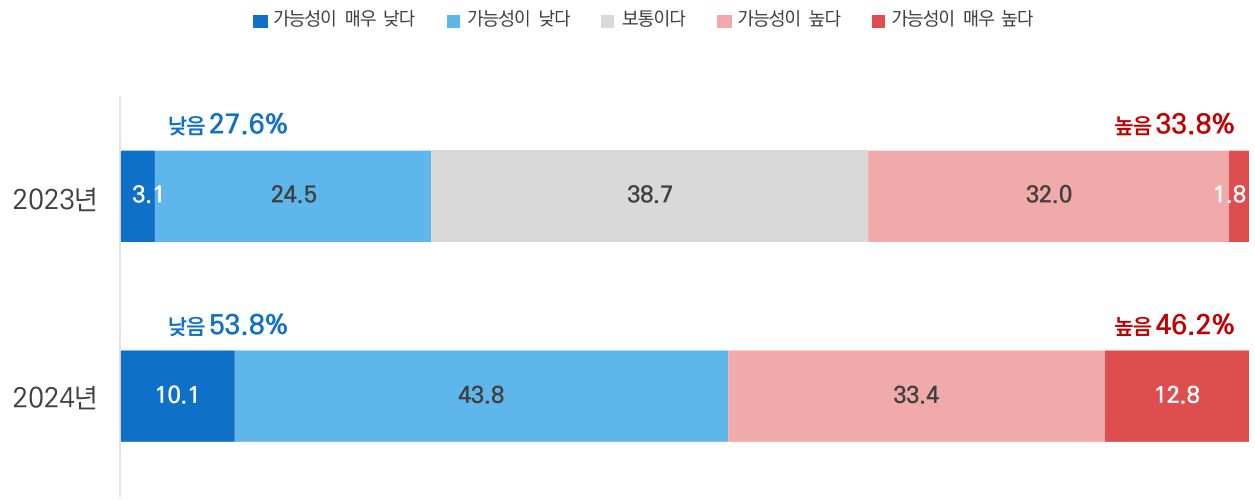
|그림 3-201|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 %)



|그림 3-202|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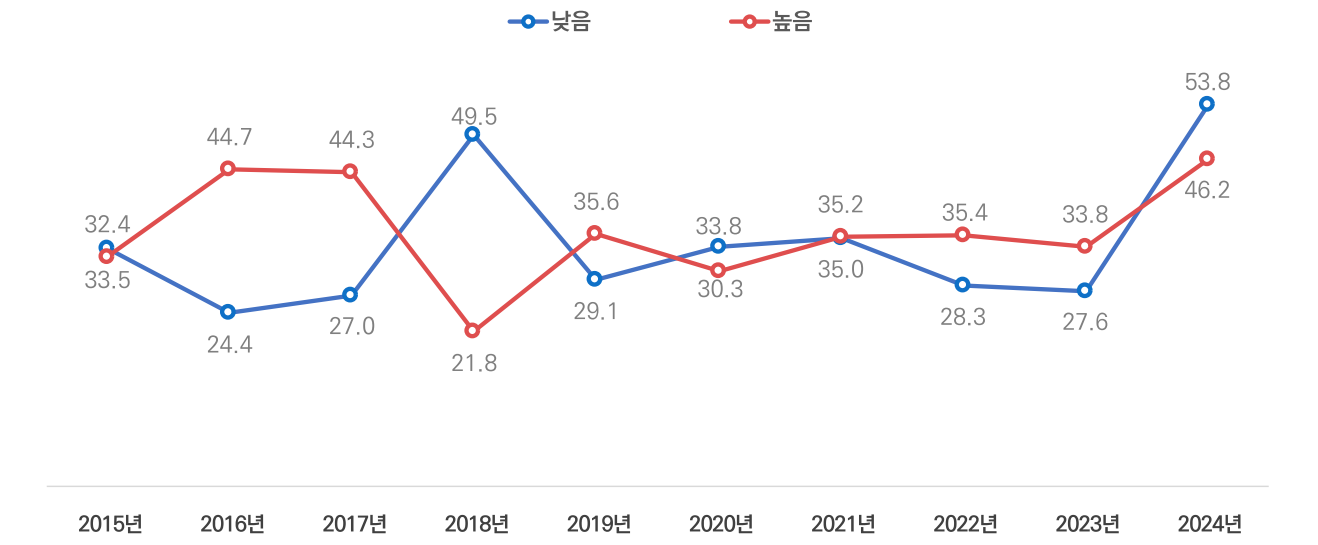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높음'이라는 비율은 13.8%p 증가했으며, '낮음'이라는 비율은 2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3|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32|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7	7.8	7.2	4.8	5.6	2.3	8.4	3.4	1.8	12.8	11.0	9.1
가능성이 높다	28.8	36.8	37.1	17.0	30.0	28.0	26.8	32.0	32.0	33.4	1.4	4.6
보통이다	34.1	30.9	28.8	28.7	35.3	35.9	29.8	36.3	38.7	-	-	-
가능성이 낮다	28.3	21.7	24.7	34.9	26.7	30.3	26.2	22.9	24.5	43.8	19.3	15.5
가능성이 매우 낮다	5.3	2.8	2.3	14.6	2.4	3.4	8.8	5.4	3.1	10.1	7.0	4.8
무응답	-	-	-	-	-	-	-	-	-	-	-	-
높음	32.4	44.7	44.3	21.8	35.6	30.3	35.2	35.4	33.8	46.2	12.4	13.8
낮음	33.5	24.4	27.0	49.5	29.1	33.8	35.0	28.3	27.6	53.8	26.2	20.3

※ 2024년 '보통이다' 보기 항목 삭제로 2023년과 비교 어려움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높음'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3|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낮음
전체		(1,300)	12.5	34.2	43.4	9.9	46.7	53.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8	33.4	43.8	10.1	46.2	53.8
	전문가	(100)	9.0	44.0	39.0	8.0	53.0	4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1.6	33.7	45.2	9.5	45.2	54.8
	중	(580)	10.2	32.1	46.4	11.4	42.2	57.8
	하	(231)	21.2	36.4	34.6	7.8	57.6	42.4
성별	남성	(720)	13.3	33.1	44.3	9.3	46.4	53.6
	여성	(480)	11.9	34.0	42.9	11.3	45.8	54.2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7	31.3	43.8	10.1	46.1	53.9
	30대	(194)	11.3	32.0	46.9	9.8	43.3	56.7
	40대	(226)	10.6	35.4	42.9	11.1	46.0	54.0
	50대	(255)	11.0	33.3	45.5	10.2	44.3	55.7
	60대 이상	(308)	15.3	34.4	40.9	9.4	49.7	50.3
지역별	서울	(140)	14.3	34.3	45.7	5.7	48.6	51.4
	경기/인천	(245)	14.3	29.0	43.3	13.5	43.3	56.7
	부산/울산/경남	(208)	7.7	29.8	51.9	10.6	37.5	62.5
	대구/경북	(141)	14.9	41.1	39.0	5.0	56.0	44.0
	광주/전라	(170)	2.9	27.1	52.4	17.6	30.0	70.0
	대전/충청/세종	(205)	6.3	47.3	37.6	8.8	53.7	46.3
	강원/제주	(91)	47.3	20.9	28.6	3.3	68.1	31.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1	33.2	47.3	8.4	44.3	55.7
	중·소도시	(639)	14.7	33.6	40.4	11.3	48.4	51.6
	읍/면	(37)	2.7	32.4	51.4	13.5	35.1	64.9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38.0	30.0	14.0	56.0	44.0
	자영업자	(185)	13.5	37.3	39.5	9.7	50.8	49.2
	판매/서비스직	(194)	12.4	30.9	44.3	12.4	43.3	56.7
	기능/숙련공	(127)	6.3	40.9	46.5	6.3	47.2	52.8
	일반 노무직	(41)	17.1	39.0	36.6	7.3	56.1	43.9
	사무/기술직	(283)	13.1	29.7	46.6	10.6	42.8	57.2
	경영/관리직	(19)	5.3	-	78.9	15.8	5.3	94.7
	전문/자유직	(7)	28.6	28.6	28.6	14.3	57.1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13.0	34.9	42.6	9.5	47.9	52.1
	학생	(73)	13.7	31.5	45.2	9.6	45.2	54.8
	무직/휴직/은퇴	(52)	15.4	32.7	44.2	7.7	48.1	51.9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8.6	35.6	40.7	5.1	54.2	45.8
	고등학교	(440)	12.3	33.2	42.7	11.8	45.5	54.5
	전문대	(266)	10.2	39.1	42.1	8.6	49.2	50.8
	4년제 대학교	(427)	14.1	30.4	45.4	10.1	44.5	55.5
	대학원 이상	(8)	12.5	-	87.5	-	12.5	87.5
생활수준별	상	(73)	16.4	35.6	27.4	20.5	52.1	47.9
	중	(544)	10.7	34.9	44.9	9.6	45.6	54.4
	하	(583)	14.2	31.7	44.8	9.3	46.0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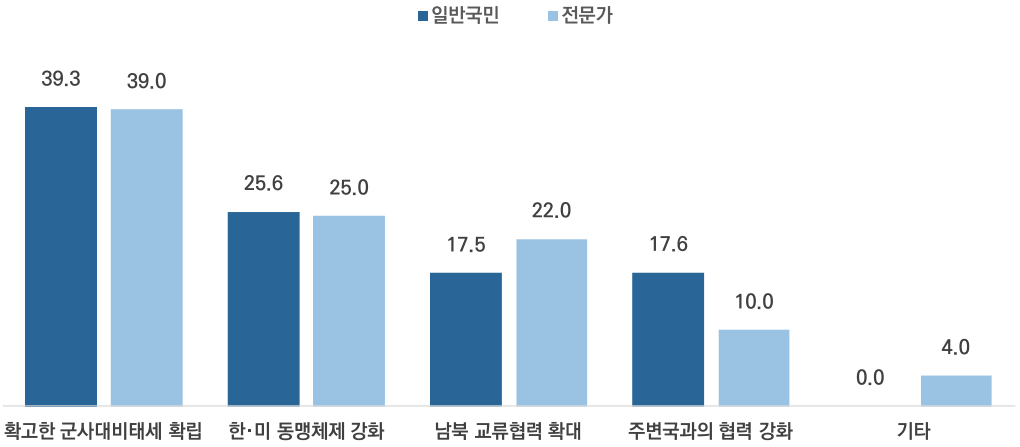
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일반국민 39.3%, 전문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2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10.5%p(2023년 49.8%) 감소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6.7%p(2023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2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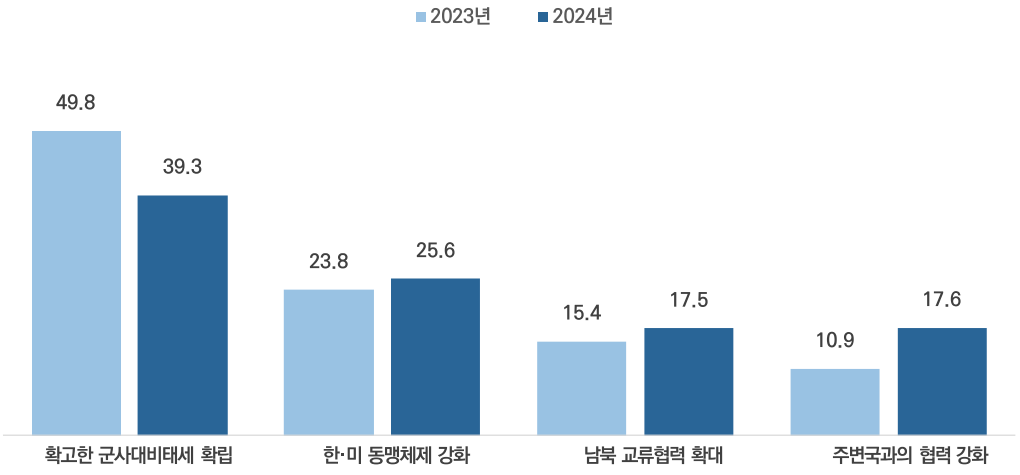
|그림 3-204|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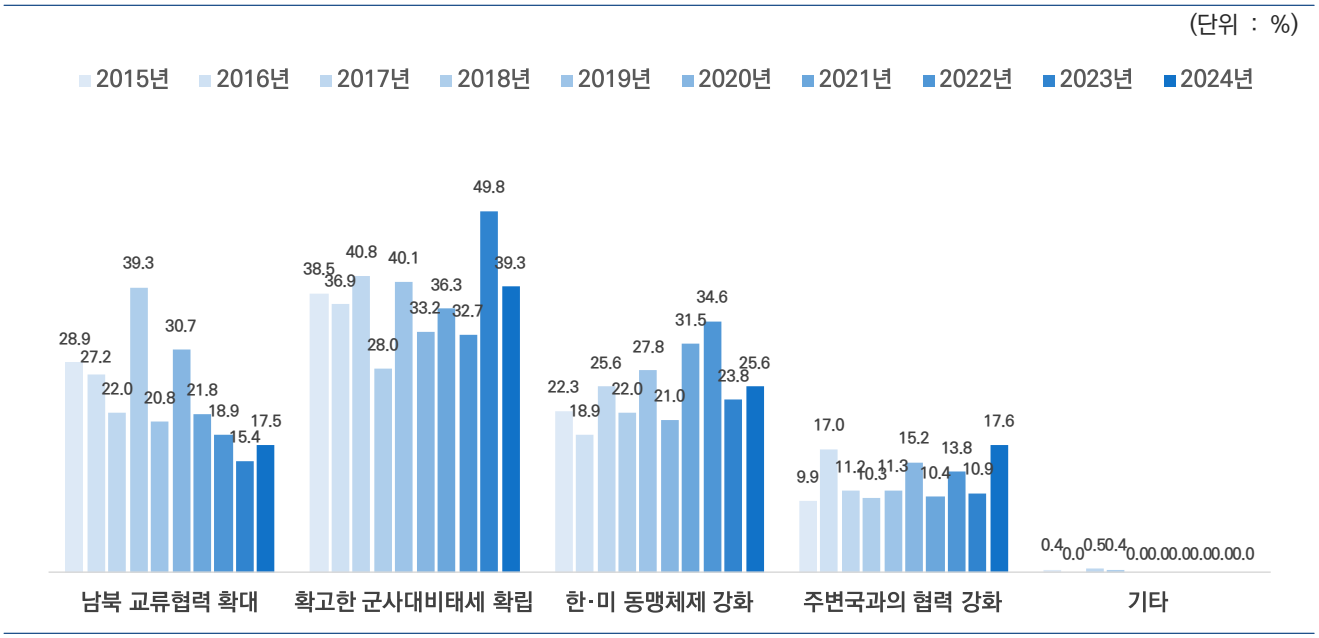
|그림 3-205|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11.4%p 감소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34|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남북 교류협력 확대	28.9	27.2	22.0	39.3	20.8	30.7	21.8	18.9	15.4	17.5	2.1	-11.4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38.5	36.9	40.8	28.0	40.1	33.2	36.3	32.7	49.8	39.3	-10.5	0.8
한·미 동맹체제 강화	22.3	18.9	25.6	22.0	27.8	21.0	31.5	34.6	23.8	25.6	1.8	3.3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9.9	17.0	11.2	10.3	11.3	15.2	10.4	13.8	10.9	17.6	6.7	7.7
기타	0.4	0.0	0.5	0.4	0.0	0.0	0.0	0.0	0.0	0.0	0.0	-0.4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5|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 동맹체제 강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39.3	25.5	17.8	17.0	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3	25.6	17.5	17.6	-
	전문가	(100)	39.0	25.0	22.0	10.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2.2	25.2	17.7	14.9	-
	중	(580)	34.3	29.5	18.1	18.1	-
	하	(231)	47.2	16.5	15.6	20.8	-
성별	남성	(720)	41.0	23.9	18.9	16.3	-
	여성	(480)	36.9	28.1	15.4	19.6	-
연령별	20대 이하	(217)	39.2	26.3	17.5	17.1	-
	30대	(194)	39.2	26.8	20.1	13.9	-
	40대	(226)	39.4	26.5	15.0	19.0	-
	50대	(255)	38.0	25.5	19.6	16.9	-
	60대 이상	(308)	40.6	23.7	15.9	19.8	-
지역별	서울	(140)	32.1	46.4	9.3	12.1	-
	경기/인천	(245)	42.0	25.3	16.7	15.9	-
	부산/울산/경남	(208)	26.4	25.5	20.7	27.4	-
	대구/경북	(141)	50.4	14.9	17.7	17.0	-
	광주/전라	(170)	33.5	26.5	23.5	16.5	-
	대전/충청/세종	(205)	45.9	23.9	11.2	19.0	-
	강원/제주	(91)	51.6	13.2	27.5	7.7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5.3	32.4	14.9	17.4	-
	중·소도시	(639)	42.9	18.9	20.7	17.5	-
	읍/면	(37)	35.1	43.2	-	21.6	-
직업별	농/어/임업	(50)	40.0	22.0	20.0	18.0	-
	자영업자	(185)	43.8	23.8	17.8	14.6	-
	판매/서비스직	(194)	42.8	25.3	14.4	17.5	-
	기능/숙련공	(127)	40.9	19.7	22.0	17.3	-
	일반 노무직	(41)	36.6	26.8	12.2	24.4	-
	사무/기술직	(283)	35.3	28.6	18.7	17.3	-
	경영/관리직	(19)	52.6	15.8	15.8	15.8	-
	전문/자유직	(7)	42.9	14.3	14.3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34.9	32.0	13.0	20.1	-
	학생	(73)	31.5	28.8	21.9	17.8	-
	무직/휴직/은퇴	(52)	50.0	13.5	21.2	15.4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9.0	27.1	10.2	23.7	-
	고등학교	(440)	39.8	26.1	16.8	17.3	-
	전문대	(266)	43.2	23.7	18.4	14.7	-
	4년제 대학교	(427)	36.8	25.5	18.7	19.0	-
	대학원 이상	(8)	25.0	50.0	12.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35.6	35.6	16.4	12.3	-
	중	(544)	40.1	29.2	15.8	14.9	-
	하	(583)	39.1	20.9	19.2	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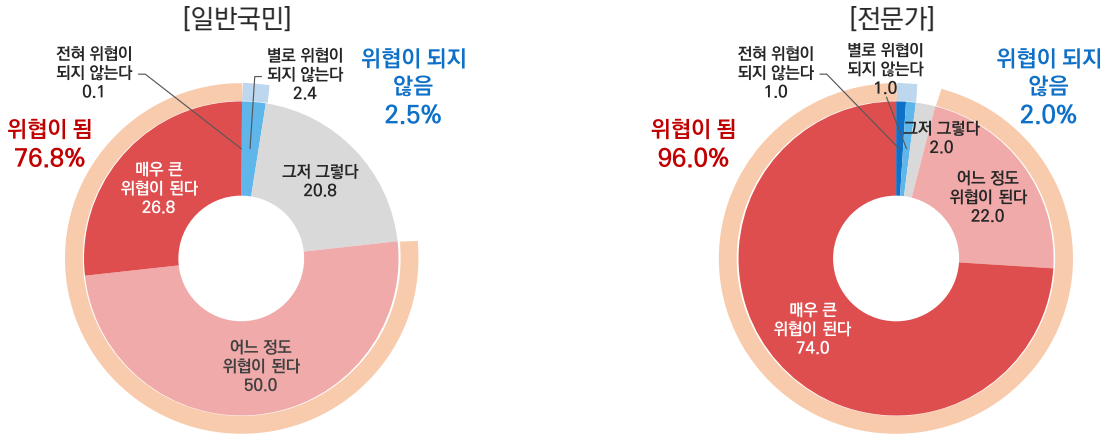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 안보에 대해 '위협이 됨'이 일반국민 76.8%, 전문가 96.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 안보에 대해 '위협이 됨'이 76.8%로 '위협이 되지 않음'(2.5%)보다 74.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위협이 됨'이 7.0%p(2023년 69.8%) 증가했으며, '위협이 되지 않음'은 6.0%p(2023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위협이 됨'이 96.0%로 '위협이 되지 않음'(2.0%)보다 9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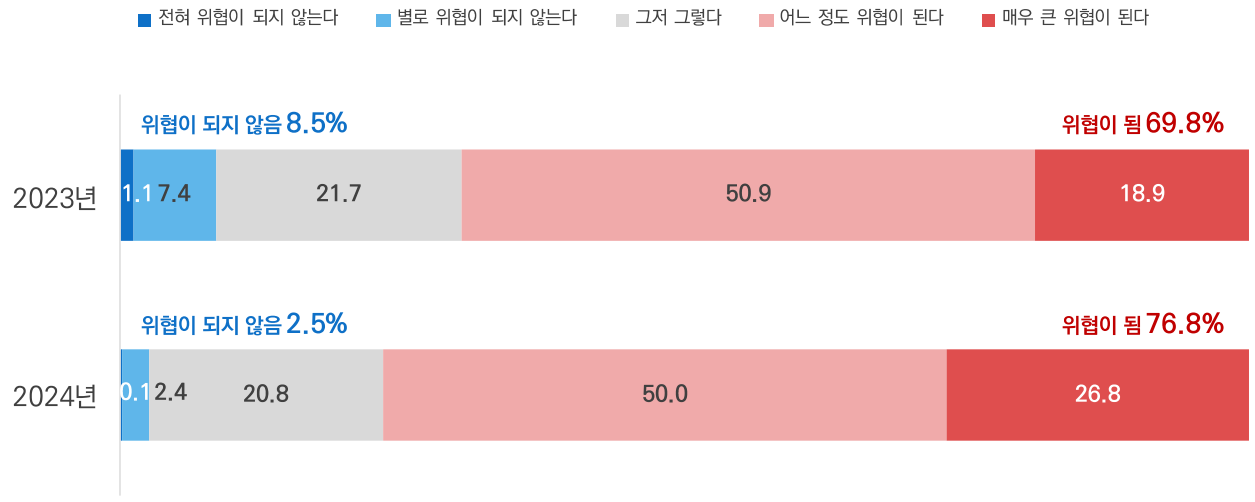
|그림 3-207|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단위 : %)



|그림 3-20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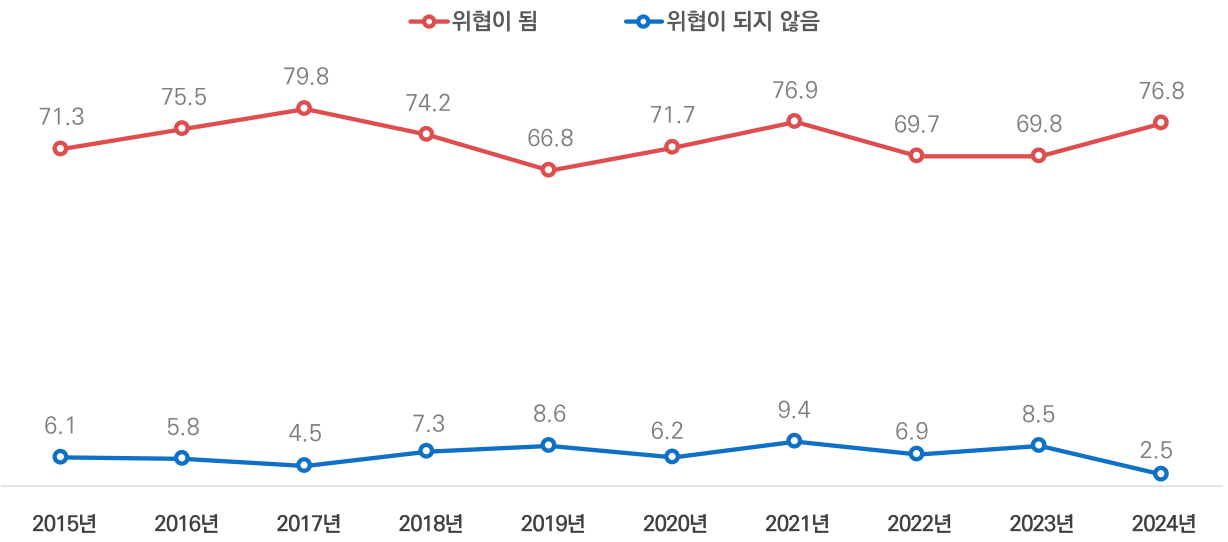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위협이 됨'은 5.5%p 증가했으며, '위협이 되지 않음'은 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0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36|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큰 위협이 된다	25.8	30.4	38.9	29.9	21.3	18.5	42.9	19.0	18.9	26.8	7.9	1.0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45.5	45.1	40.9	44.3	45.4	53.2	34	50.7	50.9	50.0	-0.9	4.5
그저 그렇다	22.6	18.7	15.7	18.6	24.7	22.2	13.7	23.4	21.7	20.8	-0.9	-1.8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5.8	5.3	4.3	6.5	8.2	6.2	8.4	6.6	7.4	2.4	-5.0	-3.4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0.3	0.5	0.3	0.8	0.4	0.0	1.0	0.3	1.1	0.1	-1.0	-0.2
무응답	-	-	-	-	-	-	-	-	-	-	-	-
위협이 됨	71.3	75.5	79.8	74.2	66.8	71.7	76.9	69.7	69.8	76.8	7.0	5.5
위협이 되지 않음	6.1	5.8	4.5	7.3	8.6	6.2	9.4	6.9	8.5	2.5	-6.0	-3.6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7|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종합		
								위협이 됨	그저 그렇다	위협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30.4	47.8	19.3	2.3	0.2	78.2	19.3	2.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6.8	50.0	20.8	2.4	0.1	76.8	20.8	2.5
	전문가	(100)	74.0	22.0	2.0	1.0	1.0	96.0	2.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7.8	45.8	24.2	2.3	-	73.5	24.2	2.3
	중	(580)	25.0	50.9	20.9	3.1	0.2	75.9	20.9	3.3
	하	(231)	29.4	55.0	14.7	0.9	-	84.4	14.7	0.9
성별	남성	(720)	25.8	52.2	18.9	2.9	0.1	78.1	18.9	3.1
	여성	(480)	28.1	46.7	23.5	1.7	-	74.8	23.5	1.7
연령별	20대 이하	(217)	23.5	54.4	19.8	2.3	-	77.9	19.8	2.3
	30대	(194)	26.3	47.4	24.7	1.5	-	73.7	24.7	1.5
	40대	(226)	22.1	48.7	24.3	4.4	0.4	70.8	24.3	4.9
	50대	(255)	28.2	51.8	19.2	0.8	-	80.0	19.2	0.8
	60대 이상	(308)	31.5	48.1	17.5	2.9	-	79.5	17.5	2.9
지역별	서울	(140)	20.7	47.9	27.9	3.6	-	68.6	27.9	3.6
	경기/인천	(245)	23.3	59.2	15.9	1.6	-	82.4	15.9	1.6
	부산/울산/경남	(208)	16.8	55.3	25.5	2.4	-	72.1	25.5	2.4
	대구/경북	(141)	51.1	41.8	6.4	0.7	-	92.9	6.4	0.7
	광주/전라	(170)	11.8	62.4	23.5	2.4	-	74.1	23.5	2.4
	대전/충청/세종	(205)	29.3	39.5	28.3	2.9	-	68.8	28.3	2.9
	강원/제주	(91)	52.7	29.7	12.1	4.4	1.1	82.4	12.1	5.5
지역크기	대도시	(524)	22.5	53.2	22.5	1.7	-	75.8	22.5	1.7
	중·소도시	(639)	31.3	48.0	17.8	2.7	0.2	79.3	17.8	2.8
	읍/면	(37)	8.1	37.8	45.9	8.1	-	45.9	45.9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26.0	62.0	6.0	6.0	-	88.0	6.0	6.0
	자영업자	(185)	26.5	47.0	22.7	3.2	0.5	73.5	22.7	3.8
	판매/서비스직	(194)	18.0	54.1	26.3	1.5	-	72.2	26.3	1.5
	기능/숙련공	(127)	30.7	48.0	16.5	4.7	-	78.7	16.5	4.7
	일반 노무직	(41)	31.7	51.2	17.1	-	-	82.9	17.1	-
	사무/기술직	(283)	26.5	53.0	18.7	1.8	-	79.5	18.7	1.8
	경영/관리직	(19)	15.8	63.2	21.1	-	-	78.9	21.1	-
	전문/자유직	(7)	71.4	14.3	14.3	-	-	85.7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0.8	43.2	24.3	1.8	-	74.0	24.3	1.8
	학생	(73)	24.7	46.6	24.7	4.1	-	71.2	24.7	4.1
	무직/휴직/은퇴	(52)	36.5	48.1	15.4	-	-	84.6	15.4	-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5.6	40.7	16.9	6.8	-	76.3	16.9	6.8
	고등학교	(440)	28.0	51.4	18.2	2.5	-	79.3	18.2	2.5
	전문대	(266)	18.8	47.0	31.2	3.0	-	65.8	31.2	3.0
	4년제 대학교	(427)	28.8	52.0	17.6	1.4	0.2	80.8	17.6	1.6
	대학원 이상	(8)	50.0	37.5	12.5	-	-	8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27.4	49.3	19.2	2.7	1.4	76.7	19.2	4.1
	중	(544)	23.9	48.7	25.4	2.0	-	72.6	25.4	2.0
	하	(583)	29.3	51.3	16.6	2.7	-	80.6	16.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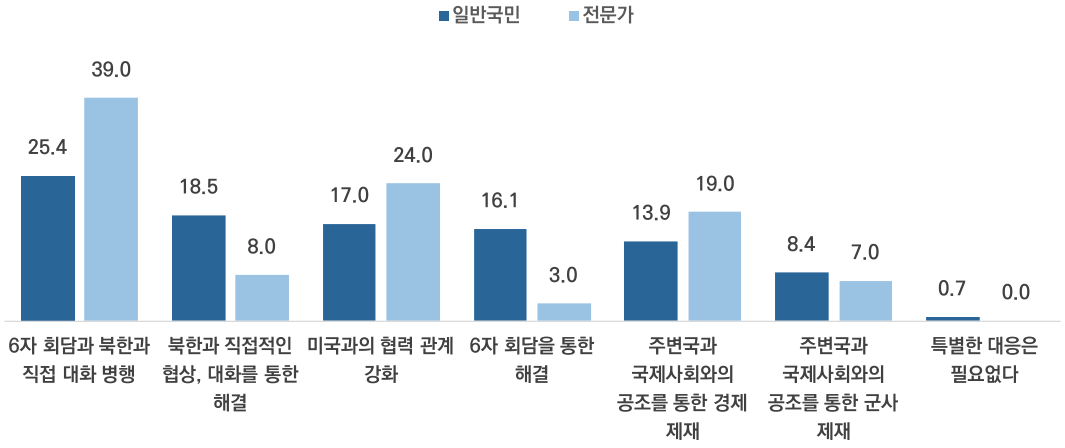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일반국민 25.4%, 전문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1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가 5.8%p(2023년 19.7%) 감소했으며, '6자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은 4.4%p(2023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2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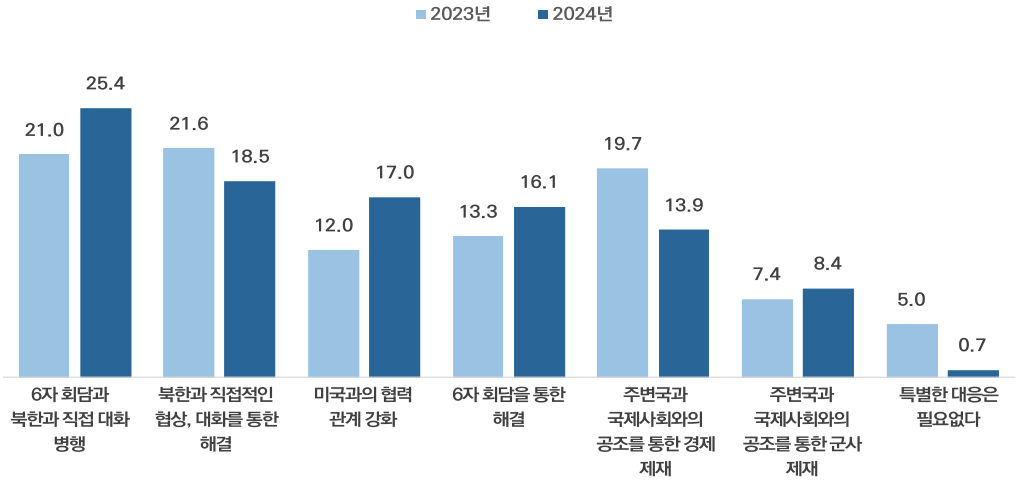
|그림 3-2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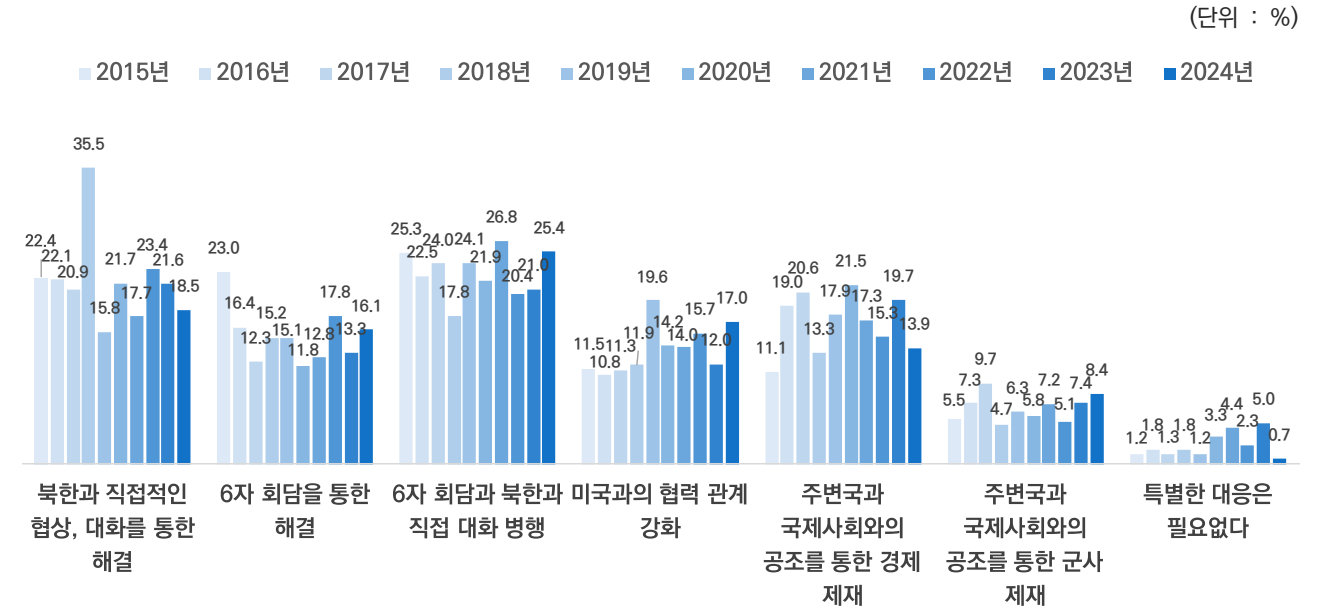
|그림 3-2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는 5.5%p 증가했으며,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은 6.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2|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38|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22.4	22.1	20.9	35.5	15.8	21.7	17.7	23.4	21.6	18.5	-3.1	-3.9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23.0	16.4	12.3	15.2	15.1	11.8	12.8	17.8	13.3	16.1	2.8	-6.9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25.3	22.5	24.0	17.8	24.1	21.9	26.8	20.4	21.0	25.4	4.4	0.1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1.5	10.8	11.3	11.9	19.6	14.2	14.0	15.7	12.0	17.0	5.0	5.5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11.1	19.0	20.6	13.3	17.9	21.5	17.3	15.3	19.7	13.9	-5.8	2.8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5.5	7.3	9.7	4.7	6.3	5.8	7.2	5.1	7.4	8.4	1.0	2.9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1.2	1.8	1.3	1.8	1.2	3.3	4.4	2.3	5.0	0.7	-4.3	-0.5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9|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전체		(1,300)	26.5	17.7	17.5	15.1	14.3	8.3	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4	18.5	17.0	16.1	13.9	8.4	0.7
	전문가	(100)	39.0	8.0	24.0	3.0	19.0	7.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5	15.4	19.8	13.6	15.2	6.7	0.8
	중	(580)	23.4	20.3	16.4	16.0	14.0	9.1	0.7
	하	(231)	25.1	19.0	13.9	20.3	11.7	9.5	0.4
성별	남성	(720)	25.6	18.9	19.0	16.3	12.2	7.4	0.7
	여성	(480)	25.2	17.9	14.0	15.8	16.5	10.0	0.6
연령별	20대 이하	(217)	28.6	19.8	13.4	15.7	13.4	8.8	0.5
	30대	(194)	23.7	18.0	19.6	15.5	14.4	8.8	-
	40대	(226)	26.5	17.3	17.7	16.4	12.8	8.0	1.3
	50대	(255)	26.7	19.2	17.6	12.2	16.1	7.5	0.8
	60대 이상	(308)	22.4	18.2	16.9	19.8	13.0	9.1	0.6
지역별	서울	(140)	22.9	8.6	34.3	12.1	17.9	2.1	2.1
	경기/인천	(245)	26.9	11.0	15.9	18.8	16.3	10.2	0.8
	부산/울산/경남	(208)	26.0	22.6	10.6	24.0	12.0	4.8	-
	대구/경북	(141)	14.9	26.2	13.5	14.2	20.6	10.6	-
	광주/전라	(170)	35.3	18.8	13.5	11.8	6.5	12.4	1.8
	대전/충청/세종	(205)	28.3	16.6	21.5	12.7	12.2	8.8	-
	강원/제주	(91)	15.4	36.3	9.9	15.4	13.2	9.9	-
지역크기	대도시	(524)	20.6	14.9	19.7	18.9	18.3	6.5	1.1
	중·소도시	(639)	29.0	22.4	13.8	13.9	10.8	9.9	0.3
	읍/면	(37)	32.4	2.7	35.1	13.5	5.4	10.8	-
직업별	농/어/임업	(50)	14.0	24.0	18.0	16.0	16.0	12.0	-
	자영업자	(185)	26.5	16.8	23.8	11.4	14.1	7.6	-
	판매/서비스직	(194)	27.8	13.9	14.9	20.6	10.3	12.4	-
	기능/숙련공	(127)	22.8	22.8	14.2	15.7	14.2	9.4	0.8
	일반 노무직	(41)	34.1	14.6	14.6	17.1	9.8	9.8	-
	사무/기술직	(283)	22.6	20.1	18.0	15.9	15.5	6.0	1.8
	경영/관리직	(19)	36.8	15.8	10.5	5.3	26.3	5.3	-
	전문/자유직	(7)	28.6	42.9	-	28.6	-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전업주부	(169)	25.4	14.2	16.6	17.2	17.2	8.9	0.6
	학생	(73)	32.9	24.7	11.0	15.1	9.6	6.8	-
	무직/휴직/은퇴	(52)	23.1	23.1	17.3	17.3	11.5	5.8	1.9
	기타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5.4	18.6	22.0	10.2	15.3	8.5	-
	고등학교	(440)	25.2	19.5	14.8	17.5	14.1	8.4	0.5
	전문대	(266)	32.3	11.7	15.4	19.9	9.0	10.2	1.5
	4년제 대학교	(427)	21.5	21.8	19.2	12.9	16.6	7.5	0.5
	대학원 이상	(8)	12.5	12.5	37.5	25.0	12.5	-	-
생활수준별	상	(73)	24.7	13.7	24.7	9.6	19.2	8.2	-
	중	(544)	26.7	14.5	19.9	15.1	13.6	9.7	0.6
	하	(583)	24.4	22.8	13.4	17.8	13.6	7.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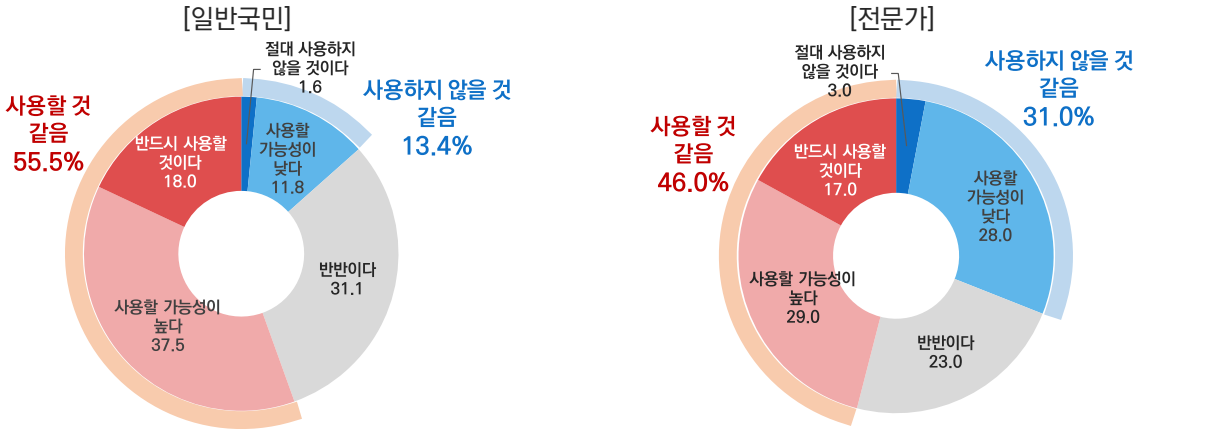
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음'이 일반국민 13.4%, 전문가 3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음'이 55.5%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13.4%)보다 42.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사용할 것 같음'이 13.6%p(2023년 41.9%) 증가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보다 9.3%p(2023년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사용할 것 같음'이 46.0%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31.0%)보다 1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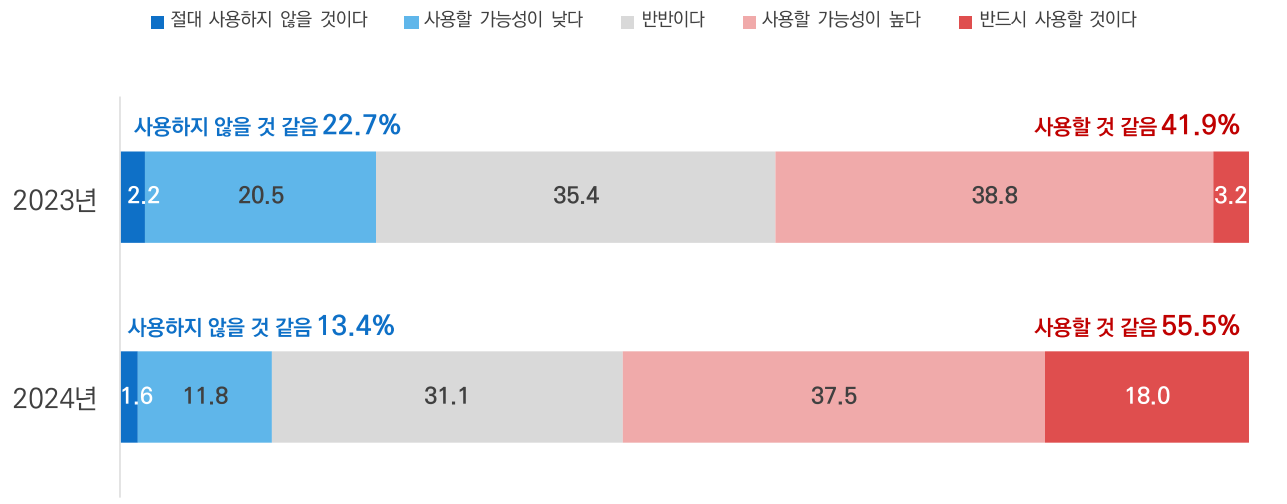
|그림 3-213|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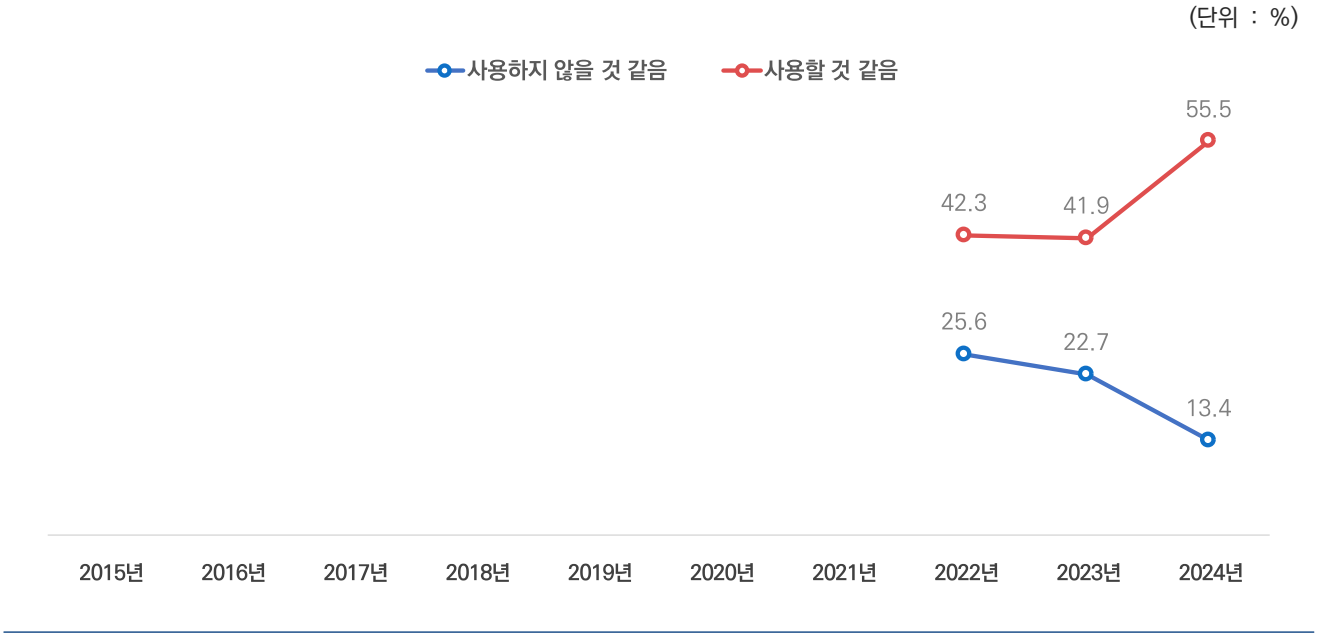
|그림 3-214|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사용할 것 같음'이 13.2%p 증가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은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5|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40|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	-	-	-	-	-	-	6.5	3.2	18.0	14.8	11.5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	-	-	-	-	-	35.8	38.8	37.5	-1.3	1.7
반반이다	-	-	-	-	-	-	-	32.1	35.4	31.1	-4.3	-1.0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	-	-	-	-	-	-	23.5	20.5	11.8	-8.7	-11.7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	-	-	-	-	-	2.1	2.2	1.6	-0.6	-0.5
무응답	-	-	-	-	-	-	-	-	-	-	-	-
사용할 것 같음	-	-	-	-	-	-	-	42.3	41.9	55.5	13.6	13.2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	-	-	-	-	-	-	-	25.6	22.7	13.4	-9.3	-12.2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음'이라는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4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반이다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사용할 것 같음	반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
전체		(1,300)	17.9	36.8	30.5	13.1	1.7	54.8	30.5	1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0	37.5	31.1	11.8	1.6	55.5	31.1	13.4
	전문가	(100)	17.0	29.0	23.0	28.0	3.0	46.0	23.0	3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6.5	36.2	32.4	13.1	1.8	52.7	32.4	14.9
	중	(580)	16.4	37.2	33.4	11.0	1.9	53.6	33.4	12.9
	하	(231)	24.7	40.3	22.9	11.7	0.4	64.9	22.9	12.1
성별	남성	(720)	17.4	35.4	32.2	12.9	2.1	52.8	32.2	15.0
	여성	(480)	19.0	40.6	29.4	10.2	0.8	59.6	29.4	11.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4	38.2	30.9	11.5	0.9	56.7	30.9	12.4
	30대	(194)	15.5	41.2	32.0	10.3	1.0	56.7	32.0	11.3
	40대	(226)	19.5	29.2	35.8	13.3	2.2	48.7	35.8	15.5
	50대	(255)	16.1	39.6	30.6	12.2	1.6	55.7	30.6	13.7
	60대 이상	(308)	19.8	39.0	27.6	11.7	1.9	58.8	27.6	13.6
지역별	서울	(140)	11.4	45.7	29.3	11.4	2.1	57.1	29.3	13.6
	경기/인천	(245)	26.9	40.0	26.5	6.1	0.4	66.9	26.5	6.5
	부산/울산/경남	(208)	20.7	37.5	25.0	14.4	2.4	58.2	25.0	16.8
	대구/경북	(141)	19.9	41.8	24.8	13.5	-	61.7	24.8	13.5
	광주/전라	(170)	1.2	29.4	45.9	20.6	2.9	30.6	45.9	23.5
	대전/충청/세종	(205)	6.8	43.9	41.0	7.3	1.0	50.7	41.0	8.3
	강원/제주	(91)	51.6	12.1	19.8	13.2	3.3	63.7	19.8	16.5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6	45.8	28.2	9.5	0.8	61.5	28.2	10.3
	중·소도시	(639)	20.8	31.6	32.7	12.7	2.2	52.4	32.7	14.9
	읍/면	(37)	2.7	21.6	43.2	29.7	2.7	24.3	43.2	32.4
직업별	농/어/임업	(50)	16.0	30.0	34.0	18.0	2.0	46.0	34.0	20.0
	자영업자	(185)	18.4	38.4	29.7	11.9	1.6	56.8	29.7	13.5
	판매/서비스직	(194)	15.5	36.1	34.0	13.4	1.0	51.5	34.0	14.4
	기능/숙련공	(127)	17.3	37.8	26.8	15.7	2.4	55.1	26.8	18.1
	일반 노무직	(41)	22.0	39.0	36.6	2.4	-	61.0	36.6	2.4
	사무/기술직	(283)	17.3	37.1	35.3	9.5	0.7	54.4	35.3	10.2
	경영/관리직	(19)	26.3	26.3	26.3	10.5	10.5	52.6	26.3	21.1
	전문/자유직	(7)	57.1	-	14.3	28.6	-	57.1	14.3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0.7	38.5	28.4	10.1	2.4	59.2	28.4	12.4
	학생	(73)	9.6	47.9	30.1	11.0	1.4	57.5	30.1	12.3
	무직/휴직/은퇴	(52)	25.0	38.5	19.2	15.4	1.9	63.5	19.2	17.3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0.3	39.0	32.2	6.8	1.7	59.3	32.2	8.5
	고등학교	(440)	18.2	37.7	26.8	15.2	2.0	55.9	26.8	17.3
	전문대	(266)	17.7	37.6	32.7	10.5	1.5	55.3	32.7	12.0
	4년제 대학교	(427)	17.8	37.5	33.5	10.1	1.2	55.3	33.5	11.2
	대학원 이상	(8)	12.5	12.5	75.0	-	-	25.0	75.0	-
생활수준별	상	(73)	17.8	37.0	28.8	9.6	6.8	54.8	28.8	16.4
	중	(544)	13.6	37.3	34.2	13.2	1.7	50.9	34.2	14.9
	하	(583)	22.1	37.7	28.5	10.8	0.9	59.9	28.5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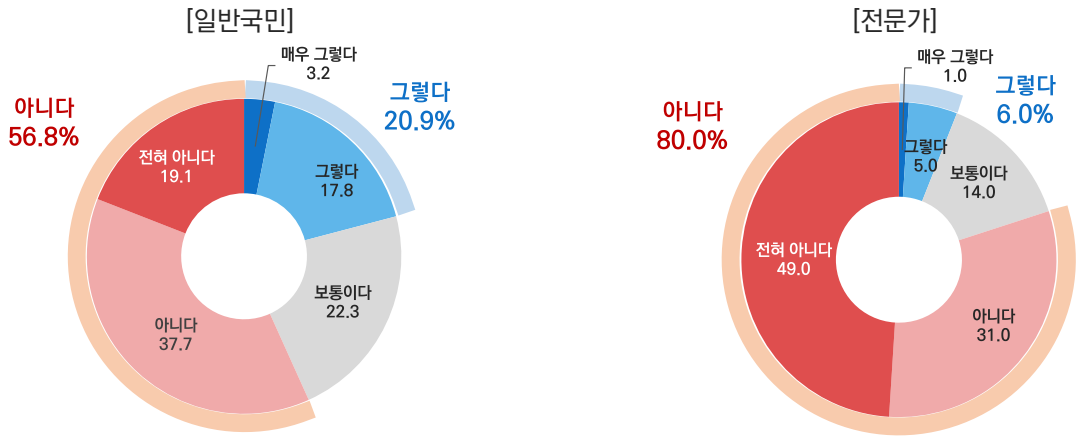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56.8%, 전문가 8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그렇다'(20.9%)보다 35.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p(2023년 61.3%) 감소했으며, '그렇다'는 4.4%p(2023년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그렇다'(6.0%)보다 7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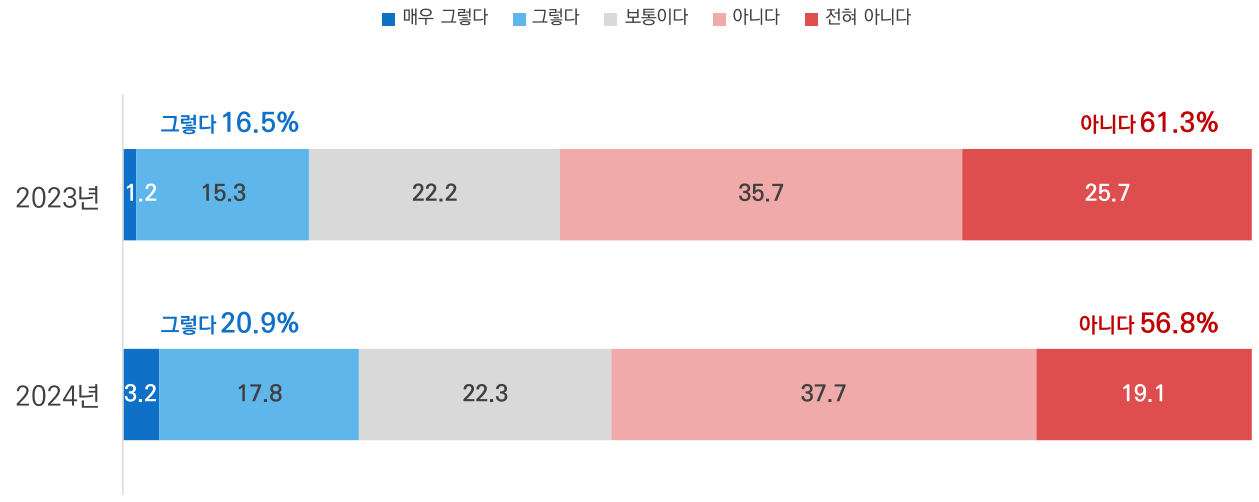
|그림 3-216|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단위 : %)



|그림 3-217|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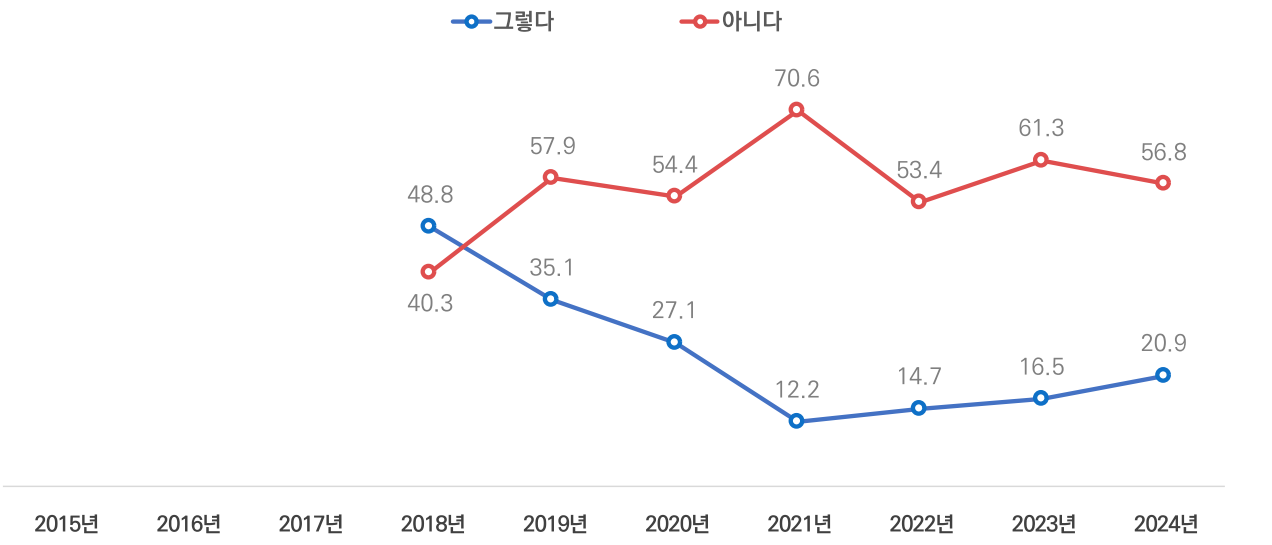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8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p 증가했으며, '아니다'는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8|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4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7.2	2.3	0.9	2.8	0.6	1.2	3.2	2.0	2.6
그렇다	-	-	-	41.6	32.8	26.2	9.4	14.1	15.3	17.8	2.5	3.7
보통이다	-	-	-	0.0	0.0	18.6	17.3	31.9	22.2	22.3	0.1	-9.6
아니다	-	-	-	28.3	37.3	39.1	28.2	31.3	35.7	37.7	2.0	6.4
전혀 아니다	-	-	-	11.9	20.6	15.3	42.4	22.1	25.7	19.1	-6.6	-3.0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48.8	35.1	27.1	12.2	14.7	16.5	20.9	4.4	6.2
아니다	-	-	-	40.3	57.9	54.4	70.6	53.4	61.3	56.8	-4.5	3.4

※ 2015~2017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2018~2019년 문항 보기가 '진정성이 있음-진정성이 없음'으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4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체		(1,300)	3.0	16.8	21.7	37.2	21.4	19.8	21.7	5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17.8	22.3	37.7	19.1	20.9	22.3	56.8
	전문가	(100)	1.0	5.0	14.0	31.0	49.0	6.0	14.0	8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4	18.3	23.4	35.2	18.8	22.6	23.4	54.0
	중	(580)	2.9	17.9	23.3	41.0	14.8	20.9	23.3	55.9
	하	(231)	1.7	16.5	18.2	33.3	30.3	18.2	18.2	63.6
성별	남성	(720)	3.2	17.9	20.6	40.3	18.1	21.1	20.6	58.3
	여성	(480)	3.1	17.5	25.0	33.8	20.6	20.6	25.0	54.4
연령별	20대 이하	(217)	3.2	20.7	21.7	31.8	22.6	24.0	21.7	54.4
	30대	(194)	2.6	21.1	22.2	36.6	17.5	23.7	22.2	54.1
	40대	(226)	3.1	17.3	23.9	41.2	14.6	20.4	23.9	55.8
	50대	(255)	2.4	14.5	22.4	40.8	20.0	16.9	22.4	60.8
	60대 이상	(308)	4.2	16.6	21.8	37.3	20.1	20.8	21.8	57.5
지역별	서울	(140)	2.9	16.4	28.6	37.9	14.3	19.3	28.6	52.1
	경기/인천	(245)	3.3	25.3	19.6	38.0	13.9	28.6	19.6	51.8
	부산/울산/경남	(208)	-	11.1	18.3	48.6	22.1	11.1	18.3	70.7
	대구/경북	(141)	0.7	12.1	17.0	44.7	25.5	12.8	17.0	70.2
	광주/전라	(170)	2.4	26.5	27.1	28.8	15.3	28.8	27.1	44.1
	대전/충청/세종	(205)	6.3	19.5	25.4	36.1	12.7	25.9	25.4	48.8
	강원/제주	(91)	8.8	3.3	22.0	20.9	45.1	12.1	22.0	65.9
지역크기	대도시	(524)	3.1	20.0	20.8	39.9	16.2	23.1	20.8	56.1
	중·소도시	(639)	2.3	15.6	22.4	37.2	22.4	18.0	22.4	59.6
	읍/면	(37)	18.9	21.6	43.2	13.5	2.7	40.5	43.2	16.2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16.0	14.0	34.0	30.0	22.0	14.0	64.0
	자영업자	(185)	2.2	21.6	28.1	36.2	11.9	23.8	28.1	48.1
	판매/서비스직	(194)	3.6	24.7	25.3	32.5	13.9	28.4	25.3	46.4
	기능/숙련공	(127)	3.9	12.6	17.3	48.0	18.1	16.5	17.3	66.1
	일반 노무직	(41)	4.9	17.1	17.1	39.0	22.0	22.0	17.1	61.0
	사무/기술직	(283)	3.2	12.0	21.9	42.4	20.5	15.2	21.9	62.9
	경영/관리직	(19)	-	10.5	10.5	42.1	36.8	10.5	10.5	78.9
	전문/자유직	(7)	-	14.3	-	28.6	57.1	14.3	-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8.9	26.6	32.0	20.1	21.3	26.6	52.1
	학생	(73)	2.7	20.5	20.5	37.0	19.2	23.3	20.5	56.2
	무직/휴직/은퇴	(52)	3.8	19.2	13.5	32.7	30.8	23.1	13.5	63.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8	13.6	28.8	33.9	16.9	20.3	28.8	50.8
	고등학교	(440)	2.3	18.6	23.0	36.6	19.5	20.9	23.0	56.1
	전문대	(266)	3.8	24.1	20.3	35.3	16.5	27.8	20.3	51.9
	4년제 대학교	(427)	3.3	13.8	22.0	40.5	20.4	17.1	22.0	60.9
	대학원 이상	(8)	-	-	25.0	50.0	25.0	-	25.0	75.0
생활수준별	상	(73)	8.2	15.1	24.7	35.6	16.4	23.3	24.7	52.1
	중	(544)	3.3	20.0	24.8	36.6	15.3	23.3	24.8	51.8
	하	(583)	2.4	16.0	19.7	38.9	23.0	18.4	19.7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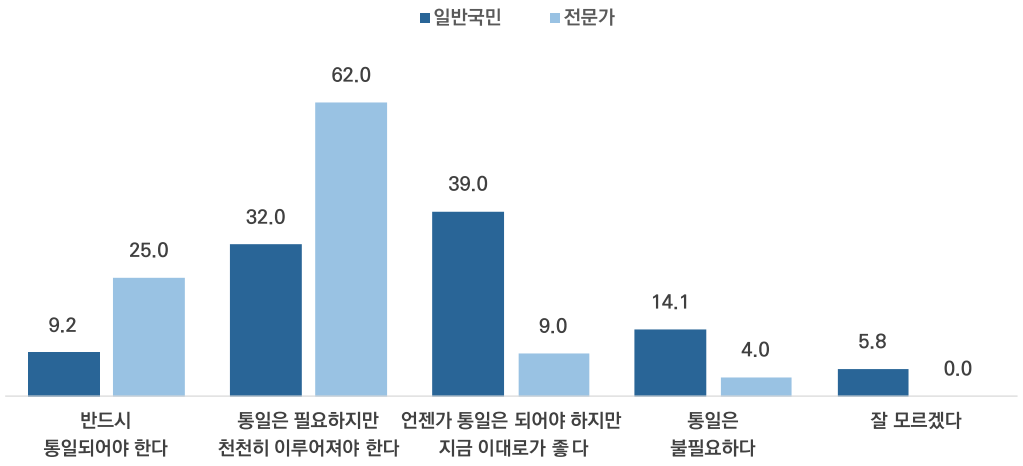
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39.0%, 전문가는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3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3.1%p(2023년 35.1%) 감소했으며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1.9%p(2023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6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2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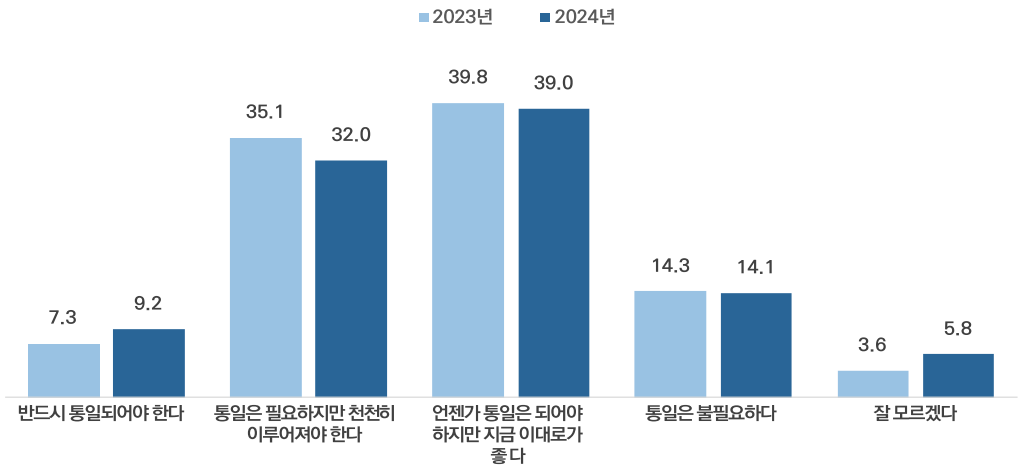
|그림 3-219|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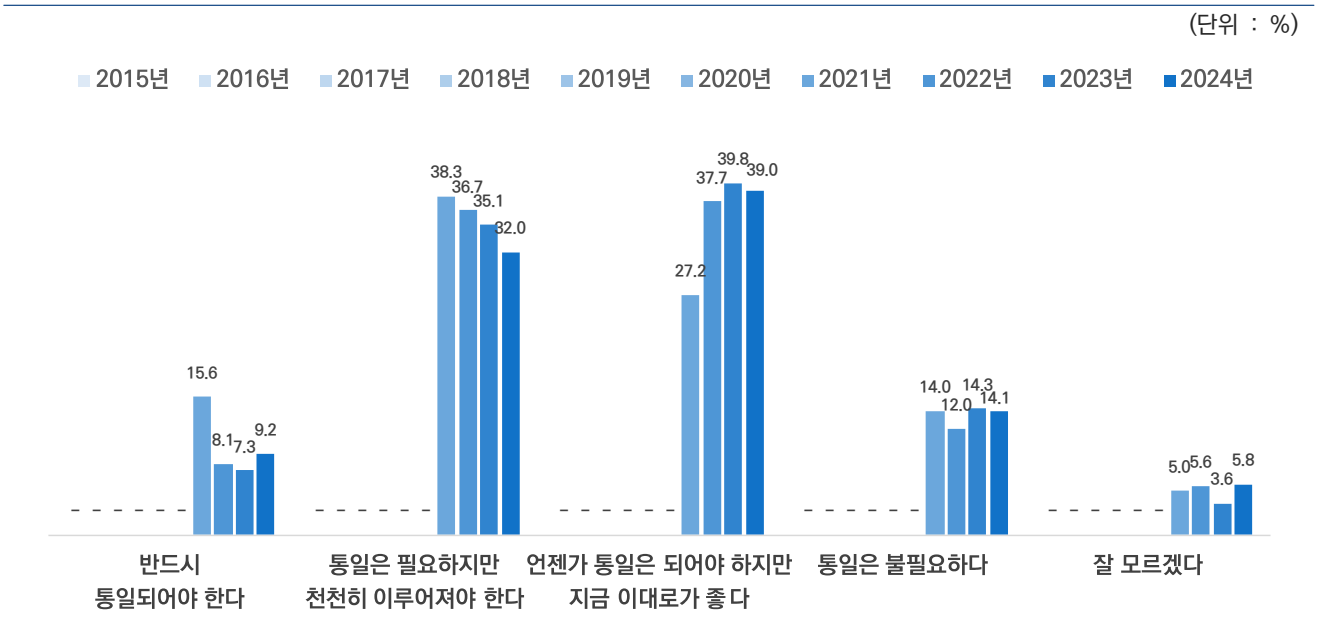
|그림 3-220|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4.7%p 감소했으며,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1|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44|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	-	-	-	-	-	15.6	8.1	7.3	9.2	1.9	1.1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38.3	36.7	35.1	32.0	-3.1	-4.7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	-	-	-	-	-	27.2	37.7	39.8	39.0	-0.8	1.3
통일은 불필요하다	-	-	-	-	-	-	14.0	12.0	14.3	14.1	-0.2	2.1
잘 모르겠다	-	-	-	-	-	-	5.0	5.6	3.6	5.8	2.2	0.2

※ 2015~2020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45|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통일은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10.4	34.3	36.7	13.3	5.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	32.0	39.0	14.1	5.8
	전문가	(100)	25.0	62.0	9.0	4.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4.1	35.2	32.6	12.9	5.1
	중	(580)	6.0	31.9	42.9	13.1	6.0
	하	(231)	8.7	26.8	39.8	18.6	6.1
성별	남성	(720)	10.3	31.1	39.2	14.2	5.3
	여성	(480)	7.5	33.3	38.8	14.0	6.5
연령별	20대 이하	(217)	5.1	33.6	41.0	14.7	5.5
	30대	(194)	4.1	28.9	44.3	19.1	3.6
	40대	(226)	8.0	34.5	35.8	13.7	8.0
	50대	(255)	8.2	29.8	40.0	15.7	6.3
	60대 이상	(308)	16.9	32.8	35.7	9.4	5.2
지역별	서울	(140)	5.7	30.7	46.4	15.7	1.4
	경기/인천	(245)	5.3	37.6	44.9	11.0	1.2
	부산/울산/경남	(208)	11.1	23.6	44.7	15.4	5.3
	대구/경북	(141)	18.4	25.5	30.5	19.1	6.4
	광주/전라	(170)	2.9	34.1	37.1	18.2	7.6
	대전/충청/세종	(205)	6.3	39.5	37.1	6.3	10.7
	강원/제주	(91)	24.2	27.5	19.8	18.7	9.9
지역크기	대도시	(524)	9.2	32.3	40.6	14.9	3.1
	중·소도시	(639)	9.7	31.0	37.7	13.5	8.1
	읍/면	(37)	-	45.9	37.8	13.5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18.0	50.0	8.0	6.0
	자영업자	(185)	13.5	40.0	33.0	9.2	4.3
	판매/서비스직	(194)	2.6	29.4	47.9	14.9	5.2
	기능/숙련공	(127)	5.5	26.8	49.6	15.0	3.1
	일반 노무직	(41)	19.5	29.3	36.6	9.8	4.9
	사무/기술직	(283)	8.5	31.4	34.6	18.0	7.4
	경영/관리직	(19)	21.1	36.8	42.1	-	-
	전문/자유직	(7)	14.3	14.3	14.3	42.9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9.5	30.8	36.1	16.0	7.7
	학생	(73)	2.7	37.0	39.7	12.3	8.2
	무직/휴직/은퇴	(52)	17.3	42.3	26.9	11.5	1.9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5.3	40.7	32.2	11.9	-
	고등학교	(440)	12.3	27.3	44.1	10.0	6.4
	전문대	(266)	4.1	36.5	36.1	17.7	5.6
	4년제 대학교	(427)	8.0	33.0	36.3	16.6	6.1
	대학원 이상	(8)	25.0	25.0	50.0	-	-
생활수준별	상	(73)	11.0	27.4	38.4	21.9	1.4
	중	(544)	7.4	36.6	36.9	13.6	5.5
	하	(583)	10.6	28.3	41.0	13.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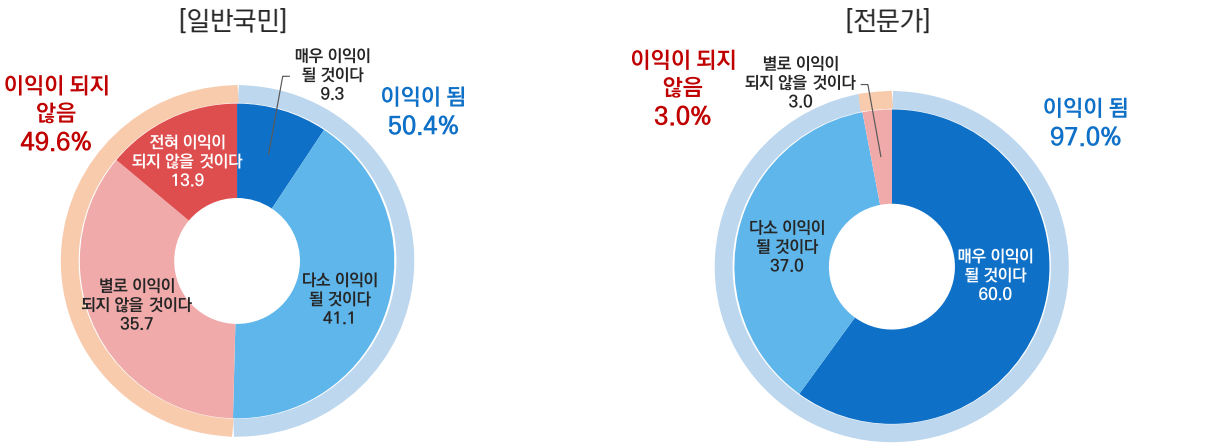
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한반도 통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됨'은 일반국민 50.4%, 전문가 9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됨'은 50.4%로 '이익이 되지 않음'(49.6%)보다 0.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이익이 됨'은 15.4%p(2023년 65.8%) 감소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음'은 15.3%p(2023년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이익이 됨'은 97.0%로 '이익이 되지 않음'(3.0%)보다 9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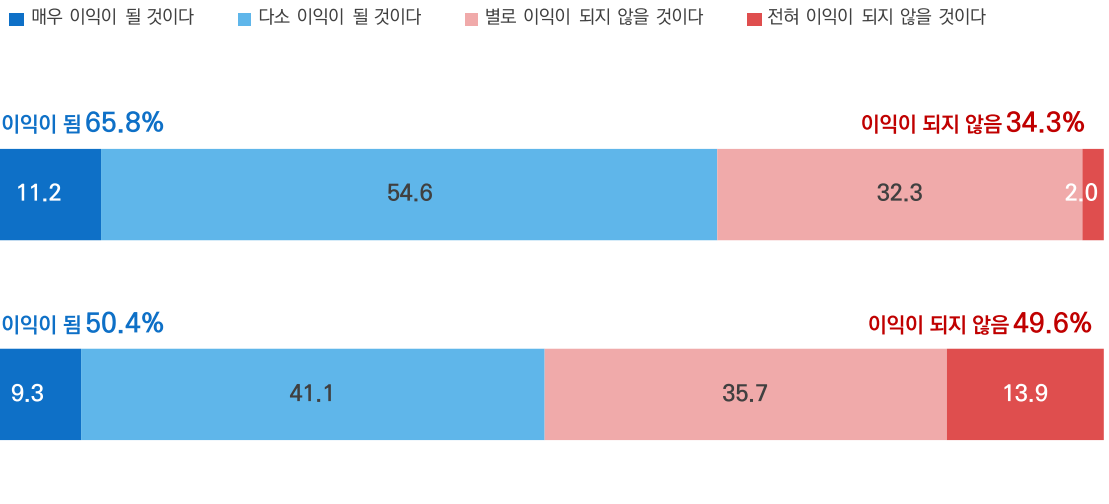
|그림 3-222|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단위 : %)



|그림 3-223|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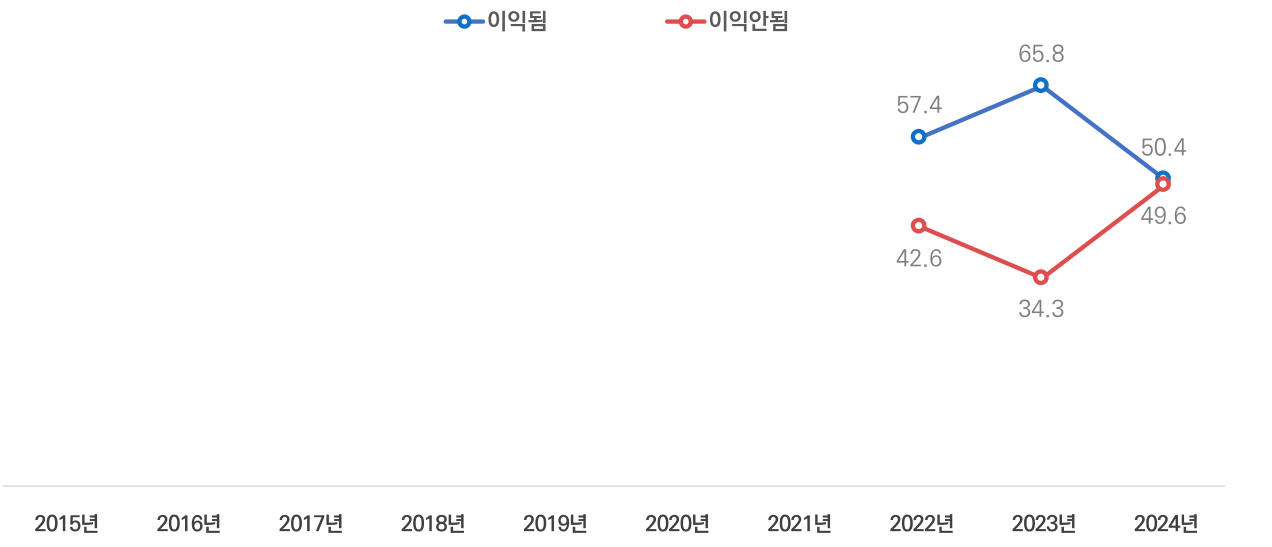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이익이 됨'은 7.0%p 감소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음'은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46|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	-	-	-	-	-	7.8	11.2	9.3	-1.9	1.5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	-	-	-	-	-	49.6	54.6	41.1	-13.5	-8.5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37.2	32.3	35.7	3.4	-1.5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5.4	2.0	13.9	11.9	8.5
무응답	-	-	-	-	-	-	-	-	-	-	-	-
이익이 됨	-	-	-	-	-	-	-	57.4	65.8	50.4	-15.4	-7.0
이익이 되지 않음	-	-	-	-	-	-	-	42.6	34.3	49.6	15.3	7.0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한반도 통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47|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미치는 이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이익이 됨	이익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13.2	40.8	33.2	12.8	54.0	46.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3	41.1	35.7	13.9	50.4	49.6
	전문가	(100)	60.0	37.0	3.0	-	97.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6	43.7	28.8	13.9	57.3	42.7
	중	(580)	6.9	43.6	40.0	9.5	50.5	49.5
	하	(231)	8.2	30.3	36.4	25.1	38.5	61.5
성별	남성	(720)	9.4	39.9	36.4	14.3	49.3	50.7
	여성	(480)	9.2	42.9	34.6	13.3	52.1	47.9
연령별	20대 이하	(217)	6.5	42.4	34.6	16.6	48.8	51.2
	30대	(194)	6.7	39.7	37.6	16.0	46.4	53.6
	40대	(226)	8.0	41.2	38.1	12.8	49.1	50.9
	50대	(255)	9.0	43.9	31.4	15.7	52.9	47.1
	60대 이상	(308)	14.3	38.6	37.0	10.1	52.9	47.1
지역별	서울	(140)	4.3	37.9	47.9	10.0	42.1	57.9
	경기/인천	(245)	12.2	53.1	29.0	5.7	65.3	34.7
	부산/울산/경남	(208)	9.6	32.2	45.2	13.0	41.8	58.2
	대구/경북	(141)	9.2	54.6	24.8	11.3	63.8	36.2
	광주/전라	(170)	1.8	22.4	50.6	25.3	24.1	75.9
	대전/충청/세종	(205)	4.9	53.7	29.3	12.2	58.5	41.5
	강원/제주	(91)	33.0	19.8	16.5	30.8	52.7	47.3
지역크기	대도시	(524)	9.0	42.6	40.8	7.6	51.5	48.5
	중·소도시	(639)	10.0	40.1	31.1	18.8	50.1	49.9
	읍/면	(37)	2.7	37.8	40.5	18.9	40.5	59.5
직업별	농/어/임업	(50)	16.0	34.0	30.0	20.0	50.0	50.0
	자영업자	(185)	10.3	48.6	33.5	7.6	58.9	41.1
	판매/서비스직	(194)	3.6	41.2	39.7	15.5	44.8	55.2
	기능/숙련공	(127)	9.4	36.2	38.6	15.7	45.7	54.3
	일반 노무직	(41)	19.5	36.6	41.5	2.4	56.1	43.9
	사무/기술직	(283)	7.8	38.9	36.0	17.3	46.6	53.4
	경영/관리직	(19)	21.1	57.9	5.3	15.8	78.9	21.1
	전문/자유직	(7)	14.3	28.6	28.6	28.6	42.9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11.8	40.8	34.9	12.4	52.7	47.3
	학생	(73)	1.4	41.1	42.5	15.1	42.5	57.5
	무직/휴직/은퇴	(52)	19.2	44.2	25.0	11.5	63.5	36.5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5.3	42.4	35.6	6.8	57.6	42.4
	고등학교	(440)	11.1	41.8	34.8	12.3	53.0	47.0
	전문대	(266)	7.9	41.0	36.8	14.3	48.9	51.1
	4년제 대학교	(427)	7.7	39.8	36.1	16.4	47.5	52.5
	대학원 이상	(8)	-	62.5	25.0	12.5	6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15.1	45.2	27.4	12.3	60.3	39.7
	중	(544)	7.9	44.1	36.0	11.9	52.0	48.0
	하	(583)	9.9	37.7	36.4	16.0	47.7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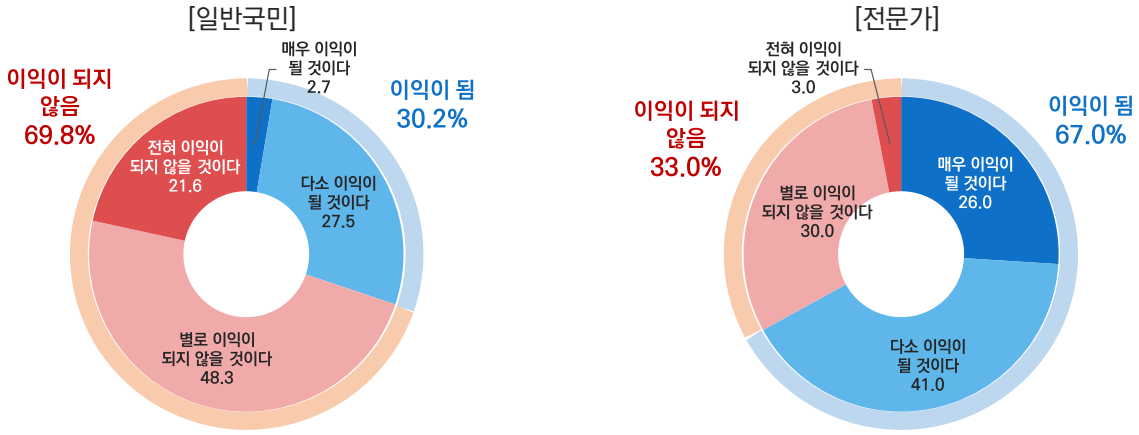
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일반국민은 '이익이 되지 않음' 69.8%, 전문가는 '이익이 됨' 6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음'이 69.8%로 '이익이 됨'(30.2%)이라는 응답보다 39.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이익이 됨'이 6.2%p(2023년 36.4%) 감소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음'은 6.2%p(2023년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이익이 됨'이 67.0%로 '이익이 되지 않음'(33.0%)보다 34.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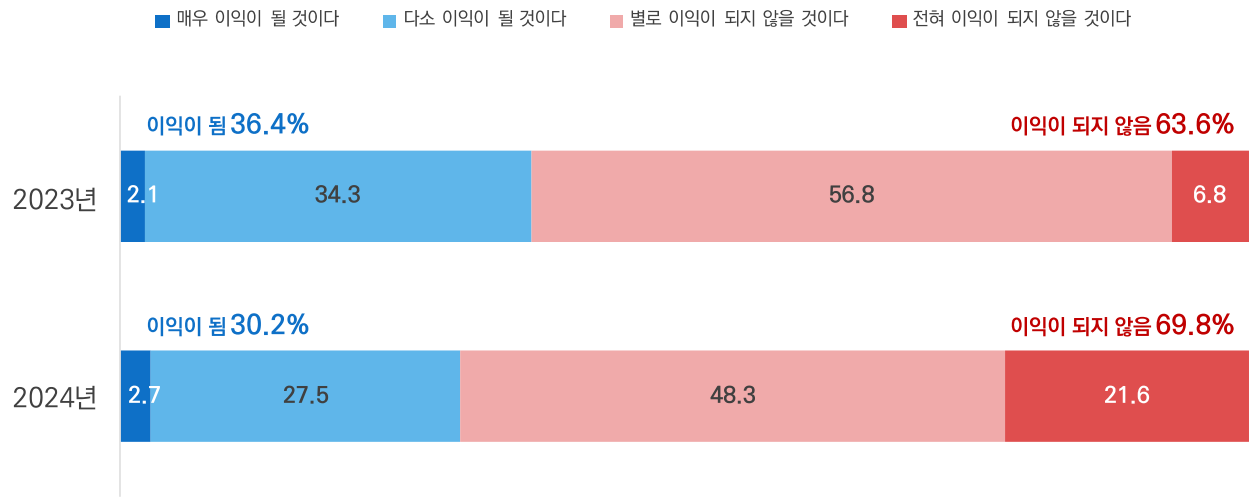
|그림 3-22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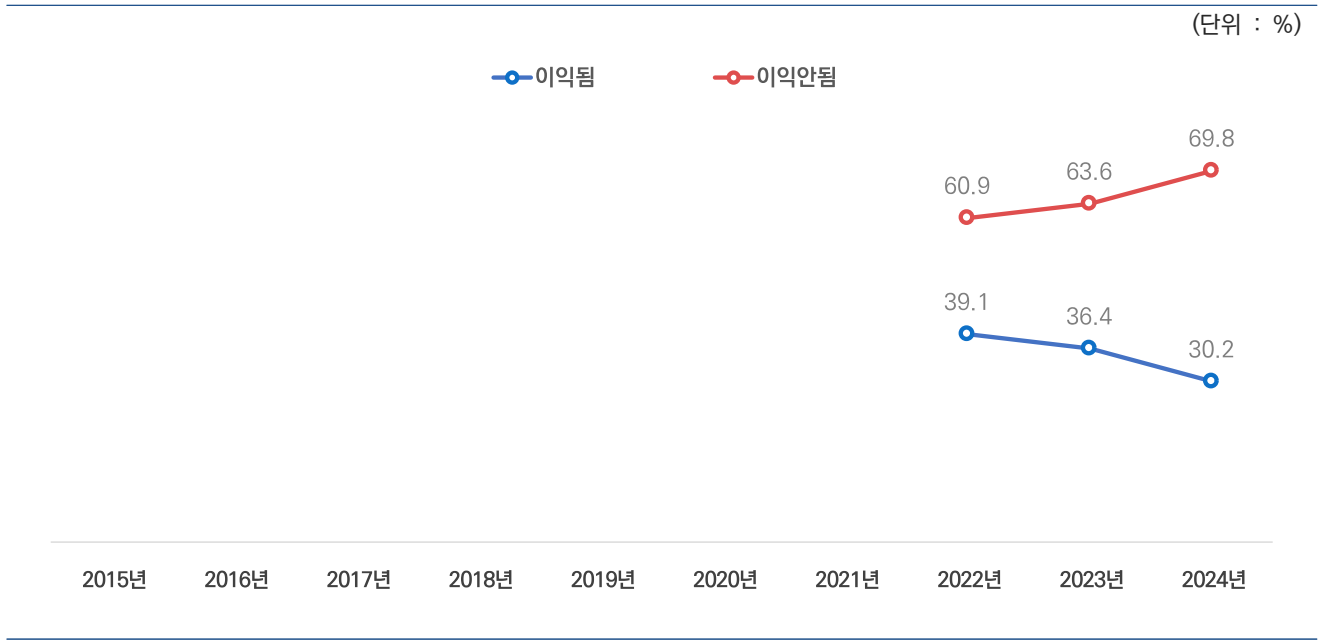
|그림 3-226|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이익이 됨'이 8.9%p 감소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음'은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7|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48|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	-	-	-	-	-	2.5	2.1	2.7	0.6	0.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	-	-	-	-	-	36.6	34.3	27.5	-6.8	-9.1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48.8	56.8	48.3	-8.5	-0.5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12.1	6.8	21.6	14.8	9.5
무응답	-	-	-	-	-	-	-	-	-	-	-	-
이익이 됨	-	-	-	-	-	-	-	39.1	36.4	30.2	-6.2	-8.9
이익이 되지 않음	-	-	-	-	-	-	-	60.9	63.6	69.8	6.2	8.9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49|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게 미치는 이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이익이 됨	이익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4.5	28.5	46.8	20.2	33.0	67.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7	27.5	48.3	21.6	30.2	69.8
	전문가	(100)	26.0	41.0	30.0	3.0	67.0	3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9	32.9	44.7	18.5	36.8	63.2
	중	(580)	2.6	25.9	54.1	17.4	28.4	71.6
	하	(231)	0.9	22.5	39.4	37.2	23.4	76.6
성별	남성	(720)	2.9	26.8	49.2	21.1	29.7	70.3
	여성	(480)	2.3	28.5	46.9	22.3	30.8	69.2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25.8	47.9	24.9	27.2	72.8
	30대	(194)	3.1	25.3	51.5	20.1	28.4	71.6
	40대	(226)	2.2	28.3	48.7	20.8	30.5	69.5
	50대	(255)	2.4	25.1	48.2	24.3	27.5	72.5
	60대 이상	(308)	3.9	31.5	46.1	18.5	35.4	64.6
지역별	서울	(140)	0.7	36.4	42.1	20.7	37.1	62.9
	경기/인천	(245)	0.4	26.1	56.7	16.7	26.5	73.5
	부산/울산/경남	(208)	2.9	15.4	64.4	17.3	18.3	81.7
	대구/경북	(141)	0.7	31.2	46.8	21.3	31.9	68.1
	광주/전라	(170)	-	20.0	50.6	29.4	20.0	80.0
	대전/충청/세종	(205)	3.4	39.0	39.5	18.0	42.4	57.6
	강원/제주	(91)	17.6	27.5	15.4	39.6	45.1	54.9
지역크기	대도시	(524)	2.1	26.0	55.5	16.4	28.1	71.9
	중·소도시	(639)	3.3	28.8	42.6	25.4	32.1	67.9
	읍/면	(37)	-	27.0	43.2	29.7	27.0	73.0
직업별	농/어/임업	(50)	-	26.0	50.0	24.0	26.0	74.0
	자영업자	(185)	3.2	37.8	46.5	12.4	41.1	58.9
	판매/서비스직	(194)	0.5	29.9	42.3	27.3	30.4	69.6
	기능/숙련공	(127)	4.7	22.0	55.9	17.3	26.8	73.2
	일반 노무직	(41)	9.8	31.7	53.7	4.9	41.5	58.5
	사무/기술직	(283)	1.8	21.9	52.3	24.0	23.7	76.3
	경영/관리직	(19)	5.3	42.1	36.8	15.8	47.4	52.6
	전문/자유직	(7)	-	14.3	28.6	57.1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3.6	25.4	47.3	23.7	29.0	71.0
	학생	(73)	1.4	19.2	49.3	30.1	20.5	79.5
	무직/휴직/은퇴	(52)	3.8	38.5	38.5	19.2	42.3	57.7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5	30.5	40.7	20.3	39.0	61.0
	고등학교	(440)	2.7	30.7	47.0	19.5	33.4	66.6
	전문대	(266)	3.0	28.9	47.4	20.7	32.0	68.0
	4년제 대학교	(427)	1.6	22.7	50.8	24.8	24.4	75.6
	대학원 이상	(8)	-	37.5	62.5	-	37.5	62.5
생활수준별	상	(73)	6.8	32.9	43.8	16.4	39.7	60.3
	중	(544)	1.8	32.0	48.7	17.5	33.8	66.2
	하	(583)	2.9	22.6	48.4	26.1	25.6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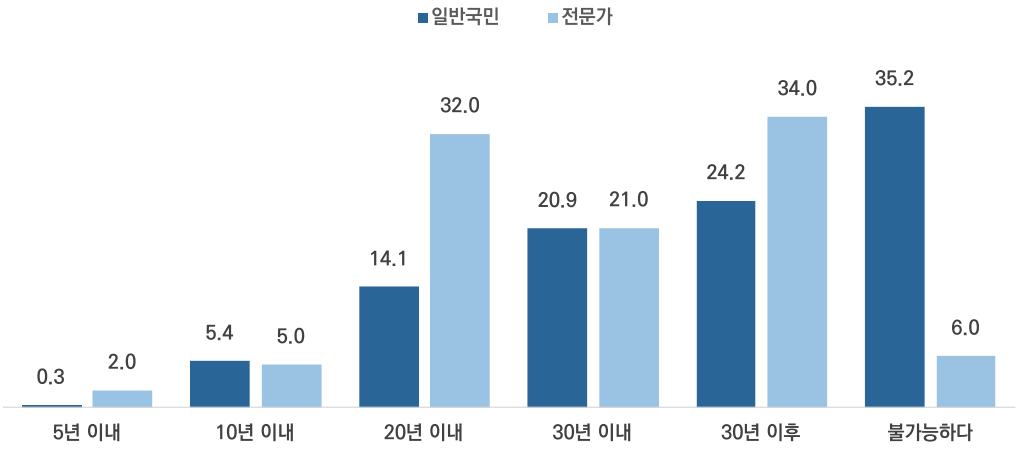
16. 한반도 통일 전망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불가능하다' 35.2%, 전문가는 '30년 이후'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3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년 이후'(2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불가능하다'는 6.9%p(2023년 28.3%) 증가했으며, '20년 이내'는 5.4%p(2023년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30년 이후'는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년 이내'(3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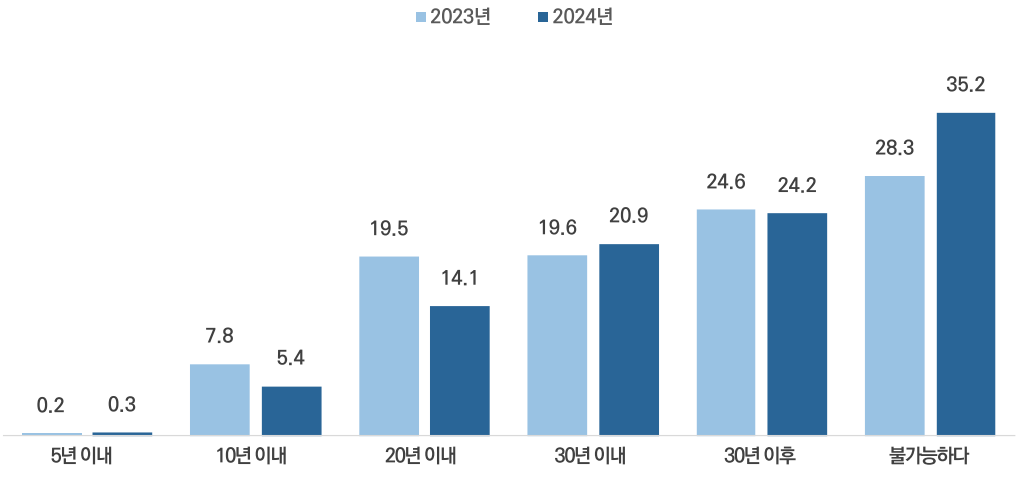
|그림 3-228| 한반도 통일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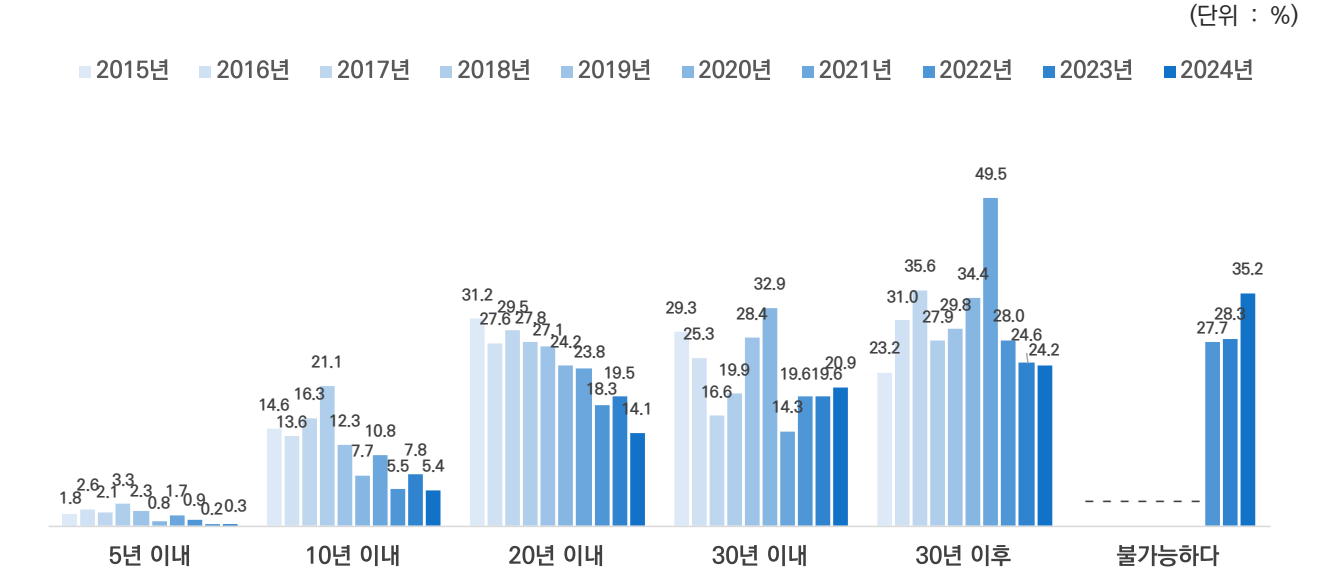
|그림 3-229|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20년 이내'는 17.1%p 감소했으며, '30년 이후'는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0|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50| 한반도 통일 전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5년 이내	1.8	2.6	2.1	3.3	2.3	0.8	1.7	0.9	0.2	0.3	0.1	-1.5
10년 이내	14.6	13.6	16.3	21.1	12.3	7.7	10.8	5.5	7.8	5.4	-2.4	-9.2
20년 이내	31.2	27.6	29.5	27.8	27.1	24.2	23.8	18.3	19.5	14.1	-5.4	-17.1
30년 이내	29.3	25.3	16.6	19.9	28.4	32.9	14.3	19.6	19.6	20.9	1.3	-8.4
30년 이후	23.2	31.0	35.6	27.9	29.8	34.4	49.5	28.0	24.6	24.2	-0.4	1.0
불가능하다	-	-	-	-	-	-	-	27.7	28.3	35.2	6.9	-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1| 한반도 통일 전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불가능하다
전체		(1,300)	0.4	5.4	15.5	20.9	24.9	32.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5.4	14.1	20.9	24.2	35.2
	전문가	(100)	2.0	5.0	32.0	21.0	34.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0.5	8.7	15.2	22.9	20.1	32.6
	중	(580)	0.2	3.8	14.5	21.6	27.6	32.4
	하	(231)	-	3.9	11.3	16.0	22.5	46.3
성별	남성	(720)	0.3	5.8	14.7	20.8	23.9	34.4
	여성	(480)	0.2	4.8	13.1	21.0	24.6	36.3
연령별	20대 이하	(217)	-	4.1	10.1	21.2	24.9	39.6
	30대	(194)	0.5	5.7	16.5	19.6	19.6	38.1
	40대	(226)	-	6.6	11.5	22.1	26.5	33.2
	50대	(255)	0.4	4.3	12.5	23.1	23.5	36.1
	60대 이상	(308)	0.3	6.2	18.5	18.8	25.3	30.8
지역별	서울	(140)	-	5.0	8.6	40.0	21.4	25.0
	경기/인천	(245)	-	2.0	17.6	26.9	23.3	30.2
	부산/울산/경남	(208)	-	3.4	18.3	17.8	27.4	33.2
	대구/경북	(141)	-	8.5	5.0	14.9	23.4	48.2
	광주/전라	(170)	-	2.9	6.5	10.0	24.7	55.9
	대전/충청/세종	(205)	0.5	9.8	17.6	21.5	28.3	22.4
	강원/제주	(91)	2.2	9.9	24.2	11.0	14.3	38.5
지역크기	대도시	(524)	-	5.5	9.7	22.1	24.2	38.4
	중·소도시	(639)	0.5	5.3	17.5	20.2	23.9	32.6
	읍/면	(37)	-	5.4	16.2	16.2	27.0	35.1
직업별	농/어/임업	(50)	-	6.0	24.0	20.0	20.0	30.0
	자영업자	(185)	-	7.0	13.0	28.1	21.1	30.8
	판매/서비스직	(194)	-	2.6	12.4	19.1	25.8	40.2
	기능/숙련공	(127)	-	5.5	11.8	22.0	22.8	37.8
	일반 노무직	(41)	-	2.4	22.0	14.6	43.9	17.1
	사무/기술직	(283)	0.4	5.3	14.8	18.0	20.5	41.0
	경영/관리직	(19)	5.3	-	31.6	31.6	21.1	10.5
	전문/자유직	(7)	-	14.3	-	14.3	14.3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169)	0.6	7.7	13.0	22.5	23.7	32.5
	학생	(73)	-	5.5	6.8	17.8	31.5	38.4
	무직/휴직/은퇴	(52)	-	5.8	19.2	17.3	34.6	23.1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5.1	18.6	20.3	35.6	20.3
	고등학교	(440)	0.5	6.4	16.4	23.4	22.3	31.1
	전문대	(266)	-	3.0	11.7	22.2	26.7	36.5
	4년제 대학교	(427)	0.2	6.1	12.9	17.1	23.0	40.7
	대학원 이상	(8)	-	-	-	50.0	25.0	25.0
생활수준별	상	(73)	-	2.7	15.1	28.8	20.5	32.9
	중	(544)	0.4	6.1	12.5	23.0	26.1	32.0
	하	(583)	0.2	5.1	15.4	18.0	22.8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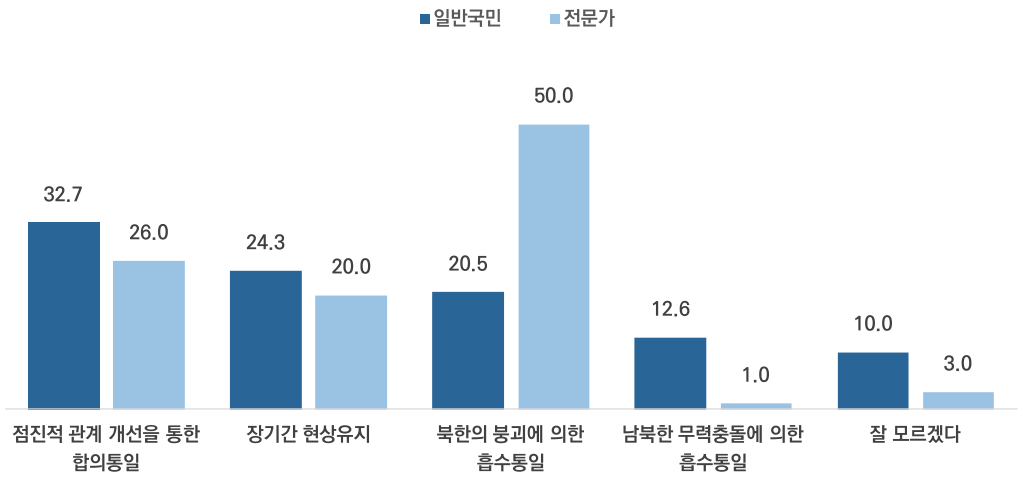
17. 한반도 통일 방식

한반도 통일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32.7%, 전문가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방식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은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간 현상유지'(2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은 5.7%p(2023년 38.4%) 감소했으며 '장기간 현상 유지'는 3.5%p(2023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2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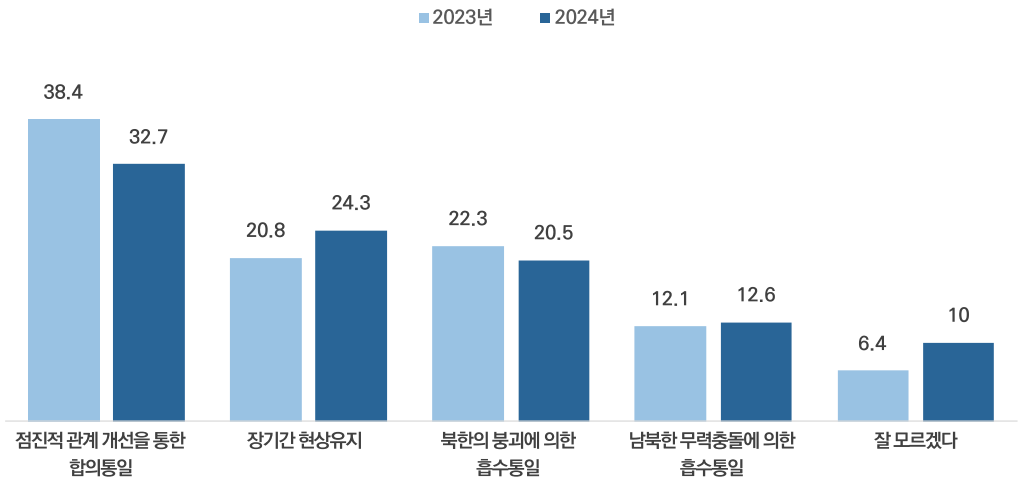
|그림 3-231| 한반도 통일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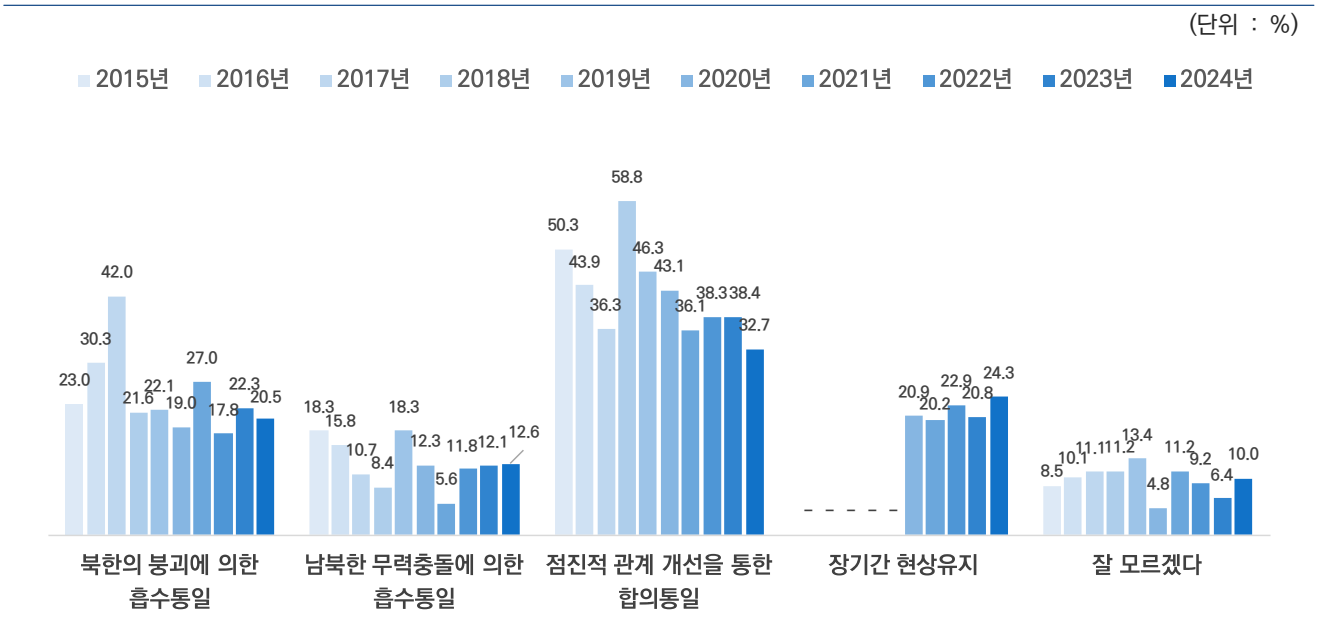
|그림 3-232|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합 합의통일'은 1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3|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52| 한반도 통일 방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3.0	30.3	42.0	21.6	22.1	19.0	27.0	17.8	22.3	20.5	-1.8	-2.5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18.3	15.8	10.7	8.4	18.3	12.3	5.6	11.8	12.1	12.6	0.5	-5.7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50.3	43.9	36.3	58.8	46.3	43.1	36.1	38.3	38.4	32.7	-5.7	-17.6
장기간 현상유지	-	-	-	-	-	20.9	20.2	22.9	20.8	24.3	3.5	-
잘 모르겠다	8.5	10.1	11.1	11.2	13.4	4.8	11.2	9.2	6.4	10.0	3.6	1.5

한반도 통일 방식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3| 한반도 통일 방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32.2	23.9	22.8	11.7	9.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7	24.3	20.5	12.6	10.0
	전문가	(100)	26.0	20.0	50.0	1.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2.1	20.6	23.7	15.2	8.5
	중	(580)	34.7	25.0	20.5	12.4	7.4
	하	(231)	28.6	28.6	15.2	8.7	19.0
성별	남성	(720)	33.3	22.8	21.4	12.8	9.7
	여성	(480)	31.7	26.5	19.2	12.3	10.4
연령별	20대 이하	(217)	36.4	22.1	20.3	11.5	9.7
	30대	(194)	33.5	23.2	18.6	13.9	10.8
	40대	(226)	31.0	28.3	16.4	15.0	9.3
	50대	(255)	29.8	25.9	20.4	12.5	11.4
	60대 이상	(308)	33.1	22.1	25.0	10.7	9.1
지역별	서울	(140)	26.4	12.1	35.7	20.7	5.0
	경기/인천	(245)	51.0	18.4	11.8	13.5	5.3
	부산/울산/경남	(208)	32.2	40.9	11.1	8.7	7.2
	대구/경북	(141)	21.3	29.8	24.8	11.3	12.8
	광주/전라	(170)	26.5	26.5	18.2	14.1	14.7
	대전/충청/세종	(205)	32.2	22.9	23.4	12.7	8.8
	강원/제주	(91)	24.2	11.0	33.0	5.5	26.4
지역크기	대도시	(524)	30.5	22.9	25.2	14.3	7.1
	중·소도시	(639)	34.0	24.9	17.8	11.4	11.9
	읍/면	(37)	40.5	32.4	-	8.1	18.9
직업별	농/어/임업	(50)	32.0	22.0	18.0	6.0	22.0
	자영업자	(185)	40.0	21.6	20.0	11.9	6.5
	판매/서비스직	(194)	33.0	25.3	14.9	15.5	11.3
	기능/숙련공	(127)	31.5	27.6	18.9	9.4	12.6
	일반 노무직	(41)	29.3	29.3	24.4	14.6	2.4
	사무/기술직	(283)	28.3	25.8	23.0	14.1	8.8
	경영/관리직	(19)	52.6	5.3	36.8	5.3	-
	전문/자유직	(7)	14.3	14.3	28.6	-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31.4	25.4	19.5	15.4	8.3
	학생	(73)	35.6	17.8	23.3	9.6	13.7
	무직/휴직/은퇴	(52)	30.8	25.0	25.0	7.7	11.5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7.3	27.1	16.9	11.9	6.8
	고등학교	(440)	34.3	24.5	22.5	10.2	8.4
	전문대	(266)	33.8	25.6	13.5	15.8	11.3
	4년제 대학교	(427)	30.0	23.2	22.7	12.9	11.2
	대학원 이상	(8)	12.5	-	50.0	25.0	12.5
생활수준별	상	(73)	28.8	31.5	19.2	16.4	4.1
	중	(544)	33.1	26.5	16.5	15.3	8.6
	하	(583)	32.8	21.3	24.4	9.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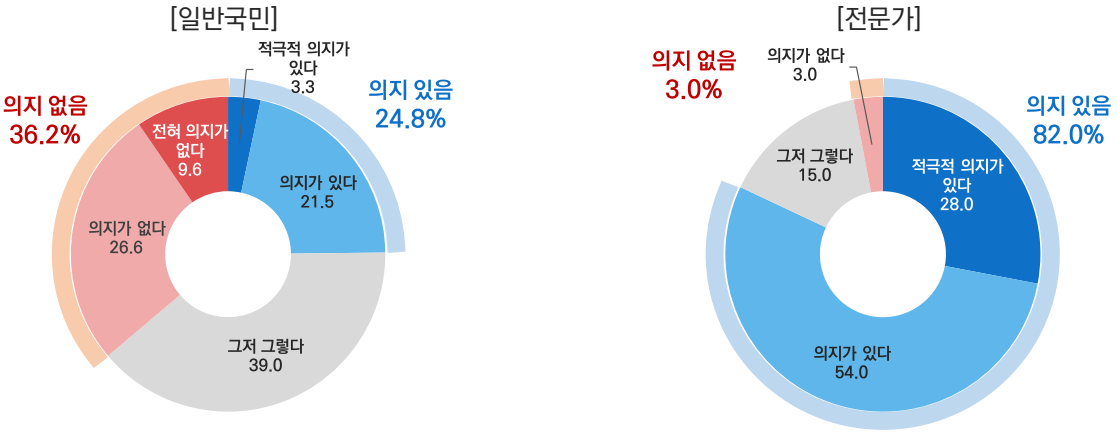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 있음'이 일반국민 24.8%, 전문가 82.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통일비용 지불에 대해 '의지 있음'이 24.8%로 '의지 없음'(36.2%)보다 11.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의지 있음'이 5.9%p(2023년 30.7%) 감소했으며, '의지 없음'은 7.9%p(2023년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의지 있음'이 82.0%로 '의지 없음'(3.0%)보다 7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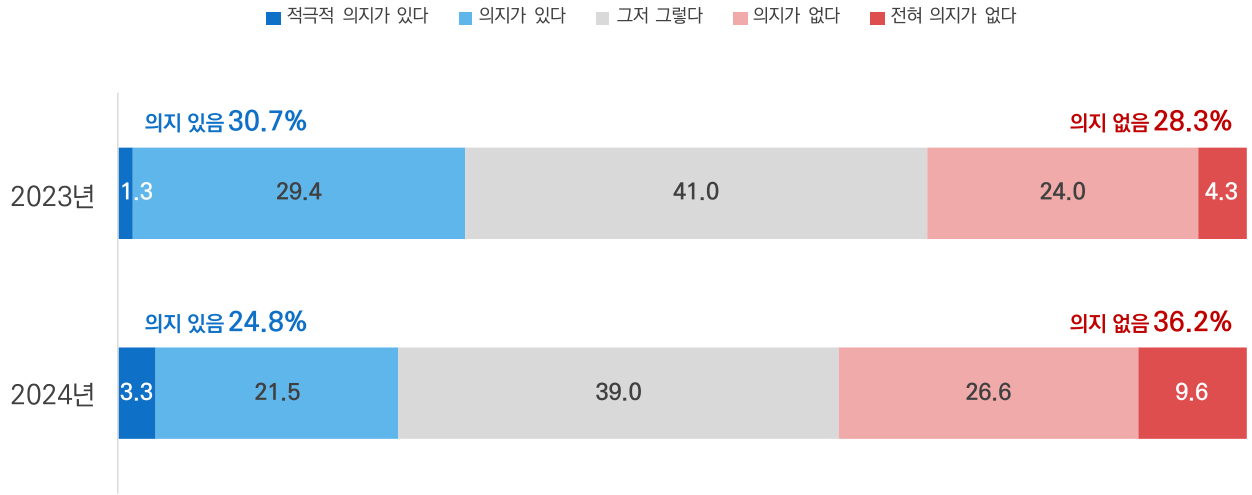
|그림 3-234|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 %)



|그림 3-235|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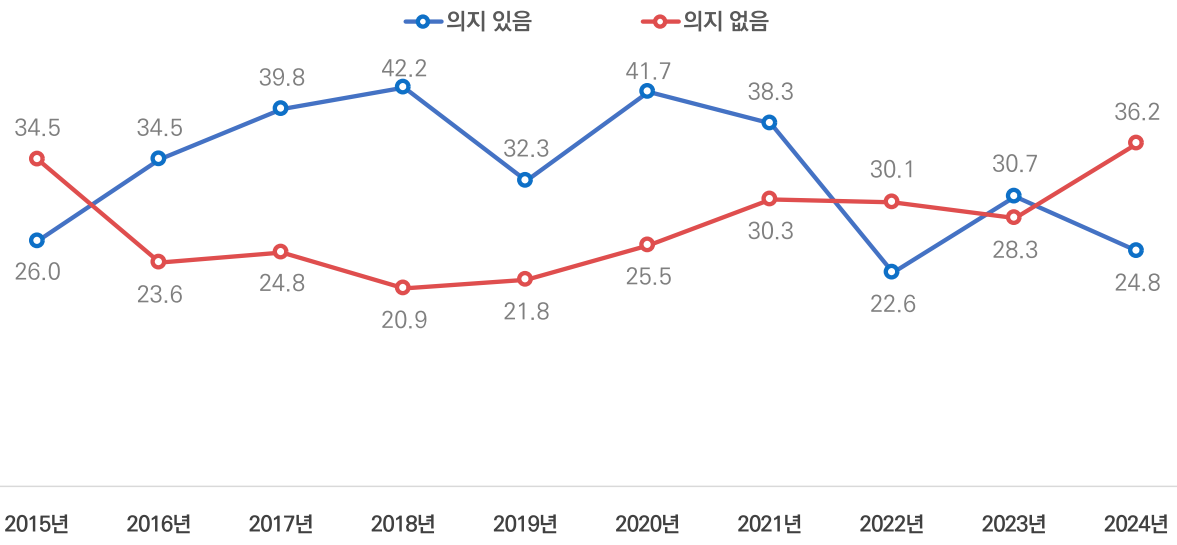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의지 없음'은 1.7%p 증가했으며, '의지 있음'은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6|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54| 통일비용 지불 의지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적극적 의지가 있다	3.1	4.7	5.7	6.9	2.7	1.3	5.7	1.2	1.3	3.3	2.0	0.2
의지가 있다	22.9	29.8	34.1	35.3	29.7	40.3	32.6	21.4	29.4	21.5	-7.9	-1.4
그저 그렇다	39.5	41.9	35.4	36.9	45.9	32.8	31.4	47.3	41.0	39.0	-2.0	-0.5
의지가 없다	26.5	18.8	18.3	14.2	16.9	21.5	13.2	22.9	24.0	26.6	2.6	0.1
전혀 의지가 없다	8.0	4.8	6.5	6.8	4.8	4.0	17.2	7.2	4.3	9.6	5.3	1.6
무응답	-	-	-	-	-	-	-	-	-	-	-	-
의지 있음	26.0	34.5	39.8	42.2	32.3	41.7	38.3	22.6	30.7	24.8	-5.9	-1.2
의지 없음	34.5	23.6	24.8	20.9	21.8	25.5	30.3	30.1	28.3	36.2	7.9	1.7

통일비용 지불에 대해 '의지 있음'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55|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저 그렇다	의지가 없다	전혀 의지가 없다	종합		
								의지 있음	보통	의지 없음
전체		(1,300)	5.2	24.0	37.2	24.8	8.8	29.2	37.2	33.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21.5	39.0	26.6	9.6	24.8	39.0	36.2
	전문가	(100)	28.0	54.0	15.0	3.0	-	82.0	15.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9	25.2	38.3	25.7	6.9	29.0	38.3	32.6
	중	(580)	4.0	20.5	40.9	26.9	7.8	24.5	40.9	34.7
	하	(231)	0.9	17.7	35.5	27.3	18.6	18.6	35.5	45.9
성별	남성	(720)	3.6	21.8	38.2	27.4	9.0	25.4	38.2	36.4
	여성	(480)	2.9	21.0	40.2	25.4	10.4	24.0	40.2	35.8
연령별	20대 이하	(217)	3.7	18.4	36.4	29.0	12.4	22.1	36.4	41.5
	30대	(194)	3.1	22.2	37.6	29.4	7.7	25.3	37.6	37.1
	40대	(226)	2.7	18.6	43.4	23.5	11.9	21.2	43.4	35.4
	50대	(255)	4.7	19.2	40.4	24.3	11.4	23.9	40.4	35.7
	60대 이상	(308)	2.6	27.3	37.3	27.3	5.5	29.9	37.3	32.8
지역별	서울	(140)	-	21.4	46.4	24.3	7.9	21.4	46.4	32.1
	경기/인천	(245)	2.9	26.5	36.3	25.3	9.0	29.4	36.3	34.3
	부산/울산/경남	(208)	1.0	18.3	49.0	30.8	1.0	19.2	49.0	31.7
	대구/경북	(141)	7.1	22.0	28.4	26.2	16.3	29.1	28.4	42.6
	광주/전라	(170)	-	15.9	41.2	31.8	11.2	15.9	41.2	42.9
	대전/충청/세종	(205)	2.4	23.9	41.5	22.9	9.3	26.3	41.5	32.2
	강원/제주	(91)	17.6	19.8	18.7	23.1	20.9	37.4	18.7	44.0
지역크기	대도시	(524)	3.1	18.9	40.1	31.3	6.7	21.9	40.1	38.0
	중·소도시	(639)	3.3	23.8	38.8	21.9	12.2	27.1	38.8	34.1
	읍/면	(37)	8.1	18.9	27.0	40.5	5.4	27.0	27.0	45.9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22.0	46.0	20.0	10.0	24.0	46.0	30.0
	자영업자	(185)	4.9	31.4	40.5	21.1	2.2	36.2	40.5	23.2
	판매/서비스직	(194)	0.5	18.0	42.8	25.3	13.4	18.6	42.8	38.7
	기능/숙련공	(127)	3.1	17.3	35.4	34.6	9.4	20.5	35.4	44.1
	일반 노무직	(41)	2.4	26.8	46.3	19.5	4.9	29.3	46.3	24.4
	사무/기술직	(283)	4.6	18.4	37.1	28.3	11.7	23.0	37.1	39.9
	경영/관리직	(19)	-	36.8	52.6	10.5	-	36.8	52.6	10.5
	전문/자유직	(7)	14.3	-	28.6	28.6	28.6	14.3	28.6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0	23.1	34.9	27.2	11.8	26.0	34.9	39.1
	학생	(73)	2.7	15.1	34.2	35.6	12.3	17.8	34.2	47.9
	무직/휴직/은퇴	(52)	5.8	23.1	42.3	25.0	3.8	28.8	42.3	28.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30.5	32.2	28.8	3.4	35.6	32.2	32.2
	고등학교	(440)	3.0	24.8	37.0	25.7	9.5	27.7	37.0	35.2
	전문대	(266)	2.3	15.4	47.4	27.4	7.5	17.7	47.4	35.0
	4년제 대학교	(427)	4.2	20.6	36.3	26.9	11.9	24.8	36.3	38.9
	대학원 이상	(8)	-	25.0	62.5	12.5	-	25.0	62.5	12.5
생활수준별	상	(73)	11.0	23.3	32.9	23.3	9.6	34.2	32.9	32.9
	중	(544)	3.7	21.1	43.4	24.4	7.4	24.8	43.4	31.8
	하	(583)	2.1	21.6	35.7	29.0	11.7	23.7	35.7	40.7

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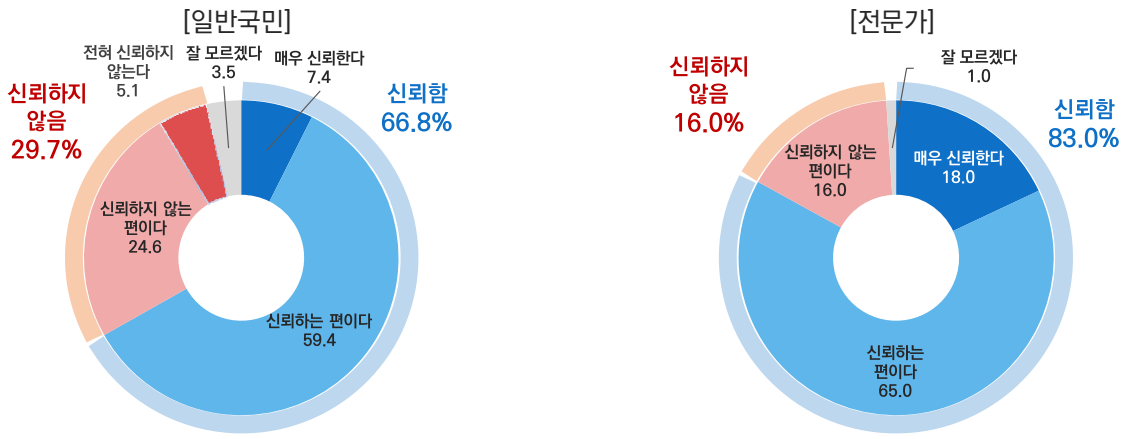
1.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은 66.8%, 전문가는 8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66.8%)고 응답한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29.7%)보다 37.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p(2023년 63.6%) 증가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5.5%p(2023년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83.0%)고 응답한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16.0%)보다 67.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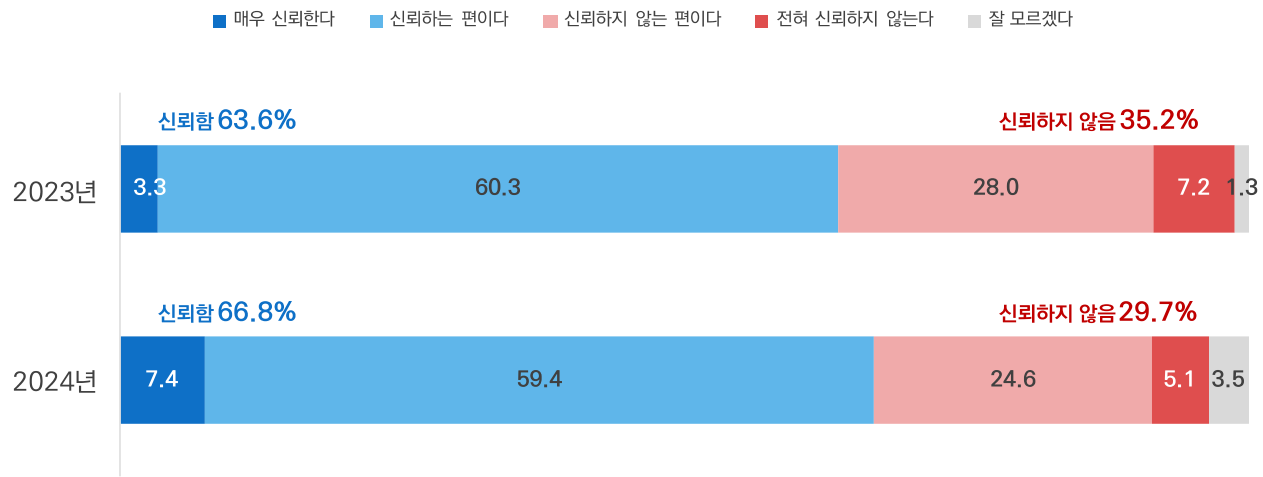
|그림 3-237|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그림 3-238|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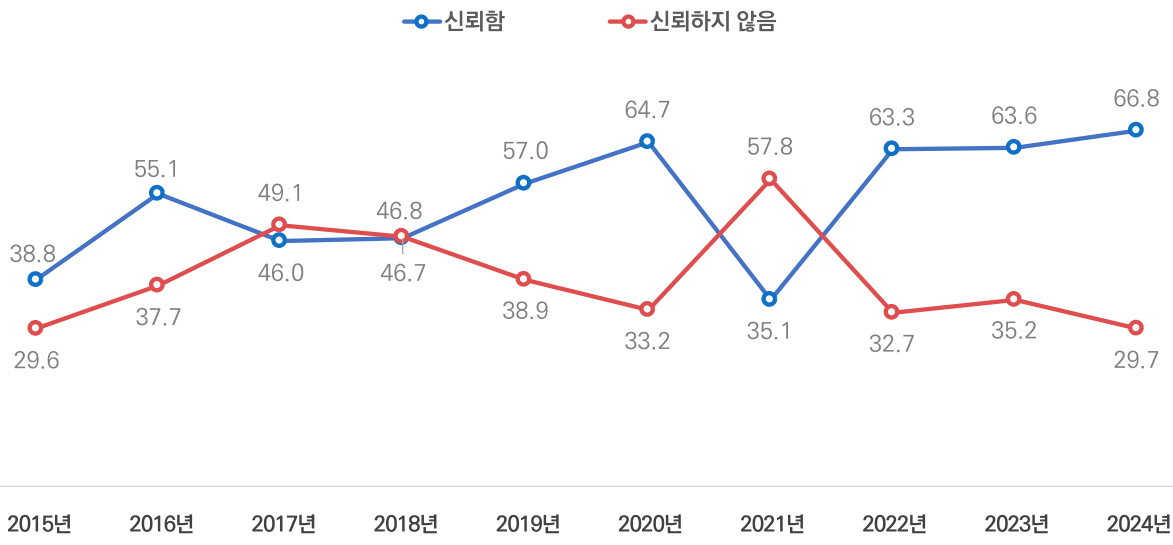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0%p 증가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9|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56|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신뢰한다	2.6	4.8	4.3	4.1	2.4	3.0	2.2	4.3	3.3	7.4	4.1	4.8
신뢰하는 편이다	36.2	50.3	41.8	42.6	54.6	61.7	32.9	59.0	60.3	59.4	-0.9	23.2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31.7	31.7	44.0	39.2	32.8	28.2	39.5	27.6	28.0	24.6	-3.4	-7.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7.3	6.0	5.1	7.6	6.1	5.0	18.3	5.1	7.2	5.1	-2.1	-22.2
잘 모르겠다	2.3	7.3	4.9	6.6	4.1	2.2	7.1	4.0	1.3	3.5	2.2	1.2
무응답	-	-	-	-	-	-	-	-	-	-	-	-
신뢰함	38.8	55.1	46.0	46.7	57.0	64.7	35.1	63.3	63.6	66.8	3.2	28.0
신뢰하지 않음	29.6	37.7	49.1	46.8	38.9	33.2	57.8	32.7	35.2	29.7	-5.5	0.1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7|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300)	8.2	59.8	23.9	4.7	3.3	68.1	28.6	3.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4	59.4	24.6	5.1	3.5	66.8	29.7	3.5
	전문가	(100)	18.0	65.0	16.0	-	1.0	83.0	16.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5	64.5	19.8	3.6	1.5	75.1	23.4	1.5
	중	(580)	5.9	58.3	28.1	5.0	2.8	64.1	33.1	2.8
	하	(231)	6.1	53.7	23.8	7.8	8.7	59.7	31.6	8.7
성별	남성	(720)	7.2	59.3	25.7	5.1	2.6	66.5	30.8	2.6
	여성	(480)	7.7	59.6	22.9	5.0	4.8	67.3	27.9	4.8
연령별	20대 이하	(217)	7.4	60.8	19.8	6.9	5.1	68.2	26.7	5.1
	30대	(194)	4.6	58.8	28.4	6.7	1.5	63.4	35.1	1.5
	40대	(226)	6.2	58.0	29.2	3.5	3.1	64.2	32.7	3.1
	50대	(255)	8.2	62.0	21.2	4.7	3.9	70.2	25.9	3.9
	60대 이상	(308)	9.4	57.8	25.0	4.2	3.6	67.2	29.2	3.6
지역별	서울	(140)	1.4	60.0	26.4	12.1	-	61.4	38.6	-
	경기/인천	(245)	5.7	72.2	19.2	2.4	0.4	78.0	21.6	0.4
	부산/울산/경남	(208)	4.8	55.8	32.7	5.8	1.0	60.6	38.5	1.0
	대구/경북	(141)	12.1	54.6	22.7	2.8	7.8	66.7	25.5	7.8
	광주/전라	(170)	14.1	53.5	24.7	4.7	2.9	67.6	29.4	2.9
	대전/충청/세종	(205)	4.9	59.5	28.8	4.4	2.4	64.4	33.2	2.4
	강원/제주	(91)	13.2	50.5	11.0	5.5	19.8	63.7	16.5	19.8
지역크기	대도시	(524)	3.8	58.2	28.1	7.1	2.9	62.0	35.1	2.9
	중·소도시	(639)	10.6	60.1	21.4	3.6	4.2	70.7	25.0	4.2
	읍/면	(37)	2.7	64.9	29.7	2.7	-	67.6	32.4	-
직업별	농/어/임업	(50)	8.0	50.0	32.0	6.0	4.0	58.0	38.0	4.0
	자영업자	(185)	5.4	61.1	26.5	4.9	2.2	66.5	31.4	2.2
	판매/서비스직	(194)	4.6	62.4	24.2	4.1	4.6	67.0	28.4	4.6
	기능/숙련공	(127)	9.4	57.5	24.4	7.9	0.8	66.9	32.3	0.8
	일반 노무직	(41)	9.8	53.7	26.8	9.8	-	63.4	36.6	-
	사무/기술직	(283)	7.1	57.2	27.2	4.9	3.5	64.3	32.2	3.5
	경영/관리직	(19)	5.3	68.4	15.8	5.3	5.3	73.7	21.1	5.3
	전문/자유직	(7)	42.9	28.6	14.3	-	14.3	71.4	14.3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0.1	63.9	18.3	3.0	4.7	74.0	21.3	4.7
	학생	(73)	9.6	63.0	15.1	8.2	4.1	72.6	23.3	4.1
	무직/휴직/은퇴	(52)	3.8	53.8	34.6	1.9	5.8	57.7	36.5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59.3	23.7	10.2	3.4	62.7	33.9	3.4
	고등학교	(440)	10.2	61.4	22.3	4.1	2.0	71.6	26.4	2.0
	전문대	(266)	4.9	59.4	24.8	6.8	4.1	64.3	31.6	4.1
	4년제 대학교	(427)	6.8	57.8	26.7	4.0	4.7	64.6	30.7	4.7
	대학원 이상	(8)	-	37.5	37.5	25.0	-	37.5	62.5	-
생활수준별	상	(73)	8.2	56.2	24.7	8.2	2.7	64.4	32.9	2.7
	중	(544)	7.5	61.9	22.2	5.0	3.3	69.5	27.2	3.3
	하	(583)	7.2	57.5	26.8	4.8	3.8	64.7	31.6	3.8

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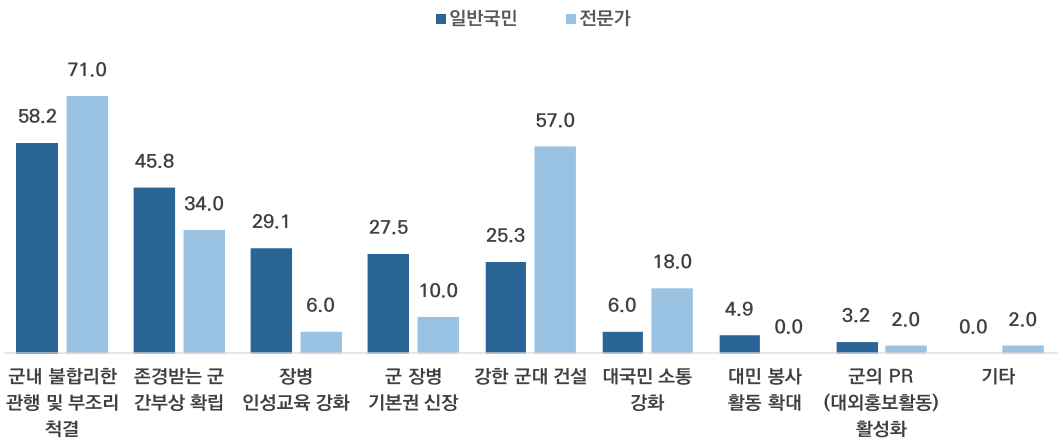
1) 1+2순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일반국민 58.2%, 전문가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5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4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우리 군에 대해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이 15.0%p(2023년 30.8%) 증가했으나, '강한 군대 건설'은 7.3%p(2023년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7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한 군대 건설'(5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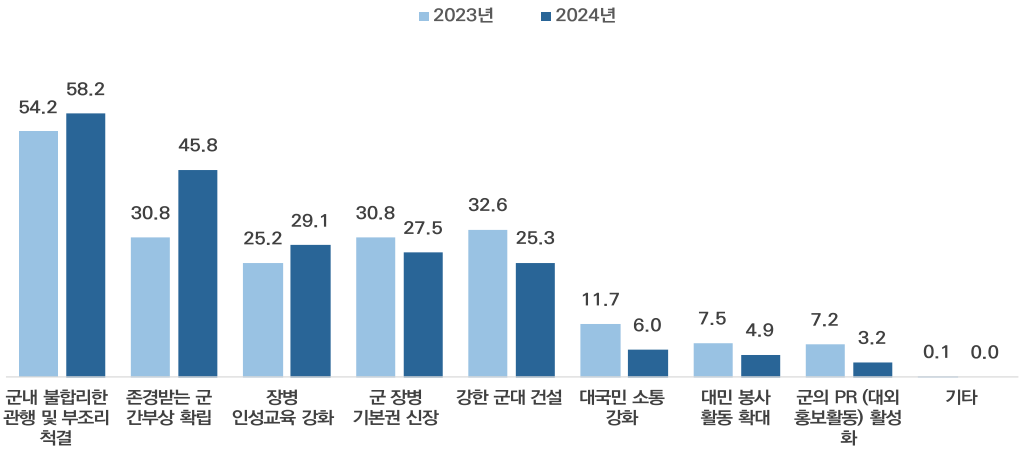
|그림 3-24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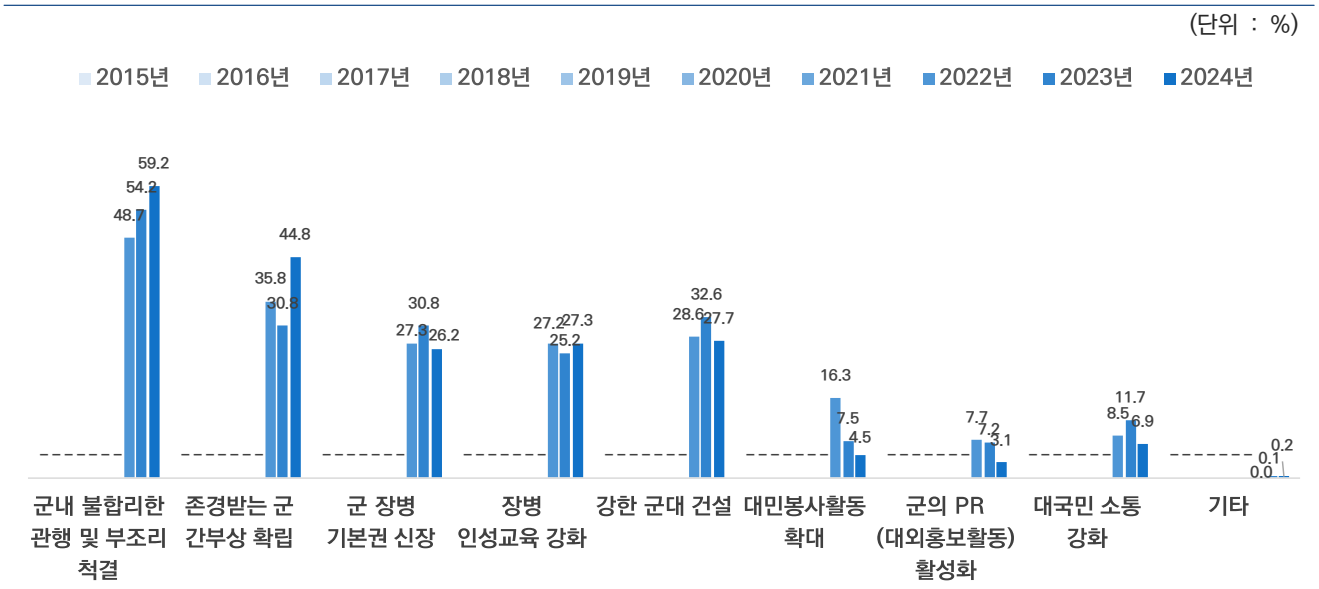
|그림 3-24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10.5%p 증가했으며, '대민봉사활동 확대'는 1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58|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	-	-	-	-	-	-	48.7	54.2	59.2	5.0	10.5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	-	-	-	-	-	-	35.8	30.8	44.8	14.0	9.0
군 장병 기본권 신장	-	-	-	-	-	-	-	27.3	30.8	26.2	-4.6	-1.1
장병 인성교육 강화	-	-	-	-	-	-	-	27.2	25.2	27.3	2.1	0.1
강한 군대 건설	-	-	-	-	-	-	-	28.6	32.6	27.7	-4.9	-0.9
대민봉사활동 확대	-	-	-	-	-	-	-	16.3	7.5	4.5	-3.0	-11.8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	-	-	-	-	-	-	7.7	7.2	3.1	-4.1	-4.6
대국민 소통 강화	-	-	-	-	-	-	-	8.5	11.7	6.9	-4.8	-1.6
기타	-	-	-	-	-	-	-	0.0	0.1	0.2	0.1	0.2

※ 2015년은 단수응답으로 비교할 수 없음
※ 2016~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9|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장병 인성교육 강화	군 장병 기본권 신장	강한 군대 건설	대국민 소통 강화	대민봉사 활동 확대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기타
전체		(1,300)	59.2	44.8	27.3	26.2	27.7	6.9	4.5	3.1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8.2	45.8	29.1	27.5	25.3	6.0	4.9	3.2	-
	전문가	(100)	71.0	34.0	6.0	10.0	57.0	18.0	-	2.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6.3	49.4	28.5	22.9	29.8	4.6	6.4	2.1	-
	중	(580)	62.1	44.8	28.8	29.1	20.0	6.9	3.4	4.7	-
	하	(231)	51.5	42.0	30.7	31.2	30.7	6.1	6.1	1.3	-
성별	남성	(720)	61.4	44.9	27.6	27.8	24.7	6.5	4.3	2.6	-
	여성	(480)	53.3	47.1	31.3	27.1	26.0	5.2	5.8	4.0	-
연령별	20대 이하	(217)	57.1	47.5	29.5	27.6	23.0	7.4	4.1	3.2	-
	30대	(194)	62.4	44.8	27.8	25.8	22.7	4.6	5.7	5.7	-
	40대	(226)	55.3	46.9	29.6	27.4	29.2	4.9	4.4	2.2	-
	50대	(255)	58.4	44.7	28.2	32.5	22.7	5.5	5.1	2.7	-
	60대 이상	(308)	58.1	45.1	29.9	24.4	27.6	7.1	5.2	2.6	-
지역별	서울	(140)	63.6	56.4	21.4	32.1	21.4	2.1	2.1	0.7	-
	경기/인천	(245)	55.9	49.0	24.1	31.4	25.7	4.9	4.9	4.1	-
	부산/울산/경남	(208)	57.2	37.0	37.0	26.0	23.1	10.6	5.3	3.8	-
	대구/경북	(141)	54.6	43.3	23.4	19.9	41.1	6.4	2.1	7.8	-
	광주/전라	(170)	55.9	60.0	24.7	32.9	15.3	5.3	5.9	-	-
	대전/충청/세종	(205)	49.8	42.9	42.4	24.9	22.9	4.4	8.8	3.9	-
	강원/제주	(91)	86.8	24.2	23.1	20.9	34.1	8.8	2.2	-	-
지역크기	대도시	(524)	54.0	47.3	28.4	28.6	24.0	5.2	6.9	5.3	-
	중·소도시	(639)	61.8	44.8	29.1	26.9	26.9	6.4	2.8	1.1	-
	읍/면	(37)	54.1	40.5	37.8	21.6	13.5	10.8	13.5	8.1	-
직업별	농/어/임업	(50)	70.0	52.0	26.0	16.0	22.0	4.0	8.0	2.0	-
	자영업자	(185)	49.2	44.3	34.6	28.6	27.0	5.9	7.0	3.2	-
	판매/서비스직	(194)	55.2	53.6	22.2	32.0	22.7	7.7	4.6	1.5	-
	기능/숙련공	(127)	60.6	40.9	29.9	32.3	20.5	3.9	9.4	2.4	-
	일반 노무직	(41)	61.0	31.7	34.1	19.5	31.7	12.2	7.3	2.4	-
	사무/기술직	(283)	62.9	43.8	28.3	27.9	24.4	4.9	2.8	4.6	-
	경영/관리직	(19)	73.7	42.1	15.8	26.3	36.8	5.3	-	-	-
	전문/자유직	(7)	57.1	28.6	57.1	42.9	14.3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
	전업주부	(169)	55.6	49.7	27.2	24.3	29.6	5.3	4.7	3.6	-
	학생	(73)	61.6	45.2	39.7	23.3	19.2	5.5	-	5.5	-
	무직/휴직/은퇴	(52)	53.8	40.4	28.8	25.0	34.6	11.5	3.8	1.9	-
	기타	(-)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1.0	52.5	18.6	18.6	28.8	13.6	1.7	5.1	-
	고등학교	(440)	57.5	46.6	30.0	28.9	23.4	5.0	6.1	2.5	-
	전문대	(266)	54.5	46.6	32.0	30.5	24.4	5.3	6.4	0.4	-
	4년제 대학교	(427)	60.4	43.6	27.6	25.3	27.4	6.6	3.3	5.4	-
	대학원 이상	(8)	75.0	37.5	37.5	37.5	12.5	-	-	-	-
생활수준별	상	(73)	60.3	38.4	26.0	31.5	31.5	1.4	6.8	4.1	-
	중	(544)	57.7	43.2	31.6	29.0	24.4	5.1	5.3	3.5	-
	하	(583)	58.3	49.1	27.1	25.6	25.2	7.4	4.3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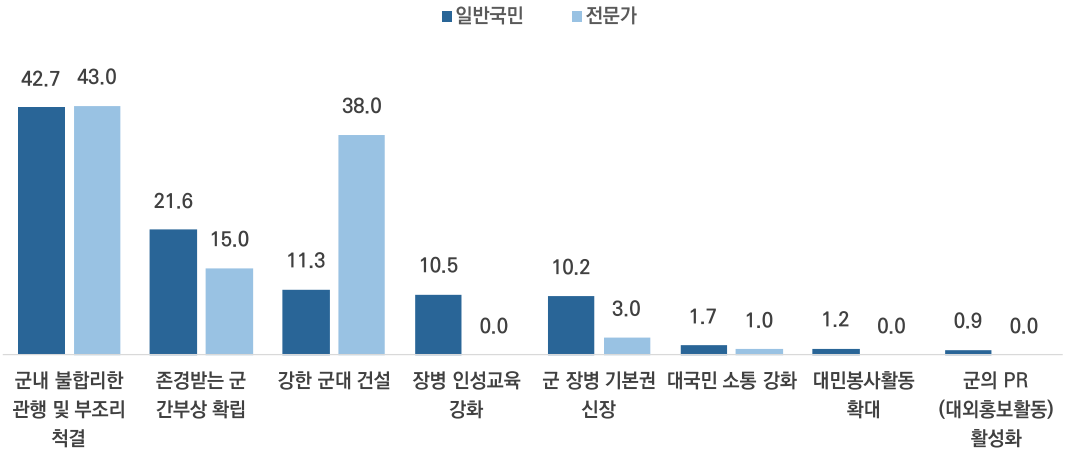
2) 1순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일반국민 42.7%, 전문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2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군 장병 기본권 신장'이 5.2%p(2023년 15.4%) 감소했으나,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이 11.7%p(2023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4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한 군대 건설'(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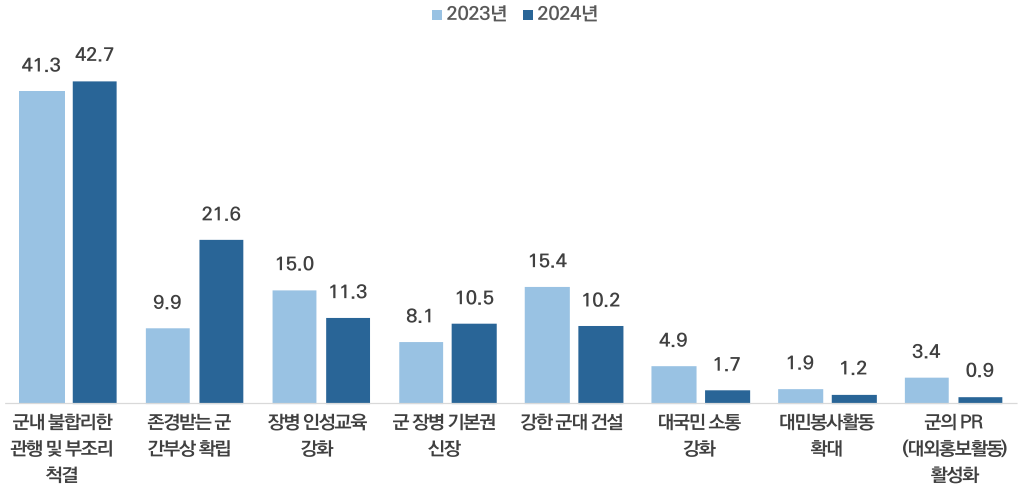
|그림 3-243|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

(단위 : %)



|그림 3-244|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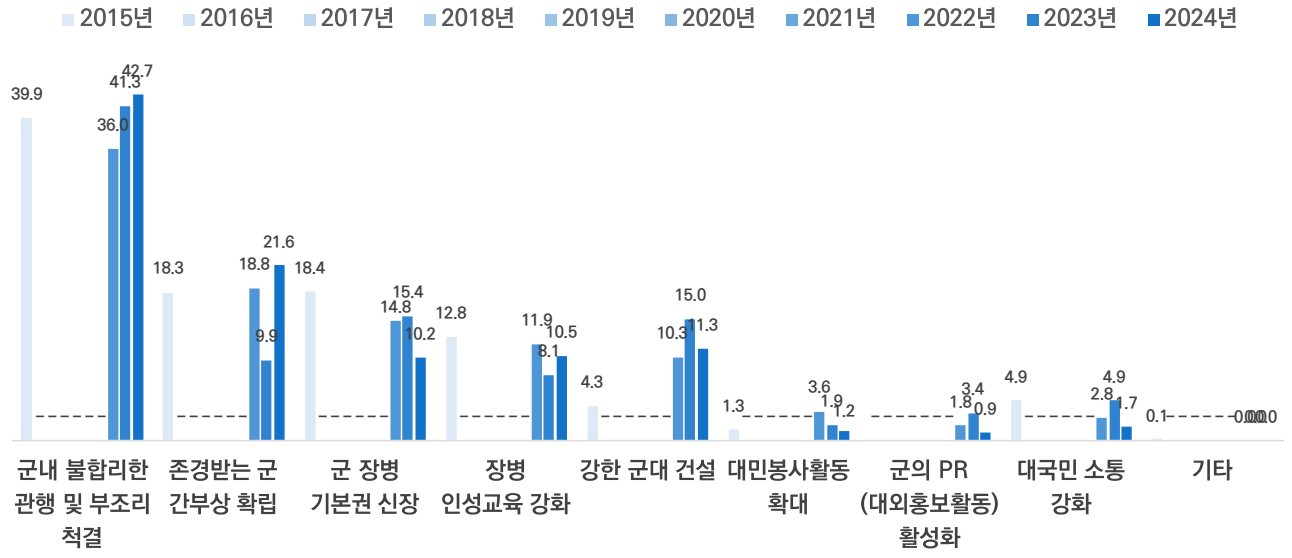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군 장병 기본권 신장'이 8.2%p 감소했으나, '강한 군대 건설'은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5|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60|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39.9	-	-	-	-	-	-	36.0	41.3	42.7	1.4	2.8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18.3	-	-	-	-	-	-	18.8	9.9	21.6	11.7	3.3
군 장병 기본권 신장	18.4	-	-	-	-	-	-	14.8	15.4	10.2	-5.2	-8.2
장병 인성교육 강화	12.8	-	-	-	-	-	-	11.9	8.1	10.5	2.4	-2.3
강한 군대 건설	4.3	-	-	-	-	-	-	10.3	15.0	11.3	-3.7	7.0
대민봉사활동 확대	1.3	-	-	-	-	-	-	3.6	1.9	1.2	-0.7	-0.1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	-	-	-	-	-	-	1.8	3.4	0.9	-2.5	-
대국민 소통 강화	4.9	-	-	-	-	-	-	2.8	4.9	1.7	-3.2	-3.2
기타	0.1	-	-	-	-	-	-	0.0	0.0	0.0	0.0	-

※ 2016~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61|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강한 군대 건설	장병 인성교육 강화	군 장병 기본권 신장	대국민 소통 강화	대민봉사 활동 확대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기타
전체		(1,300)	42.7	21.1	13.4	9.7	9.6	1.6	1.1	0.8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7	21.6	11.3	10.5	10.2	1.7	1.2	0.9	-
	전문가	(100)	43.0	15.0	38.0	-	3.0	1.0	-	-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1.4	21.1	15.2	10.3	8.5	1.5	2.1	-	-
	중	(580)	44.7	21.6	9.3	10.3	10.2	1.7	0.7	1.6	-
	하	(231)	39.8	22.5	10.0	11.3	13.0	1.7	0.9	0.9	-
성별	남성	(720)	44.6	22.1	10.8	9.9	9.9	1.7	0.6	0.6	-
	여성	(480)	39.8	20.8	12.1	11.5	10.6	1.7	2.1	1.5	-
연령별	20대 이하	(217)	41.9	23.0	10.6	11.5	7.8	1.4	1.8	1.8	-
	30대	(194)	46.9	21.1	8.8	10.3	8.8	1.5	1.5	1.0	-
	40대	(226)	39.8	24.3	12.8	8.8	12.4	0.9	0.4	0.4	-
	50대	(255)	43.1	19.2	9.8	12.2	11.0	2.0	2.4	0.4	-
	60대 이상	(308)	42.2	20.8	13.6	9.7	10.4	2.3	-	1.0	-
지역별	서울	(140)	40.7	30.7	7.9	7.9	10.7	1.4	-	0.7	-
	경기/인천	(245)	38.0	24.1	11.4	9.0	14.7	0.4	1.6	0.8	-
	부산/울산/경남	(208)	43.8	15.4	13.9	13.0	8.2	3.4	1.0	1.4	-
	대구/경북	(141)	44.0	20.6	16.3	9.9	3.5	2.8	-	2.8	-
	광주/전라	(170)	41.8	25.9	6.5	10.0	12.9	2.4	0.6	-	-
	대전/충청/세종	(205)	32.7	23.4	10.7	16.6	11.7	1.0	3.4	0.5	-
	강원/제주	(91)	78.0	4.4	13.2	1.1	3.3	-	-	-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7.0	25.6	10.3	11.6	10.5	2.1	1.5	1.3	-
	중·소도시	(639)	47.7	18.5	12.4	8.9	10.3	1.3	0.5	0.5	-
	읍/면	(37)	35.1	18.9	8.1	21.6	2.7	2.7	8.1	2.7	-
직업별	농/어/임업	(50)	60.0	20.0	8.0	2.0	6.0	-	4.0	-	-
	자영업자	(185)	33.0	20.0	11.4	16.2	14.1	3.2	1.6	0.5	-
	판매/서비스직	(194)	40.7	29.4	9.8	6.2	9.8	1.5	1.0	1.5	-
	기능/숙련공	(127)	45.7	16.5	7.9	14.2	12.6	2.4	0.8	-	-
	일반 노무직	(41)	43.9	14.6	22.0	4.9	12.2	-	-	2.4	-
	사무/기술직	(283)	46.6	20.5	9.5	9.2	10.2	1.4	1.4	1.1	-
	경영/관리직	(19)	42.1	15.8	26.3	5.3	10.5	-	-	-	-
	전문/자유직	(7)	57.1	14.3	-	14.3	14.3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
	전업주부	(169)	41.4	22.5	13.6	11.2	8.3	1.8	0.6	0.6	-
	학생	(73)	43.8	19.2	12.3	15.1	6.8	1.4	-	1.4	-
	무직/휴직/은퇴	(52)	38.5	26.9	17.3	9.6	3.8	-	1.9	1.9	-
	기타	(-)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9.0	33.9	11.9	1.7	6.8	1.7	1.7	3.4	-
	고등학교	(440)	42.7	20.5	10.5	11.6	10.7	1.8	1.4	0.9	-
	전문대	(266)	40.2	22.9	10.5	10.5	12.8	1.5	1.5	-	-
	4년제 대학교	(427)	44.5	19.9	12.6	10.8	8.7	1.6	0.7	1.2	-
	대학원 이상	(8)	50.0	37.5	12.5	-	-	-	-	-	-
생활수준별	상	(73)	46.6	19.2	12.3	8.2	8.2	1.4	4.1	-	-
	중	(544)	41.7	19.5	11.6	13.4	10.1	1.3	1.7	0.7	-
	하	(583)	43.1	23.8	11.0	8.1	10.5	2.1	0.3	1.2	-

3. 군복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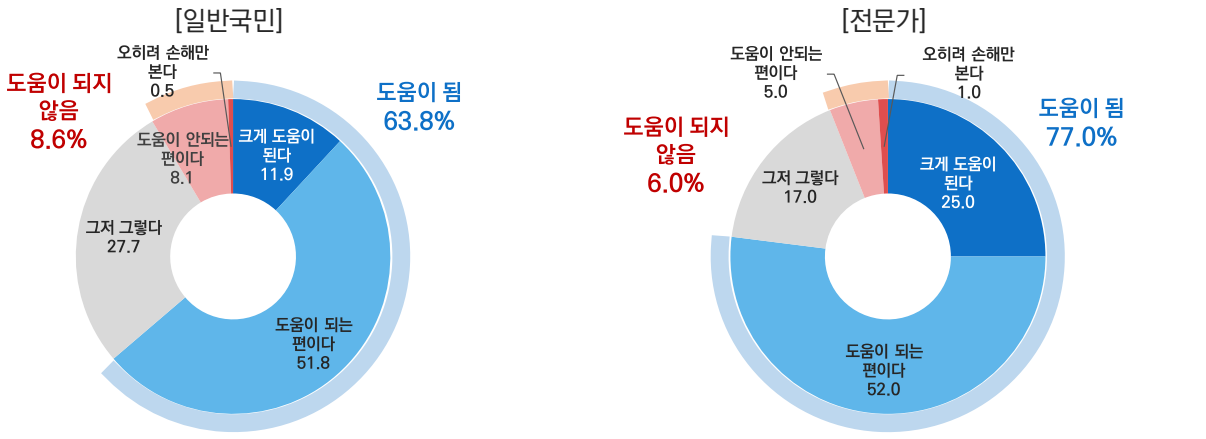
1)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63.8%, 전문가 77.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8%로 '도움이 되지 않음'(8.6%)보다 55.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64.3%) 감소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은 0.8%p(2023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도움이 됨'이 77.0%로 '도움이 되지 않음'(6.0%)보다 71.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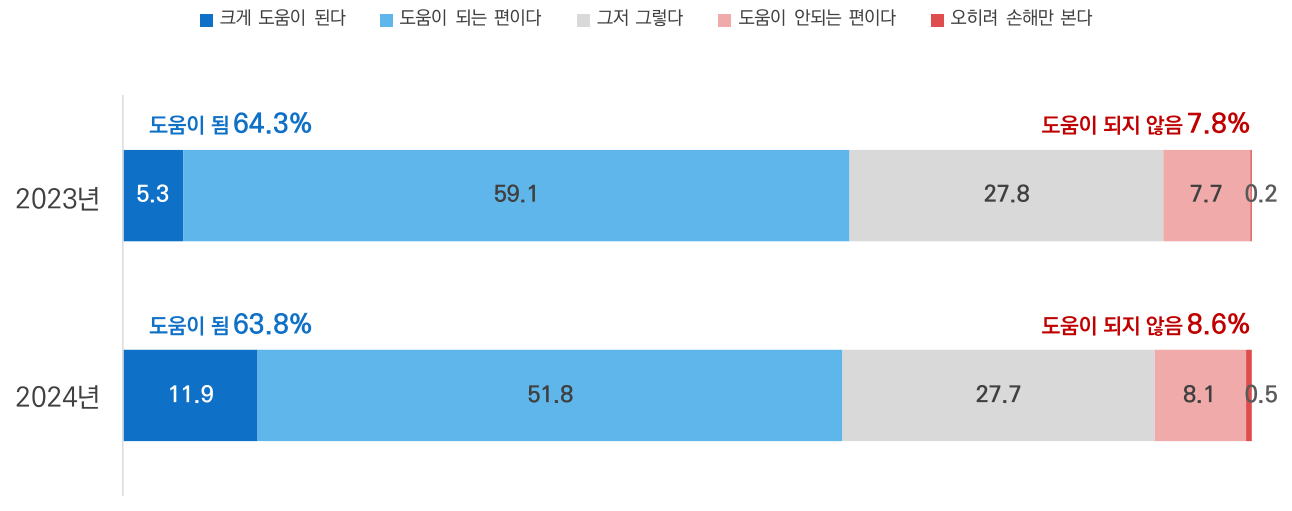
|그림 3-246|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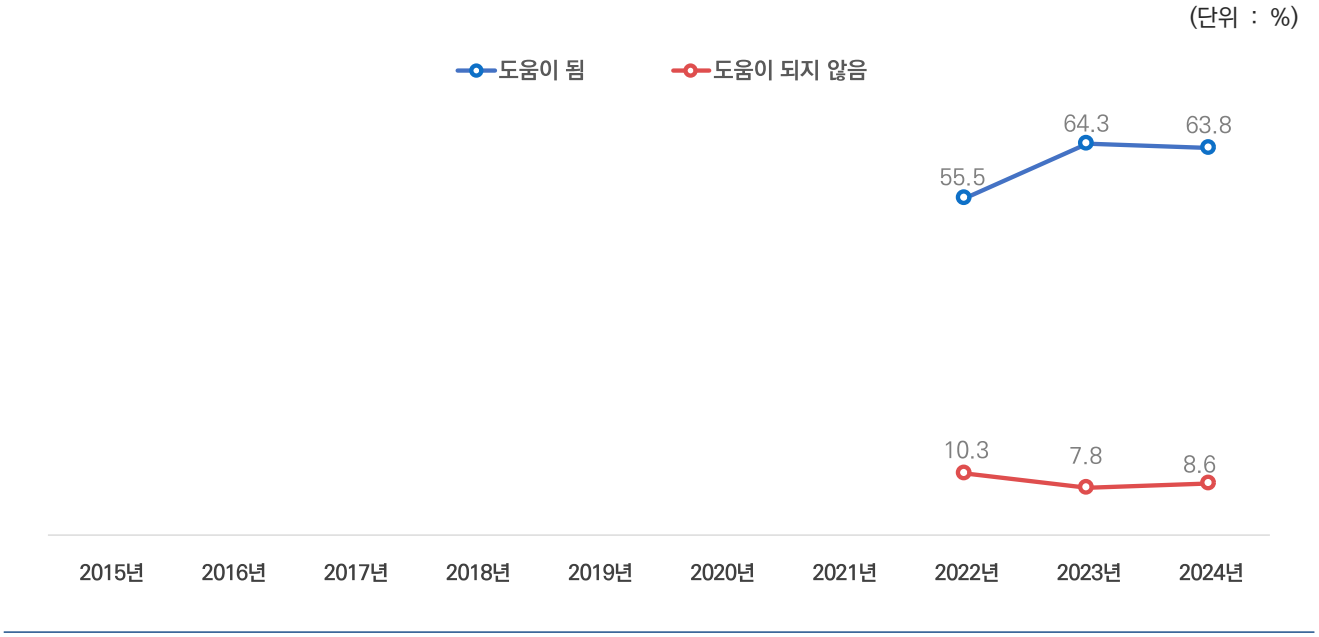
|그림 3-247|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도움이 됨'은 8.3%p 증가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은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8|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62|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크게 도움이 된다	-	-	-	-	-	-	-	6.3	5.3	11.9	6.6	5.6
도움이 되는 편이다	-	-	-	-	-	-	-	49.3	59.1	51.8	-7.3	2.5
그저 그렇다	-	-	-	-	-	-	-	34.2	27.8	27.7	-0.1	-6.5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	-	-	-	-	-	-	9.0	7.7	8.1	0.4	-0.9
오히려 손해만 본다	-	-	-	-	-	-	-	1.3	0.2	0.5	0.3	-0.8
무응답	-	-	-	-	-	-	-	-	-	-	-	-
도움이 됨	-	-	-	-	-	-	-	55.5	64.3	63.8	-0.5	8.3
도움이 되지 않음	-	-	-	-	-	-	-	10.3	7.8	8.6	0.8	-1.7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3|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크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오히려 손해만 본다	종합		
								도움이 됨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12.9	51.8	26.8	7.8	0.5	64.8	26.8	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9	51.8	27.7	8.1	0.5	63.8	27.7	8.6
	전문가	(100)	25.0	52.0	17.0	5.0	1.0	77.0	17.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4.7	54.5	24.2	6.4	0.3	69.2	24.2	6.7
	중	(580)	11.0	50.7	29.3	8.4	0.5	61.7	29.3	9.0
	하	(231)	9.5	50.2	29.4	10.0	0.9	59.7	29.4	10.8
성별	남성	(720)	12.1	52.5	26.7	8.2	0.6	64.6	26.7	8.8
	여성	(480)	11.7	50.8	29.2	7.9	0.4	62.5	29.2	8.3
연령별	20대 이하	(217)	8.8	47.0	35.0	8.8	0.5	55.8	35.0	9.2
	30대	(194)	9.8	50.5	30.4	9.3	-	60.3	30.4	9.3
	40대	(226)	9.3	51.8	29.2	9.3	0.4	61.1	29.2	9.7
	50대	(255)	13.3	53.3	26.3	5.9	1.2	66.7	26.3	7.1
	60대 이상	(308)	16.2	54.9	20.8	7.8	0.3	71.1	20.8	8.1
지역별	서울	(140)	7.1	67.9	22.9	2.1	-	75.0	22.9	2.1
	경기/인천	(245)	10.6	53.1	25.7	10.6	-	63.7	25.7	10.6
	부산/울산/경남	(208)	7.2	57.7	29.3	5.8	-	64.9	29.3	5.8
	대구/경북	(141)	14.2	47.5	23.4	12.8	2.1	61.7	23.4	14.9
	광주/전라	(170)	12.9	45.3	31.8	10.0	-	58.2	31.8	10.0
	대전/충청/세종	(205)	7.3	45.4	36.6	9.8	1.0	52.7	36.6	10.7
	강원/제주	(91)	38.5	44.0	15.4	1.1	1.1	82.4	15.4	2.2
지역크기	대도시	(524)	9.2	59.5	22.1	8.6	0.6	68.7	22.1	9.2
	중·소도시	(639)	14.7	45.9	31.1	7.8	0.5	60.6	31.1	8.3
	읍/면	(37)	2.7	45.9	45.9	5.4	-	48.6	45.9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16.0	52.0	24.0	8.0	-	68.0	24.0	8.0
	자영업자	(185)	9.7	54.1	25.9	8.6	1.6	63.8	25.9	10.3
	판매/서비스직	(194)	9.8	47.4	34.5	7.7	0.5	57.2	34.5	8.2
	기능/숙련공	(127)	15.0	48.8	29.9	6.3	-	63.8	29.9	6.3
	일반 노무직	(41)	22.0	46.3	22.0	9.8	-	68.3	22.0	9.8
	사무/기술직	(283)	8.8	54.4	26.1	10.6	-	63.3	26.1	10.6
	경영/관리직	(19)	26.3	57.9	15.8	-	-	84.2	15.8	-
	전문/자유직	(7)	14.3	57.1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2.4	56.8	25.4	5.3	-	69.2	25.4	5.3
	학생	(73)	6.8	45.2	34.2	12.3	1.4	52.1	34.2	13.7
	무직/휴직/은퇴	(52)	25.0	48.1	21.2	3.8	1.9	73.1	21.2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6.9	55.9	18.6	8.5	-	72.9	18.6	8.5
	고등학교	(440)	14.8	52.0	25.2	7.5	0.5	66.8	25.2	8.0
	전문대	(266)	10.2	51.9	32.0	5.6	0.4	62.0	32.0	6.0
	4년제 대학교	(427)	9.4	50.8	28.8	10.3	0.7	60.2	28.8	11.0
	대학원 이상	(8)	12.5	62.5	25.0	-	-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19.2	47.9	24.7	6.8	1.4	67.1	24.7	8.2
	중	(544)	10.1	53.5	28.3	7.9	0.2	63.6	28.3	8.1
	하	(583)	12.7	50.8	27.4	8.4	0.7	63.5	27.4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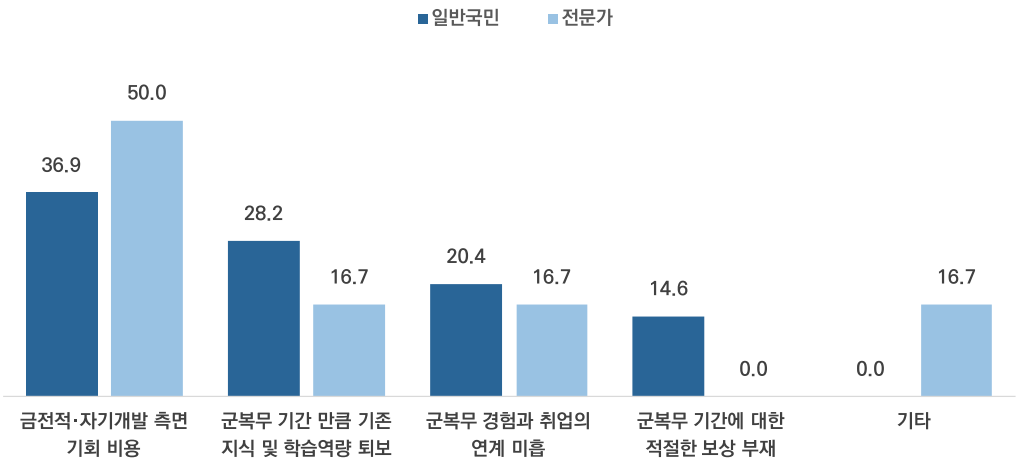
2)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로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은 일반국민 36.9%, 전문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로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2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이 21.1%p(2023년 41.5%) 감소했으며,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은 17.8%p(2023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기타'(각 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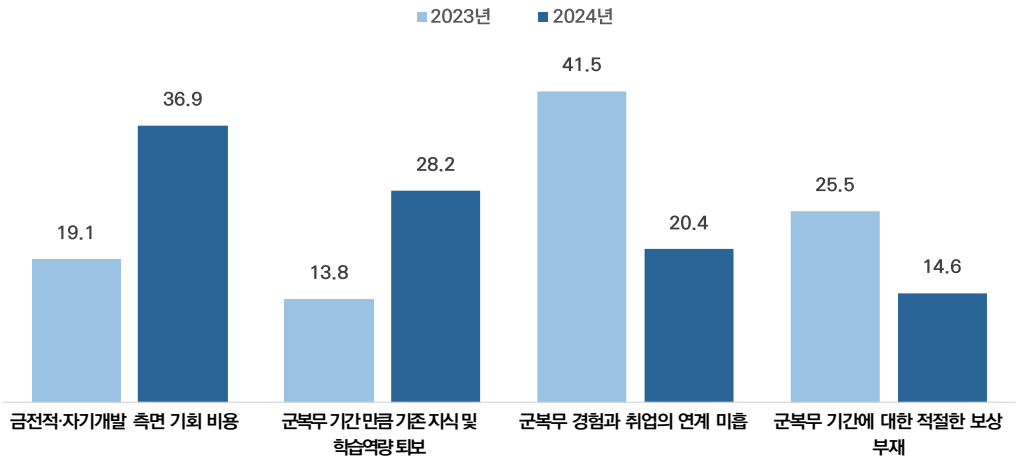
|그림 3-249|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단위 : %)



|그림 3-250|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로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4|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재	기타
전체		(109)	37.6	27.5	20.2	13.8	0.9
대상별	일반국민	(103)	36.9	28.2	20.4	14.6	-
	전문가	(6)	50.0	16.7	16.7	-	1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26)	30.8	38.5	7.7	23.1	-
	중	(52)	40.4	23.1	28.8	7.7	-
	하	(25)	36.0	28.0	16.0	20.0	-
성별	남성	(63)	36.5	31.7	19.0	12.7	-
	여성	(40)	37.5	22.5	22.5	17.5	-
연령별	20대 이하	(20)	40.0	20.0	30.0	10.0	-
	30대	(18)	61.1	22.2	5.6	11.1	-
	40대	(22)	22.7	31.8	22.7	22.7	-
	50대	(18)	27.8	27.8	27.8	16.7	-
	60대 이상	(25)	36.0	36.0	16.0	12.0	-
지역별	서울	(3)	100.0	-	-	-	-
	경기/인천	(26)	42.3	23.1	11.5	23.1	-
	부산/울산/경남	(12)	58.3	8.3	25.0	8.3	-
	대구/경북	(21)	14.3	23.8	42.9	19.0	-
	광주/전라	(17)	41.2	41.2	5.9	11.8	-
	대전/충청/세종	(22)	31.8	36.4	22.7	9.1	-
	강원/제주	(2)	-	100.0	-	-	-
지역크기	대도시	(48)	45.8	12.5	22.9	18.8	-
	중·소도시	(53)	28.3	43.4	17.0	11.3	-
	읍/면	(2)	50.0	-	50.0	-	-
직업별	농/어/임업	(4)	50.0	-	50.0	-	-
	자영업자	(19)	36.8	26.3	21.1	15.8	-
	판매/서비스직	(16)	25.0	18.8	31.3	25.0	-
	기능/숙련공	(8)	25.0	37.5	12.5	25.0	-
	일반 노무직	(4)	50.0	50.0	-	-	-
	사무/기술직	(30)	43.3	30.0	16.7	10.0	-
	경영/관리직	(-)	-	-	-	-	-
	전문/자유직	(-)	-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9)	55.6	22.2	11.1	11.1	-
	학생	(10)	30.0	30.0	30.0	10.0	-
	무직/휴직/은퇴	(3)	-	66.7	-	33.3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	60.0	40.0	-	-	-
	고등학교	(35)	40.0	25.7	14.3	20.0	-
	전문대	(16)	43.8	12.5	25.0	18.8	-
	4년제 대학교	(47)	29.8	34.0	25.5	10.6	-
	대학원 이상	(-)	33.3	50.0	16.7	-	-
생활수준별	상	(6)	43.2	22.7	25.0	9.1	-
	중	(44)	32.1	30.2	17.0	20.8	-
	하	(53)	30.2	32.1	17.0	20.8	-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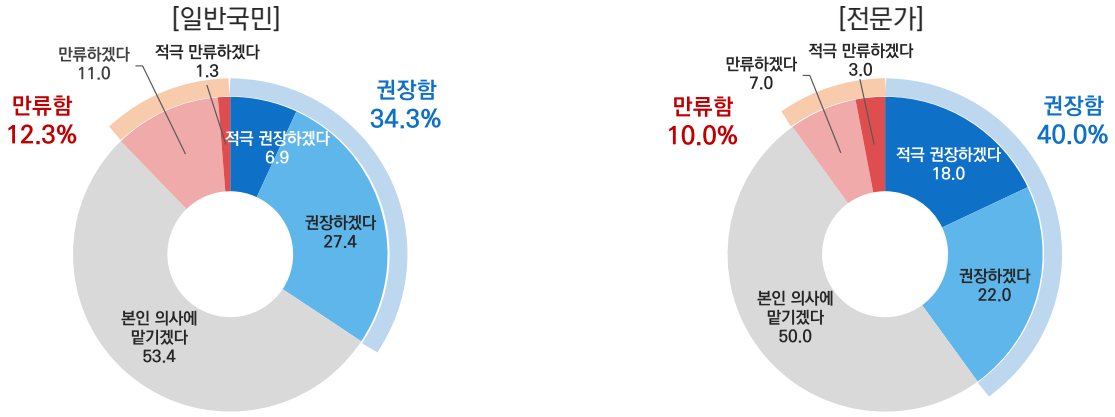
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4.3%, 전문가 4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만류함'(12.3%)보다 22.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권장함'은 0.6%p(2023년 34.9%) 감소했으며 '만류함'은 2.0%p(2023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권장함'이라는 응답이 40.0%로 '만류함'(10.0%)이라는 응답보다 3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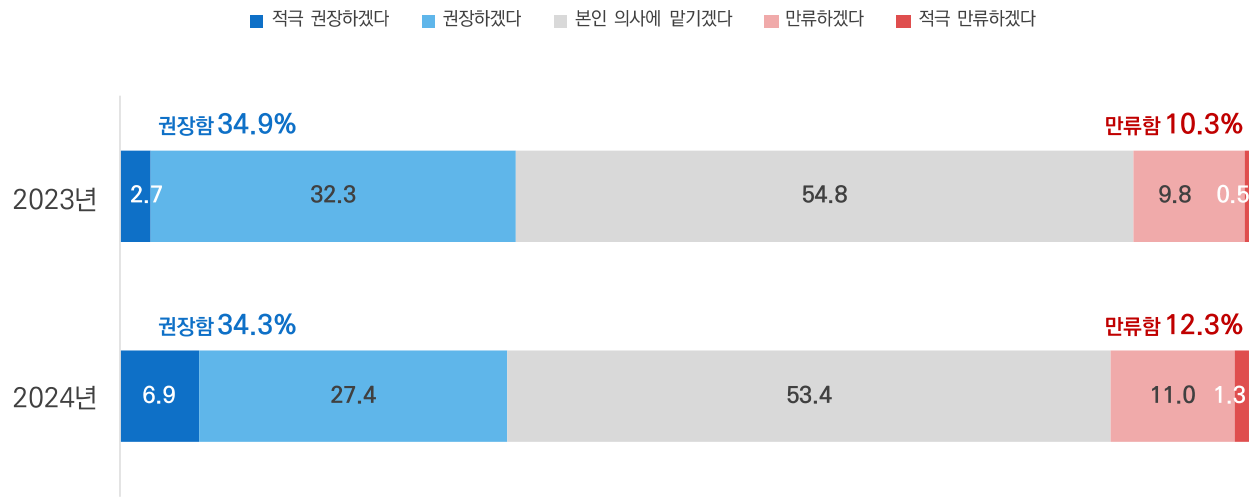
|그림 3-251|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 3-252|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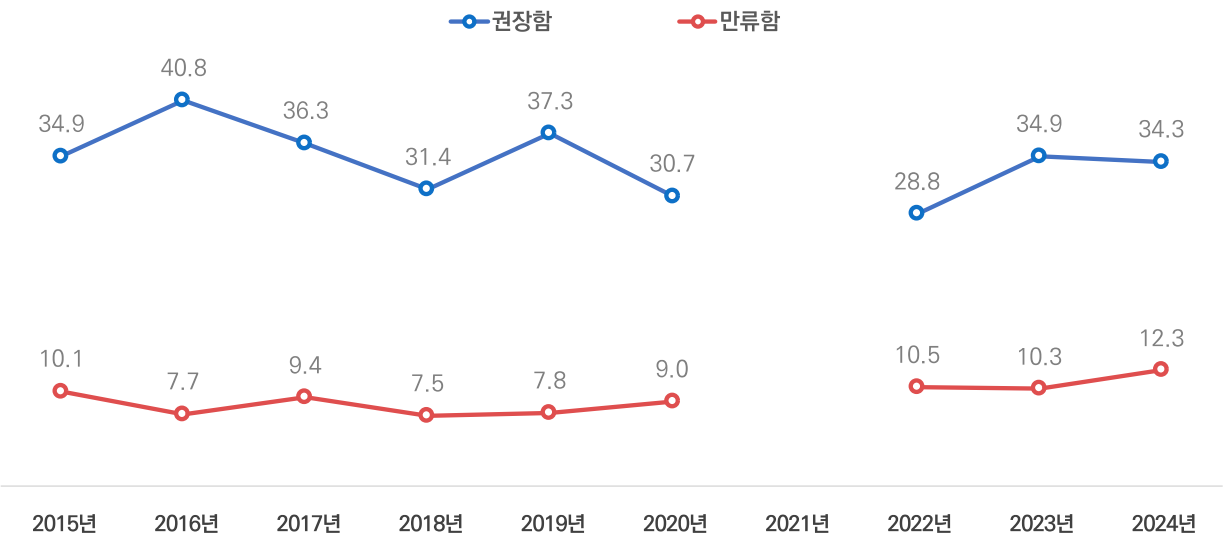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 감소했으나, '만류함'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3|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65|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적극 권장하겠다	5.9	8.9	7.3	8.7	3.8	7.4	-	2.9	2.7	6.9	4.2	1.0
권장하겠다	29.0	31.9	28.9	22.8	33.6	23.3	-	25.9	32.3	27.4	-4.9	-1.6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55.0	51.5	54.3	61.1	54.8	60.3	-	60.7	54.8	53.4	-1.4	-1.6
만류하겠다	8.6	6.5	7.5	5.6	7.0	8.3	-	9.3	9.8	11.0	1.2	2.4
적극 만류하겠다	1.5	1.2	1.9	1.9	0.8	0.7	-	1.3	0.5	1.3	0.8	-0.2
무응답	-	-	-	-	-	-	-	-	-	-	-	-
권장함	34.9	40.8	36.3	31.4	37.3	30.7	-	28.8	34.9	34.3	-0.6	-0.6
만류함	10.1	7.7	9.4	7.5	7.8	9.0	-	10.5	10.3	12.3	2.0	2.2

※ 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6|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적극 권장하겠다	권장하겠다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만류하겠다	적극 만류하겠다	종합		
								권장함	본인 의사에 맡김	만류함
전체		(1,300)	7.8	27.0	53.2	10.7	1.4	34.8	53.2	1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9	27.4	53.4	11.0	1.3	34.3	53.4	12.3
	전문가	(100)	18.0	22.0	50.0	7.0	3.0	40.0	50.0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8.0	34.4	46.8	9.8	1.0	42.4	46.8	10.8
	중	(580)	6.6	23.3	57.4	12.1	0.7	29.8	57.4	12.8
	하	(231)	6.1	26.0	54.5	10.4	3.0	32.0	54.5	13.4
성별	남성	(720)	6.7	28.3	52.6	11.1	1.3	35.0	52.6	12.4
	여성	(480)	7.3	26.0	54.6	10.8	1.3	33.3	54.6	12.1
연령별	20대 이하	(217)	7.8	22.6	51.6	15.2	2.8	30.4	51.6	18.0
	30대	(194)	4.1	30.4	54.6	10.3	0.5	34.5	54.6	10.8
	40대	(226)	3.5	25.7	55.3	14.6	0.9	29.2	55.3	15.5
	50대	(255)	8.2	26.7	55.3	9.0	0.8	34.9	55.3	9.8
	60대 이상	(308)	9.4	30.8	51.0	7.5	1.3	40.3	51.0	8.8
지역별	서울	(140)	1.4	32.9	53.6	10.7	1.4	34.3	53.6	12.1
	경기/인천	(245)	10.2	35.5	44.1	10.2	-	45.7	44.1	10.2
	부산/울산/경남	(208)	3.4	21.6	63.0	10.6	1.4	25.0	63.0	12.0
	대구/경북	(141)	8.5	22.7	51.1	13.5	4.3	31.2	51.1	17.7
	광주/전라	(170)	9.4	22.9	51.2	16.5	-	32.4	51.2	16.5
	대전/충청/세종	(205)	6.8	30.2	51.2	10.7	1.0	37.1	51.2	11.7
	강원/제주	(91)	7.7	19.8	69.2	1.1	2.2	27.5	69.2	3.3
지역크기	대도시	(524)	6.9	26.1	52.1	13.5	1.3	33.0	52.1	14.9
	중·소도시	(639)	6.7	28.5	54.6	8.9	1.3	35.2	54.6	10.2
	읍/면	(37)	10.8	27.0	51.4	10.8	-	37.8	51.4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28.0	66.0	4.0	-	30.0	66.0	4.0
	자영업자	(185)	7.6	30.3	47.6	13.0	1.6	37.8	47.6	14.6
	판매/서비스직	(194)	5.2	28.4	53.6	12.4	0.5	33.5	53.6	12.9
	기능/숙련공	(127)	5.5	21.3	59.8	11.0	2.4	26.8	59.8	13.4
	일반 노무직	(41)	17.1	31.7	41.5	7.3	2.4	48.8	41.5	9.8
	사무/기술직	(283)	5.3	26.1	54.8	12.7	1.1	31.4	54.8	13.8
	경영/관리직	(19)	10.5	47.4	42.1	-	-	57.9	42.1	-
	전문/자유직	(7)	14.3	14.3	71.4	-	-	28.6	71.4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9.5	30.8	52.1	7.1	0.6	40.2	52.1	7.7
	학생	(73)	6.8	16.4	57.5	17.8	1.4	23.3	57.5	19.2
	무직/휴직/은퇴	(52)	9.6	30.8	48.1	7.7	3.8	40.4	48.1	11.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5	15.3	66.1	10.2	-	23.7	66.1	10.2
	고등학교	(440)	9.3	29.5	50.7	9.3	1.1	38.9	50.7	10.5
	전문대	(266)	4.1	28.9	54.1	10.9	1.9	33.1	54.1	12.8
	4년제 대학교	(427)	5.9	26.5	53.4	13.1	1.2	32.3	53.4	14.3
	대학원 이상	(8)	12.5	-	87.5	-	-	12.5	87.5	-
생활수준별	상	(73)	15.1	20.5	52.1	6.8	5.5	35.6	52.1	12.3
	중	(544)	5.1	29.2	55.9	9.0	0.7	34.4	55.9	9.7
	하	(583)	7.5	26.6	51.3	13.4	1.2	34.1	51.3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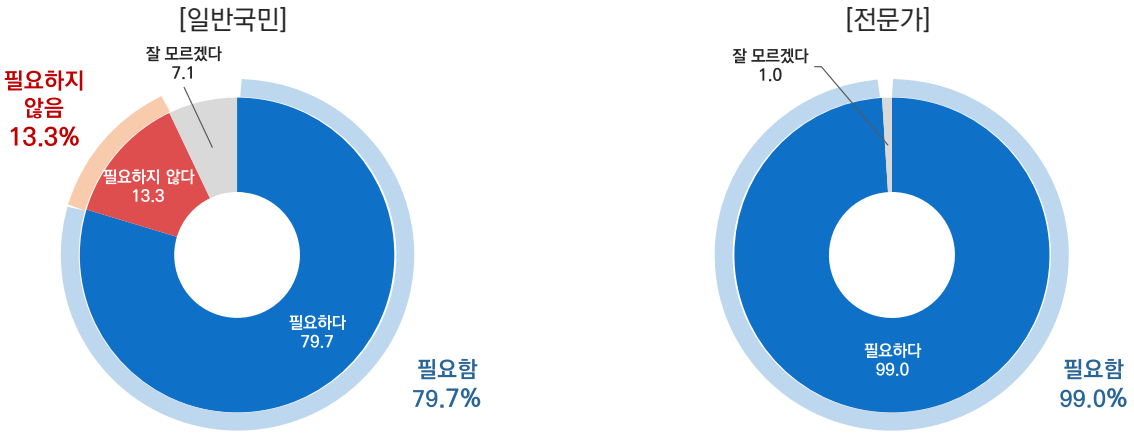
5.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6)]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일반국민 79.7%, 전문가 9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7%로 '필요하지 않음'(13.3%)보다 66.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나타남

|그림 3-254|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

(단위 : %)



6)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및 연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움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67|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81.2	12.2	6.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9.7	13.3	7.1
	전문가	(100)	99.0	-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74.3	17.5	8.2
	중	(580)	83.4	10.3	6.2
	하	(231)	79.2	13.4	7.4
성별	남성	(720)	80.1	13.2	6.7
	여성	(480)	79.0	13.3	7.7
연령별	20대 이하	(217)	78.8	13.4	7.8
	30대	(194)	79.9	13.9	6.2
	40대	(226)	78.8	13.7	7.5
	50대	(255)	77.6	14.5	7.8
	60대 이상	(308)	82.5	11.4	6.2
지역별	서울	(140)	75.0	19.3	5.7
	경기/인천	(245)	77.6	15.9	6.5
	부산/울산/경남	(208)	88.9	5.3	5.8
	대구/경북	(141)	81.6	8.5	9.9
	광주/전라	(170)	69.4	21.8	8.8
	대전/충청/세종	(205)	77.1	14.1	8.8
	강원/제주	(91)	93.4	4.4	2.2
지역크기	대도시	(524)	80.9	13.5	5.5
	중·소도시	(639)	80.9	11.1	8.0
	읍/면	(37)	40.5	45.9	13.5
직업별	농/어/임업	(50)	78.0	12.0	10.0
	자영업자	(185)	81.6	12.4	5.9
	판매/서비스직	(194)	74.7	16.5	8.8
	기능/숙련공	(127)	80.3	12.6	7.1
	일반 노무직	(41)	70.7	14.6	14.6
	사무/기술직	(283)	81.3	13.8	4.9
	경영/관리직	(19)	94.7	5.3	-
	전문/자유직	(7)	100.0	-	-
	군인/경찰/소방	(-)	-	-	-
	전업주부	(169)	79.9	12.4	7.7
	학생	(73)	80.8	11.0	8.2
	무직/휴직/은퇴	(52)	78.8	13.5	7.7
	기타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71.2	16.9	11.9
	고등학교	(440)	80.5	12.5	7.0
	전문대	(266)	76.3	14.3	9.4
	4년제 대학교	(427)	82.2	12.6	5.2
	대학원 이상	(8)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80.8	12.3	6.8
	중	(544)	76.5	15.8	7.7
	하	(583)	82.5	11.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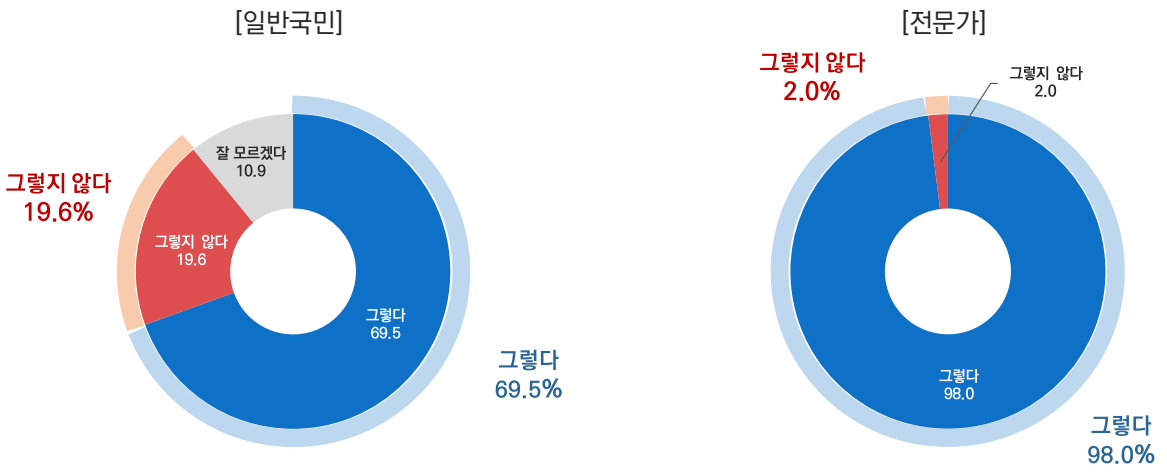
6.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7)]

군인의 특수성(제한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69.5%, 전문가 9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인의 직접적 특수성(제한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없다'(19.6%)보다 49.9%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군인의 직접적 특수성(제한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8.0%로 '없다'(2.0%)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3-255|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

(단위 : %)



7)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및 연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움

군인의 특수성(제한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8| 군인의 특수성(제한성)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71.7	18.2	1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9.5	19.6	10.9
	전문가	(100)	98.0	2.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9.6	27.0	13.4
	중	(580)	76.2	15.0	8.8
	하	(231)	69.3	18.6	12.1
성별	남성	(720)	69.9	19.3	10.8
	여성	(480)	69.0	20.0	11.0
연령별	20대 이하	(217)	68.7	17.1	14.3
	30대	(194)	72.2	17.0	10.8
	40대	(226)	70.4	19.9	9.7
	50대	(255)	71.0	19.2	9.8
	60대 이상	(308)	66.6	23.1	10.4
지역별	서울	(140)	80.7	12.9	6.4
	경기/인천	(245)	61.6	24.1	14.3
	부산/울산/경남	(208)	74.5	16.3	9.1
	대구/경북	(141)	76.6	15.6	7.8
	광주/전라	(170)	45.3	40.6	14.1
	대전/충청/세종	(205)	72.2	14.6	13.2
	강원/제주	(91)	90.1	3.3	6.6
지역크기	대도시	(524)	71.9	20.6	7.4
	중·소도시	(639)	69.2	18.5	12.4
	읍/면	(37)	40.5	24.3	35.1
직업별	농/어/임업	(50)	72.0	20.0	8.0
	자영업자	(185)	64.3	28.1	7.6
	판매/서비스직	(194)	67.0	22.7	10.3
	기능/숙련공	(127)	70.9	15.7	13.4
	일반 노무직	(41)	78.0	7.3	14.6
	사무/기술직	(283)	70.3	17.3	12.4
	경영/관리직	(19)	84.2	15.8	-
	전문/자유직	(7)	100.0	-	-
	군인/경찰/소방	(-)	-	-	-
	전업주부	(169)	71.0	18.3	10.7
	학생	(73)	64.4	19.2	16.4
	무직/휴직/은퇴	(52)	73.1	17.3	9.6
	기타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6.1	20.3	13.6
	고등학교	(440)	69.5	21.8	8.6
	전문대	(266)	67.3	19.2	13.5
	4년제 대학교	(427)	71.0	17.6	11.5
	대학원 이상	(8)	8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61.6	32.9	5.5
	중	(544)	67.6	21.1	11.2
	하	(583)	72.2	16.5	11.3

7.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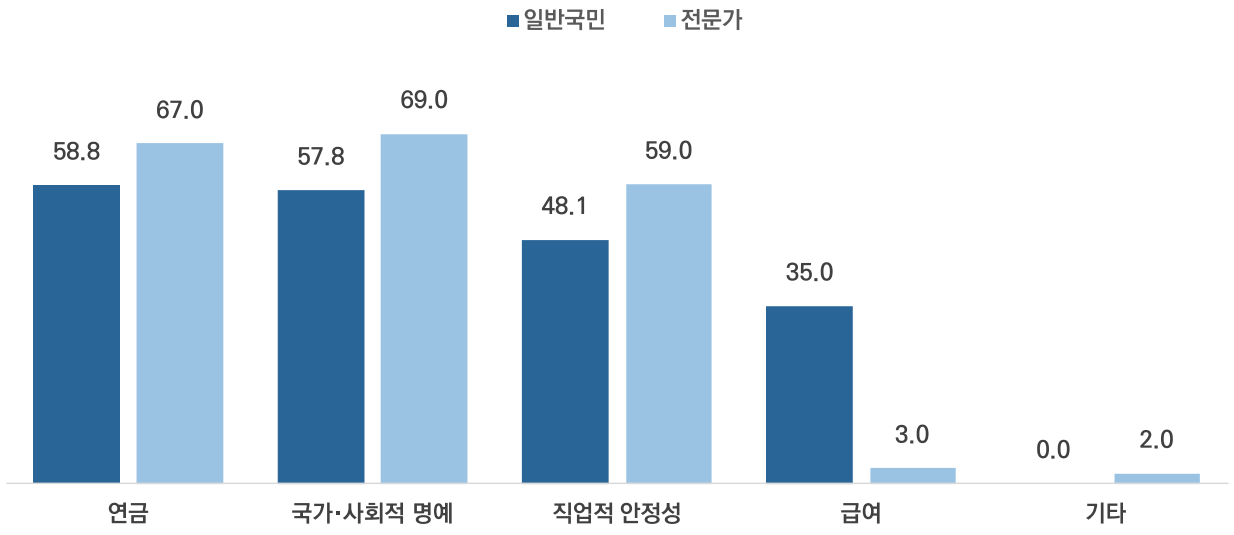
1) 1+2순위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에 대해 일반국민은 '연금' 58.8%, 전문가는 '국가·사회적 명예'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연금'이 5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사회적 명예'(5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국가·사회적 명예'이 6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6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56|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2순위)

(단위 : %)



8)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및 연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움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연금'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9|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가·사회적 명예	급여	연금	직업적 안정성	기타
전체		(1,300)	58.7	32.5	59.5	48.9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7.8	35.0	58.8	48.1	-
	전문가	(100)	69.0	3.0	67.0	59.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7.1	40.1	58.6	44.0	-
	중	(580)	58.4	33.8	58.1	49.7	-
	하	(231)	57.6	29.4	61.0	51.1	-
성별	남성	(720)	59.9	32.6	56.9	50.4	-
	여성	(480)	54.8	38.5	61.7	44.6	-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8	32.7	54.8	51.2	-
	30대	(194)	52.1	38.7	58.2	51.0	-
	40대	(226)	54.9	36.3	58.8	50.0	-
	50대	(255)	58.8	33.7	60.4	46.7	-
	60대 이상	(308)	60.7	34.4	60.7	43.8	-
지역별	서울	(140)	56.4	40.7	54.3	48.6	-
	경기/인천	(245)	58.4	44.1	55.9	41.6	-
	부산/울산/경남	(208)	43.3	26.0	65.4	65.4	-
	대구/경북	(141)	62.4	26.2	61.7	48.2	-
	광주/전라	(170)	57.1	52.9	55.9	34.1	-
	대전/충청/세종	(205)	58.0	31.7	61.5	48.8	-
	강원/제주	(91)	85.7	9.9	53.8	49.5	-
지역크기	대도시	(524)	52.3	34.4	62.4	51.0	-
	중·소도시	(639)	62.8	33.2	56.5	47.1	-
	읍/면	(37)	51.4	75.7	48.6	24.3	-
직업별	농/어/임업	(50)	52.0	22.0	68.0	56.0	-
	자영업자	(185)	61.6	33.5	58.4	46.5	-
	판매/서비스직	(194)	54.1	39.7	62.9	43.3	-
	기능/숙련공	(127)	56.7	34.6	56.7	52.0	-
	일반 노무직	(41)	56.1	31.7	53.7	58.5	-
	사무/기술직	(283)	57.2	35.3	55.8	51.6	-
	경영/관리직	(19)	52.6	36.8	47.4	63.2	-
	전문/자유직	(7)	85.7	28.6	85.7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56.2	42.0	59.2	42.0	-
	학생	(73)	72.6	24.7	53.4	47.9	-
	무직/휴직/은퇴	(52)	53.8	28.8	69.2	48.1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7.6	40.7	59.3	42.4	-
	고등학교	(440)	59.8	34.1	57.3	48.4	-
	전문대	(266)	51.5	37.6	63.2	47.4	-
	4년제 대학교	(427)	59.5	33.5	58.1	48.9	-
	대학원 이상	(8)	75.0	37.5	37.5	50.0	-
생활수준별	상	(73)	65.8	45.2	45.2	42.5	-
	중	(544)	54.8	40.1	58.3	46.5	-
	하	(583)	59.7	29.0	61.1	5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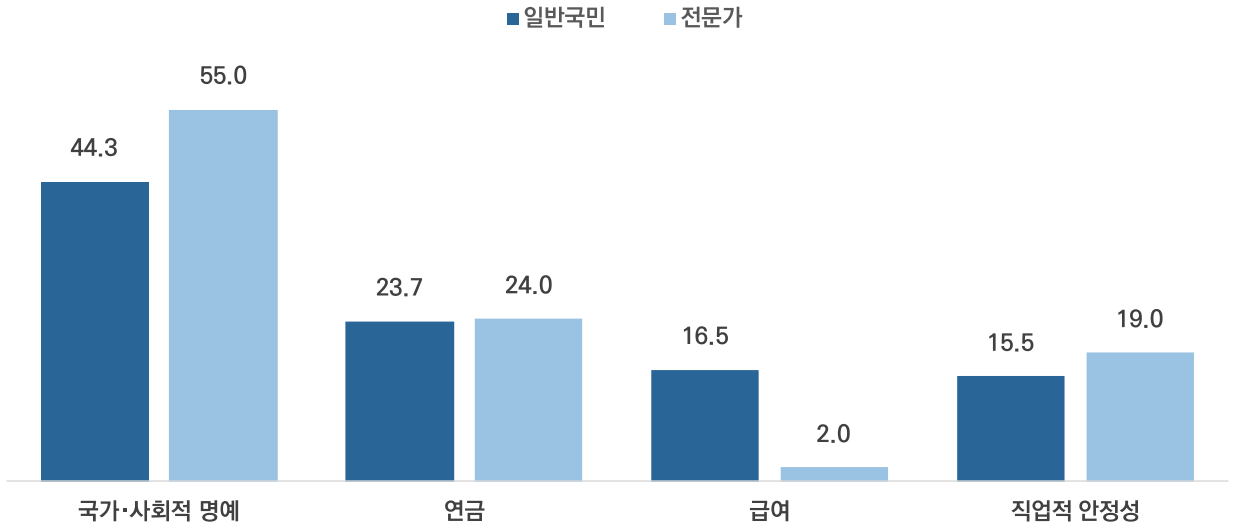
2) 1순위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 국가·사회적 명예’는 일반국민 44.3%, 전문가 5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국가·사회적 명예’가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국가·사회적 명예’가 5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57|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순위)

(단위 : %)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국가·사회적 명예'는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70|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가·사회적 명예	급여	연금	직업적 안정성	기타
전체		(1,300)	45.2	15.4	23.7	15.8	-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4.3	16.5	23.7	15.5	-
	전문가	(100)	55.0	2.0	24.0	19.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3.7	17.2	24.2	14.9	-
	중	(580)	43.6	17.2	22.9	16.2	-
	하	(231)	47.2	13.4	24.7	14.7	-
성별	남성	(720)	44.0	16.1	22.4	17.5	-
	여성	(480)	44.8	17.1	25.6	12.5	-
연령별	20대 이하	(217)	45.6	12.4	22.1	19.8	-
	30대	(194)	38.1	20.6	26.3	14.9	-
	40대	(226)	46.5	17.3	22.1	14.2	-
	50대	(255)	43.9	17.6	24.7	13.7	-
	60대 이상	(308)	46.1	15.3	23.4	15.3	-
지역별	서울	(140)	43.6	22.1	15.7	18.6	-
	경기/인천	(245)	38.0	22.9	24.1	15.1	-
	부산/울산/경남	(208)	34.6	13.5	28.4	23.6	-
	대구/경북	(141)	42.6	14.9	24.1	18.4	-
	광주/전라	(170)	46.5	15.3	29.4	8.8	-
	대전/충청/세종	(205)	45.4	16.1	24.9	13.7	-
	강원/제주	(91)	81.3	3.3	9.9	5.5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6.6	18.1	26.1	19.1	-
	중·소도시	(639)	51.0	14.2	21.9	12.8	-
	읍/면	(37)	37.8	32.4	18.9	10.8	-
직업별	농/어/임업	(50)	40.0	18.0	34.0	8.0	-
	자영업자	(185)	42.7	13.5	26.5	17.3	-
	판매/서비스직	(194)	40.2	19.1	26.8	13.9	-
	기능/숙련공	(127)	44.9	15.7	22.8	16.5	-
	일반 노무직	(41)	39.0	22.0	22.0	17.1	-
	사무/기술직	(283)	43.8	17.3	22.3	16.6	-
	경영/관리직	(19)	47.4	21.1	21.1	10.5	-
	전문/자유직	(7)	85.7	14.3	-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46.2	19.5	20.1	14.2	-
	학생	(73)	56.2	8.2	17.8	17.8	-
	무직/휴직/은퇴	(52)	46.2	9.6	26.9	17.3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9.2	13.6	20.3	16.9	-
	고등학교	(440)	48.0	15.0	22.0	15.0	-
	전문대	(266)	37.6	21.8	27.1	13.5	-
	4년제 대학교	(427)	43.6	15.0	24.1	17.3	-
	대학원 이상	(8)	75.0	25.0	-	-	-
생활수준별	상	(73)	53.4	15.1	21.9	9.6	-
	중	(544)	40.3	17.6	25.9	16.2	-
	하	(583)	47.0	15.6	21.8	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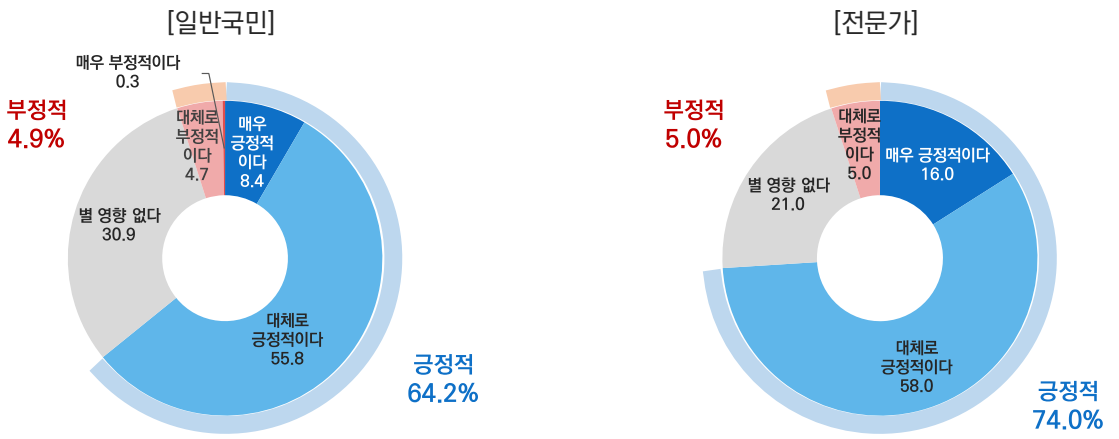
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64.2%, 전문가 7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로 '부정적'(4.9%)인 비율보다 59.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긍정' 비율이 2023년(58.7%) 대비 5.5%p 증가했으며, '부정' 비율은 2023년(7.2%) 대비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긍정' 비율이 74.0%로 '부정'(5.0%) 비율보다 6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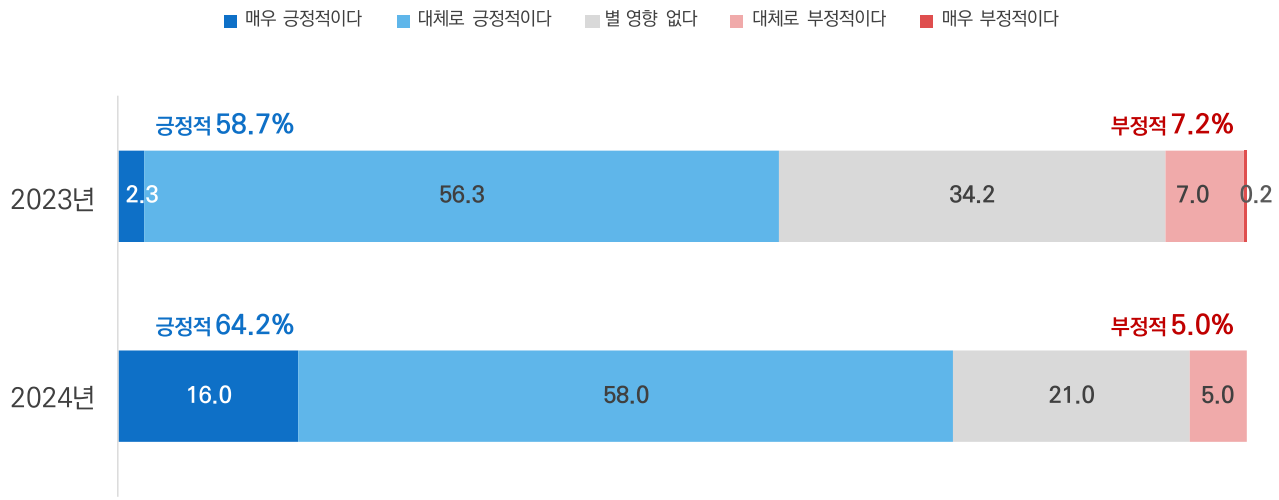
|그림 3-25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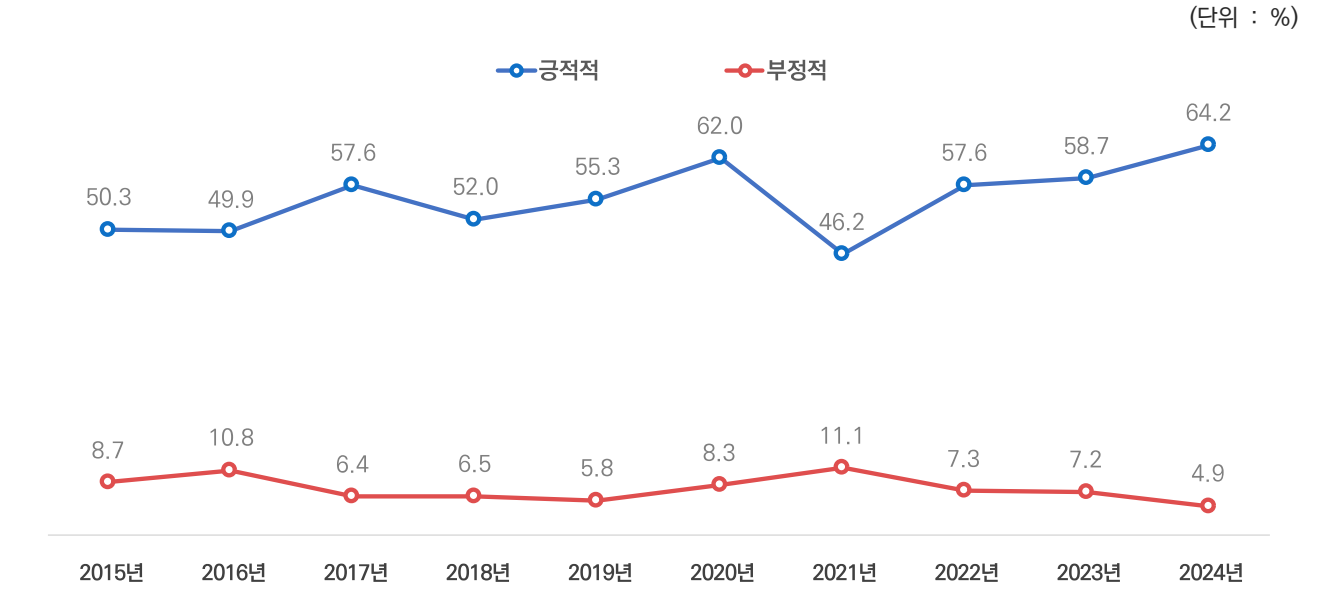
|그림 3-2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비율은 13.9%p 증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비율은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0|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71|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긍정적이다	5.8	6.1	7.2	6.2	6.9	4.3	4.6	2.4	2.3	8.4	6.1	2.6
대체로 긍정적이다	44.6	43.8	50.4	45.8	48.3	57.8	41.6	55.2	56.3	55.8	-0.5	11.2
별 영향 없다	41.0	39.3	36.0	41.5	39.0	29.8	42.7	35.2	34.2	30.9	-3.3	-10.1
대체로 부정적이다	7.9	9.7	6.0	5.8	5.5	8.0	9.3	6.6	7.0	4.7	-2.3	-3.2
매우 부정적이다	0.8	1.1	0.4	0.8	0.3	0.3	1.8	0.7	0.2	0.3	0.1	-0.5
무응답	-	-	-	-	-	-	-	-	-	-	-	-
긍적적	50.3	49.9	57.6	52.0	55.3	62.0	46.2	57.6	58.7	64.2	5.5	13.9
부정적	8.7	10.8	6.4	6.5	5.8	8.3	42.7	7.3	7.2	4.9	-2.3	-3.8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72|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별 영향 없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종합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300)	9.0	55.9	30.2	4.7	0.2	64.9	30.2	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4	55.8	30.9	4.7	0.3	64.2	30.9	4.9
	전문가	(100)	16.0	58.0	21.0	5.0	-	74.0	21.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1.3	54.5	29.6	4.1	0.5	65.8	29.6	4.6
	중	(580)	7.1	58.8	28.1	5.9	0.2	65.9	28.1	6.0
	하	(231)	6.9	50.2	40.3	2.6	-	57.1	40.3	2.6
성별	남성	(720)	8.6	57.6	29.0	4.6	0.1	66.3	29.0	4.7
	여성	(480)	8.1	52.9	33.8	4.8	0.4	61.0	33.8	5.2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	57.6	31.3	5.1	-	63.6	31.3	5.1
	30대	(194)	6.7	57.2	29.4	6.7	-	63.9	29.4	6.7
	40대	(226)	7.1	55.8	31.9	4.9	0.4	62.8	31.9	5.3
	50대	(255)	9.4	55.7	30.6	4.3	-	65.1	30.6	4.3
	60대 이상	(308)	11.4	53.6	31.2	3.2	0.6	64.9	31.2	3.9
지역별	서울	(140)	2.9	64.3	29.3	3.6	-	67.1	29.3	3.6
	경기/인천	(245)	9.4	54.7	31.0	4.9	-	64.1	31.0	4.9
	부산/울산/경남	(208)	7.7	60.1	28.4	3.8	-	67.8	28.4	3.8
	대구/경북	(141)	12.1	51.1	26.2	8.5	2.1	63.1	26.2	10.6
	광주/전라	(170)	4.7	51.2	40.6	3.5	-	55.9	40.6	3.5
	대전/충청/세종	(205)	6.3	54.6	34.1	4.9	-	61.0	34.1	4.9
	강원/제주	(91)	22.0	53.8	20.9	3.3	-	75.8	20.9	3.3
지역크기	대도시	(524)	6.7	61.3	27.3	4.2	0.6	67.9	27.3	4.8
	중·소도시	(639)	10.0	52.1	32.9	5.0	-	62.1	32.9	5.0
	읍/면	(37)	5.4	40.5	48.6	5.4	-	45.9	48.6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44.0	50.0	-	-	50.0	50.0	-
	자영업자	(185)	7.0	55.1	34.1	3.2	0.5	62.2	34.1	3.8
	판매/서비스직	(194)	8.2	53.1	32.0	6.7	-	61.3	32.0	6.7
	기능/숙련공	(127)	10.2	55.1	27.6	7.1	-	65.4	27.6	7.1
	일반 노무직	(41)	9.8	61.0	22.0	7.3	-	70.7	22.0	7.3
	사무/기술직	(283)	9.5	63.3	23.3	3.9	-	72.8	23.3	3.9
	경영/관리직	(19)	5.3	73.7	21.1	-	-	78.9	21.1	-
	전문/자유직	(7)	-	71.4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8.3	48.5	37.9	4.1	1.2	56.8	37.9	5.3
	학생	(73)	6.8	50.7	37.0	5.5	-	57.5	37.0	5.5
	무직/휴직/은퇴	(52)	9.6	57.7	26.9	5.8	-	67.3	26.9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49.2	39.0	1.7	-	59.3	39.0	1.7
	고등학교	(440)	10.0	55.0	31.1	3.4	0.5	65.0	31.1	3.9
	전문대	(266)	6.8	53.0	34.2	6.0	-	59.8	34.2	6.0
	4년제 대학교	(427)	7.3	59.3	27.6	5.6	0.2	66.5	27.6	5.9
	대학원 이상	(8)	25.0	50.0	25.0	-	-	75.0	25.0	-
생활수준별	상	(73)	8.2	60.3	24.7	6.8	-	68.5	24.7	6.8
	중	(544)	6.1	55.0	34.7	4.0	0.2	61.0	34.7	4.2
	하	(583)	10.6	55.9	28.1	5.0	0.3	66.6	28.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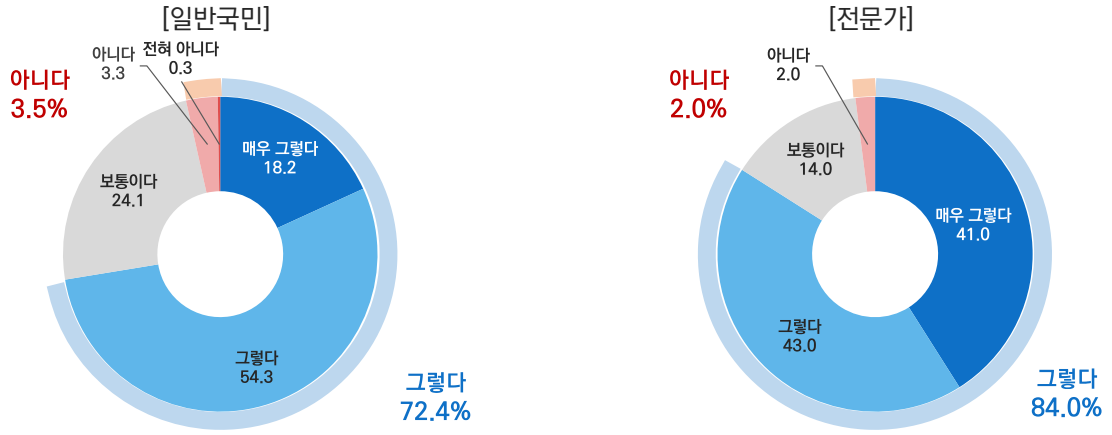
9.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렇다'가 일반국민 72.4%, 전문가 8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로 '아니다'(3.5%) 보다 68.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가 2023년(64.8%) 대비 7.6%p 증가했으며, '아니다'는 2023년(6.5%) 대비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는 84.0%로 '아니다'(2.0%) 보다 8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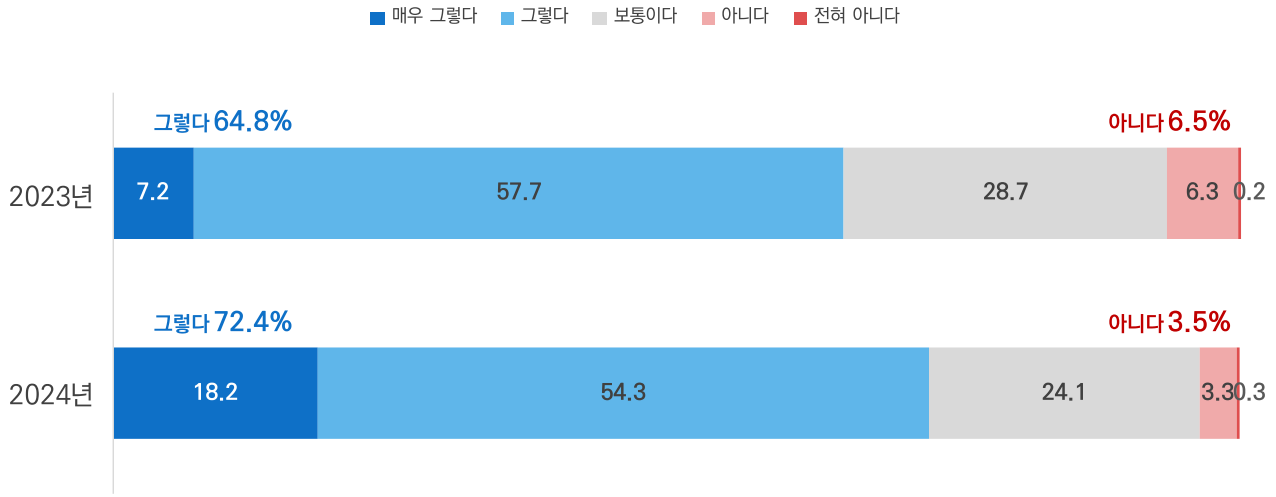
|그림 3-261|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 3-262|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자영업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3| ‘군사훈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1,300)	19.9	53.4	23.3	3.2	0.2	73.3	23.3	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2	54.3	24.1	3.3	0.3	72.4	24.1	3.5
	전문가	(100)	41.0	43.0	14.0	2.0	-	84.0	14.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0.6	54.2	21.9	2.8	0.5	74.8	21.9	3.3
	중	(580)	15.7	57.1	24.3	2.8	0.2	72.8	24.3	2.9
	하	(231)	20.3	47.2	27.3	5.2	-	67.5	27.3	5.2
성별	남성	(720)	20.0	53.1	24.3	2.5	0.1	73.1	24.3	2.6
	여성	(480)	15.4	56.0	23.8	4.4	0.4	71.5	23.8	4.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4	51.6	25.8	3.7	0.5	70.0	25.8	4.1
	30대	(194)	16.0	56.7	25.3	2.1	-	72.7	25.3	2.1
	40대	(226)	17.3	50.9	27.9	3.5	0.4	68.1	27.9	4.0
	50대	(255)	17.3	53.7	25.1	3.9	-	71.0	25.1	3.9
	60대 이상	(308)	20.8	57.5	18.5	2.9	0.3	78.2	18.5	3.2
지역별	서울	(140)	13.6	52.9	31.4	2.1	-	66.4	31.4	2.1
	경기/인천	(245)	18.8	55.1	24.5	1.6	-	73.9	24.5	1.6
	부산/울산/경남	(208)	15.9	54.3	25.5	3.8	0.5	70.2	25.5	4.3
	대구/경북	(141)	23.4	55.3	19.1	1.4	0.7	78.7	19.1	2.1
	광주/전라	(170)	17.6	52.4	24.7	5.3	-	70.0	24.7	5.3
	대전/충청/세종	(205)	18.5	53.7	21.5	6.3	-	72.2	21.5	6.3
	강원/제주	(91)	20.9	57.1	20.9	-	1.1	78.0	20.9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16.0	55.2	25.6	2.9	0.4	71.2	25.6	3.2
	중·소도시	(639)	20.5	53.7	22.2	3.4	0.2	74.2	22.2	3.6
	읍/면	(37)	8.1	51.4	35.1	5.4	-	59.5	35.1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28.0	48.0	20.0	4.0	-	76.0	20.0	4.0
	자영업자	(185)	17.8	61.6	16.8	3.8	-	79.5	16.8	3.8
	판매/서비스직	(194)	11.9	53.6	33.0	1.5	-	65.5	33.0	1.5
	기능/숙련공	(127)	22.8	55.1	18.9	3.1	-	78.0	18.9	3.1
	일반 노무직	(41)	24.4	43.9	29.3	2.4	-	68.3	29.3	2.4
	사무/기술직	(283)	15.9	53.7	27.2	2.8	0.4	69.6	27.2	3.2
	경영/관리직	(19)	10.5	52.6	31.6	5.3	-	63.2	31.6	5.3
	전문/자유직	(7)	28.6	71.4	-	-	-	100.0	-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7.8	53.8	23.1	4.7	0.6	71.6	23.1	5.3
	학생	(73)	20.5	54.8	17.8	5.5	1.4	75.3	17.8	6.8
	무직/휴직/은퇴	(52)	28.8	44.2	25.0	1.9	-	73.1	25.0	1.9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6.9	54.2	25.4	3.4	-	71.2	25.4	3.4
	고등학교	(440)	20.7	53.6	22.0	3.4	0.2	74.3	22.0	3.6
	전문대	(266)	13.2	58.6	24.4	3.4	0.4	71.8	24.4	3.8
	4년제 대학교	(427)	18.7	52.0	26.0	3.0	0.2	70.7	26.0	3.3
	대학원 이상	(8)	25.0	62.5	12.5	-	-	8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24.7	45.2	24.7	5.5	-	69.9	24.7	5.5
	중	(544)	18.8	53.3	24.3	3.3	0.4	72.1	24.3	3.7
	하	(583)	16.8	56.3	23.8	2.9	0.2	73.1	23.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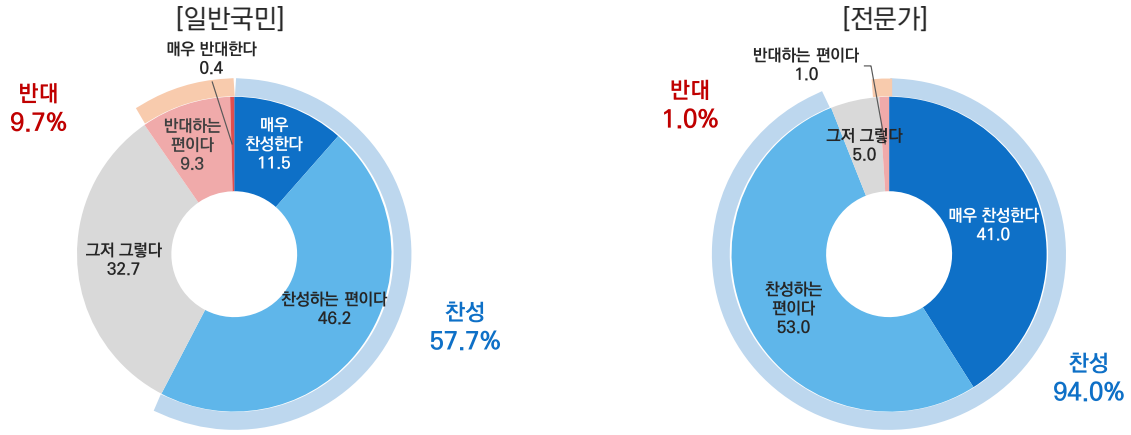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 57.7%, 전문가 9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7.7%로 '반대'(9.7%)보다 48.0%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하는 비율이 2023년(70.7%) 대비 13.0%p 감소했으며, '반대'는 2023년(4.3%) 대비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이 94.0%로 '반대'(1.0%)보다 93.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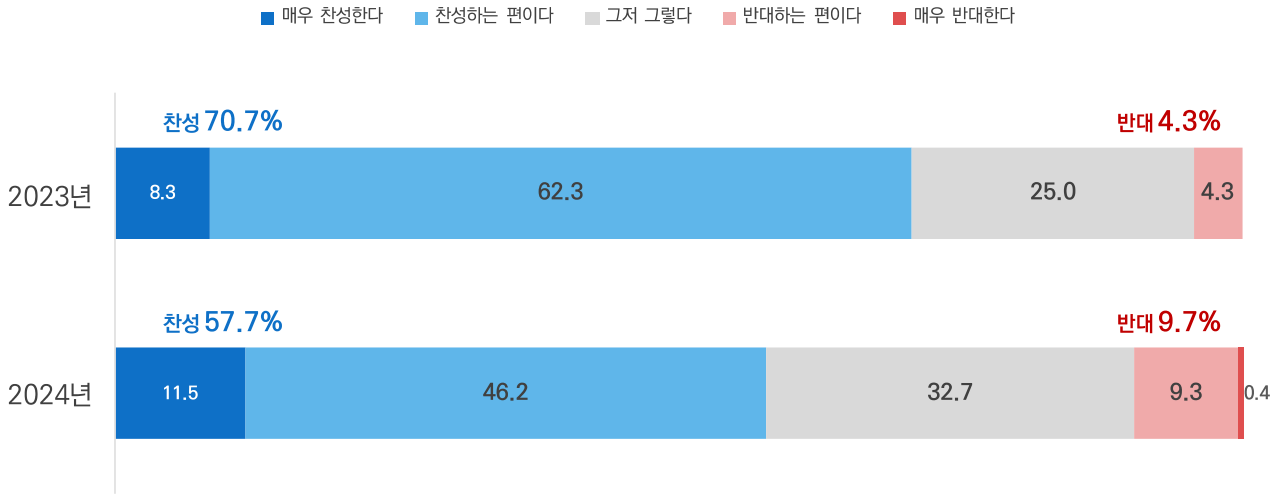
|그림 3-263|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



|그림 3-264|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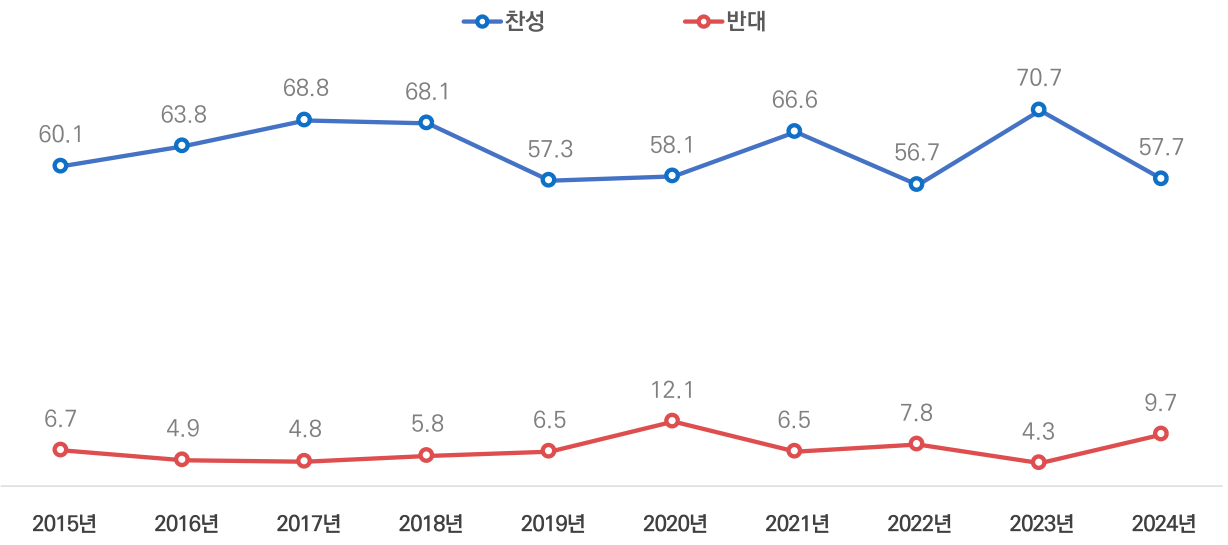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2.4%p 감소했으나, '반대'는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74|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한다	8.5	10.3	11.4	13.3	4.0	2.8	11.4	4.2	8.3	11.5	3.2	3.0
찬성하는 편이다	51.6	53.6	57.3	54.8	53.3	55.3	55.2	52.5	62.3	46.2	-16.1	-5.4
그저 그렇다	33.3	31.3	26.5	26.2	36.3	29.8	26.9	35.5	25.0	32.7	7.7	-0.6
반대하는 편이다	6.4	4.8	4.8	5.4	6.3	11.7	5.1	6.9	4.3	9.3	5.0	2.9
매우 반대한다	0.3	0.2	0.0	0.3	0.3	0.4	1.4	0.9	0.0	0.4	0.4	0.1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60.1	63.8	68.8	68.1	57.3	58.1	66.6	56.7	70.7	57.7	-13.0	-2.4
반대	6.7	4.9	4.8	5.8	6.5	12.1	6.5	7.8	4.3	9.7	5.4	3.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7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13.8	46.7	30.5	8.6	0.4	60.5	30.5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5	46.2	32.7	9.3	0.4	57.7	32.7	9.7
	전문가	(100)	41.0	53.0	5.0	1.0	-	94.0	5.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2.1	48.8	30.3	8.5	0.3	60.9	30.3	8.7
	중	(580)	11.7	44.7	34.7	8.8	0.2	56.4	34.7	9.0
	하	(231)	10.0	45.5	31.6	11.7	1.3	55.4	31.6	13.0
성별	남성	(720)	12.4	47.8	30.8	8.6	0.4	60.1	30.8	9.0
	여성	(480)	10.2	43.8	35.4	10.2	0.4	54.0	35.4	10.6
연령별	20대 이하	(217)	6.9	47.5	33.6	11.5	0.5	54.4	33.6	12.0
	30대	(194)	10.8	47.9	32.0	8.2	1.0	58.8	32.0	9.3
	40대	(226)	13.3	45.6	31.4	9.7	-	58.8	31.4	9.7
	50대	(255)	12.2	47.1	31.8	8.6	0.4	59.2	31.8	9.0
	60대 이상	(308)	13.3	43.8	34.1	8.4	0.3	57.1	34.1	8.8
지역별	서울	(140)	5.0	38.6	53.6	2.9	-	43.6	53.6	2.9
	경기/인천	(245)	8.2	48.6	36.3	6.5	0.4	56.7	36.3	6.9
	부산/울산/경남	(208)	11.1	47.1	30.3	10.1	1.4	58.2	30.3	11.5
	대구/경북	(141)	18.4	40.4	29.1	11.3	0.7	58.9	29.1	12.1
	광주/전라	(170)	12.4	50.0	24.7	12.9	-	62.4	24.7	12.9
	대전/충청/세종	(205)	5.9	46.3	32.7	15.1	-	52.2	32.7	15.1
	강원/제주	(91)	31.9	50.5	16.5	1.1	-	82.4	16.5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1	42.2	37.8	8.0	1.0	53.2	37.8	9.0
	중·소도시	(639)	12.4	49.3	27.7	10.6	-	61.7	27.7	10.6
	읍/면	(37)	2.7	48.6	45.9	2.7	-	51.4	45.9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8.0	54.0	20.0	18.0	-	62.0	20.0	18.0
	자영업자	(185)	10.8	44.9	36.8	7.0	0.5	55.7	36.8	7.6
	판매/서비스직	(194)	6.2	50.0	35.6	8.2	-	56.2	35.6	8.2
	기능/숙련공	(127)	21.3	47.2	19.7	11.0	0.8	68.5	19.7	11.8
	일반 노무직	(41)	14.6	53.7	19.5	12.2	-	68.3	19.5	12.2
	사무/기술직	(283)	11.7	44.5	33.6	10.2	-	56.2	33.6	10.2
	경영/관리직	(19)	10.5	42.1	42.1	5.3	-	52.6	42.1	5.3
	전문/자유직	(7)	-	71.4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2.4	42.6	35.5	8.3	1.2	55.0	35.5	9.5
	학생	(73)	8.2	41.1	39.7	9.6	1.4	49.3	39.7	11.0
	무직/휴직/은퇴	(52)	13.5	46.2	34.6	5.8	-	59.6	34.6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37.3	30.5	18.6	-	50.8	30.5	18.6
	고등학교	(440)	11.6	48.6	29.8	9.1	0.9	60.2	29.8	10.0
	전문대	(266)	9.0	45.1	37.2	8.3	0.4	54.1	37.2	8.6
	4년제 대학교	(427)	12.6	45.9	32.8	8.7	-	58.5	32.8	8.7
	대학원 이상	(8)	12.5	25.0	50.0	12.5	-	37.5	50.0	12.5
생활수준별	상	(73)	13.7	45.2	34.2	6.8	-	58.9	34.2	6.8
	중	(544)	11.8	43.9	34.7	9.0	0.6	55.7	34.7	9.6
	하	(583)	11.0	48.4	30.5	9.8	0.3	59.3	30.5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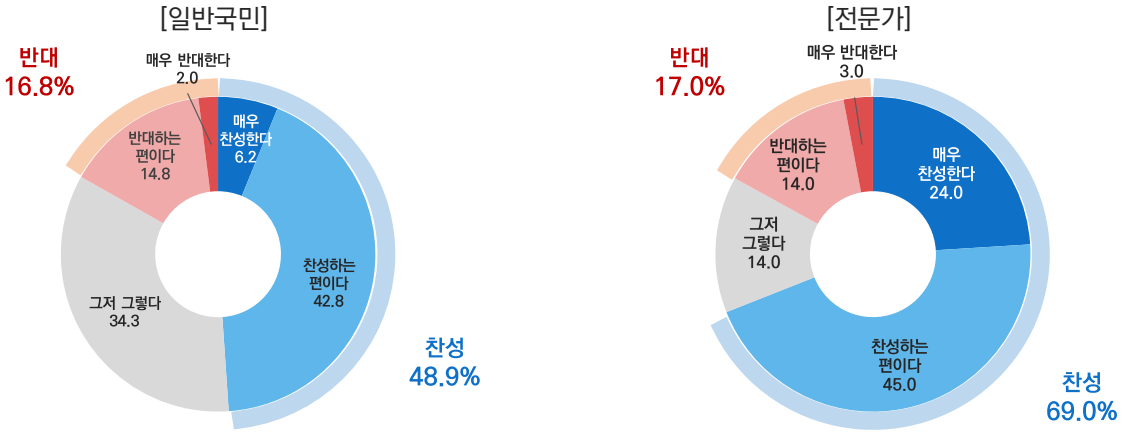
11.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 55.3%, 전문가 7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48.9%로 '반대'(16.8%)보다 32.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하는 비율은 2023년(55.3%) 대비 6.4%p 감소했으며, '반대'는 2023년(14.8%) 대비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은 69.0%로 '반대'(17.0%)보다 52.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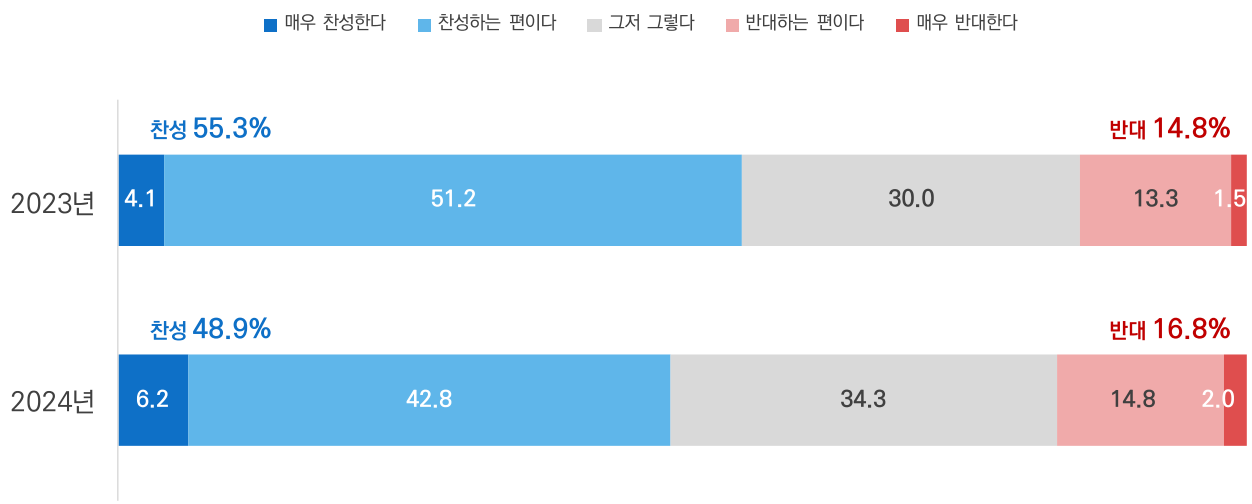
|그림 3-266|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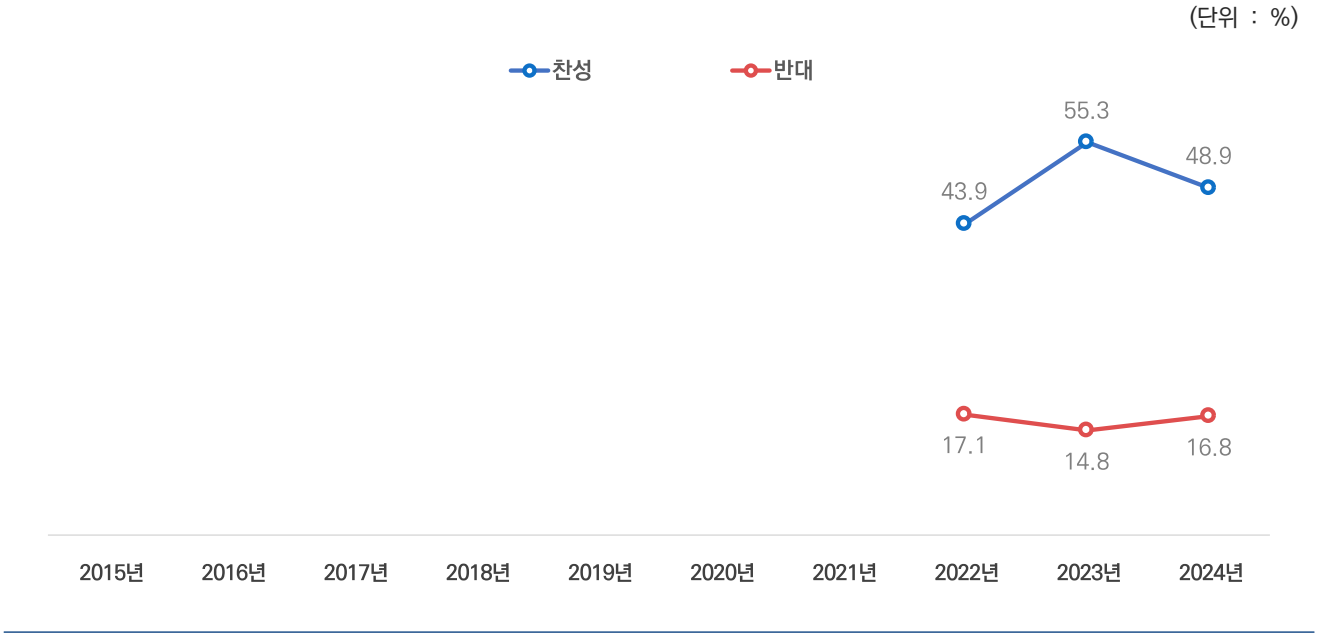
|그림 3-26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5.0%p 증가했으며, '반대'는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8|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76|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한다	-	-	-	-	-	-	-	3.2	4.1	6.2	2.1	3.0
찬성하는 편이다	-	-	-	-	-	-	-	40.8	51.2	42.8	-8.4	2.0
그저 그렇다	-	-	-	-	-	-	-	39.0	30.0	34.3	4.3	-4.7
반대하는 편이다	-	-	-	-	-	-	-	14.7	13.3	14.8	1.5	0.1
매우 반대한다	-	-	-	-	-	-	-	2.4	1.5	2.0	0.5	-0.4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	-	-	-	-	-	-	43.9	55.3	48.9	-6.4	5.0
반대	-	-	-	-	-	-	-	17.1	14.8	16.8	2.0	-0.3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7.5	42.9	32.7	14.8	2.1	50.5	32.7	1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2	42.8	34.3	14.8	2.0	48.9	34.3	16.8
	전문가	(100)	24.0	45.0	14.0	14.0	3.0	69.0	14.0	1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7.2	41.6	34.2	15.9	1.0	48.8	34.2	17.0
	중	(580)	7.1	44.0	34.5	12.9	1.6	51.0	34.5	14.5
	하	(231)	2.2	41.6	33.8	17.7	4.8	43.7	33.8	22.5
성별	남성	(720)	7.1	45.6	31.1	14.6	1.7	52.6	31.1	16.3
	여성	(480)	4.8	38.5	39.0	15.2	2.5	43.3	39.0	17.7
연령별	20대 이하	(217)	7.4	41.0	33.2	15.2	3.2	48.4	33.2	18.4
	30대	(194)	5.7	44.8	34.0	12.4	3.1	50.5	34.0	15.5
	40대	(226)	4.9	43.8	35.0	15.0	1.3	48.7	35.0	16.4
	50대	(255)	4.3	39.6	36.9	17.3	2.0	43.9	36.9	19.2
	60대 이상	(308)	8.1	44.5	32.5	14.0	1.0	52.6	32.5	14.9
지역별	서울	(140)	2.9	63.6	28.6	5.0	-	66.4	28.6	5.0
	경기/인천	(245)	9.0	48.6	36.3	6.1	-	57.6	36.3	6.1
	부산/울산/경남	(208)	3.8	51.0	28.4	14.4	2.4	54.8	28.4	16.8
	대구/경북	(141)	7.8	38.3	36.9	12.8	4.3	46.1	36.9	17.0
	광주/전라	(170)	1.2	25.3	40.0	30.0	3.5	26.5	40.0	33.5
	대전/충청/세종	(205)	3.9	28.8	40.5	24.9	2.0	32.7	40.5	26.8
	강원/제주	(91)	20.9	47.3	22.0	6.6	3.3	68.1	22.0	9.9
지역크기	대도시	(524)	5.2	46.2	33.6	13.0	2.1	51.3	33.6	15.1
	중·소도시	(639)	6.9	40.2	34.1	16.7	2.0	47.1	34.1	18.8
	읍/면	(37)	8.1	37.8	45.9	8.1	-	45.9	45.9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8.0	48.0	30.0	14.0	-	56.0	30.0	14.0
	자영업자	(185)	5.9	42.2	39.5	11.4	1.1	48.1	39.5	12.4
	판매/서비스직	(194)	2.6	41.8	39.2	14.9	1.5	44.3	39.2	16.5
	기능/숙련공	(127)	11.0	42.5	29.1	15.0	2.4	53.5	29.1	17.3
	일반 노무직	(41)	9.8	36.6	29.3	19.5	4.9	46.3	29.3	24.4
	사무/기술직	(283)	6.7	45.2	28.3	17.3	2.5	51.9	28.3	19.8
	경영/관리직	(19)	-	47.4	31.6	15.8	5.3	47.4	31.6	21.1
	전문/자유직	(7)	-	14.3	85.7	-	-	14.3	85.7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4.7	40.2	41.4	11.8	1.8	45.0	41.4	13.6
	학생	(73)	5.5	39.7	35.6	15.1	4.1	45.2	35.6	19.2
	무직/휴직/은퇴	(52)	9.6	50.0	19.2	21.2	-	59.6	19.2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32.2	33.9	23.7	-	42.4	33.9	23.7
	고등학교	(440)	7.0	42.5	34.8	13.6	2.0	49.5	34.8	15.7
	전문대	(266)	3.8	45.9	36.1	12.4	1.9	49.6	36.1	14.3
	4년제 대학교	(427)	6.3	42.4	32.3	16.6	2.3	48.7	32.3	19.0
	대학원 이상	(8)	-	50.0	50.0	-	-	50.0	50.0	-
생활수준별	상	(73)	11.0	49.3	34.2	2.7	2.7	60.3	34.2	5.5
	중	(544)	4.6	45.4	36.4	11.8	1.8	50.0	36.4	13.6
	하	(583)	7.0	39.5	32.2	19.2	2.1	46.5	32.2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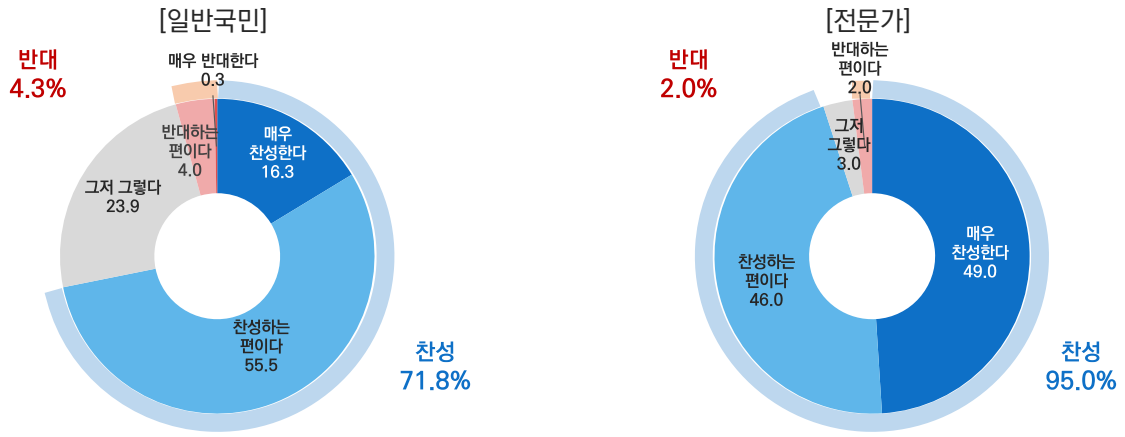
12.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71.8%,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71.8%로 '반대'(4.3%)보다 6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하는 비율이 2023년(65.5%) 대비 6.3%p 증가했으나, '반대'는 2023년(6.0%)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이 95.0%로 '반대'(2.0%)보다 93.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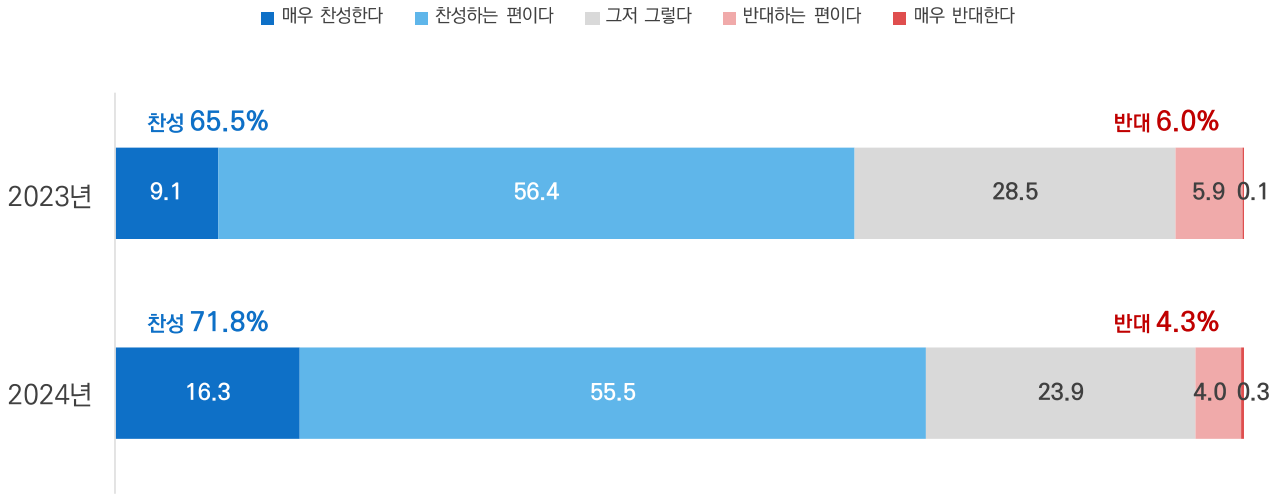
|그림 3-26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단위 : %)



|그림 3-270|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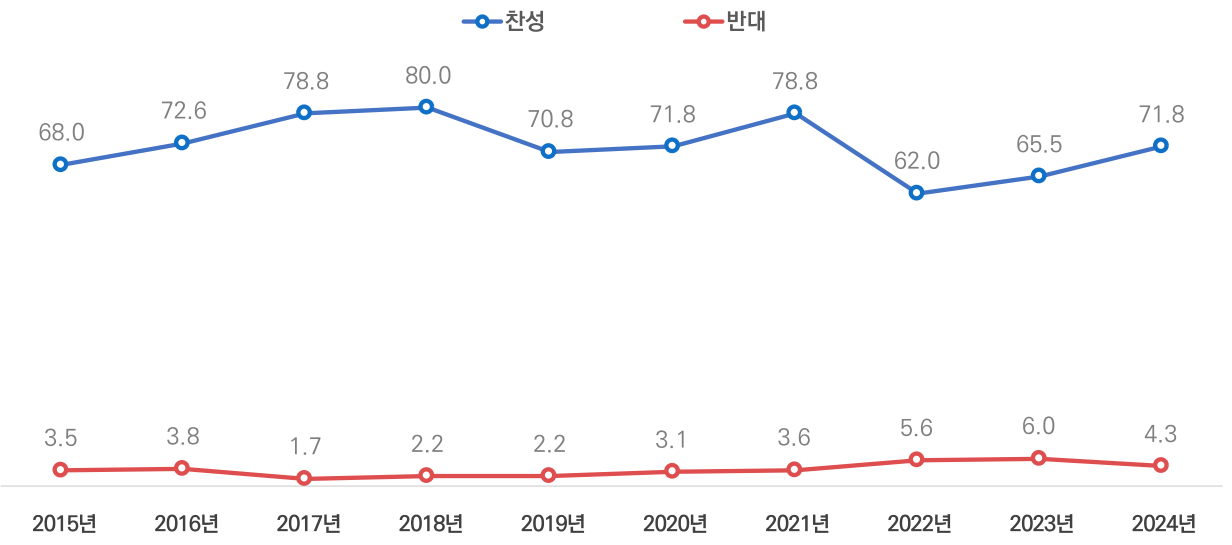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3.8%p 증가했으며, '반대'는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1|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78|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한다	13.4	19.8	20.5	21.3	12.5	7.8	25.0	6.7	9.1	16.3	7.2	2.9
찬성하는 편이다	54.6	52.8	58.3	58.8	58.3	63.9	53.8	55.3	56.4	55.5	-0.9	0.9
그저 그렇다	28.5	23.7	19.6	17.8	27.1	25.2	17.6	32.4	28.5	23.9	-4.6	-4.6
반대하는 편이다	3.0	3.3	1.5	1.9	2.2	3.0	3.3	5.2	5.9	4.0	-1.9	1.0
매우 반대한다	0.5	0.5	0.2	0.3	0.0	0.1	0.3	0.4	0.1	0.3	0.2	-0.2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68.0	72.6	78.8	80.0	70.8	71.8	78.8	62.0	65.5	71.8	6.3	3.8
반대	3.5	3.8	1.7	2.2	2.2	3.1	3.6	5.6	6.0	4.3	-1.7	0.8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기능/숙련공'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7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18.8	54.8	22.3	3.8	0.2	73.6	22.3	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3	55.5	23.9	4.0	0.3	71.8	23.9	4.3
	전문가	(100)	49.0	46.0	3.0	2.0	-	95.0	3.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9	55.3	23.9	4.4	0.5	71.2	23.9	4.9
	중	(580)	15.5	56.6	24.5	3.4	-	72.1	24.5	3.4
	하	(231)	19.0	53.2	22.5	4.8	0.4	72.3	22.5	5.2
성별	남성	(720)	16.3	55.8	24.9	2.9	0.1	72.1	24.9	3.1
	여성	(480)	16.5	55.0	22.5	5.6	0.4	71.5	22.5	6.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5.7	51.6	24.9	7.4	0.5	67.3	24.9	7.8
	30대	(194)	16.0	54.1	26.3	3.6	-	70.1	26.3	3.6
	40대	(226)	17.7	55.3	22.1	4.4	0.4	73.0	22.1	4.9
	50대	(255)	17.3	55.7	23.5	3.5	-	72.9	23.5	3.5
	60대 이상	(308)	15.3	59.1	23.4	1.9	0.3	74.4	23.4	2.3
지역별	서울	(140)	7.9	62.9	26.4	2.9	-	70.7	26.4	2.9
	경기/인천	(245)	22.9	53.1	21.6	2.4	-	75.9	21.6	2.4
	부산/울산/경남	(208)	15.4	56.7	22.1	5.8	-	72.1	22.1	5.8
	대구/경북	(141)	22.7	53.9	12.8	8.5	2.1	76.6	12.8	10.6
	광주/전라	(170)	3.5	58.8	35.3	2.4	-	62.4	35.3	2.4
	대전/충청/세종	(205)	9.3	52.2	33.7	4.9	-	61.5	33.7	4.9
	강원/제주	(91)	44.0	51.6	4.4	-	-	95.6	4.4	-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2	57.1	25.4	4.0	0.4	70.2	25.4	4.4
	중·소도시	(639)	19.6	55.1	21.3	3.9	0.2	74.6	21.3	4.1
	읍/면	(37)	5.4	40.5	48.6	5.4	-	45.9	48.6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16.0	54.0	24.0	6.0	-	70.0	24.0	6.0
	자영업자	(185)	14.6	55.7	24.9	4.9	-	70.3	24.9	4.9
	판매/서비스직	(194)	10.8	54.6	27.8	6.2	0.5	65.5	27.8	6.7
	기능/숙련공	(127)	18.1	60.6	18.1	2.4	0.8	78.7	18.1	3.1
	일반 노무직	(41)	19.5	53.7	24.4	2.4	-	73.2	24.4	2.4
	사무/기술직	(283)	19.1	54.4	24.0	2.5	-	73.5	24.0	2.5
	경영/관리직	(19)	26.3	52.6	21.1	-	-	78.9	21.1	-
	전문/자유직	(7)	28.6	57.1	14.3	-	-	85.7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6.0	57.4	23.7	2.4	0.6	73.4	23.7	3.0
	학생	(73)	12.3	54.8	23.3	9.6	-	67.1	23.3	9.6
	무직/휴직/은퇴	(52)	23.1	50.0	23.1	3.8	-	73.1	23.1	3.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5.3	49.2	32.2	3.4	-	64.4	32.2	3.4
	고등학교	(440)	14.5	57.0	24.5	3.6	0.2	71.6	24.5	3.9
	전문대	(266)	16.2	57.1	22.6	3.8	0.4	73.3	22.6	4.1
	4년제 대학교	(427)	18.7	54.1	22.2	4.7	0.2	72.8	22.2	4.9
	대학원 이상	(8)	-	37.5	62.5	-	-	37.5	62.5	-
생활수준별	상	(73)	26.0	46.6	21.9	4.1	1.4	72.6	21.9	5.5
	중	(544)	14.3	56.6	26.1	2.8	0.2	71.0	26.1	2.9
	하	(583)	17.0	55.6	22.1	5.1	0.2	72.6	22.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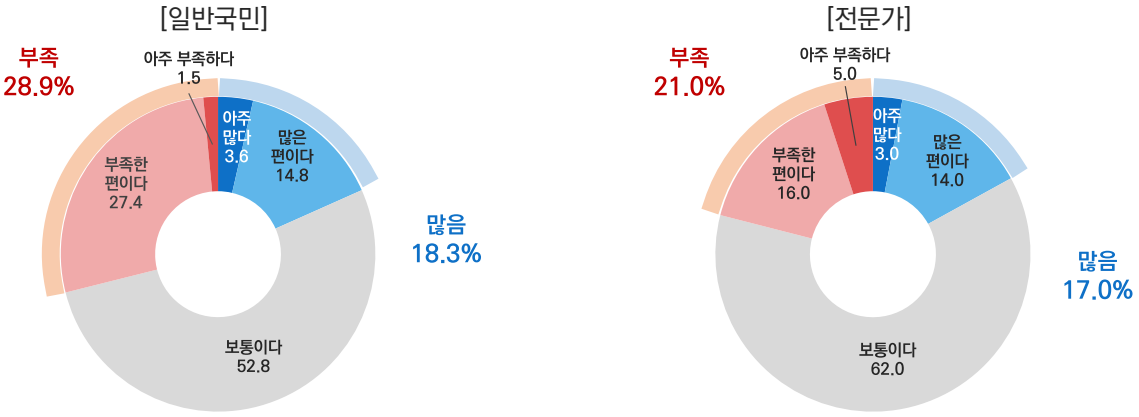
13.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현재 병력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28.9%, 전문가는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로 '많음'(18.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10.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현재 병력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21.9%) 대비 7.0%p 증가했으며, '많다'는 18.3%로 2023년(21.8%)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많다'(17.0%)보다 4.0%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27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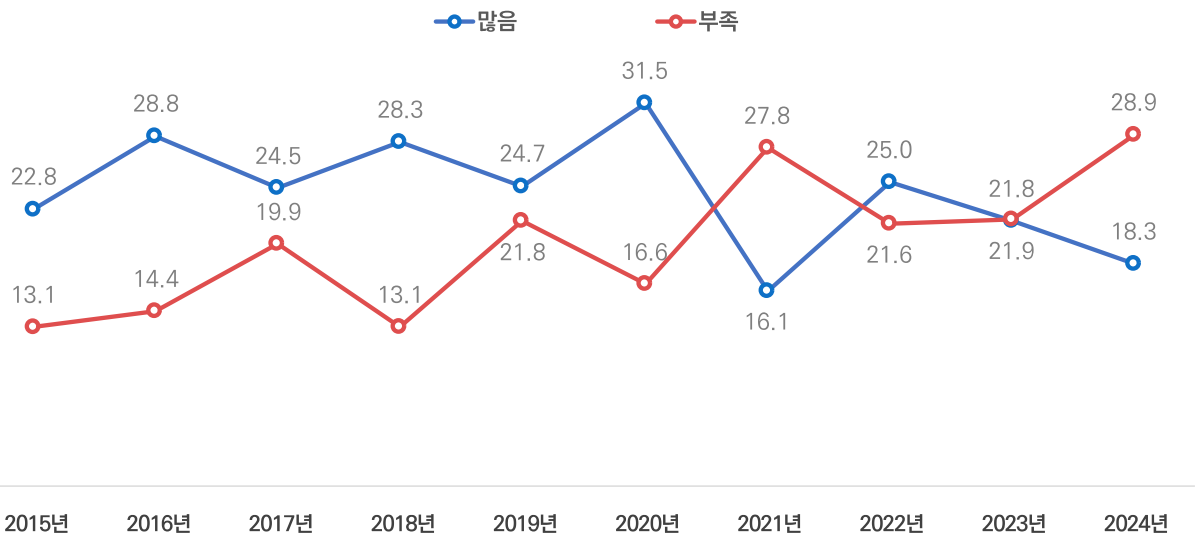
|그림 3-273|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현재 병력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p 증가했으며, '많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4|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8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아주 많다	0.7	1.9	2.2	3.7	0.8	0.3	2.3	0.9	0.9	3.6	2.7	2.9
많은 편이다	22.1	26.9	22.3	24.6	23.9	31.2	13.8	24.1	20.8	14.8	-6.0	-7.3
보통이다	64.2	56.8	55.6	58.7	53.5	51.9	56.1	53.4	56.3	52.8	-3.5	-11.4
부족한 편이다	11.8	14.0	19.3	12.5	18.7	15.8	23.9	20.4	21.3	27.4	6.1	15.6
아주 부족하다	1.3	0.4	0.7	0.6	3.2	0.8	3.9	1.2	0.6	1.5	0.9	0.2
무응답	-	-	-	-	-	-	-	-	-	-	-	-
많음	22.8	28.8	24.5	28.3	24.7	31.5	16.1	25.0	21.8	18.3	-3.5	-4.5
부족	13.1	14.4	19.9	13.1	21.8	16.6	27.8	21.6	21.9	28.9	7.0	15.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81|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아주 부족하다	종합		
								많음	보통	부족
전체		(1,300)	3.5	14.7	53.5	26.5	1.8	18.2	53.5	28.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	14.8	52.8	27.4	1.5	18.3	52.8	28.9
	전문가	(100)	3.0	14.0	62.0	16.0	5.0	17.0	62.0	2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16.5	47.3	31.1	2.3	19.3	47.3	33.4
	중	(580)	5.3	14.0	56.7	23.1	0.9	19.3	56.7	24.0
	하	(231)	0.4	13.9	51.9	32.0	1.7	14.3	51.9	33.8
성별	남성	(720)	4.4	13.1	54.2	27.2	1.1	17.5	54.2	28.3
	여성	(480)	2.3	17.3	50.6	27.7	2.1	19.6	50.6	29.8
연령별	20대 이하	(217)	4.6	18.0	53.9	22.1	1.4	22.6	53.9	23.5
	30대	(194)	3.6	13.9	47.9	33.5	1.0	17.5	47.9	34.5
	40대	(226)	3.1	15.5	54.0	27.0	0.4	18.6	54.0	27.4
	50대	(255)	3.5	11.0	56.9	26.3	2.4	14.5	56.9	28.6
	60대 이상	(308)	3.2	15.6	50.6	28.6	1.9	18.8	50.6	30.5
지역별	서울	(140)	20.0	16.4	41.4	21.4	0.7	36.4	41.4	22.1
	경기/인천	(245)	2.4	13.1	50.2	32.7	1.6	15.5	50.2	34.3
	부산/울산/경남	(208)	1.0	11.1	65.9	22.1	-	12.0	65.9	22.1
	대구/경북	(141)	0.7	14.2	52.5	28.4	4.3	14.9	52.5	32.6
	광주/전라	(170)	-	18.8	45.3	32.9	2.9	18.8	45.3	35.9
	대전/충청/세종	(205)	1.0	17.1	55.1	26.8	-	18.0	55.1	26.8
	강원/제주	(91)	4.4	13.2	56.0	24.2	2.2	17.6	56.0	26.4
지역크기	대도시	(524)	6.7	11.8	50.0	30.2	1.3	18.5	50.0	31.5
	중·소도시	(639)	1.3	16.6	54.3	26.1	1.7	17.8	54.3	27.9
	읍/면	(37)	-	24.3	64.9	10.8	-	24.3	64.9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	8.0	66.0	26.0	-	8.0	66.0	26.0
	자영업자	(185)	5.9	16.8	49.2	27.6	0.5	22.7	49.2	28.1
	판매/서비스직	(194)	1.0	16.5	49.0	31.4	2.1	17.5	49.0	33.5
	기능/숙련공	(127)	-	11.0	57.5	27.6	3.9	11.0	57.5	31.5
	일반 노무직	(41)	-	24.4	56.1	14.6	4.9	24.4	56.1	19.5
	사무/기술직	(283)	6.7	13.4	48.8	29.7	1.4	20.1	48.8	31.1
	경영/관리직	(19)	-	5.3	68.4	26.3	-	5.3	68.4	26.3
	전문/자유직	(7)	-	-	42.9	57.1	-	-	42.9	57.1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6	16.0	53.3	26.0	1.2	19.5	53.3	27.2
	학생	(73)	5.5	16.4	60.3	17.8	-	21.9	60.3	17.8
	무직/휴직/은퇴	(52)	1.9	15.4	57.7	25.0	-	17.3	57.7	25.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13.6	47.5	32.2	3.4	16.9	47.5	35.6
	고등학교	(440)	3.2	14.3	55.2	26.1	1.1	17.5	55.2	27.3
	전문대	(266)	2.3	16.2	54.9	24.4	2.3	18.4	54.9	26.7
	4년제 대학교	(427)	4.9	14.5	49.6	29.7	1.2	19.4	49.6	30.9
	대학원 이상	(8)	-	12.5	50.0	37.5	-	12.5	50.0	37.5
생활수준별	상	(73)	12.3	12.3	49.3	24.7	1.4	24.7	49.3	26.0
	중	(544)	4.6	16.7	55.5	22.4	0.7	21.3	55.5	23.2
	하	(583)	1.5	13.2	50.6	32.4	2.2	14.8	50.6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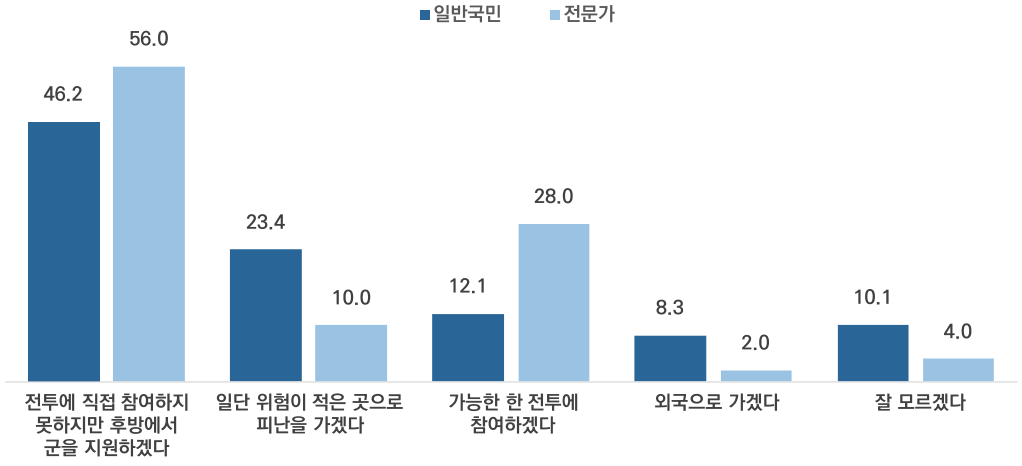
14.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46.2%, 전문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2023년(27.3%) 대비 3.9%p 감소했으나, '외국으로 가겠다'는 2023년(3.2%)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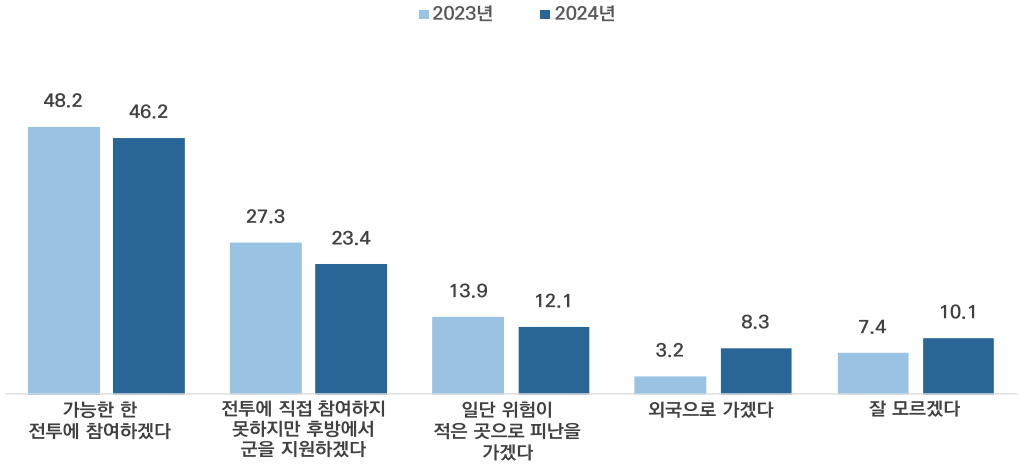
|그림 3-275|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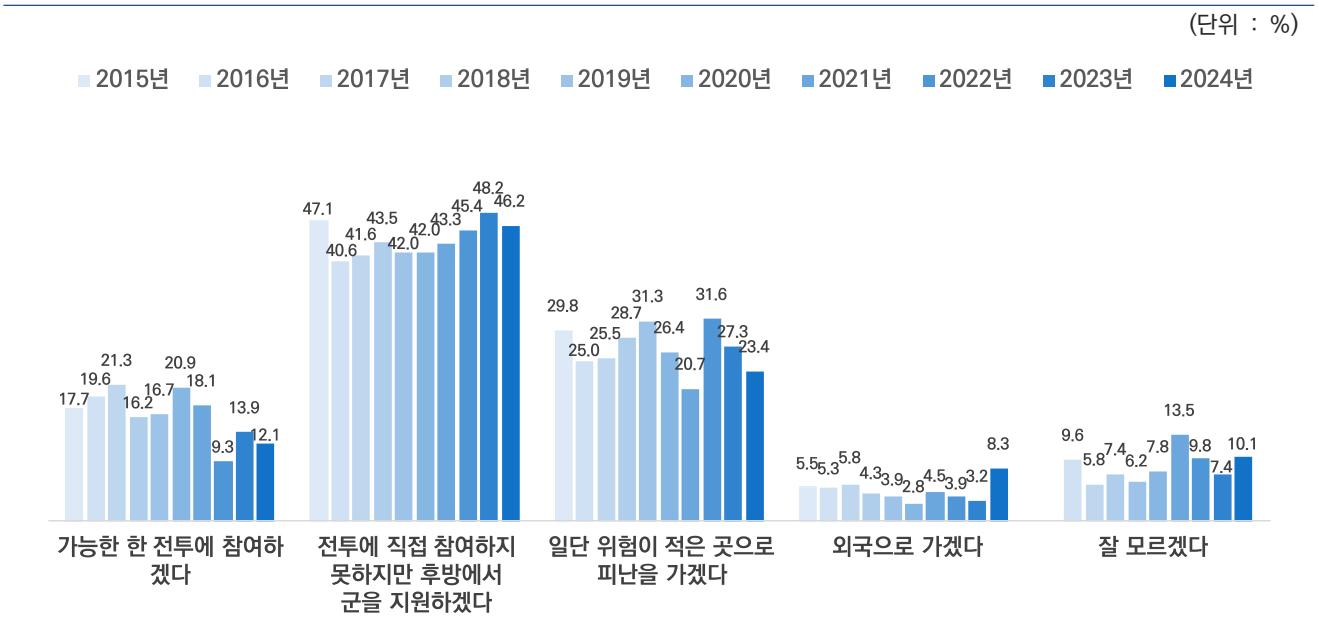
|그림 3-276|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중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6.4%p 감소했으며 '외국으로 가겠다'는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7|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82|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17.7	19.6	21.3	16.2	16.7	20.9	18.1	9.3	13.9	12.1	-1.8	-5.6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47.1	40.6	41.6	43.5	42.0	42.0	43.3	45.4	48.2	46.2	-2.0	-0.9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29.8	25.0	25.5	28.7	31.3	26.4	20.7	31.6	27.3	23.4	-3.9	-6.4
외국으로 가겠다	5.5	5.3	5.8	4.3	3.9	2.8	4.5	3.9	3.2	8.3	5.1	2.8
잘 모르겠다	-	9.6	5.8	7.4	6.2	7.8	13.5	9.8	7.4	10.1	2.7	-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3| 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13.3	46.9	22.4	7.8	9.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1	46.2	23.4	8.3	10.1
	전문가	(100)	28.0	56.0	10.0	2.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2	55.8	18.3	6.4	4.4
	중	(580)	11.2	43.1	26.9	9.7	9.1
	하	(231)	9.1	37.7	23.4	7.8	22.1
성별	남성	(720)	17.4	49.7	17.5	8.8	6.7
	여성	(480)	4.2	40.8	32.3	7.5	15.2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4	41.0	20.3	9.2	11.1
	30대	(194)	17.0	44.8	18.0	10.3	9.8
	40대	(226)	10.2	42.9	31.0	8.4	7.5
	50대	(255)	8.2	49.4	24.7	8.6	9.0
	60대 이상	(308)	9.1	50.3	22.4	5.8	12.3
지역별	서울	(140)	7.1	30.7	35.7	22.9	3.6
	경기/인천	(245)	16.7	49.4	18.0	10.6	5.3
	부산/울산/경남	(208)	17.3	45.2	27.4	4.8	5.3
	대구/경북	(141)	13.5	53.2	12.1	4.3	17.0
	광주/전라	(170)	4.1	48.8	25.9	9.4	11.8
	대전/충청/세종	(205)	7.3	52.7	24.4	4.4	11.2
	강원/제주	(91)	18.7	33.0	20.9	-	27.5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1	44.8	27.1	9.5	7.4
	중·소도시	(639)	13.1	47.4	20.2	6.9	12.4
	읍/면	(37)	8.1	43.2	27.0	13.5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46.0	20.0	8.0	20.0
	자영업자	(185)	15.7	47.0	21.1	9.7	6.5
	판매/서비스직	(194)	11.3	46.4	26.3	4.6	11.3
	기능/숙련공	(127)	15.7	49.6	18.9	10.2	5.5
	일반 노무직	(41)	9.8	56.1	29.3	4.9	-
	사무/기술직	(283)	13.4	48.8	21.2	9.2	7.4
	경영/관리직	(19)	31.6	52.6	5.3	5.3	5.3
	전문/자유직	(7)	28.6	14.3	14.3	-	42.9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4.7	38.5	33.1	8.9	14.8
	학생	(73)	9.6	37.0	21.9	11.0	20.5
	무직/휴직/은퇴	(52)	11.5	51.9	21.2	5.8	9.6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1.9	40.7	28.8	1.7	16.9
	고등학교	(440)	9.3	47.5	23.2	9.1	10.9
	전문대	(266)	10.9	41.0	31.2	8.3	8.6
	4년제 대학교	(427)	15.5	48.2	18.5	8.4	9.4
	대학원 이상	(8)	25.0	75.0	-	-	-
생활수준별	상	(73)	21.9	38.4	20.5	15.1	4.1
	중	(544)	11.0	45.0	24.3	10.1	9.6
	하	(583)	11.8	48.2	23.0	5.7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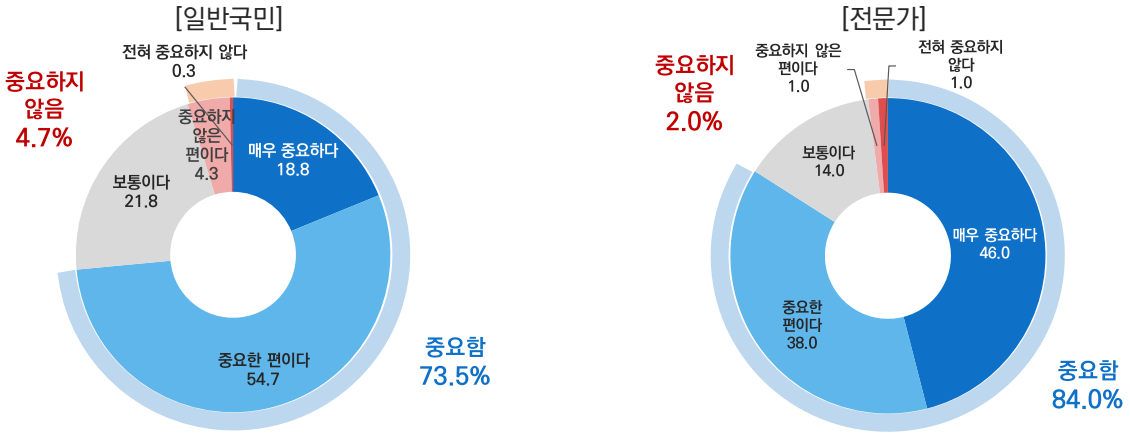
15.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73.5%, 전문가 8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예비군 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중요하지 않음'(4.7%)보다 68.8%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72.5%) 대비 4.8%p 감소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2023년(2.8%) 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0%로 '중요하지 않다'(2.0%)보다 8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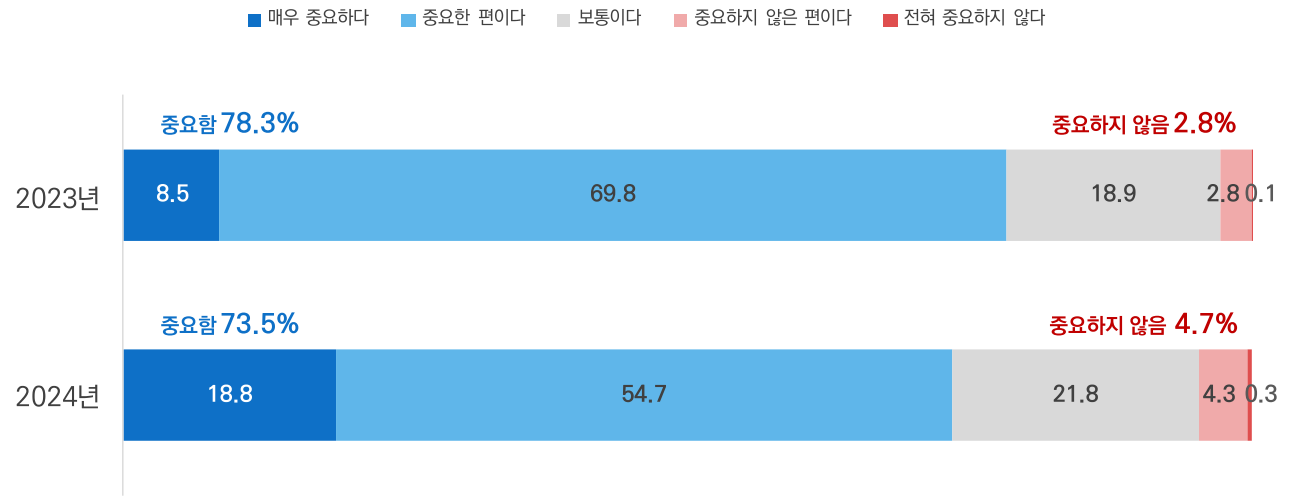
|그림 3-278|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단위 : %)



|그림 3-279|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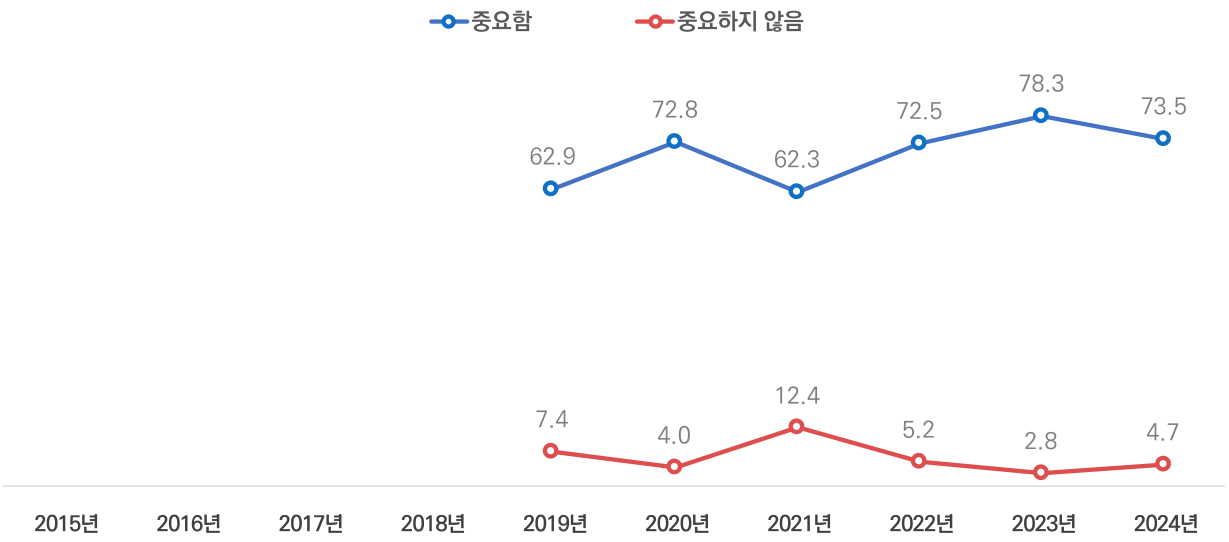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9년 대비 현재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p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80|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84|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중요하다	-	-	-	-	8.2	9.2	16.3	11.9	8.5	18.8	10.3	10.6
중요한 편이다	-	-	-	-	54.8	63.6	45.9	60.6	69.8	54.7	-15.1	-0.1
보통이다	-	-	-	-	29.7	23.3	25.3	22.3	18.9	21.8	2.9	-7.9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	-	-	6.6	3.4	9.5	4.2	2.8	4.3	1.5	-2.3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0.8	0.6	2.9	1.0	0.1	0.3	0.2	-0.5
무응답	-	-	-	-	-	-	-	-	-	-	-	-
중요함	-	-	-	-	62.9	72.8	62.3	72.5	78.3	73.5	-4.8	10.6
중요하지 않음	-	-	-	-	7.4	4.0	12.4	5.2	2.8	4.7	1.9	-2.7

※ 2015~2018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현재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5|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300)	20.9	53.4	21.2	4.1	0.4	74.3	21.2	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8	54.7	21.8	4.3	0.3	73.5	21.8	4.7
	전문가	(100)	46.0	38.0	14.0	1.0	1.0	84.0	14.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4.9	55.5	16.7	2.8	-	80.5	16.7	2.8
	중	(580)	14.8	54.1	25.5	5.0	0.5	69.0	25.5	5.5
	하	(231)	18.6	54.5	21.2	5.2	0.4	73.2	21.2	5.6
성별	남성	(720)	19.9	52.8	22.9	4.2	0.3	72.6	22.9	4.4
	여성	(480)	17.3	57.5	20.2	4.6	0.4	74.8	20.2	5.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2.9	60.8	22.1	4.1	-	73.7	22.1	4.1
	30대	(194)	16.5	56.2	23.2	3.6	0.5	72.7	23.2	4.1
	40대	(226)	20.8	55.3	19.5	4.0	0.4	76.1	19.5	4.4
	50대	(255)	18.8	50.6	24.3	5.5	0.8	69.4	24.3	6.3
	60대 이상	(308)	23.1	52.3	20.5	4.2	-	75.3	20.5	4.2
지역별	서울	(140)	11.4	52.1	25.7	10.7	-	63.6	25.7	10.7
	경기/인천	(245)	20.4	64.5	13.1	2.0	-	84.9	13.1	2.0
	부산/울산/경남	(208)	16.8	60.6	22.1	0.5	-	77.4	22.1	0.5
	대구/경북	(141)	22.0	55.3	20.6	2.1	-	77.3	20.6	2.1
	광주/전라	(170)	9.4	47.1	35.3	8.2	-	56.5	35.3	8.2
	대전/충청/세종	(205)	22.0	49.8	22.0	5.4	1.0	71.7	22.0	6.3
	강원/제주	(91)	36.3	42.9	15.4	3.3	2.2	79.1	15.4	5.5
지역크기	대도시	(524)	16.2	58.0	21.6	4.2	-	74.2	21.6	4.2
	중·소도시	(639)	21.3	53.1	20.5	4.5	0.6	74.3	20.5	5.2
	읍/면	(37)	13.5	35.1	48.6	2.7	-	48.6	48.6	2.7
직업별	농/어/임업	(50)	12.0	62.0	18.0	8.0	-	74.0	18.0	8.0
	자영업자	(185)	16.8	52.4	25.4	4.9	0.5	69.2	25.4	5.4
	판매/서비스직	(194)	12.4	64.9	18.0	4.6	-	77.3	18.0	4.6
	기능/숙련공	(127)	24.4	52.0	18.9	3.9	0.8	76.4	18.9	4.7
	일반 노무직	(41)	31.7	34.1	31.7	2.4	-	65.9	31.7	2.4
	사무/기술직	(283)	21.2	51.6	23.7	3.5	-	72.8	23.7	3.5
	경영/관리직	(19)	36.8	42.1	21.1	-	-	78.9	21.1	-
	전문/자유직	(7)	28.6	57.1	14.3	-	-	85.7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6.6	60.4	17.8	4.7	0.6	76.9	17.8	5.3
	학생	(73)	13.7	53.4	27.4	5.5	-	67.1	27.4	5.5
	무직/휴직/은퇴	(52)	26.9	44.2	23.1	3.8	1.9	71.2	23.1	5.8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2.0	44.1	30.5	3.4	-	66.1	30.5	3.4
	고등학교	(440)	20.7	53.6	20.0	5.5	0.2	74.3	20.0	5.7
	전문대	(266)	12.0	62.0	20.7	4.9	0.4	74.1	20.7	5.3
	4년제 대학교	(427)	20.4	52.7	23.4	3.0	0.5	73.1	23.4	3.5
	대학원 이상	(8)	37.5	50.0	12.5	-	-	8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19.2	43.8	31.5	4.1	1.4	63.0	31.5	5.5
	중	(544)	14.9	54.8	25.4	4.4	0.6	69.7	25.4	5.0
	하	(583)	22.5	55.9	17.3	4.3	-	78.4	17.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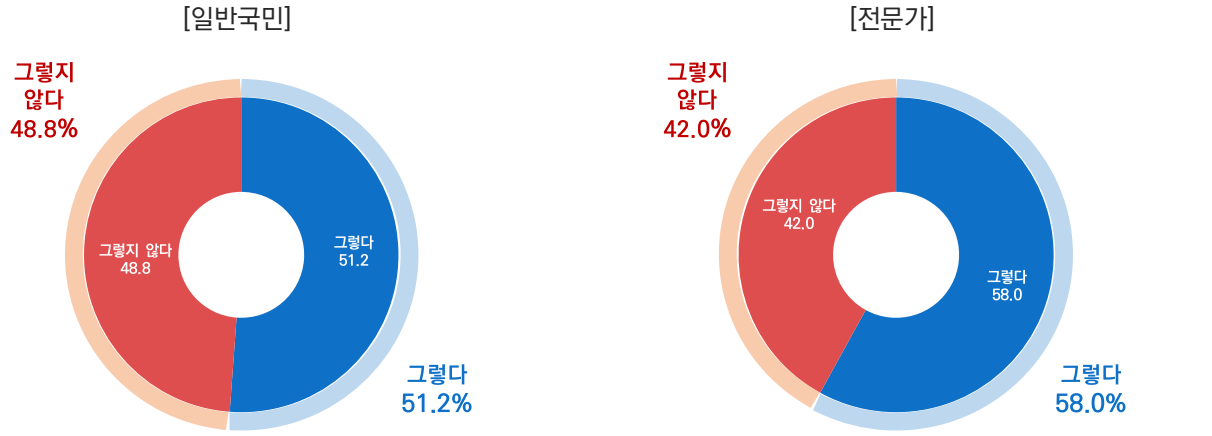
16.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해 추가 복무 및 훈련에 지원할 의향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51.2%, 전문가 5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51.2%로 '그렇다'(48.8%)보다 2.4%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에 대해 '그렇다'는 2023년(49.8%) 대비 1.4%p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2023년(48.8%)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8.0%로 '그렇다'(42.0%)보다 16.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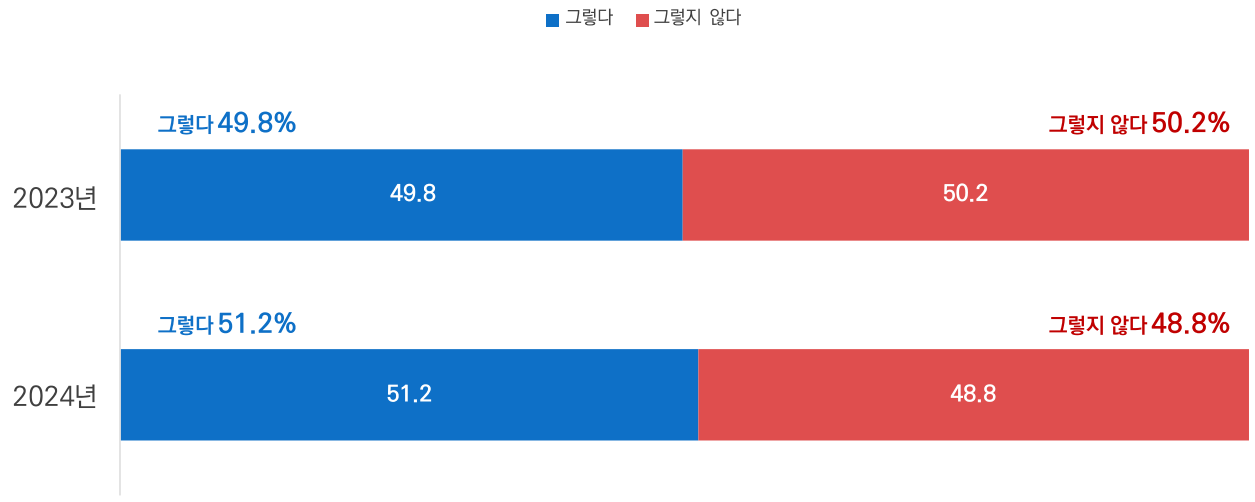
|그림 3-281|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단위 : %)



|그림 3-282|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6|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한 추가 복무 및 훈련 지원 의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51.7	48.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1.2	48.8
	전문가	(100)	58.0	4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3.7	46.3
	중	(580)	51.6	48.4
	하	(231)	45.9	54.1
성별	남성	(720)	55.8	44.2
	여성	(480)	44.2	55.8
연령별	20대 이하	(217)	52.1	47.9
	30대	(194)	54.1	45.9
	40대	(226)	51.3	48.7
	50대	(255)	52.2	47.8
	60대 이상	(308)	47.7	52.3
지역별	서울	(140)	50.0	50.0
	경기/인천	(245)	48.2	51.8
	부산/울산/경남	(208)	51.9	48.1
	대구/경북	(141)	49.6	50.4
	광주/전라	(170)	72.9	27.1
	대전/충청/세종	(205)	38.5	61.5
	강원/제주	(91)	49.5	50.5
지역크기	대도시	(524)	44.1	55.9
	중·소도시	(639)	57.6	42.4
	읍/면	(37)	40.5	59.5
직업별	농/어/임업	(50)	60.0	40.0
	자영업자	(185)	48.6	51.4
	판매/서비스직	(194)	54.1	45.9
	기능/숙련공	(127)	56.7	43.3
	일반 노무직	(41)	46.3	53.7
	사무/기술직	(283)	53.4	46.6
	경영/관리직	(19)	78.9	21.1
	전문/자유직	(7)	57.1	42.9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42.0	58.0
	학생	(73)	47.9	52.1
	무직/휴직/은퇴	(52)	42.3	57.7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5.6	64.4
	고등학교	(440)	50.5	49.5
	전문대	(266)	54.5	45.5
	4년제 대학교	(427)	51.8	48.2
	대학원 이상	(8)	62.5	37.5
생활수준별	상	(73)	63.0	37.0
	중	(544)	52.8	47.2
	하	(583)	48.2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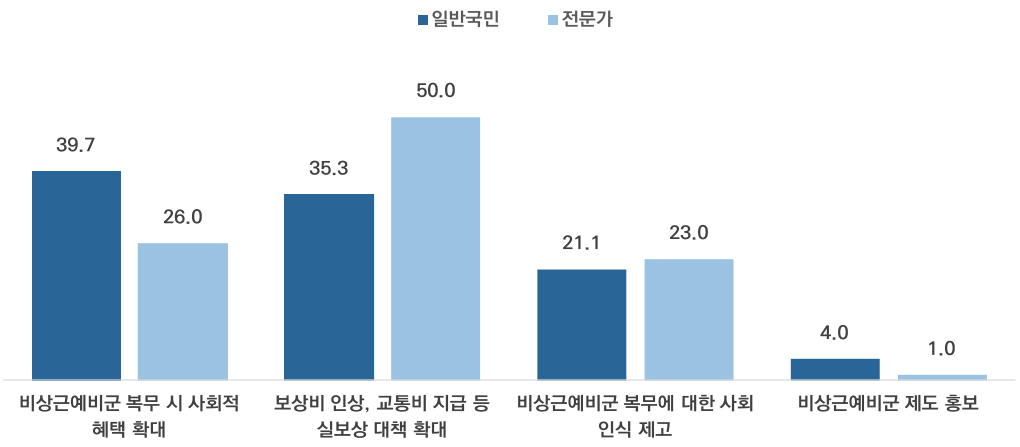
17.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 39.7%, 전문가는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35.3%), '비상근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는 35.3%로 2023년(32.2%) 대비 3.1%p 증가했으며, '비상근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는 21.1%로 2023년(20.5%)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26.0%), '비상근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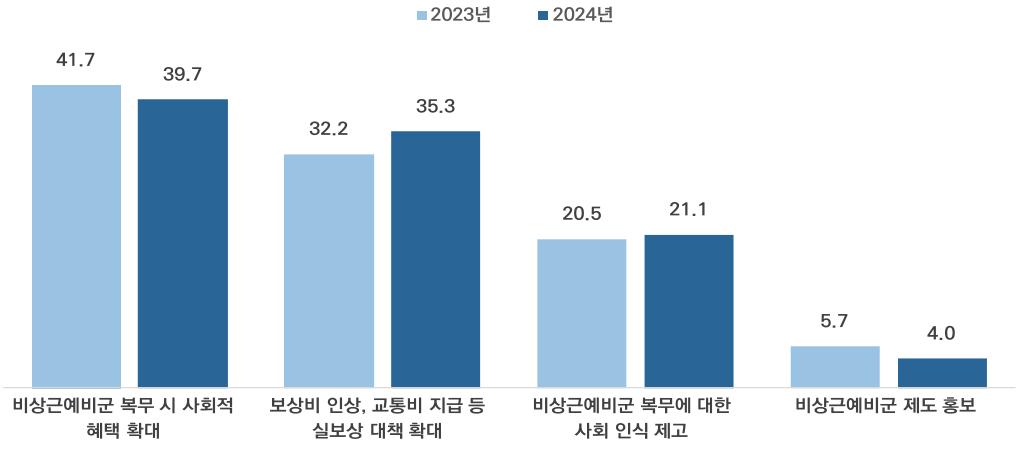
|그림 3-283|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단위 : %)



|그림 3-284|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는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7|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방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	비상근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비상근예비군 제도 홍보
전체		(1,300)	38.6	36.4	21.2	3.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7	35.3	21.1	4.0
	전문가	(100)	26.0	50.0	23.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8.0	29.6	27.2	5.1
	중	(580)	36.9	40.9	19.3	2.9
	하	(231)	49.4	30.7	15.2	4.8
성별	남성	(720)	40.1	36.5	20.3	3.1
	여성	(480)	39.0	33.3	22.3	5.4
연령별	20대 이하	(217)	42.9	35.0	19.4	2.8
	30대	(194)	41.2	33.5	20.1	5.2
	40대	(226)	35.4	35.8	23.9	4.9
	50대	(255)	39.2	34.5	22.7	3.5
	60대 이상	(308)	39.9	36.7	19.5	3.9
지역별	서울	(140)	50.7	32.9	12.9	3.6
	경기/인천	(245)	37.6	25.7	35.1	1.6
	부산/울산/경남	(208)	40.9	40.9	14.9	3.4
	대구/경북	(141)	21.3	64.5	8.5	5.7
	광주/전라	(170)	50.6	27.6	17.1	4.7
	대전/충청/세종	(205)	36.1	30.7	28.3	4.9
	강원/제주	(91)	41.8	30.8	20.9	6.6
지역크기	대도시	(524)	43.5	37.8	15.6	3.1
	중·소도시	(639)	37.1	34.6	23.8	4.5
	읍/면	(37)	29.7	10.8	51.4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0	32.0	22.0	6.0
	자영업자	(185)	34.1	35.1	24.9	5.9
	판매/서비스직	(194)	47.4	31.4	16.5	4.6
	기능/숙련공	(127)	31.5	37.0	29.1	2.4
	일반 노무직	(41)	31.7	43.9	19.5	4.9
	사무/기술직	(283)	45.2	34.6	17.3	2.8
	경영/관리직	(19)	21.1	42.1	31.6	5.3
	전문/자유직	(7)	14.3	57.1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전업주부	(169)	36.7	35.5	23.7	4.1
	학생	(73)	46.6	35.6	16.4	1.4
	무직/휴직/은퇴	(52)	36.5	38.5	19.2	5.8
	기타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5.4	44.1	27.1	3.4
	고등학교	(440)	40.0	33.0	23.2	3.9
	전문대	(266)	41.7	33.8	18.0	6.4
	4년제 대학교	(427)	40.3	36.5	20.4	2.8
	대학원 이상	(8)	25.0	75.0	-	-
생활수준별	상	(73)	32.9	28.8	35.6	2.7
	중	(544)	39.2	34.9	21.5	4.4
	하	(583)	41.0	36.4	18.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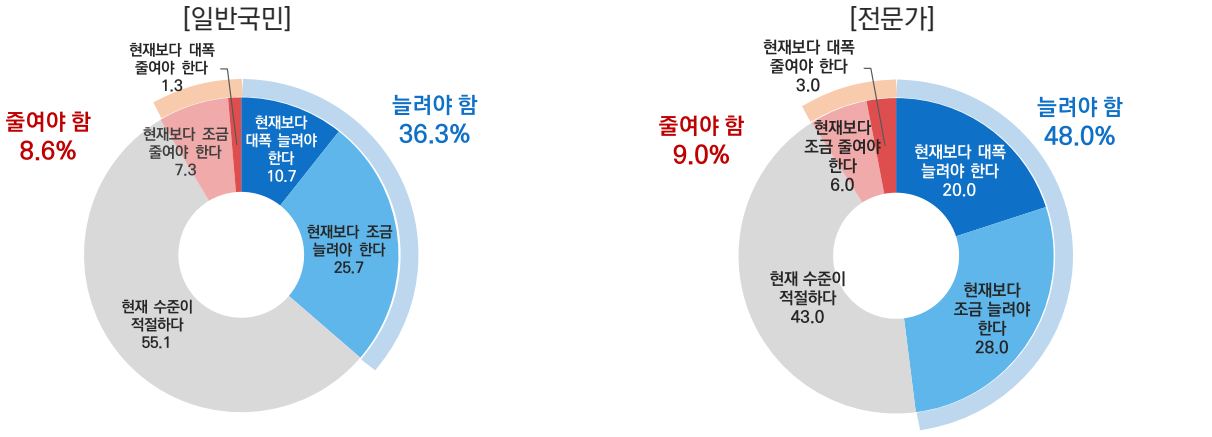
18.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6.3%, 전문가 4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줄여야 함'(8.6%)보다 27.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늘려야 함'은 2023년(38.5%) 대비 2.2%p 감소했으며, '줄여야 함'은 2023년(11.0%) 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늘려야 함'은 48.0%로 '줄여야 함'(9.0%)보다 39.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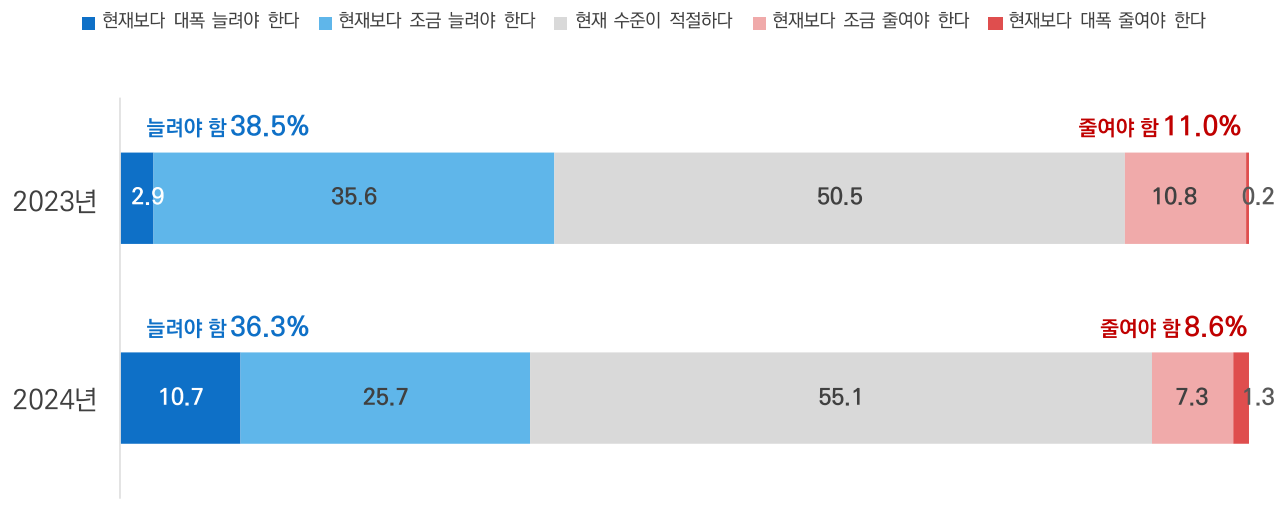
|그림 3-285|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단위 : %)



|그림 3-286|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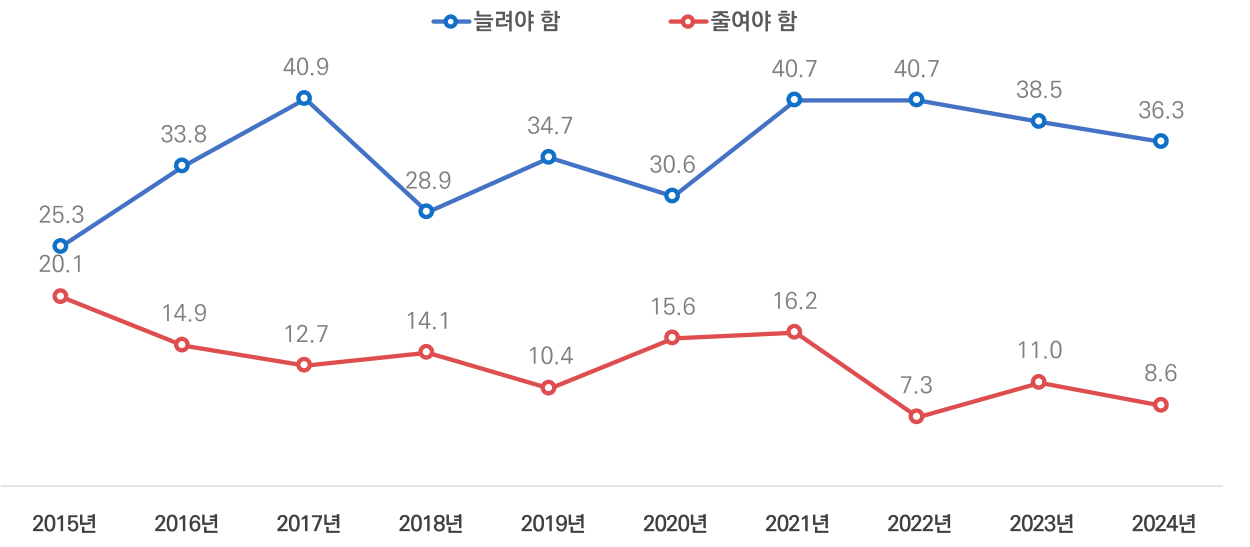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나라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p 증가했으며, '줄여야 한다'는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87|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88|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3.3	5.9	4.4	5.1	2.6	0.4	6.9	3.7	2.9	10.7	7.8	7.4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22.0	27.9	36.5	23.8	32.1	30.2	33.8	37.0	35.6	25.7	-9.9	3.7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54.7	51.3	46.3	57.1	54.9	53.8	43.0	52.0	50.5	55.1	4.6	0.4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18.6	13.8	11.4	12.5	9.9	14.6	12.9	6.6	10.8	7.3	-3.5	-11.3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1.5	1.1	1.3	1.6	0.5	1.0	3.3	0.8	0.2	1.3	1.1	-0.2
무응답	-	-	-	-	-	-	-	-	-	-	-	-
늘려야 함	25.3	33.8	40.9	28.9	34.7	30.6	40.7	40.7	38.5	36.3	-2.2	11.0
줄여야 함	20.1	14.9	12.7	14.1	10.4	15.6	16.2	7.3	11.0	8.6	-2.4	-11.5

✔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89|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종합		
								늘려야 함	적절함	줄여야 함
전체		(1,300)	11.4	25.8	54.2	7.2	1.5	37.2	54.2	8.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7	25.7	55.1	7.3	1.3	36.3	55.1	8.6
	전문가	(100)	20.0	28.0	43.0	6.0	3.0	48.0	43.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1.8	30.8	51.7	4.4	1.3	42.7	51.7	5.7
	중	(580)	10.7	25.0	56.2	6.7	1.4	35.7	56.2	8.1
	하	(231)	8.7	18.6	58.0	13.4	1.3	27.3	58.0	14.7
성별	남성	(720)	10.7	26.7	53.8	7.6	1.3	37.4	53.8	8.9
	여성	(480)	10.6	24.2	57.1	6.7	1.5	34.8	57.1	8.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1.5	28.1	51.2	7.8	1.4	39.6	51.2	9.2
	30대	(194)	9.8	24.2	52.6	11.9	1.5	34.0	52.6	13.4
	40대	(226)	12.8	26.1	53.1	7.5	0.4	38.9	53.1	8.0
	50대	(255)	10.6	23.9	59.2	5.5	0.8	34.5	59.2	6.3
	60대 이상	(308)	9.1	26.0	57.5	5.2	2.3	35.1	57.5	7.5
지역별	서울	(140)	5.7	20.7	50.0	17.9	5.7	26.4	50.0	23.6
	경기/인천	(245)	11.0	26.9	57.6	4.5	-	38.0	57.6	4.5
	부산/울산/경남	(208)	8.7	26.9	52.4	11.1	1.0	35.6	52.4	12.0
	대구/경북	(141)	16.3	40.4	37.6	2.8	2.8	56.7	37.6	5.7
	광주/전라	(170)	2.9	18.2	71.2	7.1	0.6	21.2	71.2	7.6
	대전/충청/세종	(205)	17.1	23.9	53.2	5.4	0.5	41.0	53.2	5.9
	강원/제주	(91)	13.2	22.0	63.7	1.1	-	35.2	63.7	1.1
지역크기	대도시	(524)	7.6	24.8	55.9	9.4	2.3	32.4	55.9	11.6
	중·소도시	(639)	13.6	25.5	54.8	5.5	0.6	39.1	54.8	6.1
	읍/면	(37)	2.7	40.5	48.6	8.1	-	43.2	48.6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26.0	54.0	14.0	2.0	30.0	54.0	16.0
	자영업자	(185)	12.4	27.6	54.1	5.9	-	40.0	54.1	5.9
	판매/서비스직	(194)	9.8	28.9	56.7	3.6	1.0	38.7	56.7	4.6
	기능/숙련공	(127)	11.8	23.6	55.9	7.1	1.6	35.4	55.9	8.7
	일반 노무직	(41)	14.6	26.8	51.2	7.3	-	41.5	51.2	7.3
	사무/기술직	(283)	8.8	24.0	56.2	9.2	1.8	32.9	56.2	11.0
	경영/관리직	(19)	5.3	36.8	57.9	-	-	42.1	57.9	-
	전문/자유직	(7)	14.3	14.3	71.4	-	-	28.6	71.4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3.6	18.9	57.4	7.1	3.0	32.5	57.4	10.1
	학생	(73)	11.0	35.6	42.5	11.0	-	46.6	42.5	11.0
	무직/휴직/은퇴	(52)	9.6	25.0	55.8	7.7	1.9	34.6	55.8	9.6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1.9	22.0	52.5	10.2	3.4	33.9	52.5	13.6
	고등학교	(440)	9.5	25.5	58.0	5.2	1.8	35.0	58.0	7.0
	전문대	(266)	12.4	24.1	56.8	6.4	0.4	36.5	56.8	6.8
	4년제 대학교	(427)	10.8	27.4	51.3	9.6	0.9	38.2	51.3	10.5
	대학원 이상	(8)	-	25.0	62.5	-	12.5	25.0	62.5	12.5
생활수준별	상	(73)	15.1	24.7	45.2	13.7	1.4	39.7	45.2	15.1
	중	(544)	9.9	25.9	55.7	7.0	1.5	35.8	55.7	8.5
	하	(583)	10.8	25.6	55.7	6.7	1.2	36.4	55.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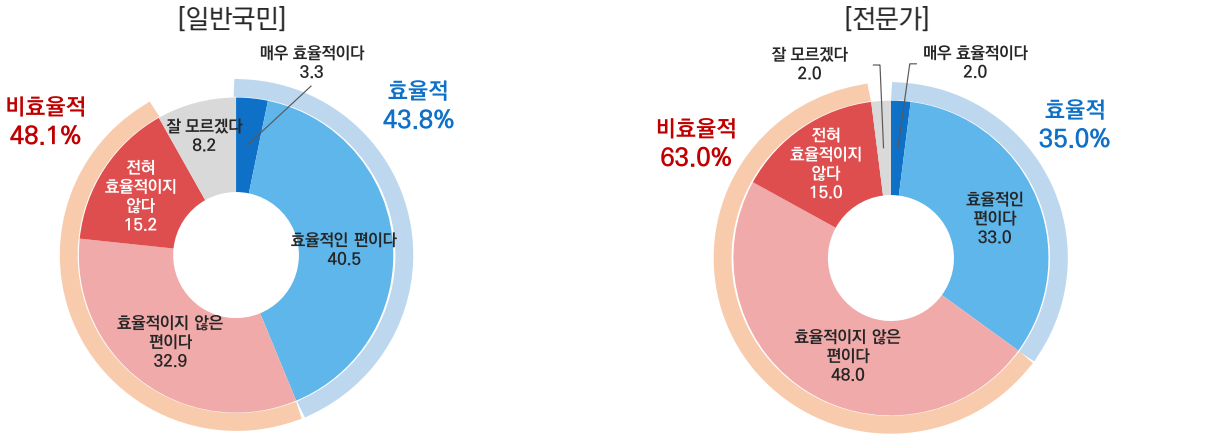
19.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48.1%, 전문가 6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효율적'(43.8%)보다 4.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56.3%) 대비 8.2%p 감소했으나,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2023년(36.2%) 대비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효율적'(35.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28.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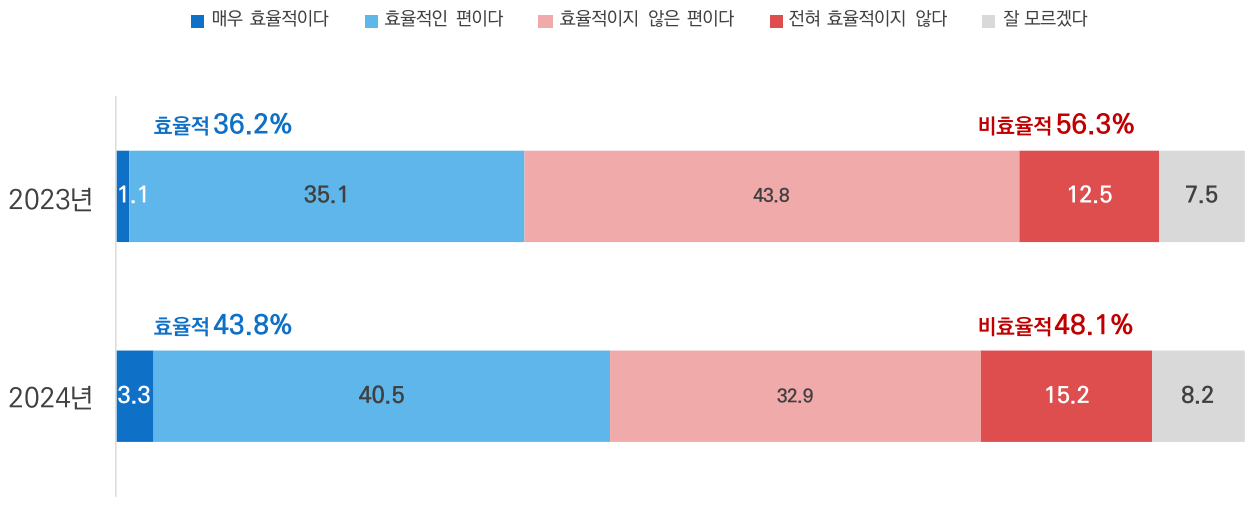
|그림 3-288|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단위 : %)



|그림 3-289|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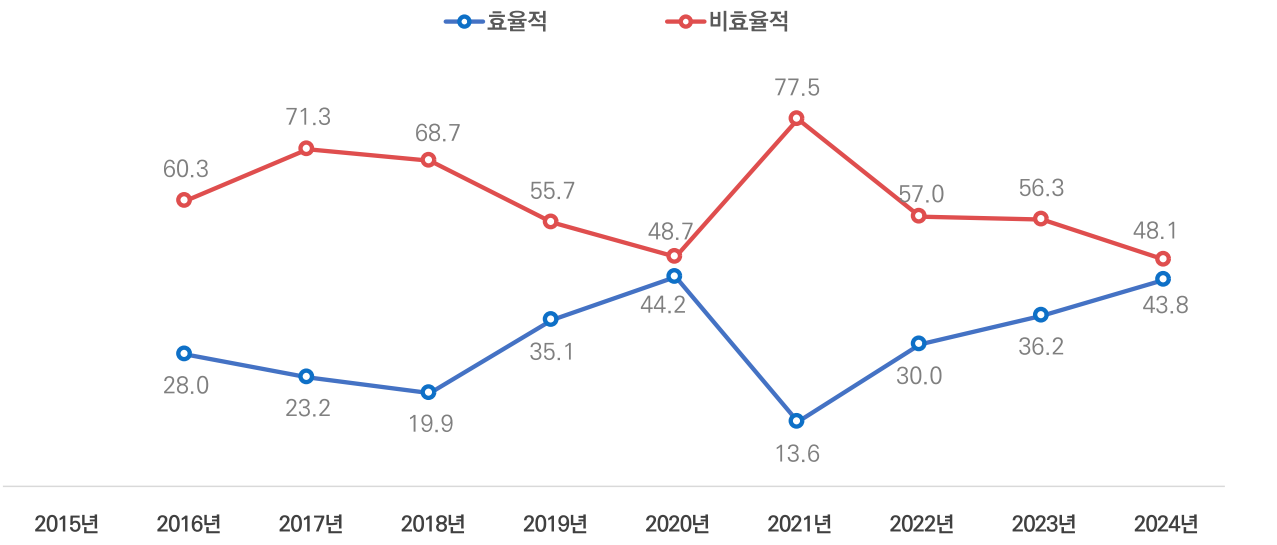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6년 대비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p 증가했으나, '효율적이지 않음'은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0|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90|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효율적이다	-	1.4	2.0	3.0	0.8	1.1	1.3	0.6	1.1	3.3	2.2	1.9
효율적인 편이다	-	26.6	21.2	16.9	34.3	43.1	12.3	29.4	35.1	40.5	5.4	13.9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	38.5	43.2	46.3	44.9	39.2	48.7	43.5	43.8	32.9	-10.9	-5.6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21.8	28.1	22.4	10.8	9.5	28.8	13.5	12.5	15.2	2.7	-6.6
잘 모르겠다	-	11.8	5.6	11.4	9.2	7.2	8.9	13.0	7.5	8.2	0.7	-3.6
무응답	-	-	-	-	-	-	-	-	-	-	-	-
효율적	-	28.0	23.2	19.9	35.1	44.2	13.6	30.0	36.2	43.8	7.6	15.8
비효율적	-	60.3	71.3	68.7	55.7	48.7	77.5	57.0	56.3	48.1	-8.2	-12.2

※ 2015년 문항 보기가 '매우 효율적이다-효율적인 편이다-보통이다-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로 되어있어 비교할 수 없음

국방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91|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편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효율적	효율적이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1,300)	3.2	39.9	34.1	15.2	7.7	43.1	49.2	7.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40.5	32.9	15.2	8.2	43.8	48.1	8.2
	전문가	(100)	2.0	33.0	48.0	15.0	2.0	35.0	63.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6	49.1	29.3	12.1	4.9	53.7	41.4	4.9
	중	(580)	3.4	39.7	33.4	15.0	8.4	43.1	48.4	8.4
	하	(231)	0.4	28.1	37.7	20.8	13.0	28.6	58.4	13.0
성별	남성	(720)	3.3	39.6	33.3	16.7	7.1	42.9	50.0	7.1
	여성	(480)	3.1	41.9	32.3	12.9	9.8	45.0	45.2	9.8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39.2	35.5	17.5	6.5	40.6	53.0	6.5
	30대	(194)	3.1	40.7	35.1	16.5	4.6	43.8	51.5	4.6
	40대	(226)	3.5	42.5	29.6	16.8	7.5	46.0	46.5	7.5
	50대	(255)	5.5	38.0	31.0	15.7	9.8	43.5	46.7	9.8
	60대 이상	(308)	2.6	41.9	33.8	11.0	10.7	44.5	44.8	10.7
지역별	서울	(140)	2.1	31.4	43.6	22.9	-	33.6	66.4	-
	경기/인천	(245)	3.3	55.9	24.9	11.4	4.5	59.2	36.3	4.5
	부산/울산/경남	(208)	1.9	40.4	32.2	19.7	5.8	42.3	51.9	5.8
	대구/경북	(141)	7.8	35.5	31.2	8.5	17.0	43.3	39.7	17.0
	광주/전라	(170)	2.9	27.1	46.5	21.2	2.4	30.0	67.6	2.4
	대전/충청/세종	(205)	1.5	47.3	31.2	14.6	5.4	48.8	45.9	5.4
	강원/제주	(91)	5.5	30.8	20.9	3.3	39.6	36.3	24.2	39.6
지역크기	대도시	(524)	3.1	40.8	34.4	16.2	5.5	43.9	50.6	5.5
	중·소도시	(639)	3.4	39.7	31.1	14.9	10.8	43.2	46.0	10.8
	읍/면	(37)	2.7	48.6	43.2	5.4	-	51.4	48.6	-
직업별	농/어/임업	(50)	-	24.0	48.0	12.0	16.0	24.0	60.0	16.0
	자영업자	(185)	3.8	40.5	32.4	15.7	7.6	44.3	48.1	7.6
	판매/서비스직	(194)	2.6	44.8	34.5	15.5	2.6	47.4	50.0	2.6
	기능/숙련공	(127)	3.9	38.6	31.5	19.7	6.3	42.5	51.2	6.3
	일반 노무직	(41)	4.9	43.9	31.7	12.2	7.3	48.8	43.9	7.3
	사무/기술직	(283)	2.5	43.1	29.3	18.4	6.7	45.6	47.7	6.7
	경영/관리직	(19)	5.3	68.4	10.5	10.5	5.3	73.7	21.1	5.3
	전문/자유직	(7)	14.3	14.3	42.9	-	28.6	28.6	42.9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4.1	45.0	30.2	8.9	11.8	49.1	39.1	11.8
	학생	(73)	2.7	26.0	46.6	15.1	9.6	28.8	61.6	9.6
	무직/휴직/은퇴	(52)	3.8	26.9	34.6	13.5	21.2	30.8	48.1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30.5	42.4	15.3	11.9	30.5	57.6	11.9
	고등학교	(440)	3.4	42.7	32.7	13.0	8.2	46.1	45.7	8.2
	전문대	(266)	3.4	42.1	30.1	16.2	8.3	45.5	46.2	8.3
	4년제 대학교	(427)	3.5	39.3	32.6	16.9	7.7	42.9	49.4	7.7
	대학원 이상	(8)	-	-	87.5	12.5	-	-	100.0	-
생활수준별	상	(73)	12.3	38.4	23.3	16.4	9.6	50.7	39.7	9.6
	중	(544)	3.5	44.3	33.5	11.9	6.8	47.8	45.4	6.8
	하	(583)	1.9	37.2	33.6	18.0	9.3	39.1	51.6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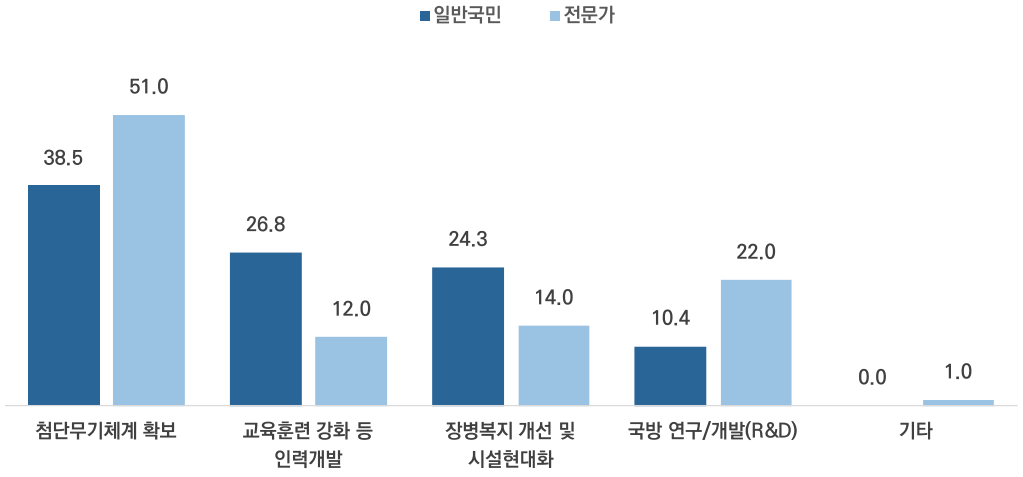
20.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향후 국방예산을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가 일반국민 38.5%, 전문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국방예산을 투자해야할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8%),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가 2023년(28.9%) 대비 4.6%p 감소했으며, '첨단무기체계 확보'는 2023년(35.9%) 대비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첨단무기체계 확보'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방 연구/개발(R&D)' (22.0%),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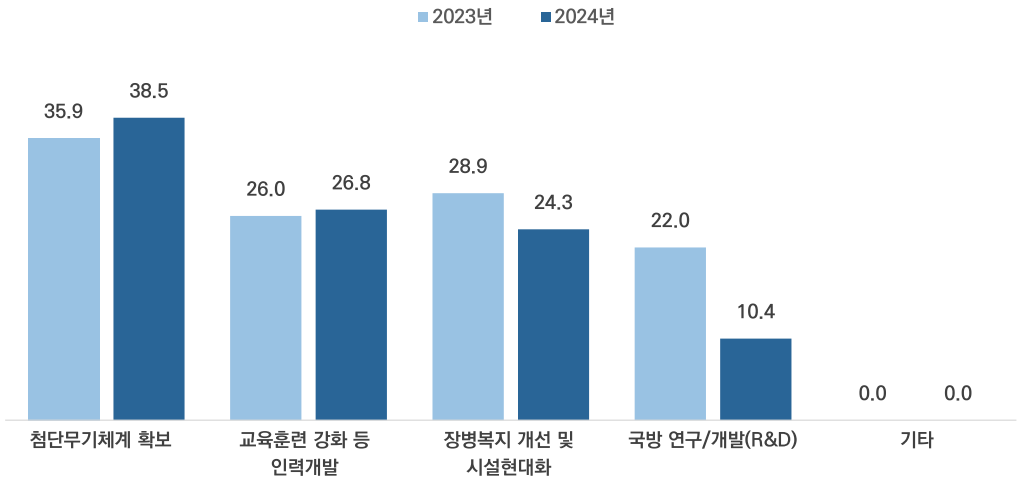
|그림 3-291|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단위 : %)



|그림 3-292|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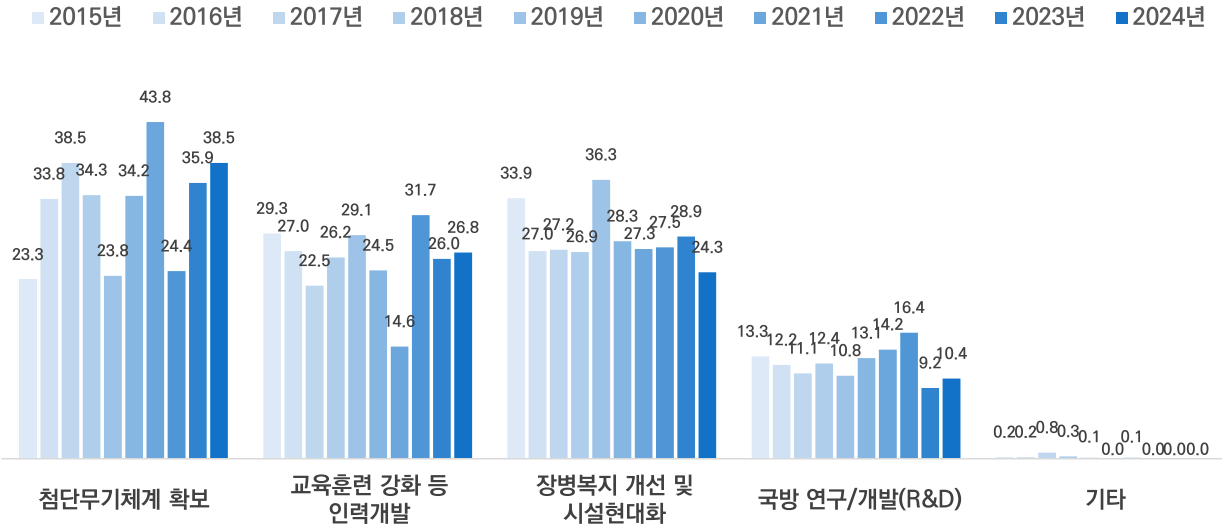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향후 국방예산을 투자해야할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는 15.2%p 증가했으나,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는 9.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3|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92|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첨단무기체계 확보	23.3	33.8	38.5	34.3	23.8	34.2	43.8	24.4	35.9	38.5	2.6	15.2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29.3	27.0	22.5	26.2	29.1	24.5	14.6	31.7	26.0	26.8	0.8	-2.5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33.9	27.0	27.2	26.9	36.3	28.3	27.3	27.5	28.9	24.3	-4.6	-9.6
국방 연구/개발 (R&D)	13.3	12.2	11.1	12.4	10.8	13.1	14.2	16.4	9.2	10.4	1.2	-2.9
기타	0.2	0.2	0.8	0.3	0.1	0.0	0.1	0.0	0.0	0.0	0.0	0.0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는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93| 향후 국방예산 투자 분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첨단무기체계 확보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국방 연구/개발 (R&D)	기타
전체		(1,300)	39.5	25.7	23.5	11.3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5	26.8	24.3	10.4	-
	전문가	(100)	51.0	12.0	14.0	22.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3.4	27.2	30.1	9.3	-
	중	(580)	38.3	27.9	23.1	10.7	-
	하	(231)	47.6	23.4	17.3	11.7	-
성별	남성	(720)	41.4	23.8	24.7	10.1	-
	여성	(480)	34.2	31.5	23.5	10.8	-
연령별	20대 이하	(217)	38.7	25.8	27.2	8.3	-
	30대	(194)	38.7	27.8	23.7	9.8	-
	40대	(226)	36.7	26.1	23.5	13.7	-
	50대	(255)	39.6	28.6	23.5	8.2	-
	60대 이상	(308)	38.6	26.0	23.7	11.7	-
지역별	서울	(140)	40.7	35.7	11.4	12.1	-
	경기/인천	(245)	35.1	25.7	29.8	9.4	-
	부산/울산/경남	(208)	41.3	24.0	26.4	8.2	-
	대구/경북	(141)	50.4	24.1	10.6	14.9	-
	광주/전라	(170)	25.3	32.9	34.7	7.1	-
	대전/충청/세종	(205)	30.2	26.3	31.7	11.7	-
	강원/제주	(91)	62.6	16.5	8.8	12.1	-
지역크기	대도시	(524)	34.2	31.9	22.7	11.3	-
	중·소도시	(639)	42.7	23.3	24.1	9.9	-
	읍/면	(37)	27.0	16.2	48.6	8.1	-
직업별	농/어/임업	(50)	58.0	10.0	16.0	16.0	-
	자영업자	(185)	31.9	28.1	24.9	15.1	-
	판매/서비스직	(194)	27.3	32.5	32.0	8.2	-
	기능/숙련공	(127)	35.4	25.2	33.1	6.3	-
	일반 노무직	(41)	43.9	29.3	24.4	2.4	-
	사무/기술직	(283)	39.9	26.9	23.3	9.9	-
	경영/관리직	(19)	57.9	15.8	15.8	10.5	-
	전문/자유직	(7)	71.4	14.3	-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42.6	28.4	15.4	13.6	-
	학생	(73)	52.1	17.8	26.0	4.1	-
	무직/휴직/은퇴	(52)	36.5	32.7	17.3	13.5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45.8	32.2	15.3	6.8	-
	고등학교	(440)	36.6	24.8	27.0	11.6	-
	전문대	(266)	34.6	36.5	21.8	7.1	-
	4년제 대학교	(427)	41.9	22.2	24.1	11.7	-
	대학원 이상	(8)	37.5	25.0	25.0	12.5	-
생활수준별	상	(73)	46.6	19.2	23.3	11.0	-
	중	(544)	35.8	28.9	22.6	12.7	-
	하	(583)	40.0	25.9	25.9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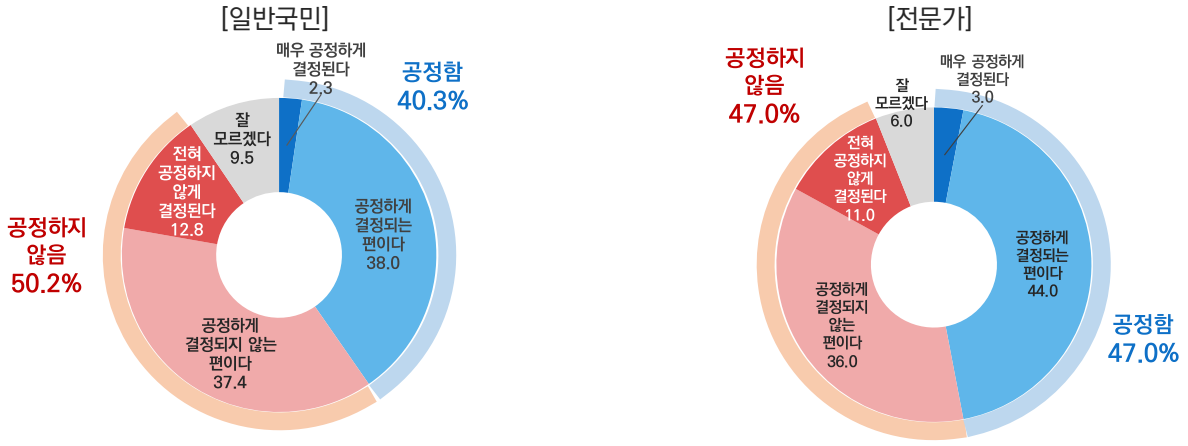
21.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 않음'은 일반국민 50.2%, 전문가 47.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음'이 50.2%로 '공정함'(40.3%)보다 9.9%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공정함'은 2023년(43.8%) 대비 3.5%p 감소했으며, '공정하지 않음'은 2023년(49.9%)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공정하지 않음'은 47.0%로 '공정함'(47.0%)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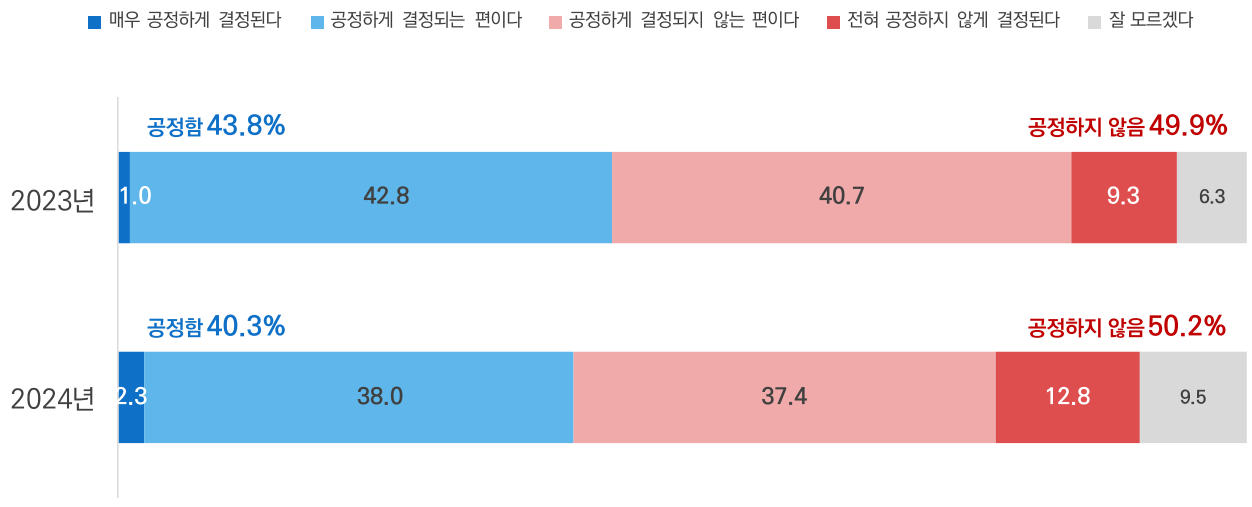
|그림 3-294|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단위 : %)



|그림 3-295|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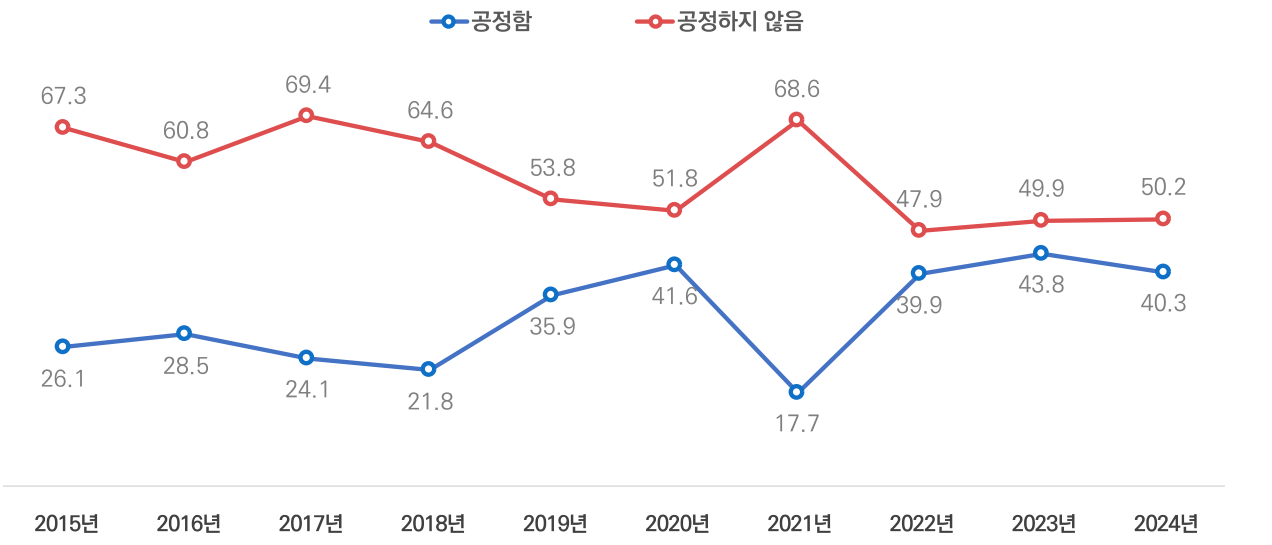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p 증가했으나, '공정하지 않다'는 1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6|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94|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2.4	2.3	2.8	2.4	1.2	1.3	1.8	2.0	1.0	2.3	1.3	-0.1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23.7	26.2	21.3	19.4	34.8	40.3	15.9	37.9	42.8	38.0	-4.8	14.3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42.4	39.8	44.6	42.3	44.0	42.3	42.6	40.9	40.7	37.4	-3.3	-5.0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24.9	21.0	24.8	22.3	9.8	9.5	26.0	7.0	9.3	12.8	3.5	-12.1
잘 모르겠다	6.6	10.8	6.5	13.6	10.3	6.7	13.8	12.2	6.3	9.5	3.2	2.9
무응답	-	-	-	-	-	-	-	-	-	-	-	-
공정함	26.1	28.5	24.1	21.8	35.9	41.6	17.7	39.9	43.8	40.3	-3.5	14.2
공정하지 않음	67.3	60.8	69.4	64.6	53.8	51.8	68.6	47.9	49.9	50.2	0.3	-17.1

✓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 않음'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95|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잘 모르겠다	종합		
								공정함	공정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1,300)	2.4	38.5	37.3	12.6	9.2	40.8	49.9	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38.0	37.4	12.8	9.5	40.3	50.2	9.5
	전문가	(100)	3.0	44.0	36.0	11.0	6.0	47.0	47.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6	47.6	33.4	9.8	5.7	51.2	43.2	5.7
	중	(580)	1.6	35.9	39.8	13.8	9.0	37.4	53.6	9.0
	하	(231)	2.2	27.3	38.1	15.2	17.3	29.4	53.2	17.3
성별	남성	(720)	2.4	40.0	35.8	13.8	8.1	42.4	49.6	8.1
	여성	(480)	2.3	35.0	39.8	11.3	11.7	37.3	51.0	11.7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38.2	30.0	15.2	14.7	40.1	45.2	14.7
	30대	(194)	3.6	39.2	37.1	12.4	7.7	42.8	49.5	7.7
	40대	(226)	2.7	40.3	39.8	9.3	8.0	42.9	49.1	8.0
	50대	(255)	2.0	33.7	42.4	13.7	8.2	35.7	56.1	8.2
	60대 이상	(308)	1.9	39.0	37.0	13.0	9.1	40.9	50.0	9.1
지역별	서울	(140)	2.1	29.3	39.3	27.1	2.1	31.4	66.4	2.1
	경기/인천	(245)	1.6	45.3	41.6	6.9	4.5	46.9	48.6	4.5
	부산/울산/경남	(208)	1.4	38.5	38.9	15.9	5.3	39.9	54.8	5.3
	대구/경북	(141)	3.5	34.0	33.3	7.1	22.0	37.6	40.4	22.0
	광주/전라	(170)	0.6	28.8	50.0	11.8	8.8	29.4	61.8	8.8
	대전/충청/세종	(205)	2.0	47.8	31.7	12.7	5.9	49.8	44.4	5.9
	강원/제주	(91)	8.8	31.9	15.4	9.9	34.1	40.7	25.3	34.1
지역크기	대도시	(524)	2.1	36.6	38.5	15.1	7.6	38.7	53.6	7.6
	중·소도시	(639)	2.5	37.7	37.4	11.1	11.3	40.2	48.5	11.3
	읍/면	(37)	2.7	62.2	21.6	8.1	5.4	64.9	29.7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	28.0	50.0	16.0	6.0	28.0	66.0	6.0
	자영업자	(185)	1.1	38.9	38.9	15.1	5.9	40.0	54.1	5.9
	판매/서비스직	(194)	3.6	40.7	38.1	10.3	7.2	44.3	48.5	7.2
	기능/숙련공	(127)	-	34.6	44.9	15.0	5.5	34.6	59.8	5.5
	일반 노무직	(41)	2.4	53.7	19.5	14.6	9.8	56.1	34.1	9.8
	사무/기술직	(283)	2.8	39.9	34.6	13.1	9.5	42.8	47.7	9.5
	경영/관리직	(19)	5.3	57.9	26.3	10.5	-	63.2	36.8	-
	전문/자유직	(7)	14.3	42.9	14.3	-	28.6	57.1	14.3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4	34.3	41.4	10.1	11.8	36.7	51.5	11.8
	학생	(73)	2.7	32.9	32.9	11.0	20.5	35.6	43.8	20.5
	무직/휴직/은퇴	(52)	3.8	30.8	28.8	15.4	21.2	34.6	44.2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28.8	33.9	18.6	15.3	32.2	52.5	15.3
	고등학교	(440)	2.0	38.4	39.8	12.7	7.0	40.5	52.5	7.0
	전문대	(266)	1.5	36.8	41.4	13.2	7.1	38.3	54.5	7.1
	4년제 대학교	(427)	2.8	39.6	33.3	11.5	12.9	42.4	44.7	12.9
	대학원 이상	(8)	12.5	37.5	25.0	25.0	-	50.0	50.0	-
생활수준별	상	(73)	5.5	39.7	30.1	17.8	6.8	45.2	47.9	6.8
	중	(544)	1.7	41.5	35.8	12.5	8.5	43.2	48.3	8.5
	하	(583)	2.6	34.5	39.8	12.3	10.8	37.0	52.1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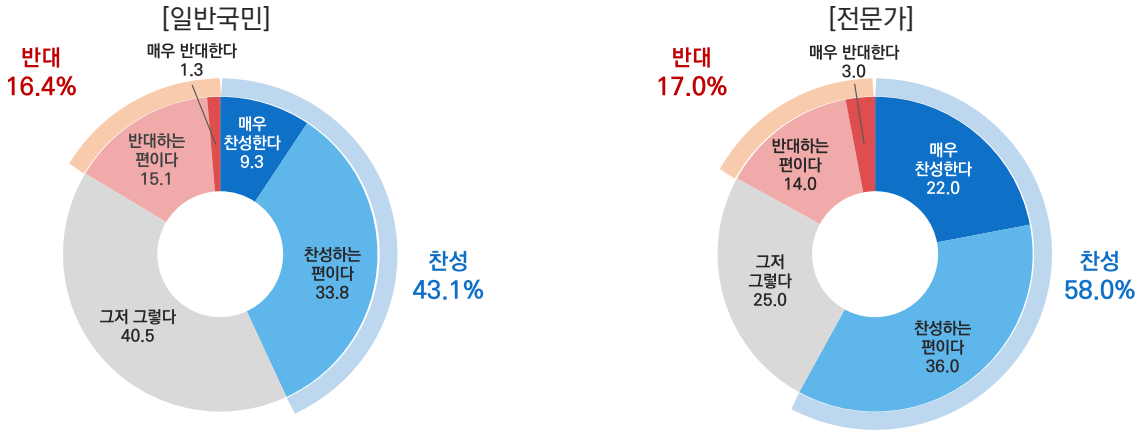
22.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9]을 더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 43.1%, 전문가 58.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3.1%로 '반대'(16.4%)하는 비율보다 26.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찬성'하는 비율은 2023년(33.4%) 대비 9.7%p 증가했으나, '반대'하는 비율은 2023년(24.9%) 대비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하는 비율은 58.0%로 '반대'(17.0%)하는 비율보다 41.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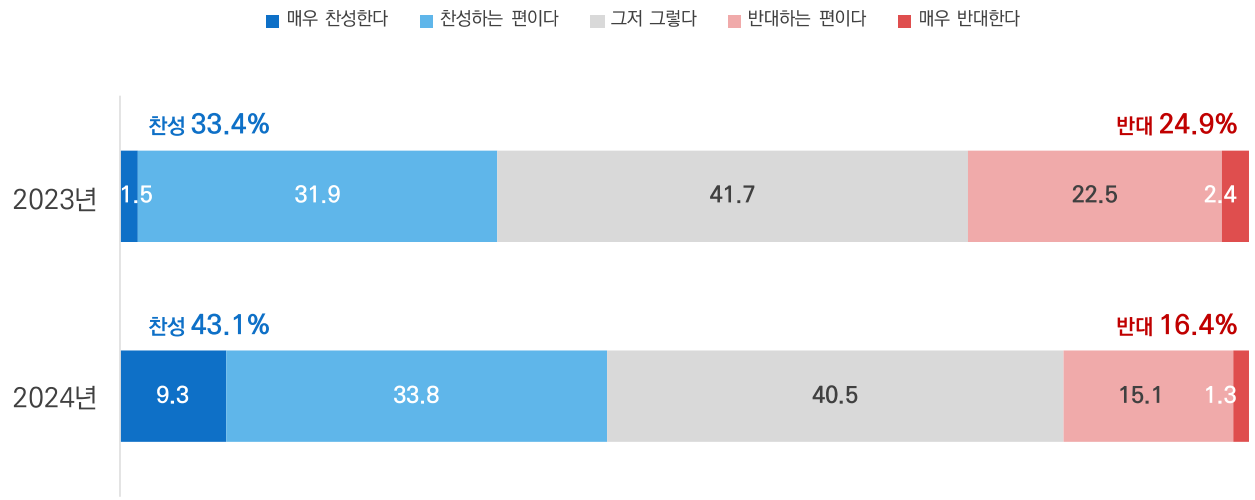
|그림 3-297|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그림 3-298|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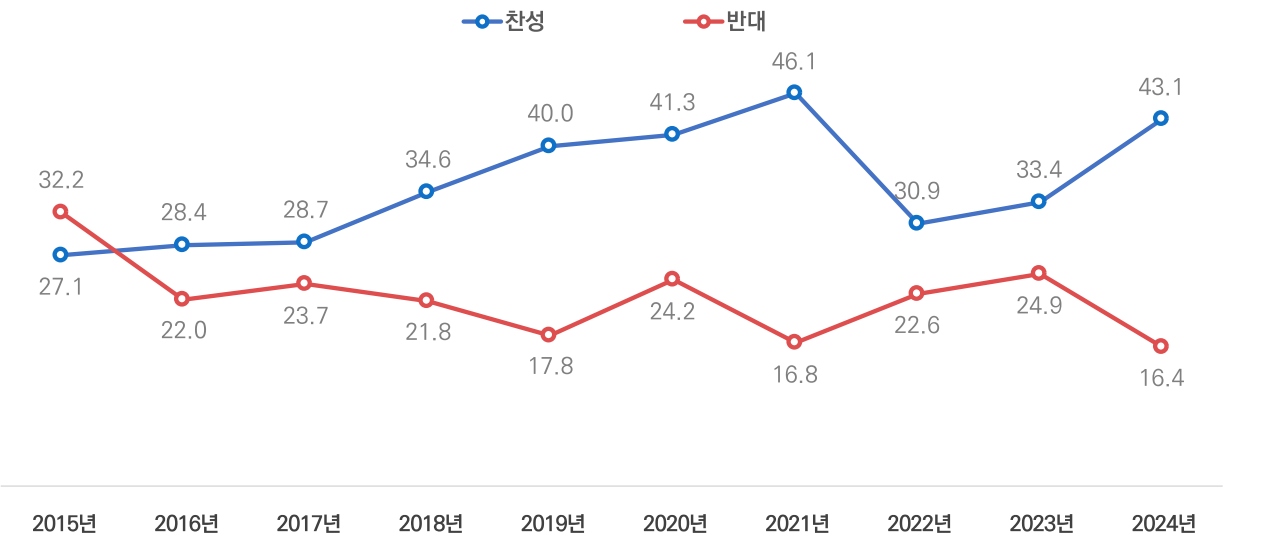


9) 2024년 용어 수정(세금⇒국방예산)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16.0%p 증가했으나, '반대'하는 비율은 1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9|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196|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찬성한다	2.3	1.8	3.4	5.0	1.2	1.2	8.5	1.2	1.5	9.3	7.8	7.0
찬성하는 편이다	24.8	26.6	25.3	29.6	38.8	40.1	37.6	29.8	31.9	33.8	1.9	9.0
그저 그렇다	40.8	49.6	47.7	43.7	42.2	34.6	37.1	46.5	41.7	40.5	-1.2	-0.3
반대하는 편이다	28.7	18.3	21.3	19.1	15.1	20.9	12.1	19.3	22.5	15.1	-7.4	-13.6
매우 반대한다	3.5	3.7	2.3	2.7	2.8	3.3	4.8	3.3	2.4	1.3	-1.1	-2.2
무응답	-	-	-	-	-	-	-	-	-	-	-	-
찬성	27.1	28.4	28.7	34.6	40.0	41.3	46.1	30.9	33.4	43.1	9.7	16.0
반대	32.2	22.0	23.7	21.8	17.8	24.2	16.8	22.6	24.9	16.4	-8.5	-15.8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97|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10.3	33.9	39.3	15.0	1.5	44.2	39.3	16.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3	33.8	40.5	15.1	1.3	43.1	40.5	16.4
	전문가	(100)	22.0	36.0	25.0	14.0	3.0	58.0	25.0	1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2.1	32.4	42.2	12.3	1.0	44.5	42.2	13.4
	중	(580)	8.6	34.5	40.2	15.2	1.6	43.1	40.2	16.7
	하	(231)	6.5	34.2	38.5	19.5	1.3	40.7	38.5	20.8
성별	남성	(720)	9.6	33.9	40.4	14.9	1.3	43.5	40.4	16.1
	여성	(480)	9.0	33.5	40.6	15.4	1.5	42.5	40.6	16.9
연령별	20대 이하	(217)	10.1	32.7	38.2	16.6	2.3	42.9	38.2	18.9
	30대	(194)	8.8	35.6	42.3	13.4	-	44.3	42.3	13.4
	40대	(226)	9.7	34.1	40.7	15.0	0.4	43.8	40.7	15.5
	50대	(255)	9.4	25.9	45.9	18.0	0.8	35.3	45.9	18.8
	60대 이상	(308)	8.8	39.6	36.4	12.7	2.6	48.4	36.4	15.3
지역별	서울	(140)	2.1	30.7	37.9	23.6	5.7	32.9	37.9	29.3
	경기/인천	(245)	12.7	29.4	44.5	13.1	0.4	42.0	44.5	13.5
	부산/울산/경남	(208)	4.3	35.6	37.0	22.1	1.0	39.9	37.0	23.1
	대구/경북	(141)	13.5	47.5	34.0	3.5	1.4	61.0	34.0	5.0
	광주/전라	(170)	0.6	22.9	54.1	22.4	-	23.5	54.1	22.4
	대전/충청/세종	(205)	18.5	37.1	35.1	8.3	1.0	55.6	35.1	9.3
	강원/제주	(91)	12.1	37.4	38.5	11.0	1.1	49.5	38.5	12.1
지역크기	대도시	(524)	5.0	34.2	41.2	17.6	2.1	39.1	41.2	19.7
	중·소도시	(639)	13.3	33.0	39.3	13.6	0.8	46.3	39.3	14.4
	읍/면	(37)	2.7	40.5	51.4	5.4	-	43.2	51.4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30.0	54.0	12.0	-	34.0	54.0	12.0
	자영업자	(185)	9.2	30.3	45.9	13.0	1.6	39.5	45.9	14.6
	판매/서비스직	(194)	6.7	36.1	39.2	17.0	1.0	42.8	39.2	18.0
	기능/숙련공	(127)	8.7	32.3	37.8	21.3	-	40.9	37.8	21.3
	일반 노무직	(41)	17.1	29.3	36.6	14.6	2.4	46.3	36.6	17.1
	사무/기술직	(283)	9.9	30.4	43.5	15.2	1.1	40.3	43.5	16.3
	경영/관리직	(19)	10.5	42.1	31.6	15.8	-	52.6	31.6	15.8
	전문/자유직	(7)	-	57.1	42.9	-	-	57.1	42.9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1.8	39.1	32.0	14.8	2.4	50.9	32.0	17.2
	학생	(73)	12.3	37.0	35.6	12.3	2.7	49.3	35.6	15.1
	무직/휴직/은퇴	(52)	5.8	38.5	44.2	9.6	1.9	44.2	44.2	11.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5	44.1	35.6	8.5	3.4	52.5	35.6	11.9
	고등학교	(440)	10.2	33.9	39.3	15.0	1.6	44.1	39.3	16.6
	전문대	(266)	5.6	36.1	39.8	18.0	0.4	41.7	39.8	18.4
	4년제 대학교	(427)	10.8	31.4	41.9	14.5	1.4	42.2	41.9	15.9
	대학원 이상	(8)	12.5	-	87.5	-	-	12.5	87.5	-
생활수준별	상	(73)	12.3	26.0	42.5	17.8	1.4	38.4	42.5	19.2
	중	(544)	8.5	34.4	41.5	14.2	1.5	42.8	41.5	15.6
	하	(583)	9.8	34.1	39.3	15.6	1.2	43.9	39.3	16.8

2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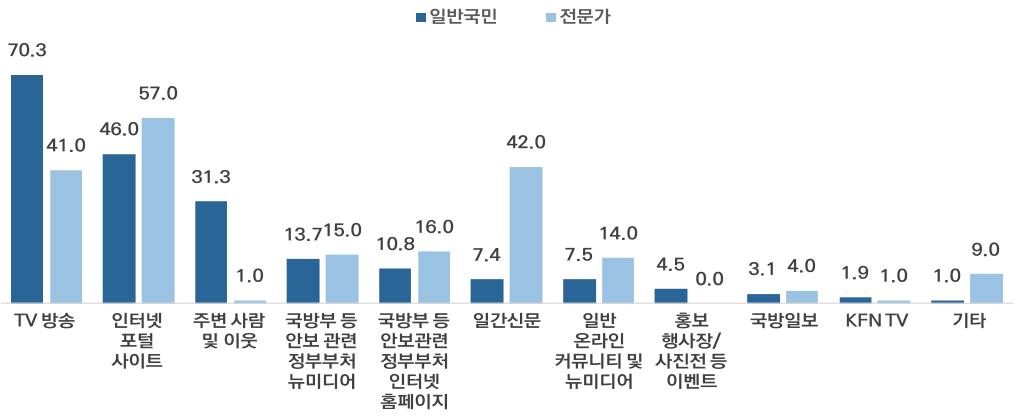
1) 1+2순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로 일반국민은 'TV방송' 70.3%, 전문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남(1+2순위 기준)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로 'TV방송'은 7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46.0%), '주변 사람 및 이웃'(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는 2023년(10.3%) 대비 3.4%p 증가했으며, 'KFN TV(국방TV)'는 2023년(8.8%) 대비 6.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5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간신문'(42.0%), 'TV방송'(4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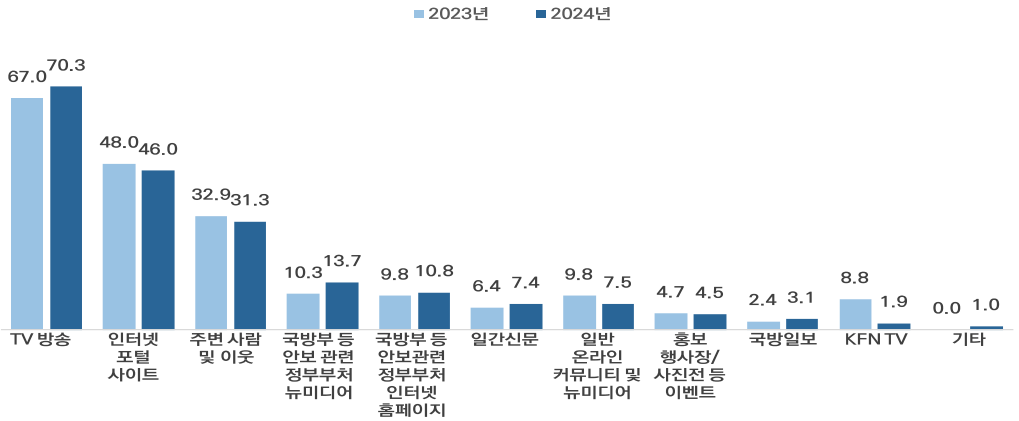
|그림 3-30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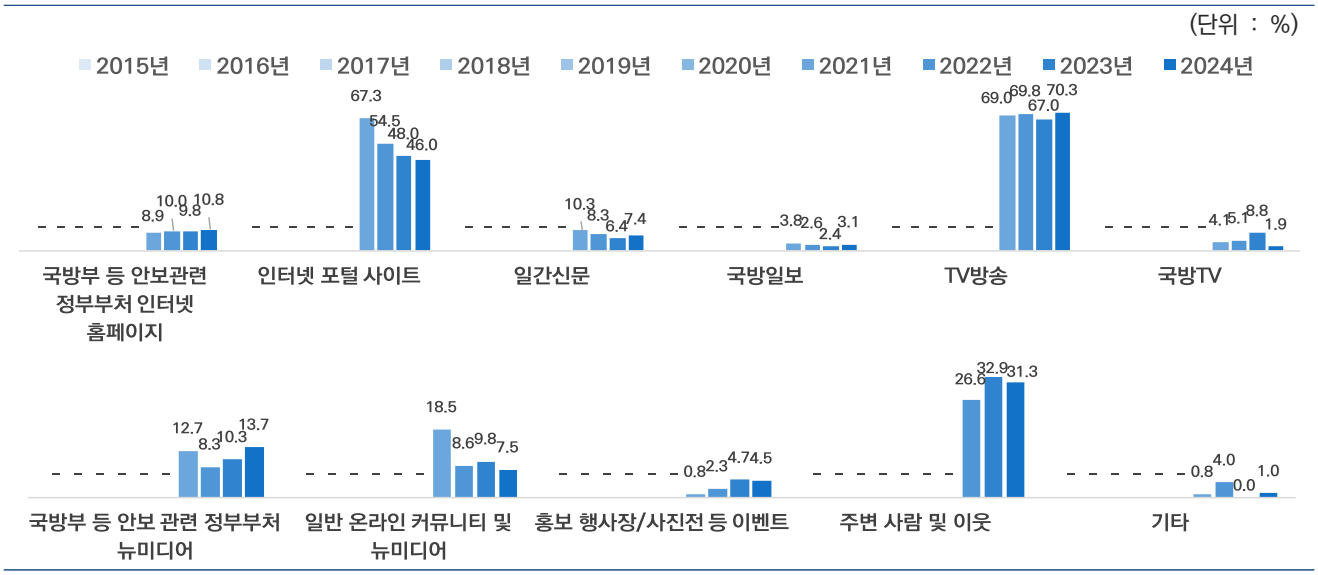
|그림 3-30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 21.3%p 감소했으며,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는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2|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198|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	-	-	-	-	-	8.9	10.0	9.8	10.8	1.0	1.9
인터넷 포털 사이트	-	-	-	-	-	-	67.3	54.5	48.0	46.0	-2.0	-21.3
일간신문	-	-	-	-	-	-	10.3	8.3	6.4	7.4	1.0	-2.9
국방일보	-	-	-	-	-	-	3.8	2.6	2.4	3.1	0.7	-0.7
TV방송	-	-	-	-	-	-	69.0	69.8	67.0	70.3	3.3	1.3
국방TV	-	-	-	-	-	-	4.1	5.1	8.8	1.9	-6.9	-2.2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	-	-	-	-	-	12.7	8.3	10.3	13.7	3.4	1.0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	-	-	-	-	18.5	8.6	9.8	7.5	-2.3	-11.0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	-	-	-	-	-	0.8	2.3	4.7	4.5	-0.2	3.7
주변 사람 및 이웃	-	-	-	-	-	-	-	26.6	32.9	31.3	-1.6	-
기타	-	-	-	-	-	-	0.8	4.0	0.0	1.0	1.0	0.2

※ 2015~2020년은 1+2순위 분석만 진행하여 비교할 수 없음
※ 2022년부터 '주변 사람 및 이웃' 보기 항목 추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로 'TV방송'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9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변 사람 및 이웃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 신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홍보 행사장/ 사진전 등 이벤트	국방 일보	KFN TV	기타
전체		(1,300)	68.0	46.8	29.0	13.8	11.2	10.1	8.0	4.2	3.2	1.8	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0.3	46.0	31.3	13.7	10.8	7.4	7.5	4.5	3.1	1.9	1.0
	전문가	(100)	41.0	57.0	1.0	15.0	16.0	42.0	14.0	-	4.0	1.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72.2	32.9	39.1	13.4	10.8	9.5	6.9	5.7	3.9	2.3	0.0
	중	(580)	69.1	52.6	27.2	14.8	11.4	5.9	7.2	4.1	2.6	1.7	1.4
	하	(231)	69.7	51.5	28.6	11.3	9.1	7.8	9.1	3.5	3.0	1.7	1.7
성별	남성	(720)	68.6	47.5	28.1	14.7	11.5	8.3	8.6	4.9	2.5	1.7	1.3
	여성	(480)	72.7	43.8	36.3	12.1	9.6	6.0	5.8	4.0	4.0	2.3	0.6
연령별	20대 이하	(217)	61.8	62.7	16.6	20.7	14.7	5.5	6.9	4.1	3.2	0.5	0.5
	30대	(194)	60.3	56.2	22.7	18.0	11.3	6.2	11.3	4.1	5.2	1.0	2.1
	40대	(226)	67.3	50.4	26.1	14.6	8.4	11.9	7.5	5.3	2.7	2.7	0.4
	50대	(255)	76.5	40.8	36.9	9.8	9.8	5.1	8.6	5.5	2.7	0.8	0.8
	60대 이상	(308)	79.5	28.9	46.4	8.4	10.1	8.1	4.5	3.6	2.3	3.9	1.3
지역별	서울	(140)	40.7	56.4	20.0	21.4	22.1	12.9	15.7	1.4	4.3	0.0	0.0
	경기/인천	(245)	66.5	47.8	23.3	14.3	15.9	8.6	6.1	6.9	6.5	2.0	1.2
	부산/울산/경남	(208)	82.7	44.7	27.9	12.5	5.3	4.8	3.4	0.5	0.5	5.8	1.4
	대구/경북	(141)	78.0	43.3	38.3	9.2	4.3	7.1	10.6	7.1	-	1.4	0.7
	광주/전라	(170)	80.0	38.2	59.4	2.4	8.8	8.2	1.8	0.6	0.6	0.0	0.0
	대전/충청/세종	(205)	68.8	44.4	26.8	17.1	10.2	6.8	5.9	11.2	4.9	1.5	2.4
	강원/제주	(91)	70.3	50.5	25.3	23.1	6.6	2.2	17.6	-	3.3	1.1	0.0
지역크기	대도시	(524)	65.8	49.2	27.7	16.2	11.1	7.8	9.0	2.7	2.9	1.3	0.6
	중·소도시	(639)	73.7	43.7	33.3	11.4	10.6	7.5	6.3	6.1	3.4	2.3	1.4
	읍/면	(37)	73.0	40.5	48.6	16.2	8.1	-	8.1	2.7	-	2.7	0.0
직업별	농/어/임업	(50)	92.0	32.0	52.0	2.0	-	2.0	12.0	4.0	-	4.0	0.0
	자영업자	(185)	65.4	37.8	31.4	13.5	15.1	14.1	6.5	5.9	5.9	2.7	0.0
	판매/서비스직	(194)	66.0	53.6	33.5	12.9	9.3	8.8	6.7	4.1	2.1	0.0	1.0
	기능/숙련공	(127)	77.2	39.4	37.0	15.7	9.4	6.3	2.4	3.1	-	2.4	3.1
	일반 노무직	(41)	78.0	36.6	39.0	4.9	2.4	7.3	4.9	9.8	2.4	7.3	0.0
	사무/기술직	(283)	66.4	58.3	19.8	17.0	11.3	4.9	9.9	3.5	3.2	1.4	1.4
	경영/관리직	(19)	68.4	73.7	10.5	15.8	10.5	-	21.1	-	-	0.0	0.0
	전문/자유직	(7)	71.4	85.7	-	28.6	-	-	14.3	-	-	0.0	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	-	-	-
	전업주부	(169)	75.1	34.9	40.8	11.2	10.7	5.9	7.1	5.3	4.1	2.4	0.0
	학생	(73)	63.0	53.4	21.9	13.7	20.5	6.8	9.6	6.8	1.4	0.0	0.0
	무직/휴직/은퇴	(52)	75.0	26.9	40.4	17.3	5.8	9.6	3.8	1.9	7.7	3.8	3.8
	기타	(-)	-	-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1.4	23.7	52.5	3.4	8.5	10.2	5.1	3.4	3.4	8.5	0.0
	고등학교	(440)	77.0	35.0	41.8	8.9	10.7	8.4	4.5	5.9	2.3	1.6	0.9
	전문대	(266)	64.7	53.8	27.1	16.5	10.5	7.5	6.4	2.3	3.8	2.3	0.8
	4년제 대학교	(427)	65.6	55.0	20.8	18.5	11.5	5.9	11.0	4.4	3.5	1.2	1.4
	대학원 이상	(8)	50.0	75.0	-	-	-	12.5	37.5	12.5	-	0.0	0.0
생활수준별	상	(73)	57.5	47.9	26.0	21.9	13.7	11.0	11.0	5.5	4.1	1.4	0.0
	중	(544)	67.5	48.3	26.5	14.9	14.0	7.9	7.0	6.1	3.5	1.8	0.7
	하	(583)	74.4	43.6	36.5	11.5	7.4	6.5	7.5	2.9	2.6	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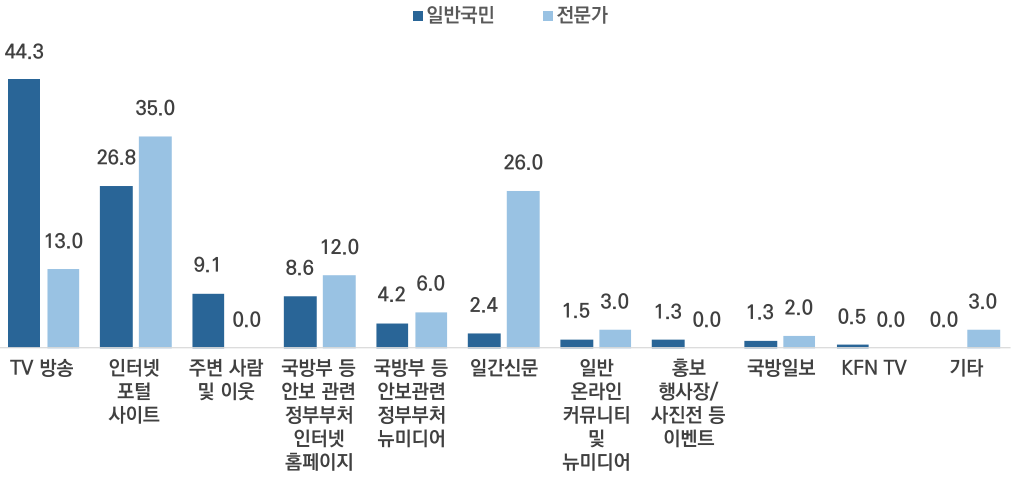
2) 1순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로 일반국민은 'TV방송' 44.3%, 전문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1순위 기준)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로 'TV방송'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26.8%), '주변 사람 및 이웃'(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TV방송'은 2023년(48.7%) 대비 4.4%p 감소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2023년(24.1%) 대비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간신문'(26.0%), 'TV방송'(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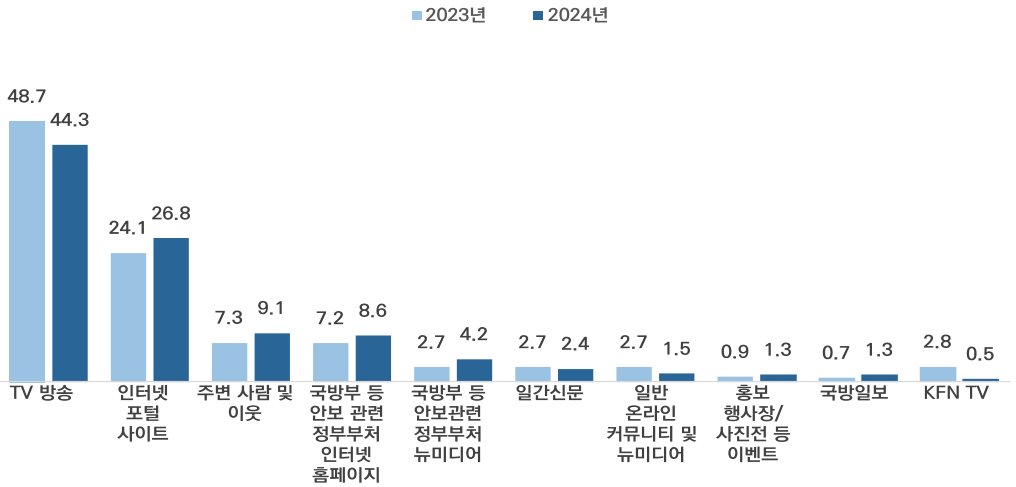
|그림 3-30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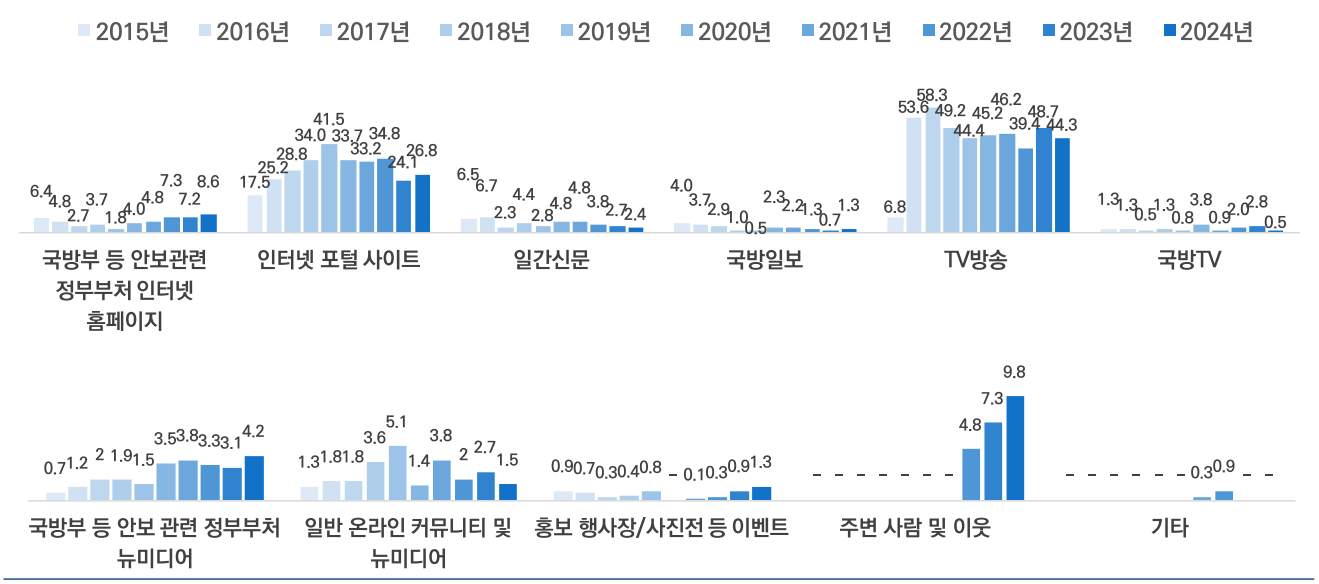
|그림 3-304|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TV방송'이 16.5%p 감소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5|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0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6.4	4.8	2.7	3.7	1.8	4.0	4.8	7.3	7.2	8.6	1.4	2.2
인터넷 포털 사이트	17.5	25.2	28.8	34.0	41.5	33.7	33.2	34.8	24.1	26.8	2.7	9.3
일간신문	6.5	6.7	2.3	4.4	2.8	4.8	4.8	3.8	2.7	2.4	-0.3	-4.1
국방일보	4.0	3.7	2.9	1.0	0.5	2.3	2.2	1.3	0.7	1.3	0.6	-2.7
TV방송	60.8	53.6	58.3	49.2	44.4	45.2	46.2	39.4	48.7	44.3	-4.4	-16.5
국방TV	1.3	1.3	0.5	1.3	0.8	3.8	0.9	2.0	2.8	0.5	-2.3	-0.8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0.7	1.2	2.0	1.9	1.5	3.5	3.8	3.3	3.1	4.2	1.1	3.5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1.3	1.8	1.8	3.6	5.1	1.4	3.8	2.0	2.7	1.5	-1.2	0.2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0.9	0.7	0.3	0.4	0.8	0.0	0.1	0.3	0.9	1.3	0.4	0.4
주변 사람 및 이웃	–	–	–	–	–	–	–	4.8	7.3	9.1	1.8	–
기타	–	–	–	–	–	–	0.3	0.9	0.0	0.0	0.0	–

※ 2022년부터 '주변 사람 및 이웃' 보기 항목 추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2순위)로 'TV방송'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0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변 사람 및 이웃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일간 신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홍보 행사장/ 사진전 등 이벤트	국방일보	KFN TV	기타
전체		(1,300)	41.9	27.5	8.4	8.8	4.3	4.2	1.6	1.2	1.3	0.5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4.3	26.8	9.1	8.6	4.2	2.4	1.5	1.3	1.3	0.5	0.0
	전문가	(100)	13.0	35.0	-	12.0	6.0	26.0	3.0	-	2.0	0.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8.6	19.5	10.0	8.5	3.6	3.6	1.8	1.5	2.1	0.8	0.0
	중	(580)	41.7	31.0	8.1	9.5	4.7	1.6	0.9	1.4	0.9	0.3	0.0
	하	(231)	43.7	28.6	10.0	6.5	3.9	2.6	2.6	0.9	0.9	0.4	0.0
성별	남성	(720)	43.5	28.2	6.9	9.3	4.6	2.9	1.7	1.4	1.3	0.3	0.0
	여성	(480)	45.6	24.8	12.3	7.5	3.5	1.7	1.3	1.3	1.3	0.8	0.0
연령별	20대 이하	(217)	34.6	39.2	5.5	10.6	4.1	1.8	1.8	1.4	0.9	0.0	0.0
	30대	(194)	34.5	37.1	5.7	8.2	6.7	1.5	2.1	1.0	3.1	0.0	0.0
	40대	(226)	39.4	31.0	8.8	7.5	5.3	4.0	1.3	1.3	0.9	0.4	0.0
	50대	(255)	49.0	21.6	11.4	8.2	3.1	2.0	2.0	2.0	0.8	0.0	0.0
	60대 이상	(308)	57.1	13.0	12.0	8.4	2.6	2.6	0.6	1.0	1.0	1.6	0.0
지역별	서울	(140)	22.1	25.7	11.4	18.6	12.9	5.7	1.4	-	2.1	0.0	0.0
	경기/인천	(245)	36.3	30.2	6.1	11.4	3.3	3.7	0.8	3.3	4.1	0.8	0.0
	부산/울산/경남	(208)	55.8	31.7	5.8	4.3	0.5	-	1.0	-	0.5	0.5	0.0
	대구/경북	(141)	55.3	22.7	10.6	3.5	1.4	2.8	2.8	0.7	-	0.0	0.0
	광주/전라	(170)	49.4	16.5	21.8	7.1	0.6	3.5	0.6	0.6	-	0.0	0.0
	대전/충청/세종	(205)	46.8	27.3	5.4	8.3	5.9	1.0	1.0	2.9	0.5	1.0	0.0
	강원/제주	(91)	41.8	33.0	3.3	6.6	8.8	-	5.5	-	-	1.1	0.0
지역크기	대도시	(524)	38.4	29.8	10.1	8.2	5.5	3.6	1.5	0.6	1.9	0.4	0.0
	중·소도시	(639)	49.6	24.7	7.2	8.9	3.1	1.6	1.6	2.0	0.8	0.5	0.0
	읍/면	(37)	37.8	21.6	27.0	8.1	2.7	-	-	-	-	2.7	0.0
직업별	농/어/임업	(50)	64.0	14.0	14.0	-	-	2.0	4.0	-	-	2.0	0.0
	자영업자	(185)	43.8	19.5	7.0	12.4	5.4	5.9	1.1	1.1	3.2	0.5	0.0
	판매/서비스직	(194)	32.5	38.1	13.9	8.2	2.1	2.1	0.5	1.5	1.0	0.0	0.0
	기능/숙련공	(127)	55.1	22.8	7.1	6.3	6.3	0.8	0.8	0.8	-	0.0	0.0
	일반 노무직	(41)	63.4	14.6	9.8	2.4	2.4	-	-	2.4	2.4	2.4	0.0
	사무/기술직	(283)	39.6	34.6	4.2	9.5	4.6	2.5	2.5	1.1	1.1	0.4	0.0
	경영/관리직	(19)	36.8	36.8	-	10.5	10.5	-	5.3	-	-	0.0	0.0
	전문/자유직	(7)	42.9	57.1	-	-	-	-	-	-	-	0.0	0.0
	군인/경찰/소방	(-)	-	-	-	-	-	-	-	-	-	-	-
	전업주부	(169)	49.7	17.8	14.8	8.3	4.1	0.6	0.6	2.4	1.2	0.6	0.0
	학생	(73)	39.7	26.0	8.2	12.3	4.1	4.1	2.7	2.7	-	0.0	0.0
	무직/휴직/은퇴	(52)	48.1	23.1	11.5	5.8	3.8	1.9	1.9	-	1.9	1.9	0.0
	기타	(-)	-	-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9.3	10.2	15.3	8.5	-	-	-	-	1.7	5.1	0.0
	고등학교	(440)	52.5	19.1	12.3	9.1	2.7	2.3	0.5	1.4	0.2	0.0	0.0
	전문대	(266)	35.7	34.2	10.5	7.5	6.4	1.5	1.1	0.8	1.1	1.1	0.0
	4년제 대학교	(427)	39.3	32.3	4.2	8.9	4.9	3.5	2.6	1.9	2.3	0.0	0.0
	대학원 이상	(8)	37.5	37.5	-	-	-	-	25.0	-	-	0.0	0.0
생활수준별	상	(73)	34.2	26.0	2.7	9.6	9.6	8.2	1.4	2.7	4.1	1.4	0.0
	중	(544)	40.4	26.8	9.6	11.4	4.6	2.9	1.3	1.7	0.9	0.4	0.0
	하	(583)	49.2	26.9	9.4	5.8	3.1	1.2	1.7	0.9	1.2	0.5	0.0

2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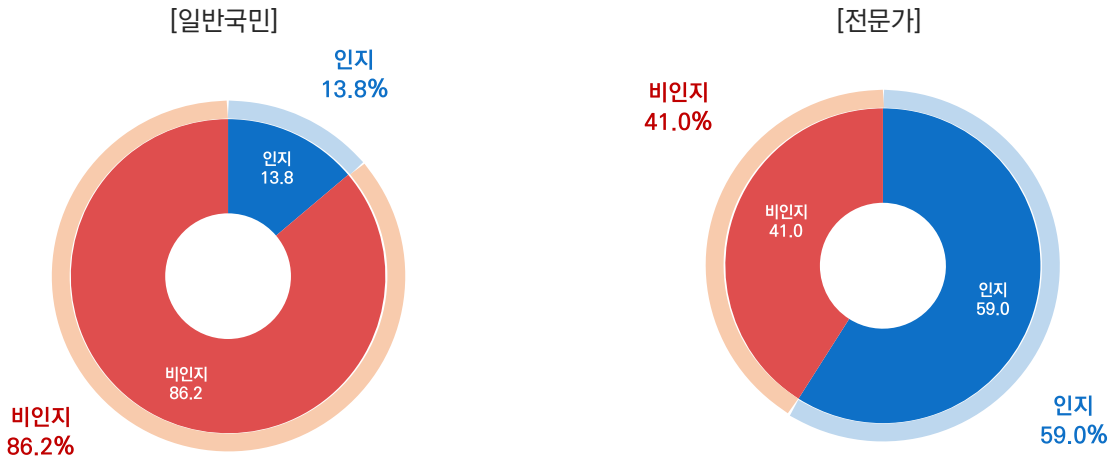
1)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 86.2%, 전문가는 '인지' 5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 '비인지'는 86.2%로 '인지'(13.8%) 비율보다 72.4%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인지' 비율은 2023년(16.8%) 대비 3.0%p 감소했으며, '비인지' 비율은 2023년(83.3%) 대비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지' 비율이 59.0%로 '비인지'(41.0%) 비율보다 18.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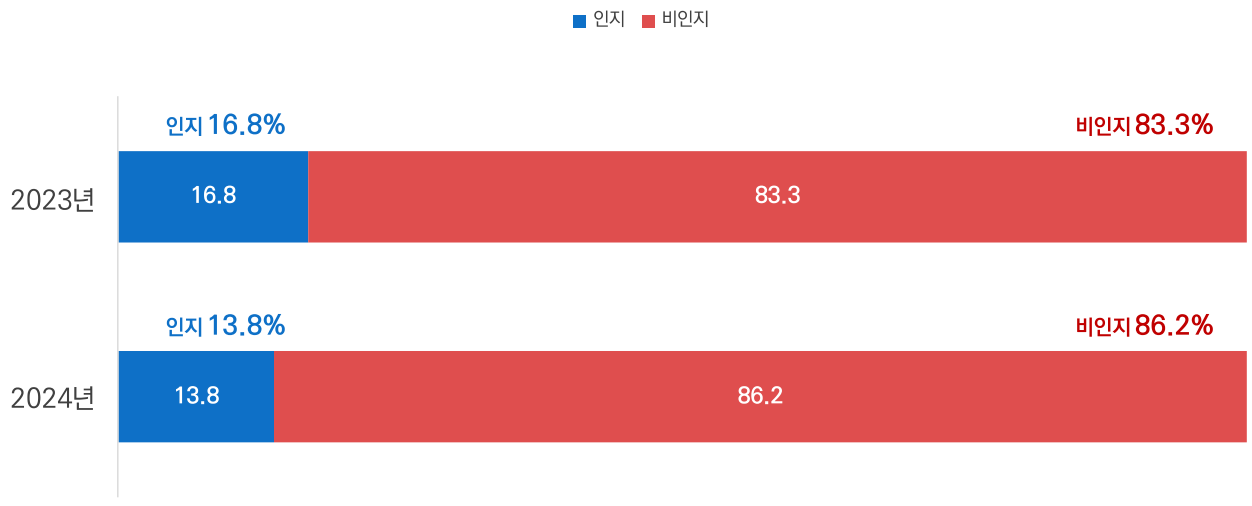
|그림 3-30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 %)



|그림 3-30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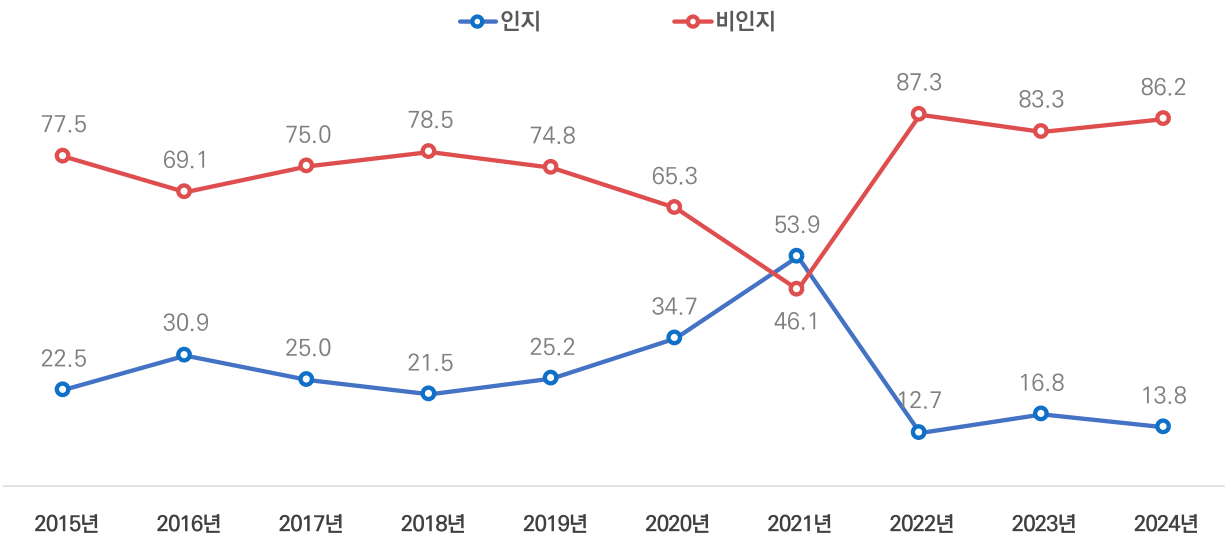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인지 비율은 8.7%p 감소했으나, '비인지' 비율은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0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22.5	30.9	25.0	21.5	25.2	34.7	53.9	12.7	16.8	13.8	-3.0	-8.7
비인지	77.5	69.1	75.0	78.5	74.8	65.3	46.1	87.3	83.3	86.2	2.9	8.7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0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17.3	82.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8	86.2
	전문가	(100)	59.0	4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4	86.6
	중	(580)	14.7	85.3
	하	(231)	12.6	87.4
성별	남성	(720)	16.1	83.9
	여성	(480)	10.4	89.6
연령별	20대 이하	(217)	21.7	78.3
	30대	(194)	13.9	86.1
	40대	(226)	12.4	87.6
	50대	(255)	12.2	87.8
	60대 이상	(308)	10.7	89.3
지역별	서울	(140)	23.6	76.4
	경기/인천	(245)	17.1	82.9
	부산/울산/경남	(208)	10.6	89.4
	대구/경북	(141)	9.9	90.1
	광주/전라	(170)	11.2	88.8
	대전/충청/세종	(205)	11.2	88.8
	강원/제주	(91)	14.3	85.7
지역크기	대도시	(524)	13.0	87.0
	중·소도시	(639)	14.6	85.4
	읍/면	(37)	13.5	86.5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96.0
	자영업자	(185)	16.8	83.2
	판매/서비스직	(194)	12.4	87.6
	기능/숙련공	(127)	12.6	87.4
	일반 노무직	(41)	4.9	95.1
	사무/기술직	(283)	13.8	86.2
	경영/관리직	(19)	21.1	78.9
	전문/자유직	(7)	28.6	71.4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10.7	89.3
	학생	(73)	32.9	67.1
	무직/휴직/은퇴	(52)	7.7	92.3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8.5	91.5
	고등학교	(440)	12.7	87.3
	전문대	(266)	13.2	86.8
	4년제 대학교	(427)	16.4	83.6
	대학원 이상	(8)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6.4	83.6
	중	(544)	17.6	82.4
	하	(583)	9.9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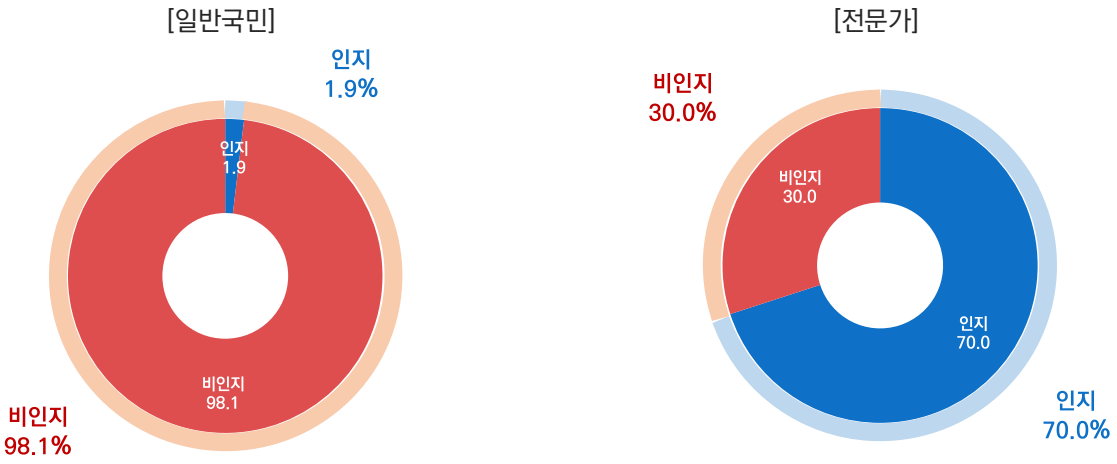
2) 국방백서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 98.1%, 전문가는 '인지' 7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98.1%로 '인지'(1.9%) 비율보다 96.2%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국방백서' '인지' 비율은 2023년(2.7%) 대비 0.8%p 감소했으며, '비인지' 비율은 2023년(97.3%)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지' 비율이 70.0%로 '비인지' 비율(30.0%)라는 응답보다 40.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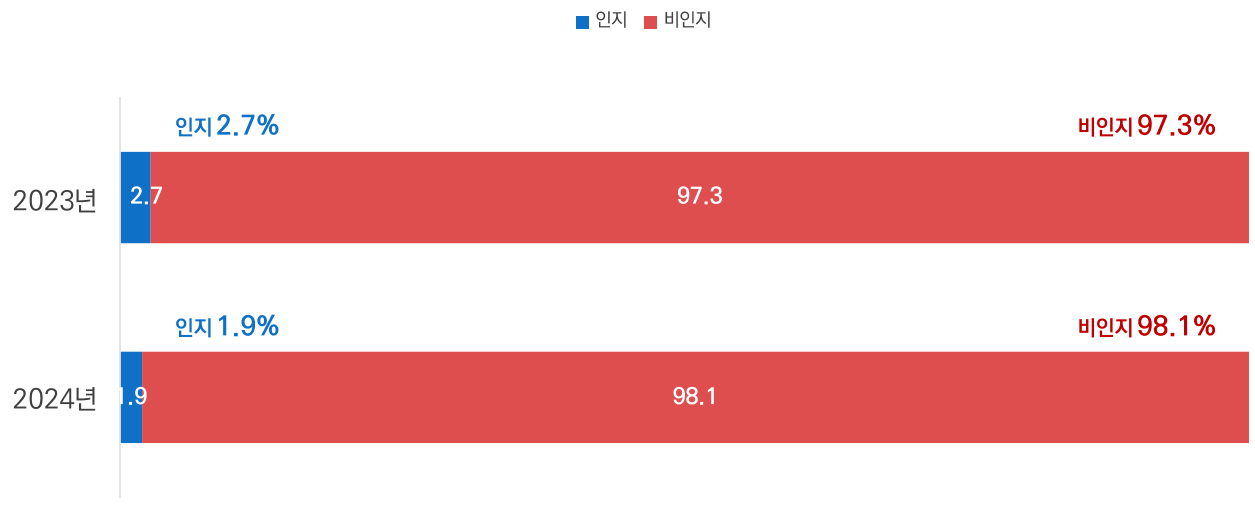
|그림 3-30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

(단위 : %)



|그림 3-31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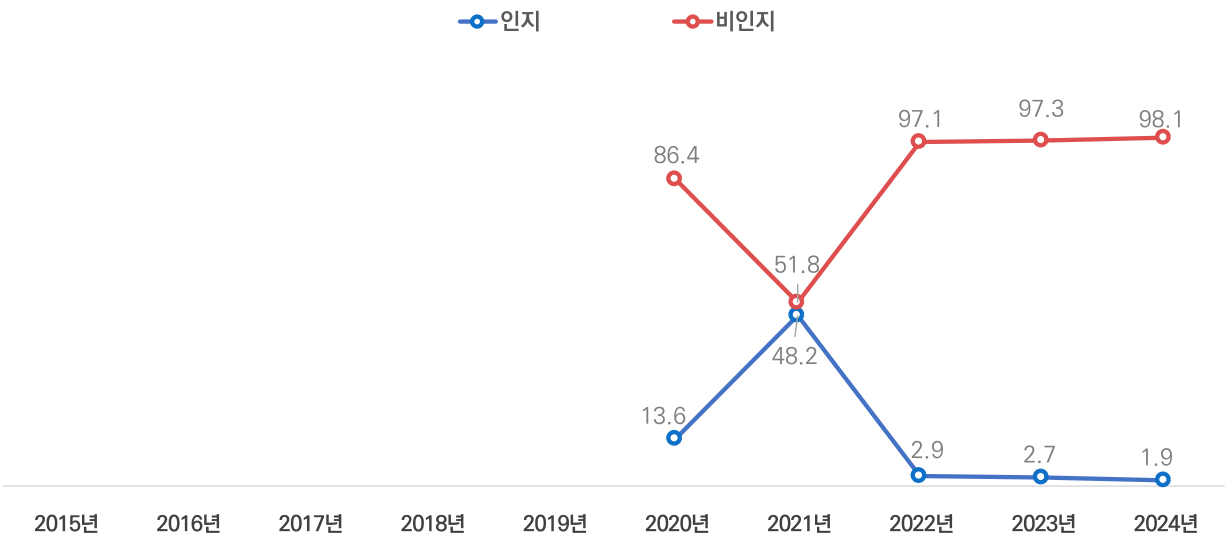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0년 대비 '국방백서'의 인지 비율은 11.7%p 감소했으나, '비인지' 비율은 1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0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	–	–	–	–	13.6	48.2	2.9	2.7	1.9	-0.8	-11.7
비인지	–	–	–	–	–	86.4	51.8	97.1	97.3	98.1	0.8	11.7

※ 2015~2019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방백서’의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05|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2) 국방백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7.2	9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98.1
	전문가	(100)	70.0	3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3	97.7
	중	(580)	2.2	97.8
	하	(231)	0.4	99.6
성별	남성	(720)	2.4	97.6
	여성	(480)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17)	4.1	95.9
	30대	(194)	1.5	98.5
	40대	(226)	2.2	97.8
	50대	(255)	0.4	99.6
	60대 이상	(308)	1.6	98.4
지역별	서울	(140)	1.4	98.6
	경기/인천	(245)	4.9	95.1
	부산/울산/경남	(208)	-	100.0
	대구/경북	(141)	2.1	97.9
	광주/전라	(170)	1.8	98.2
	대전/충청/세종	(205)	1.0	99.0
	강원/제주	(91)	1.1	98.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9	98.1
	중·소도시	(639)	1.9	98.1
	읍/면	(37)	2.7	97.3
직업별	농/어/임업	(50)	-	100.0
	자영업자	(185)	2.2	97.8
	판매/서비스직	(194)	2.6	97.4
	기능/숙련공	(127)	1.6	98.4
	일반 노무직	(41)	-	100.0
	사무/기술직	(283)	2.5	97.5
	경영/관리직	(19)	-	100.0
	전문/자유직	(7)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0.6	99.4
	학생	(73)	2.7	97.3
	무직/휴직/은퇴	(52)	1.9	98.1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	100.0
	고등학교	(440)	2.0	98.0
	전문대	(266)	0.4	99.6
	4년제 대학교	(427)	3.0	97.0
	대학원 이상	(8)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4.1	95.9
	중	(544)	2.6	97.4
	하	(583)	1.0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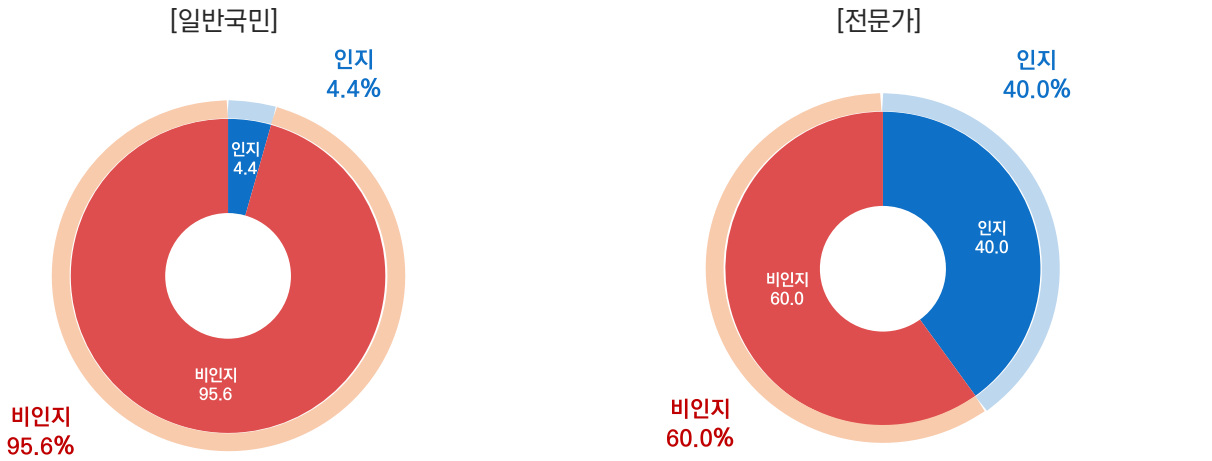
3) 국방일보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일반국민은 95.6%, 전문가는 60.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서 '비인지' 비율이 95.6%로 '인지' 비율(4.4%)보다 91.2%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국방일보' '비인지' 비율(95.6%)과 '인지' 비율(4.4%)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인지' 비율이 60.0%로 '인지' 비율(40.0%)보다 20.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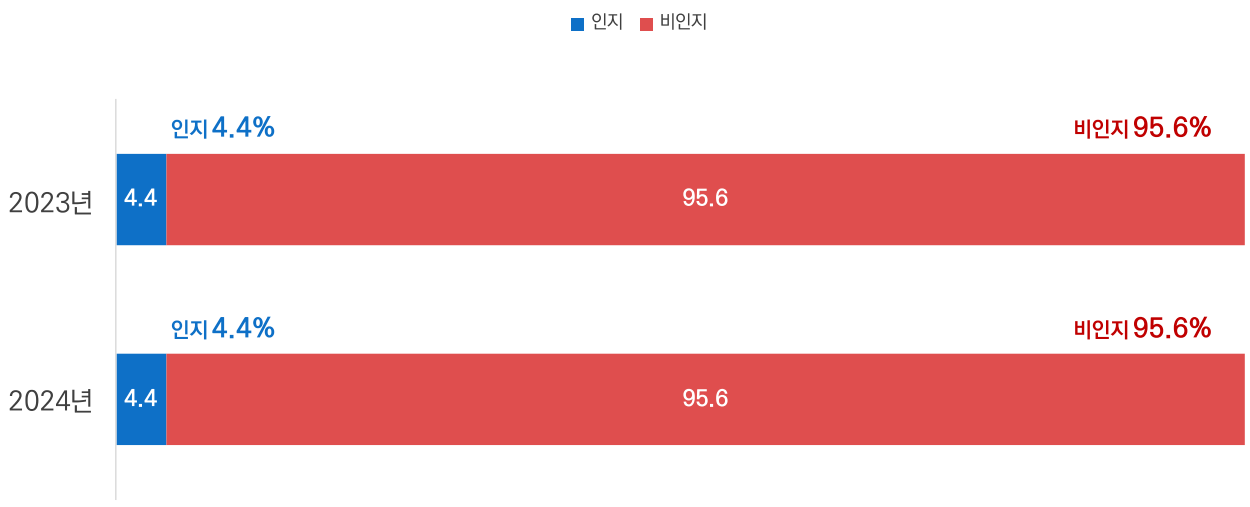
|그림 3-31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

(단위 : %)



|그림 3-31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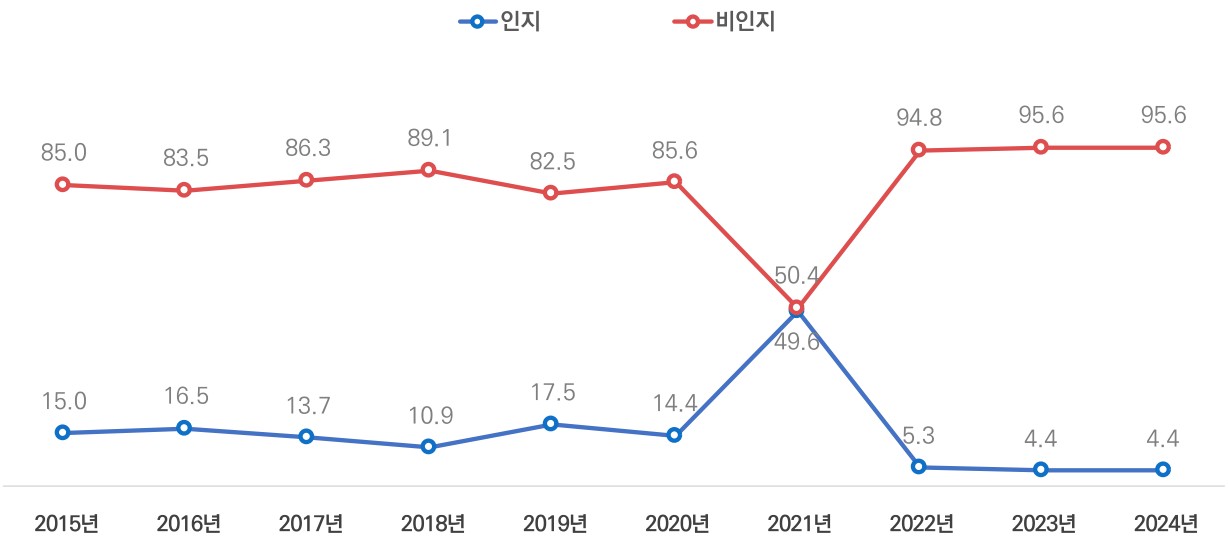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방일보'의 인지 비율은 10.6%p 감소했으나, '비인지' 비율은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4|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0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15.0	16.5	13.7	10.9	17.5	14.4	49.6	5.3	4.4	4.4	0.0	-10.6
비인지	85.0	83.5	86.3	89.1	82.5	85.6	50.4	94.8	95.6	95.6	0.0	10.6

‘국방일보’의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0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3) 국방일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7.2	9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4	95.6
	전문가	(100)	40.0	6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4	94.6
	중	(580)	4.1	95.9
	하	(231)	3.5	96.5
성별	남성	(720)	4.2	95.8
	여성	(480)	4.8	95.2
연령별	20대 이하	(217)	6.0	94.0
	30대	(194)	7.2	92.8
	40대	(226)	3.5	96.5
	50대	(255)	3.9	96.1
	60대 이상	(308)	2.6	97.4
지역별	서울	(140)	5.7	94.3
	경기/인천	(245)	9.0	91.0
	부산/울산/경남	(208)	1.4	98.6
	대구/경북	(141)	2.1	97.9
	광주/전라	(170)	1.2	98.8
	대전/충청/세종	(205)	5.9	94.1
	강원/제주	(91)	3.3	96.7
지역크기	대도시	(524)	4.6	95.4
	중·소도시	(639)	4.5	95.5
	읍/면	(37)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50)	-	100.0
	자영업자	(185)	7.0	93.0
	판매/서비스직	(194)	4.1	95.9
	기능/숙련공	(127)	1.6	98.4
	일반 노무직	(41)	2.4	97.6
	사무/기술직	(283)	3.9	96.1
	경영/관리직	(19)	-	100.0
	전문/자유직	(7)	14.3	85.7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4.7	95.3
	학생	(73)	6.8	93.2
	무직/휴직/은퇴	(52)	7.7	92.3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96.6
	고등학교	(440)	3.2	96.8
	전문대	(266)	5.3	94.7
	4년제 대학교	(427)	5.4	94.6
	대학원 이상	(8)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5.5	94.5
	중	(544)	6.1	93.9
	하	(583)	2.7	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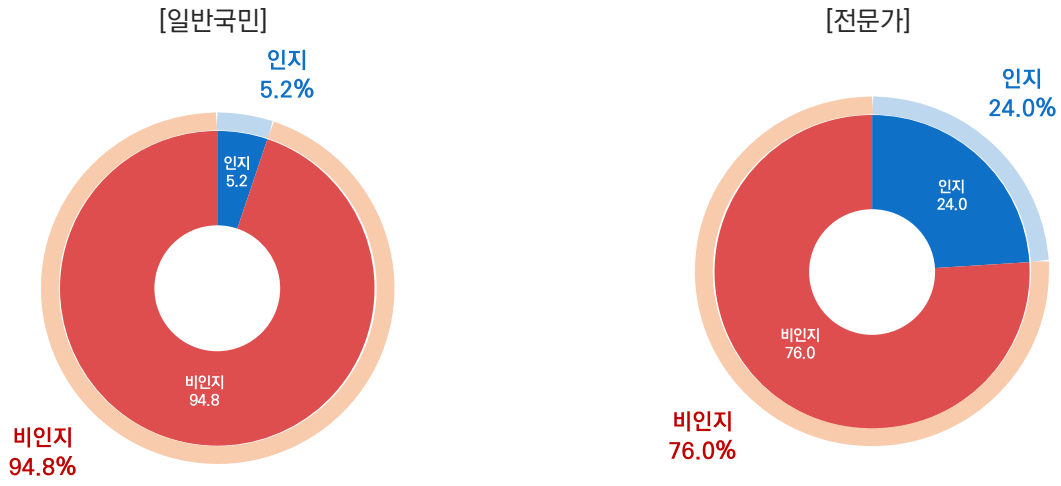
4) KFN 라디오(국방FM)

국방 홍보 매체 중 'KFN 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일반국민은 94.8%, 전문가는 76.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KFN 라디오' 인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94.8%로 '인지'(5.2%) 비율보다 89.6%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KFN 라디오' '인지' 비율은 2023년(9.2%) 대비 4.0%p 감소했으며 '비인지' 비율은 2023년(90.8%) 대비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인지' 비율이 76.0%로 '인지' 비율(24.0%)보다 5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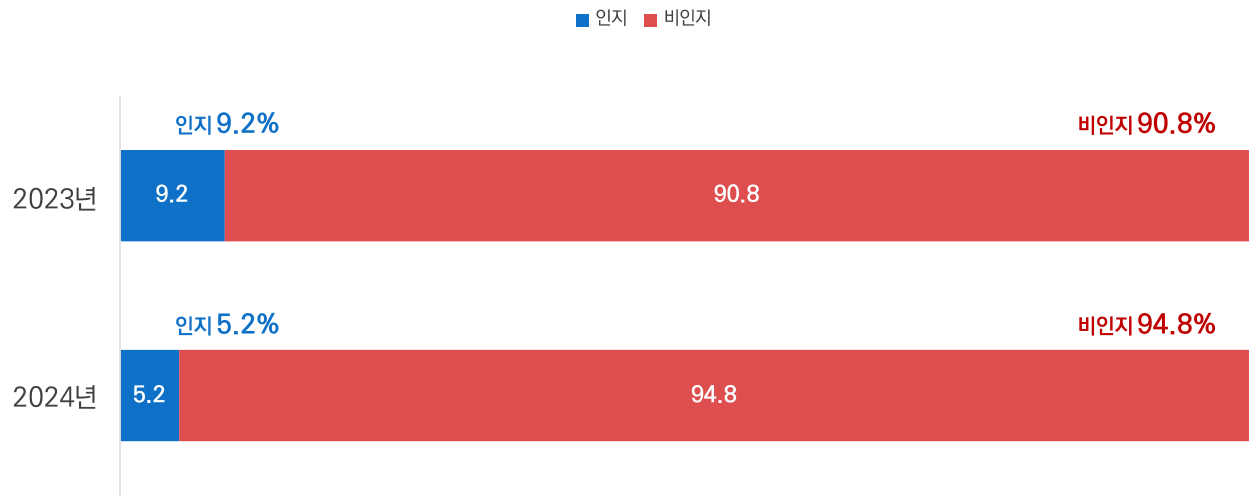
|그림 3-315|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

(단위 : %)



|그림 3-316|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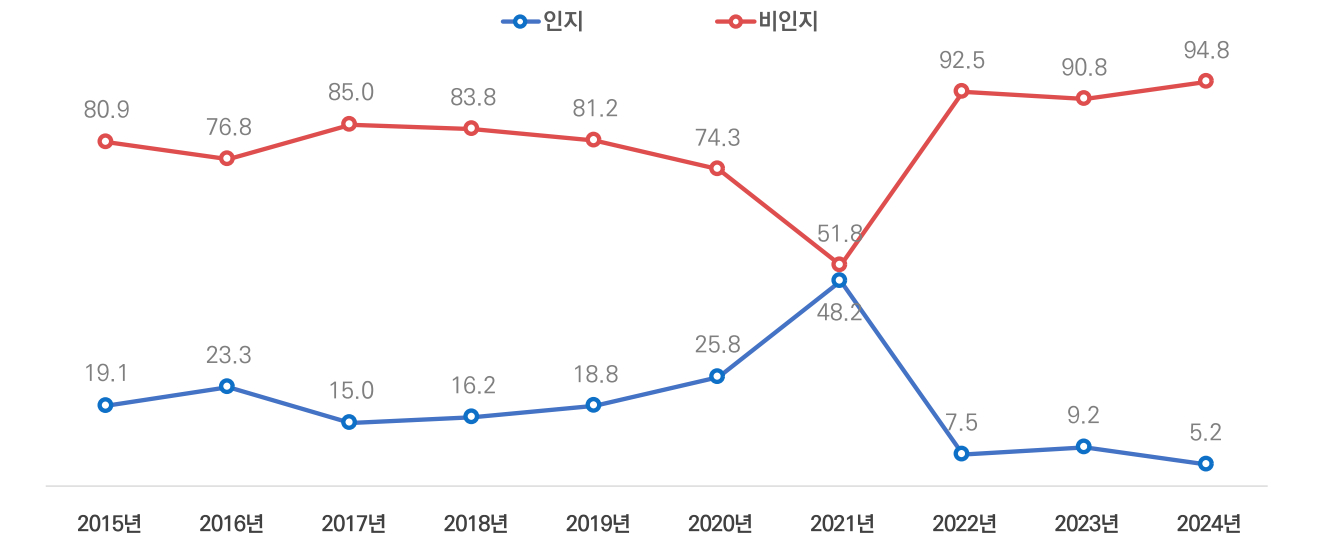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KFN 라디오'의 인지 비율은 13.9%p 감소했으나, '비인지' 비율은 1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7|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0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19.1	23.3	15.0	16.2	18.8	25.8	48.2	7.5	9.2	5.2	-4.0	-13.9
비인지	80.9	76.8	85.0	83.8	81.2	74.3	51.8	92.5	90.8	94.8	4.0	13.9

✓ 국방 홍보 매체 중 'KFN 라디오'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전라',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과 '전업주부',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0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4) KFN 라디오(국방FM)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6.6	9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2	94.8
	전문가	(100)	24.0	7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9	95.1
	중	(580)	5.0	95.0
	하	(231)	6.1	93.9
성별	남성	(720)	5.8	94.2
	여성	(480)	4.2	95.8
연령별	20대 이하	(217)	4.6	95.4
	30대	(194)	2.6	97.4
	40대	(226)	7.5	92.5
	50대	(255)	5.5	94.5
	60대 이상	(308)	5.2	94.8
지역별	서울	(140)	-	100.0
	경기/인천	(245)	11.8	88.2
	부산/울산/경남	(208)	7.2	92.8
	대구/경북	(141)	0.7	99.3
	광주/전라	(170)	-	100.0
	대전/충청/세종	(205)	3.9	96.1
	강원/제주	(91)	9.9	90.1
지역크기	대도시	(524)	4.0	96.0
	중·소도시	(639)	6.4	93.6
	읍/면	(37)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94.0
	자영업자	(185)	6.5	93.5
	판매/서비스직	(194)	4.1	95.9
	기능/숙련공	(127)	5.5	94.5
	일반 노무직	(41)	7.3	92.7
	사무/기술직	(283)	4.6	95.4
	경영/관리직	(19)	-	100.0
	전문/자유직	(7)	28.6	71.4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4.1	95.9
	학생	(73)	5.5	94.5
	무직/휴직/은퇴	(52)	5.8	94.2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96.6
	고등학교	(440)	5.0	95.0
	전문대	(266)	5.3	94.7
	4년제 대학교	(427)	5.6	94.4
	대학원 이상	(8)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6.8	93.2
	중	(544)	4.8	95.2
	하	(583)	5.3	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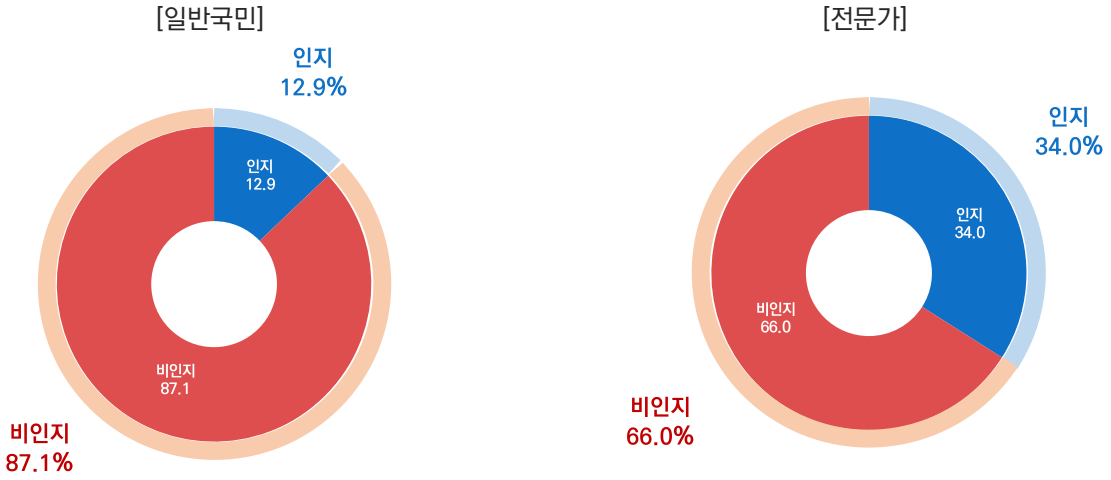
5) KFN TV(국방TV)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은 일반국민은 87.1%, 전문가는 66.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KFN TV(국방TV)' 인지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87.1%로 '인지'(12.9%)라는 응답보다 74.2%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KFN TV(국방TV)' '인지' 비율은 2023년(23.7%) 대비 10.8%p 감소했으며 '비인지' 비율은 2023년(76.3%) 대비 1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인지' 비율이 66.0%로 '인지' 비율(34.0%)보다 3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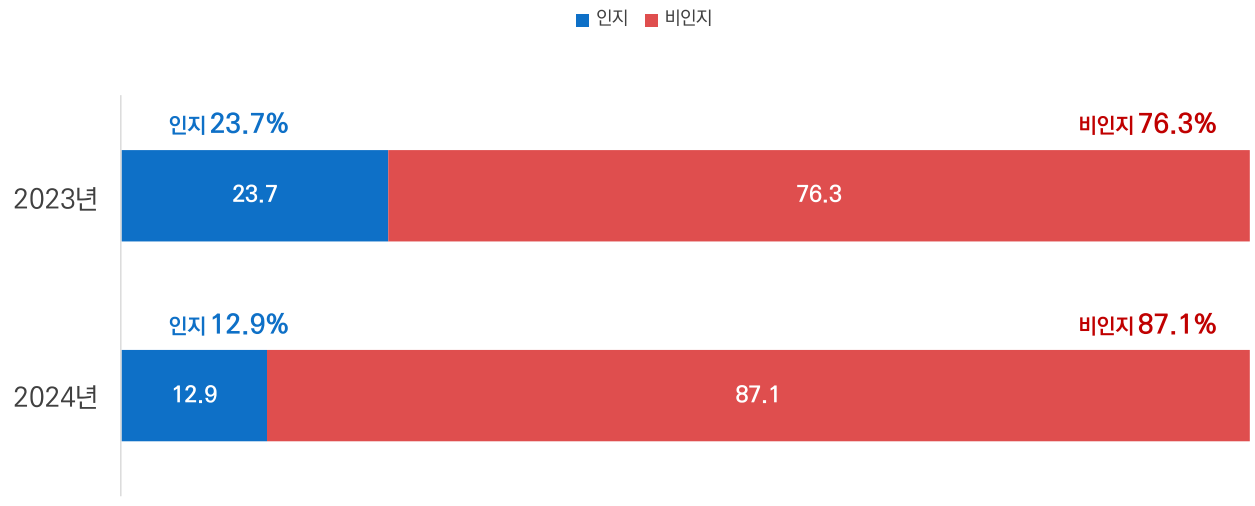
|그림 3-318|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

(단위 : %)



|그림 3-319|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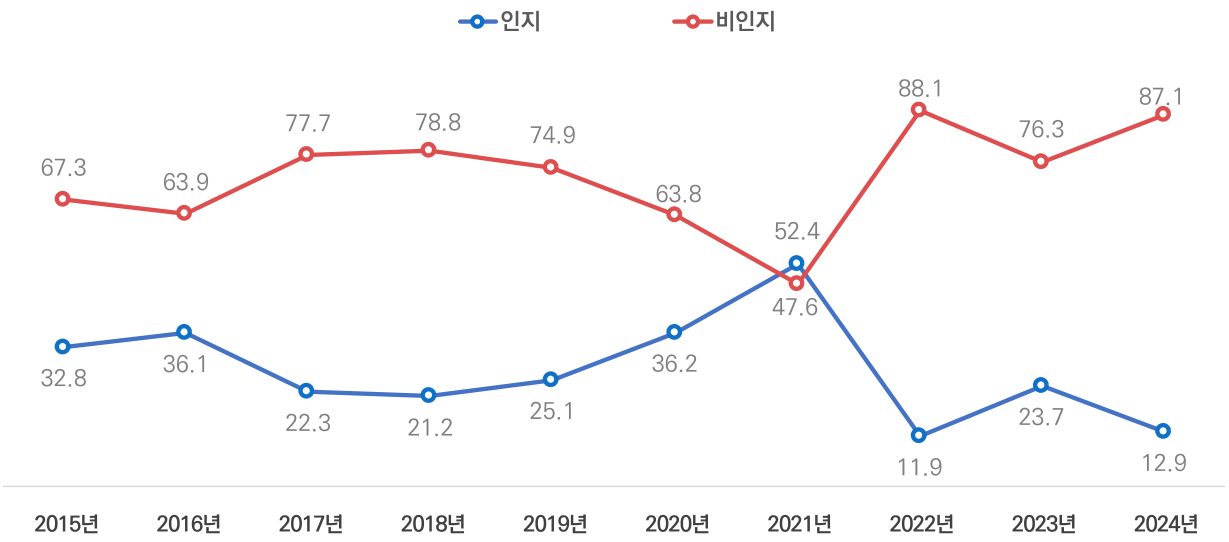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KFN TV'의 인지 비율은 19.9%p 감소했으나, '비인지' 비율은 19.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1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32.8	36.1	22.3	21.2	25.1	36.2	52.4	11.9	23.7	12.9	-10.8	-19.9
비인지	67.3	63.9	77.7	78.8	74.9	63.8	47.6	88.1	76.3	87.1	10.8	19.8

국방 홍보 매체 중 'KFN TV(국방TV)'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5) KFN TV(국방TV)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14.5	85.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9	87.1
	전문가	(100)	34.0	6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1.8	88.2
	중	(580)	10.0	90.0
	하	(231)	22.1	77.9
성별	남성	(720)	14.3	85.7
	여성	(480)	10.8	89.2
연령별	20대 이하	(217)	15.2	84.8
	30대	(194)	9.3	90.7
	40대	(226)	15.0	85.0
	50대	(255)	10.2	89.8
	60대 이상	(308)	14.3	85.7
지역별	서울	(140)	12.9	87.1
	경기/인천	(245)	11.0	89.0
	부산/울산/경남	(208)	26.4	73.6
	대구/경북	(141)	4.3	95.7
	광주/전라	(170)	3.5	96.5
	대전/충청/세종	(205)	10.7	89.3
	강원/제주	(91)	23.1	76.9
지역크기	대도시	(524)	11.3	88.7
	중·소도시	(639)	14.6	85.4
	읍/면	(37)	8.1	91.9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82.0
	자영업자	(185)	16.8	83.2
	판매/서비스직	(194)	13.4	86.6
	기능/숙련공	(127)	8.7	91.3
	일반 노무직	(41)	12.2	87.8
	사무/기술직	(283)	10.6	89.4
	경영/관리직	(19)	21.1	78.9
	전문/자유직	(7)	42.9	57.1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13.0	87.0
	학생	(73)	12.3	87.7
	무직/휴직/은퇴	(52)	9.6	90.4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86.4
	고등학교	(440)	11.8	88.2
	전문대	(266)	13.2	86.8
	4년제 대학교	(427)	14.1	85.9
	대학원 이상	(8)	-	100.0
생활수준별	상	(73)	15.1	84.9
	중	(544)	11.0	89.0
	하	(583)	14.4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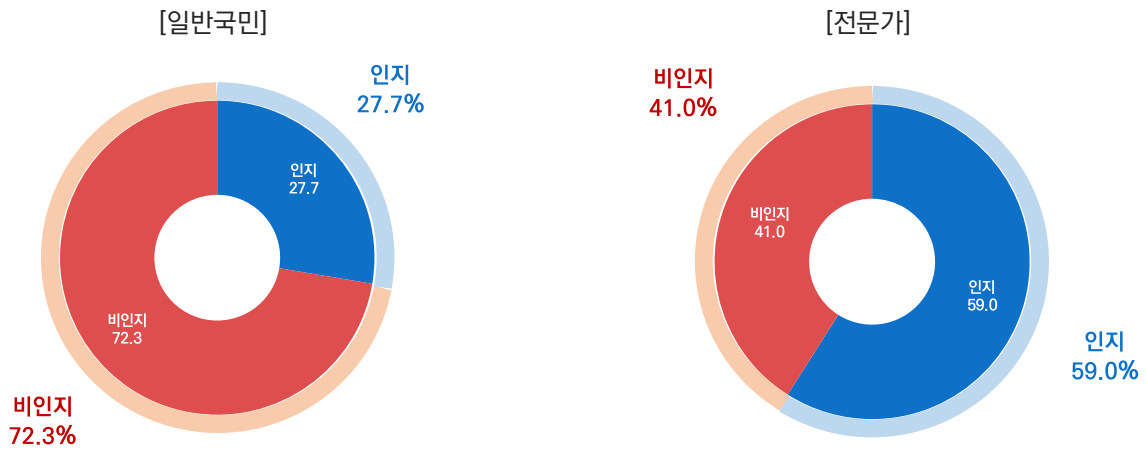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 72.3%, 전문가는 '인지' 59.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비인지' 비율이 72.3%로 '인지'(27.7%)라는 응답보다 44.6%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인지' 비율은 2023년(23.0%) 대비 4.7%p 증가했으며, '비인지' 비율은 2023년(77.0%) 대비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지' 비율이 59.0%로 '비인지' 비율(41.0%)보다 18.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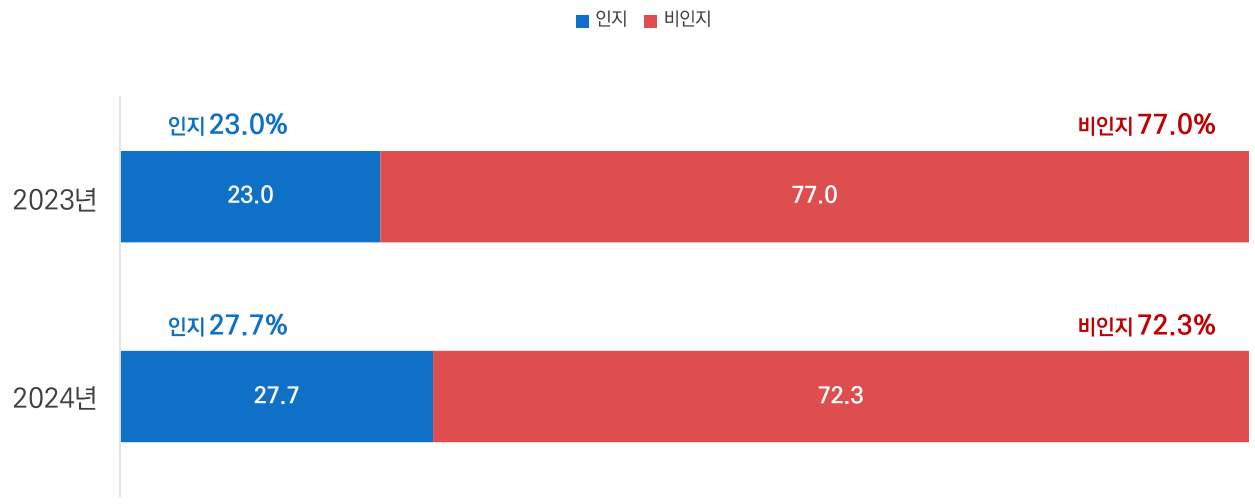
|그림 3-32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단위 : %)



|그림 3-32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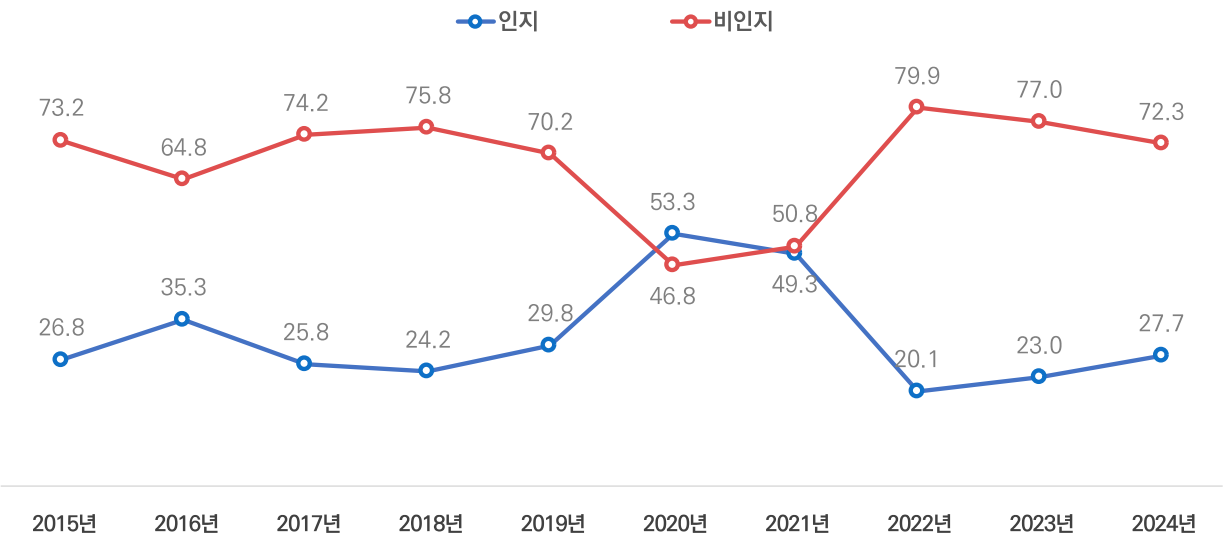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의 인지 비율은 0.9%p 증가한 반면에, '비인지' 비율은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1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인지	26.8	35.3	25.8	24.2	29.8	53.3	49.3	20.1	23.0	27.7	4.7	0.9
비인지	73.2	64.8	74.2	75.8	70.2	46.8	50.8	79.9	77.0	72.3	-4.7	-0.9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비인지'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13|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30.1	69.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7.7	72.3
	전문가	(100)	59.0	4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0	72.0
	중	(580)	28.3	71.7
	하	(231)	25.5	74.5
성별	남성	(720)	30.6	69.4
	여성	(480)	23.3	76.7
연령별	20대 이하	(217)	39.6	60.4
	30대	(194)	31.4	68.6
	40대	(226)	29.6	70.4
	50대	(255)	25.1	74.9
	60대 이상	(308)	17.5	82.5
지역별	서울	(140)	47.9	52.1
	경기/인천	(245)	33.1	66.9
	부산/울산/경남	(208)	20.2	79.8
	대구/경북	(141)	25.5	74.5
	광주/전라	(170)	7.1	92.9
	대전/충청/세종	(205)	26.3	73.7
	강원/제주	(91)	44.0	56.0
지역크기	대도시	(524)	30.3	69.7
	중·소도시	(639)	25.8	74.2
	읍/면	(37)	21.6	78.4
직업별	농/어/임업	(50)	6.0	94.0
	자영업자	(185)	31.4	68.6
	판매/서비스직	(194)	25.3	74.7
	기능/숙련공	(127)	27.6	72.4
	일반 노무직	(41)	12.2	87.8
	사무/기술직	(283)	31.8	68.2
	경영/관리직	(19)	36.8	63.2
	전문/자유직	(7)	42.9	57.1
	군인/경찰/소방	(-)	-	-
	전업주부	(169)	24.3	75.7
	학생	(73)	38.4	61.6
	무직/휴직/은퇴	(52)	25.0	75.0
	기타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0.2	89.8
	고등학교	(440)	21.4	78.6
	전문대	(266)	27.1	72.9
	4년제 대학교	(427)	36.8	63.2
	대학원 이상	(8)	37.5	62.5
생활수준별	상	(73)	41.1	58.9
	중	(544)	30.7	69.3
	하	(583)	23.2	76.8

2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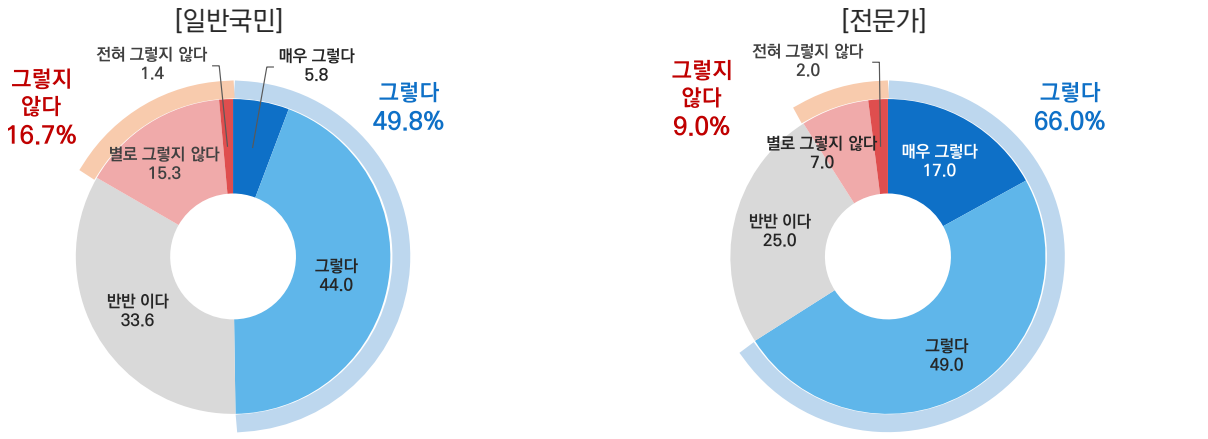
1) 믿을 수 있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은 일반국민 49.8%, 전문가 66.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은 49.8%로 '그렇지 않다'(16.7%) 비율보다 33.1%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 비율은 2023년(57.8%) 대비 8.0%p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다' 비율은 2023년(9.4%) 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 비율이 66.0%로 '그렇지 않다' 비율(9.0%)보다 57.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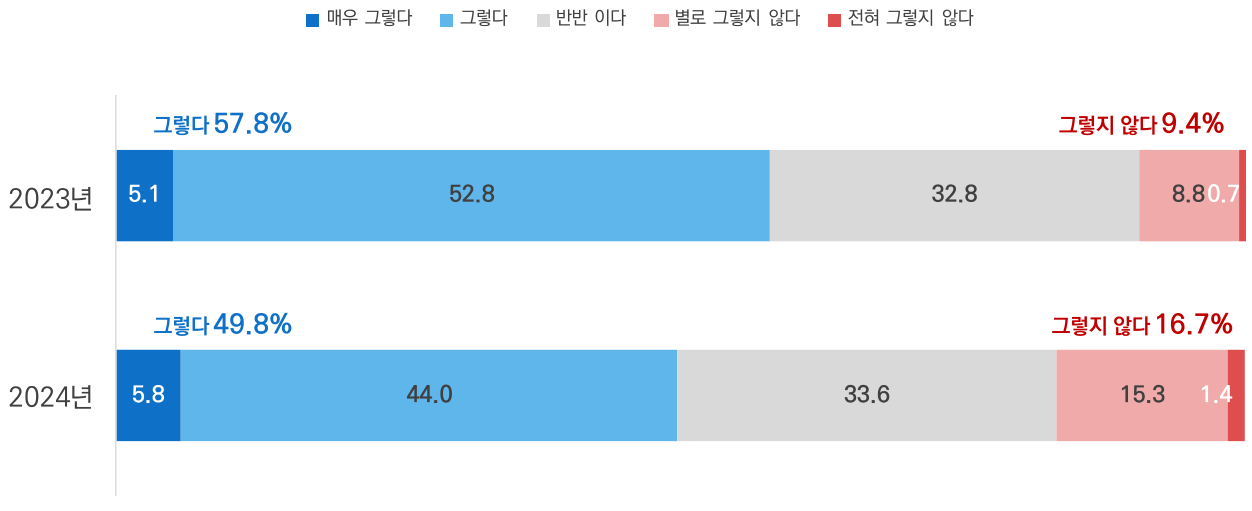
|그림 3-32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

(단위 : %)



|그림 3-32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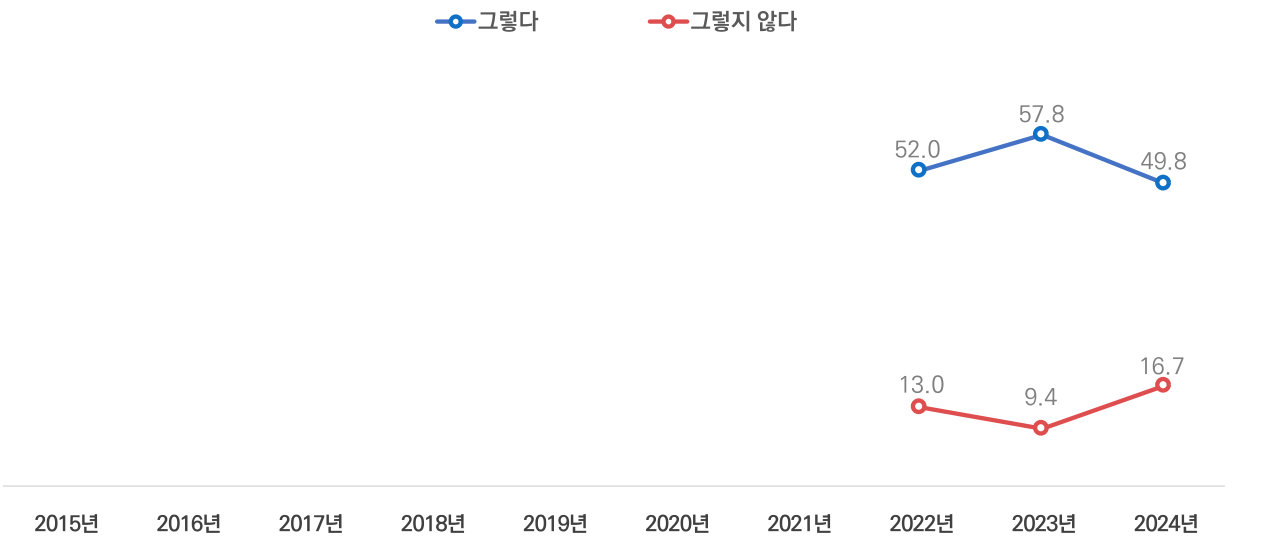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국방부 및 한국군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은 2.2%p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다' 비율은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1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3.2	5.1	5.8	0.7	2.6
그렇다	–	–	–	–	–	–	–	48.8	52.8	44.0	-8.8	-4.8
반반이다	–	–	–	–	–	–	–	35.0	32.8	33.6	0.8	-1.4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	12.5	8.8	15.3	6.5	2.8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0.5	0.7	1.4	0.7	0.9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52.0	57.8	49.8	-8.0	-2.2
그렇지 않다	–	–	–	–	–	–	–	13.0	9.4	16.7	7.3	3.7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1) 믿을 수 있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6.6	44.4	32.9	14.6	1.5	51.0	32.9	16.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8	44.0	33.6	15.3	1.4	49.8	33.6	16.7
	전문가	(100)	17.0	49.0	25.0	7.0	2.0	66.0	25.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8.2	50.4	29.6	10.8	1.0	58.6	29.6	11.8
	중	(580)	3.3	42.6	36.2	16.2	1.7	45.9	36.2	17.9
	하	(231)	7.8	36.8	33.8	20.3	1.3	44.6	33.8	21.6
성별	남성	(720)	5.4	42.6	33.6	16.8	1.5	48.1	33.6	18.3
	여성	(480)	6.3	46.0	33.5	12.9	1.3	52.3	33.5	14.2
연령별	20대 이하	(217)	5.5	41.9	36.4	14.7	1.4	47.5	36.4	16.1
	30대	(194)	6.2	40.2	34.5	18.6	0.5	46.4	34.5	19.1
	40대	(226)	5.3	42.9	36.3	14.6	0.9	48.2	36.3	15.5
	50대	(255)	5.1	43.9	34.1	15.7	1.2	49.0	34.1	16.9
	60대 이상	(308)	6.5	48.7	28.6	13.6	2.6	55.2	28.6	16.2
지역별	서울	(140)	4.3	29.3	27.1	33.6	5.7	33.6	27.1	39.3
	경기/인천	(245)	5.7	51.0	32.7	9.4	1.2	56.7	32.7	10.6
	부산/울산/경남	(208)	3.4	57.7	25.0	13.5	0.5	61.1	25.0	13.9
	대구/경북	(141)	7.8	46.8	39.7	5.7	-	54.6	39.7	5.7
	광주/전라	(170)	0.6	30.6	49.4	17.6	1.8	31.2	49.4	19.4
	대전/충청/세종	(205)	5.4	46.8	29.3	18.0	0.5	52.2	29.3	18.5
	강원/제주	(91)	20.9	30.8	36.3	11.0	1.1	51.6	36.3	12.1
지역크기	대도시	(524)	2.5	41.6	35.7	17.7	2.5	44.1	35.7	20.2
	중·소도시	(639)	8.5	44.8	32.7	13.5	0.6	53.2	32.7	14.1
	읍/면	(37)	5.4	64.9	18.9	10.8	-	70.3	18.9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38.0	36.0	24.0	-	40.0	36.0	24.0
	자영업자	(185)	5.4	41.1	37.3	16.2	-	46.5	37.3	16.2
	판매/서비스직	(194)	3.1	45.9	38.1	11.9	1.0	49.0	38.1	12.9
	기능/숙련공	(127)	6.3	40.9	31.5	18.9	2.4	47.2	31.5	21.3
	일반 노무직	(41)	7.3	46.3	36.6	9.8	-	53.7	36.6	9.8
	사무/기술직	(283)	5.3	45.6	30.4	17.0	1.8	50.9	30.4	18.7
	경영/관리직	(19)	15.8	57.9	10.5	15.8	-	73.7	10.5	15.8
	전문/자유직	(7)	28.6	42.9	28.6	-	-	71.4	28.6	-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6.5	47.3	32.0	11.2	3.0	53.8	32.0	14.2
	학생	(73)	5.5	37.0	37.0	19.2	1.4	42.5	37.0	20.5
	무직/휴직/은퇴	(52)	11.5	44.2	30.8	11.5	1.9	55.8	30.8	13.5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45.8	35.6	11.9	3.4	49.2	35.6	15.3
	고등학교	(440)	6.6	44.1	34.3	13.4	1.6	50.7	34.3	15.0
	전문대	(266)	3.8	42.1	35.3	17.7	1.1	45.9	35.3	18.8
	4년제 대학교	(427)	6.6	45.0	31.4	15.9	1.2	51.5	31.4	17.1
	대학원 이상	(8)	-	37.5	37.5	25.0	-	37.5	37.5	25.0
생활수준별	상	(73)	8.2	41.1	32.9	16.4	1.4	49.3	32.9	17.8
	중	(544)	5.5	45.2	33.8	14.3	1.1	50.7	33.8	15.4
	하	(583)	5.7	43.2	33.4	16.0	1.7	48.9	33.4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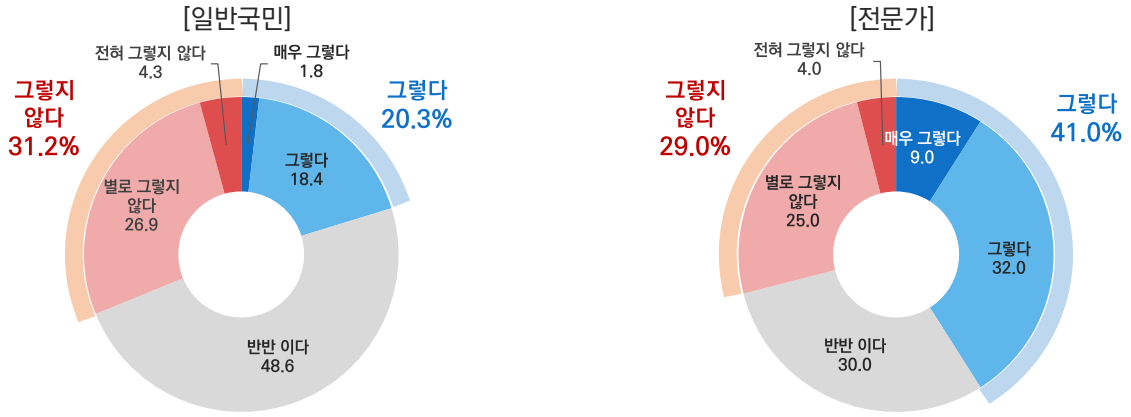
2) 청렴하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20.3%, 전문가 4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2%로 '그렇다'(20.3%) 비율보다 10.9%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2023년(25.2%) 대비 4.9%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2023년(27.0%) 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다' 비율이 41.0%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29.0%)보다 1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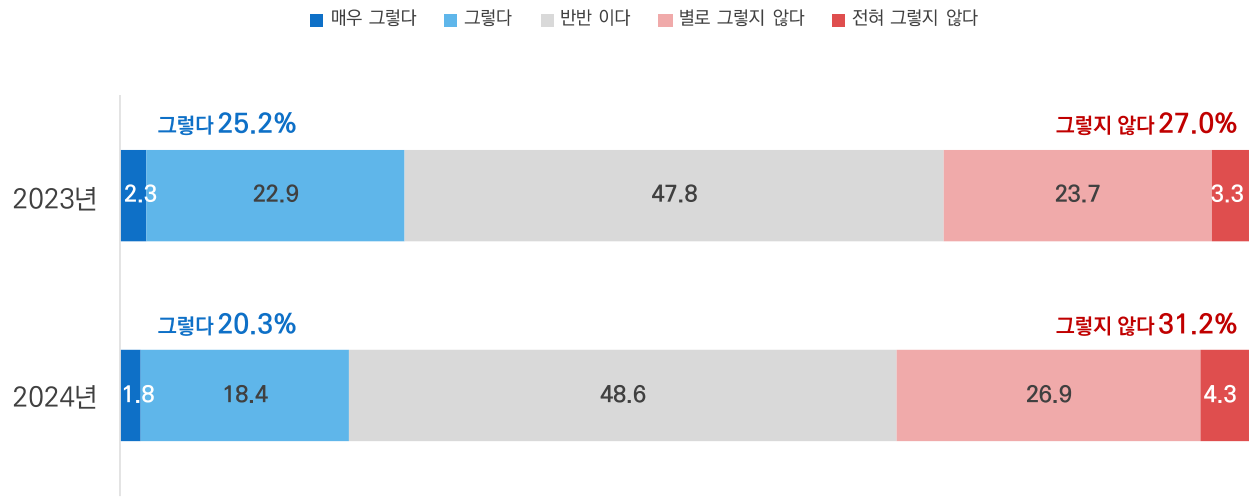
|그림 3-32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

(단위 : %)



|그림 3-32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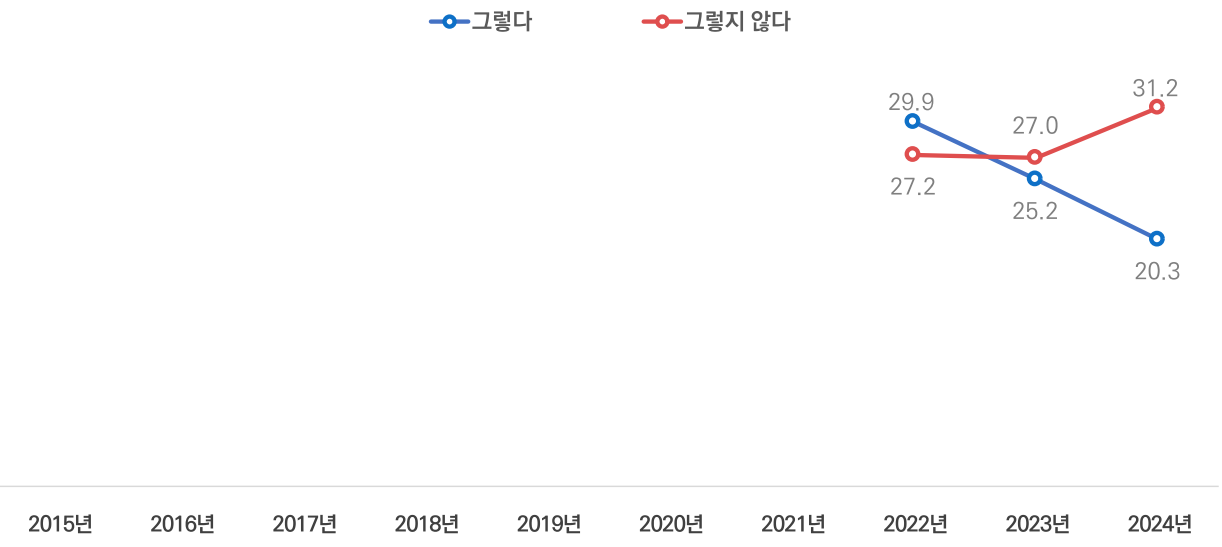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국방부 및 한국군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6%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 비율은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9|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1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4.7	2.3	1.8	-0.5	-2.9
그렇다	–	–	–	–	–	–	–	25.2	22.9	18.4	-4.5	-6.8
반반이다	–	–	–	–	–	–	–	43.0	47.8	48.6	0.8	5.6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	23.6	23.7	26.9	3.2	3.3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3.6	3.3	4.3	1.0	0.7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29.9	25.2	20.3	-4.9	-9.6
그렇지 않다	–	–	–	–	–	–	–	27.2	27.0	31.2	4.2	4.0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2) 청렴하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2.4	19.5	47.2	26.8	4.2	21.8	47.2	3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	18.4	48.6	26.9	4.3	20.3	48.6	31.2
	전문가	(100)	9.0	32.0	30.0	25.0	4.0	41.0	30.0	2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3	16.5	55.3	22.1	3.9	18.8	55.3	26.0
	중	(580)	0.9	18.8	47.6	28.4	4.3	19.7	47.6	32.8
	하	(231)	3.5	20.8	39.8	31.2	4.8	24.2	39.8	35.9
성별	남성	(720)	1.4	19.0	48.3	27.1	4.2	20.4	48.3	31.3
	여성	(480)	2.5	17.5	49.0	26.7	4.4	20.0	49.0	31.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17.1	46.5	29.5	5.5	18.4	46.5	35.0
	30대	(194)	1.0	21.6	41.2	30.9	5.2	22.7	41.2	36.1
	40대	(226)	1.3	17.3	49.6	28.8	3.1	18.6	49.6	31.9
	50대	(255)	1.6	15.3	54.1	24.7	4.3	16.9	54.1	29.0
	60대 이상	(308)	3.2	20.8	49.4	23.1	3.6	24.0	49.4	26.6
지역별	서울	(140)	0.7	11.4	37.9	40.0	10.0	12.1	37.9	50.0
	경기/인천	(245)	2.4	15.1	58.8	20.0	3.7	17.6	58.8	23.7
	부산/울산/경남	(208)	1.0	22.1	46.2	26.4	4.3	23.1	46.2	30.8
	대구/경북	(141)	1.4	26.2	48.2	22.7	1.4	27.7	48.2	24.1
	광주/전라	(170)	-	17.6	51.8	27.1	3.5	17.6	51.8	30.6
	대전/충청/세종	(205)	1.5	16.6	45.4	33.7	2.9	18.0	45.4	36.6
	강원/제주	(91)	8.8	23.1	45.1	17.6	5.5	31.9	45.1	23.1
지역크기	대도시	(524)	0.8	18.9	46.4	27.9	6.1	19.7	46.4	34.0
	중·소도시	(639)	2.8	17.7	49.8	26.8	3.0	20.5	49.8	29.7
	읍/면	(37)	-	24.3	59.5	16.2	-	24.3	59.5	16.2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14.0	58.0	24.0	2.0	16.0	58.0	26.0
	자영업자	(185)	1.1	14.1	50.8	30.3	3.8	15.1	50.8	34.1
	판매/서비스직	(194)	1.0	18.6	45.9	28.9	5.7	19.6	45.9	34.5
	기능/숙련공	(127)	0.8	18.1	48.8	27.6	4.7	18.9	48.8	32.3
	일반 노무직	(41)	-	19.5	56.1	19.5	4.9	19.5	56.1	24.4
	사무/기술직	(283)	2.8	18.7	43.8	30.7	3.9	21.6	43.8	34.6
	경영/관리직	(19)	-	36.8	36.8	26.3	-	36.8	36.8	26.3
	전문/자유직	(7)	-	71.4	14.3	14.3	-	71.4	14.3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2.4	17.8	55.6	20.7	3.6	20.1	55.6	24.3
	학생	(73)	1.4	21.9	43.8	26.0	6.8	23.3	43.8	32.9
	무직/휴직/은퇴	(52)	5.8	19.2	53.8	17.3	3.8	25.0	53.8	21.2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3.4	25.4	47.5	18.6	5.1	28.8	47.5	23.7
	고등학교	(440)	1.8	18.6	50.7	24.8	4.1	20.5	50.7	28.9
	전문대	(266)	1.5	15.0	50.8	28.6	4.1	16.5	50.8	32.7
	4년제 대학교	(427)	1.9	19.7	44.7	29.3	4.4	21.5	44.7	33.7
	대학원 이상	(8)	-	-	75.0	25.0	-	-	75.0	25.0
생활수준별	상	(73)	1.4	19.2	42.5	32.9	4.1	20.5	42.5	37.0
	중	(544)	1.7	20.2	49.8	24.4	3.9	21.9	49.8	28.3
	하	(583)	2.1	16.6	48.2	28.5	4.6	18.7	48.2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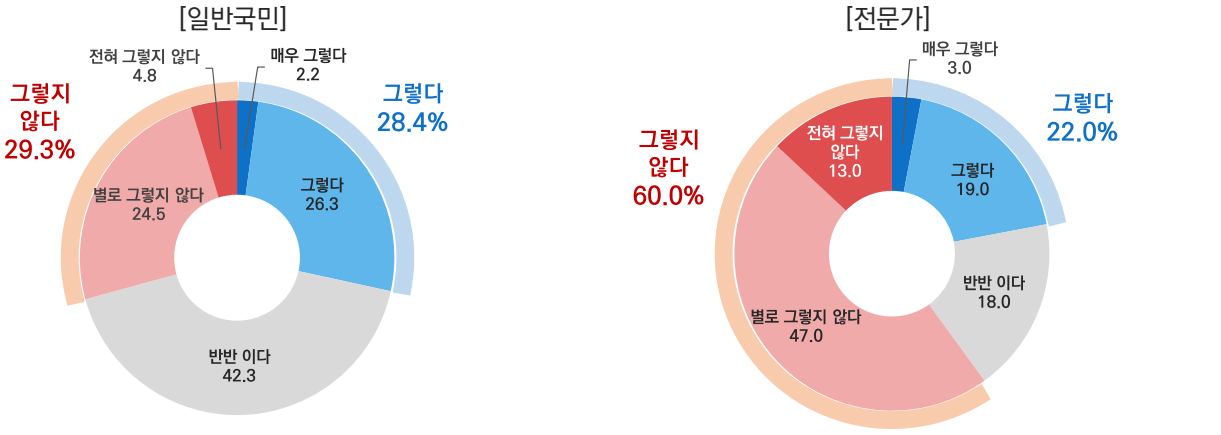
3) 개방적이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29.3%, 전문가 6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그렇다'(28.4%)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0.9%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로 2.1%p(2023년 30.5%)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1.9%p(2023년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그렇다'(22.0%)보다 38.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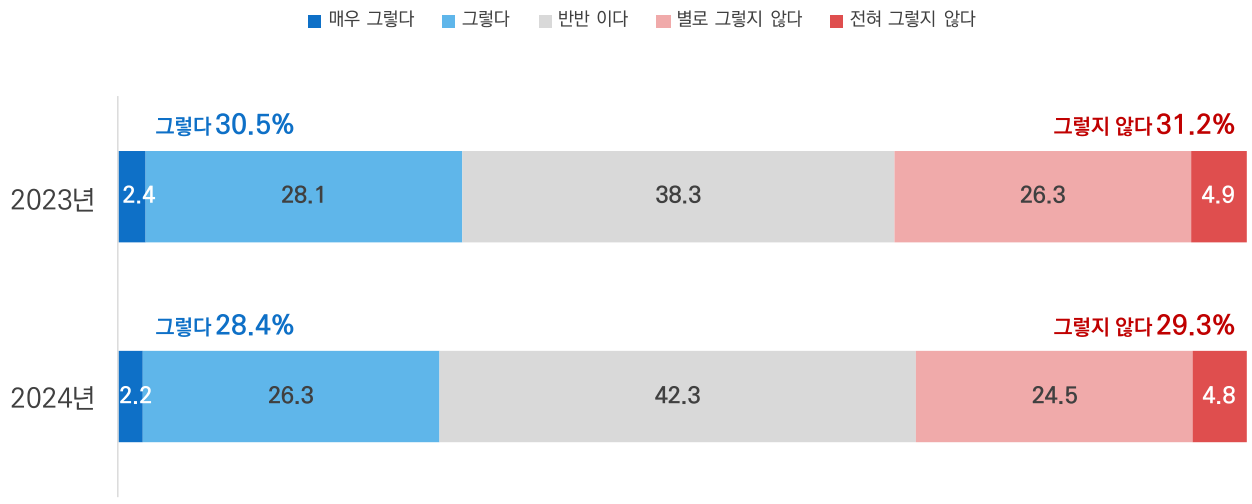
|그림 3-330|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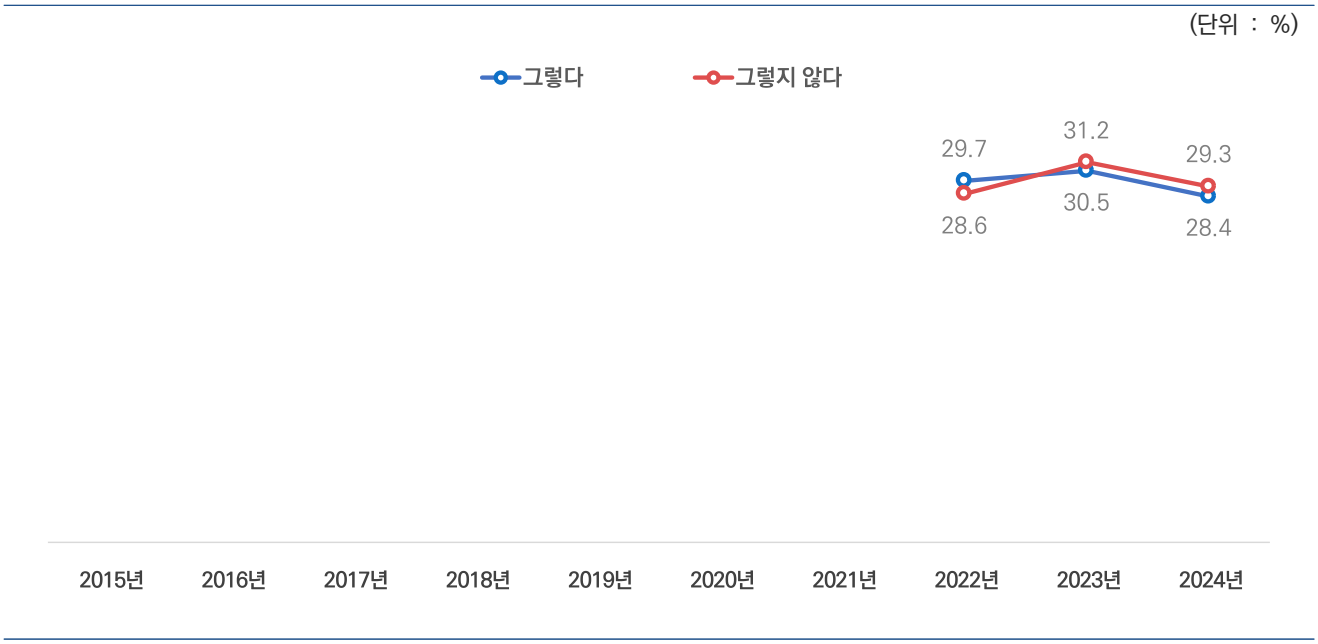
|그림 3-33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국방부 및 한국군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1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2.8	2.4	2.2	-0.2	-0.6
그렇다	–	–	–	–	–	–	–	26.9	28.1	26.3	-1.8	-0.6
반반이다	–	–	–	–	–	–	–	41.8	38.3	42.3	4.0	0.5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	24.3	26.3	24.5	-1.8	0.2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4.3	4.9	4.8	-0.1	0.5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29.7	30.5	28.4	-2.1	-1.3
그렇지 않다	–	–	–	–	–	–	–	28.6	31.2	29.3	-1.9	0.7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9|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3) 개방적이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2.2	25.7	40.5	26.2	5.4	27.9	40.5	3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	26.3	42.3	24.5	4.8	28.4	42.3	29.3
	전문가	(100)	3.0	19.0	18.0	47.0	13.0	22.0	18.0	6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31.6	45.8	17.7	2.1	34.4	45.8	19.8
	중	(580)	1.4	26.0	39.5	26.7	6.4	27.4	39.5	33.1
	하	(231)	3.0	17.7	43.7	30.3	5.2	20.8	43.7	35.5
성별	남성	(720)	1.9	27.6	42.6	22.4	5.4	29.6	42.6	27.8
	여성	(480)	2.5	24.2	41.9	27.7	3.8	26.7	41.9	31.5
연령별	20대 이하	(217)	1.4	23.0	43.8	24.4	7.4	24.4	43.8	31.8
	30대	(194)	3.1	21.6	41.8	28.9	4.6	24.7	41.8	33.5
	40대	(226)	1.3	24.8	46.0	24.3	3.5	26.1	46.0	27.9
	50대	(255)	1.6	32.2	38.8	22.4	5.1	33.7	38.8	27.5
	60대 이상	(308)	3.2	27.6	41.9	23.7	3.6	30.8	41.9	27.3
지역별	서울	(140)	-	18.6	36.4	32.9	12.1	18.6	36.4	45.0
	경기/인천	(245)	1.6	26.5	49.0	20.8	2.0	28.2	49.0	22.9
	부산/울산/경남	(208)	1.4	19.7	49.0	23.6	6.3	21.2	49.0	29.8
	대구/경북	(141)	5.7	23.4	46.1	24.1	0.7	29.1	46.1	24.8
	광주/전라	(170)	-	35.9	47.1	15.9	1.2	35.9	47.1	17.1
	대전/충청/세종	(205)	1.5	33.2	25.9	33.2	6.3	34.6	25.9	39.5
	강원/제주	(91)	8.8	23.1	40.7	20.9	6.6	31.9	40.7	27.5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	21.0	43.5	26.9	7.1	22.5	43.5	34.0
	중·소도시	(639)	2.8	29.7	41.5	22.8	3.1	32.6	41.5	26.0
	읍/면	(37)	-	40.5	40.5	18.9	-	40.5	40.5	18.9
직업별	농/어/임업	(50)	-	24.0	52.0	24.0	-	24.0	52.0	24.0
	자영업자	(185)	1.1	26.5	43.2	24.9	4.3	27.6	43.2	29.2
	판매/서비스직	(194)	0.5	24.7	43.8	24.2	6.7	25.3	43.8	30.9
	기능/숙련공	(127)	1.6	30.7	45.7	15.7	6.3	32.3	45.7	22.0
	일반 노무직	(41)	2.4	31.7	43.9	19.5	2.4	34.1	43.9	22.0
	사무/기술직	(283)	3.2	22.6	42.8	27.6	3.9	25.8	42.8	31.4
	경영/관리직	(19)	-	47.4	42.1	10.5	-	47.4	42.1	10.5
	전문/자유직	(7)	-	28.6	57.1	14.3	-	28.6	57.1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4.1	26.0	36.7	30.2	3.0	30.2	36.7	33.1
	학생	(73)	2.7	27.4	39.7	19.2	11.0	30.1	39.7	30.1
	무직/휴직/은퇴	(52)	3.8	28.8	32.7	28.8	5.8	32.7	32.7	34.6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27.1	50.8	13.6	3.4	32.2	50.8	16.9
	고등학교	(440)	2.0	27.0	41.4	25.2	4.3	29.1	41.4	29.5
	전문대	(266)	0.8	27.8	42.9	22.2	6.4	28.6	42.9	28.6
	4년제 대학교	(427)	2.8	24.6	41.5	26.7	4.4	27.4	41.5	31.1
	대학원 이상	(8)	-	12.5	62.5	25.0	-	12.5	62.5	25.0
생활수준별	상	(73)	-	24.7	34.2	35.6	5.5	24.7	34.2	41.1
	중	(544)	2.9	30.0	40.8	21.9	4.4	32.9	40.8	26.3
	하	(583)	1.7	23.0	44.8	25.6	5.0	24.7	44.8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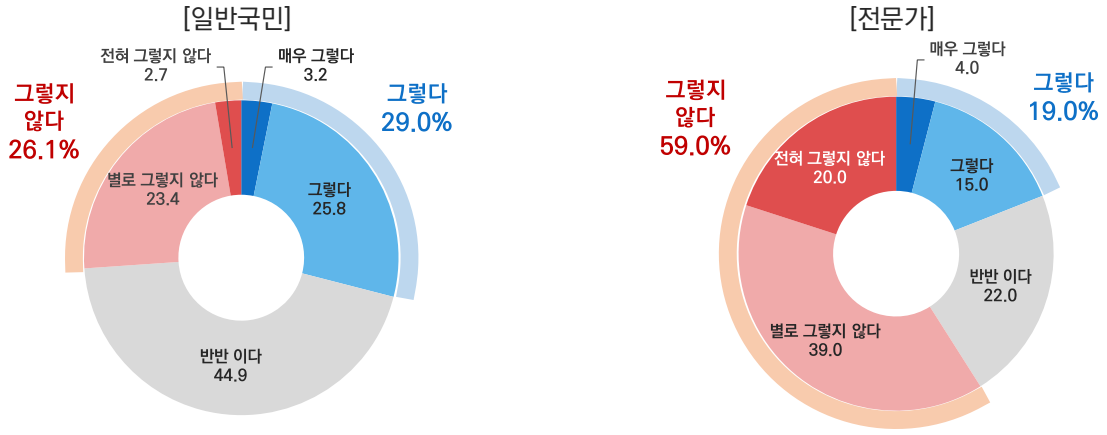
4) 혁신적이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29.0%, 전문가 19.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이 29.0%로 '그렇지 않다'(26.1%) 비율보다 2.9%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2023년(37.0%) 대비 8.0%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26.1%로 2023년(24.3%) 대비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0%로 '그렇다'(19.0%)보다 40.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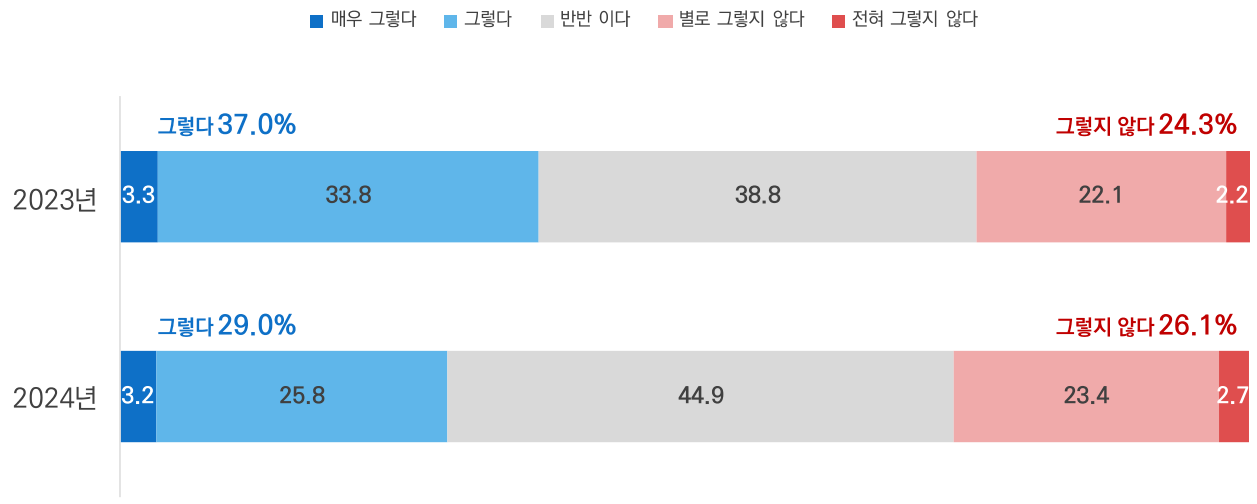
|그림 3-33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

(단위 : %)



|그림 3-33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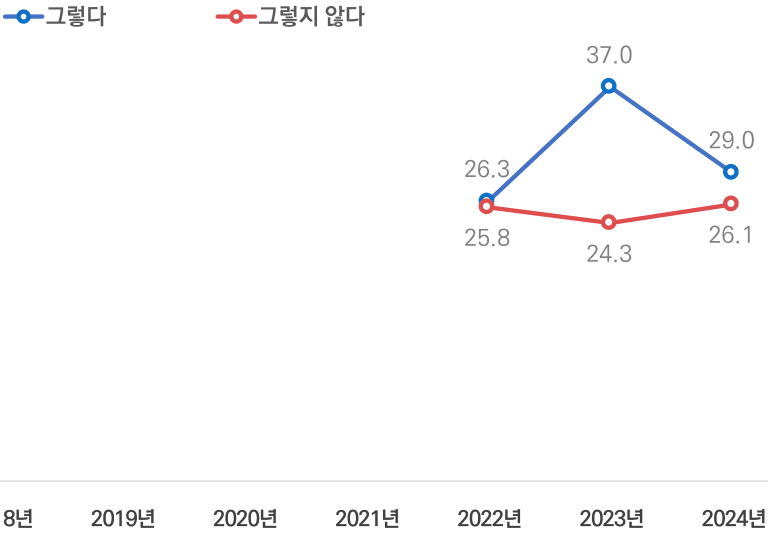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국방부 및 한국군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p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20|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2.9	3.3	3.2	-0.1	0.3
그렇다	–	–	–	–	–	–	–	23.3	33.8	25.8	-8.0	2.5
반반이다	–	–	–	–	–	–	–	48.0	38.8	44.9	6.1	-3.1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	22.6	22.1	23.4	1.3	0.8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3.2	2.2	2.7	0.5	-0.5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26.3	37.0	29.0	-8.0	2.7
그렇지 않다	–	–	–	–	–	–	–	25.8	24.3	26.1	1.8	0.3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2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4) 혁신적이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3.2	25.0	43.2	24.6	4.0	28.2	43.2	28.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25.8	44.9	23.4	2.7	29.0	44.9	26.1
	전문가	(100)	4.0	15.0	22.0	39.0	20.0	19.0	22.0	5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5.4	32.9	41.9	19.0	0.8	38.3	41.9	19.8
	중	(580)	1.9	24.3	43.8	26.0	4.0	26.2	43.8	30.0
	하	(231)	2.6	17.7	52.8	24.2	2.6	20.3	52.8	26.8
성별	남성	(720)	3.9	24.0	45.7	23.5	2.9	27.9	45.7	26.4
	여성	(480)	2.1	28.5	43.8	23.3	2.3	30.6	43.8	25.6
연령별	20대 이하	(217)	2.3	22.1	47.9	23.5	4.1	24.4	47.9	27.6
	30대	(194)	4.6	24.7	40.7	27.3	2.6	29.4	40.7	29.9
	40대	(226)	2.7	30.1	41.2	24.8	1.3	32.7	41.2	26.1
	50대	(255)	3.5	24.3	43.9	26.3	2.0	27.8	43.9	28.2
	60대 이상	(308)	2.9	27.3	49.0	17.5	3.2	30.2	49.0	20.8
지역별	서울	(140)	-	18.6	34.3	37.1	10.0	18.6	34.3	47.1
	경기/인천	(245)	2.9	29.0	51.4	15.9	0.8	31.8	51.4	16.7
	부산/울산/경남	(208)	2.9	21.2	45.2	28.8	1.9	24.0	45.2	30.8
	대구/경북	(141)	6.4	25.5	48.2	19.1	0.7	31.9	48.2	19.9
	광주/전라	(170)	0.6	37.6	46.5	15.3	-	38.2	46.5	15.3
	대전/충청/세종	(205)	2.4	27.3	40.0	27.3	2.9	29.8	40.0	30.2
	강원/제주	(91)	11.0	14.3	46.2	23.1	5.5	25.3	46.2	28.6
지역크기	대도시	(524)	1.7	22.9	42.7	28.4	4.2	24.6	42.7	32.6
	중·소도시	(639)	4.5	27.4	46.6	19.9	1.6	31.9	46.6	21.4
	읍/면	(37)	-	40.5	45.9	13.5	-	40.5	45.9	13.5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26.0	50.0	20.0	2.0	28.0	50.0	22.0
	자영업자	(185)	3.8	25.4	42.7	25.9	2.2	29.2	42.7	28.1
	판매/서비스직	(194)	1.0	25.8	45.4	26.3	1.5	26.8	45.4	27.8
	기능/숙련공	(127)	1.6	25.2	49.6	21.3	2.4	26.8	49.6	23.6
	일반 노무직	(41)	2.4	34.1	41.5	17.1	4.9	36.6	41.5	22.0
	사무/기술직	(283)	5.3	21.6	45.6	25.4	2.1	26.9	45.6	27.6
	경영/관리직	(19)	-	36.8	52.6	10.5	-	36.8	52.6	10.5
	전문/자유직	(7)	14.3	14.3	57.1	14.3	-	28.6	57.1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1.8	33.7	37.9	23.1	3.6	35.5	37.9	26.6
	학생	(73)	4.1	28.8	42.5	19.2	5.5	32.9	42.5	24.7
	무직/휴직/은퇴	(52)	5.8	13.5	55.8	19.2	5.8	19.2	55.8	25.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8	27.1	47.5	15.3	3.4	33.9	47.5	18.6
	고등학교	(440)	2.5	28.0	44.5	21.8	3.2	30.5	44.5	25.0
	전문대	(266)	1.1	25.2	46.2	25.2	2.3	26.3	46.2	27.4
	4년제 대학교	(427)	4.4	24.1	44.5	24.8	2.1	28.6	44.5	26.9
	대학원 이상	(8)	12.5	12.5	25.0	37.5	12.5	25.0	25.0	50.0
생활수준별	상	(73)	4.1	17.8	45.2	26.0	6.8	21.9	45.2	32.9
	중	(544)	3.3	31.4	40.4	22.8	2.0	34.7	40.4	24.8
	하	(583)	2.9	21.6	49.1	23.7	2.7	24.5	49.1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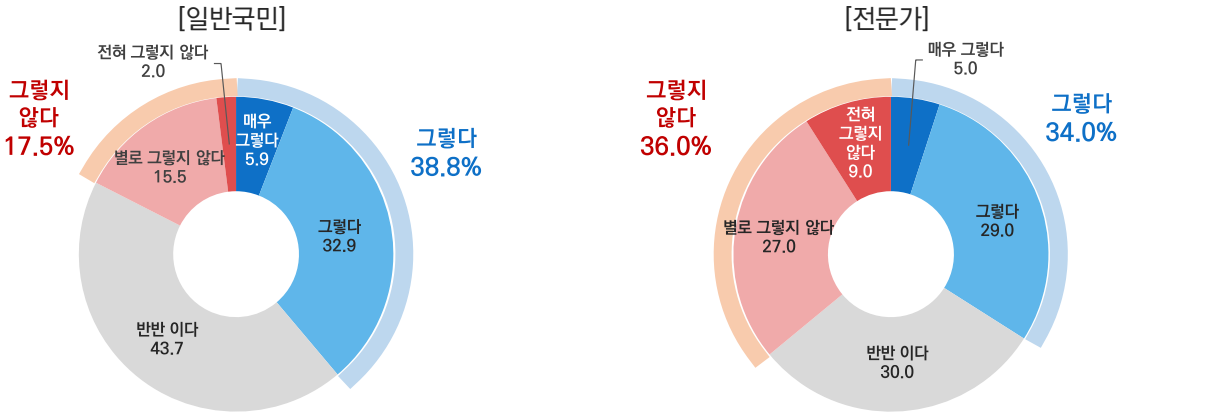
5) 친근하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8.8%, 전문가는 34.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그렇지 않다'(17.5%)보다 21.3%p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p(2023년 44.3%) 감소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0.7%p(2023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그렇다'(34.0%)보다 2.0%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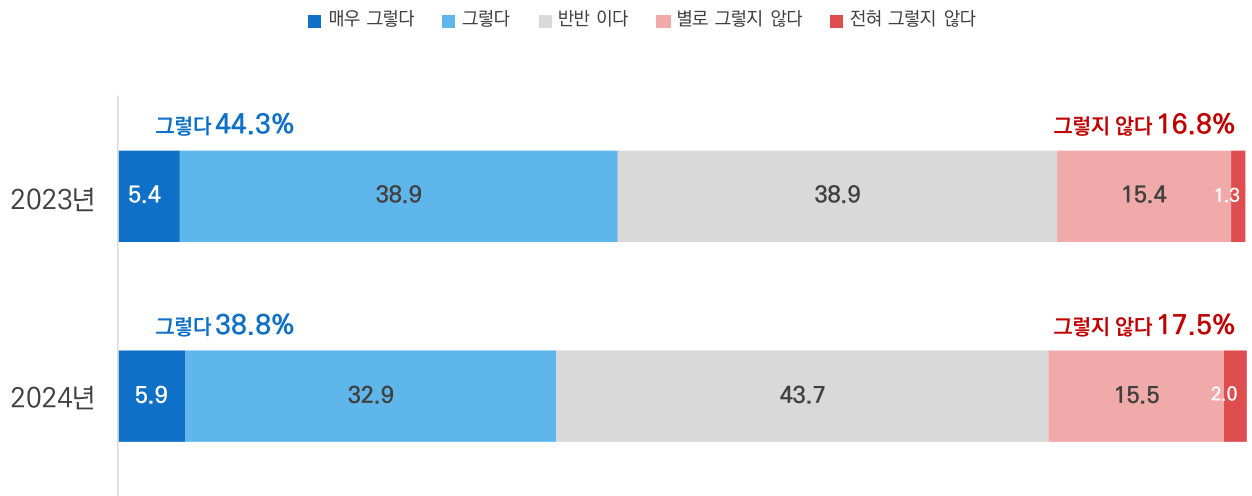
|그림 3-336|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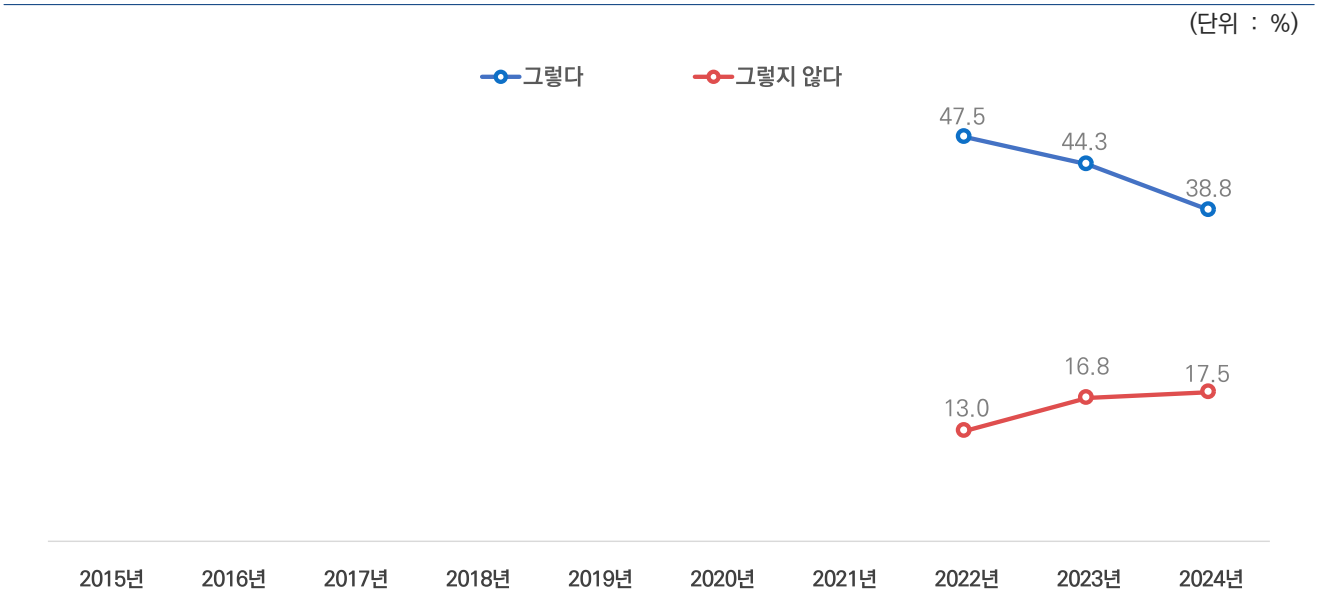
|그림 3-337|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국방부 및 한국군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7%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이후로 긍정 응답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2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그렇다	–	–	–	–	–	–	–	3.1	5.4	5.9	0.5	2.8
그렇다	–	–	–	–	–	–	–	44.4	38.9	32.9	-6.0	-11.5
반반이다	–	–	–	–	–	–	–	39.5	38.9	43.7	4.8	4.2
별로 그렇지 않다	–	–	–	–	–	–	–	11.8	15.4	15.5	0.1	3.7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1.3	1.3	2.0	0.7	0.7
무응답	–	–	–	–	–	–	–	–	–	–	–	–
그렇다	–	–	–	–	–	–	–	47.5	44.3	38.8	-5.5	-8.7
그렇지 않다	–	–	–	–	–	–	–	13.0	16.8	17.5	0.7	4.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2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5) 친근하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5.8	32.6	42.6	16.4	2.5	38.5	42.6	18.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9	32.9	43.7	15.5	2.0	38.8	43.7	17.5
	전문가	(100)	5.0	29.0	30.0	27.0	9.0	34.0	30.0	3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9.5	42.4	35.7	11.1	1.3	51.9	35.7	12.3
	중	(580)	3.6	28.6	48.1	17.2	2.4	32.2	48.1	19.7
	하	(231)	5.6	27.7	45.9	18.6	2.2	33.3	45.9	20.8
성별	남성	(720)	5.4	34.9	41.8	15.8	2.1	40.3	41.8	17.9
	여성	(480)	6.7	30.0	46.5	15.0	1.9	36.7	46.5	16.9
연령별	20대 이하	(217)	5.5	27.2	45.2	18.9	3.2	32.7	45.2	22.1
	30대	(194)	3.6	34.0	44.3	13.9	4.1	37.6	44.3	18.0
	40대	(226)	5.3	37.2	45.6	11.5	0.4	42.5	45.6	11.9
	50대	(255)	7.8	33.7	39.2	17.6	1.6	41.6	39.2	19.2
	60대 이상	(308)	6.5	32.5	44.5	15.3	1.3	39.0	44.5	16.6
지역별	서울	(140)	-	37.1	38.6	23.6	0.7	37.1	38.6	24.3
	경기/인천	(245)	5.3	40.4	41.6	10.6	2.0	45.7	41.6	12.7
	부산/울산/경남	(208)	6.3	23.6	45.2	21.6	3.4	29.8	45.2	25.0
	대구/경북	(141)	7.8	24.1	49.6	17.7	0.7	31.9	49.6	18.4
	광주/전라	(170)	1.2	48.2	42.9	7.6	-	49.4	42.9	7.6
	대전/충청/세종	(205)	9.8	30.7	45.4	13.2	1.0	40.5	45.4	14.1
	강원/제주	(91)	13.2	17.6	41.8	18.7	8.8	30.8	41.8	27.5
지역크기	대도시	(524)	2.3	30.5	45.4	19.5	2.3	32.8	45.4	21.8
	중·소도시	(639)	9.1	33.6	42.6	12.8	1.9	42.7	42.6	14.7
	읍/면	(37)	2.7	54.1	37.8	5.4	-	56.8	37.8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34.0	50.0	10.0	4.0	36.0	50.0	14.0
	자영업자	(185)	5.9	28.6	47.0	16.8	1.6	34.6	47.0	18.4
	판매/서비스직	(194)	5.2	36.1	41.2	16.0	1.5	41.2	41.2	17.5
	기능/숙련공	(127)	8.7	40.2	36.2	11.0	3.9	48.8	36.2	15.0
	일반 노무직	(41)	7.3	22.0	43.9	24.4	2.4	29.3	43.9	26.8
	사무/기술직	(283)	5.7	32.2	44.5	16.3	1.4	37.8	44.5	17.7
	경영/관리직	(19)	5.3	36.8	52.6	5.3	-	42.1	52.6	5.3
	전문/자유직	(7)	-	28.6	57.1	14.3	-	28.6	57.1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7.1	36.7	42.0	13.6	0.6	43.8	42.0	14.2
	학생	(73)	6.8	27.4	38.4	23.3	4.1	34.2	38.4	27.4
	무직/휴직/은퇴	(52)	1.9	25.0	55.8	13.5	3.8	26.9	55.8	17.3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1	28.8	55.9	10.2	-	33.9	55.9	10.2
	고등학교	(440)	8.6	33.2	39.8	16.8	1.6	41.8	39.8	18.4
	전문대	(266)	4.1	35.7	42.1	13.9	4.1	39.8	42.1	18.0
	4년제 대학교	(427)	4.4	32.1	46.8	15.5	1.2	36.5	46.8	16.6
	대학원 이상	(8)	-	-	50.0	37.5	12.5	-	50.0	50.0
생활수준별	상	(73)	4.1	30.1	46.6	17.8	1.4	34.2	46.6	19.2
	중	(544)	6.3	35.7	41.7	14.7	1.7	41.9	41.7	16.4
	하	(583)	5.8	30.7	45.1	16.0	2.4	36.5	45.1	18.4

Ⅵ.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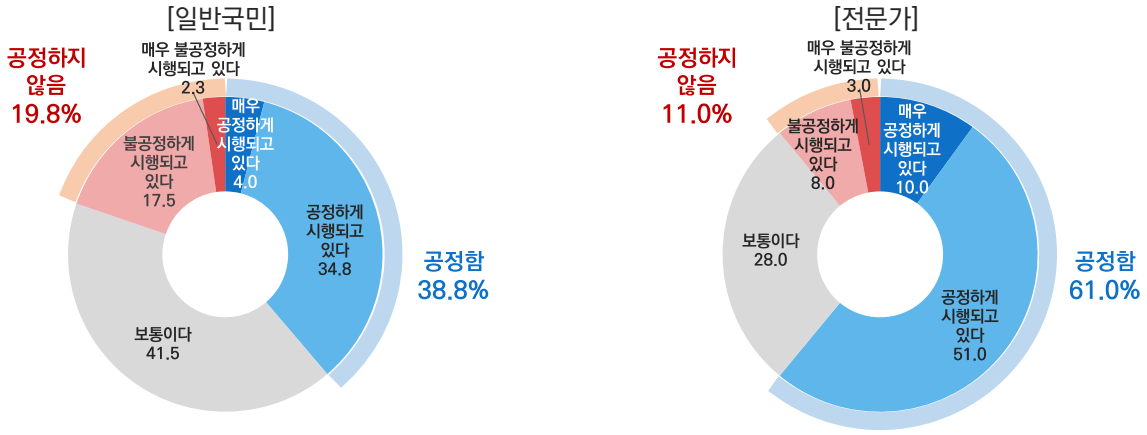
1. 징병제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징병제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8.8%, 전문가 61.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 징병제가 '공정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불공정함'(19.8%) 보다 19.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공정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p(2023년 34.0%) 증가하였으며, '공정하지 않음'은 4.0%p(2023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우리나라 징병제가 '공정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공정하지 않음'(11.0%)보다 50.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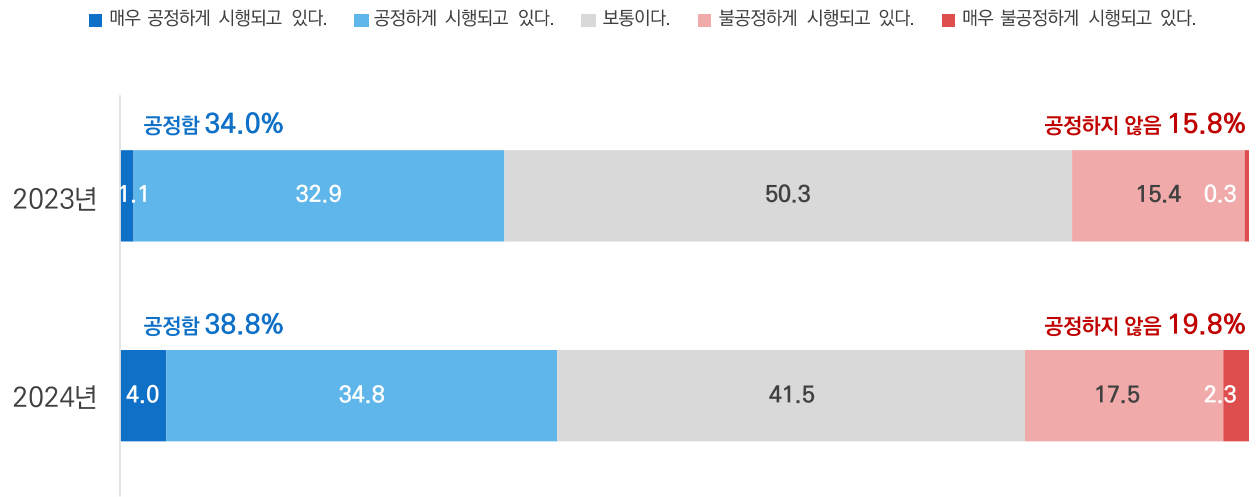
|그림 3-339| 징병제에 대한 생각

(단위 : %)



|그림 3-340| 징병제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공정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의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24| 징병제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통이다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매우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종합		
								공정함	보통	불공정함
전체		(1,300)	4.5	36.0	40.5	16.8	2.3	40.5	40.5	1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0	34.8	41.5	17.5	2.3	38.8	41.5	19.8
	전문가	(100)	10.0	51.0	28.0	8.0	3.0	61.0	28.0	1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7.2	42.4	37.3	12.1	1.0	49.6	37.3	13.1
	중	(580)	1.4	34.1	43.1	17.9	3.4	35.5	43.1	21.4
	하	(231)	5.2	23.4	44.6	25.5	1.3	28.6	44.6	26.8
성별	남성	(720)	3.9	34.2	41.1	18.5	2.4	38.1	41.1	20.8
	여성	(480)	4.2	35.6	42.1	16.0	2.1	39.8	42.1	18.1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	29.0	43.8	21.2	4.1	30.9	43.8	25.3
	30대	(194)	5.2	37.1	36.1	19.6	2.1	42.3	36.1	21.6
	40대	(226)	3.5	35.8	42.9	15.9	1.8	39.4	42.9	17.7
	50대	(255)	3.5	35.7	44.7	14.9	1.2	39.2	44.7	16.1
	60대 이상	(308)	5.5	35.7	39.6	16.9	2.3	41.2	39.6	19.2
지역별	서울	(140)	3.6	32.9	37.1	11.4	15.0	36.4	37.1	26.4
	경기/인천	(245)	2.0	51.8	33.1	13.1	-	53.9	33.1	13.1
	부산/울산/경남	(208)	2.9	21.2	42.8	33.2	-	24.0	42.8	33.2
	대구/경북	(141)	7.8	35.5	48.2	7.1	1.4	43.3	48.2	8.5
	광주/전라	(170)	2.4	27.1	53.5	17.1	-	29.4	53.5	17.1
	대전/충청/세종	(205)	2.4	38.0	37.6	20.5	1.5	40.5	37.6	22.0
	강원/제주	(91)	13.2	28.6	44.0	13.2	1.1	41.8	44.0	14.3
지역크기	대도시	(524)	3.4	31.3	39.5	21.6	4.2	34.7	39.5	25.8
	중·소도시	(639)	4.4	36.9	43.2	14.7	0.8	41.3	43.2	15.5
	읍/면	(37)	5.4	45.9	40.5	8.1	-	51.4	40.5	8.1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20.0	46.0	30.0	-	24.0	46.0	30.0
	자영업자	(185)	4.3	38.9	42.7	11.9	2.2	43.2	42.7	14.1
	판매/서비스직	(194)	5.2	33.0	39.2	22.2	0.5	38.1	39.2	22.7
	기능/숙련공	(127)	5.5	35.4	37.0	22.0	-	40.9	37.0	22.0
	일반 노무직	(41)	4.9	34.1	51.2	9.8	-	39.0	51.2	9.8
	사무/기술직	(283)	1.4	36.4	40.6	18.4	3.2	37.8	40.6	21.6
	경영/관리직	(19)	15.8	47.4	36.8	-	-	63.2	36.8	-
	전문/자유직	(7)	14.3	28.6	42.9	14.3	-	42.9	42.9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5.9	37.9	40.8	10.1	5.3	43.8	40.8	15.4
	학생	(73)	-	23.3	50.7	21.9	4.1	23.3	50.7	26.0
	무직/휴직/은퇴	(52)	1.9	32.7	40.4	23.1	1.9	34.6	40.4	25.0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30.5	45.8	18.6	3.4	32.2	45.8	22.0
	고등학교	(440)	5.5	33.4	43.6	15.9	1.6	38.9	43.6	17.5
	전문대	(266)	3.0	35.7	40.6	18.0	2.6	38.7	40.6	20.7
	4년제 대학교	(427)	3.0	36.8	38.6	19.0	2.6	39.8	38.6	21.5
	대학원 이상	(8)	25.0	-	75.0	-	-	25.0	75.0	-
생활수준별	상	(73)	5.5	45.2	35.6	8.2	5.5	50.7	35.6	13.7
	중	(544)	3.7	38.6	42.6	11.9	3.1	42.3	42.6	15.1
	하	(583)	4.1	29.8	41.2	23.8	1.0	34.0	41.2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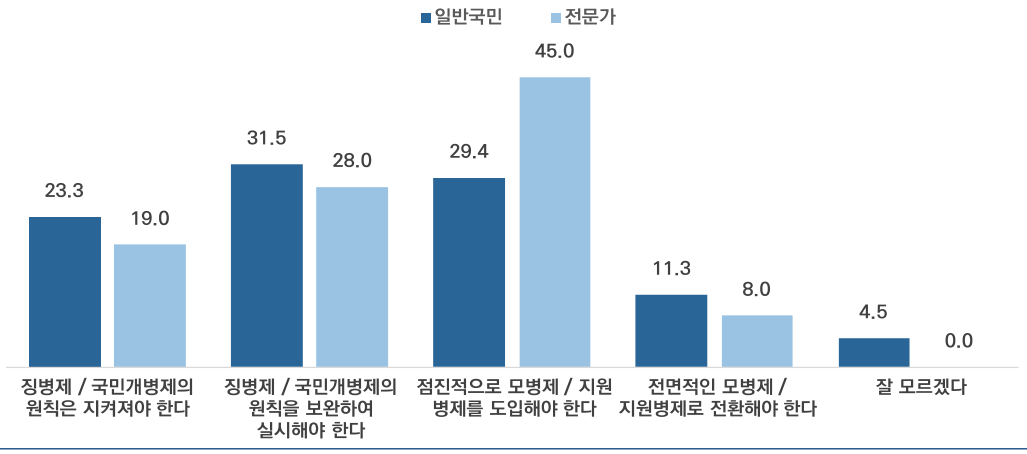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5%,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29.4%),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가 11.3%로 5.4%p(2023년 5.9%) 증가하였으며,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31.5%로 4.7%p(2023년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4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28.0%),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19.0%)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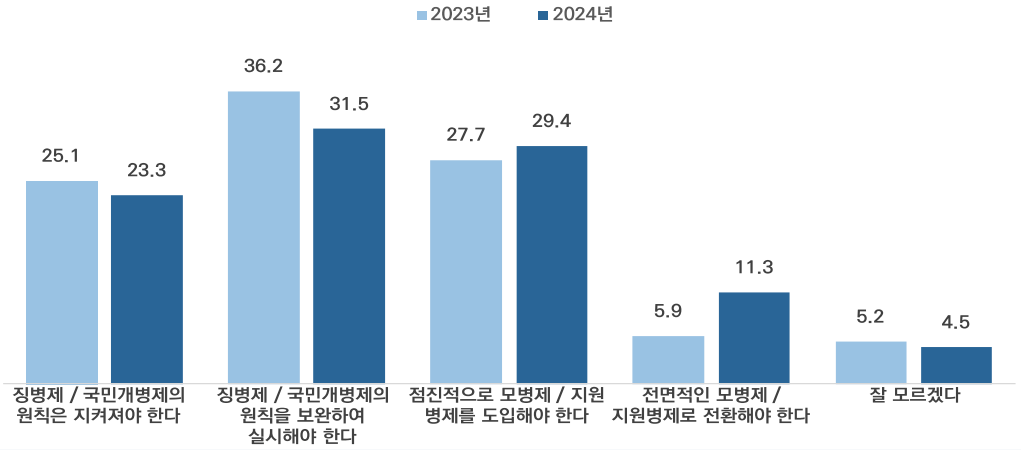
|그림 3-341|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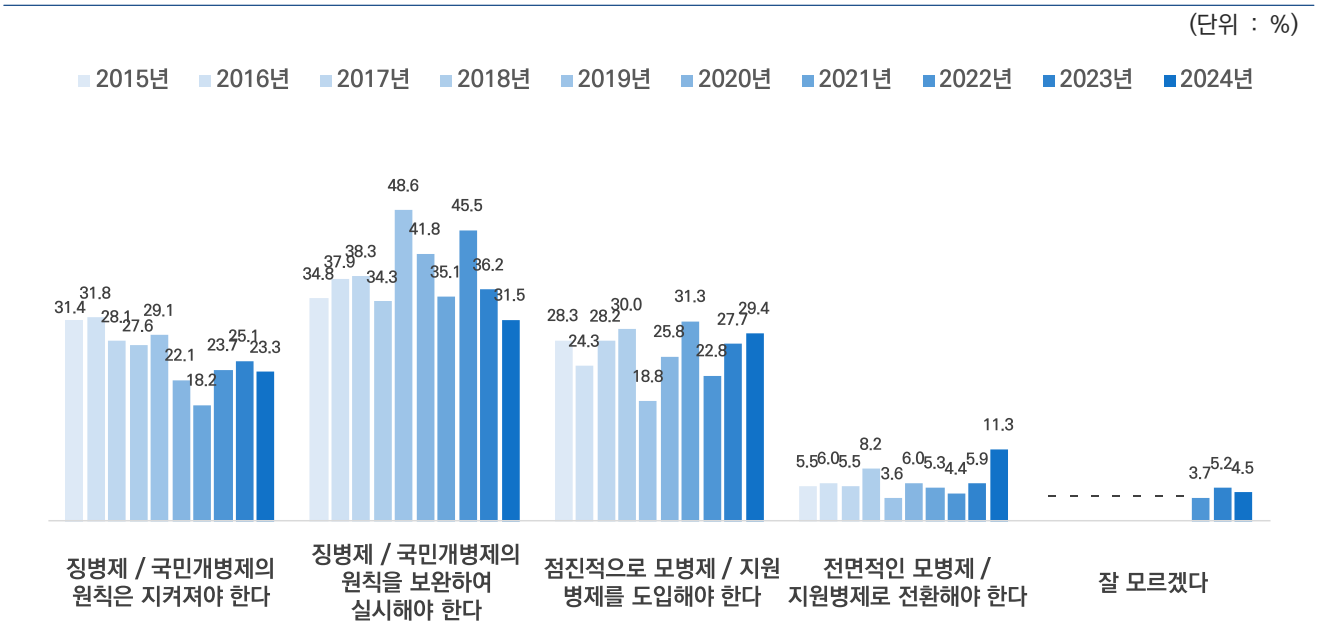
|그림 3-342|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p 감소했으며,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율은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3|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25|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31.4	31.8	28.1	27.6	29.1	22.1	18.2	23.7	25.1	23.3	-1.8	-8.1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34.8	37.9	38.3	34.3	48.6	41.8	35.1	45.5	36.2	31.5	-4.7	-3.3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28.3	24.3	28.2	30.0	18.8	25.8	31.3	22.8	27.7	29.4	1.7	1.1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5.5	6.0	5.5	8.2	3.6	6.0	5.3	4.4	5.9	11.3	5.4	5.8
잘 모르겠다	-	-	-	-	-	0.0	0.0	3.7	5.2	4.5	-0.7	-

✔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해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학생',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26|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징병제/국민 개병제의 원칙 준수	징병제/국민 개병제의 원칙 보완하여 실시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 제도입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 제로 전환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23.0	31.2	30.6	11.0	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3	31.5	29.4	11.3	4.5
	전문가	(100)	19.0	28.0	45.0	8.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2.1	32.6	30.6	10.8	3.9
	중	(580)	23.1	29.1	32.2	11.7	3.8
	하	(231)	26.0	35.5	20.3	10.8	7.4
성별	남성	(720)	23.2	32.9	28.8	12.2	2.9
	여성	(480)	23.5	29.4	30.4	9.8	6.9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0	35.9	27.2	12.4	6.5
	30대	(194)	24.2	29.9	29.9	10.8	5.2
	40대	(226)	22.6	32.7	31.4	11.1	2.2
	50대	(255)	24.3	27.5	30.6	12.2	5.5
	60대 이상	(308)	26.3	31.8	28.2	10.1	3.6
지역별	서울	(140)	22.1	25.0	22.9	27.9	2.1
	경기/인천	(245)	29.8	26.9	32.7	4.9	5.7
	부산/울산/경남	(208)	36.5	32.7	23.1	4.3	3.4
	대구/경북	(141)	23.4	31.9	34.8	7.1	2.8
	광주/전라	(170)	12.4	32.9	24.7	27.6	2.4
	대전/충청/세종	(205)	10.7	35.1	39.5	8.3	6.3
	강원/제주	(91)	26.4	39.6	23.1	1.1	9.9
지역크기	대도시	(524)	23.7	30.7	29.6	13.4	2.7
	중·소도시	(639)	24.1	32.9	28.0	9.4	5.6
	읍/면	(37)	5.4	18.9	51.4	13.5	10.8
직업별	농/어/임업	(50)	24.0	26.0	34.0	14.0	2.0
	자영업자	(185)	21.6	35.7	28.6	11.9	2.2
	판매/서비스직	(194)	22.2	30.4	32.5	9.3	5.7
	기능/숙련공	(127)	25.2	22.8	38.6	9.4	3.9
	일반 노무직	(41)	36.6	24.4	29.3	7.3	2.4
	사무/기술직	(283)	21.6	32.5	27.9	13.8	4.2
	경영/관리직	(19)	36.8	15.8	31.6	10.5	5.3
	전문/자유직	(7)	42.9	42.9	-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26.0	31.4	27.2	10.1	5.3
	학생	(73)	16.4	38.4	23.3	15.1	6.8
	무직/휴직/은퇴	(52)	21.2	42.3	21.2	5.8	9.6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27.1	23.7	28.8	10.2	10.2
	고등학교	(440)	24.1	33.0	29.3	9.3	4.3
	전문대	(266)	23.3	29.3	30.5	11.7	5.3
	4년제 대학교	(427)	22.2	32.8	28.3	13.1	3.5
	대학원 이상	(8)	12.5	12.5	62.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24.7	27.4	34.2	11.0	2.7
	중	(544)	21.9	30.9	31.3	12.9	3.1
	하	(583)	24.5	32.6	27.1	9.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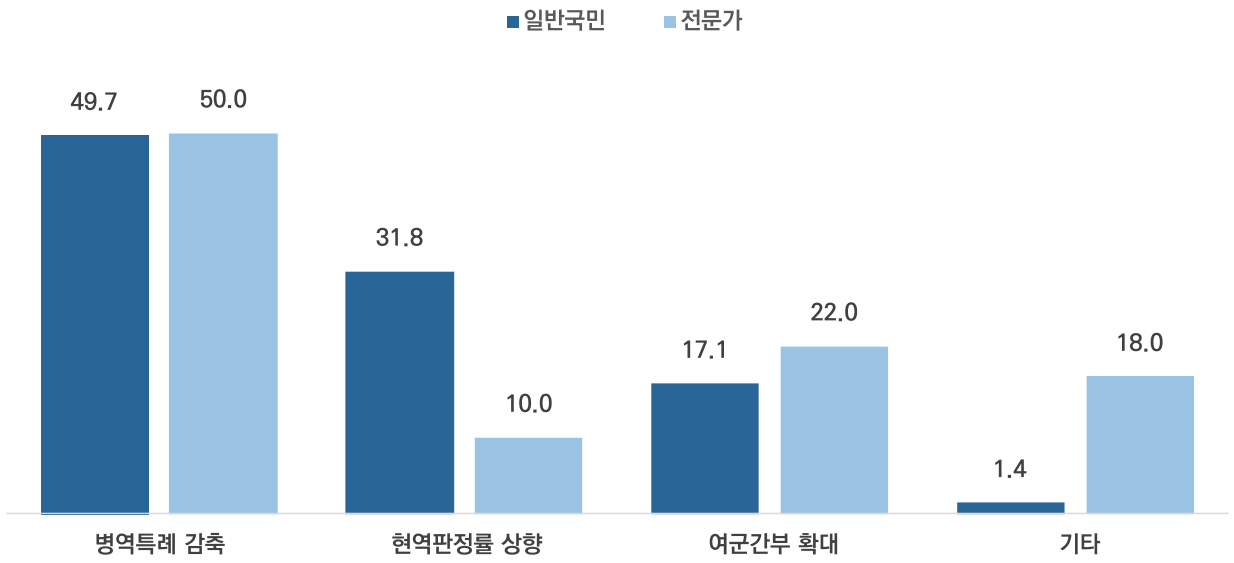
3.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10)]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병역특례 감축'이 일반국민은 49.7%, 전문가는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병역특례 감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역판정률 상향'(31.8%), '여군간부 확대'(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병역특례 감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군간부 확대'(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44|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단위 : %)



10)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및 연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병역특례 감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본인 안보 수준별로 '하',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27|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병역특례 감축	현역판정률 상향	여군간부 확대	기타
전체		(1,300)	49.7	30.2	17.5	2.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7	31.8	17.1	1.4
	전문가	(100)	50.0	10.0	22.0	1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49.9	28.5	20.3	1.3
	중	(580)	47.9	34.0	16.6	1.6
	하	(231)	53.7	32.0	13.0	1.3
성별	남성	(720)	49.9	32.5	16.3	1.4
	여성	(480)	49.4	30.8	18.3	1.5
연령별	20대 이하	(217)	48.8	32.7	16.1	2.3
	30대	(194)	44.8	35.1	19.6	0.5
	40대	(226)	46.5	31.0	21.2	1.3
	50대	(255)	51.8	31.0	14.5	2.7
	60대 이상	(308)	53.9	30.5	15.3	0.3
지역별	서울	(140)	44.3	38.6	15.7	1.4
	경기/인천	(245)	45.3	39.6	15.1	-
	부산/울산/경남	(208)	56.7	29.8	13.5	-
	대구/경북	(141)	46.1	29.1	24.8	-
	광주/전라	(170)	62.4	25.3	12.4	-
	대전/충청/세종	(205)	43.4	33.7	21.5	1.5
	강원/제주	(91)	49.5	17.6	19.8	13.2
지역크기	대도시	(524)	48.9	34.5	15.6	1.0
	중·소도시	(639)	49.1	30.4	18.6	1.9
	읍/면	(37)	70.3	18.9	10.8	-
직업별	농/어/임업	(50)	44.0	34.0	22.0	-
	자영업자	(185)	48.6	32.4	16.8	2.2
	판매/서비스직	(194)	50.5	32.5	15.5	1.5
	기능/숙련공	(127)	55.1	30.7	14.2	-
	일반 노무직	(41)	58.5	29.3	12.2	-
	사무/기술직	(283)	45.2	34.6	18.7	1.4
	경영/관리직	(19)	36.8	26.3	26.3	10.5
	전문/자유직	(7)	85.7	14.3	-	-
	군인/경찰/소방	(-)	-	-	-	-
	전업주부	(169)	49.1	30.8	18.9	1.2
	학생	(73)	52.1	30.1	17.8	-
	무직/휴직/은퇴	(52)	57.7	25.0	13.5	3.8
	기타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55.9	25.4	18.6	-
	고등학교	(440)	49.3	30.5	18.6	1.6
	전문대	(266)	51.1	33.5	13.5	1.9
	4년제 대학교	(427)	48.9	33.0	17.1	0.9
	대학원 이상	(8)	12.5	37.5	37.5	12.5
생활수준별	상	(73)	38.4	30.1	27.4	4.1
	중	(544)	49.4	32.5	16.9	1.1
	하	(583)	51.3	31.4	16.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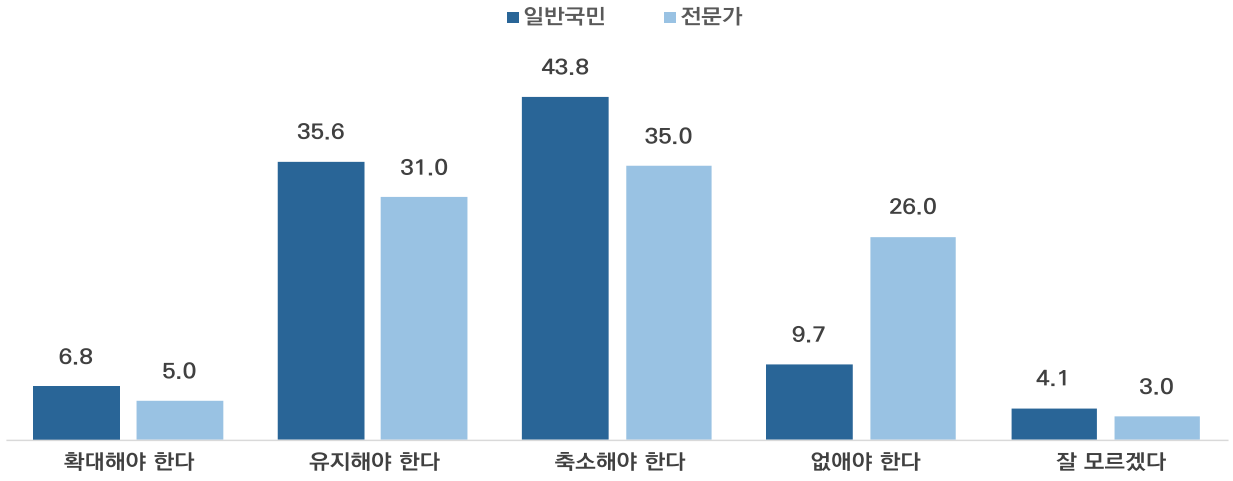
4.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43.8%, 전문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지해야 한다'(35.6%), '없애야 한다'(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9%p(2023년 29.9%) 증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15.9%p(2023년 5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지해야 한다'(31.0%), '없애야 한다'(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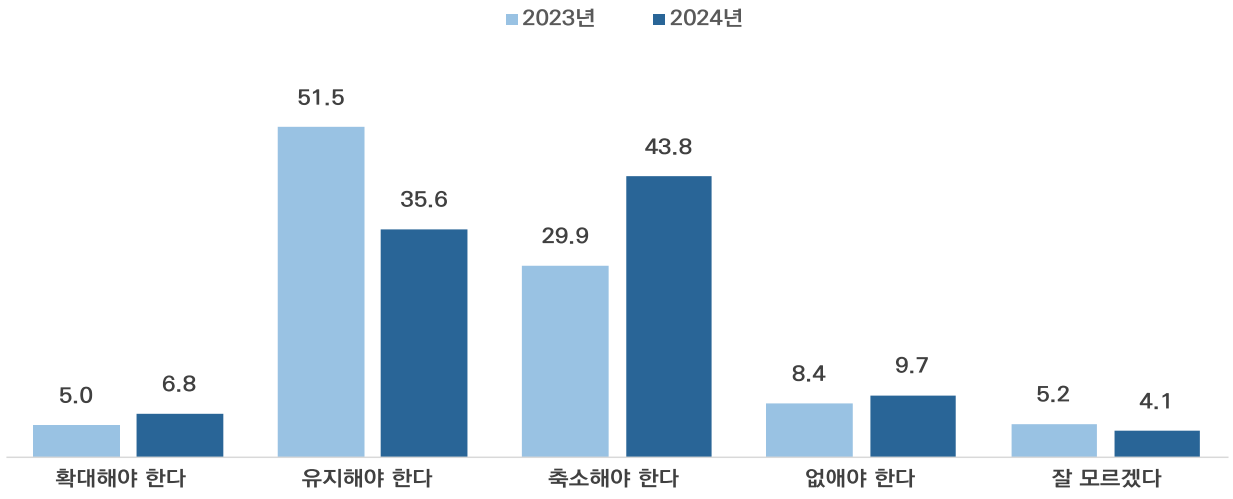
|그림 3-345|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단위 : %)



|그림 3-346|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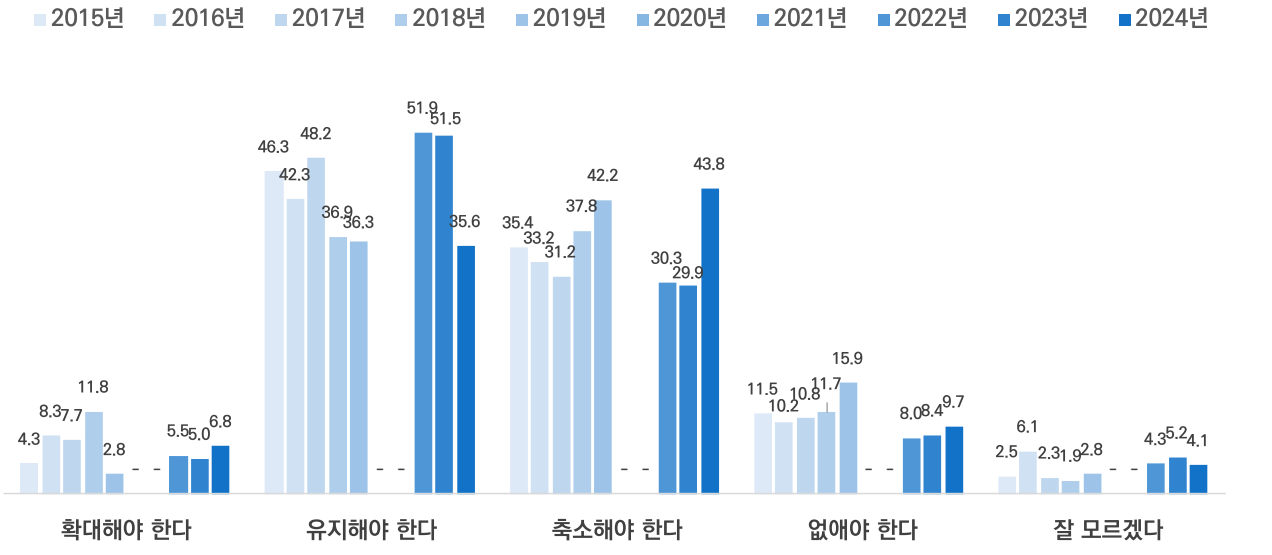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p 증가했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1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7|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28|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확대해야 한다	4.3	8.3	7.7	11.8	2.8	-	-	5.5	5.0	6.8	1.8	2.5
유지해야 한다	46.3	42.3	48.2	36.9	36.3	-	-	51.9	51.5	35.6	-15.9	-10.7
축소해야 한다	35.4	33.2	31.2	37.8	42.2	-	-	30.3	29.9	43.8	13.9	8.4
없애야 한다	11.5	10.2	10.8	11.7	15.9	-	-	8.0	8.4	9.7	1.3	-1.8
잘 모르겠다	2.5	6.1	2.3	1.9	2.8	-	-	4.3	5.2	4.1	-1.1	1.6

※2020~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29|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확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6.7	35.2	43.2	10.9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8	35.6	43.8	9.7	4.1
	전문가	(100)	5.0	31.0	35.0	26.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0.3	33.9	47.3	6.7	1.8
	중	(580)	4.3	36.6	44.5	10.3	4.3
	하	(231)	7.4	35.9	36.4	13.0	7.4
성별	남성	(720)	7.6	33.2	45.0	11.0	3.2
	여성	(480)	5.6	39.2	42.1	7.7	5.4
연령별	20대 이하	(217)	7.4	35.5	44.2	8.8	4.1
	30대	(194)	8.2	32.5	45.4	10.8	3.1
	40대	(226)	5.3	37.2	44.7	9.3	3.5
	50대	(255)	4.7	37.6	43.5	11.0	3.1
	60대 이상	(308)	8.4	34.7	42.2	8.8	5.8
지역별	서울	(140)	5.7	36.4	35.7	20.0	2.1
	경기/인천	(245)	12.2	34.7	42.4	9.0	1.6
	부산/울산/경남	(208)	1.9	41.8	44.2	8.2	3.8
	대구/경북	(141)	7.1	24.8	56.0	4.3	7.8
	광주/전라	(170)	2.4	41.8	44.7	8.8	2.4
	대전/충청/세종	(205)	4.4	27.3	53.7	11.2	3.4
	강원/제주	(91)	18.7	46.2	16.5	5.5	13.2
지역크기	대도시	(524)	4.4	40.8	41.0	10.1	3.6
	중·소도시	(639)	9.2	31.0	45.7	9.4	4.7
	읍/면	(37)	-	40.5	51.4	8.1	-
직업별	농/어/임업	(50)	4.0	40.0	40.0	10.0	6.0
	자영업자	(185)	9.2	31.4	46.5	10.3	2.7
	판매/서비스직	(194)	5.2	37.1	40.2	13.4	4.1
	기능/숙련공	(127)	5.5	34.6	48.0	8.7	3.1
	일반 노무직	(41)	9.8	29.3	56.1	2.4	2.4
	사무/기술직	(283)	5.3	38.9	42.4	11.3	2.1
	경영/관리직	(19)	15.8	21.1	52.6	-	10.5
	전문/자유직	(7)	14.3	42.9	28.6	-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7.1	40.8	39.6	7.1	5.3
	학생	(73)	6.8	30.1	47.9	9.6	5.5
	무직/휴직/은퇴	(52)	11.5	25.0	46.2	5.8	11.5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6.8	28.8	39.0	10.2	15.3
	고등학교	(440)	7.5	35.7	45.7	7.7	3.4
	전문대	(266)	6.8	38.7	41.7	9.8	3.0
	4년제 대학교	(427)	6.3	34.2	44.0	11.5	4.0
	대학원 이상	(8)	-	50.0	37.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11.0	41.1	34.2	9.6	4.1
	중	(544)	7.4	40.3	42.3	6.8	3.3
	하	(583)	5.8	30.5	46.5	12.3	4.8

5. 군대 내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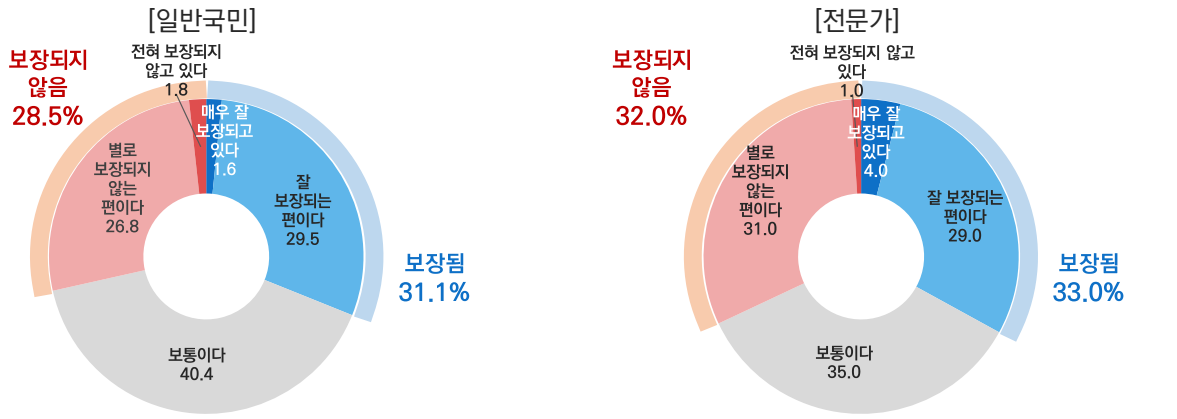
1)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은 31.1%, 전문가는 33.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내의 인권 보장이 '보장'되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보장되지 않음'(28.5%)보다 2.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p(2023년 36.9%) 감소하였으며, '보장되지 않음'은 7.2%p(2023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보장되지 않음'(32.0%)보다 1.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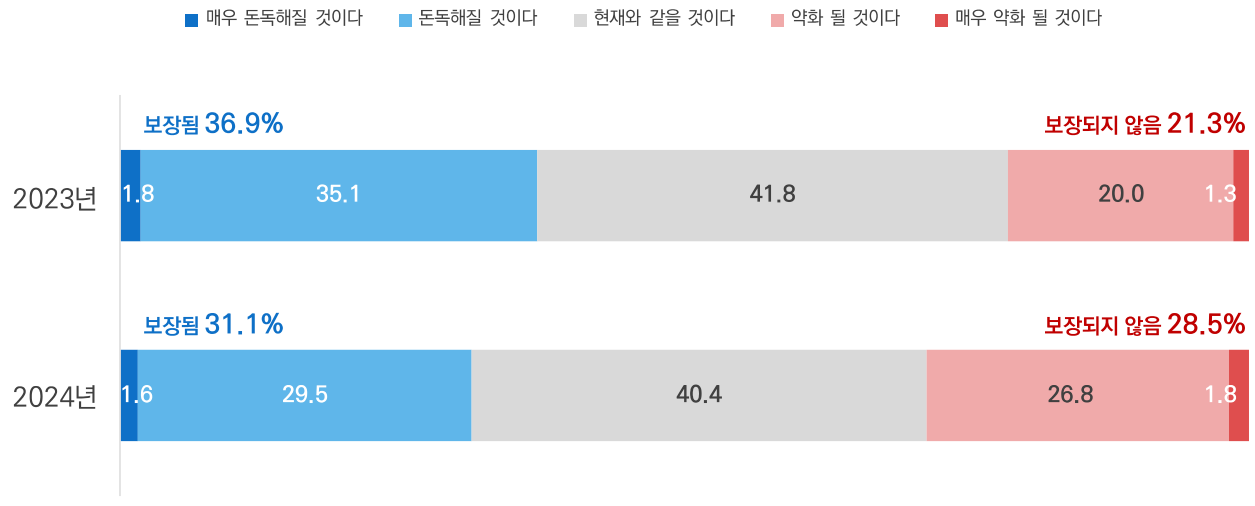
|그림 3-348|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단위 : %)



|그림 3-349|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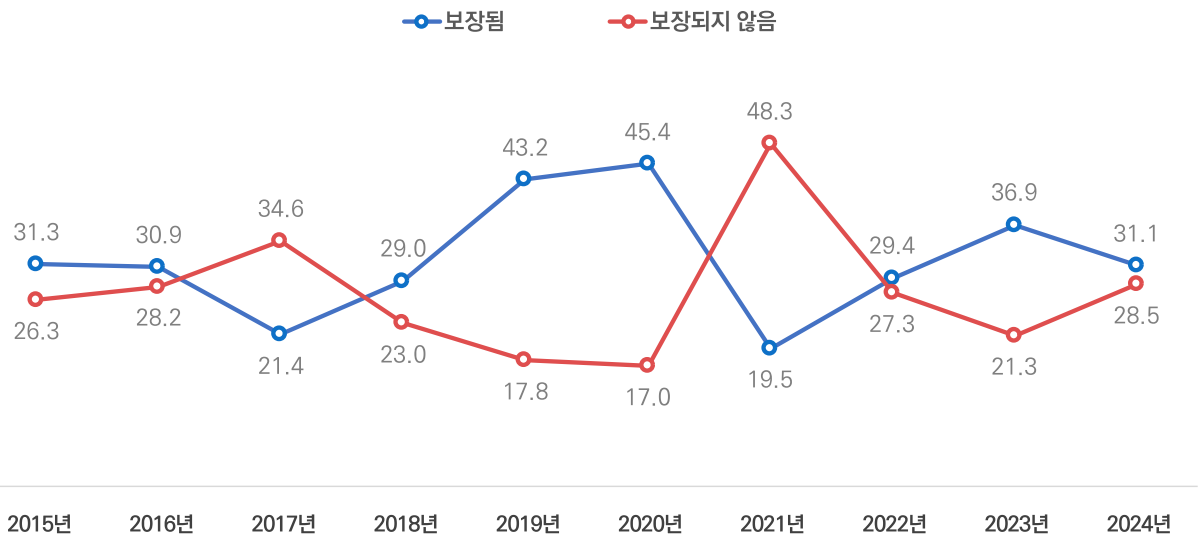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15년 대비 군대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2%p 감소했으며, '보장되지 않음'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0|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표 3-230|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2.1	1.8	1.3	4.4	1.8	1.9	2.0	1.7	1.8	1.6	-0.2	-0.5
잘 보장되는 편이다	29.3	29.1	20.1	24.6	41.3	43.5	17.5	27.8	35.1	29.5	-5.6	0.2
보통이다	42.3	40.9	44.0	48.0	39.1	37.6	32.3	43.3	41.8	40.4	-1.4	-1.9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22.5	25.7	30.3	21.2	17.3	15.6	35.9	24.8	20.0	26.8	6.8	4.3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3.8	2.5	4.3	1.8	0.5	1.4	12.3	2.5	1.3	1.8	0.5	-2.0
무응답	-	-	-	-	-	-	-	-	-	-	-	-
보장됨	31.3	30.9	21.4	29.0	43.2	45.4	19.5	29.4	36.9	31.1	-5.8	-0.2
보장되지 않음	26.3	28.2	34.6	23.0	17.8	17.0	48.3	27.3	21.3	28.5	7.2	2.2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1|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잘 보장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종합		
								보장됨	보통	보장되지 않음
전체		(1,300)	1.8	29.5	40.0	27.1	1.7	31.2	40.0	2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	29.5	40.4	26.8	1.8	31.1	40.4	28.5
	전문가	(100)	4.0	29.0	35.0	31.0	1.0	33.0	35.0	3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2.8	34.4	43.4	18.3	1.0	37.3	43.4	19.3
	중	(580)	0.9	28.3	40.0	30.5	0.3	29.1	40.0	30.9
	하	(231)	1.3	24.2	36.4	31.6	6.5	25.5	36.4	38.1
성별	남성	(720)	1.4	29.6	40.3	27.8	1.0	31.0	40.3	28.8
	여성	(480)	1.9	29.4	40.6	25.2	2.9	31.3	40.6	28.1
연령별	20대 이하	(217)	-	30.0	38.7	28.6	2.8	30.0	38.7	31.3
	30대	(194)	1.0	29.9	39.2	29.4	0.5	30.9	39.2	29.9
	40대	(226)	0.9	28.8	41.2	27.9	1.3	29.6	41.2	29.2
	50대	(255)	2.0	26.7	43.1	26.7	1.6	28.6	43.1	28.2
	60대 이상	(308)	3.2	31.8	39.6	23.1	2.3	35.1	39.6	25.3
지역별	서울	(140)	-	27.9	25.0	45.7	1.4	27.9	25.0	47.1
	경기/인천	(245)	1.2	40.4	38.4	19.6	0.4	41.6	38.4	20.0
	부산/울산/경남	(208)	3.8	27.9	32.7	35.1	0.5	31.7	32.7	35.6
	대구/경북	(141)	2.8	32.6	46.8	15.6	2.1	35.5	46.8	17.7
	광주/전라	(170)	-	24.1	58.8	17.1	-	24.1	58.8	17.1
	대전/충청/세종	(205)	0.5	25.9	45.9	26.3	1.5	26.3	45.9	27.8
	강원/제주	(91)	3.3	19.8	30.8	34.1	12.1	23.1	30.8	46.2
지역크기	대도시	(524)	2.1	32.1	36.5	28.8	0.6	34.2	36.5	29.4
	중·소도시	(639)	1.3	27.7	41.9	26.3	2.8	29.0	41.9	29.1
	읍/면	(37)	-	24.3	70.3	5.4	-	24.3	70.3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2.0	26.0	44.0	26.0	2.0	28.0	44.0	28.0
	자영업자	(185)	1.6	27.0	42.2	28.1	1.1	28.6	42.2	29.2
	판매/서비스직	(194)	0.5	25.8	44.8	27.8	1.0	26.3	44.8	28.9
	기능/숙련공	(127)	2.4	38.6	31.5	27.6	-	40.9	31.5	27.6
	일반 노무직	(41)	-	39.0	39.0	22.0	-	39.0	39.0	22.0
	사무/기술직	(283)	1.4	31.1	37.5	27.9	2.1	32.5	37.5	30.0
	경영/관리직	(19)	-	42.1	42.1	15.8	-	42.1	42.1	15.8
	전문/자유직	(7)	-	28.6	42.9	14.3	14.3	28.6	42.9	28.6
	군인/경찰/소방	(-)	-	-	-	-	-	-	-	-
	전업주부	(169)	3.0	27.8	42.0	23.7	3.6	30.8	42.0	27.2
	학생	(73)	-	27.4	43.8	27.4	1.4	27.4	43.8	28.8
	무직/휴직/은퇴	(52)	3.8	21.2	42.3	28.8	3.8	25.0	42.3	32.7
	기타	(-)	-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7	37.3	42.4	16.9	1.7	39.0	42.4	18.6
	고등학교	(440)	3.0	29.3	41.1	25.0	1.6	32.3	41.1	26.6
	전문대	(266)	-	27.1	43.2	27.1	2.6	27.1	43.2	29.7
	4년제 대학교	(427)	0.9	30.4	37.5	29.7	1.4	31.4	37.5	31.1
	대학원 이상	(8)	12.5	12.5	50.0	25.0	-	25.0	50.0	25.0
생활수준별	상	(73)	1.4	38.4	20.5	37.0	2.7	39.7	20.5	39.7
	중	(544)	1.7	31.6	44.5	21.3	0.9	33.3	44.5	22.2
	하	(583)	1.5	26.4	39.1	30.5	2.4	28.0	39.1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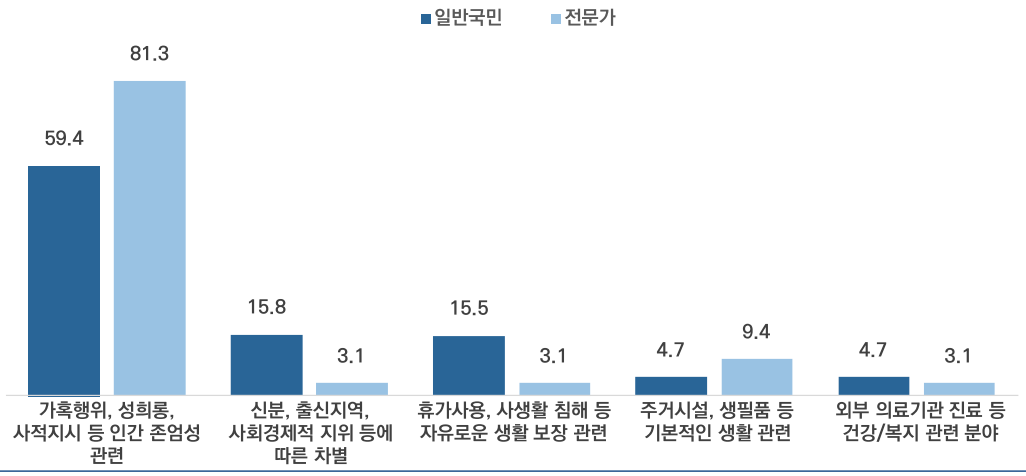
2)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으로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은 59.4%, 전문가는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15.8%),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p(2023년 11.4%) 증가하였으며,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비율은 4.1%p(2023년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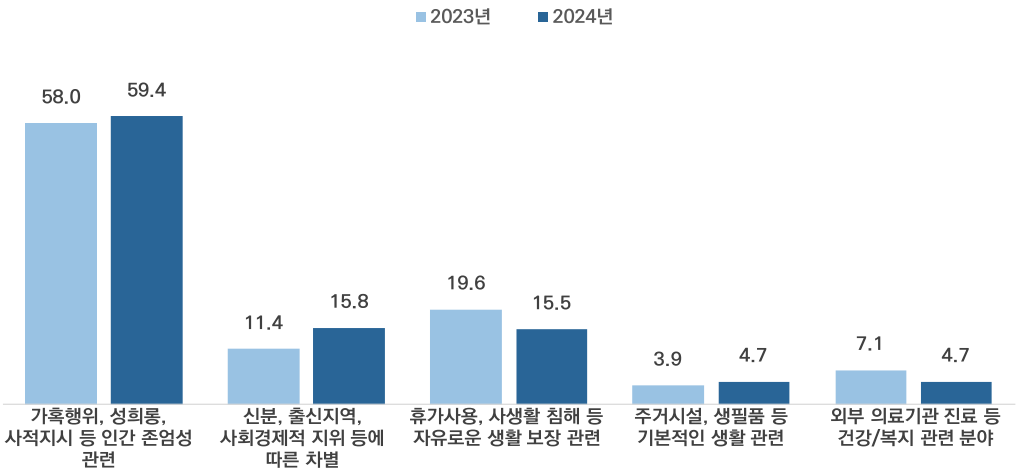
|그림 3-351|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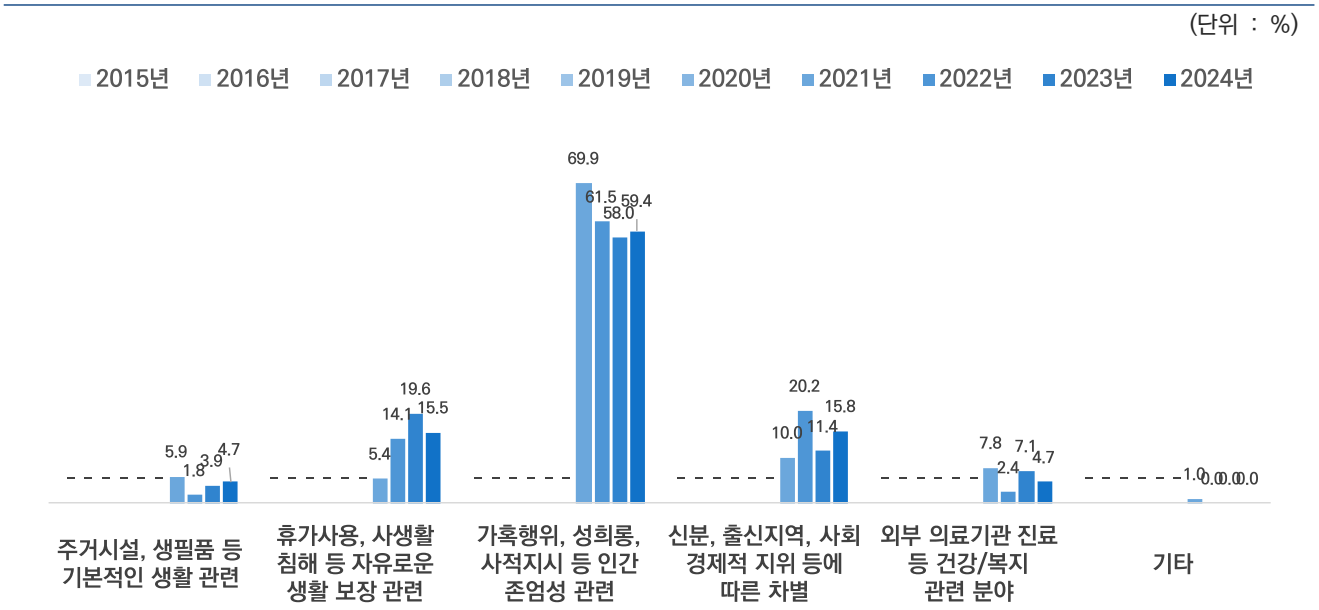
|그림 3-352|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1년 대비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5%p 감소했으며,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비율은 1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3|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32|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2022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	-	-	-	-	-	5.9	1.8	3.9	4.7	0.8	-1.2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	-	-	-	-	-	5.4	14.1	19.6	15.5	-4.1	10.1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	-	-	-	-	-	69.9	61.5	58.0	59.4	1.4	-10.5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	-	-	-	-	-	10.0	20.2	11.4	15.8	4.4	5.8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	-	-	-	-	-	7.8	2.4	7.1	4.7	-2.4	-3.1
기타	-	-	-	-	-	-	1.0	0.0	0.0	0.0	0.0	-

※ 2015~2020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33|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전체		(374)	61.2	14.7	14.4	5.1	4.5
대상별	일반국민	(342)	59.4	15.8	15.5	4.7	4.7
	전문가	(32)	81.3	3.1	3.1	9.4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75)	66.7	13.3	14.7	4.0	1.3
	중	(179)	54.2	16.8	16.2	5.0	7.8
	하	(88)	63.6	15.9	14.8	4.5	1.1
성별	남성	(207)	57.0	15.5	17.4	5.3	4.8
	여성	(135)	63.0	16.3	12.6	3.7	4.4
연령별	20대 이하	(68)	66.2	14.7	8.8	2.9	7.4
	30대	(58)	58.6	13.8	15.5	5.2	6.9
	40대	(66)	62.1	15.2	16.7	4.5	1.5
	50대	(72)	52.8	23.6	18.1	1.4	4.2
	60대 이상	(78)	57.7	11.5	17.9	9.0	3.8
지역별	서울	(66)	57.6	18.2	9.1	3.0	12.1
	경기/인천	(49)	61.2	14.3	18.4	4.1	2.0
	부산/울산/경남	(74)	43.2	27.0	25.7	4.1	-
	대구/경북	(25)	36.0	16.0	16.0	4.0	28.0
	광주/전라	(29)	58.6	20.7	6.9	13.8	-
	대전/충청/세종	(57)	73.7	3.5	19.3	3.5	-
	강원/제주	(42)	83.3	7.1	4.8	4.8	-
지역크기	대도시	(154)	51.3	17.5	16.2	4.5	10.4
	중·소도시	(186)	66.7	14.0	15.1	4.3	-
	읍/면	(2)	-	50.0	-	50.0	-
직업별	농/어/임업	(14)	64.3	28.6	-	7.1	-
	자영업자	(54)	51.9	18.5	20.4	3.7	5.6
	판매/서비스직	(56)	64.3	8.9	19.6	1.8	5.4
	기능/숙련공	(35)	51.4	14.3	25.7	8.6	-
	일반 노무직	(9)	33.3	-	66.7	-	-
	사무/기술직	(85)	64.7	14.1	7.1	3.5	10.6
	경영/관리직	(3)	33.3	33.3	-	33.3	-
	전문/자유직	(2)	50.0	-	50.0	-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46)	65.2	17.4	10.9	6.5	-
	학생	(21)	61.9	23.8	4.8	4.8	4.8
	무직/휴직/은퇴	(17)	52.9	23.5	17.6	5.9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11)	45.5	9.1	45.5	-	-
	고등학교	(117)	65.8	11.1	15.4	5.1	2.6
	전문대	(79)	53.2	22.8	17.7	5.1	1.3
	4년제 대학교	(133)	57.9	16.5	12.0	4.5	9.0
	대학원 이상	(2)	100.0	-	-	-	-
생활수준별	상	(29)	51.7	24.1	13.8	6.9	3.4
	중	(121)	63.6	16.5	9.1	4.1	6.6
	하	(192)	57.8	14.1	19.8	4.7	3.6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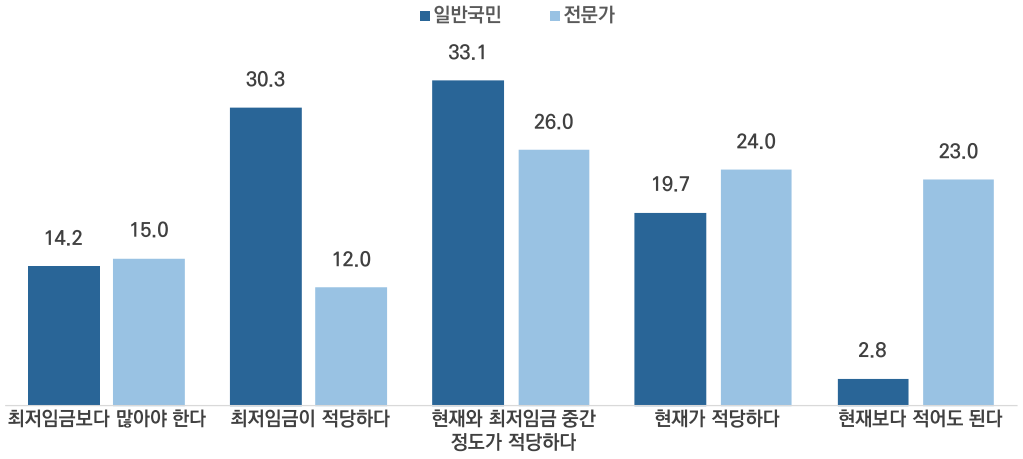
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33.1%, 전문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적당하다'(30.3%), '현재가 적당하다'(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p(2023년 37.5%) 감소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p(2023년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재가 적당하다'(24.0%),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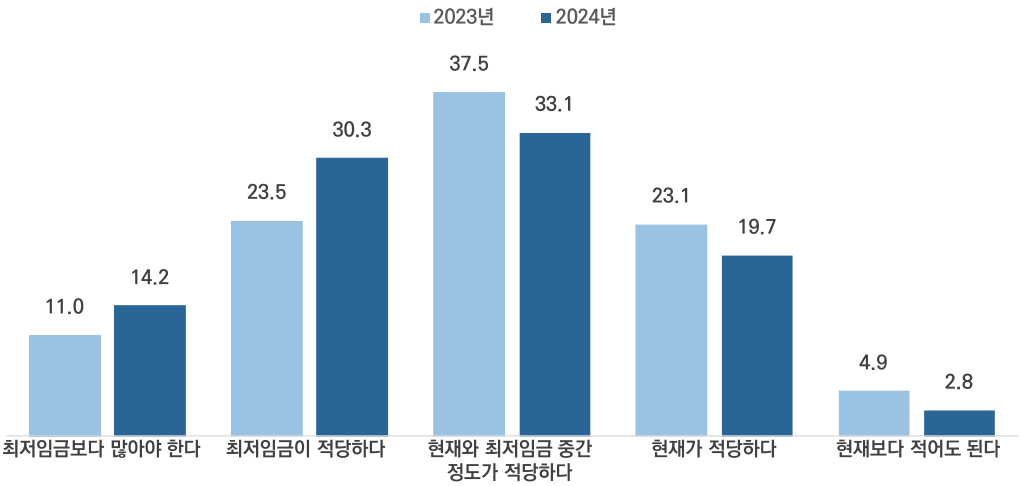
|그림 3-35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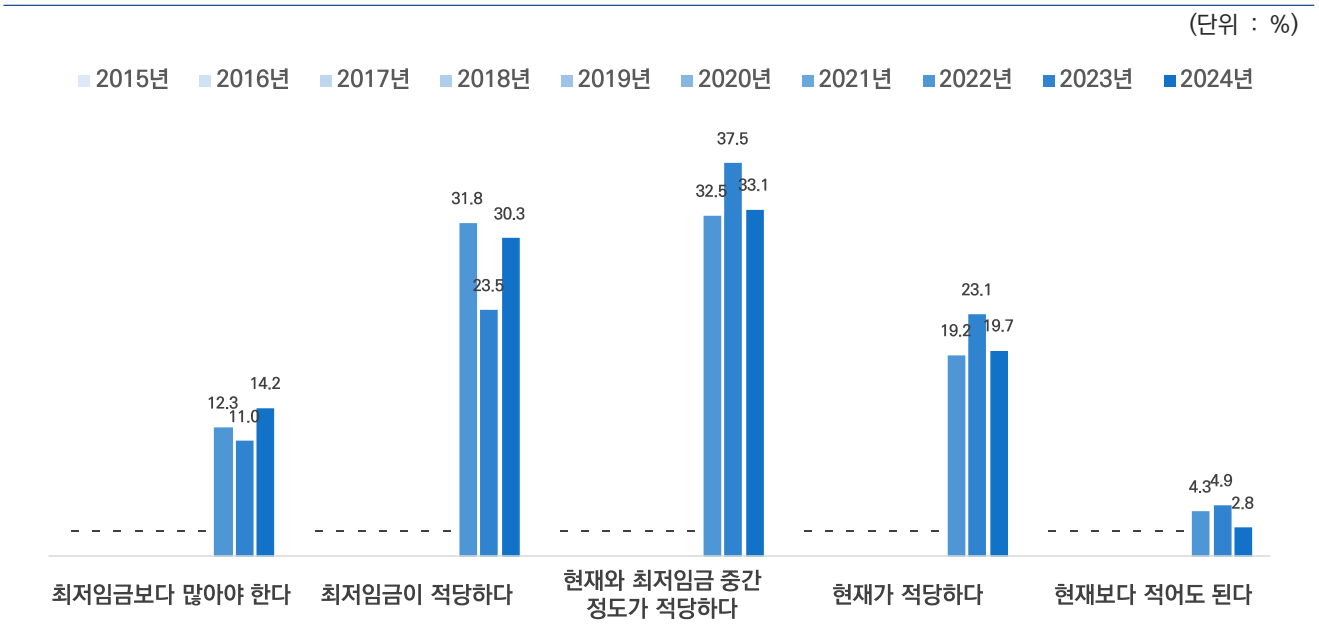
|그림 3-355|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일반국민 – 전체 비교] 2022년 대비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p 증가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적당하다'와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6|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표 3-23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2023 ②	2024 ③	GAP ③–②	GAP ③–①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	–	–	–	–	–	–	12.3	11.0	14.2	3.2	1.9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	–	–	–	–	–	–	31.8	23.5	30.3	6.8	-1.5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	–	–	–	–	–	–	32.5	37.5	33.1	-4.4	0.6
현재가 적당하다	–	–	–	–	–	–	–	19.2	23.1	19.7	-3.4	0.5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	–	–	–	–	–	–	–	4.3	4.9	2.8	-2.1	-1.5

※ 2015~2021년은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음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35|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현재가 적당하다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
전체		(1,300)	14.2	28.9	32.5	20.0	4.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2	30.3	33.1	19.7	2.8
	전문가	(100)	15.0	12.0	26.0	24.0	2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3.9	30.6	34.7	18.5	2.3
	중	(580)	11.7	30.7	35.3	20.3	1.9
	하	(231)	20.8	29.0	24.7	19.9	5.6
성별	남성	(720)	13.8	30.6	32.1	20.6	3.1
	여성	(480)	14.8	30.0	34.6	18.3	2.3
연령별	20대 이하	(217)	16.6	28.6	34.6	18.4	1.8
	30대	(194)	13.4	27.3	37.6	19.6	2.1
	40대	(226)	13.3	31.0	33.2	19.0	3.5
	50대	(255)	13.3	31.0	32.2	20.8	2.7
	60대 이상	(308)	14.3	32.5	29.9	20.1	3.2
지역별	서울	(140)	5.0	37.9	31.4	23.6	2.1
	경기/인천	(245)	11.4	28.2	42.9	13.9	3.7
	부산/울산/경남	(208)	19.7	28.8	32.2	19.2	-
	대구/경북	(141)	13.5	24.8	29.8	24.1	7.8
	광주/전라	(170)	15.3	32.9	31.2	20.6	-
	대전/충청/세종	(205)	16.6	30.7	29.8	20.0	2.9
	강원/제주	(91)	16.5	30.8	27.5	20.9	4.4
지역크기	대도시	(524)	10.3	29.4	37.8	19.5	3.1
	중·소도시	(639)	17.8	31.5	28.0	20.0	2.7
	읍/면	(37)	5.4	24.3	54.1	16.2	-
직업별	농/어/임업	(50)	14.0	26.0	30.0	22.0	8.0
	자영업자	(185)	7.6	40.5	33.5	16.8	1.6
	판매/서비스직	(194)	21.1	25.3	34.5	17.0	2.1
	기능/숙련공	(127)	19.7	29.9	27.6	18.9	3.9
	일반 노무직	(41)	9.8	34.1	39.0	12.2	4.9
	사무/기술직	(283)	11.0	26.5	37.1	22.3	3.2
	경영/관리직	(19)	15.8	36.8	26.3	15.8	5.3
	전문/자유직	(7)	42.9	-	28.6	14.3	14.3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69)	11.8	36.1	28.4	23.1	0.6
	학생	(73)	24.7	21.9	38.4	15.1	-
	무직/휴직/은퇴	(52)	7.7	30.8	26.9	28.8	5.8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1.9	30.5	28.8	23.7	5.1
	고등학교	(440)	13.4	33.4	31.8	19.8	1.6
	전문대	(266)	15.8	32.7	35.0	13.5	3.0
	4년제 대학교	(427)	14.3	26.0	33.3	23.0	3.5
	대학원 이상	(8)	12.5	12.5	62.5	12.5	-
생활수준별	상	(73)	5.5	47.9	35.6	6.8	4.1
	중	(544)	9.9	28.5	37.3	21.9	2.4
	하	(583)	19.2	29.8	28.8	19.2	2.9

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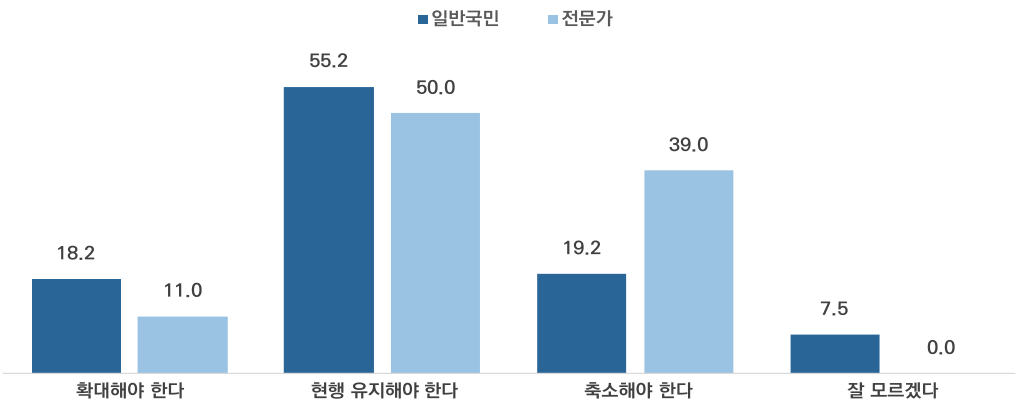
1)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55.2%, 전문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에 대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축소해야 한다'(19.2%), '확대해야 한다'(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로 9.9%p(2023년 8.3%) 증가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19.2%로 8.3%p(2023년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소해야 한다'(39.0%), '확대해야 한다'(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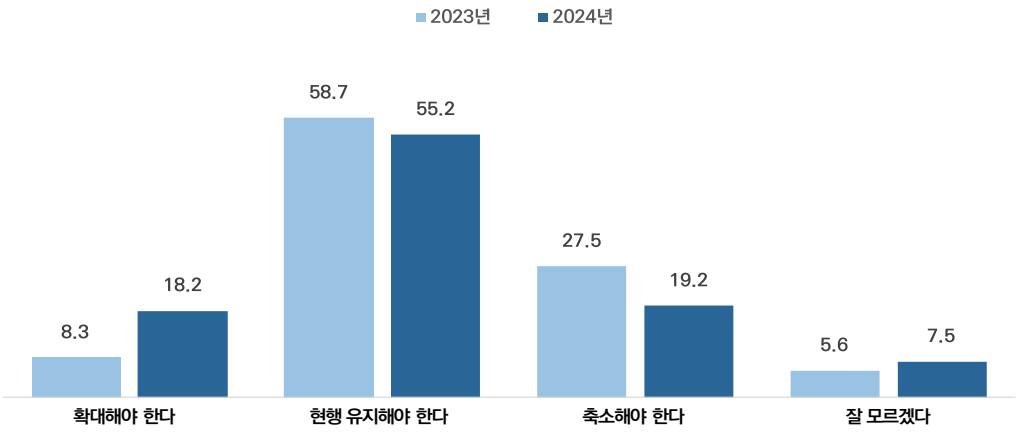
|그림 3-35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 3-358|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에 대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6|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확대해야 한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17.6	54.8	20.7	6.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2	55.2	19.2	7.5
	전문가	(100)	11.0	50.0	39.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15.4	58.1	21.6	4.9
	중	(580)	20.0	56.4	16.2	7.4
	하	(231)	18.2	47.2	22.5	12.1
성별	남성	(720)	17.5	56.1	20.4	6.0
	여성	(480)	19.2	53.8	17.3	9.8
연령별	20대 이하	(217)	25.3	54.4	11.5	8.8
	30대	(194)	17.5	56.2	18.0	8.2
	40대	(226)	19.5	57.5	19.0	4.0
	50대	(255)	15.3	52.5	25.9	6.3
	60대 이상	(308)	14.9	55.5	19.8	9.7
지역별	서울	(140)	12.1	49.3	22.9	15.7
	경기/인천	(245)	20.0	54.7	22.0	3.3
	부산/울산/경남	(208)	13.5	66.3	12.0	8.2
	대구/경북	(141)	26.2	48.9	14.2	10.6
	광주/전라	(170)	19.4	56.5	21.8	2.4
	대전/충청/세종	(205)	18.0	54.1	22.4	5.4
	강원/제주	(91)	18.7	49.5	17.6	14.3
지역크기	대도시	(524)	15.6	55.5	19.3	9.5
	중·소도시	(639)	21.3	53.8	18.9	5.9
	읍/면	(37)	-	73.0	21.6	5.4
직업별	농/어/임업	(50)	18.0	44.0	30.0	8.0
	자영업자	(185)	16.8	52.4	27.0	3.8
	판매/서비스직	(194)	17.5	62.9	14.9	4.6
	기능/숙련공	(127)	12.6	59.1	25.2	3.1
	일반 노무직	(41)	17.1	58.5	22.0	2.4
	사무/기술직	(283)	19.1	55.1	17.0	8.8
	경영/관리직	(19)	26.3	47.4	26.3	-
	전문/자유직	(7)	28.6	57.1	14.3	-
	군인/경찰/소방	(-)	-	-	-	-
	전업주부	(169)	19.5	52.7	16.0	11.8
	학생	(73)	27.4	50.7	8.2	13.7
	무직/휴직/은퇴	(52)	13.5	51.9	15.4	19.2
	기타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59)	13.6	47.5	18.6	20.3
	고등학교	(440)	16.1	54.3	23.4	6.1
	전문대	(266)	16.2	61.7	15.4	6.8
	4년제 대학교	(427)	22.2	53.6	16.4	7.7
	대학원 이상	(8)	12.5	25.0	62.5	-
생활수준별	상	(73)	20.5	49.3	21.9	8.2
	중	(544)	19.5	54.2	18.9	7.4
	하	(583)	16.6	56.8	19.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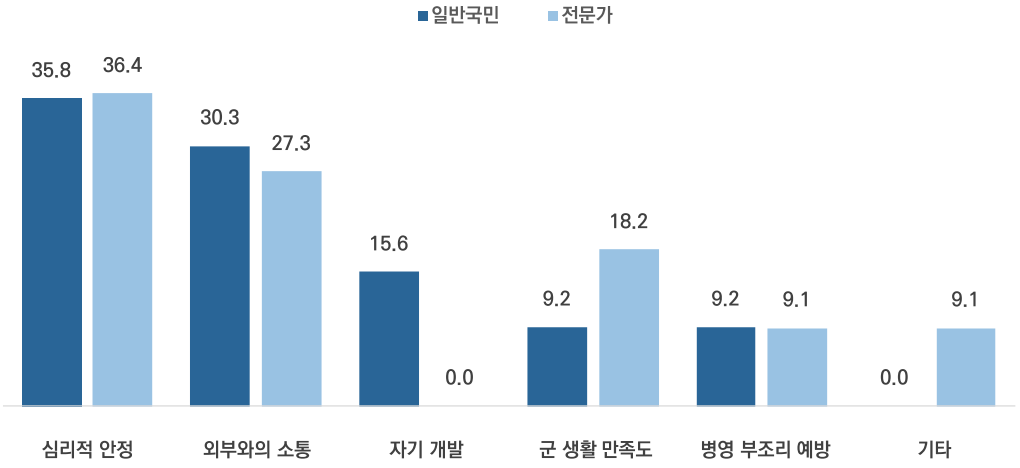
2)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로 '심리적 안정'이 일반국민은 35.8%, 전문가는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로 '심리적 안정'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부와의 소통'(30.3%), '자기 개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년도 비교]** 2023년 대비 '심리적 안정'이 14.6%p(2023년 21.2%) 증가하였으며, '병영 부조리 예방'은 16.1%p(2023년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심리적 안정'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부와의 소통'(27.3%), '군 생활 만족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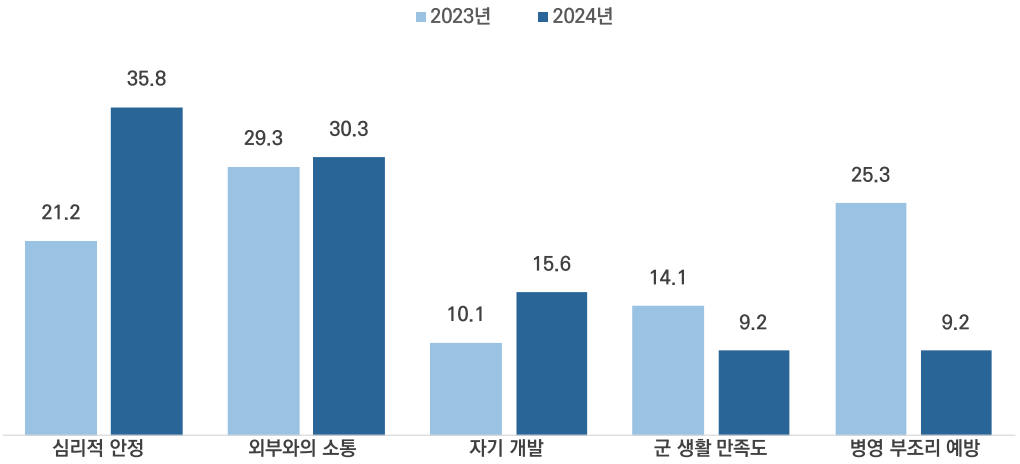
|그림 3-359|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

(단위 : %)



|그림 3-360|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_일반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로 '심리적 안정'이 본인 안보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37|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심리적 안정	외부와의 소통	자기 개발	군 생활 만족도	병영 부조리 예방	기타
전체		(229)	35.8	30.1	14.8	9.6	9.2	0.4
대상별	일반국민	(218)	35.8	30.3	15.6	9.2	9.2	-
	전문가	(11)	36.4	27.3	-	18.2	9.1	9.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	28.3	36.7	18.3	6.7	10.0	-
	중	(116)	44.0	23.3	13.8	11.2	7.8	-
	하	(42)	23.8	40.5	16.7	7.1	11.9	-
성별	남성	(126)	31.0	35.7	13.5	10.3	9.5	-
	여성	(92)	42.4	22.8	18.5	7.6	8.7	-
연령별	20대 이하	(55)	40.0	32.7	14.5	1.8	10.9	-
	30대	(34)	41.2	35.3	11.8	5.9	5.9	-
	40대	(44)	25.0	27.3	22.7	15.9	9.1	-
	50대	(39)	35.9	20.5	17.9	12.8	12.8	-
	60대 이상	(46)	37.0	34.8	10.9	10.9	6.5	-
지역별	서울	(17)	23.5	47.1	29.4	-	-	-
	경기/인천	(49)	53.1	22.4	18.4	-	6.1	-
	부산/울산/경남	(28)	39.3	35.7	3.6	3.6	17.9	-
	대구/경북	(37)	40.5	29.7	5.4	21.6	2.7	-
	광주/전라	(33)	33.3	12.1	27.3	27.3	-	-
	대전/충청/세종	(37)	21.6	43.2	8.1	5.4	21.6	-
	강원/제주	(17)	17.6	35.3	29.4	-	17.6	-
지역크기	대도시	(82)	29.3	32.9	19.5	13.4	4.9	-
	중·소도시	(136)	39.7	28.7	13.2	6.6	11.8	-
	읍/면	(-)	-	-	-	-	-	-
직업별	농/어/임업	(9)	55.6	11.1	11.1	22.2	-	-
	자영업자	(31)	25.8	25.8	19.4	22.6	6.5	-
	판매/서비스직	(34)	23.5	32.4	20.6	5.9	17.6	-
	기능/숙련공	(16)	31.3	50.0	12.5	6.3	-	-
	일반 노무직	(7)	28.6	28.6	14.3	14.3	14.3	-
	사무/기술직	(54)	40.7	31.5	11.1	11.1	5.6	-
	경영/관리직	(5)	20.0	20.0	40.0	-	20.0	-
	전문/자유직	(2)	100.0	-	-	-	-	-
	군인/경찰/소방	(-)	-	-	-	-	-	-
	전업주부	(33)	45.5	21.2	21.2	-	12.1	-
	학생	(20)	30.0	40.0	10.0	5.0	15.0	-
	무직/휴직/은퇴	(7)	57.1	42.9	-	-	-	-
	기타	(-)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8)	50.0	25.0	25.0	-	-	-
	고등학교	(71)	33.8	32.4	15.5	8.5	9.9	-
	전문대	(43)	34.9	32.6	16.3	9.3	7.0	-
	4년제 대학교	(95)	36.8	27.4	14.7	10.5	10.5	-
	대학원 이상	(1)	-	100.0	-	-	-	-
생활수준별	상	(15)	53.3	13.3	13.3	-	20.0	-
	중	(106)	33.0	27.4	18.9	11.3	9.4	-
	하	(97)	36.1	36.1	12.4	8.2	7.2	-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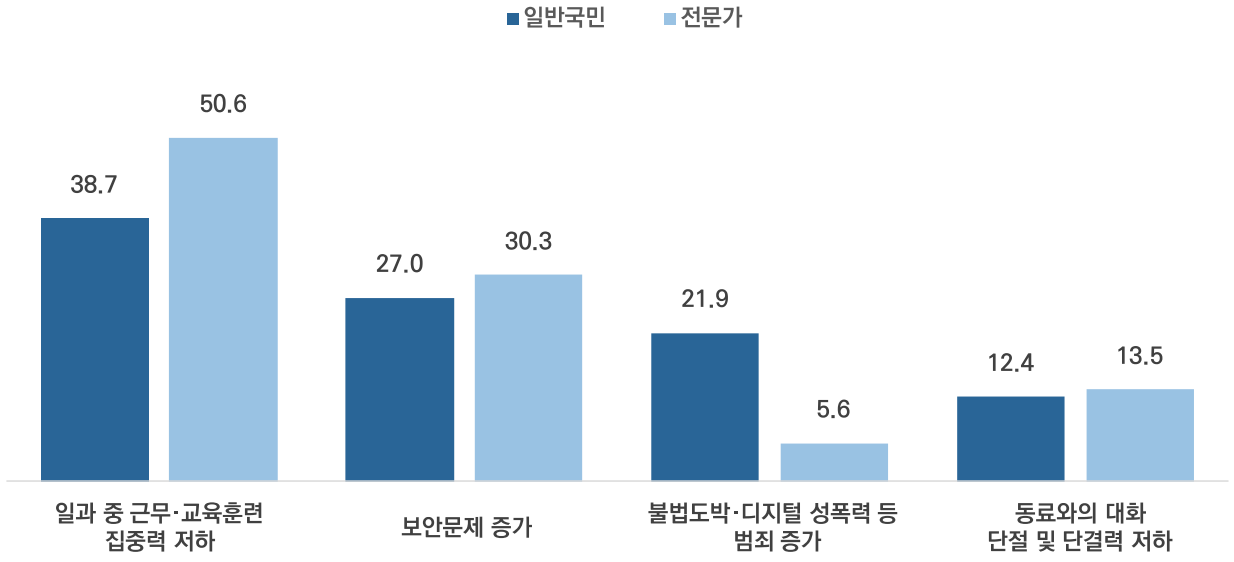
3)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11)]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가 일반국민은 38.7%, 전문가는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안문제 증가'(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안문제 증가'(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61|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



11)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전년도 및 연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8|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보안문제 증가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 등 범죄 증가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기타
전체		(981)	39.8	27.3	20.4	12.5	-
대상별	일반국민	(892)	38.7	27.0	21.9	12.4	-
	전문가	(89)	50.6	30.3	5.6	13.5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10)	40.6	26.1	22.9	10.3	-
	중	(421)	38.0	27.8	20.0	14.3	-
	하	(161)	36.6	26.7	24.8	11.8	-
성별	남성	(551)	38.3	28.1	21.2	12.3	-
	여성	(341)	39.3	25.2	22.9	12.6	-
연령별	20대 이하	(143)	38.5	28.0	18.9	14.7	-
	30대	(144)	29.9	34.0	21.5	14.6	-
	40대	(173)	39.3	26.0	21.4	13.3	-
	50대	(200)	42.0	25.5	21.5	11.0	-
	60대 이상	(232)	40.9	24.1	24.6	10.3	-
지역별	서울	(101)	38.6	26.7	29.7	5.0	-
	경기/인천	(188)	41.5	23.4	22.9	12.2	-
	부산/울산/경남	(163)	41.1	23.3	14.1	21.5	-
	대구/경북	(89)	39.3	32.6	18.0	10.1	-
	광주/전라	(133)	33.8	24.8	26.3	15.0	-
	대전/충청/세종	(157)	28.7	36.3	26.8	8.3	-
	강원/제주	(61)	59.0	21.3	9.8	9.8	-
지역크기	대도시	(392)	38.5	24.0	23.5	14.0	-
	중·소도시	(465)	38.3	29.5	21.1	11.2	-
	읍/면	(35)	45.7	28.6	14.3	11.4	-
직업별	농/어/임업	(37)	37.8	35.1	18.9	8.1	-
	자영업자	(147)	42.2	21.1	27.9	8.8	-
	판매/서비스직	(151)	33.8	27.2	26.5	12.6	-
	기능/숙련공	(107)	39.3	26.2	20.6	14.0	-
	일반 노무직	(33)	39.4	21.2	21.2	18.2	-
	사무/기술직	(204)	38.7	29.4	16.2	15.7	-
	경영/관리직	(14)	50.0	21.4	14.3	14.3	-
	전문/자유직	(5)	60.0	20.0	-	20.0	-
	군인/경찰/소방	(-)	-	-	-	-	-
	전업주부	(116)	37.1	31.0	24.1	7.8	-
	학생	(43)	37.2	30.2	16.3	16.3	-
	무직/휴직/은퇴	(35)	42.9	22.9	22.9	11.4	-
	기타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39)	41.0	17.9	33.3	7.7	-
	고등학교	(342)	39.2	24.9	24.3	11.7	-
	전문대	(205)	33.7	29.8	22.9	13.7	-
	4년제 대학교	(299)	41.8	28.4	16.7	13.0	-
	대학원 이상	(7)	14.3	42.9	28.6	14.3	-
생활수준별	상	(52)	55.8	15.4	11.5	17.3	-
	중	(398)	39.7	28.4	22.1	9.8	-
	하	(442)	35.7	27.1	22.9	14.3	-

※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제4장

부록1. 설문지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용)

ID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소는 안보 관련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1972년 설립된 국방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1989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33조에 의거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안보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박영준

연 구 기 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INSA)

조 사 기 관 : 메트릭스알앤씨

●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답례품 발송 및 설문응답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응답자에게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응답자 성명		휴대폰번호	

※ 아래 상자에 표기된 내용은 면접원이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면접원 성명		조사 일시	2024년 ____ 월 ____ 일
집계구 코드			

		응답란
▣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제주	
▣ 지역크기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 3. 군(郡)지역	

먼저, 귀하께서 면접할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응답란

SQ1. 성별은?

1) 남성 2) 여성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18~19세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74세

만 [ ][ ] 세 ➜ **만 18세 미만, 75세 이상 면접 중단**

먼저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적이다
2) 안정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정한 편이다
5) 매우 불안정하다

문2.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3. 귀하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4. 귀하는 다음과 같은 대외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응답란
1) 강대국의 패권전쟁	1	2	3	4	5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1	2	3	4	5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1	2	3	4	5	
4) 세계 경제 침체	1	2	3	4	5	
5) 국제범죄·테러 증가	1	2	3	4	5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1	2	3	4	5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1	2	3	4	5	
8) 북한 군사적 위협	1	2	3	4	5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1	2	3	4	5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1	2	3	4	5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1	2	3	4	5	
12) 주변국 환경오염	1	2	3	4	5	

문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국내 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응답란
1) 국내정치 불안정	1	2	3	4	5	
2) 부정부패 확산	1	2	3	4	5	
3) 물가상승·경기침체	1	2	3	4	5	
4) 불평등심화·양극화	1	2	3	4	5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1	2	3	4	5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1	2	3	4	5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1	2	3	4	5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1	2	3	4	5	
9) 개인정보 유출	1	2	3	4	5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1	2	3	4	5	
11) 질병·감염병 확산	1	2	3	4	5	
12) 자연재해·환경파괴	1	2	3	4	5	

다음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	응답란
1) 군사안보적 측면	1	2	3	4	5	
2) 경제안보적 측면	1	2	3	4	5	

문7. 만약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	1	2	3	4	5	

문8.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	1	2	3	4	5	

문9. 귀하는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10. 귀하는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11. 귀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한 · 미 양자동맹 강화
2) 한 · 미 · 일 삼자협력 강화
3) 한 · 일 · 중 삼자협력 강화
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5) 한 · 중 양자협력 강화
6) 기타 (내용 기술 :)

문12. 귀하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한 · 미 양자동맹 강화
2) 한 · 미 · 일 삼자협력 강화
3)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4) 한 · 러 양자협력 강화
5) 기타 (내용 기술 :)

다음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3.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13-1(문13에서 4), 5)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미국은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동맹 관계 유지
2)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시 동맹 와해 가능성 농후
3) 동북아 안보정세 따라 미국이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
4) 경제 침체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동맹 와해 가능성 존재
5) 기타 (내용 기술 :)

문14.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2)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1	2	3	4	5	
3)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1	2	3	4	5	
4) 국제테러, 기후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문15.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전시작전통제권: 전시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한국군 및 미군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

1)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2)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4)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5)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6)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7)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 역할 등)
8) 기타 (내용 기술:)

문16.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7. 귀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2)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3)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4)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5) 기타 (내용 기술 :)

문18.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2)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3)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4)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5)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문19. 귀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란
1)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	1	2	3	4	5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한 수준이다. ('24년 기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약 1.3조 원)	1	2	3	4	5	
3)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국군의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	1	2	3	4	5	
4)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1	2	3	4	5	

문20. 귀하는 우리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없는 편이다
4) 전혀 필요없다
5) 잘 모르겠다

문20-1(문20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란

1) 북한 무력도발 빌미 제공
2)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 도발 억제 가능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4) 남북한 대화 협상 저해
5) 기타 (내용 기술 :)

문21. 귀하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전시작전통제권: 전시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한국군 및 미군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

1) 매우 돈독해질 것이다
2) 돈독해질 것이다
3) 현재와 같을 것이다
4) 약화될 것이다
5) 매우 약화될 것이다

다음은 북한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1)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2)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4) 잘 모르겠다

문23.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1)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2)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4) 잘 모르겠다

문24.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2) 안정적일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불안정해질 것이다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25.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3) 보통이다
4)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5)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문26. 다음 의견 중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응답란

1)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
2)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3)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내용 기술:)

문27.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한국이 훨씬 우위
2) 한국이 다소 우위
3) 비슷하다
4) 북한이 다소 우위
5) 북한이 훨씬 우위

문28.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가능성이 높다
3) 가능성이 낮다
4)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29. 대외적으로 **남북한 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남북 교류협력 확대
2)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3) 한·미 동맹체제 강화
4)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5) 기타 (내용 기술:)

문30.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큰 위협이 된다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31. 귀하는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6자 회담국 :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1)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2)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3)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4)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5)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6)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7)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문32. 귀하는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2)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반반이다
4)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5)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33. 귀하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과정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문34.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2)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4) 통일은 불필요하다
5) 잘 모르겠다

문35.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36.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37.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후
6) 불가능하다

문38.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3)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4) 장기간 현상유지
5) 잘 모르겠다

문39.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응답란

1) 적극적 의지가 있다
2) 의지가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의지가 없다
5) 전혀 의지가 없다

다음은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0. 귀하는 **우리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응답란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41. 귀하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2)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3) 군 장병 기본권 신장
4) 장병 인성교육 강화
5) 강한 군대 건설
6) 대민봉사활동 확대
7)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8) 대국민 소통 강화
9) 기타 (내용 기술:)

문42. 귀하는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크게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5) 오히려 손해만 본다

문42-1(문42에서 4), 5)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란

1)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2)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
3)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
4)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재
5) 기타 (내용 기술 :)

문43. 귀하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중에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1) 적극 권장하겠다
2) 권장하겠다
3)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4) 만류하겠다
5) 적극 만류하겠다

문44. 귀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45. 귀하는 **타 직군과 다른 군인의 직접적 특수성(제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군인 특수성: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임무·훈련, 24시간 비상대기(이동제한), 잦은 이사·주거지 제한·가족과 별거, 연령정년제도로 인한 조기 퇴직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46.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을 순서대로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국가·사회적 명예
2) 급여
3) 연금
4) 직업적 안정성
5) 기타 (내용 기술:)

문47.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긍정적이다
2) 대체로 긍정적이다
3) 별 영향 없다
4) 대체로 부정적이다
5) 매우 부정적이다

문48. 군 훈련장 주변 일부 주민단체와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귀하는 **'군사대비태세와 직결된 군사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문49. 귀하는 **우리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제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50.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파병(평화유지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51. 귀하는 우리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52. 귀하는 우리군의 **병력 수('24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부족한 편이다
5) 아주 부족하다

문53.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1)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2)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3)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4) 외국으로 가겠다
5) 잘 모르겠다

문54. 귀하는 **현재 예비군 /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예비군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입니다.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55. 귀하는 예비군 복무시(병사-현역복무 후)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통해 추가 복무 및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란

※ 비상근예비군 제도: 연간 15~180일 이내 지원 복무, 일일 10~15만원 보상비 지급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6. 귀하는 예비군 복무시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보상비 인상, 교통비 지급 등 실보상 대책 확대
2) 비상근예비군 복무 시 사회적 혜택 확대
3) 비상근예비군 복무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4) 비상근예비군 제도 홍보

문57.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국방비는 2023년 기준 GDP(약 2,236조원) 대비 2.55% 수준인 약 57조원입니다.

1)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2)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4)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5)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문58. 귀하는 우리군이 **국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효율적이다
2) 효율적인 편이다
3)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59. 귀하는 **국방예산이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첨단무기체계 확보
2)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3)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4) 국방 연구/개발(R&D)
5) 기타 (내용 기술 :)

문60. 귀하는 **무기선정 등 우리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2)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3)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5) 잘 모르겠다

문61. 귀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62. 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 등)
3) 일간신문
4) 국방일보
5) TV 방송 (KBS, MBC, SBS, 종편 등)
6) KFN TV (위성TV 채널 153)
7)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8)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9)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10) 주변 사람 및 이웃
11) 기타(관련 책자, 영상 등)

문6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홍보 매체를 접한 적**이 있으신지요?

	예	아니오	응답란
1)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1	2	
2) 국방백서	1	2	
3) 국방일보	1	2	
4) KFN 라디오(기존 국방FM)	1	2	
5) KFN TV(기존 국방TV)	1	2	
6)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	2	

문64.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믿을 수 있다	1	2	3	4	5	
2) 청렴하다	1	2	3	4	5	
3) 개방적이다	1	2	3	4	5	
4) 혁신적이다	1	2	3	4	5	
5) 친근하다	1	2	3	4	5	

다음은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5.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2)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5) 매우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문66.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국민개병제: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1)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3) 점진적으로 모병제 /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4) 전면적인 모병제 /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문67. 귀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문제를 보완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1) 여군간부 확대
2) 병역특례 감축
3) 현역판정률 상향
4) 기타 (내용 기술 :)

문68. 귀하는 능력이 탁월한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확대해야 한다
2) 유지해야 한다
3) 축소해야 한다
4) 없애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문69. 귀하는 현재 군대 내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2) 잘 보장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69-1(문69에서 4), 5)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군대 내에서 인권 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2)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3)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4)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5)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6) 기타 (내용 기술 :)

문70. 귀하는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병사: 이병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 * 병사에게는 숙식, 피복 등이 제공
※ 군간부: 하사 187만원, 중사 193만원, 소위 189만원, 중위 198만원
* 군간부 봉급은 1호봉으로 관련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
※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월 206만원

1)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2)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3)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4) 현재가 적당하다
5)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

문71. 귀하는 청년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평일 18:00~21:00, 휴일 08:30~21:00 실시하는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확대해야 한다
2) 현행 유지해야 한다
3) 축소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71-1(문7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외부와의 소통
2) 심리적 안정
3) 자기 개발
4) 병영 부조리 예방
5) 군 생활 만족도
6) 기타 (내용 기술 :)

문71-2(문71에서 2), 3)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보안문제 증가
2)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 등 범죄 증가
3)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4)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5) 기타 (내용 기술 :)

다음은 자료분류용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1) 중졸이하
2)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3) 전문대(재학, 중퇴 또는 졸업)
4) 4년제 대학교(재학, 중퇴 또는 졸업)
5) 대학원 이상

DQ2.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1) 기독교/개신교
2) 불교
3) 천주교/가톨릭
4) 원불교
5) 기타 (내용 기술:)
6) 종교없음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응답란

1)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2) 자영업자(종업원 9명이하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목공, 숙련공 등)
5) 일반 노무직(토목 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 중· 고 교사, 항해사 등)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등)
9) 군인/경찰/소방
10) 전업주부
11) 학생
12) 무직/휴직/은퇴
13) 기타 (내용 기술:)

DQ5. 귀하는 군 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란

1) 예
2) 아니오

DQ5-1. (DQ5에서 '1)' 응답자만) 군 복무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복무를 하셨습니까?

응답란

1) 현역병
2) 부사관(하사관)
3) 준사관
4) 장교
5)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방위병 등
6)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
7) 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8) 기타 (내용 기술:)

DQ6. 귀하 가족의 월소득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세금 내기 전을 말씀해주십시오.)

응답란

1) 소득없음,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8)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 1000만원 이상

DQ7. 귀하의 가정은 생활 수준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DQ8. 귀하의 생각이나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진보적
2) 진보적인 편
3) 중도
4) 보수적인 편
5) 매우 보수적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 결과보고서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발 행 일 : 2024년 12월
발 행 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 행 인 : 임기훈(국방대학교 총장)
편 집 인 : 박영준(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주 소 : (33021)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전 화 : 041-831-6421
인 쇄 처 : 씨오엠
수 행 처 : (주)메트릭스알앤씨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 결과보고서」 00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